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기시감

기출로 시작하는 감각

평가원 기출 분석서

임수민 지음

목차 *Contents*

1 단원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01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007

03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013

2 단원 생명과 윤리

01 삶과 죽음의 윤리 019

02 생명 윤리 022

❶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022

❷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025

03 사랑과 성 윤리 026

❶ 사랑과 성의 관계 026

❷ 결혼과 가족의 윤리 029

3 단원 사회와 윤리

01 직업과 청렴의 윤리 039

02 사회 정의와 윤리 047

❶ 니부어의 사회 정의론 047

❷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 052

03 국가와 시민의 윤리 059

❶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059

4 단원

과학과 윤리

01 과학 기술과 윤리 069

❶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및 기타 069

❷ 요나스의 책임 윤리 073

02 정보 사회와 윤리 075

5 단원

문화와 윤리

0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085

02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091

03 다문화 사회의 윤리 095

❶ 문화 다양성과 존중 095

❷ 종교의 공존과 관용 097

6 단원

평화와 공존의 윤리

01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105

02 민족 통합의 윤리 106

03 지구촌 평화의 윤리 108

❶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108

1 단원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빠른 정답 1단원

01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⑤
06	④	07	④	08	⑤	09	⑤	10	④
11	④	12	③	13	④	14	①	15	③
16	③	17	⑤	18	④	19	③	20	②
21	②	22	①	23	②	24	②		

03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01	①	02	②	03	⑤	04	②	05	①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단원 01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01

정답 및 해설 007p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6평]

• 수업 목표 : 규범 윤리학을 ○○ 윤리학, □□ 윤리학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
(1) ○○ 윤리학
–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다.
예 덕 윤리, 의무론적 윤리, 목적론적 윤리 등
(2) □□ 윤리학
– ㉠
예 생태 윤리, 생명 윤리, 정보 윤리 등

①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②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규명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③ 윤리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서술을 중시한다.
④ 도덕 언어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간주한다.
⑤ 현실적 도덕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을 중시한다.

02

정답 및 해설 007p

(가), (나)에서 강조하고 있는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학년도 9평]

(가) 윤리학은 이제 '하늘의 별'을 고찰할 것이 아니라 '발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즉, 생명 윤리, 성 윤리, 생태 윤리, 정보 윤리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당위가 학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는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 즉,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 엄밀히 탐구해야 한다.

보 기

ㄱ. 다양한 문화권에 존재한 관습들의 특징을 조사하고 기술한다.
ㄴ. 현대 사회의 실천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ㄷ. '선하다', '옳다' 등과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ㄹ. 우리가 따라야 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정립한다.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정답 및 해설 008p

갑, 을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학년도 수능]

갑 : 오늘날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따라서 윤리학은 생태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등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해. 즉, 윤리학은 이론 지향적이 아니라 실천 지향적이어야 해.
을 : 나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따라서 윤리학은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선하다'는 말이 참, 거짓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명제처럼 검증 가능한 성질의 것인지를 물어야 해.

보 기

ㄱ. 특정 시대의 관습에 대해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ㄴ.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 삶의 도덕 문제를 해결한다.
ㄷ.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논리적 타당성을 엄밀히 분석한다.
ㄹ.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서 객관적인 도덕법칙을 정립한다.

	(갑)	(을)			(갑)	(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정답 및 해설 008p

'심화 학습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6평]

• 윤리학의 구분
(1) [A]
예 의무론, 공리주의 등
(2) [B]
예 생명 윤리, 환경 윤리 등
(3) 메타 윤리학
… (중략) …
• 심화 학습 문제 : A, B의 주요 탐구 과제는 무엇일까?

보 기

ㄱ. 사회 규범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ㄷ.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도덕 법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ㄹ. 도덕 원리를 적용해 실생활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A	B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정답 및 해설 009p

다음 대화에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9평]

갑 :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학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을 : 윤리 문제는 '좋음', '옳음' 등과 같은 도덕 언어의 분석, 도덕규범에 관한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갑 : 네 의견에 동의해.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도덕규범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새로운 윤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을 : 그렇지. 생명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등과 같은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날 윤리학은 [㉠]

①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서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해.
② 인접 학문 영역과는 분리된 윤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해.
③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해.
④ 윤리학이 하나의 객관적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해야 해.
⑤ 구체적 도덕 문제에 도덕규범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해.

06

정답 및 해설 010p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수능]

20세기 들어 '윤리학이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언어의 의미 분석에 몰두하는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이 윤리학은 [(가)]를 주요 탐구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도덕 언어의 분석이나 기존의 도덕 이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덕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안락사, 임신 중절 등과 같은 현실적 삶에 등장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학은 [(나)]를 주요 탐구 과제로 삼는다.

보 기

ㄱ.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인 객관적 도덕규범을 정립하는 것
ㄴ. 도덕 추론의 논증 가능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것
ㄷ. 특정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설명하는 것
ㄹ.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실천적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정답 및 해설 010p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6평]

윤리학은 사회과학과는 달리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가?', 혹은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옳은 방안은 무엇인가?'와 같은 규범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근대 이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들을 명확히 기술하고 그러한 사실들 간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①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중립적 설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② 도덕 언어의 개념 분석과 도덕 논증의 타당성 입증을 중시하고 있다
③ 도덕 원리의 정립보다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도덕 관행에 대한 기술보다 삶의 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도덕 법칙이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8

정답 및 해설 011p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9평]

갑 : "낙태는 나쁘다."라는 진술은 낙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 왜냐하면 그러한 진술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을 : 너는 윤리학이 당위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우리는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

병 : 나도 을의 입장에 동의해. 하지만 낙태와 같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고려하면서 도덕규범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 기

ㄱ. 갑은 각 사회의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강조한다.
ㄴ. 을은 도덕 판단의 준거와 행위의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다.
ㄷ. 병은 윤리학과 인접 학문들의 학제적인 연계를 중시한다.
ㄹ. 을, 병은 도덕 판단을 위한 도덕규범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9

정답 및 해설 012p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수능]

'거짓말은 나쁜가?'와 같은 도덕 문제에 답하려면 관련된 문제들에 답해야 한다. 어떤 학자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유용성, 정언명령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다른 학자들은 "나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금지, 혐오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답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와 같은 물음에 답하는 윤리학의 분야가 필요하다.

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인가?
②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소한 거짓말도 나쁘다.'라는 추론이 타당한가?
③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④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는 무엇인가?
⑤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이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가?

10

정답 및 해설 012p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6평]

윤리학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덕 언어의 논리적 명료화에 주력하는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당시 윤리학은 도덕 판단이 단지 감정의 표현이나 명령일 뿐이므로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①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도덕적 추론에 대한 가치중립적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③ 도덕적 풍습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④ 도덕 언어의 분석보다 도덕 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⑤ 도덕적 지식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하였다

11

정답 및 해설 013p

다음의 토론 주제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9평]

토론 주제 : 윤리학, 그 주요 탐구 과제는 무엇인가?

갑 : 저는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의 본질은 어떤 원리가 도덕적 실천을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을 : 저는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실천적 문제에 적용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① 갑 : 다양한 문화권을 탐방하여 각국의 실천적 관습을 조사해야 한다.
② 갑 : '옳다', '유덕하다' 같은 도덕적 술어의 의미를 검증해야 한다.
③ 을 :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해야 한다.
④ 을 :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⑤ 갑, 을 : 의무, 공리, 덕성 등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해야 한다.

12

정답 및 해설 014p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수능]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원리와 토대를 제공하고 일반화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기존의 이론 중심 윤리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덕적 문제 상황들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윤리적 과제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윤리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윤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윤리학은 [㉠]

① 도덕 명제에 대한 검증 가능성과 분석적 접근을 강조한다.
② 도덕적 탐구가 학문적으로 정립 가능한 분야임을 부정한다.
③ 도덕규범의 현실적인 적용과 구체적인 대안의 실천을 강조한다.
④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 윤리 이론의 응용 가능성을 부정한다.
⑤ 도덕적 관행을 가치와 무관한 문화적 사실로 볼 것을 강조한다.

13

정답 및 해설 014p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6평]

나는 윤리학의 문제가 올바른 대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 분석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윤리학의 주된 과제는 도덕 이론을 전개하거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와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 경제, 의료, 환경 등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① 언어 분석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윤리적 문제 상황에 도덕 이론을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③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될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도덕 이론의 적용보다 도덕 언어의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⑤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률을 과학적으로 서술해야 함을 강조한다

14

정답 및 해설 015p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9평]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유덕한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학은 덕을 함양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학 이론들은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나 원리만을 강조하여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 이론들이 [㉠]고 생각한다.

① 도덕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②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가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③ 도덕적 실천을 위해 맥락적 사고의 배제가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④ 도덕적 관행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⑤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15

정답 및 해설 015p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수능]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도덕적 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 도덕이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어떤 문화나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고 생각한다.

①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 구조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②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탐구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③ 실천적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④ 현실적 도덕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설명의 필요성을 무시한다
⑤ 보편적 도덕규범의 이론적 체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6

정답 및 해설 016p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6평]

갑 : 윤리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보다 개인의 생활,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해 온 도덕적 관행들을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여 서술해야 한다.

을 :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 조사와 도덕적 개념 분석에 집중하기보다 윤리적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덕 규칙의 근거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① 갑 : 도덕 현상을 기술할 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갑 : 도덕적 관습 비교보다 윤리적 개념 분석을 중시해야 한다.
③ 을 :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④ 을 : 도덕적 명제의 논리 구조와 의미 분석이 탐구 목적이어야 한다.
⑤ 갑, 을 : 인간의 가치 판단을 배제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17

정답 및 해설 016p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평]

나는 윤리학이란 규범 윤리적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부터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고 생명 복제, 사회 불평등 등과 같은 실제적인 도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들의 입장이 [㉠]고 생각한다.

①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② 당위의 학문이라는 윤리학의 본질적 성격을 간과한다
③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원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④ 규범 윤리학 이론과 도덕적 실천의 유기적 연관성을 간과한다
⑤ 도덕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18

정답 및 해설 017p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수능]

(가) 윤리학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바람직한 삶의 이상을 제안하고 올바른 판단과 행위의 근거인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실생활의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환경오염, 연명 치료 중단, 사형 제도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규범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① (가) :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② (가) :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실태 조사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③ (나) :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④ (나) : 윤리학은 현실 문제에 대한 도덕 원리의 적용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⑤ (가), (나) :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결론 도출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19

정답 및 해설 017p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6평]

(가)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와 같이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생명 윤리, 환경 윤리, 정보 윤리와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

① (가) : 윤리학은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② (가) :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의 탐구가 윤리학의 핵심 목표이다.
③ (나) :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④ (나) : 윤리적 문제의 해결은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하다.
⑤ (가), (나) :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중점 과제로 삼는다.

20

정답 및 해설 018p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9평]

윤리학은 실천의 학으로 도덕 이론을 응용하여 실제 삶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실제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도덕적 관행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① 도덕 이론과 도덕 문제 간의 유기적 상관성을 강조한다
②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판단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③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한다
⑤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간과한다

21

정답 및 해설 018p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수능]

갑 : 윤리학은 윤리 이론의 탐구보다는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 이론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공학, 법학 등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을 :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사람들이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설명해야 한다.

① 갑 :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② 갑 :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
③ 을 :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④ 을 :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응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⑤ 갑, 을 :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22

정답 및 해설 019p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6평]

(가)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 즉 '좋다', '옳다'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① (가)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이다.
② (가)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이다.
③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다.
④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⑤ (가),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다.

23

정답 및 해설 019p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9평]

(가) 윤리학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① (가) : 도덕적 신념과 관습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한다.
② (가) :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③ (나) : 도덕 규칙이나 평가의 표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④ (나) :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⑤ (가), (나) :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4

정답 및 해설 020p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

나는 윤리학이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적 원리를 탐구하기보다는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추론의 규칙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 · 문화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탐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① 도덕 문제 탐구에 사회 · 자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② 도덕 문제 해결보다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③ 도덕 현상은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이 아님을 간과한다
④ 도덕 문제 해결에는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⑤ 도덕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삶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한다

1단원 03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01

정답 및 해설 020p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반박할 경우 그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5학년도 6평]

(가)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한 사람 이외의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나)	소수의 다양한 의견은 진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진리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수의 발언 기회가 제한되어야 한다.

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합의해야 진리가 된다.
② 소수의 의견이 진리이고 다수의 의견이 오류일 수 있다.
③ 자유 토론의 과정에서 진리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④ 자유로운 논박을 통해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가 가능하다.
⑤ 소수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진리일 수 있다.

02

정답 및 해설 021p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6평]

A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리의 관점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진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 :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 소수 의견이 옳을 경우 인류는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A : 하지만 그 소수 의견이 옳지 않다면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B : 설령 그 의견이 옳지 않다고 할지라도 논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인류는 [㉠]

① 다수의 의견에 대한 복종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② 기존의 진리가 지닌 가치와 의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③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마저 동의해야 진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④ 다수에 의해 확립된 의견이 진리의 표준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⑤ 사회적 유용성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03

정답 및 해설 022p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수능]

>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침묵시키려는 의견이 오류라고 확신할 수 없고, 설령 오류라고 해도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공인된 견해도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그것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① 토론에서는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은 침묵시켜야 한다.
② 토론의 전제 조건은 참이라고 검증된 진술만을 발언하는 것이다.
③ 토론에서는 진리로 공인된 견해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④ 토론의 자유와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이 진리 추구의 조건이다.
⑤ 토론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 의견도 진리 탐구에 기여한다.

04

정답 및 해설 022p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충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

> 재물이나 명성과 명예는 최대한 많아지도록 마음을 쓰면서도 지혜와 진리, 자신의 영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
> 〈사례〉
>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던 피고 A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악마 같다고 비난했으나, 그는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자신이 비난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① 영혼의 훌륭함보다는 명성과 명예를 추구해야 한다.
② 자신의 행동에서 지혜롭지 못한 것은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③ 옳음보다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
④ 직위와 결부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정한 규범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05

정답 및 해설 023p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5학년도 수능]

> ○○신문 ○○○○년 ○○월 ○○일
>
> **칼럼**
>
>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 인간은 함께 노력해야만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합리주의는 비판적 논증과 반박에 귀를 기울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용의가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경험 세계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명제의 경우, 이는 언제든 반박될 수 있어야 한다. 경험 과학 이론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뒤집어질 수 있다. 이론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증 가능성이다. 이론에 대한 모든 관찰은 그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반증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① 실험 결과에 의해 예측이 반증된 경험 과학 이론은 거부된다.
② 논박이 불가능한 경험 과학적 가설만을 진리로 확정해야 한다.
③ 비판은 원천적으로 반증 불가능한 사실 명제에 근거해야 한다.
④ 진리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상대주의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⑤ 오류임이 증명되지 않은 과학 이론은 반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Memo

생명과 윤리

빠른 정답 2단원

01 삶과 죽음의 윤리

01	②	02	④	03	⑤	04	④	05	⑤
06	④	07	③	08	①	09	③	10	③
11	⑤								

02 생명 윤리
❶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01	①	02	②	03	②	04	⑤	05	②
06	①	07	③	08	②	09	③	10	④
11	⑤	12	⑤	13	①	14	⑤		

02 생명 윤리
❷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01	④	02	④

03 사랑과 성 윤리
❶ 사랑과 성의 관계

01	①	02	⑤	03	②	04	⑤	05	⑤
06	⑤	07	①	08	④	09	①	10	④
11	③	12	②	13	①				

03 사랑과 성 윤리
❷ 결혼과 가족의 윤리

01	②	02	⑤	03	④	04	②	05	⑤
06	②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②	12	③	13	③	14	①	15	⑤
16	⑤	17	①	18	③	19	④	20	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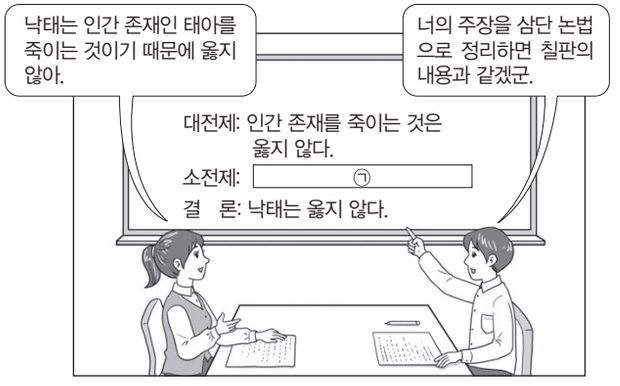
2단원 01 삶과 죽음의 윤리

01

정답 및 해설 027p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9평]



① 잠재적 인간인 태아도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② 태아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므로 인간 존재로 볼 수 없다.
③ 낙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도덕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
④ 태아는 수정과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존재이다.
⑤ 사회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인간 존재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02

정답 및 해설 028p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u>않은</u> 것은? [2014학년도 수능]

수행 평가

◎ 문제 : 낙태에 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 갑 : 나는 낙태가 임신한 여성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선택 옹호주의'를 지지한다.
> 을 : 나는 임신한 여성의 선택보다는 태아의 생명이 도덕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명 옹호주의'를 지지한다.

• 학생 답안

낙태에 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 <u>갑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제로 낙태를 찬성한다</u>. 이에 비해 ㉡ <u>을은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전제로 낙태를 반대한다</u>. 갑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 <u>여성은 남성처럼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는 주장이 있으며</u>, 을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 <u>태아는 출생 이후에 비로소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게 되어 생명권을 획득한다는 주장이 있다</u>. 갑, 을의 입장을 정리하면 ㉤ <u>갑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을은 태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주장한다</u>.

① ㉠ ② ㉡ ③ ㉢ ④ ㉣ ⑤ ㉤

03

정답 및 해설 029p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6평]

①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없다.
② 환자의 요구에 반하여 안락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
③ 환자가 뇌사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
④ 시한부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다.

04

정답 및 해설 030p

다음은 서양 근대 사상가와의 가상 대담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6평]

> 사회자 : 선생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리와 함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때 자율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사상가 : 자율성이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옳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그렇다면 선생님은 돈이 필요해 장기 이식을 스스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상가 : 그 행위는 ㉠

①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우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② 장기 제공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으므로 허용해야 합니다.
③ 장기가 필요한 환자를 살릴 수 있으므로 허용해야 합니다.
④ 장기 제공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⑤ 자연의 섭리에 위배되는 인위적 조작이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05

정답 및 해설 031p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6평]

갑 : 오늘날 장기 이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을 :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실용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에 심폐사를 죽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갑 : 아닙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람의 인격은 심장이 아니라 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뇌의 명령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존엄한 것입니다. 또한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 판정이 악용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뇌사 인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가?
② 인간의 생명을 유용성에 의해 평가해서는 안 되는가?
③ 뇌사를 인정할 경우 다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④ 인간의 인격은 뇌가 아니라 심장에 의존하는가?
⑤ 심폐사보다 뇌사가 죽음의 기준으로 적절한가?

06

정답 및 해설 033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9평]

갑 : 몇 해 전 우리나라 법원은 환자가 원한다면 자기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걸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어. 이것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고,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올바른 판결로 봐야 해.
을 : 인간의 생명을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야. 아무리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므로 자기 생명은 자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야.

보 기

ㄱ. 갑 : 개인은 자기 생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ㄴ. 갑 : 안락사 허용은 결과적 이익을 고려한 결정임을 주장한다.
ㄷ. 을 : 생명의 종식 여부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한다.
ㄹ. 을 :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도덕적 행위임을 주장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7

정답 및 해설 035p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8학년도 9평]

갑 :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는 인위적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과 연명치료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두는 것이 있다. 전자는 비도덕적인 살인이기에 금지되지만, 후자는 자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을 :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불필요한 고통을 없앤다는 명분으로도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모두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보 기

ㄱ.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뜻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
ㄴ. 안락사가 허용되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
ㄷ. 환자가 회생할 가망이 없을 경우 연명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ㄹ.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방법은 허용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8

정답 및 해설 036p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9학년도 수능]

심장과 폐가 활동한다 해도, 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상실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로 볼 수 없다. 생명체의 활동에 있어서 뇌가 결정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뇌사자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아 보다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으므로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뇌사의 오판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뇌사판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 기

ㄱ.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ㄴ. 뇌사 판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는가?
ㄷ. 뇌사자 장기 이식은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을 저해하는가?
ㄹ. 심폐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만을 죽음으로 판정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9

정답 및 해설 037p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갑 : 태아는 인간 생명체이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기에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태아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안 되지만, 임신부의 질병 등으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나중에 더 좋은 상황에서 임신하려는 경우라면 임신 중절은 허용됩니다.

을 : 태아가 잠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잠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태아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 기

ㄱ. 갑 :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ㄴ. 을 : 태아는 특별한 방해가 없는 한 하나의 인격체로 자랄 것이다.
ㄷ. 을 : 태아는 합리적 · 자의식적인 존재이기에 해쳐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 태아를 단순한 세포 조직처럼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정답 및 해설 038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9평]

갑 : 의사는 질병에 관한 전문 지식을 지니지만 환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그 자녀의 선을 위해 간섭하듯이, 의사도 환자의 선을 위해 온정적으로 간섭해야 합니다.

을 : 물론 전문 지식은 차이가 있고 의학적인 온정적 간섭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갖기 때문에, 그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갑 : 환자 역시 인간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치료에 있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의견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의 사명은 질병 치료이니까요.

을 : 질병 치료가 의사의 사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건강 이외에도 다른 여러 목적을 갖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보다는 환자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① 질병 치료가 의사의 본질적 사명인가?
② 의사의 온정적 간섭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③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④ 의사와 환자는 의학적 전문 지식에 있어서 비대칭적인가?
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환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가?

11

정답 및 해설 040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갑 : 몸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장기 기증의 권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장기는 몸의 부분이고 몸은 인간 존엄성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을 : 몸은 인간 존엄성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돼야 합니다. 몸 자체와 달리 몸의 부분은 자발적으로 기증하면 존엄성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갑 : 전체도 부분으로 이루어지므로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의 이식은 존엄성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기증의 허용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을 : 물론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몸의 소유권은 장기를 기증할 자기 결정권을 당연히 함의합니다. 이러한 자기 결정권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①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② 장기 매매는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③ 개인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가?
④ 몸 자체는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토대인가?
⑤ 개인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자유를 지니는가?

2단원 02 생명 윤리

❶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01 정답 및 해설 042p

(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내릴 도덕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6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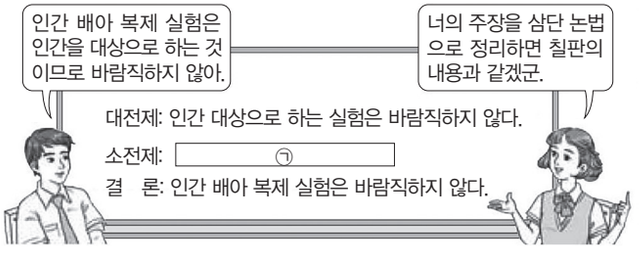
(가) 모든 사물에는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도토리의 목적이 나무가 되는 것이라면, 도토리는 한 그루의 나무와 다름없다.

〈문제 상황〉
최근 난치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배아가 파괴되거나, 실험이 완료된 후에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① 배아는 인간이 될 존재이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지 않다.
② 과학 발전을 위한 순수한 연구이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다.
③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다.
④ 배아는 신성한 생명권을 갖지 않으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다.
⑤ 배아 기증자를 수단으로 취급하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지 않다.

02 정답 및 해설 04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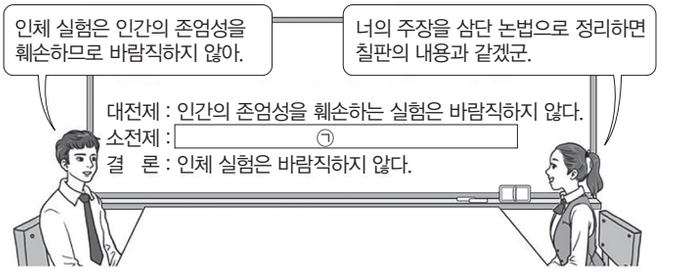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9평]



① 인간 배아는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② 출생하기 이전의 어떤 존재도 인간으로 볼 수 없다.
③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
④ 인간 배아는 잠재적인 인간이므로 인간의 범주에 포함된다.
⑤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에 속한다.

03 정답 및 해설 043p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① 인체 실험의 부정적 결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 초래된다.
②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인체 실험은 인격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동물 실험 결과만으로 신약 후보 물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이다.
⑤ 인간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04 정답 및 해설 044p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9평]

갑 :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은 물론이고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을 :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갑 :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 개량된 능력을 갖고 태어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어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생학적 조치를 통해 미래 세대가 동의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기획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① 유전자에 대한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도 금지되어야 하는가?
②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가?
③ 부모는 유전자 개량을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을 기획해야 하는가?
④ 미래 세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우생학적 조치를 허용해야 하는가?
⑤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량된 미래 세대는 자유를 박탈당하는가?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5

정답 및 해설 046p

다음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수능]

유전자 조작의 허용에 대한 논쟁에서 그동안 간과한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닌 의도적인 유전자 개입이 인간을 도구화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입니다.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하듯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렇게 통제되어 태어날 인격체는 다른 자율적 인격체와 달리 원초적으로 동등하지 못한 채로 공론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우생학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① 유전자 조작의 문제점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②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③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은 잠재적 담론자의 평등을 제한한다.
④ 적극적 우생학은 인간관계를 기계적 인과관계로 왜곡시킨다.
⑤ 적극적 우생학을 위한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다.

06

정답 및 해설 047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6평]

갑 : 임상 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을 : 찬성합니다. 다만 어린이는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갑 : 아닙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대리 동의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 시험에서는 피험자 자신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대리 동의는 단지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① 임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 동의를 인정해야 하는가?
② 난치병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가?
③ 임상 시험은 사회적 효용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④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상 시험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⑤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07

정답 및 해설 048p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9평]

(가) 생물학적 출발 조건인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전제 1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전제 2	㉠

⬇

결론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① 복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기획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② 자연 발생적 출생만이 인간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③ 복제 인간은 자연 발생적 인간과 동등한 존재의 자유를 갖는다.
④ 개인의 자유보다 복제 인간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행복이 중요하다.
⑤ 인간 복제로 인해 인간 상호 관계는 지배 종속 관계로 전락할 것이다.

08

정답 및 해설 049p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수능]

(가) 인위적으로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동물을 만들어 내는 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대전제	종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소전제	㉠

⬇

결 론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① 동물 복제는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동물을 생산한다.
② 동물 복제는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③ 동물 복제는 인위적 유전자 조작으로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④ 동물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간 복제로 진행된다.
⑤ 동물 복제는 인간의 권익을 위한 특정 종만으로 생태계를 재편한다.

09

정답 및 해설 049p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8학년도 6평]

갑 :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병'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앎은 미래의 유전 질환에 대한 불안, 공포 등의 해악만 야기할 뿐입니다. 따라서 해악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모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을 :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앎은 미래의 유전 질환을 감안하여 스스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 기

ㄱ. 갑 : 자기유전 정보를 알아야 불필요한 해악을 막을 수 있다.
ㄴ. 갑 : 자기유전 정보에 대한 무지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ㄷ. 을 : 자기유전 정보를 알아야 자율적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
ㄹ. 갑, 을 : 미래의 불가피한 유전 질환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정답 및 해설 050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9평]

갑 :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는 크게 체세포 치료와 생식선 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만이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을 : 동의합니다. 다만 체세포 치료는 환자 개인의 신체 세포에 영향을 주므로 허용되지만, 생식선 치료는 개인은 물론 후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갑 : 아닙니다. 그러한 체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선 치료까지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후세대로 이어져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생식선 치료는 변경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질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① 생식선 치료가 유전자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②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가?
③ 생식선 치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가?
④ 유전적 질병의 치료를 위해 생식선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⑤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11

정답 및 해설 052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평]

갑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질병 극복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을 :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넘어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 치료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우생학은 부당하지만 개인 차원은 다릅니다. 외모에 대해 성형의 자유를 지니듯이,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질을 강화 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닙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고비용 의술로 특정 계층만이 이용 가능해 생물학적 불평등을 낳고,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①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②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선을 산출할 수 있는가?
③ 국가는 치료를 넘어선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을 해도 되는가?
④ 유전자 조작 기술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⑤ 자질 강화를 위한 개인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12

정답 및 해설 054p

다음 가상 대담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질문자 : 배아에 대한 유전자 조작이 논란거리입니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치료가 아닌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수단화하기에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사상가 : 예, 정상적인 능력을 더 강화하는 유전학적 개입은 일방적인 것이기에 세대 간의 평등성을 훼손하며, 그 존재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 : 유전학적 강화로 태어난 인간은 부모 세대의 일방적인 결정과 당사자의 동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삶에 부당한 간섭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상가 : 맞습니다. 유전학적 강화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기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① 자녀의 능력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도구화한다.
② 유전학적 치료에 대해서는 담론을 통한 보편적 합의가 가능하다.
③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전학적 개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④ 유전학적 강화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온전한 자율성을 지닐 수 없다.
⑤ 자질 강화를 위한 배아 유전자 조작은 세대 간의 균형을 회복시킨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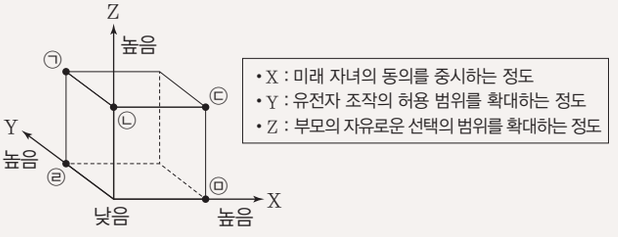
정답 및 해설 055p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2021학년도 9평]

(가)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미래 자녀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되므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될 수 없다. 자녀가 동의하지 않은 자질 강화를 통해 부모가 선택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나)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뿐만 아니라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출산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미래 자녀의 동의를 추정할 수 없더라도 부모의 선택은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4

정답 및 해설 056p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

갑 : 유전적 결함이 있는 환자는 유전자 교정 기술의 혜택으로 자신과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기술의 활용은 개인의 유전자 선호에 달려 있다. 인류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유전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

을 :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인류는 생명체를 지적(知的)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유전자의 좋고 나쁨을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정은 좋은 것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유전자가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①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의 정체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
② 유전자 교정 기술에 의해 생명체의 능력이 강화될 수 있는가?
③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 개인의 유전자 선택을 금지해야 하는가?
④ 유전자 교정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윤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⑤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 인간이 유전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가?

2단원 02 생명 윤리

❷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01

정답 및 해설 056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수능]

갑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며,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정당합니다.

을 : 저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의 모든 전제에 대해 찬성하지만 결론에는 반대합니다. 논증에 등장하는 '동물'을 모두 '인간'으로 바꿔 보세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을 이용하면 인간 실험마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갑 : 인간 실험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판은 동물도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는 선결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을 : 인간은 물론 동물도 삶의 주체이므로 기본적 권리를 갖습니다. 인간 실험과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도 부당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단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①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
② 동물 실험의 대안 중 확실한 것이 존재하는가?
③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 권리를 갖는가?
④ 인간 실험과 달리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
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가?

02

정답 및 해설 058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1학년도 6평]

갑 :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한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동물 복제는 멸종 동물의 복원과 희귀 동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식량난 해결에도 도움이되기 때문입니다.

을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복제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일'로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갑 :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을 : 인간 배아는 성인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 복제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① 동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②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③ 동물 복제는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기여하는가?
④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⑤ 인간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2단원 03 사랑과 성 윤리

❶ 사랑과 성의 관계

01

정답 및 해설 059p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6평]

갑 : 성(性)을 이윤 추구에 이용하는 것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을 : 성적인 이미지를 이용한 성의 상품화는 더 이상 금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을 이용한 기업의 이윤 추구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갑 : 제 생각에 당신의 주장은 [㉠]

① 성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② 성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③ 성이 지닌 쾌락적 가치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④ 성도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⑤ 성적 취향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02

정답 및 해설 060p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갑 : 성은 '최대한의 책임과 최소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은 그것의 자연적 결과인 출산을 통해 가정에서의 안정된 자녀 양육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출산에 대한 책임과 양육의 안정성에 있다.
을 : 성은 '최소한의 책임과 최대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에 관한 결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강제와 무지, 기만에 의해 이루어진 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① 갑 : 성은 종족 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② 갑 : 성은 혼인 관계 내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을 : 성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④ 을 : 성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다.
⑤ 갑, 을 : 성은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한 개인 간 합의의 문제이다.

03

정답 및 해설 060p

다음 제시문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2017학년도 수능]

지금까지 남성은 순종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여성에게 가르쳐 왔지만 누구도 남녀의 본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 지성의 차이는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법적 예속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능 활용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공평하고 사회적으로는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성이든 남성이든 개인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① 여성을 예속시키는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회적 역할은 남녀의 본성에 따라 적합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③ 여성의 분별력이 근본적으로 열등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④ 양성평등은 전 인류에게 유용하므로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⑤ 남성이 독점해 온 모든 직업을 여성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

04

정답 및 해설 061p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2018학년도 9평]

갑 : 인간은 자식을 낳고 기르려는 본성을 가진다. 신이 정한 결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본성은 실현된다. 성(性)은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가 된다.
을 : 성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성이라면 도덕적이다. 사랑은 성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① 갑 : 성은 결혼 제도 안에서만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
② 갑 : 성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인류를 존속시키는데 기여한다.
③ 을 : 성은 사랑을 통해 인격적 만남의 차원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④ 을 : 성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갑, 을 : 성은 사랑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도덕적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5

정답 및 해설 062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수능]

갑 : '결혼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출산을 통한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 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을 : '사랑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 도덕적 성의 조건이며,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① 갑은 부부만이 정당한 성적 관계의 주체는 아니라고 본다.
② 갑은 성적 관계의 정당성이 사회 존속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③ 을은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한 성적 관계는 항상 정당하다고 본다.
④ 을은 성적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06

정답 및 해설 062p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9평]

갑 :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며,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을 : 아닙니다. 혼인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인격적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① 갑 : 성적 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② 갑 : 성의 생식적인 가치보다 쾌락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③ 을 :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적 관계는 모두 비도덕적이다.
④ 을 : 상호 동의만 전제되면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⑤ 갑, 을 :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07

정답 및 해설 064p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

갑 : 도덕적 판단에서 성(性)행위를 여타 행위와 구별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 성행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전제된 성행위만이 정당하다.

을 : 도덕적 판단에서 성행위를 여타 행위와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자율성의 원칙, 해악금지의 원칙 이외에 성행위의 도덕적 정당화에 필요한 추가적 원칙은 없다.

① 갑 : 서로의 인격이 존중된 성행위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갑 : 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성행위 정당화의 충분조건이다.
③ 을 :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제약은 없다.
④ 을 : 쾌락적 가치보다는 생식적 가치가 성의 목적에 부합한다.
⑤ 갑, 을 : 성행위의 본질은 사회의 안정과 종족의 보존에 있다.

08

정답 및 해설 065p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9평]

삶이 일종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인간 존재를 타인과 결합시키는 능동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고립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사랑에 있어서 두 존재는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

보 기

ㄱ.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ㄴ. 사랑은 상대방이 지닌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ㄷ.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ㄹ. 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9

정답 및 해설 067p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학년도 수능]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교환의 의미로만 주어야 한다고 본다. 비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은 환희의 경험보다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모두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이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② 사랑은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③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돌보는 것이다.
④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⑤ 사랑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것이다.

10

정답 및 해설 068p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신문 ○○○○년 ○○월 ○○일

칼럼

남성과 여성 간 지적 능력의 차이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거나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 속에서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게 되면 인간 본성에도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다.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게 되면 사회 전체의 생각과 감정을 발전시킬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 차별이 지속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후략).

① 여성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
② 차별적인 관습과 제도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③ 여성의 자유권 확대와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은 양립 가능하다.
④ 남녀의 지적 능력의 차이는 선천적이지만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여성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사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11

정답 및 해설 068p

다음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6평]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성은 운명적인 여성성이라는 속임수로 여성을 지배하고 강제했습니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출산마저 사회는 모성의 의무로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면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려 합니다. 이때 여성은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하고 남성은 계속 지배하려 하므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갈등은 남성과 여성이 자율적 존재로서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져 새로운 여성이 탄생해야 끝이 납니다.

①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② 여성의 의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가?
③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인가?
④ 여성은 수동적인 삶을 통해 실존적 자유를 회복해야 하는가?
⑤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월성이 여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12

정답 및 해설 069p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수능]

윤리는 도덕적 추론이 아니라 도덕적 태도나 선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남성 중심적 윤리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고, 인간관계, 책임, 헌신 등의 여성적 특성을 지닌 윤리에 주목해야 한다.

〈문제 상황〉

① 도와주었을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②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 행동하세요.
③ 동정심이 아닌 누구나 동의 가능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세요.
④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사회적 효용을 낳을지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도덕적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하세요.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3

정답 및 해설 070p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 도덕적 딜레마를 설명하는 여성들의 방식을 살펴보면 남성과는 다른 도덕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덕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남성의 도덕 발달 과정과는 다른 또 하나의 도덕 발달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성들에게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규정되는 것은 남을 해하지 말고 보살펴야 한다는 윤리 의식이다.

① 남녀의 도덕적 사고의 차이에 대한 편향적 이해를 극복해야 한다.
② 감정을 배제한 선행일수록 도덕적 가치가 높다고 봐야 한다.
③ 배려는 보편적 의무 의식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④ 성차는 존중해야 하나 남녀의 도덕 판단 기준은 같다고 봐야 한다.
⑤ 도덕 판단은 상황적 맥락보다 합리적 추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2단원 03 사랑과 성 윤리

❷ 결혼과 가족의 윤리

01

정답 및 해설 070p

갑, 을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

> 갑 : 도(道)는 가까운 데에 있는데 그것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한다. 사람마다 먼저 자기 어버이를 어버이로 섬기고, 연장자를 연장자로 받들면 천하가 화평해 질 것이다.
> 을 : 성스러움[聖]을 없애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들의 이로움은 백 배가 되고, 인의(仁義)를 버리고 자연(自然)에 따르면 백성들은 효성과 자애를 회복할 것이다.

〈문제 상황〉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2000년 54만여 가구에서 2005년 78만여 가구, 2010년 102만여 가구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자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거나 자녀가 없어서 어렵게 살고 있다.

① 갑 : 효와 불효를 구분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② 갑 : 효의 실천 범위를 가정에서 사회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
③ 을 : 사회 보장 제도를 확충하여 노인의 자립을 도모해야 한다.
④ 을 : 효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부모를 부양하도록 해야 한다.
⑤ 갑, 을 : 자녀들이 욕심을 버리고 예(禮)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02

정답 및 해설 072p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6평]

> (가) 형과 아우는 부모가 남겨 준 몸을 함께 받았으니, 한 몸과 같은 것이다. 한 몸의 사지(四肢) 중에서 어느 한 편이 병든다면 어찌 편안함을 얻겠는가?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 (나)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감히 상하게 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몸을 세워서 도리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떨쳐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① (가)는 형제간은 장유(長幼)의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② (가)는 형제애의 근원과 효의 근원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③ (나)는 신체의 건강함과 부모에 대한 효가 무관하다고 본다.
④ (나)는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⑤ (가), (나)는 효가 덕스러운 행실[德行]의 근본이라고 본다.

03

정답 및 해설 074p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2014학년도 9평]

수행 평가

◎ 문제 :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효(孝)에 대해 서술하시오.

>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효(孝)는 인(仁)의 근본이다.

• 학생 답안

위의 사상에 따르면, ㉠ 효는 부모에 대한 보은(報恩)과 존경의 마음으로 모든 행실의 근본[百行紙本]이다. 이러한 효의 정신은 가족 윤리와 사회 윤리의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 동기간(同氣間)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도 효의 정신과 상통하며, ㉢ 다른 사람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효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효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 몸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것[立身揚名]을 효의 출발점으로,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不敢毁傷]을 효의 마침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땅한 도리로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04

정답 및 해설 075p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가) 도(道)에 뜻을 둔 사람은 인(仁)으로 늘 자신을 삼가 허술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인을 해치는 일이 없다.

(나)

• 사람이 있고 난 뒤 부부(夫婦)가 있고, 부부가 있고난 뒤 부자(父子)가 있으며, 부자가 있고 난 뒤 [㉠] 이/가 있다.

• [㉠]은/는 비록 몸이 나뉘어 있지만 같은 기운을 타고난 존재이므로 행실이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① 서로 항렬을 달리하는 종적(縱的)인 관계이다.
②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③ 다른 성(姓)이 서로 만나 하나가 되는 관계이다.
④ 장유(長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관계이다.
⑤ 가족 내의 인간관계 중 가장 먼저 형성된 관계이다.

05

정답 및 해설 076p

다음 전통 의례에 반영되어 있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6평]

• 결혼은 혼인이라고 하는데, 혼(婚)은 '남자가 장가든다.'는 의미이고, 인(姻)은 '여자가 시집간다.'는 의미 이다.

• 대례(大禮) 중 합근례(禮)에서는 하나의 박을 쪼개 두 개로 만들어 술을 나누어 마신 후 다시 하나로 만든다.

① 부부의 관계는 이해 타산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② 부부의 역할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기초하여 정해져야 한다.
③ 부부는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위계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④ 부부는 각자의 독자적 삶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⑤ 부부는 결혼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

06

정답 및 해설 077p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5학년도 9평]

(가)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덕(德)에 어긋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예(禮)에 어긋난다.

(나) 개체 생명은 가(家)속에서 계승되는 집단 생명의 일부이다. 따라서 개인은 집단 생명이 보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의 시작이다. 또한 [㉠]은/는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다.

① 부모를 부끄럽지 않게 해 드리는 것이다.
② 부모가 모두 돌아가실 때에야 비로소 종료된다.
③ 자손을 낳아 대(代)를 잇는 것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④ 부모를 삼가 모시고 그 뜻을 헤아려 실천하는 것이다.
⑤ 덕을 쌓아 떳떳한 지위를 얻어 이름을 떨치는 것으로 완성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7

정답 및 해설 078p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가) 공손하라. 그것이 곧 인(仁)의 실천이다. 관대하라. 그것 역시 인의 실천이다. 공손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들을 얻을 것이다.

(나) [㉠]은/는 동기간(同氣間)에 지켜야 할 도리로, 서로를 공경[悌]하는 것이다. 뼈와 살은 비록 나뉘었으나 본래 한 기운에서 태어났으니 [㉠]을/를 실천해야 한다.

보 기

ㄱ. 항렬(行列)을 달리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ㄴ. 의(義)가 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다.
ㄷ. 사회적 장유(長幼)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의 토대가 된다.
ㄹ. 서로를 공경하여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하는 길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8

정답 및 해설 079p

다음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남자는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하고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무 기러기[木雁]를 상 위에 놓고 공손히 절을 한다[揖].
…(중략)… 그 후 서로 절을 한 다음 술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새로운 사회관계를 이루게 된다.

① 후손들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통과 의례이다.
② 삼가 조상을 모시고 집안을 이어가겠다고 서약하는 의례이다.
③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스승의 노고에 감사를 표현하는 의례이다.
④ 성인(成人)의 지위를 인정받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의례이다.
⑤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관직에 추천할 때 행하는 의례이다.

09

정답 및 해설 080p

다음 가상 편지의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6평]

○○에게

네가 다칠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단다. 옛 선현들에 의하면, 군자는 친족을 사랑하며 백성에게 어진정치를 베풀고, 만물에까지도 사랑이 미치게 해야 한다고 했단다. 이는 마치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이 자라고 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겠지. 이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란다. [㉠]을/를 행하는 첫 걸음은 자신의 몸을 훼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증자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몸이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된 것을 보고 "비로소 걱정을 면했다!"라고 안도했다고 하더구나. …(후략)…

보 기

ㄱ. 음양(陰陽)의 조화를 통해서 형성된 횡적 관계의 미덕이다.
ㄴ. 사회적 역할에 맞는 도덕적 행동으로 이름을 떨칠 때 완성된다.
ㄷ. 조상에 대한 공경을 담은 전통적 제례(祭禮)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ㄹ. 혈연관계의 친밀함을 배제한 공평함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정답 및 해설 081p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6평]

○○에게

요즘 언론에서 가정 내의 폭력에 관한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네.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는 부자자효(父慈子孝)의 정신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네. 사람이 개와 말을 기를 적에도 모두 음식으로 길러 주는데, 만약 부모를 봉양만 하고 공경함이 없으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처럼 효도는 봉양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敬]이 바탕이 되어야 하네. 자애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억지로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되네. 힘으로는 도(道)로 이끌 수 없으니, 내가 선해지고자 하면 상대방도 선해지지 않겠는가. …(후략)…

① 효의 정신적인 측면보다 물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② 자녀의 옳지 않은 행동은 강제로라도 교정해 주어야 한다.
③ 부모의 역할을 다하면서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는 모두 자애에 속한다.
⑤ 부모의 경제적 보살핌을 받기 위해 자녀는 효도를 행해야 한다.

11

정답 및 해설 082p

(가), (나)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덕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9평]

(가) 나이 칠십에 아이처럼 장난하며 색동옷을 입고, 물을 떠 당(堂)에 오르다가 일부러 넘어져 아이 울음소리를 내었으며, 부모 곁에서 새끼 새랑 놀며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하였다.

(나) 과실(過失)이 있으시면 기(氣)를 내리고 낯빛을 온화하게 하고 음성을 가다듬어 간(諫)한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공경심을 일으키고, 기뻐하시면 다시 간한다.

① 동기간(同氣間)에 서로 이롭게 하며 허물을 바로잡는 것이다.
② 양지(養志)의 마음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실천하는 것이다.
③ 친애와 경쟁을 바탕으로 권면하여 믿음[信]을 실천하는 것이다.
④ 수평적 관계에서 구휼(救恤)의 의무를 부과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⑤ 음양(陰陽)의 이치에 따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12

정답 및 해설 083p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수능]

- 그대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양을 몰래 훔친 것을 증언했지만, 우리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그 사실을 숨겼네. 정직은 그 속에 있다네.
- 자식은 부모가 부르시면 빨리 대답하여 늦지 않도록 한다. 부모가 연세 드시면 늦게 귀가하지 않는다. 부모가 병환 중이시면 자식은 얼굴을 환하게 하지 않고, 웃되 잇몸을 보이는데 이르지 않으며, 노하되 꾸짖는 데 이르지 않는다.

① 부자유친(父子有親)의 본질은 집단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② 부자(父子)간 정직은 친애[愛]보다 올바름[義]을 우선해야 한다.
③ 자식은 부모의 의중을 살펴서 언행을 삼가며 공대(恭待)해야 한다.
④ 부모를 위하여 자식은 결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⑤ 효의 정신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13

정답 및 해설 084p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9평]

(가)	어진[仁]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서게 해 주고 자신이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해준다. 따라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恕].
(나)	㉠ 은/는 나와 더불어 한몸과 같은 존재이며,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이다[手足之義]. 상대방이 좋지 못한 행실을 하면 마땅히 정성을 다해 충고해서 올바른 도리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

① 서로 간에 자애(慈愛)와 효도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② 계약을 바탕으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③ 동기간(同氣間)으로서 사랑과 공경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④ 가깝게 오래 사귄 벗으로서 우정을 중시하는 선택적 관계이다.
⑤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로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관계이다.

14

정답 및 해설 085p

다음 가상 편지의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8학년도 수능]

○○에게

얼마 전 자네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기뻤다네. 공자는 "경(敬)으로써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어라."라고 말했다네. 이러한 가르침은 ㉠ 간의 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네. ㉠ 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성장하여 만난 두 사람이지만, 자네가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듯 존중한다면 어찌 백년해로(百年偕老)할 수 없겠는가?

…(후략)…

보 기

ㄱ. 혼인(婚姻)을 통해 맺어진 가족 관계이다.
ㄴ. 상경여빈(相敬如賓)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ㄷ. 항렬(行列)에 따라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관계이다.
ㄹ. 동기간(同氣間)으로서 배려해야 하는 가족 관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5

정답 및 해설 086p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 천지가 화합해야 만물이 생성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녀가 결혼해야 자손이 태어나고 번영해서 만세에까지 이어진다. … (중략) … 남자가 친히 아내를 맞이할 때 선물을 가지고 상견(相見)하는 것은 공경을 통해 부부유별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처럼 남녀가 유별한 뒤라야 부자가 친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야 도의가 성립되며, 도의에 의해 예의가 제정되고, 그런 다음에야 만사가 안정된다. 만일 남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도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수(禽獸)의 도(道)이다.

① 부부의 예절은 성 역할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서 시작한다.
② 금수에게도 사람의 남녀에게 볼 수 있는 분별적 도리가 있다.
③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을 때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부부의 도리는 두 사람의 관계보다 각자의 개별성을 중시해야 한다.
⑤ 부부간에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예절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

16

정답 및 해설 087p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9평]

(가)	부모와 자녀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남편과 부인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간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나)	섬기는 일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가장 큰 섬김에는 물질적 봉양[養口體], 정신적 공경[養志],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입신양명(立身揚名) 등이 있다. 그러므로 [㉠]은/는 개나 말을 잘 먹여 기르는 것과는 다르다.

①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는 상경여빈(相敬如賓)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②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상부상조(相扶相助)로 완성되는 것이다.
③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는 백년해로(百年偕老)로 완성되는 것이다.
④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군이충(事君以忠)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⑤ 몸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불감훼상(不敢毁傷)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17

정답 및 해설 088p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수능]

> ○○에게
> 자네가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네. 살림살이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부모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지. 다만 자네가 어버이를 섬길 때 증자(曾子)를 본받았으면 하네. 증자는 아버지께 끼니마다 반드시 고기와 술을 차려 드렸다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아버지께 여쭈었고, 아버지께서 남은 음식이 있냐고 되물으시면 증자는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네. 증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핀 것이지. 그런데 증자를 봉양한 증자의 아들은 남은 음식이 있냐는 증자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지. 증자의 아들은 아버지께 다시 음식을 올리려 한 것이네. 증자의 아들은 입과 몸을 봉양한 것에 지나지 않고 증자는 뜻을 봉양한 것이라 할 수 있지. …(후략).

① 자식은 어버이가 가진 의중을 헤아려서 봉양해야 한다.
② 자식은 어버이의 옳지 못한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③ 어버이를 봉양하는 까닭은 자식에게 봉양받기 위함일 뿐이다.
④ 어버이를 섬기는 방식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달리해야 한다.
⑤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어버이보다 이웃을 더 배려해야 한다.

18

정답 및 해설 089p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학년도 9평]

(가)	소인은 한가롭게 지낼 때는 거침없이 불선(不善)을 행하다가, 군자를 보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불선함을 가리고 선함을 드러낸다.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에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나)	몸과 마음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다. 마음 가운데 온갖 이치[理]가 갖추어져 있으니, 만약 한 가지 이치라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부모에게서 받은 것에 흠과 모자람이 있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서는 [㉠]을/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①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을 우선하여 이루어진다.
② 항상 동기간(同氣間)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인(仁)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④ 도덕적 수행을 통한 입신양명(立身揚名)에서 시작된다.
⑤ 상호 관계에서 성립하기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종료된다.

19

정답 및 해설 090p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1학년도 9평]

혼례는 서로 다른 두 성(姓)의 남녀가 사랑으로 결합하여, 위로 조상을 모시고 아래로 후세를 이어 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 과정에서 남녀는 서로 경건하고 존중하며 정직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친밀한 사랑이 생긴다. 이것이 예(禮)의 본질이다. 남녀의 구별[別]이 있으니 부부의 도리가 세워지고, 부부의 도리가 있으니 부자의 친근함이 있으며, 부자의 친근함이 있으니 군신의 정당함이 있다.

보 기

ㄱ. 부부의 도리는 모든 예의 근본이 된다.
ㄴ. 부부는 손님을 대하듯이 서로 공경해야 한다.
ㄷ. 부부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ㄹ. 부부의 도리는 각자의 역할에 분별이 없어야 바르게 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0

정답 및 해설 091p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021학년도 수능]

부부는 백성을 낳는 시작이며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 남편은 바깥채에 거처하며 안채의 일을 말하지 않고, 아내는 안채에 거처하며 바깥채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중하게 임하여 하늘의 건실한 도리를 실천하고, 아내는 부드러움으로 남편을 바로잡아 땅의 순응하는 도리를 실천한다면, 집안이 바르게 될 것이다. 부부가 서로 공경하여 집안이 화목하고 순조로워야 부모께서 편안하고 즐거우실 것이다.

① 화목한 부부 생활은 효도의 한 방법이다.
② 부부는 서로 의존하면서 보완하는 관계이다.
③ 부부는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④ 부부의 의의는 세대를 계승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⑤ 부부의 관계는 옳고 그름이나 예절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Memo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사회와 윤리

빠른 정답 3단원

01 직업과 청렴의 윤리

❶ 직업과 청렴의 윤리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③
06	⑤	07	④	08	①	09	②	10	⑤
11	④	12	⑤	13	⑤	14	③	15	①
16	③	17	①	18	⑤	19	④	20	②
21	④	22	⑤	23	②	24	④	25	⑤
26	⑤	27	①	28	②	29	①	30	④
31	①	32	③	33	①	34	②		

02 사회 정의와 윤리

❶ 니부어의 사회 정의론

01	③	02	⑤	03	④	04	③	05	④
06	④	07	⑤	08	⑤	09	⑤	10	⑤
11	④	12	⑤	13	②	14	④	15	⑤
16	⑤	17	④	18	①				

02 사회 정의와 윤리

❷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②
06	③	07	①	08	⑤	09	②	10	②
11	②	12	④	13	④	14	③	15	①
16	②	17	②	18	①				

03 사회 정의와 윤리

❶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01	①	02	④	03	③	04	④	05	⑤
06	③	07	④	08	②	09	①	10	③
11	④	12	⑤	13	③	14	②	15	①
16	④	17	④	18	②	19	④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3단원 01 직업과 청렴의 윤리

01

정답 및 해설 095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9평]

갑 : 자유 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을 : 기업은 그러한 목적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소외된 지역의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해.
갑 : 기업이 법을 준수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거야.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야.
을 : 그렇지 않아. 기업은 법의 준수 그 이상의 도덕적 의무가 있어.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기도 해.

① 기업은 경영 활동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③ 기업은 이윤 추구 활동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가?
④ 기업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⑤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가?

02

정답 및 해설 096p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9평]

갑 :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 이행은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으며,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이다. 기업은 이익 추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기업의 어떤 행위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을 : 기업은 이익 증대를 위해 설립된다. 기업은 법과 해악 금지 원리의 준수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 소비자 등으로부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설립 목적을 실현할 기회가 많아진다.

보 기

ㄱ.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목적인가?
ㄴ. 기업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ㄷ. 사회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책임 이행은 시장에 해로운가?
ㄹ. 합법적 기업 행위는 사회에 해를 끼쳐도 허용되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3

정답 및 해설 097p

다음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수능]

기업의 주된 목적이 이윤 추구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전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들 없이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은 지역 복지 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음으로써 기업의 주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있을 것입니다.

보 기

ㄱ. 기업은 취약 계층의 삶의 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ㄴ. 기업은 사회로부터 얻은 이윤의 환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ㄷ. 기업은 사회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완결적 조직이어야 한다.
ㄹ. 기업은 이윤 증대를 위해서라도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4

정답 및 해설 097p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기업 활동에 대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6학년도 6평]

사회악의 근원을 개인의 이기심에만 돌리는 것은 진부한 처방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성취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 이윤 추구의 경쟁이 제한되는 비합리적인 관행은 타파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결국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다.

① 기업의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② 기업에 대한 평가는 과정보다 결과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③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비합리적 관행은 인정되어야 한다.
④ 기업의 이윤 추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때 보장되어야 한다.
⑤ 기업의 합리적인 활동에 의한 최대 이윤 추구는 보장되어야 한다.

05

정답 및 해설 098p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9평]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법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여 수익을 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를 향한 기업인의 선의가 사회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기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경영을 통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인권, 환경 등의 개선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공익 증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목적인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학자의 견해가 [㉠]고 생각한다.

① 기업의 책임과 주주들의 이익 증진은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기업의 이윤 추구와 공익이 양립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공동선의 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④ 기업의 공익 활동이 기업 경쟁력 상실의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⑤ 합법적인 경영이 합리적인 이윤 추구의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06

정답 및 해설 099p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6학년도 수능]

갑 : 기업은 기업 활동을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한정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을 : 기업은 주주, 소비자, 지역 사회 구성원 등과 같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병 : 기업은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갑 : 기업은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② 을 : 기업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차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병 : 기업은 항상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갑, 을 : 기업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외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⑤ 을, 병 : 기업은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할 책임을 가진다.

07

정답 및 해설 099p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17학년도 9평]

(가) 내부 고발은 조직의 도덕적 혹은 법률적 과오를 막으려는 구성원의 행동으로, 과오에 대한 조직의 자체적 개선이 좌절될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내부 고발은 조직에 끼치는 당장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나) 내부 고발은 조직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조직의 운영과 결속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한다면 조직의 문제는 반드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보 기〉

ㄱ. 구성원은 조직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ㄴ. 내부 고발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함을 간과하고 있다.
ㄷ. 내부 고발만이 조직의 비리를 해결하는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ㄹ. 고발자가 내부 고발의 단기적 피해를 감안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정답 및 해설 100p

다음 제시문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9평]

"기업은 자유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은 시장 실패를 통해 그 부당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대표적 사례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의 핵심은 환경오염의 처리 비용을 당사자인 기업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미래 세대 같은 제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잘못입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의 책임은 해당 기업이 져야 합니다. 설령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기업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① 기업은 외부효과 방지를 위해 이윤 극대화 활동에 전념해야 하는가?
② 기업은 깨끗한 공기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책무를 인정해야 하는가?
③ 기업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④ 기업은 공공선을 위해 이윤 추구에 대한 제약을 승인해야 하는가?
⑤ 기업은 시장 실패가 지역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9

정답 및 해설 100p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0학년도 9평]

갑 : 기업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 차원에서 공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한다. 그러한 기업은 소비자 불매 운동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헌신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보 기

ㄱ.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ㄴ. 기업은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경영되어야 하는가?
ㄷ. 기업은 공익의 증진을 본질적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ㄹ. 기업은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정답 및 해설 101p

다음 신문 칼럼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수능]

신문 칼럼

기업은 고용인(雇傭人)*과 고용주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계약 관계로 유지된다. 기업의 결속력도 서로의 이윤 창출을 위한 행위에 의해 생길 뿐이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충성까지 구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해치는 기업의 행위를 알게 된 고용인이 이를 사회에 알리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사회는 고용인에게 기업의 불법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외부에 적극 알려야 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인은 특정 조직에 속한 개인인 동시에 정의롭고 행복하게 유지되어야 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고용인(雇傭人) :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① 고용주는 기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② 고용인과 고용주는 상호 협력과 결속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③ 고용인은 고용주에 대한 신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
④ 조직에 충성하기를 포기한 고용인은 그 조직에서 떠나야 한다.
⑤ 고용인은 조직에 대한 책무와 함께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1

정답 및 해설 101p

갑, 을 사상가의 직업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학년도 9평]

갑 :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하나의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 서로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을 : 농부는 밭일에 정통하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며 공인(工人)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는 없다. 관리는 이 일들을 하나도 못하지만 예(禮)에 정통하기에 이 일들을 다스릴 수 있다.

보 기

ㄱ. 갑은 모든 직업에 대한 개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중시한다.
ㄴ. 을은 각자의 직업 활동에서 전문성의 발휘를 중시한다.
ㄷ. 갑, 을은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을 강조한다.
ㄹ. 갑, 을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정답 및 해설 102p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수능]

(가) 인간의 노동은 본래 자연 세계를 변형하는 주체적, 자율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결국, 노동자의 노동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 된다.

(나)

영화 '모던 타임즈'의 주인공인 찰리는 조립 라인에서 나사를 조이는 단순 작업만을 반복한다. 여기서는 인간의 노동을 중심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되고 파편화된 인간의 노동이 기계의 동작에 맞춰진다.

①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분업을 강화해야 한다.
②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③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여 사유 재산의 축적을 추구해야 한다.
④ 신이 부여한 노동의 신성한 의미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⑤ 자발적 노동을 통해 노동의 본래적 가치의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

13

정답 및 해설 102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갑 : 청렴은 목민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임무이며 모든 덕(德)의 원천이다. 청렴한 자는 청렴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도 이를 이롭게 여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비는 청렴을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보배로 삼는다.

을 : 통치자는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며 군인처럼 공동으로 생활해야만 한다. 또한 세상의 금은을 탐해서도 호화로운 집에 기거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오직 자신과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 데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보 기

ㄱ. 갑은 공직자의 업무 처리에서 공정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ㄴ. 을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서 공사(公私)의 구별을 강조한다.
ㄷ. 갑, 을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중시한다.
ㄹ. 갑, 을은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자기 절제(節制)를 강조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정답 및 해설 103p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학년도 6평]

○○신문 ○○○○년 ○○월 ○○일

기업가의 바람직한 자세

최근 들어 일부 기업가들이 탈세, 회계 조작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어느 사상가가 주장한 '자본주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정신'은 칼뱅의 예정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을 본받아 기업가들은 ㉠ …(후략)…

① 정직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② 사치와 낭비 대신에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
③ 부의 축적을 지양하고 재산의 사회 환원을 추구해야 한다.
④ 신성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⑤ 배금주의가 아니라 소명의식에 입각하여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15

정답 및 해설 104p

갑, 을 사상가의 직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학년도 6평]

갑 : 왕공의 자손이라도 예(禮)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에 편입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 예에 합하면 재상에 올린다.

을 : 사농공상(士農工商)에 관계없이 놀고먹는 자는 관에서 벌칙을 내려야 한다.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비록 농사꾼의 자식이 벼슬길에 올라도 분수에 넘치는 것이 아니다.

① 갑은 사회적 역할 분담에 있어 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을은 선비가 육체노동을 피하고 학문에 전념할 것을 강조한다.
③ 갑은 을과 달리 후천적 노력보다 타고난 능력을 중시한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세습적 신분에 따라 직업을 정할 것을 강조한다.
⑤ 갑, 을은 사회 분업의 폐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한다.

16

정답 및 해설 105p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9평]

갑 :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는 노동의 본질이 왜곡된다. 노동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을 : 인간은 구원을 예정해 놓은 신의 부르심[召命]에 노동을 통해 응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여러가지 삶의 양식(樣式)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보 기

ㄱ. 갑은 인간 소외의 극복을 위해 사회적 분업을 강조한다.
ㄴ. 을은 노동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ㄷ. 갑은 을과 달리 노동을 통한 사유 재산 축적을 중시한다.
ㄹ. 갑, 을은 노동이 가진 생계 수단 이상의 가치를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7

정답 및 해설 105p

갑, 을 사상가의 직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학년도 수능]

갑 : 누구나 본성적으로 이익만 좋아하기에 쉬운 일만을 원하고, 힘든 일을 싫어한다. 그래서 도(道)에 정통한 군자는 사람들마다 가볍고 무거움을 나누어[別] 서로 어울리게 한다.

을 : 각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각자가 폴리스에서 자신의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여럿 아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① 갑은 백성들의 직업 활동이 욕망 충족과 무관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을은 각자의 덕을 발휘하여 국가 공동체에 헌신할 것을 강조한다.
③ 갑은 직업 분담에서 예(禮)를, 을은 각자의 탁월성을 중시한다.
④ 갑, 을은 사회적 분업을 토대로 한 사회 질서 유지를 중시한다.
⑤ 갑, 을은 구성원 각자가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한다.

18

정답 및 해설 106p

다음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6평]

- 인정(仁政)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경계를 바로잡으면 토지를 바르게 분배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다. 백성들에게도 토지를 바르게 지급하면 나라가 기름지게 될 것이다.
-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대인(大人)이 하는 일이 있고 소인(小人)이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기 마련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보 기

ㄱ. 직업 선택은 능력보다 선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ㄴ.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ㄷ. 통치자는 구성원의 생계유지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ㄹ. 개인의 노동은 사회 구성원들의 윤택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정답 및 해설 107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학년도 9평]

갑 : 선왕(先王)이 예의(禮義)를 제정한 것은 백성들에게 구별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농부는 밭을 갈고, 상인은 물건을 팔며, 사대부는 정무(政務)를 담당한다.

을 : 신(神)은 만사(萬事)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소명(召命)을 지정하였다. 우리는 신의 축복에 의해 양육되고, 우리의 노동도 신의 축복에 의해 번창한다.

① 갑은 재화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는 동시에 절제할 것을 강조한다.
② 을은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한 직업 생활을 강조한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인위적 규범에 따른 직분의 구별을 주장한다.
④ 을은 갑과 달리 부의 축적이 직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⑤ 갑, 을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됨을 주장한다.

20

정답 및 해설 108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수능]

갑 : 자본주의 정신과 문화는 지속적, 체계적, 현세적인 직업 노동을 최고의 금욕 수단으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에서 태어났다. 이 정신이 자본주의 윤리의 기초이다.

을 : 자본주의에서 사유 재산은 소외된 인간 생활의 표현이다. 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면 모든 소외가 지양되어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① 갑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세속적 삶을 위해 부(富)를 지향한다고 본다.
② 을은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노동을 통한 자본의 형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필요에 따른 분배가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노동의 분업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21

정답 및 해설 109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갑 :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향락과 낭비를 막는다. 이러한 금욕으로 인해 재화의 획득이 구원의 증표로 정당화되었다. 금욕을 바탕으로 한 영리 활동이 근대 기업가의 소명이라면, 노동은 근대 노동자의 소명이다.

을 :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씀씀이를 줄이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 신하는 먼저 맡은 직분을 경건히 수행하고 녹봉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① 갑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② 갑은 금욕적 태도와 자본주의 정신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③ 을은 직업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각자가 자기의 직분에 충실할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부의 축적의 궁극적인 정당화 근거를 금욕에서 찾는다.

22

정답 및 해설 109p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수능]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적이라 욕하며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청렴은 큰 장사[賈]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자 한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몰래 하지 않겠는가마는 밤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선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신세지는 정[恩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움[私]이 행해진 것이다.

① 청렴은 목민관의 어떤 과오도 면책시켜 주는 지혜로운 덕목이다.
② 청렴한 목민관에게 청백리(淸白吏) 칭호는 관직 상승의 수단이다.
③ 포부가 원대하고 지혜로운 목민관은 부패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④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청탁(請託)은 가능하다.
⑤ 목민관의 청렴은 애민(愛民)과 봉공(奉公)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23

정답 및 해설 110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6평]

갑 : 노동을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 영리 추구와 결합하고 금욕적 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을 :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

① 갑은 청교도가 노동을 신의 명령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② 갑은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③ 을은 자본주의의 노동 분업이 노동 소외의 원인이라고 본다.
④ 을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⑤ 갑은 소명 정신, 을은 노동 착취를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본다.

24

정답 및 해설 111p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9평]

- 만약 백성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恒産]이 없으면 순수하고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편벽되고 악해질 것이다.
- 사람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만든 갑옷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 선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지 아니할 수 없다.

①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유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② 직업의 역할 분담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
③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
④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⑤ 직업 선택에서 사회적 기여보다 개인의 출세를 더 중시해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5

정답 및 해설 112p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수능]

서술형 평가

◎ 문제 : 사상가 갑, 을의 직업 노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갑 :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勞心],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勞力].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다면 항심(恒心)도 없게 된다.
>
> 을 : 노동이 분업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용주는 자본가가 되어 지휘와 감독,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분업은 특수한 기능에 적합한 부분 노동자를 양산하며, 노동자는 작업장의 부속물로서 자본의 소유물이 된다.

◎ 학생 답안

사상가 갑, 을의 직업 노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직업에는 대인과 소인의 역할 분담이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며, ㉡직업을 통해 백성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을은 ㉢노동자는 생산 수단이 없으므로 생계를 위해 자본가에게 예속된다고 보며,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인간은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6

정답 및 해설 112p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프로테스탄트는 자신의 구원의 여부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직업 노동을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확신에 이르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여겼다. 이들의 금욕주의가 세속의 윤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근대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다.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직접 관련을 맺지 않거나 경제적 강제로 느껴질 경우 인간은 영혼 없는 전문가, 열정 없는 향락주의자로 전락할 것이다.

①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징표라고 보는가?
②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가?
③ 금욕주의 직업윤리는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④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으로 보는가?
⑤ 프로테스탄트는 노동을 통한 부의 추구를 영혼의 타락으로 보는가?

27

정답 및 해설 114p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학년도 6평]

고위 공직자들은 법률 제도와 별도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무 의식을 스스로 내면화해야 한다. 귀족의 책무를 뜻하는 [㉠]은/는 서양의 전통에서 유래하였지만 고위 공직을 담당한 지도자에게 여전히 요청되는 덕목이다. 이 덕목은 더 강한 책임 의식, 더 높은 도덕성,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이 덕목의 실현으로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연대는 강화되고 준법과 참여가 원활해진다. 나아가 국가가 내우외환에 봉착할 경우 구성원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기꺼이 나서게 된다. …(후략)…

①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를 의미한다.
② 시민들의 자율적 질서 유지와 사회 계층 간 화합에 기여한다.
③ 정치권력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여 국가 전반의 청렴성을 고양한다.
④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 모두에 공통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덕목이다.
⑤ 국가가 위기를 맞을 경우 일반 시민들의 솔선과 협력을 유도한다.

28

정답 및 해설 114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9학년도 9평]

> 갑 :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귀함과 천함의 등급을 분별하게 하였다.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이 되어야 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이 단정하여 예에 합하면 사대부가 되어야 한다.
>
> 을 :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에서 농부와 목수와 기술자는 각자 생산물이나 재능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힘을 쓰는 노력자(勞力者)와 마음을 쓰는 노심자(勞心者) 역시 각자의 수고로움으로 서로 기여한다.

① 갑 : 예(禮)를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역할 분담이 정해져야 한다.
② 갑 :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③ 을 : 분업을 통해 사회적 직분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④ 을 : 노력자(勞力者)는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다.
⑤ 갑, 을 :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29

정답 및 해설 115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갑 :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을 위해 수행될 뿐이다. 분업은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지만, 노동자는 생산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 이외의 다른 모든 정신적 능력들을 잃어버렸다. 이는 예외 없는 현상이다.

을 : 노동을 은총 상태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 청교도는 철저한 노동 의무의 수행을 통해 신의 나라에 도달하려고 시도하였다. 동시에 노동 계급에 강제된 엄격한 금욕이 자본주의의 노동생산성을 강력히 촉진시켰다.

① 갑은 자본주의에서 정신적 능력 회복으로 소외가 극복된다고 본다.
② 갑은 분업이 노동자의 정신적 능력 쇠퇴와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본다.
③ 을은 금욕과 결합된 노동 의무가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본다.
④ 을은 청교도가 직업 노동을 종교적 실천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⑤ 갑은 분업 노동, 을은 소명 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30

정답 및 해설 116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학년도 9평]

갑 : 각자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 예법(禮法)의 핵심이다. 농부, 공인, 상인은 각 분야에 정통하지만, 그 분야를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도(道)에 정통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도 못해도 이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다.

을 : 마음을 쓰는 사람[勞心者]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몸을 쓰는 사람[勞力者]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 의해 먹고 산다. 이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① 갑 : 예(禮)에 맞게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갑 : 군자는 도를 익혀야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③ 을 :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④ 을 : 몸을 쓰는 사람은 항산(恒産)에 앞서 항심(恒心)을 지녀야 한다.
⑤ 갑, 을 : 모든 사람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31

정답 및 해설 117p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옛 성인(聖人)이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자기를 봉양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갈등과 투쟁이 생겨 서로 죽이기까지 하거니와, 통치자가 법으로 다스려 평화롭게 해주어야만 민생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할 수 없으므로, 백성은 수확의 10분의 1을 세(稅)로 바쳐 통치자를 공양(供養)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이 큰 만큼, 백성에 대한 보답도 무거운 것이다. 후세의 통치자는 세금 제도를 만든 의의를 모르고 '백성이 나를 공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혹하게 수취하니,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 서로 싸워 국가가 혼란해진다.

① 공직자는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며 나랏일에 충실해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③ 공직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일환이다.
④ 공직자는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봉사로써 보답해야 한다.
⑤ 공직자의 탐욕과 수탈은 국민의 반목과 국가의 분란을 야기한다.

32

정답 및 해설 117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6평]

갑 : 목민관은 책객(冊客)*을 두어 회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관부의 회계는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모두 기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내의 친척과 친구를 단속하여 의심과 비방이 생기지 않도록 하되, 서로의 정(情)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을 : 나라가 올바르게 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들 중 통치자들은 그 어떤 사유 자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통치자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시민들을 보살펴야 한다.

*책객 : 고을 원에 의해 사사로이 채용되어 비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

① 갑 : 공직자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갑 : 공직자의 청렴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덕목은 아니다.
③ 을 :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④ 을 : 통치자는 시민들이 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⑤ 갑, 을 : 올바른 통치를 위해 다스리는 자의 사유 재산을 금지해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33

정답 및 해설 119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학년도 9평]

> 갑 : 군자는 근본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잘 못해도 큰 일은 맡을 수 있으며, 소인은 생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큰 일을 잘 못해도 작은 일은 맡을 수 있다. 임금·신하·부모·자식이 각자 맡은 바 직분[名]을 올바르게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 을 : 성왕(聖王)은 예(禮)를 제정하여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람의 덕(德)을 논하여 각자의 위치를 정하고 그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부여하였다. 그런 연후에 사람들이 예에 따라 각자 직무를 수행하여 그 마땅한 바를 얻게 하였다.

① 갑 : 각자 자신이 맡은 직분 외에도 모든 분야에 능통해야 한다.
② 갑 : 자기 본분을 올바르게 행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③ 을 : 사람들의 사회적 직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④ 을 : 올바른 직분 수행을 위해 예법에 따라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⑤ 갑, 을 :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34

정답 및 해설 120p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1학년도 수능]

> 갑 :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본분이 있다. 군주는 군주의 본분을, 신하는 신하의 본분을,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자식은 자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정명(正名)이라 한다.
> 을 : 국가에서 통치자는 지혜를, 방위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여, 여러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正義)라 한다.

보 기

ㄱ. 사회적 직분에는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덕목이 요구된다.
ㄴ.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ㄷ. 각자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ㄹ.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단원 O2 사회 정의와 윤리

❶ 니부어의 사회 정의론

01

정답 및 해설 121p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4학년도 6평]

> 개인들 간의 갈등과는 달리 집단들 간의 갈등은 합리적인 설득으로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로 경쟁하는 집단들은 자신의 현실적 이익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보 기

ㄱ. 개인의 도덕적 행위가 사회 구조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양심의 역할을 부정한다.
ㄷ. 사회 정의는 정책적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실현된다.
ㄹ. 집단의 이기적 요구와 개인의 도덕성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2

정답 및 해설 122p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학년도 9평]

> 사회의 요구와 개인적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사회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지만, 개인은 이타성을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는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① 사회 부정의는 외적 강제력을 통해 타파되어야 한다.
② 개인의 양심적 통찰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③ 집단들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이다.
④ 개인들이 양심적이더라도 사회가 항상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⑤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은 집단 속에서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03

정답 및 해설 122p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양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도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부도덕할 수 있다. …(중략)… 사회와 개인이 지향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지만 양자 사이의 모순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회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문제 상황〉

사회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사회 부정의와 계층 간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책 결정자 A는 정의 실현과 갈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보 기

ㄱ.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세요.
ㄴ.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고려하세요.
ㄷ. 사회적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세요.
ㄹ.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은 배제하세요.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04

정답 및 해설 123p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2015학년도 6평]

집단들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형성된다. 왜냐하면 개인과는 달리 집단 속에서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항상 도덕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따라서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

①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고양은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② 사회 구조의 도덕성은 개인 행위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③ 정치적 강제력은 집단적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부적절하다.
④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성찰만으로는 극복되기 어렵다.
⑤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05

정답 및 해설 123p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9평]

(가)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이행할수록 이기적 충동에 비해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비중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러한 충동적 경향이 심각하게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억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개인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차원에서도 합리성과 선의지는 언제나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기적 충동이 합리성과 선의지의 고양에 의해 견제되어 결국 모든 집단들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보 기

ㄱ.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방법을 무시한다.
ㄴ. 개인 양심과 집단의 요구 간에 모순이 지속됨을 간과한다.
ㄷ.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동일함을 간과한다.
ㄹ. 집단 간 힘의 차이가 사회 부정의의 원인임을 간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6

정답 및 해설 124p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인간은 완전히 이성적일 수는 없다.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집단생활로 진행해 갈 경우,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의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 왜냐하면 집단 간의 공동의 지성은 항상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집단은 그것을 맹목적이게 만드는 충동에 의지해 있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

A는 현대 사회에서 집단 이기주의 만연하고 집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A는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보 기

ㄱ.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의 필요성을 깨달으렴.
ㄴ. 사회 갈등이 집단 간 권력 불균형에 의해 지속됨을 깨달으렴.
ㄷ. 집단이 커질수록 도덕적 목적 실현이 수월해짐을 깨달으렴.
ㄹ. 도덕적 설득과 정치적 강제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깨달으렴.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7

정답 및 해설 125p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6평]

갑 :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만, 사회는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비도덕적이다.
을 : 원초적 입장에서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른채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① 갑은 개인의 선의지가 없어도 사회 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개인보다 사회가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정당한 강제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

08

정답 및 해설 126p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6학년도 9평]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사회 내의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쉽다.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은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비판적 태도를 말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이 지닌 맹목적인 성격이야말로 도덕적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집단의 권력을 행사하는 토대가 된다.

보 기

ㄱ.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적인 사회 강제력을 권고한다.
ㄴ. 집단 간의 관계는 정치적인 힘의 비율에 의해 수립된다.
ㄷ. 집단의 도덕성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도덕성에 비례한다.
ㄹ. 집단 간 세력 불균형은 사회 갈등과 부정의를 지속시킨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09

정답 및 해설 127p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학년도 수능]

갑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공리의 원칙은 이러한 복종 관계를 인식시켜 주고,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행복의 틀을 짜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기초이다.
을 :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집단의 도덕은 자연적 충동에 버금갈 만한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하다.

① 갑은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다고 본다.
② 을은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이 같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보다 개인이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사회의 이익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본다.
⑤ 갑, 을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10

정답 및 해설 128p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갑 : 모든 집단은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개인의 이기심은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성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견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을 : 어떤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대항 세력이 견제하지 않는 한 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집단 간의 관계는 지극히 정치적이므로 항상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보 기

ㄱ. 사회 갈등의 원인이 개인의 이기심에 있는가?
ㄴ. 사회 갈등의 해법이 권력 불균형 유지에 있는가?
ㄷ.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선의지의 함양이 필요한가?
ㄹ.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강제력의 사용이 필요한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1

정답 및 해설 128p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수능]

>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모든 도덕주의자들은 인간의 집단 행동이 지닌 야수적 성격과 모든 집단적 관계들에 있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힘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갈등이 인류 역사에서 불가피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① 개인 윤리적 이타성과 사회 윤리적 정의는 항상 상호 배타적인가?
② 개인들의 자발적 타협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③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함양은 사회 정의 실현의 충분조건인가?
④ 개인 간 갈등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⑤ 개인의 합리적 도덕성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도덕성보다 열등한가?

12

정답 및 해설 129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수능]

> 갑 :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지성, 용기, 결단성 등은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지만, 이런 천부적인 자질들을 이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 있다.
>
> 을 :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① 갑은 오직 결과를 고려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② 을은 진정한 정의는 선의지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구조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선한 천부적 자질은 선의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개인의 선의지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13

정답 및 해설 129p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학년도 6평]

> 개인으로서 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① 사회 정의 실현에 정치적 강제 수단의 활용은 필수 요소이다.
②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한다.
③ 국가 간 이해관계는 설득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④ 국가의 이기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⑤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14

정답 및 해설 130p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9학년도 9평]

> ○○선생님께
>
> 지난 편지에서 선생님께서는 개인의 이기심이 선의지에 의해 견제되고 있어 모든 집단은 조화를 이룰 것이라 하시며, 개인의 선의지 함양을 권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선생님께서는 집단 이기주의가 갖는 힘, 범위, 지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를 순전히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 이기보다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은 집단 간의 갈등을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 …(후략)…

보 기

ㄱ.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이 갖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ㄴ. 선의지는 정의 실현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을 통제해야 한다.
ㄷ. 사회 정의는 사회적 억제와 힘을 통해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ㄹ. 사회적 협력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5

정답 및 해설 132p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그리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심한 비도덕성이 집단 간의 관계에 나타난다.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투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보 기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ㄴ.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ㄷ.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ㄹ.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

정답 및 해설 135p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 B, C의 행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가)	이성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집단의 이기적 충동의 힘이 이성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성의 힘만으로는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나)	• A는 전제 정치에 비폭력으로 대응하면서 사랑과 평화라는 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전제 군주의 자비심에 호소하였다. • B는 봉건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개인의 양심과 결단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하였다. • C는 식민 지배에 반대하면서 자국민들과 단결하여 비폭력적으로 지배국의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였다.

보 기

ㄱ. A는 정치적인 힘 대신에 양심에만 호소하는 잘못을 범했다.
ㄴ. B는 자신의 의도를 조직적인 정치적 저항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ㄷ. C는 비폭력적으로 대응하여 정치적인 힘을 활용하지 못했다.
ㄹ. A와 B는 집단적 저항이 필요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7

정답 및 해설 136p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9평]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은 개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① 집단 간 힘의 차이를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다.
③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은 커진다.
④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⑤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된다.

18

정답 및 해설 137p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 충동과 이타적 충동을 함께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도덕의 문제가 개인 차원에서 집단 간의 관계로 옮겨 갈수록 이기적 충동이 득세하게 된다. 사회의 집단 이기심은 불가피하며 이런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게다가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외에 강제력도 병행되어야 견제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과정에는 강제력이 불필요하다.
② 인간의 자기 보존의 욕구는 세력 강화의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③ 도덕적 계몽으로 사회에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④ 집단 간 정의 실현에 집단 이기심의 상호 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
⑤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단원 02 사회 정의와 윤리

❷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

01

정답 및 해설 138p

다음 현대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5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 무지의 베일 속의 계약 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을 통해 특정 사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채택할 원칙들로서 모든 합의를 규제하게 된다.

① 가상의 상황에서 보편적 합의를 위해서는 동정심이 필요한가?
②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경제적 재화의 차등 분배보다 선결 과제인가?
③ 더 큰 사회적 효용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④ 기회의 균등을 통해 정의의 요건인 결과의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가?
⑤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가?

02

정답 및 해설 140p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변형]

> 당사자들이 자신의 재능, 가치관, 심리적 경향 등을 알지 못하는 가상 상황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 보편적이고 정당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① 결과의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성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②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
③ 가상 상황은 상호 배려와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④ 가상 상황의 개인들은 계약에 합의할 의지가 없다.
⑤ 합의 당사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어야 한다.

03

정답 및 해설 141p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변형]

> 특정 지식이 제한된 최초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전체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를 향상하는 원칙에는 합의한다.

①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는 공정성과 양립할 수 없다.
② 최초 상황의 개인은 서로의 이익을 공평하게 비교한다.
③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 나타난 결과는 불평등해도 인정된다.
④ 소득 분배는 공정한 사회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⑤ 결과의 정당성은 절차의 공정성에 구속받지 않는다.

04

정답 및 해설 142p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 가치의 사회적 의미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는 결코 상상 속에서 철학적으로 고안될 수 없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그 의미에 따라 상이한 절차와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Y의 소유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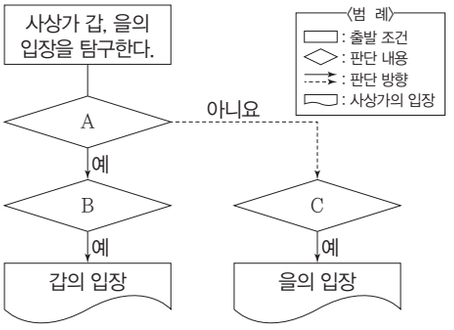
① 가치의 사회적 의미와 무관한 기본적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② 가상 상황에서 합의한 원칙을 현실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③ 정의론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④ 가치를 분배할 때에는 사회의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⑤ 지배적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도 지배해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5

정답 및 해설 144p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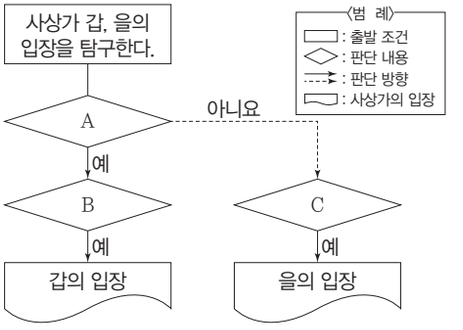
(가)	갑 : 공통의 정의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숙고된 판단과 일치하는 합당한 정의관을 도출할 수 있다. 을 : 어느 한 시민이 다른 시민보다 우선적으로 공직에 선출될 경우 정치 영역에서 두 사람은 불평등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 공직에 선출된 시민의 직위가 그 밖의 영역에서 다른 시민보다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반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나)	

① A : 재화의 차등 분배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② B : 모든 사람의 이익 증진이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조건인가?
③ B : 효용의 극대화가 다수가 합의해야 하는 정의관 결정의 원칙인가?
④ C : 사회의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도 되는가?
⑤ C : 모든 사회적 가치는 자유 교환의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 하는가?

06

정답 및 해설 145p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가)	갑 : 정의는 자신에 관한 특수한 지식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의되는 원칙에 근거한다. 그 상황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을 : 정의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정당한 최초의 취득과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한 분배는 정의롭다.
(나)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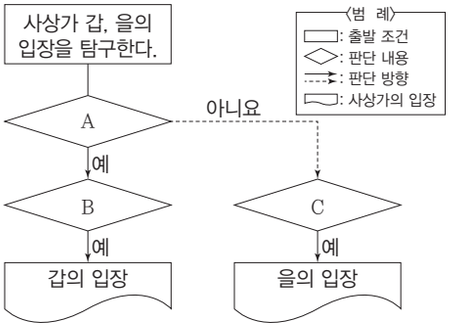
ㄱ. A : 사회적 직위를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ㄴ. B : 약자의 복지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는 부당한가?
ㄷ. B : 사회적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은 조정될 필요가 있는가?
ㄹ. C :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 소유 권리가 있는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7

정답 및 해설 146p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8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가)	갑 :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만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가장 불운한 계층의 처지가 최초 상태에 비해 개선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의에 부합한다. 을 : 모든 것이 매매되고 모두가 같은 양의 돈을 갖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이러한 단순 평등 상태는 자유 교환으로 결국 불평등해지므로,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들을 갖는 복합 평등 상태가 정의에 부합한다.
(나)	

보 기

ㄱ. A :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최초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ㄴ. B : 정의의 제2원칙은 제1원칙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칙인가?
ㄷ. C :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는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인가?
ㄹ. C : 정의의 세분화된 영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해야 하는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8

정답 및 해설 147p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18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전제(專制)의 특성은 하나의 수단을 통해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공직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선적인 의료 혜택 등을 얻는 것이다. 복합 평등 체제는 이러한 전제와 정반대이다. 복합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공직에 선택된다고 해도, X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그 외 모든 영역에서 우선적인 혜택이 X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

①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
② 모든 사회적 가치는 필요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 가치는 그 고유한 의미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한다.
④ 복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배적 가치는 평등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면 안 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9

정답 및 해설 14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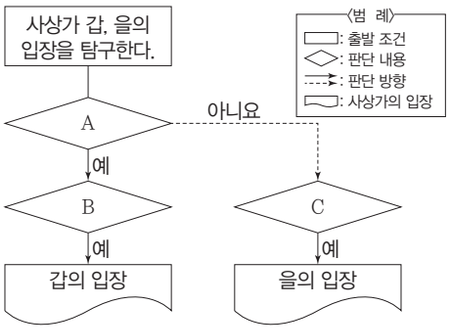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8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가)

갑 : 사회적 가치들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며, 각 분배 영역에는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이 있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을 : 사회적 기본 가치들 사이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서열적으로 배열된다. 이는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사회적 이득의 교환이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나)



보 기

ㄱ. A : 정의로운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가?
ㄴ. B : 분배 영역들 간의 경계는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ㄷ. B : 상이한 사회적 가치를 상이한 기준으로 분배해야 하는가?
ㄹ. C : 사회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0

정답 및 해설 149p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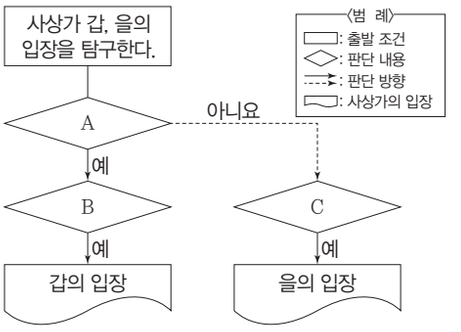
(가)

갑 : 개인의 자연적 재능은 단지 운일 뿐이며, ~~소득과 부의 분배는 자연적 재능이 갖는 자의적인 영향이 누적된 결과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

을 : 개인의 자연적 재능이 운의 문제라는 사실로부터 자연적 재능이 공동의 자산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는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그 자신의 소유로 간주한다.

해설 참고

(나)



보 기

ㄱ. A : 다수를 위해 소수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가?
ㄴ. B :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는가?
ㄷ. C : 시정의 원칙에 따른 국가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가?
ㄹ. C : 분배의 결과보다 소유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1

정답 및 해설 150p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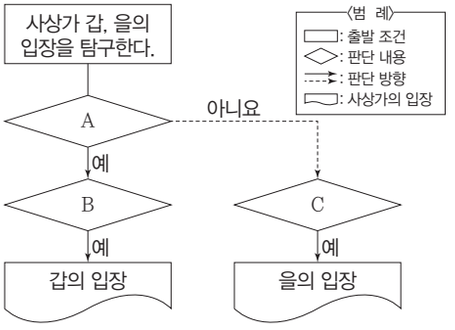
[2019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가)

갑 : 정의로운 분배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째,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을 : 정의로운 분배는 영역 간 가치의 일반적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영역의 사회적 가치 X는 어떤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X의 의미와 관계없이 Y를 소유한 사람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나)



보 기

ㄱ. A :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선택되어야 하는가?
ㄴ. A :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불평등을 제거해야만 하는가?
ㄷ. B :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된다면 기본적 자유의 침해는 정당한가?
ㄹ. C : 가치의 분배 기준은 해당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다른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정답 및 해설 151p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나는 공리주의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체제로 해석한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어떠한 분배 상태가 행복의 최대 총량을 산출하는지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의의 체제는 우연한 여건들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반면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은 공리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게임이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등 공정했다면 게임이 끝난 후 게임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 의미하는 것은 [㉠]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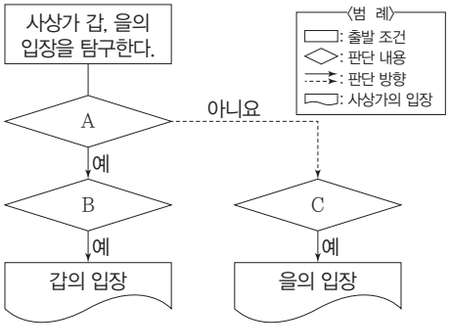
① 공정한 절차를 따르게 되면 균등한 분배를 보장받을 수 있다
② 정의로운 결과를 판단할 기준은 있지만 그 결과를 보장할 절차는 없다
③ 공정한 절차를 따르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④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
⑤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도,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절차도 없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3

정답 및 해설 152p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9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가)	갑 : 노동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강제 노동과 같다. 노동자가 행한 노동의 결과를 점유하는 것은 노동자로부터 그의 시간을 빼앗는 것과 동등하다. 을 : 노동자가 자본주의하에서 행하는 노동은 강제 노동과 같다. 노동자는 소외된 노동으로 인해 일하지 않을 때 편안하고 일할 때는 편안하지 못하다.
(나)	

보 기

ㄱ. A : 사적 소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상적인 분배가 가능한가?
ㄴ. B :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부유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부당한가?
ㄷ. B : 노동 투입은 최초 취득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인가?
ㄹ. C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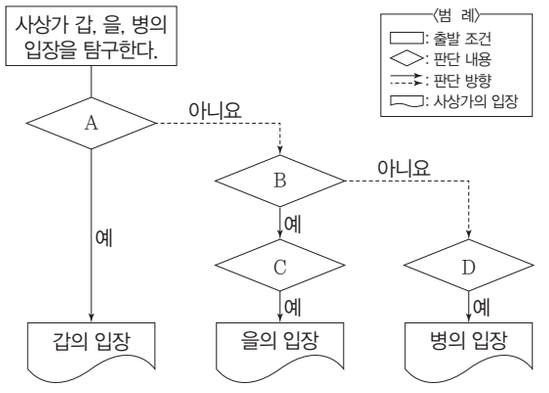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4

정답 및 해설 153p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가)	갑 : 각각의 분배의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정의롭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을 :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재화의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병 : 개인들은 그들의 자연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 어떤 것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경우 이로부터 유출되는 모든 것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나)	

보 기

ㄱ. A : 한 분배 영역의 가치가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야 하는가?
ㄴ. B :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은 사회 제도에 의해 개선되어야 하는가?
ㄷ. C : 모든 사람의 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공정한 기회균등을 제한할 수 있는가?
ㄹ. D :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다면 빈부의 격차도 정당한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정답 및 해설 154p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0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갑 : 분배 정의에 관한 기존의 원리들은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반면 주는 사람의 권리는 무시한다. 그러므로 분배 정의를 논함에 있어 '~에 따라 받을 만한'이란 표현을 '~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이란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을 : 부와 소득의 분배 그리고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직위와 직책은 기본적 자유 및 기회의 평등 모두와 양립 가능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은 그것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① 갑 :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② 갑 :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③ 을 : 최소수혜자의 이익은 정의의 원칙 합의 이전에 보장된다.
④ 을 :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기 삶의 전망에 무관심하다.
⑤ 갑, 을 :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16

정답 및 해설 156p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0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갑 :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최초의 상황보다 개선되며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 협동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을 :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지만 취득, 이전 및 교정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정의관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① 갑 : 사회적 약자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제한 가능하다.
② 갑 : 차등의 원칙에 따라 우연적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보상해야 한다.
③ 을 : 재화 소유의 역사적 과정보다 최종적 분배 결과가 중요하다.
④ 을 :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⑤ 갑, 을 : 정의의 원칙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출된다.

17

정답 및 해설 157p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0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갑 :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자본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전환시키고, 그 누구의 노동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을 :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에 따라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고, 이러한 영역들의 내재적 자율성이 존중되는 복합 평등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① 갑 : 이상 사회에서는 분업의 장려로 구성원의 자립성이 회복된다.
② 갑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를 집중시킨다.
③ 을 :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은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
④ 을 :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⑤ 갑, 을 : 경제적 재화는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18

정답 및 해설 158p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1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변형]

질서 정연한 사회는 구성원의 선을 증진하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보 기

ㄱ. 합의 상황에서 누구나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삶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ㄷ.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ㄹ.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3단원 O3 국가와 시민의 윤리

❶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01

정답 및 해설 159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갑 : 사람이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은 본래 그러한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까닭은 분별에 있다. 사회에는 분별이 없을 수 없으니, 분별에는 예(禮)가 가장 중요하고, 예에서는 성왕(聖王)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을 : 자연 상태의 인간은 고립적 · 적대적이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성은 우리에게 자기 보존을 위하여 평화를 추구하도록 한다.

보 기

ㄱ. 갑은 예치를 국가의 기본적 통치 원리로 삼는다.
ㄴ. 을은 국가를 개인들의 자기 보존 수단으로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 갑, 을은 인간 본성이 교화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2

정답 및 해설 161p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서술형 평가

◉ 문제 :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경쟁 때문에 약탈자가 되고 불신 때문에 침략자가 되며 명예욕 때문에 공격자가 된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 자연법인 이성은 인간에게 내면의 의무를 지울 뿐이므로 자연법의 준수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을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으므로 전쟁 상태에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연적 권리를 갖지만 그것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시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면, 갑은 ㉠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의해 자연 상태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고, ㉡ 사회 계약 이후에 국가만이 계약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을은 ㉢ 자연법 집행에 관한 개인 간의 분쟁을 중재할 공통 권력의 부재로 인해 자연 상태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고, ㉣ 개인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권력의 분립이 아닌 집중을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 사회 계약이 개인들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공통점을 갖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

03

정답 및 해설 162p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원칙의 앞부분은 자연법의 기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다.

① 정치 질서는 사회 계약을 계기로 해서 발생한다고 본다.
②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④ 자연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인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⑤ 자연 상태에서 경쟁과 불신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고 본다.

04

정답 및 해설 163p

갑은 고대, 을은 근대 사회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갑 :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마을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사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 속하지 않은 고립된 자는 동물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을 :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① 갑은 가족이 마을이나 국가보다 완전한 최고의 공동체라고 본다.
② 갑은 정치적 의무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국가 권력은 분할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 없다고 본다.
④ 을은 묵시적 동의로도 개인에게 정치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치적 의무를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의무의 하나로 본다.

05

정답 및 해설 166p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갑 : 사회 계약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하여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둘 것을 명령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재산 소유자를 공공 재산의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을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자립적이고 인격적인 반면 사람은 비자립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존재로 전락한다. 자본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변하면 재산의 계급적 성격이 상실된다.

① 갑 :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② 갑 :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특정인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③ 을 : 경쟁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계급 간의 갈등을 약화시킨다.
④ 을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을 자본의 예속에서 해방시킨다.
⑤ 갑, 을 : 인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유 재산의 발생에서 비롯된다.

06

정답 및 해설 167p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1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갑 : 사람들은 자연적인 권력을 사회에 위임하며, 사회는 일정한 사람의 수중에 입법권을 위임한다. 사람들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고 신탁을 하는 것이다.

을 : 사람들은 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만 주인이고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된다.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으며, 국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다.

① 갑 :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이므로 자연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갑 :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을 소유해야 한다.
③ 을 : 주권을 가진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
④ 을 : 통치자는 일반 의지의 대행자이므로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⑤ 갑, 을 :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07

정답 및 해설 168p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2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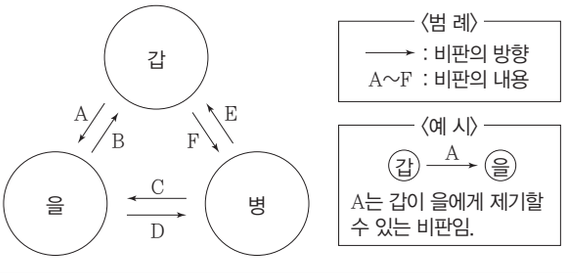
(가)

갑 :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각자는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적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 규약에 합의하게 된다.

을 : 자연 상태는 각자가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므로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누군가 자연의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 취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병 :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곳곳에서 사슬에 매여있다. 우리 각자는 신체와 힘을 모두 일반 의지에 맡긴 후 다시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나)



① A : 자연 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 상태임을 간과한다.
② B, D : 소유권은 사회 계약을 통해 획득된 산물임을 간과한다.
③ C :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잘 보전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E :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는 점에서 사회 상태와 구분됨을 간과한다.
⑤ F :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음을 간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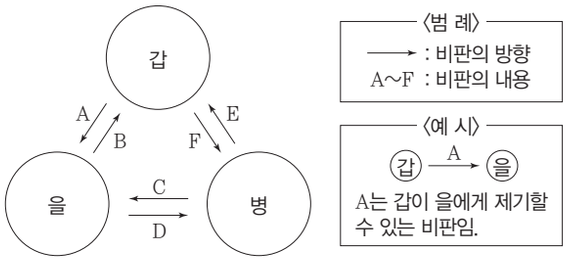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8

정답 및 해설 170p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2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가)	갑 :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의 욕구에 따르는 무제한의 자연권을 행사함으로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초래한다. 을 :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 하에 둔다.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으며, 시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다. 병 :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는 신탁을 한다.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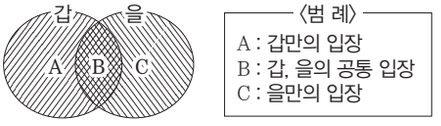
① A, F : 자연 상태의 인간이 이기적 존재는 아님을 간과한다.
② B : 시민이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보유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C : 모든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을 간과한다.
④ D : 시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E : 국가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지 않아야 함을 간과한다.

09

정답 및 해설 171p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2022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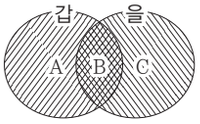
(가)	갑 : 인간이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과 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을 위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있다. 을 : 인간은 모든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권위를 가진 입법부를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나)	

① A : 사회 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A :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할되어야 한다.
③ B :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들의 생명권 보장이다.
④ C : 입법부가 지닌 권력은 제한될 수 있어도 철회될 수는 없다.
⑤ C : 사회 계약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닌다.

10

정답 및 해설 173p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3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가)	갑 : 사회 계약으로 모든 사람은 각자 신체와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에 맡긴다. 주권을 지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일반 의지뿐이다. 을 : 사회 계약의 목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 계약으로 성립된 리바이어던에게 복종해야 한다.
(나)	 〈범 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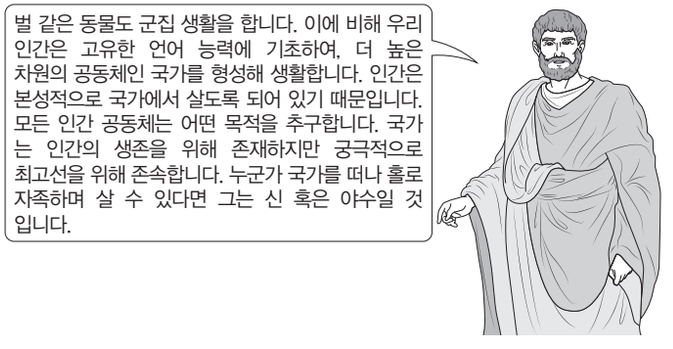
ㄱ. A : 국가는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다.
ㄴ. B :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ㄷ. B : 인민의 동의가 국가 형성의 근거이자 주권의 근거이다.
ㄹ. C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생명권을 보장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정답 및 해설 175p

다음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3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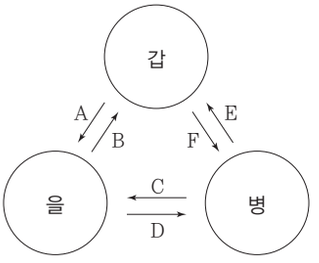


① 인간 공동체들 중 국가만이 좋음을 추구할 수 있다.
② 인간의 물질적 자족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③ 국가가 형성된 후에만 인간은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인간 공동체의 최선의 단계로서 최고의 좋음을 추구한다.
⑤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본성이 없지만 행복의 실현을 위해 국가를 결성한다.

12

정답 및 해설 177p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3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가)	갑 : 인간은 자연 상태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개인은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일반 의지의 지배하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를 잃지 않게 된다. 을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런데 각자가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시민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병 : 경쟁심, 불신, 영광에 대한 욕구가 인간들 사이의 분쟁 원인이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나)	 〈범 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예 시〉 갑 A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① A :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 집행권은 모두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② B, D : 불법은 공통 권력이 존재할 때만 성립 가능함을 간과한다.
③ C : 자연 상태에서 분쟁하는 인간에게도 자연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④ E :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가 사회 계약의 계기가 됨을 간과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3

정답 및 해설 180p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3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갑 :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을 동일한 계약 조건하에 놓이게 하며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한다. 이 계약의 특성에 의해 일반 의지의 정당한 모든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을 :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것은 오직 그 자신, 그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① 갑 : 주권은 일반 의지에 의해 성립하며 정부를 통해 대표된다.
② 갑 :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은 시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
③ 을 :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④ 을 :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은 자연법에 의해 불가하다.
⑤ 갑과 을 : 개인은 사회 계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14

정답 및 해설 181p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4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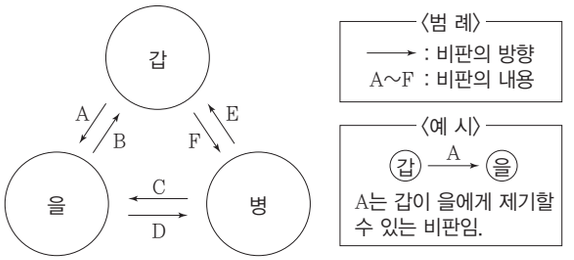
(가)

갑 :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그러나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인 자연법을 제안한다.

을 :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뿐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병 : 통치자가 피치자의 자유, 생명,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의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나)



① A와 F :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② B : 계약 당사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③ C :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임을 간과한다.
④ D : 사회 계약의 목적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간과한다.
⑤ E :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15

정답 및 해설 185p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4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이성의 지배만 받을 뿐이며,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을 :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떠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함이며, 법률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회에서 확립된 것이다.

① 갑 :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함은 정의 발생의 원천이다.
② 갑 : 주권자는 시민들과 맺은 사회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을 : 시민은 자연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린다.
④ 을 : 입법부는 신탁(信託)된 권력이 아니므로 교체가 가능하다.
⑤ 갑과 을 : 개인의 모든 권리는 사회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부여된다.

16

정답 및 해설 186p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4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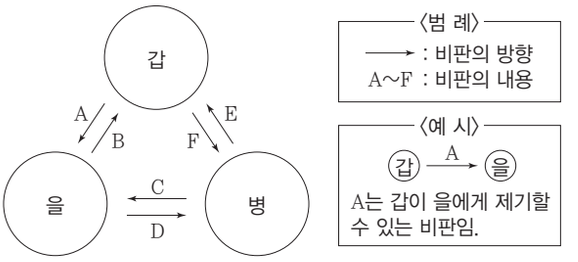
(가)

갑 : 국가는 다수의 사람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인격이다. 자연 상태에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 각자의 각자에 대한 전쟁 상태에 빠져든다.

을 : 국가는 계급과 함께 출현한 계급 사회의 산물로 지배 계급이 그들의 공동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이 국가를 타도해야 한다.

병 : 국가는 개인의 인격이 모두 결합된 공적 인격이다. 개인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입법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나)



① A : 국가는 그 사회의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함을 간과한다.
② B와 D : 국가는 계약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성립된 것임을 간과한다.
③ C : 사유 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함을 간과한다.
④ E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⑤ F : 국가의 주권은 사회 계약에 참여한 주체에게 귀속됨을 간과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7

정답 및 해설 189p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5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갑 :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목적은 자기 보존과 만족된 삶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

을 : 최고 권력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정부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었기에 이러한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보 기

ㄱ. 갑 :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
ㄴ. 갑 :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
ㄷ. 을 :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회 계약 이후 발생한다.
ㄹ. 갑과 을 :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정답 및 해설 190p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25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갑 : 가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고, 마을은 가정들로부터 생겨난 공동체이며, 국가는 마을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국가는 완전한 자족이라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생겨났지만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을 :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들을 사회에 양도하는 이유는 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다. 입법자들이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노예 상태로 만들고자 할 경우 시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보 기

ㄱ. 갑 : 인간 본성은 국가보다 큰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을 :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사건에 대해 판단할 주체는 없다.
ㄷ. 을 : 법을 제정하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 : 국가의 목적은 시민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정답 및 해설 192p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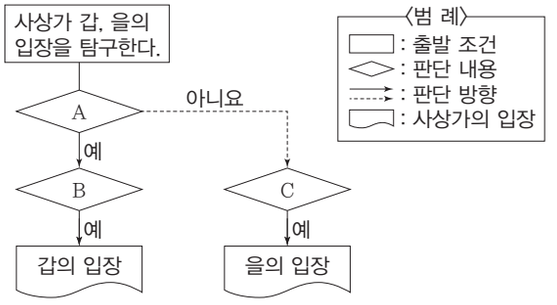
[2025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가)

갑 :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닌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여 세운 인격이다.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을 : 국가는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공동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을 통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나)



보 기

ㄱ. A : 국가는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현하는가?
ㄴ. B : 정의의 실현은 동의에 의해 설립된 주권에 근거하는가?
ㄷ. B :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 하는가?
ㄹ. C : 국가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기반이 되는 정치적 중립 조직인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과학과 윤리

빠른 정답 4단원

01 과학 기술과 윤리
❶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및 기타

01	④	02	⑤	03	②	04	①	05	⑤
06	⑤	07	①	08	②	09	⑤	10	⑤
11	③	12	④	13	④	14	③	15	①

01 과학 기술과 윤리
❷ 요나스의 책임 윤리

01	②	02	①	03	③	04	⑤	05	②
06	④	07	⑤	08	②	09	①	10	③

02 정보 사회와 윤리

01	①	02	④	03	①	04	①	05	⑤
06	②	07	④	08	③	09	③	10	①
11	①	12	③	13	③	14	③	15	③
16	②	17	①	18	④	19	④	20	①
21	①	22	②	23	④	24	③	25	②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4단원 01 과학 기술과 윤리

❶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및 기타

01 정답 및 해설 199p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

> 과학 기술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과학 기술자는 [㉠].

① 과학 기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을 통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③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태도로 연구해야 한다
④ 과학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연구해야 한다
⑤ 과학 기술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02 정답 및 해설 199p

다음 글에 나타난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9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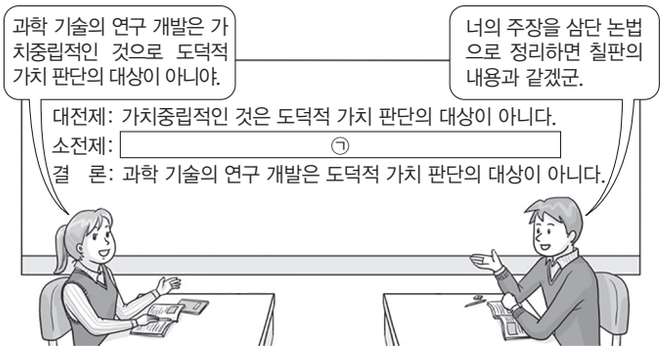
> 현대의 기술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무리하게 얻으려고 한다. 과거의 풍차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며 바람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겼지만, 수력 발전소는 강물의 흐름을 발전소에 맞추어 버렸다. 즉, 수력 발전소가 세워진 그 강은 발전소의 요구에 맞추어 수압 공급자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① 현대의 기술이 인류에게 무한한 행복을 제공한다고 본다.
② 현대의 기술이 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③ 현대의 기술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현대의 기술은 그 자체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본다.
⑤ 현대의 기술이 자연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변질시킨다고 본다.

03 정답 및 해설 200p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① 과학 기술은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② 과학 기술의 연구 목표를 설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
③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가치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④ 과학적 사실 판단은 도덕적 가치 판단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⑤ 과학 기술의 연구 대상과 도덕의 탐구 대상은 서로 구별된다.

04 정답 및 해설 201p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6평]

> 과학은 사회 ·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과학에는 사회 집단의 정치적 관계, 가치관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과학이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나 가치를 반영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과학자와 일반 대중이 함께하는 '확장된 동료 공동체'가 절실히 요구된다.

보 기

ㄱ. 과학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는가?
ㄴ. 과학과 관련된 중요 결정을 내릴 때 시민 참여가 필요한가?
ㄷ. 과학은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 가치중립적이어야 하는가?
ㄹ. 과학 관련 논의에서 과학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정답 및 해설 201p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2015학년도 9평]

수행평가

◎ 문제 : 과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 갑 : 과학은 사회적 적응을 전제로 한다. 과학은 연구 활동 및 그 결과의 활용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에 해악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학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된다.
> 을 : 과학은 과학적 진리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해악은 기술 개발자와 이용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과학 연구 활동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

◎ 학생 답안

과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 갑은 과학이 도덕적 가치와 연관된다고 보며, ㉡ 을은 과학 연구 결과의 활용이 도덕적 가치와 연관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 갑은 과학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지만, ㉣ 을은 과학 연구 활동은 규범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 갑, 을은 과학 연구 활동은 그 결과의 활용과 분리되어 평가될 수 없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06

정답 및 해설 202p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015학년도 수능]

> 갑 :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과학 연구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해. 따라서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도덕규범만 준수하면 돼.
> 을 : 과학자는 진리 탐구의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도덕 규범을 지켜야 해. 아울러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과학 연구 활동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만 해.
> 갑 :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과학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핵분열을 연구하는 것과 그것을 활용하여 원자 폭탄을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야.
> 을 : 아니야. 어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원자 폭탄의 제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어.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의 복지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해.

① 과학 연구의 결과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가?
② 과학 연구 활동의 자유는 인류의 복지와 무관한가?
③ 과학 연구는 참과 거짓의 탐구를 목적으로 삼는가?
④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도덕규범을 지켜야 하는가?
⑤ 과학자는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하는가?

07

정답 및 해설 202p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물음에 대해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6평]

> (가) 과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이성의 도구적 측면만을 중시하고 의사소통적 측면을 간과하였다. 의사소통적 이성은 사회 집단이 자신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규범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요구된다. 즉 그것은 '담론'의 상황에서 작동되는데, 이른바 '공론장'에서 논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 (나)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

① 시민들의 이성적 토론을 통해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 전문가 집단의 토론 결과만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이익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시민 사회보다 관련 국가 기관이 주도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⑤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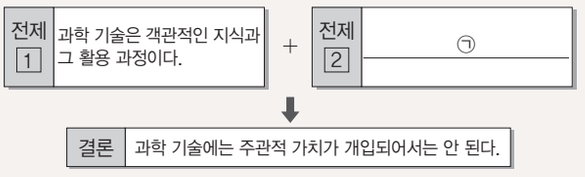
08

정답 및 해설 203p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 (가) 과학 기술은 객관적 지식, 즉 객관적인 방법으로 발견한 자연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①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② 모든 지식은 활용의 맥락에서 주관적 도덕 판단을 요구한다.
③ 과학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는 별개의 독립된 영역에 속 한다.
④ 모든 지식은 객관적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인식론적 대상이다.
⑤ 객관적 지식의 활용은 그 목적 설정을 위해 가치판단을배제해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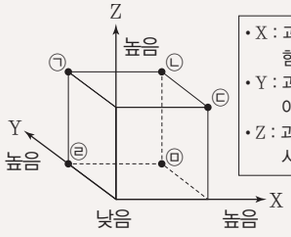
09

정답 및 해설 204p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수능]

(가) 과학 기술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과학 기술 연구 및 그 결과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공적인 책임 의식과 외부 규제가 없다면, 인류는 과학 기술에 종속당하여 제어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불행한 미래에 봉착하게 된다.

(나) 과학 기술 자체에 선악의 잣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연구 성과의 활용과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과학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어서는 안 된다.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전념할 때 과학 기술은 발전 가능하며, 그 결과 인류는 지속적으로 번영하게 된다.



- X : 과학 기술 연구의 독립성이 인류 진보에 공헌함을 강조하는 정도
- Y : 과학 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배제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 Z : 과학 기술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정답 및 해설 204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6평]

갑 : 현대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기술 시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을 :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술 시민권은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 아닙니다. 그러한 접근권만으로는 기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정책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참여만으로도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① 기술 사회에서는 기술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②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③ 기술 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가?
④ 기술 정책은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하는가?
⑤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전문가의 참여만으로 충분히 확보되는가?

11

정답 및 해설 205p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9학년도 9평]

과학자는 연구와 실험의 결과가 인류의 운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과학적 발견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로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자는 입증된 방법으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할 뿐이며, 오로지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책임을 다할 뿐이다.

보 기

ㄱ. 과학자는 연구 결과의 모든 활용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가?
ㄴ. 과학자는 연구의 외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ㄷ. 과학자는 이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가?
ㄹ. 과학자는 연구 주제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정답 및 해설 206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갑 :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키게 됩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을 : 동의합니다. 또한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 결과가 미칠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여 연구 및 개발과 그 활용에 관한 사회적 책임까지 다해야 합니다.

갑 : 아닙니다. 과학자에게 그러한 책임까지 돌리면 과학의 발전이 지체됩니다. 연구 결과가 활용되어 사회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도 그것은 연구 결과를 활용한 사람들의 책임일 뿐입니다.

을 : 과학의 발전이 지체될 수 있지만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과학의 발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간적 속도가 아니라 윤리적 방향입니다.

①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는가?
② 과학자는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가?
③ 과학자는 과학 연구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하는가?
④ 과학자에게 내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도 부과해야 하는가?
⑤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면 과학 발전이 지체될 수 있는가?

13

정답 및 해설 206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6평]

갑 :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데,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인공 지능을 통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을 : 동의합니다. 다만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서 스스로 판단하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 :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므로 모든 상황에서 인공 지능에게 운전을 맡겨야 합니다.
을 :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순히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자율성을 존중하여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① 인공 지능의 사용은 인간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가?
② 자율 주행 자동차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가?
③ 자동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가?
④ 위급 상황에서 어떤 주체가 자율 주행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가?
⑤ 인공 지능의 사용은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14

정답 및 해설 207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갑 :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인간의 의도에 맞도록 변형함으로써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자 해석자로서 자연을 경험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다.
을 : 현대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된다.

① 갑 :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② 갑 : 과학의 목적은 삶의 개선이 아니라 진리 탐구 그 자체이다.
③ 을 : 현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④ 을 : 현대 기술은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⑤ 갑, 을 : 기술은 수단일 뿐 그 자체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15

정답 및 해설 208p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9평]

갑 : 기술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결국은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 기술은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없다.
을 : 우리는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여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① 기술 그 자체는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인가?
② 기술은 그 자체로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③ 기술은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④ 기술 그 자체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가?
⑤ 기술의 사용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가?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4단원 01 과학 기술과 윤리

❷ 요나스의 책임 윤리

01

정답 및 해설 208p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 사상에 대해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6평]

(가) 프로메테우스는 과학을 통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났지만, 그는 자신의 힘이 불행을 자초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해야 한다.

(나) 과학은 관찰과 실험에 기초해 자연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을 활용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무한히 증대할 수 있다.

① 과학은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
② 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위험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③ 과학은 정치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④ 과학자는 객관적인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⑤ 과학의 진보를 위해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02

정답 및 해설 209p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인류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① 인간과 자연은 공존을 위해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가?
② 책임의 대상과 범위에 미래 세대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③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④ 인간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가?
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03

정답 및 해설 210p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17학년도 수능]

갑 : 심정 윤리는 소명을 받들어 희생하는 신앙인들처럼 내면의 신념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책임 윤리는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지도자들처럼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을 : 현대 문명이 초래한 위기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며,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자체만으로 책임을 갖는다. 이에 우리는 책임지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공백'을 극복해야 한다.

① 갑 : 정치 영역에서는 책임 윤리보다 심정 윤리를 우선해야 한다.
② 갑 : 심정 윤리에서는 행위의 선한 의도가 아닌 결과를 중시한다.
③ 을 : 인류가 존속해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할 정언 명령이다.
④ 을 : 자연에 대한 인류의 책임은 예방이 아닌 보상을 위한 것이다.
⑤ 갑, 을 : 행위의 의도가 선하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04

정답 및 해설 211p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18학년도 6평]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이므로 윤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행위는 인과적 파급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행위의 힘이 커질수록 윤리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 기술로 인해 인간이 갖게 되는 새로운 행위 능력을 규제할 새로운 윤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 없이는 기술 능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압력으로 인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윤리적 책임에서 면제시켜 준다.
② 새로운 윤리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③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문제를 기존의 윤리로 해결해야 한다.
④ 새로운 윤리는 기술에 대하여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⑤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결여될 때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05

정답 및 해설 212p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물음에 대해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9평]

(가)	전통 윤리학과 달리 새로운 윤리학은 미리 사유된 위험 그 자체가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전 지구적 차원의 위험, 인류 몰락의 징조 등을 통해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부른다.
(나)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책임과 관련하여 과학 기술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①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만을 고려해야 한다.
② 생태계 전체를 예방적 책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연구의 위험이 확실할 때에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세대 간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
⑤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 과학적 연구 성과를 더 중시해야 한다.

06

정답 및 해설 213p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수능]

우리에게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선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지만, 악의 현존은 우리에게 인식을 강요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은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①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③ 새로운 윤리학은 최고악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④ 새로운 윤리학은 "A이면 B하라."라는 형식의 명법만을 지향한다.
⑤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도 중시해야 한다.

07

정답 및 해설 214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갑 :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를 의식하기 때문에 정언명령을 따라 행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언명령은 보편화 정식으로 표현된다.
을 :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그 자체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간이 미래의 위험을 예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명령으로 표현된다.

① 갑은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한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본다.
② 갑은 도덕 법칙의 형식으로 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③ 을은 책임의 주체와 대상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한정된다고 본다.
④ 을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⑤ 갑, 을은 인간이 준수해야 할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08

정답 및 해설 215p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상 대담〉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평]

오늘날과 같은 '윤리적 공백'의 시대에는 구원의 예언보다 불행의 예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 기술 유토피아주의를 찬양하는 '희망의 원칙'이 아닌, 미리 사유된 위험 그 자체와 관련된 '공포의 원칙'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

〈가상 대담〉
리포터 :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사상가 :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를 가져야 합니다.

① 자연과의 상호 책임성을 토대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②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지는 것처럼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③ 자연에 대한 주인 의식을 토대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④ 과학의 무한한 진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⑤ 행위의 직접적 영향의 한도 내에서만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9

정답 및 해설 216p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1학년도 6평]

과학자들은 과학이 일정한 규칙하에 인과적 필연성을 검증하는 순수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과학은 인식 대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자연은 오직 인과적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적 응용이 과학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과학 기술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의심스러울 때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귀 기울여 책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보 기

ㄱ. 과학 기술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ㄴ. 과학 기술자는 연구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ㄷ. 과학 기술자는 기술적 응용에서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ㄹ. 과학 기술자는 사회적 책임보다 내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정답 및 해설 218p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21학년도 수능]

-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학은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행해야 할 것과 관련된 책임 개념에 따르면, 현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사태의 의존자인 미래 세대는 명령자가 되고, 권력자인 현세대는 의무자가 된다.

보 기

ㄱ. 선의 탐구에서 악의 인식보다 선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다.
ㄴ. '할 수 있다'는 능력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책임이 발생한다.
ㄷ. 인간의 힘이 자연으로 확장될수록 자연 파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ㄹ. 현세대와 미래 세대는 삶의 지속을 위해 상호 간에 의무를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단원 02 정보 사회와 윤리

01

정답 및 해설 219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4학년도 6평]

갑 : 우리의 법은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합법적 절차를 거쳐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하거나, 그것을 구현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을 : 정보의 복제 가능성은 무한하다. 하지만 정보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없도록 한다면 정보는 더이상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정보의 고유한 특성은 사라지고 그것은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된다.

보 기

ㄱ. 갑은 저작권 보호가 창작 의욕을 고취한다고 본다.
ㄴ. 을은 정보의 공유가 정보의 소모를 초래한다고 본다.
ㄷ. 갑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재로, 을은 공공재로 본다.
ㄹ. 갑, 을은 정보의 소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다고 본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2

정답 및 해설 219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6평]

갑 : 흉악범으로 밝혀진 사람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을 :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신상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훼손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갑 : 그렇기는 하지만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을 :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① 사생활 침해가 개인의 인격권 훼손에 해당하는가?
②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③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가?
④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해도 되는가?
⑤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인가?

03

정답 및 해설 220p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4학년도 9평]

현대 정보 사회는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판옵티콘'과 유사하다. 판옵티콘에서는 중앙에 감시탑을 세우고, 감시탑 둘레에 죄수들의 방을 배치한다. 여기서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지만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피감시자는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보 기

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ㄴ. 특정 집단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한다.
ㄷ. 기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첨단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ㄹ. 정보 소통에서 쌍방향성이 아닌 일방향성을 추구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4

정답 및 해설 220p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9평]

○○일보 ○○○○년 ○월 ○일

㉠

언론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은 아니지만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들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시민의 알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이를 명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중략)… 이제 우리는 언론을 '자유'라는 측면과 더불어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①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시해야 한다.
③ 언론은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
④ 언론은 검증된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⑤ 언론은 취재와 보도, 편집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05

정답 및 해설 221p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언론인의 바람직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수능]

언론인이 사전 보도 금지의 약속을 위반하여 경쟁사보다 먼저 특종 기사를 보도한다면 그는 일시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언론인은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실 그대로 보도하기는 하지만 보도 이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언론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언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
② 취재, 편집 및 보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오보로 인한 피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의견을 구분하여 보도해야 한다.
⑤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06

정답 및 해설 221p

다음 글은 신문 사설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일보

㉠

오늘날과 같은 정보 사회에서 정보는 물이나 전기와 같이 인간이 생활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물이나 전기 없이 며칠을 견디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수도나 전기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수도와 전기를 끊어 버리는 일은 비인도적인 처사로 여겨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 소외 계층은 정보를 소유하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느낄 것이며, 그들은 정보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회적 약자로 머물게 될 것이다. …(중략)…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러한 시민의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① 정보 사유화를 강화하여 새로운 정보의 산출에 힘써야 한다.
② 정보 사회에서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국가의 독점적 정보 관리로부터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④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역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정보 공유화로 인해 발생한 책임의 분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7

정답 및 해설 222p

(가)의 내용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나)의 ㉠~㉣에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6평]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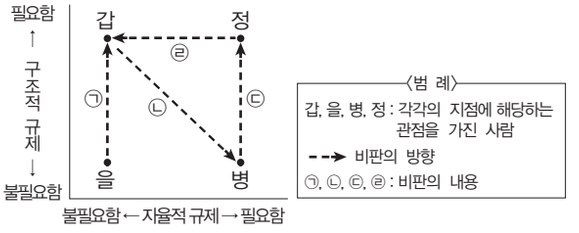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을 막는 방법에는 자율적 규제와 구조적 규제가 있다. '자율적 규제'는 도덕적 행위 규범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구조적 규제'는 일탈을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의 의무화를 통해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다. 두 가지 규제 각각의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또한 관점들 서로 간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비판의 내용〉

A :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져 든다. 따라서 자율적 규제가 아닌 구조적 규제가 요구된다.

B :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일탈 방지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적 규제도 함께 필요하다.

(나)



	A	B		A	B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정답 및 해설 222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9평]

갑 : 자연의 공기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제약해서도 안 돼. 정보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배타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돼.

을 : 정보는 자연의 공기가 아니라 산소통의 공기와 같은 것이야. 산소통의 공기를 쓰려면 그 생산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해. 정보 또한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생산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해.

① 갑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해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정보를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여겨야한다고 본다.
④ 갑, 을은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정보 공유 금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보 생산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필요 없다고 본다.

09

정답 및 해설 223p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9평]

○○신문 ○○○○년 ○○월 ○○일

칼럼

최근 어떤 나라에서 한 언론사가 정부의 외교 기밀을 폭로한 기사를 연재했다. 이에 정부는 그 기사가 국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보도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정부가 진실을 감추거나 국민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란 점을 근거로 보도를 허용하였다. 이 판결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정한 정보 공개 기준이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민주 사회에서 국민은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권자로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일체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을 위한 정보 제공이 바로 언론 본연의 사명이자 존재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 사회의 언론은 [㉠] …(후략)…

① 진실을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에게 반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④ 국익 관련 정보 보도에 언론의 자유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0

정답 및 해설 223p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신문 ○○○○년 ○○월 ○○일

칼럼

언론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그가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그가 큰 죄를 지은 범죄자라고 믿게 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가 정당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중에 그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겠지만 그에게서 범죄자라는 낙인이 지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언론에 신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 …(후략)…

① 언론은 인격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보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언론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③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언론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⑤ 언론은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의 신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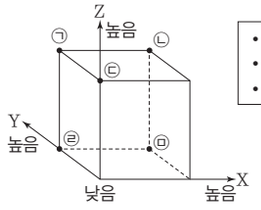
11

정답 및 해설 224p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정보는 하나의 상품이므로 그것을 만든 정보 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심화할 수 있지만, 정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여 더 많은 양질의 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일종의 진화 과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새 기능을 부여하며, 그 후에 또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는 것이다. 만약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종류의 진화는 멈추게 될 것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 접근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 X : 지적 재산권의 보호 강조 정도
• Y : 정보의 공유재적 성격 강조 정도
• Z : 정보 격차의 완화 가능성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12

정답 및 해설 224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6평]

갑 : 내 촛불을 여러 사람에게 붙여 주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으면서 세상은 더욱 밝아질 거야. 정보도 이와 같아서 어느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누어야 할 공공의 소중한 자산이야.

을 : 촛불을 여러 사람에게 붙여 세상이 밝아지는 것은 처음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그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 불빛이 더욱 의미가 있어. 이처럼 정보는 소유권을 인정해야 할 개인의 재산이야.

① 갑은 정보의 공유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② 을은 정보 소유권 보장이 정보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고 본다.
③ 을은 양질의 정보 생산을 위해 정보 복제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④ 갑은 정보를 인류의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본다.
⑤ 갑, 을은 정보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

13

정답 및 해설 225p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9평]

○○신문 ○○○○년 ○○월 ○○일

칼럼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는 정치적 냉소주의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되면 정치 권력의 부패와 전횡을 막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제도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어떤 서양 사상가는 "영국 인민은 선거할 때만 자유롭고, 선거 후에는 다시 노예가 된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집회에 정기적으로 모여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집회에 모이기는 힘들지만, 이 사상가의 주장에 담긴 취지를 구현할 방법을 언론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언론 매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수록 ㉠ …(후략)…

① 의견 수렴 매체의 단일화로 여론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② 시민의 의사소통 감소로 소모적 갈등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③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④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⑤ 정부가 시민을 대신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14

정답 및 해설 225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학년도 9평]

갑 : 정보는 정보 생산자의 창작물이므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생산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설령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 정보 생산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 :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정보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정보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경제적 약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를 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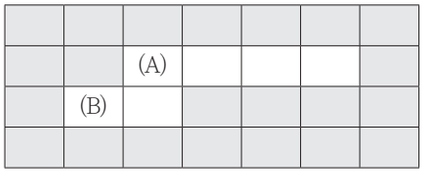
① 갑은 경제력 차이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보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을은 공유 자산으로 본다.
④ 갑, 을은 정보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5

정답 및 해설 226p

(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수능]

(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진화 과정과 유사하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떤 사람이 그 일부를 손질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그 후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여 또 다른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소유권의 존재는 이러한 진화를 방해한다.
(나)	 [가로 열쇠] (A) :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려 일을 하는 것. 실적이 아니라 정치성·혈연·지연·개인적 친분 등을 중심으로 공직에 사람을 임용하는 인사 관행 (B) :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고락(苦樂)의 갚음. 인과○○ [세로 열쇠] (A) : …… 개념

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진화에 방해를 받는 개체이다.
② 사용자가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적 환경이다.
③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해야 할 상호 협력의 산물이다.
④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을 통해 진화하는 프로그램의 단위이다.
⑤ 무한한 복제 · 수정이 가능하므로 무단 사용을 금해야 할 자산이다.

16

정답 및 해설 227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6평]

갑 : 장발장은 전과자 신분을 숨기고 시장이 되었어. 하지만 정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잊거나 지우고 싶은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어서 타인이 볼 수 있지.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해.

을 : 장발장이 아무리 시민을 위해 봉사했다 하더라도 그를 시장으로 뽑을 때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알아야만 했다고 봐. 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나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삭제를 금지해야 해.

보 기

ㄱ. 갑: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ㄴ. 갑: 잊힐 권리 보장이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ㄷ. 을: 사생활 보호가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ㄹ. 갑, 을: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정답 및 해설 227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9평]

갑 :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을 :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갑 : 아닙니다. 악성 댓글 문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을 : 제도적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악성 댓글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①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가?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는 악성 댓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③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책임감과 실천이 필요한가?
④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가?
⑤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의 도덕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18

정답 및 해설 228p

갑이 을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수능]

① 익명성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 성격을 지님을 간과하고 있다.
② 사이버 폭력의 증가가 디지털 익명성에 기인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사이버 공간의 실명 공개가 표현의 책임성을 강화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규제가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익명성 보장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함을 간과하고 있다.

19

정답 및 해설 228p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6평]

갑 :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접근 능력과 정보 수용 능력을 가리킨다. 정보 격차는 주로 그러한 능력들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약자에게 정보 접근 및 수용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을 :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매체의 쌍방향성이 강화됨에 따라 접근 및 수용 능력 이외에 정보 생산 능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정보 격차는 주로 정보 생산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므로 정보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① 갑 : 정보 약자에게는 정보 접근 능력만을 제공해야 한다.
② 갑 : 정보 격차의 주된 원인은 정보 생산력의 차이에 있다.
③ 을 : 정보 복지의 핵심 과제는 정보 기기의 평등한 분배이다.
④ 을 : 정보 약자가 정보 생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갑, 을 : 정보 리터러시는 접근 및 수용 능력에 국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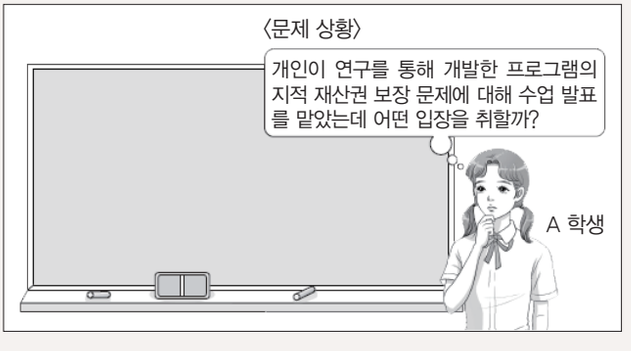
20

정답 및 해설 229p

다음 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 학생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9평]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열매와 거기에서 자라는 짐승들은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것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며 타인의 권리는 배제된다."라는 재산권 이론은 노동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의 노동을 통해 산출된 모든 산물에 적용될 수 있다.

〈문제 상황〉



①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간 지적 재산의 배타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세요.
② 사회 전체의 공리 극대화를 위한 지적 재산권의 보장을 강조하세요.
③ 지적 재산은 자연 발생적 산물이므로 공유의 대상임을 강조하세요.
④ 지적 재산의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강조하세요.
⑤ 무형의 정신노동이 들어간 지적 재산은 공공재임을 강조하세요.

21

정답 및 해설 229p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9평]

갑 : 대동강을 돈을 받고 판 김선달의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동강의 강물은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공유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보 또한 강물과 같은 것이므로 누구나 사용 가능해야 하며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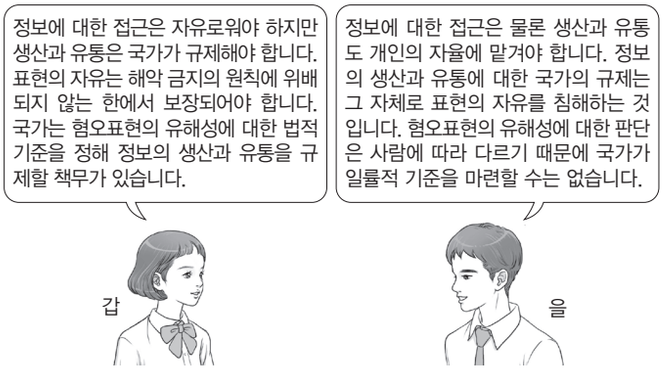
을 : 북청 물장수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냥 흐르는 강물이 아닌, 물장수가 한강에서 퍼 온 물통 속의 강물을 삽니다. 이처럼 정보 또한 물통 속의 물과 같아서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갑 : 정보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지닌다.
② 갑 : 정보의 사적 소유권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을 : 정보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공유 자산이다.
④ 을 :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성립된다.
⑤ 갑, 을 : 정보를 생산한 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

22

정답 및 해설 230p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수능]



① 갑 : 국가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② 갑 : 국가는 혐오표현의 유해성을 판단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③ 을 : 국가는 정보의 접근이 아닌 생산 · 유통의 자유만 보장해야 한다.
④ 을 : 국가는 해악 금지 원칙에 따라 정보 생산을 규제해야 한다.
⑤ 갑, 을 :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양립 가능하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3

정답 및 해설 231p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9평]

사이버 공간은 실제 공간의 연장이면서도 익명성의 특징을 지닌 새로운 공간이다. 도덕적 책임을 둔감하게 만드는 익명성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긍정적 측면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의 자아에서 벗어나, 여러 자아를 실험하며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만들고 해체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다중 정체성의 위험에 유의한다면 사이버 자아를 통해 현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이버 자아는 현실 자아의 반영에 불과하다.
② 사이버 자아의 익명성은 위험하기에 실명화해야 한다.
③ 사이버 자아는 현실의 자아보다 도덕적 책임에 민감하다.
④ 사이버 공간은 자아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⑤ 사이버 공간의 다중 자아를 금지해 정체성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24

정답 및 해설 232p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0학년도 수능]

갑 : 빅 브라더(Big Brother)는 소설 속 존재로, 사회를 철저히 장악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빅 브라더'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인 정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을 : 아고라(agora)는 고대 아테네의 광장으로, 자유민들은 이곳에서 민회에 참여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이 아고라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현실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있다.

보 기

ㄱ. 갑 :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생활권과 익명성이 보장된다.
ㄴ. 갑 : 정보 통신 기술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한다.
ㄷ. 을 : 사이버 공간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ㄹ. 갑, 을 :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증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

정답 및 해설 232p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6평]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 문제에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 개인이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표현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성 댓글이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일탈 행위로서 해당 개인과 집단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이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① 익명성으로 인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② 제도적 규제보다 자율적 규제가 적절한 해결책임을 간과한다
③ 표현의 자유보다 해악 금지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④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⑤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하여 악성 댓글이 예방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문화와 윤리

빠른 정답 5단원

0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01	⑤	02	①	03	①	04	④	05	①
06	③	07	①	08	④	09	④	10	②
11	②	12	①	13	①	14	①	15	④
16	③	17	②	18	②	19	⑤	20	④
21	⑤	22	③	23	①				

02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01	②	02	⑤	03	②	04	①	05	④
06	②	07	②	08	②	09	①	10	⑤
11	④	12	⑤	13	④	14	③	15	④

03 다문화 사회의 윤리
❶ 문화 다양성과 존중

01	⑤	02	④	03	⑤	04	②	05	④
06	③	07	⑤	08	④	09	④	10	⑤

03 다문화 사회의 윤리
❷ 종교의 공존과 관용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③
06	③	07	①	08	⑤	09	⑤	10	④
11	③	12	②	13	①	14	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5단원 0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01

정답 및 해설 237p

갑, 을 사상가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4학년도 6평]

갑 : 성인(聖人)의 도(道)는 음악이 아니면 시행되지 못하고, 천하 만물의 감정도 음악이 아니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세속의 음악은 모두 음탕하고 상스럽다.

을 :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부에 우아함을 심어 주고 영혼을 활기차게 만든다. 음악을 올바로 교육받으면 사람의 정신이 우아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된다.

보 기

ㄱ. 음악은 도덕적 교화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ㄴ. 음악을 독립적인 순수 예술로 존중해야 하는가?
ㄷ.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가?
ㄹ. 음악의 미적 가치는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2

정답 및 해설 239p

다음 글의 사상적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9평]

선왕(先王)이 인정(人情)에 비추어 예악(禮樂)을 만들었다. 예(禮)는 백성의 마음을 절도 있게 하고, 악(樂)은 백성의 마음을 화평하게 한다. …(중략)… 예악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악을 극진히 해서 마음을 다스리면 곧고 양순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① 예술은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가?
② 예술은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하는가?
③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④ 예술은 선(善)보다 미(美)를 중시해야 하는가?
⑤ 예술은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가?

03

정답 및 해설 240p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수능]

나는 좋은 음악이라면 유덕한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술에 내재된 미(美)는 우리의 정신을 고상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시(詩)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가의 견해에 대해 [㉠]고 생각한다.

① 예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② 예술이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예술의 극치가 도덕의 극치와 서로 통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예술이 미(美)보다 선(善)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04

정답 및 해설 241p

갑, 을의 예술관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6평]

갑 : 음악의 근본 요소는 화음이며, 음악의 본질은 리듬이다. 음악은 실제 세계에 대한 표현이나 묘사가 아니다. 음악의 형식은 음 자체의 결합이며, 음악미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음과 음의 예술적 결합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을 : 음악은 노랫말, 선율,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에서 노랫말이 중심이 되며, 선율과 리듬은 노랫말을 따라야 한다. 좋은 음악의 노랫말은 덕을 지닌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한다.

보 기

ㄱ. 갑은 음악이 외재적 가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ㄴ. 을은 음악이 올바른 품성의 도야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음악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ㄹ. 갑, 을은 음악에서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5

정답 및 해설 242p

다음 사상가의 예술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9평]

> 아름다움[美]은 대상의 완전함, 즉 정확한 비례와 균형에서 나온다. 진리[眞]가 완전하듯이 미 역시 완전해야 하고, 이는 동시에 도덕적인 좋음[善]을 뜻한다. 한편, 예술은 진리를 모방하는 것이다. …(중략)… 예술가들로 하여금 선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게 하고 시민이 이런 작품에 익숙해지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품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① 예술이 도덕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아름다움이 무질서한 대상에도 존재한다고 본다.
③ 예술은 사회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④ 예술에 대한 평가는 도덕적 가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난 아름다움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06

정답 및 해설 243p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수능]

> 예술의 사명은 생명에 대한 경건한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 등을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작가는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는 것에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작가의 견해가 [㉠]고 생각한다.

① 예술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예술은 감정을 순화하여 인격 함양을 도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예술과 도덕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예술이 미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07

정답 및 해설 244p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6평]

> 음악[樂]은 즐거움이다. 즐거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으며 사람의 음성과 동작에는 성정(性情)의 변화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군자는 음악을 통해 도(道)를 얻음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욕망 채움을 즐거워한다. 도로써 욕망을 제어하면 즐거워도 혼란하지 않으며, 욕망으로 인해 도를 잃으면 혼란해져서 즐겁지 않게 된다.

보 기

ㄱ. 인간의 성정과 무관한 음악은 있을 수 없다.
ㄴ. 음악은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ㄷ. 예법에 맞는 음악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ㄹ. 음악에 대한 도덕적 규제는 음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정답 및 해설 245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9평]

> 갑 : 예술은 드러내고 예술가를 숨기는 것이 예술의 목표이다.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불필요하다. 아름다운 사물을 오직 아름다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 을 : 예술은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다. 예술은 오직 인류애를 위한 것이며, 예술의 목적은 미(美)도 아니고 쾌락은 더더욱 아니다.

보 기

ㄱ. 갑은 예술에는 예술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예술 활동에서 미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선(善)을 증진하는 예술을 좋은 예술로 본다.
ㄹ. 갑은 예술의 독립성을, 을은 사회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9

정답 및 해설 246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수능]

갑 : 음악은 즐거움[樂]으로, 사람의 감정상 없을 수 없지만 도리에 맞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 선왕은 천하를 크게 바로잡아 조화시키고자 예(禮)와 함께 음악을 제정했다.

을 : 음식의 목적이 즐거움이 아닌 것처럼 예술의 목적도 즐거움이 아니다. 인간 상호간의 교류 수단인 예술의 목적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다.

보 기

ㄱ. 갑은 예에 부합하는 미적 욕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예술이 예술 안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심미적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예술 체험을 통해 도덕감이 고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정답 및 해설 247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6평]

갑 : 예술 세계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허용된다. 중요한 것은 오차 없는 진실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짓이다. 아름다운 것에서 추악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을 : 최고의 예술은 질서와 사랑을 통해 구현되며, 반항적이고 저급한 피조물을 거룩하게 만든다. 예술의 목적은 인간의 종교를 강화하고, 인간의 윤리적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데 있다. 예술은 이런 일들을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보 기

ㄱ. 갑은 예술의 본질을 오직 예술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예술이 이상과 현실의 분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도덕적 목적이 예술 작품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예술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정답 및 해설 248p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9평]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과거보다 교묘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중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대중 예술에 투사된 세계는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는 기만적 대리 만족이다. 문화 산업은 대중을 통제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한다. 개인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경제적 · 사회적 장치의 산물이다. 문화 산업이 독점한 대중 예술은 개인의 특성을 획일화하여 자신의 논리를 관철한다.

보 기

ㄱ. 대중 예술품의 주된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ㄴ. 대중 예술의 영역과 권력의 영역은 상호 무관하게 작동한다.
ㄷ. 대중 예술은 현실적 모순을 은폐하고 대중 의식을 조작한다.
ㄹ. 대중 예술의 감상은 획일화되지 않은 개인의 고유한 체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정답 및 해설 249p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수능]

갑 : 예술은 사회에 저항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은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한다. 고급 예술은 상품화되었다 하더라도 자율성을 주장하지만, 대중문화는 산업을 자처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그들의 의식을 속박한다.

을 : 예술은 삶의 일부를 형성한다. 경험으로서 예술 작품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 오늘날 미적인 것은 모든 삶의 영역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삶 속에서도 대중 예술에서도 미적인 것의 구현은 가능하다.

① 갑 : 문화 산업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사회를 몰개성화한다.
② 갑 : 예술 본연의 목적은 일상적 삶의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다.
③ 을 : 대중 예술은 예술과 삶을 통합시키기보다는 분리시킨다.
④ 을 : 예술 작품은 삶 속에서 기능하지 않아야 미적 가치를 지닌다.
⑤ 갑, 을 : 대중 예술은 감상자를 사유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한다.

13

정답 및 해설 250p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8학년도 6평]

예술 작품에 대한 기술적 복제는 수공적인 복제보다 더 큰 독자성을 지니며, 예술 작품의 존속에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않는다.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위축된다. 그러나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영역에서 대량 복제 기술은 대중들로 하여금 개별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시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중 예술이 기존의 제의(祭儀) 의식에 바탕을 둔 예술을 밀어 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예술 작품은 새로운 기능을 지닌 형상물이 된다.

① 대중 예술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가치를 높여 준다.
② 대중 예술은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 미적 체험을 제공한다.
③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은 예술 작품의 신비감을 축소시킨다.
④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은 대중과 예술 작품의 거리를 좁힌다.
⑤ 대중 예술에서는 예술의 숭배 가치가 줄고 전시가치가 늘어난다.

14

정답 및 해설 251p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8학년도 수능]

- 만약 즐거움을 위한 시가 훌륭한 법질서를 갖는 국가 안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시를 받아들일 것이다. 시가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인간 생활에 이로운 것임이 밝혀진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시인이나 설화 작가들이 모방할 경우에는, 용감하고 절제 있고 경건하며 자유인다운 사람들을 모방해야만 한다. 반면에 그 어떤 창피스러운 것도 모방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것을 모방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

보 기

ㄱ. 예술은 선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ㄴ. 예술은 진리를 왜곡할 경우 비판받아야 한다.
ㄷ. 예술에서 미와 선의 내용은 유사할 필요가 없다.
ㄹ. 예술은 사물의 실재보다 외관을 아름답게 모방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정답 및 해설 252p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9학년도 6평]

추한 것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화는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그 반대되는 것들은 좋은 성품을 닮았으며 또한 그것을 모방한 것이다. 건강에 좋은 곳에 거주함으로써 건강해지듯,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게 된다. 복잡 미묘한 리듬도 온갖 종류의 운율도 추구하지 말고,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삶을 나타내는 리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

보 기

ㄱ. 예술은 독창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심미 활동이어야 한다.
ㄴ. 예술은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
ㄷ. 예술가는 미(美)를 추구하므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ㄹ. 예술가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정답 및 해설 253p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평]

갑 : 예술의 목표는 진리라는 생각 때문에 시(詩)만을 위한 시는 시적 품위가 결여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술이란 본래 심미적 가치만을 추구하기에 시 그 자체 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도 염두에 두지 않고 쓰인 시만이 진정한 시이다.

을 : 예술의 사명은 신(神)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인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따라서 예술은 인류애가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 교육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① 갑 : 예술의 심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② 갑 : 예술이 도덕적 진리를 추구할 때 심미적 가치가 더욱 고양된다.
③ 을 : 예술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감정의 고양에 기여해야 한다.
④ 을 :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⑤ 갑, 을 : 예술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7

정답 및 해설 254p

갑, 을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갑 : 신을 찬양하고 덕을 찬양하는 시(詩)만을 이 나라에 받아들여야 한다. 시를 통해 즐거움만 누리려 한다면 이성 대신 즐거움과 괴로움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을 : 예술가는 도덕적 공감을 지니지 않는다. 예술가에게 도덕적 공감은 용납될 수 없는 구태의연한 양식에 불과하다. 예술가는 단지 아름다움의 창조자일 뿐이다.

〈사례〉

A는 웹툰 작가로 포털 사이트에 작품을 연재할 예정이다. 어떤 작품을 그려야 할지 A는 고민하고 있다.

① 갑 : 독자들이 오로지 즐거움만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② 갑 : 독자들이 도덕적 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③ 을 : 독자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달하도록 하세요.
④ 을 : 독자들에게 도덕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⑤ 갑, 을 :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세요.

18

정답 및 해설 254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갑 : 복제 기술의 발달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사라지지만 누구든 예술 작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중예술의 발달은 대중의 각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을 집단적 주체로 형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을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은 돈으로 일원화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대중문화는 문화 산업으로 전락하게 되며, 규격품을 만들어 내듯이 인간을 획일화시켜 능동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① 갑 : 복제 기술의 발달은 대중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② 갑 : 예술 작품의 아우라 소멸은 대중의 예술 비평 활동을 위축시킨다.
③ 을 : 문화 산업의 확산은 인간의 상품화와 몰개성화를 조장한다.
④ 을 : 문화의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⑤ 갑, 을 : 문화의 대중화는 대중의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19

정답 및 해설 255p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0학년도 9평]

시(詩)란 사람의 마음이 세상 사물이나 풍속과 감응하여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대상에는 올바른 것과 사악한 것이 있으니, 시에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다. 우리는 시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여, 올바른 시는 모범으로 삼고 사악한 시는 자신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보 기

ㄱ. 시는 선악 판단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ㄴ. 시를 감상할 때에는 윤리적 성찰을 겸해야 한다.
ㄷ. 시는 그 사회의 도덕성을 엿볼 수 있는 거울이다.
ㄹ. 올바르지 못한 시도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정답 및 해설 256p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가) 악(樂)은 '같음'을, 예(禮)는 '다름'을 위한 것이다. 같으면 서로 친하게 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악이 화합을 극진하게 하고 예가 순서를 극진하게 하여, 안으로 화합하고 밖으로 질서를 이룬다면, 백성은 그 안색을 보고 서로 다투지 않게 되며, 그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

(나) 악(樂)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귀로 듣기에 즐거우나, 백성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일삼는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여러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어도 천하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 기

ㄱ. (가) : 예와 악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ㄴ. (가) : 예악은 정서의 순화와 언행의 교화 모두에 기여한다.
ㄷ. (나) : 음악은 실용적 관점보다 심미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ㄹ. (가), (나) :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1

정답 및 해설 258p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1학년도 6평]

> 오늘날 대중문화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제 대중문화는 변화 없는 반복적인 오락물을 생산하는 장사가 되었고, 문화의 소비자는 문화 산업의 객체가 되었다. 이처럼 산업화된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문화 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문화 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한다.

①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독창적 예술로 발전하기 어렵다.
② 문화 산업은 획일화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③ 문화 산업의 표준화된 양식은 문화 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④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의적 사고를 위축시킨다.
⑤ 문화 산업은 예술을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미적 가치로만 평가한다.

22

정답 및 해설 259p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21학년도 9평]

> 갑 :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상징하고, 자연의 미(美)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항상 그 영혼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예술 작품의 가치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닌 예술 자체의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
> 을 : 예술 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 준다. 예술은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① 갑 :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순수한 형식이다.
② 갑 :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일체의 이해관심 없이 내려진다.
③ 을 :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④ 을 : 미적 가치는 무질서한 리듬과 운율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⑤ 갑, 을 :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23

정답 및 해설 262p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 ㉤ 중 옳지 않은 것은? [2021학년도 수능]

서술형 평가

◎ 문제 : 예술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갑 : 아름다운 리듬과 화음은 영혼에 들어가 우아함을 심어 주고, 미추(美醜) 감각을 키워 준다. 품위 없는 리듬과 화음은 나쁜 말씨나 고약한 성질과 연결되니, 작품 속에 선(善)의 원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추방해야 한다.
> 을 :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낀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예술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나서는 아름다움의 원형이 존재할 수 없고, ㉡예술가는 미적 가치를 통해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을은 ㉢예술을 통해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예술은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예술은 미적 가치를 다루는 활동이라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5단원 02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01

정답 및 해설 262p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6평]

> 음식물에 대한 욕망은 자연적이다. 먹고 마시는 욕망을 추구함에 있어서 잘못하는 경우는 주로 지나친 쪽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사실 어떤 것이든 더 이상 먹고 마실 수 없을 때까지 먹고 마시는 것은 양에 있어 자연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마땅한 것을 넘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을 폭식가(暴食家)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나칠 정도로 노예적인 사람이다.

① 먹는 행위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② 먹는 행위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조절되어야 한다.
③ 먹는 행위를 통해 개인적 취향의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
④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자연의 순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⑤ 먹는 행위는 공동체의 동질감과 연대감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02

정답 및 해설 263p

다음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017학년도 6평]

> "인간은 낯선 공간 안에 던져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 공간에 친숙해지며 그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냄으로써 거주(居住)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집 밖의 세계에서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자기 집의 보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양극적 긴장과 관련된 양 측면은 모두 필수적이므로, 거주 공간은 외부 세계에 대해 열릴 수 있는 닫힘의 공간이자 자기 삶의 중심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거주는 특정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며,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안주(安住)이어야 합니다."

① 인간에게 거주 공간은 자기 세계의 중심이어야 한다.
② 인간은 자신의 거주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③ 인간의 거주 공간은 집 밖의 세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④ 인간에게 거주 공간은 편안하고 친숙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⑤ 인간의 거주 공간은 외부를 지향하지 않는 닫힌 공간이어야 한다.

03

정답 및 해설 263p

(가), (나)에 나타난 삶의 태도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017학년도 9평]

> (가)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드시지 않았고 간장이 없으면 드시지 않았다. 고기가 많아도 곡기(穀氣)를 이기지는 않았으며 주량이 대단했으나 어지러울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다.
> (나) 술과 고기를 먹지 마라.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의 오신채(五辛菜)를 먹지 마라. 식사는 오전 중 한 번으로 끝내라. 발우의 음식은 수많은 연기(緣起)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① (가) : 음식을 먹는 행위에서 인간다운 품위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가) :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은 생존 유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③ (나) : 음식을 통해 세상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해야 한다.
④ (나) :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수행과 연계시켜야 한다.
⑤ (가), (나) :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적정히 조절하고 절제해야 한다.

04

정답 및 해설 264p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6평]

> 군자는 밥을 먹을 때 다섯 가지를 살펴야 한다. 우선 밥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와 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덕행이 완성되었는지를 헤아려서 공양(供養)을 받아야 한다.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바른 처사와 좋은 약으로 건강을 보살펴야 한다. 끝으로 도덕을 이루어야 먹을 자격이 있다. 즉 군자는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① 먹는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덕의 실천이다.
② 먹는다는 것은 자연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이다.
③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과정이다.
④ 먹는다는 것은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행위이다.
⑤ 먹는다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다.

05

정답 및 해설 264p

다음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6평]

> 거주(居住)함은 인간 존재의 근본 특성입니다. 인간은 현존재로서 땅, 하늘, 신적인 것들, 죽을 자들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와 소중히 보살피며,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합니다. 인간은 자기 공간의 중심이 되며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사물의 연관 체계로서 공간도 함께 변화합니다. 인간이 건축함과 거주함에서 사유함을 잊을 때 고향 상실이 일어납니다. 이 때 거주함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거주 공간이 상실되어 탈공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해 숙고하고, 고향을 되찾아야 합니다.

① 인간의 거주 공간은 체험과 무관한 객관적 공간이다.
② 인간은 고향을 되찾기 위해 거주 공간을 떠나야 한다.
③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한다.
④ 인간은 사물을 보살피면서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⑤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에게서 해방된다.

06

정답 및 해설 265p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9평]

>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상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소비하는 것은 상품의 기호(記號)와 상품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이다. 광고 속에 나오는 상품이 기호라면 행복, 풍요로움, 성공, 권력 등은 그 상품에 부여된 이미지이다. 사람들은 상품의 구입과 사용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드러내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욕구의 체계를 발생시키고 관리하는 생산질서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박탈당하여 사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

① 현대인은 소비 활동 과정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는가?
② 현대인은 생산질서에 좌우되지 않는 소비 활동을 하는가?
③ 현대인은 소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가?
④ 현대 사회에서 소비의 대상은 상품의 이미지에 불과한가?
⑤ 현대 사회에서 광고 매체는 상품을 기호로서 전달하는가?

07

정답 및 해설 265p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수능]

> 우리 시대의 인간은 고향을 잃고 지구상 어떤 곳에도 매여 있지 않은 영원한 망명자이다. 하지만 집은 이러한 위험과 희생의 공간인 외부 공간과 구분되는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인간은 자신의 중심점인 집을 스스로 만들어 그곳에 뿌리내리고 살 때 진정한 거주를 실현한다. 인간은 이러한 거주의 실현을 통해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

① 진정한 거주는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로 국한된다.
② 인간은 진정한 거주를 실현하지 못하면 영원한 망명자이다.
③ 인간은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다.
④ 외부 공간은 위험과 희생이 아닌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⑤ 진정한 삶의 실현을 위해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08

정답 및 해설 266p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9학년도 6평]

(가)	* 패스트 패션 산업은 경제적 측면에만 몰두하여 노동 조건과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 결과 패스트 패션을 추구하는 현상에 대한 반성이 확산되고 있다. 패션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도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조건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최신 유행 상품을 빠르게 공급해 상품 회전율이 빠른 패션
(나)	패스트 패션 산업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패스트 패션을 즐기면서 다양한 미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이처럼 패스트 패션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하다.

보 기

ㄱ.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ㄴ. 패션에 대한 개인들의 차별화된 욕구와 기호를 간과하고 있다.
ㄷ. 욕구 충족만이 소비의 도덕 판단 기준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ㄹ.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 성향을 간과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9

정답 및 해설 266p

다음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평]

> 과시적 소비는 자신의 부와 명성을 타인에게 명백하게 증명하려는 경쟁적인 소비 행위입니다. 명성의 관점에서 사회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한 유한계급의 생활 예절과 가치 기준들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강압적인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과시적 소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화를 축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못합니다. 그 욕망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비교에 바탕을 둔,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① 유한계급의 소비 행태는 사회 구조 전반으로 확산되는가?
② 사회 구조의 최상위 계급만이 과시적 소비를 욕구하는가?
③ 유한계급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재력을 은폐하고자 하는가?
④ 사회의 각 계급은 상위 계급의 소비 행태에 대해 무관심한가?
⑤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증대되면 과시적 소비의 욕망은 사라지는가?

10

정답 및 해설 267p

갑, 을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 갑 :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품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뒤 계획을 세워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효용이 큰 제품을 선택하여 소비해야 한다.
> 을 : 자신의 소비 생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사회, 자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소비를 해야 한다.

〈문제 상황〉

A는 아보카도가 슈퍼 푸드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아보카도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은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또한 재배에 많은 물이 소모되어 동식물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 A는 그 사실을 알고 아보카도를 구매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① 갑 : 자신의 처지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소비인지를 고려하세요.
② 갑 : 충동적 소비나 과시적 소비가 되지 않는지를 고려하세요.
③ 을 : 생산 지역의 주민의 삶에 해악을 주지 않도록 결정하세요.
④ 을 :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결정하세요.
⑤ 갑, 을 : 다른 가치보다 경제적 효용을 먼저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11

정답 및 해설 267p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0학년도 9평]

○○신문 ○○○○년 ○○월 ○○일

칼럼

명품 소비는 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에 주목하여 우리 사회의 명품 소비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일부 계층의 명품 소비 성향이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구매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명품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모조품을 찾으면서까지 과시욕을 충족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비 성향은 '남들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욕구와 연관되어 명품 소비를 하나의 유행으로 만든다. 그 결과, 명품 구매를 통해 남들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욕구는 일시적으로 충족되지만, 자신의 개성은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명품 소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후략)

보 기

ㄱ. 동조 욕구를 절제하고 주체적 소비를 해야 한다.
ㄴ.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
ㄷ. 모방 소비를 지양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야 한다.
ㄹ. 특정 계층에 국한된 과시 소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2

정답 및 해설 268p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6평]

> (가) 군자는 밥이 완성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식재료의 출처를 알아야 하고,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밥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 (나)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공양(供養)을 받는다. 밥 먹는 것은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는 것, 청정(淸淨)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① (가) : 중생의 불성(佛性)에 유념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② (가) :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음식의 양은 많을수록 좋다.
③ (나) : 음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이다.
④ (나) : 음식을 먹는 것이 수행의 연장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다.
⑤ (가), (나) :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13

정답 및 해설 268p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1학년도 6평]

> 인간이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거주라고 한다. 그러나 거주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낯선 공간에 존재하거나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거주는 특정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또한 거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이다. 이런 거주는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쏟아붓는 각별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다.

① 거주는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장소에 속해 있는 방식이다.
② 삶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주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③ 거주는 인간이 집에 머무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④ 거주는 친숙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얻고 삶의 기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⑤ 거주는 인간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14

정답 및 해설 269p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021학년도 9평]

> 최근 들어 개인적 취향만이 아니라 여행자의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공정 여행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 만족과 여행 비용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기존 여행의 관행에서 벗어나 여행지에 도움을 주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을 지향한다. 공정 여행을 통해 여행자들은 현지 주민이 제공하는 숙소와 음식을 접하고 특산물, 기념품 등을 구입하며, 현지 서비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나아가 여행지의 동식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항공 여행을 자제하는 결정까지 내린다. 이처럼 공정 여행은 [㉠]

①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여행이다.
② 여행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여행이다.
③ 사회적 책임보다 비용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여행이다.
④ 개인적 선호만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도 중시하는 여행이다.
⑤ 여행자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도 배려하는 여행이다.

15

정답 및 해설 269p

다음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

>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나 권력을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있어 보이는 체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의 옹색과 불편조차도 참아낼 것입니다.

① 과시 소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계층이 존재하는가?
②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인간의 허영심을 제한하는가?
③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가?
④ 과시 소비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는가?
⑤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 본능보다 강력한 경제적 동기인가?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5단원 03 다문화 사회의 윤리

❶ 문화 다양성과 존중

01 정답 및 해설 270p

(가), (나)의 입장에서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015학년도 6평]

(가) 이질적 요소가 유입되어 구심력이 약화되면 사회는 와해된다. 이질성을 제거하고 통합성을 강화해야 사회는 발전한다. 따라서 중심 문화가 소수 문화를 흡수해야 한다.

(나) 야채나 과일이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 소스와 어우러질 때 맛있는 음식이 된다. 따라서 여러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대등하게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① 다양한 문화가 동등하게 어울리면서 공존해야 하는가?
② 소수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가?
③ 중심 문화의 관점에서 문화의 단일성을 유지해야 하는가?
④ 소수 문화는 중심 문화 속에 편입되어 동질화되어야 하는가?
⑤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를 보호해야 하는가?

02 정답 및 해설 271p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가) 국수의 면과 국물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 갖가지 고명이 얹혀 입맛을 돋우듯이, 다른 문화는 색다른 맛을 더해 주는 고명으로 자신의 가치를 살릴 수 있다.

(나) 그릇에 담긴 다양한 야채가 고유의 맛과 색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이루듯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보 기

ㄱ. (가)는 주류 문화를 전제로 한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한다.
ㄴ. (나)는 각 문화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중시한다.
ㄷ. (가), (나)는 비주류 문화의 주류 문화로의 편입을 중시한다.
ㄹ. (가), (나)는 다양한 문화를 전제로 한 사회 통합을 중시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3 정답 및 해설 272p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9평]

기본적 권리는 문화라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간 문화적 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 관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소수집단의 성원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 경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여 집단 간 문화의 장벽을 영속화시킬뿐 아니라, 소수집단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여 개인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학자의 주장이 [㉠]고 생각한다.

① 집단 간 문화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됨을 강조하고 있다
② 문화보다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다문화주의가 법 적용의 일반성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차별화된 권리의 인정이 보편적 인권과 어긋남을 간과하고 있다
⑤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04 정답 및 해설 272p

다음 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상 대담〉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9평]

관용은 문화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타인의 불의한 행위에 무관심하거나 도덕적 악을 참는 것은 관용이 아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의 자유권, 생명권과 같은 권리에 대한 침해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

〈가상 대담〉

전문가 :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리포터 : 그렇다면 이런 문화도 관용의 대상이 되나요? 외국에서 이민을 온 어떤 가족은 여자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어린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딸이 성인이 되어 외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전문가 : 그런 문화는 [㉠]

① 부모의 고유한 권리를 존중한 것이므로 용인해야 합니다.
② 자녀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니므로 고유한 문화로 용인해야 합니다.
④ 종교의 계율과 전통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므로 용인해야 합니다.
⑤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감을 저해하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05

정답 및 해설 273p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6평]

갑 : 기존 시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동화될 때에만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주류 사회 시민들과 동일한 언어로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 동일한 사회 복지를 제공하며 국민 정체성을 고취시켜 이민자 집단을 동화시켜야 한다.

을 : 기존 시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도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민자의 언어로 운용되는 자체의 법적 제도를 보장하면서 이민자 집단과 주류 사회의 결속과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① 갑 : 주류 문화와의 융합을 위해 소수 문화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② 갑 : 사회권 보장으로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③ 을 : 소수 문화에 대한 불관용을 통해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④ 을 : 소수 집단의 자치를 승인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⑤ 갑, 을 : 문화적 동일성에 대한 요구 없이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06

정답 및 해설 274p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수능]

공용어와 공통의 문화를 강조할 경우 오히려 국가 내 집단을 다수와 소수로 갈라놓아 소수 집단이 다수에 압도당하게 된다.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 우리 사회의 다수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관행과 규범을 고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이주민에게 기본적 시민권은 보장하되 관습과 신앙 및 삶의 양식의 통일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집단적 문화를 표현할 여지를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다. 통합은 몇 세대에 걸쳐 진행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통합의 실행 가능한 방법은 이주민의 정체성을 국가 전체의 정체성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다. …(후략).

① 통합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전통적 관행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공용어 사용을 의무화해야 국가적 유대감이 증진됨을 유념해야 한다.
③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④ 동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통합 실행이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⑤ 이주민의 삶의 양식 변화가 그들의 시민권 보장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07

정답 및 해설 274p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학년도 6평]

갑 : 주류 문화와의 통합 여부는 소수 문화의 구성원이 결정해야 한다. 주류 문화 구성원이 소수 문화의 통합을 강제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을 : 단일한 언어, 문화 전통, 교육 정책을 추구하여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통일된 문화의 부재 때문에 집단 간 결속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① 갑 : 사회 통합을 위해 소수 문화가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② 갑 : 소수 문화 구성원에게 문화적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③ 을 : 사회적 유대의 강화를 위해 단일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④ 을 : 사회 발전을 위해 주류 문화가 문화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⑤ 갑, 을 : 국가의 교육 정책으로 통일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08

정답 및 해설 276p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갑 :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을 : 국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민자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고 기존 사회와 대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① 갑 : 주류 문화 우위를 전제로 이민자 문화의 특수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갑 : 주류 문화를 수용하는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해야 한다.
③ 을 : 사회 조화를 위해 주류와 비주류 간 문화 위계를 인정해야 한다.
④ 을 :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⑤ 갑, 을 : 사회적 연대를 위해 주류와 비주류 문화 간 공존과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9

정답 및 해설 277p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1학년도 9평]

보 기

ㄱ. 갑 :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ㄴ. 을 : 각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ㄷ. 갑, 을 :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간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ㄹ. 갑, 을 :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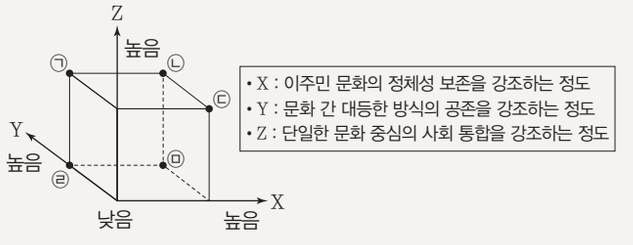
정답 및 해설 277p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 ㉤ 중에서 고른 것은?

[2021학년도 수능]

(가) 국가는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주민은 주류 문화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나) 국가는 이주민의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각기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다양한 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되면서 이주민의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단원 03 다문화 사회의 윤리

❷ 종교의 공존과 관용

01

정답 및 해설 278p

다음을 통해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종교인의 바람직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

- "대장경의 글과 말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느냐? 여러분이 오늘 절집 문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노숙자들의 가슴 아픈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 2011년 12월, 로마 교황청에서는 영화 시사회가 열렸다. 이 영화는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주민을 위해 의료 봉사를 펼친 한국인 신부(神父)의 삶을 다룬 것이다.

① 종교적 절대자를 마음을 다해 숭배한다.
② 현세를 벗어나 내세의 종교적 행복을 추구한다.
③ 종교 의례를 성실히 수행하여 신앙심을 강화한다.
④ 종교의 가르침을 세속의 삶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한다.
⑤ 다양한 종교 교리를 단일화하여 도덕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02

정답 및 해설 279p

(가)의 관점에서 그림 (나)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6평]

(가)	• 종교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은 후에도 행복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종교적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 종교는 자신의 실수와 과오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자신의 종교와 타 종교 사이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①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을 통해 도덕적 위기를 극복한다.
②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종교적 신념의 단일화를 추구한다.
③ 종교의 다원성을 존중하며 다른 종교를 용인하려고 노력한다.
④ 종교는 분쟁의 근원이므로 점진적으로 폐기하려고 노력한다.
⑤ 자기 종교 안의 모든 것이 선하고 참이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03

정답 및 해설 280p

다음 글에 나타난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9평]

우리는 나무를 단지 나무로 보면서도 동시에 나무 이상의 나무로 보기도 한다. 앞의 나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나무로 속(俗)에 속하며, 뒤의 나무는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나무로 성(聖)에 속한다.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세계는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인간이 느끼고, 접촉하고, 사랑한 모든 것은 '성(聖)의 드러남'이 될 수 있다.

① 성스러움보다 인간성의 실현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②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③ 현실의 삶 속에서 성스러움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④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는 성스러움을 만나지 못한다고 본다.

04

정답 및 해설 280p

다음 글의 사상적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6평]

인간은 궁극적 존재에 대해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묻는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과 분리된 궁극적 존재의 힘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이 그 궁극적 존재에 속하여 있음과 동시에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이 모두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① 인간은 궁극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거부해야 한다.
② 인간은 성스러운 삶보다 세속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③ 인간은 감각적 경험을 진리의 토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④ 인간은 삶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며 초월성을 지향해야 한다.
⑤ 인간은 어떤 존재에도 귀의(歸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05

정답 및 해설 281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2016학년도 9평]

갑 : "종교는 궁극적 의미와 가치를 다루고, 과학은 실험 영역에서 사실과 이론을 다룹니다. 도덕과 과학이 서로 구분되지만 충돌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듯이, 종교와 과학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을 : "종교는 과학의 맹목적 환상과 잘못된 절대성을 정화하고, 과학은 종교의 오류와 미신을 정화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과 종교는 서로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여 번영할 수 있습니다."

① 갑은 과학이 종교를, 종교가 과학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을은 종교와 과학이 상보적인 관계로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종교적 믿음이 과학적 사실에 의존한다고 본다.
④ 갑, 을은 한 영역의 지식만 가치 있다는 견해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종교와 과학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6

정답 및 해설 282p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9평]

갑 : 비종교적 인간은 성현(聖顯)의 시대에서 세속의 시대로 전환 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성스러움으로 상징화된 초월적 존재의 창조물이다. 성화(聖化)된 자연 안에서 인간은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을 :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관찰 가능한 자연의 배후에 숨어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적 지성은 없다. 자연은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인간의 윤리적 행위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갑은 종교가 인간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② 갑은 비종교적 인간이 자연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고 본다.
③ 을은 초월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아도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과학이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초월적 신이 자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본다.

07

정답 및 해설 283p

다음 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17학년도 수능]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한 책임이 종교에 있다. 종교들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세계 평화는 시작된다. 인류는 평화보다 전쟁을, 화해보다 광신을, 대화보다 우월성을 부추기는 종교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 차별의 윤리, 모순의 윤리, 투쟁의 윤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생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보 기

ㄱ. 종교들이 공유하는 가르침의 실천은 화합과 공존의 토대이다.
ㄴ. 종교 간의 관용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ㄷ. 타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현실 세계의 갈등과 무관하다.
ㄹ. 보편 윤리의 실현과 종교의 단일화는 인류 생존의 조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정답 및 해설 284p

다음의 토론 주제에 관한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9평]

• **토론 주제** : 도덕의 최종 근거를 종교에서 찾아야 하는가?

갑 : 도덕의 최종 근거는 종교, 특히 만물을 창조한 신의 명령에서 찾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은 오류 가능하지만 완전한 존재인 신의 명령은 무조건 옳기 때문입니다.

을 : 아닙니다. 신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옳은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 능력으로 그러한 원리를 인식하여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갑 : 도덕적 의무는 오류 가능성이 없는 신의 명령에서 나온다.
② 갑 : 인간 이성은 불완전하므로 도덕 판단의 최종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을 : 윤리적 판단에서 종교적 권위보다 합리적 이성을 중시해야 한다.
④ 을 :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⑤ 갑, 을 : 명확하고 보편적인 도덕적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09

정답 및 해설 284p

(가), (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수능]

(가) 종교는 신앙을 통해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혹적이고 신비한 감정의 체험이다. 세계는 신비로 가득하므로 인간 이성이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틀 속에 가둘 수 없다. 방향을 잡기 어려운 현실에서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나) 과학은 사실에 토대하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찾고 반증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 물리적인 것 외에는 실재성이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① (가) : 인간은 종교적 체험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
② (가) : 신앙 없이 이성만으로는 세계의 진리를 완전히 인식할 수 없다.
③ (나) : 과학적 지식을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④ (나) : 인간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실증적으로 대상을 탐구해야 한다.
⑤ (가), (나) : 과학적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10

정답 및 해설 285p

다음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종교란 궁극적 관심에 붙잡힌 상태입니다. 종교는 궁극적 관심으로 '죽느냐 또는 사느냐'를 물으며 그 대답을 찾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유한하지 않은 궁극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순수하고 진지한 관심으로 존재 그 자체로서의 존재를 대면합니다. 이때 궁극적 관심은 절대성을 띠지만, 그 관심의 개별적 표현은 다양한 종교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종교는 유한한 실재를 하나의 신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든 신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 기

ㄱ. 종교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 것이다.
ㄴ. 진정한 종교는 유한한 실재를 무한한 존재로 만든다.
ㄷ. 종교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존재와의 만남이다.
ㄹ. 종교적 관심은 절대성을 갖지만 종교적 표현은 다양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정답 및 해설 286p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평]

○○신문 ○○○○년 ○○월 ○○일

칼럼

오늘날 세계 각 지역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 폭력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서양 사상가의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타 종교인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참된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다. 참된 종교는 영혼의 내적 확신에 기초하는데, 이러한 내적 확신을 폭력과 같은 외부적 힘으로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사명은 물론 인간 이성에도 어긋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종교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을 인식해야 한다. …(후략)…

①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불필요하다는 것
② 영혼의 내적 확신이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
③ 종교적 박해는 불합리하므로 부당하다는 것
④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도 참된 종교라는 것
⑤ 종교적 불관용만이 이성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

12

정답 및 해설 286p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종교적 인간은 탄생, 결혼, 죽음과 같은 사건을 겪으며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 존재는 이 세계 안에 스스로 현현(顯現)하여 이 세계를 성화(聖化)시킨다. 그러나 세속적 인간은 자신만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며, 초월적 존재를 향한 모든 호소를 거절한다. 그들에게 거룩한 존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세속적 인간은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탄생, 결혼, 죽음을 기리는 의식이 세속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는 종교적 현상이 관찰된다.

① 종교적 인간은 스스로 성스럽게 드러나는 거룩한 존재를 믿는다.
②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한다.
③ 종교 의식과 무관한 세속적 일상 의례에도 신성성이 깃들어 있다.
④ 세속적 인간은 통과 의례가 갖는 종교적 의미를 자각하지 못한다.
⑤ 세속적 인간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워진다고 믿는다.

13

정답 및 해설 287p

다음은 어느 사상가의 강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2020학년도 9평]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것과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 주기 때문에, 인간은 성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나타나는 원시적인 성현(聖顯)에서부터 예수 안에 하느님의 신성이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스러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재가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의 부분을 이루는 대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볼 때, 종교적 인간은 [㉠]

① 성스러움이 드러난 돌이나 나무 자체를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②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③ 세속의 세계 안에서 성현을 체험하며 그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④ 세속적인 삶에서 언제든지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⑤ 세속의 세계를 성스럽게 만드는 거룩한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4

정답 및 해설 287p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거룩한 것의 총체이다. 종교의 역사는 성현(聖顯)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인간은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실재가 자연의 대상 속에서 현현(顯現)되는 사건에 마주칠 때, 예컨대 한 그루 나무를 우주적 생명의 이미지로서 접할 때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달리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을 거부하는 인간 실존의 탈신성화 과정의 결과이다.

① 비종교적 인간도 세계를 성(聖)의 드러남으로 인정한다.
② 성(聖)이 현현되는 이 세계는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다.
③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성(聖)을 만나게 된다.
④ 어떤 인간도 현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
⑤ 인간이 성(聖)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물에 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평화와 공존의 윤리

빠른 정답 6단원

01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01	①	02	⑤	03	①	04	④

02 민족 통합의 윤리

01	⑤	02	②	03	④	04	⑤	05	①
06	③	07	④						

03 지구촌 평화의 윤리

❶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01	③	02	②	03	①	04	②	05	③
06	③	07	③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6단원 01 평화와 공존의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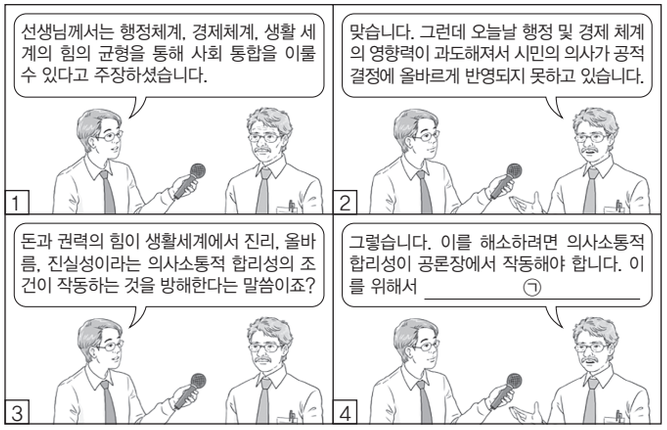
❶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01

정답 및 해설 291p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8학년도 6평]



① 공론장에서 행정 및 경제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② 공론장에서 기업과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③ 공정한 담론 절차를 준수한 합의의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④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⑤ 공론장에서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진실한 말로 주장해야 합니다.

02

정답 및 해설 292p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9평]

> 오늘날 시민들은 공적 장소에서 토론할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적 토론이 시민들에게 권장되지도 않는다. 시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없으면 건강한 민주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시민들 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로 대화에 참가하고, 그 토론의 결과가 법체계에 반영된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토론의 절차가 아니라 토론의 결과만을 중시해야 한다.
②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③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 법에 대해 다시 토론해서는 안 된다.
④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적 토론을 권장할 필요는 없다.
⑤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토론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03

정답 및 해설 293p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9평]

> 모든 사유의 출발점은 홀로 사유하는 '나'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어적 ·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타자를 단지 도구화하지 않고, 타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사소통 행위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서로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데에서 성립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강제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들만이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① 행위 규범으로서의 올바름은 비판과 논증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이상적 담화에서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주관적 견해를 극복한 후에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④ 타당한 규범은 대화에 참여한 다수에 의해 동의를 얻은 규범이다.
⑤ 상호 인정의 자세는 타자를 나와 완전히 동일화하기 위해 요구된다.

04

정답 및 해설 294p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1학년도 수능]

>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다.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① 담론 참여자는 논의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한다.
②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서는 안 된다.
③ 담론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④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한다.
⑤ 담론 참여자는 이해관계의 조정 수단으로만 담론을 활용해야 한다.

6단원 02 민족 통합의 윤리

01

정답 및 해설 295p

다음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수능]

>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동서독 주민들은 통일 이전의 상이한 체제에서 비롯된 사고방식과 정서의 차이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서독인은 동독인을 가난하고 게으르다는 의미인 '오씨(Ossi)'로, 동독인은 서독인을 거만하고 잘났다는 의미인 '베씨(Wessi)'로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① 남북한의 조속한 통합을 위해 외형적인 통일을 강조해야 한다.
② 국제적 합의를 통해 남북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③ 정치 · 군사적 방식을 통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수립해야 한다.
④ 동북아 다자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⑤ 사회 · 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의 이질성을 줄여야 한다.

02

정답 및 해설 296p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학년도 6평]

>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점차 이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편익도 생긴다. 분단 비용은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지불하는 유무형의 비용으로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평화 비용은 인도적 지원, 사회 문화 교류 사업 등과 같이 통일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투자 성격의 비용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에 제도의 통합, 화폐의 통합 등을 위해 통일 한국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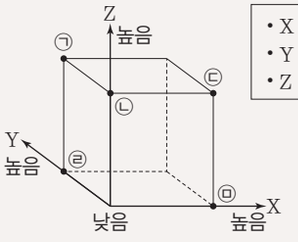
① 이산가족의 고통과 외국인 투자 감소는 분단 비용에 포함된다.
②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교류 사업은 통일 비용에 포함된다.
③ 분단 비용은 소모적 비용으로 민족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④ 평화 비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분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⑤ 경제 협력의 확대를 통해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03

정답 및 해설 297p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2020학년도 9평]

> (가) 통일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보다 남북한 언어와 문화의 이질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이산가족의 만남, 북한 주민의 보편적 삶의 권리 실현을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
>
> (나) 통일 문제를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인권 신장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분단에 따른 각종 불안 요인을 극복하여 경제 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



- X : 문화적 통합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
- Y : 경제적 실리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
- Z :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04

정답 및 해설 298p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 통일은 분단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 역사의 창조 작업입니다. 통일은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그리고 자유와 평등 신장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성취해야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통일 지상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급진적 방식의 통일은 사회적 갈등과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평화적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급진적 방식의 통일보다 통일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통일 편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 예술 등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분야로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체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① 점진적 평화 통일이 급진적 통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② 통일을 위해 비정치적 협력보다 정치적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
③ 인도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④ 통일은 이유와 방식을 불문하고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다.
⑤ 통일은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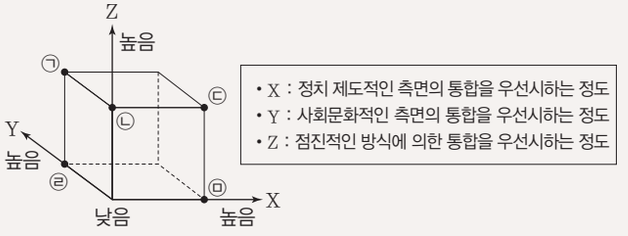
05

정답 및 해설 299p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2021학년도 6평]

(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치적, 법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어 통일이 실현될 것이다.

(나)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남북한의 불신이 해소되어 정치 통합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06

정답 및 해설 300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1학년도 9평]

갑 :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주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이 필요합니다.

을 : 동의합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이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갑 :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스스로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제 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을 :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은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와 내정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북한도 요구할 것입니다.

①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지니는가?
②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가?
③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가?
④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⑤ 북한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07

정답 및 해설 301p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

갑 : 북한 주민은 통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동포입니다. 이념을 떠나 고통 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윤리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을 : 고통 받는 이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지만, 북한 사회의 특성상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갑 : 북한 사회의 투명성이 낮아 그러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 증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을 : 물론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물품이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북한 사회의 개방이 선행된 이후에 행해져야 합니다.

① 북한 사회는 투명성이 낮은가?
②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하는가?
③ 북한 사회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④ 대북 지원은 조건부로 행해져야 하는가?
⑤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가?

6단원 03 지구촌 평화의 윤리

❶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01

정답 및 해설 302p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갑 :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다. 폭력에는 전쟁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사회구조 자체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등에 내재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을 : 천하에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兼愛)와 서로 이롭게 하는 교리(交利)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 갑 : 직접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평화는 달성된다.
② 갑 : 소극적 평화를 이루면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③ 을 : 자국과 타국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
④ 을 : 친소(親疎)를 분별하는 사랑으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⑤ 갑, 을 : 평화 실현을 위해서라면 적국에 대해 선제공격해야 한다.

02

정답 및 해설 303p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1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갑 : 공화국 간에는 평화 연맹이 존재해야 한다. 평화 조약이 단지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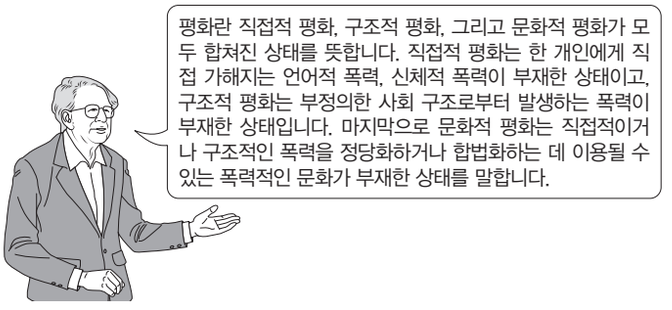
을 : 평화는 폭력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과 관련된다.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 외에도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있다. 이러한 폭력들이 제거된다면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① 갑 :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 형태는 세계 평화의 실현과 무관하다.
② 갑 : 평화 연맹은 소속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을 :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 사용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④ 을 : 평화 추구의 궁극적인 목표를 전쟁의 종식에 두어야 한다.
⑤ 갑, 을 : 단일한 세계 정부를 창설해 적극적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03

정답 및 해설 304p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① 직접적 폭력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다.
②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③ 평화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④ 테러나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이다.
⑤ 직접적 · 구조적 · 문화적 폭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04

정답 및 해설 305p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24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갑 : 평화를 창조하는 일은 폭력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치료해야 할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있는 직접적 폭력이고, 예방해야 할 폭력은 그러한 행위자가 없는 구조적 폭력이다.

을 :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이 상태가 그 자체로 전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초강대국 아래로 여러 국가들이 통합되는 것보다 낫다.

① 갑 : 비의도적인 폭력의 제거 없이도 적극적 평화가 완성될 수 있다.
② 갑 : 문화 속의 일부 상징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③ 을 :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와 무관하다.
④ 을 : 평화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권이 평화 연맹에 양도되어야 한다.
⑤ 갑과 을 : 국가 간 전쟁 행위 중지만으로도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5

정답 및 해설 306p

고대 동양 사상가 갑, 현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4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갑 : 다투지 않는[不爭] 덕은 하늘의 도[天道]에 부합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력을 앞세우지 않고,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서 싸우지 않는다. 이처럼 성인(聖人)의 도는 일은 하되 다투지 않는 것이다.

을 : 평화는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 ·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중요하다.

보 기

ㄱ. 갑 : 전쟁은 무위(無爲)와 무욕(無欲)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ㄴ. 을 :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 지닌 부당성을 은폐한다.
ㄷ. 갑과 을 :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없는 상태만으로도 달성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06

정답 및 해설 307p

다음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4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보 기

ㄱ. 갑 : 평화 연맹은 그 소속 국가의 자유를 국제법에 따라 보호한다.
ㄴ. 을 : 목표로서의 평화뿐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다.
ㄷ. 갑과 을 : 폭력은 평화 실현을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07

정답 및 해설 308p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5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갑 : 평화는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필요하다. 평화 조약에 의해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전쟁 상태가 영원이 종식되지는 않는다.

을 :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며 비폭력적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보 기

ㄱ. 갑 : 각 국가는 자유 보장을 위해 평화 연맹에 주권을 위임해야 한다.
ㄴ. 을 :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인간 소외도 평화 실현을 방해한다.
ㄷ. 을 :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ㄹ. 갑과 을 :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 없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기시감

기출로 시작하는 감각

평가원 기출 분석서

해설편

임수민 지음

목차 *Contents*

1 단원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01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007

03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020

2 단원 생명과 윤리

01 삶과 죽음의 윤리 027

02 생명 윤리 042

❶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042

❷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056

03 사랑과 성 윤리 059

❶ 사랑과 성의 관계 059

❷ 결혼과 가족의 윤리 070

3 단원 사회와 윤리

01 직업과 청렴의 윤리 095

02 사회 정의와 윤리 121

❶ 니부어의 사회 정의론 121

❷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 138

03 국가와 시민의 윤리 159

❶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159

4 단원

과학과 윤리

01 과학 기술과 윤리 199

❶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및 기타 199

❷ 요나스의 책임 윤리 208

02 정보 사회와 윤리 219

5 단원

문화와 윤리

0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237

02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262

03 다문화 사회의 윤리 270

❶ 문화 다양성과 존중 270

❷ 종교의 공존과 관용 278

6 단원

평화와 공존의 윤리

01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291

02 민족 통합의 윤리 295

03 지구촌 평화의 윤리 302

❶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302

1 단원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빠른 정답 1단원

01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⑤
06	④	07	④	08	⑤	09	⑤	10	④
11	④	12	③	13	④	14	①	15	③
16	③	17	⑤	18	④	19	③	20	②
21	②	22	①	23	②	24	②		

03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01	①	02	②	03	⑤	04	②	05	①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단원 01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0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6평]

• 수업 목표 : 규범 윤리학을 ○○ 윤리학, □□ 윤리학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
(1) ○○ 윤리학 → 이론 윤리학
–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다.
예 덕 윤리, 의무론적 윤리, 목적론적 윤리 등
(2) □□ 윤리학
– ㉠
예 생태 윤리, 생명 윤리, 정보 윤리 등 → <생태 · 생명 · 정보> + 윤리 => 실천 윤리학의 학재적 성격

①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메타 윤리학
②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규명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이론 윤리학
③ 윤리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서술을 중시한다. → 기술 윤리학
④ 도덕 언어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간주한다. → 메타 윤리학
⑤ 현실적 도덕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을 중시한다.

'현실적 · 구체적' '문제 해결' → 실천 윤리학 Keyword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규범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나눌 수 있다.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루는 것은 이론 윤리학이다. 한편, 현실적 도덕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생태 윤리, 생명 윤리, 정보 윤리'는 실천 윤리학의 대표적 분야이다.

선지 설명

①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는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이다.
②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규명을 핵심 과제로 삼는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이다.
③ 윤리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서술을 중시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④ 도덕 언어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간주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⑤ 천재 생윤 교과서에 따르면,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를 토대로 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규범과 원칙을 연구하고, 그 규범과 원칙을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거나,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도덕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Tip 각 윤리학 별 주요 과제 정리

규범 윤리학	이론 윤리학	•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 •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규명
	실천 윤리학	• 현실적 도덕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
메타 윤리학		•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 • 도덕 언어의 분석
기술 윤리학		• 윤리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서술

02

(가), (나)에서 강조하고 있는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학년도 9평]

문제 + 해결 → 실천 윤리학 Keyword

(가) 윤리학은 이제 '하늘의 별'을 고찰할 것이 아니라 '발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즉, 생명 윤리, 성 윤리, 생태 윤리, 정보 윤리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당위가 학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는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 즉,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 엄밀히 탐구해야 한다. → 메타 윤리학의 특징

〈보기〉

ㄱ. 다양한 문화권에 존재한 관습들의 특징을 조사하고 기술한다. → 기술 윤리학
ㄴ. 현대 사회의 실천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문제 + 해결 → 실천 윤리학 Keyword
ㄷ. '선하다', '옳다' 등과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ㄹ. 우리가 따라야 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정립한다. →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가)	메타 윤리학 (나)
①	ㄱ	ㄴ
③	ㄴ	ㄷ
⑤	ㄷ	ㄹ

	(가)	(나)
②	ㄱ	ㄷ
④	ㄴ	ㄹ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가) "생명 윤리, 성 윤리" 등 현대 사회의 구체적 문제들을 여러 학문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이다. 참고로, 도덕 규범을 정립하고,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공통적인 속성이긴 하다. 하지만,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이 주력하는 부분이 다르다. 이론 윤리학은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도덕규범을 정립하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실천 윤리학은 도덕 규범을 적용하여 윤리적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주력한다.
(나) 당위란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당위에 대한 질문은 어떤 행위가 옳거나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규범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이다. 반면, '당위가 학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옳고 그름 자체가 무엇인지 묻는 더 근본적인 물음이다.
메타 윤리학은 윤리적 진술이 과학적 진술처럼 객관적 진리값을 가질 수 있는지,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가치가 실재하는지, 윤리적 용어들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덕적 추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는 곧 윤리학이 단순한 주관적 견해나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한 학문 분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선지 설명

ㄱ. 기술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다.
ㄴ. 실천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다.
ㄷ. 메타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다.
ㄹ. 이론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다.

03

갑, 을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학년도 수능]

실천 + 윤리 + 해결 → 실천 윤리학 keyword

갑 : 오늘날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따라서 윤리학은 생태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등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해. 즉, 윤리학은 이론 지향적이 아니라 실천 지향적이어야 해.

메타 윤리학

을 : 나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따라서 윤리학은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선하다'는 말이 참, 거짓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명제처럼 검증 가능한 성질의 것인지를 물어야 해.

보 기

응용 + 도덕 문제 + 해결 → 실천(응용) 윤리학

ㄱ. 특정 시대의 관습에 대해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 기술 윤리학

ㄴ.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 삶의 도덕 문제를 해결한다.

ㄷ.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논리적 타당성을 엄밀히 분석한다.

ㄹ.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서 객관적인 도덕법칙을 정립한다. → 이론 윤리학

언어 + 논리 + 타당성 → 메타 윤리학

	실천 윤리학 (갑)	메타 윤리학 (을)		(갑)	(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 :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계속 생겨난다. 예를 들어,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계 문제, 인터넷과 AI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실제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윤리학은 단순히 '무엇이 옳은가?'라는 이론적인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실천 윤리학이다. 마치 의사가 질병의 원인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윤리학도 현실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을 :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우리가 '어떤 행동은 선하다/나쁘다'라고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볼 것이 있다. '선하다' 또는 '나쁘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물의 온도는 25도이다'라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온도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선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윤리학이 제대로 된 학문이 되려면, '어떤 행동이 선한가?'를 묻기 전에 먼저 '선하다'는 말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 사실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메타 윤리학이다.

선지 설명

ㄱ. 기술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이다.

ㄴ. 실천(응용)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이다.

ㄷ. 메타 윤리학의 주된 탐구 과제이다

ㄹ. 이론 윤리학의 주된 탐구 과제이다.

04

'심화 학습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6평]

- 윤리학의 구분
  - (1) A
    - 예 의무론, 공리주의 등 → 이론 윤리학
  - (2) B
    - 예 생명 윤리, 환경 윤리 등 → 실천 윤리학
  - (3) 메타 윤리학

… (중략) …

- 심화 학습 문제 : A, B의 주요 탐구 과제는 무엇일까?

보 기

메타 윤리학 → ㄱ. 사회 규범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 기술 윤리학

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 이론 윤리학

ㄷ.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도덕 법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ㄹ. 도덕 원리를 적용해 실생활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적용 + 문제 해결 : 실천 윤리학

	이론 윤리학 A	실천 윤리학 B		A	B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	ㄷ	ㄹ			

정답 ⑤

제시문 설명

A :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B :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을 길게 말하면 이론 규범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윤리학은 모두 규범 윤리학이다. 따라서, 규범 윤리학의 특성은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규범 윤리학은 '당위(~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며, '당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덕규범'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공통점이다.

그렇다면, 두 윤리학의 차이점은 뭘까? 바로 '주된 탐구 과제'이다. 이론 윤리학의 주된 탐구 과제는 '당위'를 판단하기 위한 '도덕규범의 정립'이다. 실천 윤리학의 주된 탐구 과제는 도덕규범을 응용, 적용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선지 설명

ㄱ. 기술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다.

ㄴ. 메타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다.

ㄷ. 이론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다.

ㄹ. 실천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5

다음 대화에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9평]

갑 :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학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론 윤리학)

을 : 윤리 문제는 '좋음', '옳음' 등과 같은 도덕 언어의 분석, 도덕규범에 관한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메타 윤리학)

갑 : 네 의견에 동의해.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도덕규범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새로운 윤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을 : 그렇지. 생명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등과 같은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날 윤리학은 ㉠ (실천 윤리학)

①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서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해. (→ 이론 윤리학)

② 인접 학문 영역과는 분리된 윤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해. (실천 윤리학은 인접 학문과의 연계성 추구)

③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해. (→ 이론 윤리학)

④ 윤리학이 하나의 객관적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해야 해. (메타 윤리학)

⑤ 구체적 도덕 문제에 도덕규범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해. (응용과 실천 / 실천 윤리학)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과 을은 모두 단순한 도덕 언어 분석(메타 윤리학)이나 도덕규범의 이론적 정립(이론 윤리학)만으로는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 대화는 핵심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천 윤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지 설명

①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여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 삼고자 하는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이다.

② 실천 윤리학은 '생명 공학' 등의 인접 학문과 연계하여 '생명 윤리' 등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제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인접 학문 영역과는 분리된"이라는 진술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으로 부적절하다. 한편, 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확립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하지만, 메타 윤리학도 '언어학', '논리학' 등 다른 학문 영역의 내용을 활용하곤 하므로, '분리된'은 메타 윤리학에도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③ '분석'이라는 표현 때문에, 해당 선지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라고 오해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행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논증, 도덕적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④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이다.

⑤ 도덕규범을 적용하여 도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Tip '도덕적 행위를 분석하고자 하는 윤리학' 깊게 알아보기

③ 선지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라고 오해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행위를 분석'하는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논증,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논리적 규칙'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선지 정리를 통해 확인해보자.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다.	[2014년 10월 학평]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다.	[2014학년도 6평]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 문제를 확립해야 한다.	[2015학년도 9평]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루어 윤리적 행위의 기준을 제공한다.	[2013년 7월 학평]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2014년 10월 학평]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삼는다.	[2014년 7월 학평]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14학년도 6평]
메타 윤리학은 도덕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도덕적 언어의 분석에 주력한다.	[2013년 7월 학평]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에 사용되는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2013년 7월 학평]

06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수능]

20세기 들어 '윤리학이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언어의 의미 분석에 몰두하는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이 윤리학은 (가) 를 주요 탐구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도덕 언어의 분석이나 기존의 도덕 이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덕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안락사, 임신 중절 등과 같은 현실적 삶에 등장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학은 (나) 를 주요 탐구 과제로 삼는다.

메타 윤리학 / 실천 윤리학

보 기

ㄱ.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인 객관적 도덕규범을 정립하는 것 → 이론 윤리학
ㄴ. 도덕 추론의 논증 가능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것 → 메타 윤리학
ㄷ. 특정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설명하는 것 → 기술 윤리학
ㄹ.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실천적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 → 실천 윤리학 (가치 중립성)

	메타 (가)	실천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가) :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언어의 의미 분석에 몰두하는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이다.
(나) :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현실적 삶의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하는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이다.

선지 설명

ㄱ. 이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ㄴ.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ㄷ.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ㄹ. 실천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Tip '가치 중립적 윤리학 연구' 깊게 알아보기

규범 윤리학은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이므로, 본질적으로 가치 판단이 수반된다. 반면,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과 같이 근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윤리학의 경우 윤리학을 마치 '과학'과 같이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메타 윤리학 :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한다. 또한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 기술 윤리학 :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히 기술(記述)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한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 중립적 윤리학 연구'는 현대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윤리학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실천 윤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07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6평]

규범 윤리학

윤리학은 사회과학과는 달리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가?', 혹은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옳은 방안은 무엇인가?'와 같은 규범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근대 이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들을 명확히 기술하고 그러한 사실들 간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 고 생각한다.

기술 윤리학

①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중립적 설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② 도덕 언어의 개념 분석과 도덕 논증의 타당성 입증을 중시하고 있다 — 메타 윤리학
③ 도덕 원리의 정립보다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도덕 관행에 대한 기술보다 삶의 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기술 윤리학의 주요 탐구과제 / 규범 윤리학의 입장)
⑤ 도덕 법칙이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규범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학의 역할이라고 보는, 가치 개입적인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도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들을 기술하고 그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가치중립적인 '기술 윤리학'을 비판하고 있다. 기술 윤리학은 현실적 도덕이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받아들이는 규칙', '사회 전반의 여러 도덕적 제도와 관행', '도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들의 인과 관계' 등을 가치 판단 없이 경험과학적으로 연구, 기록한다.

선지 설명

①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중립적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② 기술 윤리학이 아니라, 메타 윤리학이 중시하는 입장이므로 비판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기술 윤리학은 도덕 원리 정립보다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다.
④ 규범 윤리학(에 속하는 실천 윤리학)은 기술 윤리학에게 '도덕 관행을 기술'하는 것보다는 '규범을 적용하여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할 것이다.
⑤ 이론 윤리학 중에서도 의무론에 해당하는 칸트가 강조할 입장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8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9평]

다른 말로는 정의주의, 정서주의
이모티비즘 : 메타 윤리학의 주요 관점 중 하나

갑 : "낙태는 나쁘다."라는 진술은 낙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 왜냐하면 그러한 진술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 메타 윤리학

을 : 너는 윤리학이 당위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우리는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 → 이론 윤리학

병 : 나도 을의 입장에 동의해. 하지만 낙태와 같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고려하면서 도덕규범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 → 실천 윤리학

보 기

ㄱ. 갑은 각 사회의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강조한다. → 기술 윤리학
ㄴ. 을은 도덕 판단의 준거와 행위의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다.
ㄷ. 병은 윤리학과 인접 학문들의 학제적인 연계를 중시한다.
ㄹ. 을, 병은 도덕 판단을 위한 도덕규범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 을 & 병 : 규범 윤리학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 : 메타 윤리학
을 : 이론 윤리학
병 : 실천 윤리학

선지 설명

ㄱ. 각 사회의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강조하는 입장은 메타 윤리학이 아니라 기술 윤리학이다.

ㄴ.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규범의 정립을 주된 탐구 과제로 삼는다. 이론 규범 윤리학은 정립한 도덕 법칙을 '준거'로 삼아 도덕 판단을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행위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확보한다.

ㄷ. 실천 규범 윤리학은 윤리학과 인접 학문들의 학제적인 연계를 중시한다. 제시문의 "새로운 의학 정보를 고려하면서 도덕규범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한다는 것도 실천 규범 윤리학의 학제적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다.

ㄹ. 규범 윤리학이라는 같은 범주에 속한 '이론 · 실천 윤리학'은 모두 도덕 판단을 위해서 도덕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실천 윤리학은 도덕규범의 응용과 실천을 주된 탐구 과제로 삼고, 이론 윤리학은 도덕규범의 정립을 주된 탐구 과제로 삼는다는 차이가 있다.

현자의 돌 COMMENT

생활과 윤리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범주들의 차이점에 대한 주목뿐만 아니라 공통점에 대한 주목도 하는거야.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결국 모두 '규범 윤리학'이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의 특징인 도덕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이러한 '공통점'에 대한 학습을 주의하자.

Tip 메타(분석) 윤리학 깊게 알아보기

메타 윤리학은 크게 네 가지의 근본적 물음이 있다. 첫째, '도덕적 사실이나 도덕적 속성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도덕 실재론과 반실재론이 대립하고 있다. 둘째, '도덕 판단은 진리값을 가지며 참 또는 거짓을 가릴 수 있는가?'에 대해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셋째, '도덕 언어의 주된 의미 또는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술주의와 비기술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넷째, '도덕 판단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는 가능한가?'에 대해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아래는 생활과 윤리에서 자주 언급된 비인지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비인지주의 : 도덕적 사실, 개념 등을 인간이 인식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도덕적 사실과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도덕 반실재론과도 일맥상통한다.

- 비인지주의
  - 정의주의(정서주의) : 수능, 평가원 출제
  - 규정주의(처방주의) : 수능, 평가원 출제
  - 상대주의(relativism)
  - 투영주의(projectivism)

이들 입장에서 "낙태는 나쁘다(비도덕적이다)."라는 진술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정의주의는 "낙태는 나쁘다(비도덕적이다)."라는 진술은 "낙태 싫어!"라는 발화와 같은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규정주의는 "낙태는 나쁘다(비도덕적이다)."라는 진술은 "낙태를 하지 마라!"라는 발화와 같이, 무엇을 권장하거나 명령하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상대주의는 "낙태는 나쁘다(비도덕적이다)."라는 진술은 절대적으로 옳은 도덕규범이 아니라, 특정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태도 혹은 도덕규범으로 본다.

투영주의는 "낙태는 나쁘다(비도덕적이다)."라는 진술은 인간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아닌, 발화자의 욕망 또는 의지가 투영되는 진술일 뿐이라고 본다.

Tip 메타 윤리학의 등장 배경

회의론에 빠진 20세기 윤리학자들은, '윤리학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의 문제부터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메타 윤리학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적 물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개정 전 교학사 생윤 교과서 요약]

0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수능]

비인지주의 : 메타 윤리학의 주요 관점 중 하나

'거짓말은 나쁜가?'와 같은 도덕 문제에 답하려면 관련된 문제들에 답해야 한다. 어떤 학자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유용성, 정언명령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다른 학자들은 "나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금지, 혐오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답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와 같은 물음에 답하는 윤리학의 분야가 필요하다.

이모티비즘(정의주의·정서주의)

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인가?

②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소한 거짓말도 나쁘다.'라는 추론이 타당한가?

③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④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는 무엇인가?

⑤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이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가?

구체적 현실의 도덕 문제 ⇒ 실천 윤리학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제시문에서 '도덕 원리가 무엇인가?'를 묻는 어떤 학자는 이론 윤리학자다. '나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묻는 다른 학자는 메타 윤리학자다. 한편, ㉠에 들어갈 물음인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는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이다.

선지 설명

①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②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③ 도덕적 신념을 지역적, 시대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④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를 검토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⑤ 언론 윤리와 같은 구체적인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Tip 실천 윤리학의 특징

오늘날 실천 윤리학은 실생활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예를 들어, 의학, 기업, 언론 등과 연관된 문제뿐 아니라 고용 평등이나 사형 제도 등의 사회적 관심사 역시 실천 윤리학의 주제가 된다. 실천 윤리학에서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가 일차적 물음이고, 도덕 이론이나 도덕 원칙은 이차적 의미밖에 지니지 않는다.

[김상득, 『윤리학과 그 응용』 요약]

10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6평]

실천 윤리학

윤리학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덕 언어의 논리적 명료화에 주력하는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당시 윤리학은 도덕 판단이 단지 감정의 표현이나 명령일 뿐이므로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 고 생각한다.

실천 윤리학 ↓ 비판 ↓ 메타 윤리학

메타 윤리학

①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규범 윤리학

② 도덕적 추론에 대한 가치중립적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 메타 윤리학 강조

③ 도덕적 풍습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기술 윤리학

④ 도덕 언어의 분석보다 도덕 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⑤ 도덕적 지식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하였다 — 메타 윤리학 강조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논하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제시문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서 '도덕적 언어의 논리적 명료화에 주력하는' 메타 윤리학을 비판하고 있다.

선지 설명

①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이지, 메타 윤리학이 아니다.
②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에 대한 가치중립적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조한다.
③ 도덕적 풍습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므로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④ 도덕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실천 윤리학이 도덕 언어의 분석을 강조하는 메타 윤리학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⑤ 도덕적 지식의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오히려 메타 윤리학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1

다음의 토론 주제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9평]

토론 주제 : 윤리학, 그 주요 탐구 과제는 무엇인가?

갑 : 저는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의 본질은 어떤 원리가 도덕적 실천을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 이론 윤리학

을 : 저는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실천적 문제에 적용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실천 윤리학

① ~~갑~~ : 다양한 문화권을 탐방하여 각국의 실천적 관습을 조사해야 한다.

② ~~갑~~ : '옳다', '유덕하다' 같은 도덕적 술어의 의미를 검증해야 한다. → 기술 윤리학

③ ~~을~~ :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해야 한다.

④ 을 :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 메타 윤리학

⑤ 갑, ~~을~~ : 의무, 공리, 덕성 등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해야 한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 : 이론 윤리학

을 : 실천 윤리학

선지 설명

①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②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③ 메타 윤리학이 탐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를 연역'(=논리적 추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Tip

- 사실 명제 : 객관적으로 실증이 가능한 명제
  ex. 현자의 돌 기출 문제집의 저자는 임수민이다. → 참인 명제
- 당위 명제 : 객관적 실증은 불가능하지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주장이 담긴 명제 ex.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

④ 실천 윤리학자들은 '기후 변화'와 같이 현대에 새롭게 대두된 윤리적 문제 상황의 올바른 해법을 찾고자 한다.

⑤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모두 '도덕성의 기초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토론 주제에서 볼 수 있듯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하는 것을 '주요 탐구 과제'로 보는 것은 이론 윤리학만의 입장이다.

Tip 메타 윤리학의 응용

현대의 규범 윤리학은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그간 연마된 메타 윤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 [개정 전 교학사 생윤 교과서]

▶ 메타 윤리학의 이론적 지식이 규범 윤리학에 응용되기도 한다.

Tip 기술 윤리학의 성격과 활용

기술 윤리학은 사람들이 어떤 윤리 의식이나 가치관을 실제로 지니고 있는지를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 응용 규범 윤리적 탐구에서 기술 윤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개정 전 비상 생윤 교과서]

▶ 기술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기술 윤리학은 문화적 사실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인류학 또는 사회과학에 가깝다. 기술 윤리학을 통해 기록된 윤리 의식과 가치관의 윤리적 타당성을 탐구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의 일이다.

Tip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를 연역'할 수 있는가?

이론 규범 윤리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논리적 추론을 메타적으로 검토한 사례로는 '공리주의의 자연주의적 오류'가 있다. 공리주의는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사실 명제로부터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당위 명제를 연역하여 '공리주의'의 근본 전제로 삼는다. 그러나 어떤 메타 윤리학자들은 그러한 '사실 명제에서 당위 명제를 연역'하는 행위는 선(善)을 쾌락과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논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12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수능]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원리와 토대를 제공하고 일반화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기존의 이론 중심 윤리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덕적 문제 상황들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윤리적 과제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윤리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윤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윤리학은 [㉠]

① 도덕 명제에 대한 검증 가능성과 분석적 접근을 강조한다.
② 도덕적 탐구가 학문적으로 정립 가능한 분야임을 부정한다.
③ 도덕규범의 현실적인 적용과 구체적인 대안의 실천을 강조한다.
④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 윤리 이론의 응용 가능성을 부정한다.
⑤ 도덕적 관행을 가치와 무관한 문화적 사실로 볼 것을 강조한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실천 윤리학'을 논하고 있다.

선지 설명

①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② 메타 윤리학의 비인지주의 학자들은 도덕 판단을 객관적 · 합리적으로 정립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탐구 자체를 학문적 지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③ 실천 윤리학은 도덕규범을 현실에 적용하여 올바른 행위를 실천한다.
④ 실천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이론 윤리학을 응용해야 한다고 본다.
⑤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Tip 실천 윤리학의 등장 배경 깊게 알아보기

등장 배경	•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론 윤리학의 한계점 • 세계화, 정보화 등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윤리 문제가 등장했다.

1960년대 이후 인류는 현실 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도덕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의 출현을 갈망하였다. 고전적 윤리 이론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와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들에 대응하여,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천 윤리학은 그러한 소망에 부응하는 윤리학으로서 오늘날 새롭게 출현하는 현실적인 윤리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윤리 이론을 제공한다.

13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6평]

나는 윤리학의 문제가 올바른 대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 분석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윤리학의 주된 과제는 도덕 이론을 전개하거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와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 경제, 의료, 환경 등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① 언어 분석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윤리적 문제 상황에 도덕 이론을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③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될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도덕 이론의 적용보다 도덕 언어의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⑤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률을 과학적으로 서술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윤리학=실천 윤리학'을 비판하는 제시문이다.

선지 설명

① 도덕적 딜레마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반딜레마 논증'(언어 논리 분석)을 통해서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한 메타 윤리학의 한 학파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실천 윤리학은 도덕 이론을 윤리적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윤리학이다.
③ 실천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일종으로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되는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④ 도덕 언어의 분석을 강조하는 메타 윤리학이 도덕 이론의 적용을 강조하는 실천 윤리학에 제시하기에 적절한 비판이다.
⑤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률을 서술하고자 하는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이 아니라, 기술 윤리학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4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9평]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유덕한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학은 덕을 함양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학 이론들은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나 원리만을 강조하여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 이론들이 [㉠]고 생각한다.

규범 윤리학 中 덕 윤리

① 도덕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②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가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③ 도덕적 실천을 위해 맥락적 사고의 배제가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④ 도덕적 관행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⑤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덕 윤리
덕 윤리가 중시하는 것.
기술 윤리학
메타 윤리학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덕 윤리의 관점에서 의무론과 공리주의 이론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원래 1번 문항은 항상 '이론/실천/메타/기술 윤리학 비교'가 출제되어 왔지만, 예외적으로 이 2018학년도 9평에서는 이론 윤리학 내에서의 비교가 출제되었다.

선지 설명

① 덕 윤리는 행위 그 자체보다 행위자의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을 중요하게 본다. 반면,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행위 자체에 집중한다. 따라서 선지 ①은 덕 윤리가 의무론과 공리주의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②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입장이므로, '도덕 원리의 중요함'을 간과하지 않는다.
③ 덕 윤리는 도덕적 실천을 위한 맥락적 사고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덕 윤리는 '맥락적 사고의 배제가 중요함'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④ 도덕적 관행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은 '이론 윤리학인 덕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와 무관한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⑤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은 '이론 윤리학인 덕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가 아니라 메타윤리학'의 입장이다.

15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수능]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도덕적 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 도덕이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어떤 문화나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고 생각한다.

실천 윤리학
비판
기술 윤리학
기술 윤리학

①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 구조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②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탐구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③ 실천적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④ 현실적 도덕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설명의 필요성을 무시한다
⑤ 보편적 도덕규범의 이론적 체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천 윤리학 강조점
비판형 문제는 서술어에 부정적 표현이 들어간 선지를 주목하라!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실천 윤리학의 관점에서 기술 윤리학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선지 설명

①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②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③ 실천적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는 실천 윤리학이 도덕 현상에 대한 기술을 윤리학의 근본 과제로 간주하는 기술 윤리학을 비판하는 논리로 적절하다.
④ 기술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에 대해서 가치중립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⑤ 보편적 도덕규범의 이론적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은 기술 윤리학이 아닌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Tip 기술 윤리학 깊게 알아보기

기술 윤리학	① 사회의 도덕적 질서 내에서 사실적 의미를 탐구함.
	②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 등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함.
	③ 도덕적 풍습 또는 관습에 관해 단순히 묘사하거나 기술함.

16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6평]

갑 : 윤리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보다 개인의 생활,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해 온 도덕적 관행들을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여 서술해야 한다. → 기술 윤리학

을 :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 조사와 도덕적 개념 분석에 집중하기보다 윤리적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덕 규칙의 근거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이론 윤리학

① 갑 : 도덕 현상을 기술할 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갑 : 도덕적 관습 비교보다 윤리적 개념 분석을 중시해야 한다.
③ 을 :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④ 을 : 도덕적 명제의 논리 구조와 의미 분석이 탐구 목적이어야 한다. → 메타 윤리학
⑤ 갑, 을 : 인간의 가치 판단을 배제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 기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공통점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 : 기술 윤리학
을 : 이론 윤리학

선지 설명

① 기술 윤리학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덕 현상을 기술한다.
② 메타 윤리학이 동의할 입장이다. 오히려 기술 윤리학은 윤리적 개념의 분석보다는 도덕적 관습의 비교를 중시한다.
③ 이론 윤리학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에 대해서 규범적 원리를 정립하려 한다.
④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⑤ 기술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하여 객관적으로 도덕 현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반면, 이론 윤리학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학문의 전제로 삼는다.

Tip 기술 윤리학 깊게 알아보기

〈기술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
기술 윤리학은 현실적 도덕이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받아들이는 규칙', '사회 전반의 여러 도덕적 제도와 관행', '도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들의 인과 관계' 등을 가치 판단 없이 경험과학적으로 연구, 기록한다.

17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평]

나는 윤리학이란 규범 윤리적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부터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고 생명 복제, 사회 불평등 등과 같은 실제적인 도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들의 입장이 [㉠]고 생각한다. → 실천 윤리학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 메타 윤리학

비판

실천 윤리학

①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② 당위의 학문이라는 윤리학의 본질적 성격을 간과한다
③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원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④ 규범 윤리학 이론과 도덕적 실천의 유기적 연관성을 간과한다
⑤ 도덕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메타 윤리학의 강조점

정답 ⑤

제시문 설명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 실천 윤리학 비판.

선지 설명

① 실천 윤리학은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탐구를 추구한다.
② 실천 윤리학은 윤리학에 포함된다. 규범이란 곧 사회적 당위를 의미한다.

> 규범 :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표준국어대사전]

③, ④ 실천 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도덕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⑤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분석을 강조한다. 반면, 실천 윤리학은 그러한 점을 간과한다.

Tip 메타 윤리학 깊게 알아보기

이론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도덕적 언어의 명료화를 시도한 윤리학이 20C에 등장한 메타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언어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 타당성과 추론의 규칙을 연구함으로써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데에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8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수능]

(가) 윤리학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바람직한 삶의 이상을 제안하고 올바른 판단과 행위의 근거인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이론 윤리학

(나) 윤리학은 "실생활의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환경오염, 연명 치료 중단, 사형 제도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규범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 실천 윤리학

① (가) :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메타 윤리학

② (가) :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실태 조사〉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 기술 윤리학

③ (나) :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메타 윤리학

④ (나) : 윤리학은 현실 문제에 대한 도덕 원리의 적용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⑤ (가), (나) :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결론 도출〉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 : 기술 & 메타 윤리학 / × : 규범 윤리학(이론, 실천)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가) 이론 윤리학

(나) 실천 윤리학

선지 설명

①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②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③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④ 실천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현실 문제에 적용하여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⑤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모두 규범 윤리학으로서 가치 판단을 통해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결론을 도출한다. ⑤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 해당한다.

Tip 실천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의 관계 깊게 알아보기

〈실천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의 관계〉

① 실천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은 모두 규범 윤리학으로서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수행한다.

② 이론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응용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을 현실의 윤리적 문제에 적용한다.

③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cf) 메타 윤리학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아닌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19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6평]

(가)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와 같이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 이론 윤리학

(나) 윤리학은 생명 윤리, 환경 윤리, 정보 윤리와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 → 실천 윤리학

① (가) : 윤리학은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기술 윤리학

② (가) :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의 탐구〉가 윤리학의 핵심 목표이다. → 메타 윤리학

③ (나) :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④ (나) : 윤리적 문제의 해결은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하다. → 가치 중립 : 기술 & 메타 윤리학 / 가치 개입(= 가치를 분별) : 규범 윤리학(이론 & 실천)

⑤ (가), (나) :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중점 과제로 삼는다. → 메타 윤리학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가) 이론 윤리학

(나) 실천 윤리학

① 등장 배경 : 급격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이론 윤리'만으로는 올바른 행위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제기

② 핵심 과제 : 이론 윤리가 정립한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여, 현실에서 직면하는 윤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

③ 특징 : 다원화된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학문의 내용과 연계하여 현실 문제의 해결책 모색

선지 설명

① 도덕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②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③ 실천 윤리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을 중시하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제적 성격이란 여러 학문의 내용과 연계하여 학문을 탐구한다는 뜻이다. 실천 윤리학은 다양한 분야의 윤리적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윤리학의 내용과 함께 윤리적 쟁점이 되는 다른 학문의 내용을 같이 다룬다. 예를 들어 실천 윤리학의 하위 분야인 환경 윤리를 다룰 때는 윤리학적 지식과 함께 환경, 생물, 지구 과학 등의 내용도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 윤리를 다룰 때는 윤리학적 지식과 함께 생명 공학, 의학 등 전문적 지식도 다루어야 한다. [비상 생윤 교과서]

④ 실천 윤리학은 도덕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자 하는 규범 윤리학의 일종이므로, 윤리적 문제를 가치 개입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⑤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윤리학의 중점 과제로 삼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20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9평]

실천(=응용) 윤리학 / 비판 / 기술 윤리학

윤리학은 실천의 학으로 도덕 이론을 응용하여 실제 삶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실제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도덕적 관행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① 도덕 이론과 도덕 문제 간의 유기적 상관성을 ~~강조한다~~ (실천 윤리학의 강조점)
②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판단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③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한다~~ (메타 윤리학의 강조점)
⑤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간과한다~~ (기술 윤리학의 강조점)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 윤리학을 비판하고 있다.

선지 설명

①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뿐, 도덕 이론과 도덕 문제 간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강조하지 않는다.
② 실천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기술 윤리학은 도덕 판단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으며, '도덕적 관습이나 풍습 등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는 데에 관심을 보인다.
③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이는 메타 윤리학에 해당되는 입장이다.
④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하지 않는다.
⑤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에 대한 경험적 서술'이 중요하다고 본다.

Tip '비판 유형' 깊게 알아보기

지금까지 평가원이 출제해온 'A입장에서 B입장을 비판하는 유형'에서 정답은 항상 부정적인 표현(부정/경시/무시/간과)을 서술어로 한 선지였다. 문제를 풀 때 서술어를 체크해보자.

- 를 강조하고 있다. → 정답 선지로 출제된 바 없다.
- 를 간과하고 있다. → 이처럼 부정적 표현을 서술어로 한 정답 선지가 출제되어 왔다.

(*교육청이나 내신 시험은 긍정적 서술어를 정답 선지로 출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2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수능]

실천 윤리학 / 가치 개입 vs 가치 중립 / 기술 윤리학

갑 : 윤리학은 윤리 이론의 탐구보다는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 이론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공학, 법학 등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을 :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사람들이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설명해야 한다.

① ~~갑~~ :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기술 윤리학)
② 갑 :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
③ ~~을~~ :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이론 윤리학 / 덕 윤리)
*당위의 관점(ought) : 규범 윤리학 / ×: 기술 윤리학 → 규범 윤리학은 당위(ought)의 관점. 기술 윤리학은 사실(is)의 관점.
사실의 관점(is)
④ ~~갑~~ :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응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이론 윤리학)
⑤ ~~갑~~, ~~을~~ :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메타 윤리학)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갑 : 실천 윤리학
을 : 기술 윤리학

선지 설명

①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 해당한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제시문에도 "즉 사람들이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설명해야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② 실천 윤리학은 윤리학이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제시문에서도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③ 을(기술 윤리학)이 아니라, 이론 윤리학 중 덕 윤리의 입장이다.
④ 을(기술 윤리학)이 아니라,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⑤ 갑(실천 윤리학), 을(기술 윤리학)이 아니라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2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6평]

(가)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실천 윤리학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 즉 '좋다', '옳다'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메타 윤리학

① (가)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이다. → 실천 윤리학
② (가)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이다. → 메타 윤리학
③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다. → 기술 윤리학
④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응용 윤리학의 <강조점>)
⑤ (가),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다. → 이론 윤리학

정답 ①

선지 설명

① 실천 윤리학은 삶의 실천적 영역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체계적인 탐구를 포괄하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②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20세기에 등장한 메타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의 도덕적 논의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언어적으로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논리들을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론 윤리학이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데에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

③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기술 윤리학은 현실적 도덕이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받아들이는 규칙', '사회 전반의 여러 도덕적 제도와 관행', '도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들의 인과 관계' 등을 가치 판단 없이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 · 기록 한다.

④ 메타 윤리학은 경험적 연구보다는 이론적 연구를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본다. 참고로, 이 선지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으로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기술 윤리학은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지만, '도덕성의 검증'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선지에서 설명하는 윤리학은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들어온 '도덕 과학적 접근'에서의 신경 윤리학, 진화 윤리학에 해당한다. 가령, 신경 윤리학은 인간의 뇌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도덕성을 뇌의 특정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검증했다.

⑤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은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라고 본다.

23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9평]

(가) 윤리학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실천 윤리학

(나) 윤리학은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기술 윤리학

① (가) : 도덕적 신념과 관습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한다. → 기술 윤리학
② (가) :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 실천 윤리학
③ (나) : 도덕 규칙이나 평가의 표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규범 윤리학
④ (나) :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 메타 윤리학
⑤ (가), (나) :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 규범 윤리학(이론 + 실천) 모두 동의!

정답 ②

선지 설명

① 도덕적 신념과 관습을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 아니라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② 실천 윤리학은 현실의 실천적 영역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윤리학을 의미한다. 실천 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 규범 윤리학이 정립한 보편적 도덕 원리를 개별 사례에 적용(활용)한다.

③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도덕 규칙을 정립하고 평가의 표준이 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규범 윤리학에 해당한다.

④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 아니라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⑤ 규범 윤리학 중 의무론과 같은 입장에서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론 규범 윤리학을 응용하고자 하는 실천 윤리학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반면, 기술 윤리학은 특정 도덕 규칙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는 학문이 아니다. 기술 윤리학은 특정 시기의 특정 사회가 어떠한 도덕 규칙을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라고 간주했는가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연구할 뿐이다.

24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

나는 윤리학이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적 원리를 탐구하기보다는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추론의 규칙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 · 문화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탐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메타 윤리학 ↓비판 실천 윤리학

① 도덕 문제 탐구에 사회 · 자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실천 윤리학의 학제적 성격)
② 도덕 문제 해결보다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메타 윤리학 강조)
③ 도덕 현상은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이 아님을 간과한다 (기술 윤리학)
④ 도덕 문제 해결에는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규범 윤리학)
⑤ 도덕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삶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한다 (실천 윤리학 강조)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갑 : 메타 윤리학, 1930년대 전후로 논리실증주의적 언어 철학에 영향을 받은 윤리학자들은 전통적인 윤리학 지식이 실제로 지식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단순히 언어적 착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회의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윤리학에 언어 논리적으로 접근, 즉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윤리 이론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들은 도덕적 용어들의 개념을 분석하고, 도덕 판단의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도덕 판단의 정당화와 관련된 탐구를 윤리학의 주요 과제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을 : 실천 윤리학, 실천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적용해서 실생활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윤리로, 가치 개입적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선지 설명

① 실천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제적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 문제 탐구에 사회 · 자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실천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이 도덕 논증의 분석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 메타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보다는 도덕 논증의 분석을 더 중요시한다.
③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으로 보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술 윤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회 집단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에 관심을 갖고, 도덕적 관행들을 문화적 '사실'로 본다. 이 점에서 기술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이나 메타 윤리학과 다르다.
④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입장은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이다.
⑤ 실천 윤리학은 사회 · 문화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은 전통적 이론 윤리학 또는 메타 윤리학에서의 탐구만으로는 그러한 구체적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1단원 03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01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반박할 경우 그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5학년도 6평]

(가)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한 사람 이외의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밀
(나)	소수의 다양한 의견은 진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진리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수의 발언 기회가 제한되어야 한다.

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합의해야 진리가 된다.
② 소수의 의견이 진리이고 다수의 의견이 오류일 수 있다.
③ 자유 토론의 과정에서 진리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④ 자유로운 논박을 통해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가 가능하다.
⑤ 소수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진리일 수 있다.

밀: 공리주의자 ⇓ 손익의 관점에서 보는 입장. ↓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 (행복, 공리의 증가)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가) 밀의 자유로운 토론 옹호 논증이다.
주장 : 소수 의견 발언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소수 의견을 억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논거 :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나)
주장 : 소수의 의견 발언을 억압해야 한다.
논거 : 소수의 의견이 진리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나)
논점1 : 소수의 의견 발언을 제한해야 하는가?	×. 소수의 의견 발언을 제한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
논점2 : 소수의 의견 발언은 사회적 손실을 불러 오는가?	×. 오히려 이익이 된다.	○

선지 설명

① 밀은 모두가 합의하지 않아도 진리일 수 있다고 본다.
②~⑤ 밀이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 논거들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2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6평]

A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리의 관점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진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 Ⓑ: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 소수 의견이 옳을 경우 인류는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A : 하지만 그 소수 의견이 옳지 않다면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밀 Ⓑ: 설령 그 의견이 옳지 않다고 할지라도 논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인류는 [㉠]

공리가 증가

① 다수의 의견에 대한 ~~복종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② 기존의 진리가 지닌 가치와 의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③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까지 동의해야~~ 진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④ 다수에 의해 확립된 의견이 ~~진리의 표준~~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⑤ 사회적 유용성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B는 토론의 자유를 강조한 밀이다.
주장 : 진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근거1 : 소수의 의견이 옳을 경우 오류를 수정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근거2 : 논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

선지 설명

① 밀은 다수의 의견에 복종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보다 옳다면, 우리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만 한다.
② 밀은 옳지 않은 소수의 의견이 제기될지라도 토론의 과정에서 진리에 관해서 재확인함으로써 진리의 가치와 의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③ 만약 진리가 있다면, 소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진리일 것이다. 또한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인 것도 아니다.
④ 소수의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도 아니고, 진리의 표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소수는 1+1=3이라고 생각하고, 다수는 1+1=5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소수의 의견이 틀렸지만, 다수의 의견도 틀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와 다수를 떠나 진리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⑤ 밀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Tip 밀의 표현의 자유 깊게 알아보기

> **개인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이다.**
> [①] 한 개인의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이 심각한 해악이 되는 이유는 그런 행위는 현재의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까지, 그리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인류 전체에게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 그 견해가 옳은 경우에는, 인류는 오류를 진리로 대체할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 그 견해가 틀린 경우에는, 오류와의 충돌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욱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 ① 밀은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도 소수의 의견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만약 소수 의견이 옳은 경우에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소수 의견이 틀린 경우에는 오류와 주류 의견의 충돌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03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수능]

>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침묵시키려는 의견이 오류라고 확신할 수 없고, 설령 오류라고 해도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공인된 견해도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그것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밀
>
> 단,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① 토론에서는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은 침묵시켜야 한다.
② 토론의 전제 조건은 참이라고 검증된 진술만을 발언하는 것이다.
③ 토론에서는 진리로 공인된 견해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④ 토론의 자유와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이 진리 추구의 조건이다.
⑤ 토론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 의견도 진리 탐구에 기여한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공리주의자 밀이다.
주장 : 소수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근거1 :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수 있다.
근거2 : 현재 진리라고 공인된 견해도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진리에 대해 서조차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지 설명

① 밀은 소수의 의견이 타당할 수 있고 타당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의견과 토론하게 함으로써 공리를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밀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하여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② 밀은 토론에서는 완벽한 자유(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록 오류인 발언일지라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
③ 밀은 진리로 공인된 견해일지라도 차후 오류로 밝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④ 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⑤ 밀은 토론에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합의된 소수 의견도 진리 탐구에 기여한다고 본다.

Tip 밀의 토론의 자유 깊게 알아보기

> 사람들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언제나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하지만 시대가 개인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자명하다. 모든 시대는 많은 의견들을 고수했지만, 다음 시대에서는 그 의견들은 틀린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지곤 했다.
> [①]과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많은 의견들이 현재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많은 의견들도 미래에 의해 부정될 것이 분명하다.

▶ ① 밀은 개인과 시대의 의견은 오류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0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충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

> 재물이나 명성과 명예는 최대한 많아지도록 마음을 쓰면서도 지혜와 진리, 자신의 영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
> 소크라테스
> 아들프 아이히만 (몰라도 됨)
>
> 〈사례〉
>
> 악행
>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던 피고 A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악마 같다고 비난했으나, 그는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자신이 비난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
> 본인의 행위를 숙고하지 않음

① 영혼의 훌륭함보다는 명성과 명예를 추구해야 한다.
② 자신의 행동에서 지혜롭지 못한 것은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 숙고
③ 옳음보다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
④ 직위와 결부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찰이 없다면 〈사례〉의 A(아이히만)와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
⑤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정한 규범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제시문은 플라톤의 저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나타난 내용이다. 제시문의 소크라테스는 재물과 명성, 명예에 대해 신경 쓰면서도 지혜, 진리, 영혼을 함양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함을 비판하고 있다.
〈사례〉는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인 아이히만(유대인 수용소 이송의 최고 책임자), 멩겔레(유대인 생체실험 주도) 등의 전범 재판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은 단지 주어진 직무(명령)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멩겔레 역시 유대인을 생체실험에 이용하면서도 그 실험이 윤리적 문제 상황이란 점을 전혀 알지못하고 인류의 의학 발전을 위한 실험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선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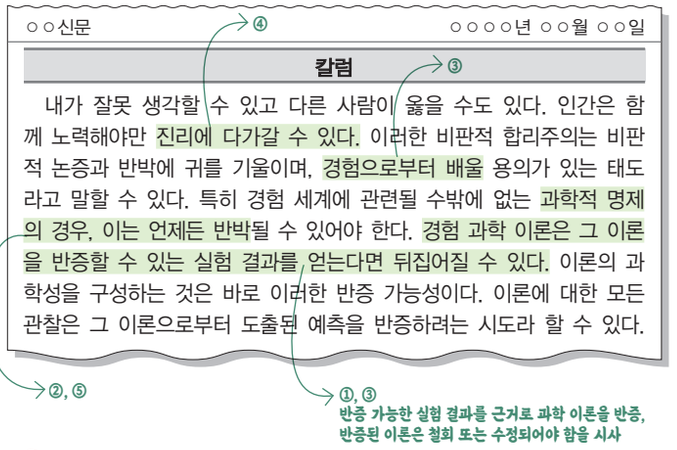
① 소크라테스는 명성과 명예의 추구보다 지혜, 진리, 영혼의 훌륭함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한다.
② 소크라테스는 숙고(성찰)의 삶의 자세를 통해 지혜를 함양하고 진리를 깨달아 영혼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사례 속 피고 A의 행동에 적용해본다면, A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찰이 없는 무지한 상태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다. 이러한 무지에 따른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끝없이 성찰하면서 일관적이면서 타당하며 최선의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한 믿음을 스스로 세우는 과정을 통해 지혜, 진리, 영혼의 훌륭함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소크라테스는 유용성을 추구한 당시 소피스트들의 행위를 비판하며, 옳음에 대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④ 소크라테스는 직위와 관련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때, 그 행위와 책임이 올바른 것인지 성찰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주장한다.
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정한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하지 않는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5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5학년도 수능]



① 실험 결과에 의해 예측이 반증된 경험 과학 이론은 거부된다.
② ~~논박이 불가능한~~ 경험 과학적 가설만을 진리로 ~~확정~~해야 한다.
③ 비판은 원천적으로 ~~반증 불가능한~~ 사실 명제에 근거해야 한다.
④ 진리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상대주의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⑤ 오류임이 증명되지 않은 과학 이론은 반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비판적 합리주의'와 '반증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표적으로 포퍼의 사상적 입장과 일치한다. 포퍼는 과학적 이론이란 경험적 검증과 반증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어떤 이론도 절대적으로 확증될 수는 없고, 언제든 반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은 "경험 과학 이론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이론이 실험 결과로 반박되면 그 이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그 이론을 기각(또는 필요한 경우 수정)하는 것이 진리에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② 제시문이 강조하는 것은 '반증 가능성'이다. '논박이 불가능한', '확정'이라는 말부터 제시문이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퍼는 논박(반증)이 불가능한 이론은 과학적 가설이 될 수 없다고 보며, '진리로 확정'이라는 표현 자체도 포퍼의 입장과 다르다. 포퍼는 확정 대신 반증 가능성을 강조한다. 모든 과학적 명제는 원리상 반박 가능해야 하며, 실제로 진리인 명제라면 반박 시도가 실패함으로써 그 명제의 신뢰성이 높아질 뿐, 절대적 진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반증 불가능한'이라는 말부터 제시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전체 흐름은 '비판적 합리주의'의 태도를 보여주며, 이는 '비판적 논증과 반박에 귀를 기울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용의가 있는 태도'다. 즉, 이론에 대한 비판은 경험적으로 반박 가능한 증거나 논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경험 과학 이론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말은, 비판이 바로 이러한 반증 가능한 근거(즉, 이론의 예측을 검증하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제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④ 제시문에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진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문항의 신문 칼럼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제시문에 "과학적 명제의 경우, 이는 언제든 반박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포퍼는 모든 과학 이론은 계속해서 반증 시도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오류가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라도 계속 반증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즉, 오류임이 증명되지 않은 과학 이론을 반증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윤리

빠른 정답 2단원

01 삶과 죽음의 윤리

01	②	02	④	03	⑤	04	④	05	⑤
06	④	07	③	08	①	09	③	10	③
11	⑤								

02 생명 윤리
❶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01	①	02	②	03	②	04	⑤	05	②
06	①	07	③	08	②	09	③	10	④
11	⑤	12	⑤	13	①	14	⑤		

02 생명 윤리
❷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01	④	02	④

03 사랑과 성 윤리
❶ 사랑과 성의 관계

01	①	02	⑤	03	②	04	⑤	05	⑤
06	⑤	07	①	08	④	09	①	10	④
11	③	12	②	13	①				

03 사랑과 성 윤리
❷ 결혼과 가족의 윤리

01	②	02	⑤	03	④	04	②	05	⑤
06	②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②	12	③	13	③	14	①	15	⑤
16	⑤	17	①	18	③	19	④	20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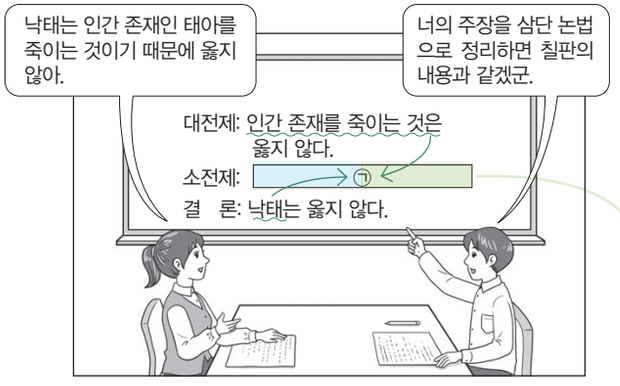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단원 01 삶과 죽음의 윤리

01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9평]



낙태 반대 입장

① 잠재적 인간인 태아도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② 태아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므로 인간 존재로 볼 수 없다.

③ 낙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도덕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
㉠은 법적&도덕적 허용과 무관하다.

④ 태아는 수정과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존재이다.
낙태 반대 입장 ㉠과 같은 입장.

⑤ 사회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인간 존재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에 대한 반론과는 다른 논점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이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 대전제와 결론을 활용하여 소전제를 찾고 2) 그 소전제의 반론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삼단논법 유형의 문항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식을 알면 (대전제와 결론은 물론) 소전제를 알아내는 것은 간단하다.

1) 먼저, 소전제를 찾아보자. (아래 표가 바로 그 공식이다!)

	주어	술어
대전제	A	B
소전제	C‘	A’
결론	C	B’

Step 1. 대전제와 결론의 주어 부분과 술어 부분을 나눈다.

공식 : 대전제의 주어(A)는 소전제의 술어(A’)와 같으며, 결론의 주어(C)는 소전제의 주어(C’)와 같다. 그리고, 대전제의 술어(B)와 결론의 술어(B’)가 같다.

	주어	술어
대전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	옳지 않다.
소전제	낙태는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다.
결론	낙태는	옳지 않다.

Step 2. 대전제의 주어를 소전제의 술어부에 넣고, 결론의 주어를 소전제의 주어부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바로 소전제가 도출된다. 즉, 소전제 ㉠은 “낙태는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다.”이다.

2)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추론하자.

Step 1. 소전제의 서술어를 부정해보라. 그것이 바로 소전제에 대한 반론이다. 따라서, 소전제 ㉠의 반론은 “낙태는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이다.

선지 설명

①, ④번 선지는 태아가 인간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답이다.

②번 선지는 ‘태아를 인간 존재로 볼 수 없다’는 선지로, 낙태가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 부합한다.

③번 선지는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말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⑤번 선지는 인간 존재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전제의 반론은 낙태가 인간 존재의 희생이 아니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02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2014학년도 수능]

수행 평가

◎ 문제 : 낙태에 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 나는 낙태가 임신한 여성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선택 옹호주의'를 지지한다. (프로_초이스(친선택론))

을 : 나는 임신한 여성의 선택보다는 태아의 생명이 도덕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명 옹호주의'를 지지한다. (프로_라이프(친생명론))

• 학생 답안

낙태에 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 갑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제로 낙태를 찬성한다. (선택 옹호) 이에 비해 ㉡ 을은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전제로 낙태를 반대한다. (생명 옹호) 갑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 여성은 남성처럼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는 주장이 있으며, 을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 태아는 출생 이후에 비로소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게 되어 생명권을 획득한다는 주장이 있다. 갑, 을의 입장을 정리하면 ㉤ 갑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을은 태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주장한다.

① ㉠ ② ㉡ ③ ㉢ ✓ ④ ㉣ ⑤ ㉤

(낙태 찬성 입장)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 : 낙태 찬성 입장(선택 옹호주의)

을 : 낙태 반대 입장(생명 옹호주의)

선지 설명

①, ③ 낙태 찬성 입장에서 긍정할 내용이다.

② 낙태 반대 입장에서 긍정할 내용이다.

④ '태아의 생명권'는 '출생 이후'에 보장된다는 것은, '출생 이전, 임신부의 자궁에 있는 태아'는 '출생 이전'이므로 '생명 권리'를 지니지 못했고, 따라서 '낙태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은 낙태 반대 입장이 아니라 낙태 찬성 입장에서 긍정할 내용이다.

⑤ 갑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므로 낙태에 찬성한다. 을은 태아의 권리를 존중하므로 낙태에 반대한다.

Tip 태아의 지위에 관한 여러 입장

- 태아는 수정될 때부터 하나의 인간이다.
-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 세포 조직에 가깝다.
- 태아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태아는 발생 단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3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6평]

반자발적 안락사

①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없다. → 반대 입장

② 환자의 요구에 반하여 안락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

비자발적 안락사

③ 환자가 뇌사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

④ 시한부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 반대 입장

✓ 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다.

근거 / 결론

정답 ⑤

제시문 설명

(1) 소전제 추론 : 소전제를 추론해보자.

대전제 :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소전제 : ㉠

결론 : 자발적 안락사는 옳지 않다.

Step1) 대전제와 결론의 주어 부분과 술어 부분을 나눈다.

대전제 : 인간을 죽이는 것은 // 옳지 않다.

소전제 : ㉠

결론 : 자발적 안락사는 // 옳지 않다.

*//는 그냥 주어부와 술어부를 구분해놓은 것이다.

Step2) 소전제 추론 :

1) 대전제의 주어부를 소전제의 술어부로 넣는다.

대전제 : 인간을 죽이는 것은 // 옳지 않다.

소전제 : // 인간을 죽이는 것

결론 : 자발적 안락사는// 옳지 않다.

2) 결론의 주어부를 소전제의 주어부로 넣는다.

대전제 : 인간을 죽이는 것은 // 옳지 않다.

소전제 : 자발적 안락사는 // 인간을 죽이는 것

결론 : 자발적 안락사는 // 옳지 않다.

따라서 소전제는 '자발적 안락사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2)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추론해보자.(서술어를 부정하면 된다.)

자발적 안락사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 정답 : ⑤

선지 설명

⑤

위 제시문 설명에서처럼 논리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도 되지만, 단순히 '안락사 찬성/반대'로 선지를 나누어도 답이 쉽게 나오기도 한다.

자발적 안락사 찬성 입장(논거)	자발적 안락사 반대 입장(논거)	논점 이탈 (=무관한 선지)
⑤	①, ④	②, ③

자발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거는 오직 ⑤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한편, '**자발적** 안락사'에서 '자발적'은 환자의 요구에 합치하는 안락사라는 의미인데, ②는 반자발적 안락사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논점 이탈이며, ③은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는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므로, 즉,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요구하지 못하고, 비자발적 안락사를 하는 상황이므로, 논점 이탈이다. 한편, ③의 경우 뇌사에 빠지기 전에 미리 자발적 안락사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선지에 정확히 명시된 상황이 아니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애초에 문항의 발문이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다. 정답은 깔끔하게 ⑤이므로,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04

다음은 서양 근대 사상가와의 가상 대담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6평]

칸트

사회자 : 선생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리와 함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때 자율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상가 : 자율성이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옳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선생님은 돈이 필요해 장기 이식을 스스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상가 : 그 행위는 [㉠]

①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우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② 장기 제공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으므로 허용해야 합니다.
③ 장기가 필요한 환자를 살릴 수 있으므로 허용해야 합니다.
④ 장기 제공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⑤ 자연의 섭리에 위배되는 인위적 조작이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서양 근대 사상가는 칸트이다.

> 칸트의 정언 명령 中 인간성 정식
>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하도록 행위하라.

제시문은 '돈이 필요해 장기 이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1) "돈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를 매매해야 한다."라는 가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2) 신체의 매매를 '칸트의 자율성 개념'으로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칸트가 반대할 것이다.

선지 설명

장기 이식 찬성 입장(논거)	장기 이식 반대 입장(논거)
②, ③	①, ④, ⑤

① 칸트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쉬운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②, ③은 찬성 논거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특히 ③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체를 매매해야 한다.'는 가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칸트의 입장과 무관하다.

④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칸트는 '돈을 위해서 신체를 매매'하는 것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자율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⑤ 장기 이식의 반대 논거로 '자연의 섭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칸트의 입장이기보다 자연법 윤리의 입장으로 보아야 한다.

Tip 가언 명령 VS 정언 명령

구분	가언 명령	정언 명령
성격	조건적 명령	무조건적 명령
형식	만일 ~하려면, ~하라.	~하라.
적용 방식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적용
가치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님	행위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가치를 지님

- 정언 명령 :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선(善)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 명령이다.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으로 표현된다.
  → 도덕 명령은 어떠한 조건적 이유가 없는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가언 명령 : 일정한 조건이 붙는 명령으로 "만일 네가 A를 원한다면, 너는 B를 행해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며, 이는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 준칙(準則, maxim) : 도덕 법칙과 구별되는 개인적 행위 규칙으로 '격률'이라고도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5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6평]

갑 : 오늘날 장기 이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을 :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실용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에 심폐사를 죽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갑 : 아닙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람의 인격은 심장이 아니라 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뇌의 명령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존엄한 것입니다. 또한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 판정이 악용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뇌사 인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가?
② 인간의 생명을 유용성에 의해 평가해서는 안 되는가?
③ 뇌사를 인정할 경우 다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④ 인간의 인격은 뇌가 아니라 심장에 의존하는가?
⑤ 심폐사보다 뇌사가 죽음의 기준으로 적절한가?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과 을의 토론 문항에서 읽어내야 할 중요 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을의 첫 번째 진술에서 마지막 문장과 갑의 두 번째 진술이 시작하는 지점이다.

> 을 :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실용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에 심폐사를 죽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 갑 : 아닙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람의 인격은 심장이 아니라 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에서 갑과 을의 주장+논거만 뽑아낸다면, 이 제시문의 핵심을 파악한 것이다.
갑은 '뇌사를 죽음'으로 본다.
을은 '심폐사를 죽음'으로 보며
갑과 을의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갑은 '인격은 뇌에서 비롯됨'
을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

선지 설명

뇌사 인정 찬성 입장(논거)	뇌사 인정 반대 입장(논거)
③, ⑤	①, ②, ④

	갑	을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Tip 제시문 독해 깊게 알아보기

갑과 을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는 제시문은 두 가지 분석의 틀로 정리할 수 있다.
(1) 주장+논거 분석, (2) 논점 분석.

평소에 제시문을 (1), (2)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자.
국어와 영어, 생활과 윤리 등 언어 분석 능력이 필요한 과목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1) 주장+논거 분석〉
갑)
주장 :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논거1 :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논거2 : 사람의 인격은 심장이 아닌 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을)
주장 : 뇌사가 아닌 심폐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논거1 : 생명은 실용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다.
논거2 : 뇌의 명령이 없어도 유지될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논거3 :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 판정이 악용될 수 있다.

〈(2) 논점 분석〉

정답 ⑤ 논점	갑	을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자.	○	×
심폐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자.	×	○
사람의 인격은 뇌에서 비롯된다.	○	○
뇌와 무관하게 사람의 생명 그 자체는 실용적 가치에 앞서는 존엄성을 지닌다.	×	○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9평]

갑 : 몇 해 전 우리나라 법원은 환자가 원한다면 자기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걸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어. 이것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고,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올바른 판결로 봐야 해.

을 : 인간의 생명을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야. 아무리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므로 자기 생명은 자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야.

보 기

ㄱ. 갑 : 개인은 자기 생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ㄴ. 갑 : 안락사 허용은 결과적 이익을 고려한 결정임을 주장한다.
ㄷ. 을 : 생명의 종식 여부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한다.
ㄹ. 을 :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도덕적 행위임을 주장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과 을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는 제시문은 두 가지 분석의 틀로 정리할 수 있다.
(1) 주장+논거 분석, (2) 논점 분석.
평소에 제시문을 (1), (2)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자.
국어와 영어, 생활과 윤리 등 언어 분석 능력이 필요한 과목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주장+논거 분석〉
갑)
주장 :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논거 : ×(제시하지 않음.)
효과 :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을)
주장 :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논거 :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므로, 자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지 설명

ㄱ.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올바른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ㄴ. 다음 페이지의 TIP 확인할 것.
ㄷ. 을은 생명은 선택에 의해 종식될 수 없는 존엄한 것이라고 본다.
ㄹ. 을은 안락사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Tip ㄴ 보기의 중의성 논리적으로 따져보기

ㄴ. 논리적 해설 :
종종 중의성이 있는 선지가 출제되곤 한다.
Think simply. 간단하게 생각하라.
갑의 제시문 표현은 중의적으로 읽힐 수 있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고,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올바른 판결"이라는 표현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 모두 가능하다.

(1) 결과적 이익을 고려하여 판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장 : 해당 판결이 올바른 판결이다.
근거 : 환자의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결과적 이익),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공식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2) 판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인지 or 결과적 이익을 고려하여 판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주장 : 해당 판결이 올바른 판결이다.
영향, 효과(이걸 고려해서 판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 그 판결로 인해서 환자의 가족의 고통이 덜어졌고,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평가원은 (1)의 관점에서 정답을 ④로 발표했으나, 엄밀하게 말해서 (2)의 해석도 가능하므로 ①도 전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실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에는 (1)의 관점을 채택했으므로 사실 관계만 보면 이 문항에 오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사실은 제시문만으로는 추론할 수 없다.
이처럼, 평가원 시험에서도 완성도가 낮은 문항이 종종 출제되기도 한다. 하지만 수능은 평가원보다 더 많은 인력이 오랜 시간을 검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편이다.

How To Solve?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2단계 이상을 뛰어넘는 추론을 하지 말아라'

독해 문제는 평면적으로 보고 풀면 대부분 풀린다. 독해 문제에서 이 단계 이상 추론하여 꼬아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적절한 독해 방식이다.
생명 윤리의 안락사는
쉬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1)은 제시문에 '환자 가족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고'를 보고 '결과적 이익'이네. 하고 넘어가는 (엄밀하지는 못한) 평면적인 독해이고
(2)는 제시문의 내용의 의미를 깊이 있게 추론하여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전제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깊이 있는 추론적 독해이다.

평가원이 출제한 독해 문항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대부분 (1)이다. 제시문 또는 개념적으로 확실한 Clue가 없다면, (2)와 같이 두 단계를 넘어서는 추론은 삼가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7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8학년도 9평]

갑 :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는 〈인위적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과 〈연명치료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두는 것〉이 있다. 전자는 비도덕적인 살인이기에 금지되지만, 후자는 자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을 :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불필요한 고통을 없앤다는 명분으로도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모두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적극적 안락사 / 소극적 안락사

보 기

ㄱ.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뜻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
ㄴ. 안락사가 허용되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 → 을의 입장
ㄷ. 환자가 회생할 가망이 없을 경우 연명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ㄹ.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방법은 허용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주장+논거 분석〉

갑)
주장 :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연명 치료 중단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논거 : 직접적(인위적) 개입과는 달리 연명 치료 중단은 자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
주장 : 불필요한 고통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인간의 생명을 훼손하는 연명 치료 중단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논거 : 연명 치료 중단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훼손하는 일로써 인간 존엄성을 경시하는 행위다.

〈논점 분석〉

	갑	을
논점1 :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연명 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가?	○	×

선지 설명

* 이런 문항은 갑이 긍정하는 바를 근거로 을이 부정하는 바를 지적하는 선지를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논점 분석에서 갑○, 을×인 것)

ㄱ. 갑과 을 모두 적극적 안락사는 부정한다. 참고로 갑이 긍정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가 아닌 소극적인 방식의 연명 치료 중단이다.

ㄴ. 갑은 안락사 중에서 간접적인,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안락사는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ㄴ.은 을이 긍정할 보기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제시할 비판이 될 수 없다.

ㄷ, ㄹ. 두 보기 모두 갑이 긍정할 보기이며, 을이 부정할 보기다.

Tip 안락사 구분 깊게 알아보기

안락사

			동의 능력	동의 여부
환자의 동의 여부	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안락사에 동의함.	○	○
	비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판단 능력을 상실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나 국가의 요구에 의해 시행됨	×	×
	반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살인. 법적·윤리적으로 부당하다.	○	×
시행 방법	적극적 안락사	약물 투여 등과 같은 작위적 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함.		
	소극적 안락사	연명 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함.		

08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9학년도 수능]

심장과 폐가 활동한다 해도, 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상실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로 볼 수 없다. 생명체의 활동에 있어서 뇌가 결정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뇌사자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아 보다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으므로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뇌사의 오판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뇌사판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 기

ㄱ.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ㄴ. 뇌사 판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는가?
~~ㄷ. 뇌사자 장기 이식은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을 저해하는가?~~
~~ㄹ. 심폐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만을 죽음으로 판정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주장 : 심폐가 활동해도 뇌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상실된 경우 그 사람은 사망자다.
논거 : 뇌가 생명체의 활동의 결정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예상 효과 : 뇌사 인정 시 장기 이식을 통해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
예상 반론 : 뇌사 판정을 잘못할 수도 있다.
반론 반박 : 뇌사 판정 위원회를 통해서 뇌사의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선지 설명

ㄱ. 제시문은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ㄴ. 제시문에 따르면, 뇌사 판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절차로 뇌사 판정 위원회가 있다.
ㄷ. 제시문은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사회적 공익을 증진한다고 본다.
ㄹ. 제시문은 심폐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도 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상실된 경우 죽음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본다.

Tip 뇌사 인정 찬반론 깊게 알아보기

뇌사 인정 찬반론

찬성	반대
• 뇌사자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뇌 기능이 정지되면, 인간으로서 고유한 기능이 정지된 것이므로, 곧 심장과 호흡기 등이 정지할 것이고, 이미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것과 같다. • 공리주의적으로 볼 때, 뇌사 인정은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뇌사자의 장기를 통해 다른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므로 윤리적으로 적절하다. • 장기적 연명 치료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의료 기기를 통해 호흡과 심장 박동을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죽음의 단계로 보기 어렵다. • 칸트적으로 보았을 때, 뇌사 인정 및 뇌사자 장기 활용은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한 '뇌사 인정·장기 활용'의 관점은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뇌사 판정에서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9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갑 : 태아는 인간 생명체이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기에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태아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안 되지만, 임신부의 질병 등으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나중에 더 좋은 상황에서 임신하려는 경우라면 임신 중절은 허용됩니다.

을 : 태아가 잠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잠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태아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 기

ㄱ. 갑 :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태아<임신부)

ㄴ. 을 : 태아는 특별한 방해가 없는 한 하나의 인격체로 자랄 것이다. (잠재적 인격체)

ㄷ. 을 : 태아는 합리적 · 자의식적인 존재이기에 해쳐서는 안 된다. (현재는 ×, 미래에 가능)

ㄹ. 갑, 을 : 태아를 단순한 세포 조직처럼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주장+논거 분석

갑)

주장1 : 임신부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더 좋은 상황에서 임신하려는 경우 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한다.

논거1 : 태아는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만을 가진다.

논거1의 논거 : 태아는 인간 생명체이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숨은 전제 : 도덕적 지위는 '인격체'가 가진다.

을)

주장1 : 태아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

논거1 :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논거2 : 잠재성을 지니는 존재를 죽이는 것은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이다.

선지 설명

ㄱ. 제시문에서 갑은 태아가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만을 가지며, 임신부의 결정에 따라 임신 중절을 하여 태아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갑은 낙태에 동의하며, 온전한 도덕적 지위를 가진 임신부의 도덕적 권리를 태아의 도덕적 권리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ㄴ. 제시문에서 을은 태아를 죽이는 것은 곧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을은 '태아는 특별한 방해가 없는 한 하나의 인격체로 자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다.

ㄷ. 을의 제시문에는 분명 태아를 해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가 태아가 가진 1) 잠재성 때문이며, 그러한 잠재성은 2) 태아가 미래에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지에서는 '현재'의 태아가 '합리적 · 자의식적인 존재'라고 설명한다. 즉, 부적절한 선지다. 그런데 45% 학생들이 이 선지를 옳은 선지로 파악했다.

이 선지가 옳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1) 잠재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 잠재성 :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는 성질. [표준국어대사전]

태아가 잠재적 인간이고,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녔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미래에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현재까지는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2)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임신한 여성의 자궁에서 자라나고 있는 태아는 합리적인 존재 혹은 자의식적인 존재가 아니다. 태아는 물론이고, 신생아들을 보고 그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거나,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는 자의식을 지닌 존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생활과 윤리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의 경우 개념이 부족해서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문항들도 있지만, 가끔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들도 많다. 주의할 것.

ㄹ. 갑은 태아도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며, 을은 태아를 잠재적 인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갑과 을 모두 태아를 '단순한 세포 조직'으로 보지 않으며, '함부로 대우'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단순한 흑백 논리로 한 제시문은 태아에 대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한다고 단정하고, 다른 입장은 인정할 것이라고 단편적으로 사고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을 제대로 읽고, 공통점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고해야 한다.

여기서 갑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태아를 함부로 대우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며, 태아의 권리보다 임신부의 권리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1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9평]

갑 : 의사는 질병에 관한 전문 지식을 지니지만 환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그 자녀의 선을 위해 간섭하듯이, 의사도 환자의 선을 위해 온정적으로 간섭해야 합니다.

을 : 물론 전문 지식은 차이가 있고 의학적인 온정적 간섭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갖기 때문에, 그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 자율성 강조

갑 : 환자 역시 인간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치료에 있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의견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의 사명은 질병 치료이니까요. → 자율성 < 의학적 판단

을 : 질병 치료가 의사의 사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건강 이외에도 다른 여러 목적을 갖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보다는 환자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① 질병 치료가 의사의 본질적 사명인가?
② 의사의 온정적 간섭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③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④ 의사와 환자는 의학적 전문 지식에 있어서 비대칭적인가?
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환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가?

정답 ③

제시문 설명

토론의 핵심 쟁점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풀이 방법을 명심하자.

– 유형 풀이 방법 –

핵심 쟁점 독해도 갑과 을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각 논점을 정리하면 된다.

그중에서 갑과 을이 서로 대립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정답 선지로 출제된다.

갑과 을이 큰 사안에서는 동의하나, 세부 사안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세부 사안이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의 중요한 독해 포인트는 주로 을의 첫 번째 진술과 갑의 두 번째 진술에서 나타나는 갑과 을의 의견 대립 부분이다.

ex) '을 : 찬성(동의)합니다. 다만,~', '갑 : 아닙니다.~'

본 문항에서도 같은 부분에서 정답이 도출된다.

을의 첫 번째 진술 : "환자는 …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갑의 두 번째 진술 : "환자는 치료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 의견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 정답 : ③

*상세한 제시문 독해는 TIP에서 확인할 것

선지 설명

① 갑과 을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② 갑과 을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을은 그러한 온정적 간섭이 '치료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자율성, 환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③ 갑은 환자의 자율성보다 의사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을은 의사의 치료보다 환자의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갑과 을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⑤ 갑과 을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Tip 제시문 독해 깊게 알아보기

〈주장+근거 분석〉
갑)
주장 : 장기 기증의 권리는 허용될 수 없다.
근거1 : 인간 몸은 인간 존엄성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근거2 : 그런데, 장기는 몸의 일부이다.
근거3 : 장기 기증의 허용은 장기 매매의 위험을 초래한다.
을)
주장 : 장기 기증의 권리는 허용될 수 있다.
근거1 : 인간 몸 자체와 달리 인간 몸의 부분(장기)의 기증은 존엄성과 무관하다.
근거2 : 인간은 몸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장기를 기증할 결정권을 가진다.
근거3 : 장기를 기증할 자기 결정권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논점 분석〉

	갑	을
논점1 : 의사는 환자보다 더 많은 의학적 지식을 지니고 있는가?	○	○
논점2 : 의사는 환자의 선을 위해 부권적으로(부모님과 같이), 온정적으로 간섭해야 하는가?	○	×
논점3 : 의사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자신의 의학적 판단보다 우선하여 존중해야 하는가?	×	○
논점4 : 의사의 사명은 질병 치료인가?	○	○

▶ 토론 유형 제시문의 논점을 정리해보면 갑과 을이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논점 1, 4 같이)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논점 2, 3 같이)이 있다.
▶ 그 중에서 '핵심 쟁점'이란, 갑과 을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 위 논점 분석에서 논점 2, 3이 바로 그러한 '핵심 쟁점'이다.
▶ 정답은 ③(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

11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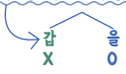
갑 : 몸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장기 기증의 권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장기는 몸의 부분이고 몸은 인간 존엄성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을 : 몸은 인간 존엄성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돼야 합니다. 몸 자체와 달리 몸의 부분은 자발적으로 기증하면 존엄성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갑 : 전체도 부분으로 이루어지므로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의 이식은 존엄성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기증의 허용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을 : 물론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몸의 소유권은 장기를 기증할 자기 결정권을 당연히 함의합니다. 이러한 자기 결정권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①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② 장기 매매는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③ 개인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가?
④ 몸 자체는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토대인가?
⑤ 개인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자유를 지니는가?



정답 ⑤

제시문 설명

토론의 핵심 쟁점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풀이 방법을 명심하라.

– 유형 풀이 방법 –

핵심 쟁점 독해도 갑과 을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각 논점을 정리하면 된다.

그중에서 갑과 을이 서로 대립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정답 선지로 출제된다.

갑과 을이 큰 사안에서는 동의하나, 세부 사안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세부 사안이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의 중요한 독해 포인트는 주로 을의 첫 번째 진술과 갑의 두 번째 진술에서 나타나는 갑과 을의 의견 대립 부분이다.

ex) '을 : 찬성(동의)합니다. 다만,~', '갑 : 아닙니다.~'

본 문항에서도 같은 부분에서 정답이 도출된다.

을의 첫 번째 진술 : "몸의 부분은 자발적으로 기증하면 존엄성에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갑의 두 번째 진술 :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 이식은 존엄성에 영향을 줍니다."=> 정답 : ⑤

cf) 2020학년도 수능의 경우 위 포인트만으로 답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포인트가 중요한 지점인 것은 동일하다.

*상세한 제시문 독해는 TIP에서 확인할 것

선지 설명

① 갑과 을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갑의 입장에서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나 기증이나 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을은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자기 결정권에 따라 기증 여부를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 갑과 을 모두 거부하는 바이다.
③ 갑과 을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④ 갑과 을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⑤ 갑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권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을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자기 결정권을 지닌다고 본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Tip 제시문 독해 깊게 알아보기

〈주장+근거 분석〉
갑)
주장 : 의사는 환자의 선을 위해 온정적으로 간섭해야 한다.
근거 : 의사는 환자와 달리 질병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기 때문이다.

을)
주장 : 의사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근거1 :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이다.
근거2 : 환자는 의료적 목적(질병 치료) 이외에도 다른 목적들을 갖기 때문에, 환자의 판단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논점 분석〉

	갑	을
논점1 : 인간은 자기 몸의 소유권을 지니는가?	○	○
논점2 : 인간은 장기 기증의 권리를 지니는가? 출제된 핵심 쟁점 => 정답 : ⑤	×	○
논점3 : 인간의 존엄성은 몸 자체에서 나오는가?	○	○
논점4 : 몸의 일부(장기)도 인간의 존엄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가? 핵심 쟁점	○	×
논점5 : 몸의 일부(장기)를 기증할 경우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는가?	○	×
논점6 : 장기 매매는 허용될 수 있는가?	×	×
논점7 :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	○

▶ 2020학년도 수능의 경우 갑과 을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다양했다. 논점 2가 ⑤로 출제 되었다.

2단원 02 생명 윤리

❶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01

(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내릴 도덕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6평]

목적론적 관점

(가) 모든 사물에는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도토리의 목적이 나무가 되는 것이라면, 도토리는 한 그루의 나무와 다름없다.

가능태 → 현실태 (아리스토텔레스)

→ 배아 또한 인간과 다름없다.

〈문제 상황〉

최근 난치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배아가 파괴되거나, 실험이 완료된 후에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① 배아는 인간이 될 존재이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지 않다.
② 과학 발전을 위한 순수한 연구이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다.
③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다.
④ 배아는 진정한 생명권을 갖지 않으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다.
⑤ 배아 기증자를 수단으로 취급하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지 않다.

논점 이탈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관점으로 배아 대상 실험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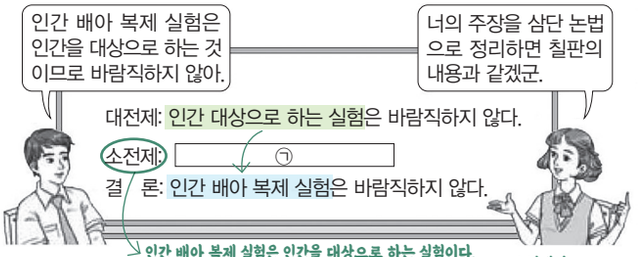
선지 설명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시문에서, 모든 사물은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잠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배아 또한 '인간이 됨'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힘을 잠재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②, ③, ④ 배아 실험이 '정당하다'고 보는 관점으로 제시문의 입장과 다르다.
⑤ 제시문은 잠재된 것 즉 '배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문제 상황〉에서도 배아의 파괴를 논하고 있다. 따라서 '배아 기증자의 수단화 비판'은 제시문과 〈문제 상황〉의 논점을 이탈한 주장이다.

02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9평]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다.

소전제의 입장

① 인간 배아는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② 출생하기 이전의 어떤 존재도 인간으로 볼 수 없다.
③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
④ 인간 배아는 잠재적인 인간이므로 인간의 범주에 포함된다.
⑤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에 속한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이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 대전제와 결론을 활용하여 소전제를 찾고 2) 그 소전제의 반론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삼단논법 유형의 문항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식을 알면 (대전제와 결론은 물론) 소전제를 알아내는 것은 간단하다.

1) 먼저, 소전제를 찾아보자. (아래 표가 바로 그 공식이다!)

	주어	술어
대전제	A	B
소전제	C′	A′
결론	C	B′

Step 1. 대전제와 결론의 주어 부분과 술어 부분을 나눈다.
공식 : 대전제의 주어(A)는 소전제의 술어(A′)와 같으며, 결론의 주어(C)는 소전제의 주어(C′)와 같다. 그리고, 대전제의 술어(B)와 결론의 술어(B′)가 같다.

	주어	술어
대전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전제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다.
결론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Step 2. 대전제의 주어를 소전제의 술어부에 넣고, 결론의 주어를 소전제의 주어부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바로 소전제가 도출된다. 즉, 소전제 ㉠은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다."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추론하자.

Step 1. 소전제의 서술어를 부정해보라. 그것이 바로 소전제에 대한 반론이다. 따라서, 소전제 ㉠의 반론은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다."이다.

선지 설명

배아 복제 실험 찬성론	배아 복제 실험 반대론
②	①, ③, ④, ⑤

② 선지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라는 것을 부정하므로 ㉠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다.

Tip 배아 복제 찬반론 깊게 알아보기

인간 복제 찬반론 이해

배아 복제	찬성	복제 배아는 인간 개체가 될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즉, 배아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므로 복제 과정에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대	• 복제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태아로 자라 아이로 태어나는 연속적인 과정에 있으므로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아에 대한 연구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 실험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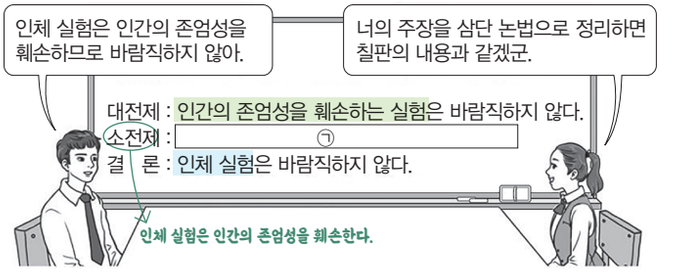
배아 복제 반대 논거

- 종의 구성원 논거 : 배아는 인간 종(種)에 속하며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 잠재성 논거 : 배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다.
- 동일성 논거 : 배아는 도덕적 존중의 기초가 되는 속성을 인간과 동일하게 가진다.
- 연속성 논거 : 배아는 선명한 경계선이 없는 연속적인 인간 발달의 과정에 있다.

03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① 인체 실험의 부정적 결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 초래된다.
②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인체 실험은 인격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동물 실험 결과만으로 신약 후보 물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 인체 실험의 필요성 부정 ⇒ 인체 실험 반대
④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이다.
⑤ 인간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선지 설명에 표로 제시된 소전제 추론법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 손글씨 예시를 보세요!
----- 예시 -----
대전제 : A → B
소전제 : ? → ?
결론 : C → B

이때,

소전제를 추론하는 방법은

결론의 C를 소전제의 주어부로 설정하고
대전제의 A를 소전제의 술어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전제와 결론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소전제가 기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대전제 : 현들러는 인간이다.
소전제 :
결론 : 임민수는 인간이다.

이때 소전제는

임민수는 현들러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전제가 존재해야만이
대전제와 결론 사이의 연결고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이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 대전제와 결론을 활용하여 소전제를 찾고 2) 그 소전제의 반론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삼단논법 유형의 문항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식을 알면 (대전제와 결론은 물론) 소전제를 알아내는 것은 간단하다.

1) 먼저, 소전제를 찾아보자. (아래 표가 바로 그 공식이다!)

	주어	술어
대전제	A	B
소전제	C′	A′
결론	C	B′

Step 1. 대전제와 결론의 주어 부분과 술어 부분을 나눈다.

공식 : 대전제의 주어(A)는 소전제의 술어(A′)와 같으며, 결론의 주어(C)는 소전제의 주어(C′)와 같다. 그리고, 대전제의 술어(B)와 결론의 술어(B′)가 같다.

	주어	술어
대전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전제	인체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다.
결론	인체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Step 2. 대전제의 주어를 소전제의 술어부에 넣고, 결론의 주어를 소전제의 주어부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바로 소전제가 도출된다. 즉, 소전제 ㉠은 '인체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다.'이다.

2)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추론하자.

Step 1. 소전제의 서술어를 부정해보라. 그것이 바로 소전제에 대한 반론이다. 따라서, 소전제 ㉠의 반론은 '인체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 아니다.'이다.

3) 반론의 근거 찾기

선지에서 '인체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 아니다.'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찾으면 끝이다! '근거'라고 해도 거창할 건 없다. 선지들을 단순하게 '인체 실험 찬성/반대 관련 내용' or '관계없는 선지'로 보고, '인체 실험 찬성'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으면 된다.

선지 설명

인체 실험 찬성론	인체 실험 반대론
②	①, ③, ④, ⑤

04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9평]

갑, 을의 공통 의견

갑 :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은 물론이고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 유전자 개량 위한 유전자 조작 찬성

을 :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유전자 개량 위한 유전자 조작 반대

갑 :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 개량된 능력을 갖고 태어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어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생학적 조치를 통해 미래 세대가 동의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기획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갑	을
① 유전자에 대한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도 금지되어야 하는가?	×	×
②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가?	O	×
③ 부모는 유전자 개량을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을 기획해야 하는가?	-	×
④ 미래 세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우생학적 조치를 허용해야 하는가?	O	×
⑤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량된 미래 세대는 자유를 박탈당하는가?	×	O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유전자 개량에서의 부모의 권리에 대한 논쟁 이해

본 교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듯,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 유형 풀이 방법 –

핵심 쟁점 독해도 갑과 을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각 논점을 정리하면 된다.

그중에서 갑과 을이 서로 대립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정답 선지로 출제된다.

갑과 을이 큰 사안에서는 동의하나, 세부 사안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세부 사안이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의 중요한 독해 포인트는 주로 을의 첫 번째 진술과 갑의 두 번째 진술에서 나타나는 갑과 을의 의견 대립 부분이다.

ex) '을 : 찬성(동의)합니다. 다만,~', '갑 : 아닙니다.~'

본 문항에서도 같은 부분에서 정답이 도출된다.

을의 첫 번째 진술 :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갑의 두 번째 진술 :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 개량된 능력을 갖고 태어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어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정답 : ⑤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량된 미래 세대는 자유를 박탈당하는가?

*상세한 제시문 독해는 TIP에서 확인할 것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선지 설명

	갑	을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논점1) 갑과 을 모두 '치료 목적의 의학적 유전자 간섭'을 허용한다.

② (논점2) 을은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선택하는 것은 자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③ (논점3) 을은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선택하는 것은 자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갑은 부모가 자녀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지만 유전자 개량을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을 기획'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애매하다. 다만 을이 확실히 X이므로 을을 보고 풀면 된다.

④ (논점3) 갑은 미래 세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전자 간섭이 미래 세대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긍정한다. 그러나 을은 우생학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유전자 간섭을 비판한다.

⑤ (논점3) 갑은 미래 세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전자 간섭이 미래 세대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긍정한다. 반면, 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미래 세대가 어떤 삶을 살도록 정해놓는 것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Tip 제시문 독해 깊게 알아보기

〈주장+근거 분석〉

갑)

주장 : 자녀를 대상으로 한 치료 목적 및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을 허용해야 한다.(=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근거 :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량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을)

주장 : 자녀를 대상으로 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만 허용되며,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거1 : 우생학적 조치(=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류 개량)는 미래 세대가 동의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기획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논점 분석〉

	갑	을
논점1 :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 허용 여부	○	○
논점2 : '유전자 개선' 목적 유전자 조작 허용 여부	○	×
논점3 : '유전자 개선'이 미래 세대에게 자유를 보장하는지 여부	○	×

05

다음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수능]

치료 목적이 아닌 유전자 개입은 문제적이다.

유전자 조작의 허용에 대한 논쟁에서 그동안 간과한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닌 의도적인 유전자 개입이 인간을 도구화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입니다.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하듯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렇게 통제되어 태어날 인격체는 다른 자율적 인격체와 달리 원초적으로 동등하지 못한 채로 공론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우생학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 하버마스

① 유전자 조작의 문제점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②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③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은 잠재적 담론자의 평등을 제한한다.
④ 적극적 우생학은 인간관계를 기계적 인과관계로 왜곡시킨다.
⑤ 적극적 우생학을 위한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주장1 : 치료 목적이 아닌 유전자 개입(=적극적 우생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근거1 : 치료 목적이 아닌 유전자 개입은 인간을 도구화하기 때문이다.
근거2 : 치료 목적이 아닌 유전자 개입은 인간의 자율적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이다.
근거2 보충 : 치료 목적이 아닌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태어난 인격체는 다른 자율적 인격체와 동등하지 못한 존재로 공론장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선지 설명

①, ③, ④, ⑤ 하버마스의 입장으로 타당하다. 각 선지의 내용을 체크하고 넘어갈 것.
② 제시문의 강연자는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에 반대한다. 그러나 선지 ②의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이란 '치료 목적 이외의 유전자 개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합리성'이므로, 제시문의 강연자가 지지하지 않을 주장이다. 오히려 제시문의 강연자(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전자 조작에 대한 담론 윤리의 입장 깊게 알아보기

유전자 조작의 허용에 대한 논쟁에서 그동안 간과한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닌 의도적인 유전자 개입이 인간을 도구화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입니다.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하듯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렇게 통제되어 태어날 인격체는 다른 자율적 인격체와 달리 원초적으로 동등하지 못한 채로 공론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우생학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기출 선지로 출제되었다.

*적극적 우생학 :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형질을 초래하는 유전자의 증가를 일으키는 우생학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6평]

갑, 을 모두 찬성

갑 : 임상 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을이 주장하는 예외

을 : 찬성합니다. 다만 어린이는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갑은 어린이도 임상 시험의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봄

갑 : 아닙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대리 동의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 시험에서는 피험자 자신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대리 동의는 단지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갑 ○, 을 ×

① 임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 동의를 인정해야 하는가?

② 난치병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가?

③ 임상 시험은 사회적 효용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주제에서 벗어남

④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상 시험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갑이 논의한 의견이 아님

⑤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갑 ○, 을 ○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어린이 대상 임상 실험에서 부모님의 권한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다.

토론의 핵심 쟁점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풀이 방법을 명심하자.

– 유형 풀이 방법 –

핵심 쟁점 독해도 갑과 을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각 논점을 정리하면 된다.

그중에서 갑과 을이 서로 대립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정답 선지로 출제된다.

갑과 을이 큰 사안에서는 동의하나, 세부 사안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세부 사안이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의 중요한 독해 포인트는 주로 을의 첫 번째 진술과 갑의 두 번째 진술에서 나타나는 갑과 을의 의견 대립 부분이다.

ex) '을 : 찬성(동의)합니다. 다만,~', '갑 : 아닙니다.~'

본 문항에서도 같은 부분에서 정답이 도출된다.

을의 첫 번째 진술 : 찬성합니다. 다만 어린이는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갑의 두 번째 진술 : 아닙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대리 동의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 부모가 어린이 대상 임상 실험을 대리 동의할 수 있는가? → ①

선지 설명

① 을은 "어린이는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임상 실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에서, 갑은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대리 동의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에서 갑과 을의 핵심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갑은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을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란 갑과 을이 토론을 하면서 논하는 중심이 되는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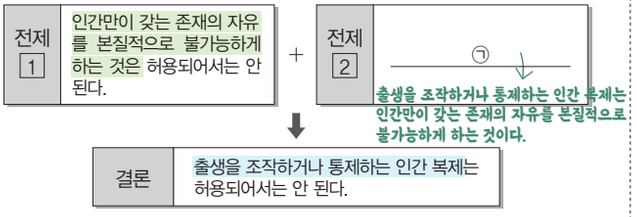
③ 토론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

④ 을은 마지막에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대리 동의에 근거한 임상 실험을 부당하다고 말했지만 갑은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⑤ 둘 다 동의할 질문이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오히려 갑과 을이 하는 토론의 기본 전제로 볼 수 있다.

07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9평]

(가)	생물학적 출발 조건인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① 복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기획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반대 논거
② 자연 발생적 출생만이 인간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반대 논거
③ 복제 인간은 자연 발생적 인간과 동등한 존재의 자유를 갖는다. 찬성 논거
④ 개인의 자유보다 복제 인간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행복이 중요하다. 논점 이탈
⑤ 인간 복제로 인해 인간 상호 관계는 지배 종속 관계로 전락할 것이다. 반대 논거

정답 ③

제시문 설명

1) 먼저, 소전제를 찾아보자.

Step 1. 대전제와 결론의 주어 부분과 술어 부분을 나눈다.

	주어	술어
대전제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소전제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Step 2. 대전제의 주어를 소전제의 술어부에 넣고, 결론의 주어를 소전제의 주어부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바로 소전제가 도출된다. 즉, 소전제 ㉠은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이다.

2)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추론하자.

Step 1. 소전제의 서술어를 부정해보라. 그것이 바로 소전제에 대한 반론이다. 따라서, 소전제 ㉠의 반론은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가능하게 한다).'이다.

3) 반론의 근거 찾기

선지에서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가능하게 한다).'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찾으면 끝이다! '근거'라고 해도 거창할 건 없다. 선지들을 단순하게 '인간 복제 찬성/반대 관련 내용' or '관계없는 선지'로 보고, '인간 복제 찬성'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으면 된다.

선지 설명

위 제시문 설명에서처럼 논리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도 되지만, 단순히 '찬성/반대'로 선지를 나누어도 답이 쉽게 나오기도 한다.

인간 복제 찬성 입장	인간 복제 반대 입장	무관한 내용
③	①, ②, ⑤	④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8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수능]

(가)	인위적으로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동물을 만들어 내는 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대전제: 종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소전제: ㉠ (㉠: 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 결 론: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① 동물 복제는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동물을 생산한다. (사실 판단)
② 동물 복제는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③ 동물 복제는 인위적 유전자 조작으로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복제 찬성)
④ 동물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간 복제로 진행된다. (복제 반대)
⑤ 동물 복제는 인간의 권익을 위한 특정 종만으로 생태계를 재편한다. (복제 반대)

정답 ②

제시문 설명

1) 먼저, 소전제를 찾아보자.

	주어	술어
대전제	종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소전제	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결론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소전제 ㉠은 '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이다.

2)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추론하자.

Step 1. 소전제의 서술어를 부정해보라. 그것이 바로 소전제에 대한 반론이다. 따라서, 소전제 ㉠의 반론은 '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다.'이다.

3) 반론의 근거 찾기

선지에서 '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다.'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찾으면 끝이다! '근거'라고 해도 거창할 건 없다. 선지들을 단순하게 '동물 복제 찬성/반대 관련 내용' or '관계없는 선지'로 보고, '동물 복제 찬성'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으면 된다.

선지 설명

위 제시문 설명에서처럼 논리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도 되지만, 단순히 '동물 복제 찬성/반대'로 선지를 나누어도 답이 쉽게 나오기도 한다.

동물 복제 찬성	동물 복제 반대	사실 판단
②	③, ④, ⑤	①

09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8학년도 6평]

갑 :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병'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앎은 미래의 유전 질환에 대한 불안, 공포 등의 해악만 야기할 뿐입니다. 따라서 해악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모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을 :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앎은 미래의 유전 질환을 감안하여 스스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 기

ㄱ. 갑 : 자기유전 정보를 알아야 불필요한 해악을 막을 수 있다.
ㄴ. 갑 : 자기유전 정보에 대한 무지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ㄷ. 을 : 자기유전 정보를 알아야 자율적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
ㄹ. 갑, 을 : 미래의 불가피한 유전 질환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주장+근거 분석〉

갑)
주장 : 환자는 유전 정보를 모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논거1 : 환자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알게 되면 미래의 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 등 해악을 입을 것이다.
논거2 : 의료인은 해악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환자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모르게 해야 한다.

을)
주장 : 환자는 유전 정보를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논거1 : 환자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앎으로써 미래의 삶을 더 잘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논거2 : 의료인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환자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논점 분석〉

	갑	을
논점1 : 환자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알 경우 환자에게 해로운가?	○	×
논점2 : 환자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알 권리를 지니는가?	×. 모를 권리를 지닌다	○
논점3 : 의료인은 환자가 그의 유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가?	×. 해악 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선지 설명

ㄱ. 갑은 환자가 자기 유전 정보를 알 경우 불안과 공포 등의 해악만 겪을 뿐이라고 본다.

ㄴ. 갑은 환자가 자기 유전 정보를 모를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ㄷ. 을은 환자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알 경우 미래의 유전 질환을 감안하여 스스로의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을은 그것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ㄹ. 갑은 동의하지만, 을은 반대한다. 을은 미래의 유전 질환을 환자가 알아야 스스로의 삶의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다고 본다.

1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9평]

갑 :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는 크게 체세포 치료와 생식선 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만이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을 : 동의합니다. 다만 체세포 치료는 환자 개인의 신체 세포에 영향을 주므로 허용되지만, 생식선 치료는 개인은 물론 후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갑 : 아닙니다. 그러한 체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선 치료까지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후세대로 이어져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생식선 치료는 변경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질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갑	을
① 생식선 치료가 유전자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	○
②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가?	○	○
③ 생식선 치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가?	○	○
④ 유전적 질병의 치료를 위해 〈생식선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	×
⑤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	○

정답 ④

제시문 설명

토론의 핵심 쟁점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풀이 방법을 명심하자.

– 유형 풀이 방법 –

핵심 쟁점 독해도 갑과 을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각 논점을 정리하면 된다.

그중에서 갑과 을이 서로 대립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정답 선지로 출제된다.

갑과 을이 큰 사안에서는 동의하나, 세부 사안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세부 사안이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의 중요한 독해 포인트는 주로 을의 첫 번째 진술과 갑의 두 번째 진술에서 나타나는 갑과 을의 의견 대립 부분이다.

ex) '을 : 찬성(동의)합니다. 다만,~', '갑 : 아닙니다.~'

본 문항에서도 같은 부분에서 정답이 도출된다.

을의 첫 번째 진술 : "동의합니다. 다만 … 생식선 치료는 개인은 물론 후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갑의 두 번째 진술 : "아닙니다. 그러한 체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선 치료까지 허용해야 합니다."

▶ 생식선 치료 허용 여부의 찬반론 → 정답 : ④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선지 설명

	갑	을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Tip 제시문 독해 깊게 알아보기

〈주장+근거 분석〉
갑)
주장 :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생식선 치료는 허용되어야 한다.
논거 : 생식선 치료를 통해 후세대의 예상 유전적 질병을 방지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
을)
동의(공통 전제) : 1) 유전자 치료는 크게 체세포 치료와 생식선 치료로 구분된다.
2) 유전자 치료만이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다.
주장 :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생식선 치료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논거1 : 생식선 치료는 후세대의 유전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논거2 : 생식선 치료로 인해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된다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논점 분석〉

논점	갑	을
논점1 : 유전자 치료만이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	○
논점2 : 체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선 치료도 허용되어야 하는가?	○. 갑은 생식선 치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 을은 체세포 치료만이 허용되어야 하고, 생식선 치료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논점3 : 생식선 치료는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가?	×. 갑은 생식선 치료를 통해 후세대의 예상 유전적 질병을 방지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을은 생식선 치료를 통해 후세대의 유전자를 임의로 변형한다면, 미래 세대의 변형되지 않을 유전자를 가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로 인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11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평]

갑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질병 극복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을 :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넘어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 치료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우생학은 부당하지만 개인 차원은 다릅니다. 외모에 대해 성형의 자유를 지니듯이,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질을 강화 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닙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고비용 의술로 특정 계층만이 이용 가능해 생물학적 불평등을 낳고,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갑	을
①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O	O
②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선을 산출할 수 있는가?	O	O
③ 국가는 치료를 넘어선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을 해도 되는가?	×	×
④ 유전자 조작 기술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	×
⑤ 자질 강화를 위한 개인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O	×

정답 ⑤

제시문 설명

토론의 핵심 쟁점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풀이 방법을 명심하자.

– 유형 풀이 방법 –

핵심 쟁점 독해도 갑과 을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각 논점을 정리하면 된다.

그중에서 갑과 을이 서로 대립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정답 선지로 출제된다.

갑과 을이 큰 사안에서는 동의하나, 세부 사안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세부 사안이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의 중요한 독해 포인트는 주로 을의 첫 번째 진술과 갑의 두 번째 진술에서 나타나는 갑과 을의 의견 대립 부분이다.

ex) '을 : 찬성(동의)합니다. 다만,~', '갑 : 아닙니다.~'

본 문항에서도 같은 부분에서 정답이 도출된다.

을의 첫 번째 진술 : 하지만 치료를 넘어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의 두 번째 진술 : 치료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우생학은 부당하지만 개인 차원은 다릅니다. 외모에 대해 성형의 자유를 지니듯이,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닙니다.

▶ 치료를 넘어선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 허용 여부 → ⑤

선지 설명

① 갑과 을 모두 동의한다.(논점1)

② 갑과 을 모두 유전자 조작을 통한 질병 극복은 선이라고 본다.

③ 갑과 을은 모두 국가 차원의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에 반대한다. (논점2)

④ 갑과 을은 모두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 기술을 긍정한다.

⑤ 논점3, 갑은 긍정하고 을이 부정하는 핵심 쟁점이다.

*여기서 논점은 하단의 제시문 깊게 알아보기 참고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Tip 제시문 독해 깊게 알아보기

〈주장+근거 분석〉
갑)
주장1 :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한 질병 극복은 허용되어야 한다.
논거1 : 질병 극복은 선이기 때문이다.
주장2 : 개인 차원의 치료를 넘어선 우생학은 정당하다.
논거2 : 개인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기 때문이다.

을)
동의(공통 전제) : 인간 대상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한 질병의 치료, 질병의 극복은 선이다.
주장1(공통 전제) : 치료가 아닌 우생학적 목적의 국가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부당하다.
논거1 :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장2 : 개인적인 유전자 조작도 부당하다.
논거2 : 의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생물학적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논점 분석〉

논점	갑	을
논점1 :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한 질병 극복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
논점2 : 국가 차원의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
논점3 : 개인 차원의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

12

다음 가상 대담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질문자 : 배아에 대한 유전자 조작이 논란거리입니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치료가 아닌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수단화하기에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 ①, ③

사상가 : 예, 정상적인 능력을 더 강화하는 유전학적 개입은 일방적인 것이기에 세대 간의 평등성을 훼손하며, 그 존재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④, ⑤

질문자 : 유전학적 강화로 태어난 인간은 부모 세대의 일방적인 결정과 당사자의 동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삶에 부당한 간섭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상가 : 맞습니다. 유전학적 강화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기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만장일치 추구, ②

① 자녀의 능력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도구화한다.
② 유전학적 치료에 대해서는 담론을 통한 보편적 합의가 가능하다.
③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전학적 개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④ 유전학적 강화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온전한 자율성을 지닐 수 없다.
⑤ 자질 강화를 위한 배아 유전자 조작은 세대 간의 ~~균형을 훼손시킨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주장 : 치료가 아닌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옳지 않다.
근거 1 : 치료가 아닌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2 : 치료가 아닌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세대 간의 평등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근거 3 : 치료가 아닌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그 존재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4 : 치료가 아닌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의사소통 합리성의 확보된 상황에서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 설명

① "치료가 아닌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수단화하기에 옳지 않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의 수단화'가 곧 '인간의 도구화'이다.
②, ③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아니지만, '치료가 아닌 유전학적 개입'을 비판하며, '치료'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만 ②는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에서, ③은 "치료가 아닌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수단화하기에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에서 정답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문제를 풀 때, 이런 불명확한 선지를 만난다면 우선 pass 하고, 다른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④ 제시문에서는 "정상적인 능력을 더 강화하는 유전학적 개입은 일방적인 것이기에 세대 간의 평등성을 훼손하며, 그 존재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 제시문에서는 "정상적인 능력을 더 강화하는 유전학적 개입은 일방적인 것이기에 세대 간의 평등성을 훼손하며, 그 존재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등성을 훼손'한다는 의미는 '균형을 훼손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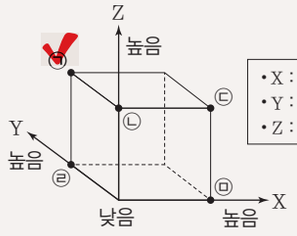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3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2021학년도 9평]

(가)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미래 자녀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되므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될 수 없다. 자녀가 동의하지 않은 자질 강화를 통해 부모가 선택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나)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뿐만 아니라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출산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미래 자녀의 동의를 추정할 수 없더라도 부모의 선택은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없다.



- X : 미래 자녀의 동의를 중시하는 정도 (가) > (나)
- Y : 유전자 조작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도 (가) < (나)
- Z :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도 (가) < (나)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가)는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지만 자질 강화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자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근거로 반대한다. 그에 반해 (나)는 부모가 선택의 자유를 지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질 강화 목적의 유전자 조작도 찬성한다.

선지 설명

X : (가)>(나), 제시문 (나)에서 '미래 자녀의 동의를 추정할 수 없더라도'라는 문구로 미루어 보아 (나)는 미래 자녀의 동의를 (가)보다 덜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 조건문 X는 '낮음'의 특징을 지닌다.

Y : (가)<(나), 제시문 (나)에서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뿐만 아니라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미루어 보아, (나)는 자질 강화 목적의 유전자 조작을 제한하는 (가)보다 유전자 조작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 조건문 Y는 '높음'의 특징을 지닌다.

Z : (가)<(나), 제시문 (나)에서 '부모는 자녀의 출산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로 미루어 보아, 자녀의 동의를 우선시하는 (가)보다 (나)가 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 조건문 Z는 '높음'의 특징을 지닌다.

Tip 3차원 그래프 유형 독해법

3차원 그래프 유형 독해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편하다. 위의 6평 4번 문제를 예로 들자면, 먼저 X를 판단했을 때 '낮음'이 나오므로 X가 '높음'으로 되어있는 ㉢과 ㉤을 소거한다. 그 다음 Y를 판단했을 때는 '높음'이 나오므로 남은 ㉠, ㉡, ㉣중에서 Y가 '낮음'으로 되어있는 ㉡을 소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Z를 판단했을 때는 '높음'으로 나오므로 남은 ㉠, ㉣ 중 Z가 '낮음'으로 되어있는 ㉣을 소거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뿐이므로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14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

갑 : 유전적 결함이 있는 환자는 유전자 교정 기술의 혜택으로 자신과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기술의 활용은 개인의 유전자 선호에 달려 있다. 인류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유전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

을 :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인류는 생명체를 지적(知的)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유전자의 좋고 나쁨을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정은 좋은 것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유전자가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갑	을	
○	○	①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의 정체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
○	○	② 유전자 교정 기술에 의해 생명체의 능력이 강화될 수 있는가?
×	○	③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 개인의 유전자 선택을 금지해야 하는가?
-	○	④ 유전자 교정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윤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	×	⑤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 인간이 유전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가?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갑, 을 모두 긍정할 입장이다. 갑은 유전자 교정 기술이 인간의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을은 제시문의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유전자 교정 기술이 인간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을 주장한다.

② 갑, 을 모두 긍정할 입장이다. 다만 을은 생명체의 능력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

③ 갑이 부정하고 을이 긍정할 입장이다. 갑은 기본적으로 유전자 교정 기술을 찬성하고 을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닌다.

④ 을이 긍정할 입장이다. 을의 "유전자 교정 기술이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유전자가 어떻게 적응할지 알 수 없다."에서 곧바로 추론되지는 않으나, 유전자 교정 기술이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점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유전자 교정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갑은 유전자 교정 기술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을의 입장에서 ○라는 것으로 풀면 된다.

⑤ 갑은 개인의 유전자 선호에 따라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을은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 인간이 유전자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단원 02 생명 윤리

❷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01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수능]

갑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며,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정당합니다.

을 : 저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의 모든 전제에 대해 찬성하지만 결론에는 반대합니다. 논증에 등장하는 '동물'을 모두 '인간'으로 바꿔 보세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을 이용하면 인간 실험마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갑 : 인간 실험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판은 동물도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는 선결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을 : 인간은 물론 동물도 삶의 주체이므로 기본적 권리를 갖습니다. 인간 실험과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도 부당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단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갑	을
①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	○	○
② 동물 실험의 대안 중 확실한 것이 존재하는가?	×	×
③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 권리를 갖는가?	×	×
④ 인간 실험과 달리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	○	×
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가?	○	○

정답 ④

제시문 설명

토론의 핵심 쟁점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풀이 방법을 명심하자.

– 유형 풀이 방법 –

핵심 쟁점 독해도 갑과 을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각 논점을 정리하면 된다.

그중에서 갑과 을이 서로 대립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정답 선지로 출제된다.

갑과 을이 큰 사안에서는 동의하나, 세부 사안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세부 사안이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의 중요한 독해 포인트는 주로 을의 첫 번째 진술과 갑의 두 번째 진술에서 나타나는 갑과 을의 의견 대립 부분이다.
ex) '을 : 찬성(동의)합니다. 다만,~', '갑 : 아닙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본 문항에서도 같은 부분에서 정답이 도출된다.

을의 첫 번째 진술 : "당신이 제시한 논증을 이용하면 인간 실험마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갑의 두 번째 진술 : "인간 실험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 갑과 을은 동물 실험의 정당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다.
→ 정답은 ④

*상세한 제시문 독해는 TIP에서 확인할 것

선지 설명

① 갑과 을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② 갑이 '동물 실험의 대안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을도 그 전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③ 갑과 을 모두 인간이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④ 갑과 을은 모두 인간 실험은 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갑은 인간 실험과 달리 동물 실험은 정당하다고 보는 반면, 을은 인간 실험과 동물 실험 둘 다 부당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⑤ 갑이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며'라고 말했는데, 을도 그 전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Tip 제시문 독해 깊게 알아보기

〈주장+근거 분석〉

갑)
주장1 : 동물 실험은 정당하다.
논거1 :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므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하다.
논거1-2 :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이 없다.

주장2 : 인간 실험은 부당하다.
논거2 : 인간은 기본적 권리를 갖지만, 동물은 기본적 권리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을)
동의(공통 전제) :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며,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은 없다.
주장1 : 동물 실험은 부당하다.
논거1 : 동물 실험을 인정하는 논거는 인간 실험의 인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주장2 : 인간 실험과 동물 실험 모두 부당하다.
논거2 : 동물도 삶의 주체이므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논점 분석〉

논점	갑	을
논점1 :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	○	×
논점2 : 인간 실험은 정당한가?	×	×
논점3 : 인간은 기본적 권리를 갖는가?	○	○
논점4 : 동물은 기본적 권리를 갖는가?	×	○

0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1학년도 6평]

갑 :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한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동물 복제는 멸종 동물의 복원과 희귀 동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식량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을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복제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일'로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갑 :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을 : 인간 배아는 성인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 복제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갑	을
① 동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
②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	○
③ 동물 복제는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기여하는가?	○	○
④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
⑤ 인간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

정답 ④

선지 설명

① 동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갑 :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한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 을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갑, 을 모두 동의하므로 쟁점이 아니다.

②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 을 : 인간 복제는 (생략)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갑 :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지만,

→ 갑, 을 모두 긍정하므로 쟁점이 아니다.

③ 동물 복제는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기여하는가?

> 갑 : 동물 복제는 멸종 동물의 복원과 희귀 동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식량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을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갑, 을 모두 동의하므로 쟁점이 아니다.

④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갑 :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허용됩니다.)
> 을 : 인간 배아 복제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갑은 동의하고, 을은 부정한다. 따라서 이 입장이 핵심 쟁점이다.

⑤ 인간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갑 :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을 : 인간 배아는 성인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 갑, 을 모두 부정하므로 쟁점이 아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단원 O3 사랑과 성 윤리

❶ 사랑과 성의 관계

0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6평]

갑 : 성(性)을 이윤 추구에 이용하는 것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을 : 성적인 이미지를 이용한 성의 상품화는 더 이상 금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을 이용한 기업의 이윤 추구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갑 : 제 생각에 당신의 주장은 [㉠]

칸트의 인격 존중 사상
① 성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② 성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③ 성이 지닌 쾌락적 가치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④ 성도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⑤ 성적 취향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 갑은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인격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갑은 성(性)을 상품화하는 것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한낱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제시문 을은 성의 상품화는 금기의 대상이 아니며, 성적 상품화를 통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정당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갑은 을의 입장은 성(性)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선지 설명

① 인격주의적 입장에서 성(性)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갑이 그렇지 않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② 을은 성의 상품화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갑보다 을이 성적 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③ 성의 쾌락적 가치에 대해서 갑과 을은 논하지 않고 있다.
④ 오히려 갑과 달리 을이 성(性)의 상품화를 찬성하고 있다.
⑤ 갑과 을은 성적 취향의 다양성에 대해 논하지 않고 있다.

Tip 성 상품화 깊게 알아보기

성 상품화 : 성(性) 자체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행위 혹은 소비자의 상품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수단,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 ex) 성매매, 선정적 광고

성 상품화 찬성	성 상품화 반대
•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인정 밀의 자유론 :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가치 전도 현상 : 성을 상품 가치로 이용함. 인격적 가치를 지니는 성의 본래적 가치와 의미를 훼손함 칸트의 인격주의 윤리 : 1) 인간을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 2)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다.
•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성을 상품화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자본주의 논리에 부합	• 외모 지상주의 조장에 따른 사회 문제 발생 가능성 •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의식을 심어줄 위험성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에 관한 행동을 자율적으로 책임 있게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지닌다.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행사 범위 :
1)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2) 자신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02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갑 : 성은 '최대한의 책임과 최소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은 그것의 자연적 결과인 출산을 통해 가정에서의 안정된 자녀 양육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출산에 대한 책임과 양육의 안정성에 있다. → 보수주의

을 : 성은 '최소한의 책임과 최대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에 관한 결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강제와 무지, 기만에 의해 이루어진 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자유주의

① 갑 : 성은 종족 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② 갑 : 성은 혼인 관계 내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을 : 성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④ 을 : 성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다.
⑤ 갑, 을 : 성은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한 개인 간 합의의 문제이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 : 보수주의 성 윤리의 입장이다.
을 : 자유주의 성 윤리의 입장이다.

선지 설명

①, ② 보수주의 입장이다. 보수주의에 따르면 성 관계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종족 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③, ④ 자유주의 입장이다. 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성 관계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 자유주의 입장은 자발적인 동의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한다. 이 입장은 성숙한 성인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를 옹호하며, 성에 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한다. [미래엔 생윤 교과서]

⑤ 갑과 을 모두에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보수주의 입장에 따르면 성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즉, 성이 자연적 결과인 출산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안정된 자녀의 양육으로 이어질 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 입장 또한 성 관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곧, 성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03

다음 제시문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수능]

지금까지 남성은 순종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여성에게 가르쳐 왔지만 누구도 남녀의 본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 지성의 차이는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법적 예속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능 활용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공평하고 사회적으로는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성이든 남성이든 개인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공리주의적 사고: 밀의 성평등

① 여성을 예속시키는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회적 역할은 남녀의 본성에 따라 적합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③ 여성의 분별력이 근본적으로 열등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④ 양성평등은 전 인류에게 유용하므로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⑤ 남성이 독점해 온 모든 직업을 여성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 內 명제 추출

〈밀의 성 평등 윤리〉
(1) 남녀의 본성은 알 수 없다.
(2) 남녀 간 지성의 차이는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3) 남자에게 여자가 예속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고, 인류 발전을 저해한다.
(4) 여성이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막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이다.
(5) 남성과 여성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를 지닌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선지 설명

① 밀은 "여성이 남성에 종속되어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까지도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여성의 예속에 반대하였다.

② 밀은 제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남녀의 본성은 알 수 없다고 본다. 밀은 사회적 역할이 남녀의 본성이 아니라, 개인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③ 밀은 여성의 분별력이 남성에 비해 부족할 경우, 그것은 근본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밀은 여성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보장한다면, 여성들의 지성이 남성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④ 밀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양성평등이 전 인류에게 유용하므로, 양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밀은 제시문에서 여성의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재능 활용의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Tip 밀의 성 평등 윤리 깊게 알아보기

〈밀의 성 평등 윤리〉

- "여성이 남성에 종속되어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까지도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다."
- 남성과 여성은 부자연스러운 상호 관계 속에서 상대의 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본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남성과 여성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동반자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04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9평]

갑 : 인간은 자식을 낳고 기르려는 본성을 가진다. ② 신이 정한 결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본성은 실현된다. ① 성(性)은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가 된다. → 보수주의

을 : 성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성이라면 도덕적이다. 사랑은 성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 ③, ④ → 중도주의

① 갑 : 성은 결혼 제도 안에서만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

② 갑 : 성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인류를 존속시키는데 기여한다.

③ 을 : 성은 사랑을 통해 인격적 만남의 차원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④ 을 : 성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갑, ~~을~~ : 성은 사랑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도덕적이다.

보수주의 : 부부 사이의 사랑이 있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음.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 : 보수주의 성 윤리의 입장이다.

을 : 중도주의 성 윤리의 입장이다.

선지 설명

①, ② 성과 '결혼, 양육'을 연결시키는 보수주의 성 윤리의 관점에 해당한다.

> 보수주의 입장은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한다. 이 입장은 성이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며, 혼전 또는 혼외 성관계는 부도덕하다고 본다. [미래엔 생윤 교과서]

③, ④ 성과 '사랑, 인격, 상대에 대한 관심, 배려'를 연결시키는 중도주의 성 윤리의 관점에 해당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할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중도주의 성 윤리 입장에서도 성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중도주의 관점은 사랑을 전제로 하여 사랑이 있는 성은 옳고 사랑이 없는 성은 도덕적으로 그르다는 입장을 취한다. 사랑이 인간의 성에 고유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입장으로 사랑이 있는 성적 자유를 인정한다. 중도주의는 성적 자유와 성에 대한 책임을 사랑을 통해 절충하고자 한다. [비상 생윤 교과서]

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사랑과 무관한 성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 성 윤리에 해당한다. 주의할 점은 자유주의 성 윤리에서 강조하는 '자율성 존중', '해악금지의 원칙'이 전제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성 윤리도 단지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고 하여 성이 반드시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는다.

05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수능]

갑 : '결혼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출산을 통한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 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을 : '사랑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 도덕적 성의 조건이며,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① 갑은 부부만이 정당한 성적 관계의 주체는 아니라고 본다.
② 갑은 성적 관계의 정당성이 사회 존속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③ 을은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한 성적 관계는 항상 정당하다고 본다.
④ 을은 성적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 : 보수주의 성 윤리의 입장이다.
을 : 중도주의 성 윤리의 입장이다.

선지 설명

① 갑은 보수주의 성 윤리의 입장으로, 오직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② 갑은 보수주의 성 윤리의 입장으로 성적 관계의 정당성과 사회 존속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제시문에서 갑은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출산을 통한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 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③ 을은 중도주의 성 윤리의 입장으로,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 성 관계일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④ 을은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갑과 을 모두 성적 관계에서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다."라는 제시문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06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9평]

갑 :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며,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을 : 아닙니다. 혼인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인격적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① 갑 : 성적 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② 갑 : 성의 생식적인 가치보다 쾌락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③ 을 :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적 관계는 모두 비도덕적이다.
④ 을 : 상호 동의만 전제되면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⑤ 갑, 을 :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갑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보수주의는 성적 관계와 관련해서, 도덕과 비도덕의 측면으로 바라본다. 도덕과 비도덕을 구분하는 것은 '성적 관계'를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도덕적인 성적 관계란, 결혼한 부부 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관계이고, 비도덕적인 성적 관계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관계이며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본다.

② 갑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보수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다. 이때 출산을 강조하는 것은 곧 성의 생식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성의 생식적인 가치를 쾌락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③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보수주의인 갑의 입장에 해당하는 선지이다. 중도주의에 따를 때 인격적 사랑이 전제된다면, 혼인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중도주의는 인격적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호 동의만 전제'되고, 인격적 사랑은 전제되지 않은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참고로 해당 선지는 자유주의의 입장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조건 하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라 성적 자유가 허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⑤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선지이다. 갑은 제시문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전제로 할 때에만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갑은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을은 제시문에서 "인격적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을은 중도주의 성 윤리의 입장에서 인격적 사랑이 성적 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을은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자유주의'에서는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 또한 '상호 해를 끼치지 않으며,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의 전제 하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보수주의 성 윤리 : "책임 있는 성을 강조하고, 성의 안정성을 중시한다."	
성의 자연적 목적 : 출산	출산에 기여하는 것만이 성의 진정한 가치이다.
	성은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출산 또는 생식을 위한 도구적 가치만을 가진다.
	'성 그 자체를 위한 성'은 수단이 목적으로 뒤바뀐 것이기에 비도덕적이다. ex) 혼전 성관계, 성매매, 혼외 성관계, 동성애, 자위행위 등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성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 강조	성행위의 결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이다. 그러한 결과를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서는 성을 혼인의 틀 내로 제한해야 한다.
	혼인의 틀 내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성적 안정성 강조	성적 문란을 방지함으로써 결혼 제도와 가족의 붕괴, 미혼모의 증가, 성의 상품화, 성병의 증가 등의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한다.
사랑과 인격적 가치 중요시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안정적으로 혼인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의 보수주의 성 윤리	칸트에게 결혼은 '서로에게 평등한 호혜적 원리를 보장함으로써 맺어지는 두 사람 사이의 협약'이며, 결혼이라는 협약을 통해 각자는 상대방의 신체를 특히 상대방의 성기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혼외 성관계는 협약의 침해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중도주의 성 윤리	
도덕적 성의 기준 : 사랑	사랑은 인간의 성이 도덕적이기 위한 조건이다.
	사랑이 있는 성은 도덕적으로 옳고, 사랑이 없는 성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사랑만이 인간적 성의 고유한 가치, 인간의 성이 특별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도록 함	인간의 성은 사랑을 통해 동물적 차원을 벗어나서 인격적 차원으로 고양된다.
사랑 없는 성 비판	사랑 없는 결혼과 출산 – 비도덕적, 매춘이나 동물의 번식과 다를 바가 없다.
	사랑 없이 쾌락만을 위한 성 관계 – 방탕함, 인격을 파괴하고 인간의 품위를 떨어트리고 인간을 비인간화시킨다.
절충론	사랑을 성적 자유의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성적 자유가 무책임과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한다.
	성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 성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즉 사랑을 강조한다. 성적 활동에서 인간 관계의 질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류지한, 『성 윤리』 요약]

자유주의 성 윤리 : "쾌락과 계약을 중시한다."	
성의 중심 가치를 쾌락으로	성은 그 자체로 쾌락을 산출하는 즐거운 경험이다.
	성적 쾌락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성적 쾌락의 자유 강조	성적 쾌락의 추구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유로운 성적 쾌락 추구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해악 금지의 원칙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한계 내에서의 최대한의 성적 자유를 추구한다. –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이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성관계는 일종의 계약이며,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는 성관계에서 상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라고 요구한다. – 성 관계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강제, 무지, 기만에 의한 성 관계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류지한, 『성 윤리』 요약]

07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

갑 : 도덕적 판단에서 성(性)행위를 여타 행위와 구별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 성행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전제된 성행위만이 정당하다. 보수주의

을 : 도덕적 판단에서 성행위를 여타 행위와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자율성의 원칙, 해악금지의 원칙 이외에 성행위의 도덕적 정당화에 필요한 추가적 원칙은 없다. 자유주의

① 갑 : 서로의 인격이 존중된 성행위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if 부부의 사랑, 출산, 양육 ×

② 갑 : 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성행위 정당화의 ~~충분조건~~이다.
+결혼, 출산 등등 / 충분조건 =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③ 을 :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제약은 없다.

④ 을 : 쾌락적 가치보다는 생식적 가치가 성의 목적에 ~~부합~~한다.
출산, 임신 → 보수주의

⑤ 갑, ~~을~~ : 성행위의 본질은 사회의 안정과 종족의 보존에 있다.
보수주의 내용

정답 ①

선지 설명

① 보수주의는 서로의 인격이 존중된 성행위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 부부의 사랑 및 출산과 양육의 책임까지도 겸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보수주의의 입장에서는 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은 성행위 정당화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 외에도 부부의 사랑 및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필요조건 : 어떠한 것을 성립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건
- 충분조건 : 어떠한 것을 성립하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조건

③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도 성행위가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제시문에서도 알 수 있듯 자유주의는 해악금지의 원칙을 주장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④ 생식적 가치는 출산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가 아닌 보수주의가 주장할 내용이다.

⑤ 성행위의 본질이 사회의 안정과 종족의 보존에 있다는 내용은 보수주의만의 입장이며,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다.

Tip 자료 플러스

보부아르의 제2의 성

- 여성은 남성과 관련해서 규정되고 구별되지만, 남성은 여성과 관련해서 규정되고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다. 여성은 본질적 존재의 측면에서 비본질적 존재이다. 남성은 주체이고, 남성은 절대적 존재이다. 반면 여성은 타자이다.
- 영원한 여성성이란 하나의 속임수이다. 왜냐하면 인간 발달에서 자연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며,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는 여성이 본래 남성에 예속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또한 여성이 본래 남성을 능가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중략)… 여성은 생물학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극복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희생자이다.
- 여성 억압적 삶의 정황으로부터 여성이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여성의 사회적 · 정치적 동등성을 위한 투쟁 및 경제적 독립에 있다. …(중략)… 현대 여성은 기꺼이 남성적 가치들을 접수하고, 그 위에서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위하고, 노동하고, 창조적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보부아르, 『제2의 성』]

▶ 보부아르에 따르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특정한 '여성성'으로 정의되며, 남성에게 예속되었으며, 비주체적인 타자로 규정된 존재다. 보부아르는 여성이 그러한 왜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고, 경제적, 사회적 동등성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서로 전혀 모르고 지냈던 두 사람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쾌하고 흥미 있는 경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고립되어 사랑 없이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멋지고 기적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 기적은 특히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주도되고 이와 결합될 때 더욱 촉진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지 못하다. 두 사람이 점차 친숙해지면 그들의 친밀감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랑의 기적적인 특성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마침내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실망감, 그리고 권태감으로 인해서 최초의 흥분은 흔적조차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중략)…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사랑이 모든 형태의 사랑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상호 의존적이며 자신의 내적인 힘에 바탕을 둔 겸손을 깨우친 성숙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일련의 태도이다. [프롬, 『사랑의 기술』]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8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9평]

삶이 일종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인간 존재를 타인과 결합시키는 능동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고립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사랑에 있어서 두 존재는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 프롬

보 기

ㄱ.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ㄴ. 사랑은 상대방이 지닌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ㄷ.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ㄹ. 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제시문 內 명제 추출 : 프롬의 사랑의 기술

① 사랑은 기술이다.
② '응답' :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③ '사랑' : 인간 존재를 타인과 결합시키는 능동적인 능력이다. 또한 인간의 고립감을 극복시키고, 각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④ '사랑하는 사람' :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 고립감을 극복하게 하고, 그러나 동시에 둘로 남아있으며 각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한다.

선지 설명

ㄱ. 프롬은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ㄴ. 프롬은 사랑이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며, 그러한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ㄷ.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존재의 관계이다. 즉, 프롬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프롬은 사랑이 소유 양식이나 존재 양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 소유 양식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구속과 지배로 나타난다고 본다. 반면, 존재 양식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방의 생동감을 증대시킨다.
ㄹ. 프롬은 사랑을 상대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보호에는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프롬, 『사랑의 기술』]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같이 읽기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사랑에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보호에는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 만일 사랑의 세 번째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해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프롬, 『사랑의 기술』]

▶ 프롬은 사랑은 '준다는 요소',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의 요소로 이뤄져 있는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삶이 일종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인간 존재를 타인과 결합시키는 능동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고립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사랑에 있어서 두 존재는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 [프롬, 2016학년도 9평]

▶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상대방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프롬의 사랑의 구성 요소	
① 관심과 배려	사랑하는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를 돌본다.
② 책임감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에 대해 반응한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존경	사랑하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존중한다. 존경은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은 그 사람을 지배하거나 착취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④ 지식(이해)	사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그를 이해한다.

독일의 심리학자 프롬은 사랑이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배려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주장하였다. [미래엔 생윤 교과서]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9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학년도 수능]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교환의 의미로만 주어야 한다고 본다. 비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은 환희의 경험보다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모두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이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② 사랑은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③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돌보는 것이다.
④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⑤ 사랑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것이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 內 명제 추출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이 아닌 것	'교환', '가난', '고통', '희생'
사랑인 것	•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 • '생산적인 활동' • '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 •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 •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

선지 설명

① 프롬은 제시문에서 '희생'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고 본다.
②, ③, ④, ⑤ 진정한 사랑에 대한 프롬의 입장에 해당한다.

▶ 상세한 내용은 tip 및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같이 읽기〉 참고

Tip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깊게 알아보기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며 빠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사랑은 원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준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 영역이 아니라 각별히 인간적인 영역에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자신, 그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반드시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속에 살아 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자기 자신 속에 살아 있는 것의 모든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며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①]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킨다. 그는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그러나 그는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에 무엇인가 야기시키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야기된 것은 그에게 되돌아온다. 참으로 줄 때 그는 그에게로 되돌려지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는 자로 만들고 두 사람 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롬, 『사랑의 기술』]

▶ 에리히 프롬은 ① 사랑을 능동적 활동이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들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프롬은 그러한 사랑을 통해 자신을 고양시키고 타인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10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신문 ○○○○년 ○○월 ○○일

칼럼

남성과 여성 간 지적 능력의 차이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거나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 속에서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게 되면 인간 본성에도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다.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게 되면 사회 전체의 생각과 감정을 발전시킬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 차별이 지속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후략).

① 여성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
② 차별적인 관습과 제도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③ 여성의 자유권 확대와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은 양립 가능하다.
④ 남녀의 지적 능력의 차이는 선천적(후천적인 요소)이지만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여성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사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성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1) 남성과 여성의 지적 능력의 차이 원인 : 사회적 · 환경적 요인
(2)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와 직업에서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존중받게 되면 인간 본성에도 유익할 것이다.
(4) 여성의 생각이 사회에 공유되는 것은 사회에 이롭다.
(5) 여성에 대한 차별은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제시문의 신문 칼럼은 공리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인 밀의 성 평등 사상과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선지 설명

① 위 정리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제시문은 여성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② 위 정리 (1),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성을 관습이나 제도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 제시문은 반대한다.
③ 위 정리 (3), (4),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제시문은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을 때 사회 전체에 이롭다고 본다.
④ 위 정리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제시문은 남성과 여성의 지적 차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 환경적 요인, 즉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⑤ 위 정리 (4)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제시문은 여성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사회 전체의 생각과 감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곧 여성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사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1

다음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6평]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성은 운명적인 여성성이라는 속임수로 여성을 지배하고 강제했습니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출산마저 사회는 모성의 의무로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면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려 합니다. 이때 여성은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하고 남성은 계속 지배하려 하므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갈등은 남성과 여성이 자율적 존재로서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져 새로운 여성이 탄생해야 끝이 납니다. 보부아르

①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② 여성의 의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가?
③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인가?
④ 여성은 수동적인 삶을 통해 실존적 자유를 회복해야 하는가?
⑤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월성이 여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정답 ③

선지 설명

① 보부아르는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보부아르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헌신하는 분위기는 타고난 성향 때문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에 의한 것이다.
② 보부아르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의무'라고 규정된 것이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특성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강제한 의무라고 본다. 즉 보부아르는 이러한 요소들을 부조리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특성이라고 보지 않는다.
③ ②번 선지에서도 설명했듯이, 보부아르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여성의 의무'는 남성에 의해 규정된 요소이다. 따라서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일 뿐이다.
④ '수동적인 삶' 때문에 틀렸다. 제시문에서도 나오듯, "그러나 실존적인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면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려 합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보부아르가 여성의 실존적 자유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보부아르는 남성은 주체화되고 여성은 객체화 및 타자화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여성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부아르는 여성에게 있어 '수동적인 삶'이 아닌 '능동적인 삶'을 강조한다.

> 여성주의 윤리학자 보부아르는 "모든 인간은 자유를 통해 자신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한 주체로서 존중해야 하며, 당연히 부부도 각 주체로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천재 생윤 교과서]

⑤ 보부아르는 제시문에 나오듯 "남성과 여성이 자율적 존재로서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해야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2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수능]

윤리는 도덕적 추론이 아니라 도덕적 태도나 선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남성 중심적 윤리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고, 인간 관계, 책임, 헌신 등의 여성적 특성을 지닌 윤리에 주목해야 한다.
→ 배려 윤리

〈문제 상황〉

① 도와주었을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②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 행동하세요.
→ 배려 윤리의 강조점
③ 동정심이 아닌 누구나 동의 가능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세요.
→ 동정심과 같은 감정도 도덕적 행위의 근거일 수 있다.
④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사회적 효용을 낳을지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 공리주의
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도덕적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하세요.
→ 의무론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배려 윤리의 입장이다.

* 생활과 윤리에서 '길리건과 나딩스'를 각각 구분하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으므로 '배려 윤리'라는 상위 범주 차원에서 접근하면 된다.

*주의 : 배려 윤리, 담론 윤리, 책임 윤리의 서술 위치가 변경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배려 윤리	1단원	2-3 사랑과 성윤리 +자연과 윤리(미래세대)
담론 윤리	1단원	6-1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책임 윤리	1단원, 3단원	4-1 과학 기술과 윤리

선지 설명

① 배려 윤리는 배려, 보살핌, 유대감 등을 위해 타인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익을 고려하여 타인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② 배려 윤리는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것을 강조한다.
③ 배려 윤리는 동정심 등의 감정에 근거하여 맥락을 고려해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고 보며, 누구나 동의 가능한 합리적 판단이나 보편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④ 배려 윤리가 아니라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제시할 조언이다. 배려 윤리는 사회적 효용의 확대를 위해 어떤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⑤ 배려 윤리가 아니라 의무론의 입장에서 제시할 조언이다. 배려 윤리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의무 의식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Tip 배려 윤리 깊게 알아보기

(1) 등장 배경
① 기존의 남성 중심적이고 정의(正義) 중심적인 윤리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2) 도덕성 판단
1) 관계 및 맥락에 대한 고려를 강조한다.
2) 타인의 상황 및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3)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3) 의의
① 정의와 배려의 상호 보완적 관계 중시 → 도덕 판단이나 행위 과정에서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함
② 정의 중심의 추상적 도덕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많은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또는 소수자들을 수용할 수 있음

1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 도덕적 딜레마를 설명하는 여성들의 방식을 살펴보면 남성과는 다른 도덕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덕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남성의 도덕 발달 과정과는 다른 또 하나의 도덕 발달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성들에게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규정되는 것은 남을 해하지 말고 보살펴야 한다는 윤리 의식이다. →길리건(배려 윤리)

① 남녀의 도덕적 사고의 차이에 대한 편향적 이해를 극복해야 한다.
② 감정을 배제한 선행일수록 도덕적 가치가 높다고 봐야 한다.
③ 배려는 보편적 의무 의식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④ 성차는 존중해야 하나 남녀의 도덕 판단 기준은 같다고 봐야 한다.
⑤ 도덕 판단은 상황적 맥락보다 합리적 추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 內 명제 추출
〈배려 윤리〉
* 생활과 윤리에서 배려 윤리 내의 여러 학자의 입장을 서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1)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도덕 언어를 사용한다.
(2) 남성의 도덕 발달 과정과 다른 여성의 도덕 발달 과정이 있다.
(3) 여성에게는 남을 해하지 말고 보살펴야 한다는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

선지 설명

① 선지에서 말하는 '남녀의 도덕적 사고의 차이에 대한 편향적 이해'란,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지향성이 같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의미한다. 배려 윤리는 남녀의 도덕 발달 과정과 도덕적 지향성 사이에는 서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편향적 이해를 극복하고자 한다.
② 배려 윤리는 인간의 감정이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③ 배려 윤리는 도덕적 행위는 보편적 의무 의식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맥락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④ 배려 윤리는 성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며, 남녀의 도덕 판단 방식도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⑤ 배려 윤리는 도덕 판단에 있어서 상황적 맥락을 중시한다.

Tip 배려 윤리 깊게 알아보기

배려 윤리	
길리건	•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지향성이 동일하지 않다. • 남성은 '권리, 의무, 정의'를 중시하지만, 여성은 '개별적 관계, 배려'를 중시한다.
나딩스	• 윤리에 있어서 관계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여성의 도덕적 특징인 타인에 대한 배려, 보살핌, 유대감, 의존, 책임 등을 중시한다.

❷ 결혼과 가족의 윤리

01

갑, 을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

> 갑 : 도(道)는 가까운 데에 있는데 그것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한다. 사람마다 먼저 자기 어버이를 어버이로 섬기고, 연장자를 연장자로 받들면 천하가 화평해 질 것이다. 유교(맹자)
> 을 : 성스러움[聖]을 없애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들의 이로움은 백 배가 되고, 인의(仁義)를 버리고 자연(自然)에 따르면 백성들은 효성과 자애를 회복할 것이다. 도가(노자)

〈문제 상황〉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2000년 54만여 가구에서 2005년 78만여 가구, 2010년 102만여 가구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자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거나 자녀가 없어서 어렵게 살고 있다.

① 갑 : 효와 불효를 구분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유교는 효와 불효를 구분해야 함)
② 갑 : 효의 실천 범위를 가정에서 사회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
③ 을 : 사회 보장 제도를 확충하여 노인의 자립을 도모해야 한다. (도가의 입장에서는 인위적 규범으로 취급)
④ 을 : 효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부모를 부양하도록 해야 한다.
⑤ 갑, 을 : 자녀들이 욕심을 버리고 예(禮)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극기복례)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갑 : 교육 과정상 유교 사상으로 분류되는 『맹자』에서 온 글이다. '어버이를 어버이로 섬기고, 연장자를 연장자로 받들라'는 내용을 통해 유교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유교의 '친친(親親)'에 대한 내용이다.

을 : 교육과정상 도가 사상으로 분류되는 『노자』에서 온 글이다. 지혜를 버리면 오히려 이롭게 된다는 역설, 인의를 버리라는 언급 등에서 도가 사상임을 알 수 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선지 설명

① 유교 사상은 효와 불효를 구분하여 효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② 제시문을 보면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천하가 화평해지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므로 이 선지는 제시문에 부합한다. 또한 유교의 인(仁)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여 사랑을 점차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므로 ②가 가장 적절한 선지이다.

③ 교육과정상으로는 오답 선지이다. 당시 출제자는 '도가 사상은 제도를 부정한다'고 생각해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이 이 선지를 도가 사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표했으므로 수험생들은 그대로 숙지해두어야 한다.

④ 교육과정상으로는 오답 선지이다. 당시 출제자는 '효에 대한 교육'은 도가가 아닌 유교 사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이 이 선지를 도가 사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표했으므로 수험생들은 그대로 숙지해두어야 한다.

⑤ 유교의 극기복례(克己復禮)에 관한 내용이다. 천재교육 생윤 교과서 23쪽에 "유교에서는 … 지나친 욕구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 극기복례[克己復禮]."라 하였다.

Tip 가족 윤리 깊게 알아보기

가족 윤리	
가족 해체 극복 방안	•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식	• 불감훼상 :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 봉양 :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심 • 양지 :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림. • 공대 :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 대함. • 불욕 : 부모를 욕하게 하지 않는 것 • 입신양명 :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 드리는 것 • 혼정신성 : 아침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

0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6평]

동기간(同氣間)

(가) 형과 아우는 부모가 남겨 준 몸을 함께 받았으니, 한 몸과 같은 것이다. 한 몸의 사지(四肢) 중에서 어느 한 편이 병든다면 어찌 편안함을 얻겠는가?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애(友愛)

(나)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감히 상하게 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몸을 세워서 도리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떨쳐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효(孝)

불감훼상 입신양명

① (가)는 형제간은 장유(長幼)의 구분이 ~~불필요~~ 필요하다고 본다.
② (가)는 형제애의 근원과 효의 근원이 ~~전혀 다르다~~고 본다.
③ (나)는 신체의 건강함과 부모에 대한 효가 ~~무관하다~~ 관련있음고 본다.
④ (나)는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⑤ (가), (나)는 효가 덕스러운 행실[德行]의 근본이라고 본다.

유교의 기본!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가)는 '동기간(同氣間)'에 관한 것으로서 형제 간의 도리, 즉 우애(友愛)에 관한 내용이다.

> 동기간 : "형제자매는 부모의 기운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났다" [금성 생윤 교과서]

(나)는 교육과정상 '불감훼상'과 '입신양명'에 관한 것으로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즉 효(孝)에 관한 내용이다.

> • 불감훼상(不敢毁傷) : "효의 시작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 • 입신양명(立身揚名) : "효의 마침으로,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 드리는 것" [미래엔 생윤 교과서]

선지 설명

① 장유(長幼)는 어른과 어린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므로 '연장자와 연소자의 구분'이 곧 '장유(長幼)'의 구분이다. 즉, 형제자매 관계에는 연장자와 연소자의 구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 • "형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을 공경해야 한다."
> • "가정 내에서 형제자매 관계가 바람직하게 형성된 경우 사회로 나아갔을 때 연장자와 연소자 간의 인간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금성 생윤 교과서]

② 교육과정상 형제애의 근원과 효의 근원은 서로 다르지 않다.
③ 제시문을 보면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하였다.
④ '정신적 공경'과 '물질적 봉양'이 뒤바뀌어 있어서 오답이다. 교육과정상 효에 있어서 물질적 봉양보다 정신적 공경이 더 중요하다.

> • "물질적인 보답만이 효는 아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효심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다." [금성 생윤 교과서]

선지의 '정신적 공경'은 '양지(養志)'로 불리기도 하는 개념으로, 수능과 평가원에 자주 출제된다.

⑤ 교육과정상 유교에서 효는 덕스러운 행실의 근본이다.

> • 효는 부모에 대한 보은(報恩)과 존경의 마음으로 모든 행실의 근본[百行之本]이다. [2014학년도 9평 8번 문항의 정답 선지]
> • 인(仁)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2020학년도 9평 4번 문항의 정답 선지]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Tip 결혼과 가족의 윤리

> 혼례(婚禮)라는 것은 장차 두 성(姓)이 좋게 합하여, 위로는 그것으로써 조상을 섬기고, 아래로는 그것으로써 후세를 잇는다. 공경하고 삼가며 바르게 한 뒤에 친하게 되는 것이 예의 근본정신이며, 남녀의 구별이 이루어져야 부부의 의가 확립된다. 남녀의 구별이 이루어져야 부부의 의가 있고, 부부의 의가 있어야 부자의 친함이 있게 되고, 부자의 친함이 있어야 군신의 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혼례가 예의 근본이다. [『예기』]

> 유자(有子)가 말하였다. "그 사람됨이 효도하고 우애하면서 윗사람에게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이가 적으니, 윗사람에게 거역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이는 아직 있지 아니하니라.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기는 것이니, 효도[孝]와 우애[悌]는 그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니라." [공자, 『논어』]

Tip 가족 윤리 깊게 알아보기

가족 윤리	
가족 해체 극복 방안	•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식	• 불감훼상 :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 봉양 :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심 • 양지 :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림. • 공대 :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 대함. • 불욕 : 부모를 욕하게 하지 않는 것 • 입신양명 :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 드리는 것 • 혼정신성 : 아침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
형제자매간의 윤리	• 형우제공 : 형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을 공경해야 한다.

형제자매간의 윤리

> 형제는 부모의 뼈와 살을 나누어 가진 가까운 사이이므로 더욱 우애가 깊어야 한다. [『계몽편』]

03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2014학년도 9평]

수행 평가

◎ 문제 :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효(孝)에 대해 서술하시오.

>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효(孝)는 인(仁)의 근본이다. 유교

• 학생 답안

위의 사상에 따르면, ㉠ 효는 부모에 대한 보은(報恩)과 존경의 마음으로 모든 행실의 근본[百行紙本]이다. 이러한 효의 정신은 가족 윤리와 사회 윤리의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 동기간(同氣間)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도 효의 정신과 상통하며, ㉢ 다른 사람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효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효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 몸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것[立身揚名]을 효의 출발점으로,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不敢毁傷]을 효의 마침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땅한 도리로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형제 / 유교에서 O / 효의 마침 / 효의 출발점 / 제사

① ㉠ ② ㉡ ③ ㉢ ④ ㉣ ⑤ ㉤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 : 효의 시작
몸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것 : 효의 마침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효(孝)', '인(仁)' 등의 개념으로 보아 교육과정상 유교 사상에 해당하는 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과 선지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효'에 관한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선지들을 판단하면 된다.

선지 설명

① ㉠은 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효경주소』에 "효(孝)가 모든 행실의 근본[百行之本]이다."라는 언급이 있다.

> 효가 덕스러운 행실[德行]의 근본이라고 본다. (○) [2014학년도 6평 10번 문항 선지 ⑤]

> 효는 인(仁)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 [2020학년도 9평 4번 문항 선지 ③]

② ㉡은 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효의 정신과 상통한다.

> "효와 우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형제자매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전 교육과정 비상 생윤 교과서]

> 동기간 : "형제자매는 부모의 기운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났다" [금성 생윤 교과서]

③ ㉢은 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해당 선지는 이후 2017학년도 수능 4번 문항 선지 ⑤로 변용된다.

> "효의 정신이 가정 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로 확장하여 이웃,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을 공경(恭敬)하는 태도로 발전한다면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금성 생윤 교과서]

> 효의 정신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 [2017학년도 수능 4번 문항 선지 ⑤]

④ ㉣은 '효의 출발점'과 '효의 마침'이 서로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다.

> • 불감훼상(不敢毁傷) : "효의 시작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 • 입신양명(立身揚名) : "효의 마침으로,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 드리는 것" [미래엔 생윤 교과서]

⑤ ㉤은 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효'에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것도 포함된다.

> 효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실 때에야 비로소 종료된다. (×) [2015학년도 9평 6번 문항 선지 ②]
>
> 효는 조상에 대한 공경을 담은 전통적 제례(祭禮)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2016학년도 6평 14번 문항 선지 ㄷ]
>
> 효(孝)는 상호 관계에서 성립하기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종료된다. (×) [2020학년도 9평 4번 문항 선지 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4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가) 도(道)에 뜻을 둔 사람은 인(仁)으로 늘 자신을 삼가 허술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인을 해치는 일이 없다. 유교

(나)

- 사람이 있고 난 뒤 부부(夫婦)가 있고, 부부가 있고난 뒤 부자(父子)가 있으며, 부자가 있고 난 뒤 [㉠]이/가 있다. ← 형제자매
- [㉠]은/는 비록 몸이 나뉘어 있지만 같은 기운을 타고난 존재이므로 행실이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 동기간

① 서로 항렬을 달리하는 종적(縱的)인 관계이다. ← 같이 / 종적&횡적

②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③ 다른 성(姓)이 서로 만나 하나가 되는 관계이다. → 부부

④ 장유(長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관계이다.

⑤ 가족 내의 인간관계 중 가장 먼저 형성된 관계이다. ← 부부관계

나이가 많고 어림. 형제 관계에서도 구분된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가)는 교육과정상 유교 사상이다. 이 제시문은 '살신성인' 관념이 들어 있는 원문이 부분적으로 쓰인 것인데, 살신성인 원문은 그 온전한 모습이 2020학년도 6평 3번 문항 지문에 사용되었다.

> 뜻이 있는 선비와 인(仁)을 갖춘 사람은 삶에 집착하다가 인을 해치는 경우는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 [2020학년도 6평 3번 문항 지문]

(나)는 '몸이 나뉘어 있지만 같은 기운을 타고난 존재'라는 부분 등으로 보아 '동기간'의 내용을 다룬 글로서 ㉠에 들어갈 말은 '형제자매'이다.

> 동기간 : "형제자매는 부모의 기운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났다"
> [금성 생윤 교과서]

선지 설명

① 형제자매 관계는 항렬이 항렬이 같은 관계이다. 또한 형제자매 관계는 종적 관계이면서 횡적 관계이다.

> 항렬(行列) : 같은 혈족의 직계에서 갈라져 나간 계통 사이의 대수관계를 나타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②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이므로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가족 윤리에서는 …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孝道)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형제자매 간에 지켜야 할 덕목으로 우애(友愛)를 제시하는데, 이는 형우제공의 자세로 실천할 수 있다."
> [지학사 생윤 교과서]

> "서로를 공경하여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하는 길이 된다."
> [2015학년도 수능 7번 문항의 정답 선지]

③ 서로 다른 성(姓)이 만나 하나가 되는 관계는 교육과정상 '부부' 관계에 해당한다.

④ 장유(長幼)는 어른과 어린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므로 '연장자와 연소자의 구분'이 곧 '장유(長幼)'의 구분이다. 즉, 형제자매 관계에는 연장자와 연소자의 구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 - "형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을 공경해야 한다."
> - "가정 내에서 형제자매 관계가 바람직하게 형성된 경우 사회로 나아갔을 때 연장자와 연소자 간의 인간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금성 생윤 교과서]

> 형우제공(兄友弟恭) : 사회적 장유(長幼)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 의 토대가 된다. (○) [2015학년도 수능 7번 보기 ㄷ]

⑤ 교육과정상 가족 내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관계는 부부 관계이다. 부부가 우선 있고 나서야 자식들(형제자매)이 있을 수 있다.

05

다음 전통 의례에 반영되어 있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6평]

- 결혼은 혼인이라고 하는데, 혼(婚)은 '남자가 장가든다.'는 의미이고, 인(姻)은 '여자가 시집간다.'는 의미 이다.
- 대례(大禮) 중 합근례(禮)에서는 하나의 박을 쪼개 두 개로 만들어 술을 나누어 마신 후 다시 하나로 만든다. 혼례

① 부부의 관계는 ~~이해 타산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② 부부의 역할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기초하여 정해져야 한다.
③ 부부는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위계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④ 부부는 각자의 독자적 삶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시문에서는 혼인 시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도 다시 하나로 만든다는 말이 있으므로 독자적인 삶의 영역과는 거리가 있다.
⑤ 부부는 결혼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

'윤리'라는 과목 특성상 정답이 되기 어려운 keyword들이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결혼에 있어서의 예(禮)인 혼례(婚禮)에 관한 내용인데, 선지 판단을 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혼관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요소에 가장 잘 대응되는 선지를 골라야 한다. 제시문의 두 글 중 첫째 글에서는 '혼인'이라는 어휘가 '남자의 장가감'과 '여자의 시집감'을 합친 것임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둘째글에서는 하나를 둘로 쪼갠 뒤 다시 하나로 만드는 예법이 설명되어 있다. 이로 볼 때 본 문항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부간의 '동등함'과 '상호보완'임을 추론할 수 있다.

선지 설명

① 부부 관계는 서로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는 공경해야 하는 관계이다. 교육과정상 전통 사상에서는 '상경여빈'이라 하여 부부간의 공경을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였다. 비상교육 생윤 교과서 71쪽에서 '상경여빈'에 대해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지만, 부부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같이 대한다는 뜻"이라 하였다.
② 교육과정상 전통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이 강조되는 것이지 권위주의가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교육과정상으로는, 부부가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위계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론에 근거해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화합해야" 하는 것이다.
④ '독자적 삶의 영역'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료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단 문항 제시문의 중심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선지로 보기는 어렵다.
⑤ 부부 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결혼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Tip 상경여빈의 의미

> 무릇 부부란 인륜(人倫)의 시작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니, 지극히 친하고 가까워도 지극히 바르게 하고 삼가야 할 사이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禮)와 공경을 잊고 버릇없이 급하게 친해지면, 업신여기고 능멸하여 못할짓이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가 서로 손님같이 공경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출처 : 이황

▶ 유교의 부부관인 상경여빈(相敬如賓)은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공경하면서 손님처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부는 친밀한 사이이지만 서로를 손님을 대하듯 공경해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5학년도 9평]

(가)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덕(德)에 어긋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예(禮)에 어긋난다.

(나) 개체 생명은 가(家)속에서 계승되는 집단 생명의 일부이다. 따라서 개인은 집단 생명이 보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의 시작이다. 또한 [㉠]은/는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다.

'효(孝)' 불감훼상

① 부모를 부끄럽지 않게 해 드리는 것이다. → 제사 등으로 지속!

② 부모가 모두 돌아가실 때에야 비로소 종료된다.

③ 자손을 낳아 대(代)를 잇는 것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④ 부모를 삼가 모시고 그 뜻을 헤아려 실천하는 것이다.

⑤ 덕을 쌓아 떳떳한 지위를 얻어 이름을 떨치는 것으로 완성된다. 입신양명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가) 유교 사상이다. 부모를 사랑 · 공경하고, 예(禮)에 어긋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강조되는 덕목을 다루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효(孝)'가 가장 적절하다.

선지 설명

①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법 중 '불욕(不辱)'에 해당한다. 미래엔 생윤 교과서 73쪽에서 '불욕'에 대해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해 드리는 것"이라 하였다.

② 제시문에서는 개체 생명이 가(家) 속에서 계승되는 집단 생명의 일부이므로 개인은 이런 생명의 보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돌아가셔도 효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제사를 지내는 등의 방법으로 여전히 효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땅한 도리로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2014학년도 9평 8번 문항 ㉠]
> 효는 조상에 대한 공경을 담은 전통적 제례(祭禮)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 [2016학년도 6평 14번 문항 선지 ㄷ]
> 효는 상호 관계에서 성립하기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종료된다. (×) [2020학년도 9평 4번 문항 선지 ⑤]

③ 제시문에서는 개체 생명이 가(家) 속에서 계승되는 집단 생명의 일부이므로 개인은 이런 생명의 보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법 중 '양지(養志)'에 해당한다.

> 양지(養志) : "부모의 뜻을 헤아려 실천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미래엔 생윤 교과서]

이는 앞서 2014학년도 6평 문항 선지 ④에 쓰인 '정신적 공경'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차후의 기출에 여러 차례 다시 등장하는 내용이니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⑤ 교육과정상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법 중 '입신양명(立身揚名)'에 해당한다.

Tip 효의 실천 방법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법'
- 불감훼상(不敢毁傷) : "효의 시작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 입신양명(立身揚名) : "효의 마침으로,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 드리는 것" [미래엔 생윤 교과서]

07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가) 공손하라. 그것이 곧 인(仁)의 실천이다. 관대하라. 그것 역시 인의 실천이다. 공손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들을 얻을 것이다.

(나) [㉠]은/는 동기간(同氣間)에 지켜야 할 도리로, 서로를 공경[悌]하는 것이다. 뼈와 살은 비록 나뉘었으나 본래 한 기운에서 태어났으니 [㉠]을/를 실천해야 한다.

'형우제공' → 형제자매간 관계

보 기

ㄱ. 항렬(行列)을 달리(→ 같이)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ㄴ. 의(義)가 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권면(勸勉)) 하는 것이다.
ㄷ. 사회적 장유(長幼)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의 토대가 된다.
ㄹ. 서로를 공경하여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하는 길이 된다. (→ 형제도 장유 지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가)는 인(仁)을 실천하라는 점으로 보아 교육과정상 유교 사상이다.
(나)는 '동기간(同氣間)'에 지켜야 할 도리라는 점으로 보아 형제자매 간 관계를 다루고 있는 글이다.

> 동기간 : "형제자매는 부모의 기운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났다" [금성 생윤 교과서]

한편, 빈칸에 들어갈 말은 '형우제공'이다.

> "본 문항의 출제 의도는 형제자매 간에 지켜야 할 도리인 형우제공(兄友弟恭)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원 공식 답변서]

선지 설명

ㄱ. 형제자매 관계는 '항렬'이 같은 관계이지 다른 관계가 아니다.

> 서로 항렬을 달리하는 종적(縱的)인 관계이다.(×) [2014학년도 수능 14번 문항 선지 ①]

ㄴ. 당시 이 선지에 대해 이의제기가 많았는데, 평가원의 공식 답변은 다음과 같다.

> "이의신청의 요지는 〈보기〉의 선택지 ㄴ '의(義)가 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다.'가 친구 관계에만 해당하는 '권면(勸勉)'에 대한 설명이므로 형제 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의 선택지 ㄴ은 형제간 우애의 실천과 관련하여 퇴계 이황을 인용한 교과서 서술 "성의를 다해서 깨우치게 해야만 비로소 의리가 상함이 없을 것이다(교학사1), 105쪽)."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교육과정상 문제가 없으며, 형우제공으로 추론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또한 〈보기〉의 선택지 ㄴ을 권면으로 독해할 경우에도 유교 사상에서 친구 관계는 형제 관계를 바탕으로 확장된 것이며(김충렬, 『中國哲學散稿 I 』, 온누리, 1994, 85쪽), 교과서 서술에서도 "형제자매는 위아래가 있지만 놀이를 같이하는 친구",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친구 관계, 남녀 관계, 어른 또는 어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운다(천재교육, 106쪽)."라고 되어 있으므로, 권면이 친구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형제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평가원 공식 답변]

ㄷ. 장유(長幼)는 어른과 어린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므로 '연장자와 연소자의 구분'이 곧 '장유(長幼)'의 구분이다. 즉, 형제자매 관계에는 연장자와 연소자의 구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 • "형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을 공경해야 한다."
> • "가정 내에서 형제자매 관계가 바람직하게 형성된 경우 사회로 나아갔을 때 연장자와 연소자 간의 인간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금성 생윤 교과서]

한편, 선지의 '사회적'이라는 부분이 다소 눈에 걸릴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가족도 '사회'일 수 있다.

> 사회 :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가족, 마을, 조합, 교회, 계급, 국가, 정당, 회사 따위가 그 주요 형태이다." [『표준국어대사전』]

ㄹ. 제시문에 의하면 '서로에 대한 공경'을 강조한다. 형제자매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효를 실천하는 길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8

다음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전통 혼례에서 착용하는 복장

남자는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하고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무 기러기[木雁]를 상 위에 놓고 공손히 절을 한다[揖].

모범적인 부부의 상징

…(중략)… 그 후 서로 절을 한 다음 술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새로운 사회관계를 이루게 된다.

부부간의 맞절 / 부부관계 / 새로운 가정

① 후손들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통과 의례이다. → 상례

② 삼가 조상을 모시고 집안을 이어가겠다고 서약하는 의례이다. → 혼례

③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스승의 노고에 감사를 표현하는 의례이다. → 사제간 의례

④ 성인(成人)의 지위를 인정받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의례이다. → 성인식

⑤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관직에 추천할 때 행하는 의례이다. → 부부와 관계 없음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전통 의례 중 '부부'에 관한 예(禮)를 다룬 글이다. 제시문의 '나무 기러기'는 금실이 좋으면서 정조를 지키는 모범적인 부부의 상징이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 절을 하고 새로운 사회 관계를 이루는 모습 역시 부부의 예를 표현한 것이다.

선지 설명

① 부부의 예가 아니라 부모에 대해 자녀가 행해야 할 상례(喪禮)에 해당한다.
② 전통 사회에서는 혼인을 통해 대를 잇는다는 의식이 있었다.
③ 부부의 예가 아니라 사제(스승과 제자) 간의 예에 해당한다.
④ 부부의 예가 아니라 성인식에 해당한다.
⑤ 관직 추천은 '부부'의 예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Tip 부부간의 윤리 깊게 알아보기

부부간의 윤리	
동양	• 부부상경 : 부부가 서로 존중함. • 부부유별 :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는 구별이 있다는 뜻. 우열을 전제하지 않고, 단지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다. → 현대에서는 고정된 성 역할로 해석하기보다는, 각자의 능력과 역할에 따른 분담으로 이해해야 한다. • 상경여빈 :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지만, 서로 공경하며 손님처럼 대한다는 의미. • 음양론 : 부부는 자연의 음과 양의 관계처럼 서로 상호 대등하며 보완적인 관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 • 『예기』 : "천지가 화합하지 않으면 만물이 나오지 않는다. 혼인은 만세(아주 오랜 세대)의 이어짐이다."

09

다음 가상 편지의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6평]

○○에게

네가 다칠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단다. 옛 선현들에 의하면, 군자는 친족을 사랑하며 백성에게 어진정치를 베풀고, 만물에까지도 사랑이 미치게 해야 한다고 했단다. 이는 마치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이 자라고 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겠지. 이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란다. ㉠을/를 행하는 첫 걸음은 자신의 몸을 훼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증자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몸이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된 것을 보고 "비로소 걱정을 면했다!"라고 안도했다고 하더구나. …(후략)… 유교의 효(孝)

'효(孝)' / 불감훼상

보 기

ㄱ. 음양(陰陽)의 조화를 통해서 형성된 횡적 관계의 미덕이다. (부부관계 / 종적)

ㄴ. 사회적 역할에 맞는 도덕적 행동으로 이름을 떨칠 때 완성된다. (입신양명)

ㄷ. 조상에 대한 공경을 담은 전통적 제례(祭禮)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ㄹ. 혈연관계의 친밀함을 배제한 공평함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상식적으로 정답이 될 수 없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제시문에서 "자신의 몸을 훼상하지 않는 것"은 교육과정상 효의 시작으로 간주되는 '불감훼상'에 해당한다. 불감훼상은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법이다. 따라서 제시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효'이다.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법'

- 불감훼상(不敢毁傷) : "효의 시작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 입신양명(立身揚名) : "효의 마침으로,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 드리는 것" [미래엔 생윤 교과서]

선지 설명

ㄱ. 효란 부모 · 자식 간 관계에서의 덕목이다. 부모 · 자식 간 관계는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횡적' 관계가 아니라 '종적' 관계이다. '횡적' 관계는 서로 동등한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부모 · 자식 간 관계는 위아래의 종적인 위계가 있는 것이다.

ㄴ. 이는 교육 과정상에서는 '입신양명'에 해당하며, 입신양명은 효의 마침으로서 효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ㄷ. '효'에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것도 포함된다.

>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땅한 도리로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2014학년도 9평 8번 문항 ㉤]
>
> 효는 조상에 대한 공경을 담은 전통적 제례(祭禮)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2016학년도 6평 14번 문항 선지 ㄷ]
>
> 효는 상호 관계에서 성립하기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종료된다. (×) [2020학년도 9평 4번 문항 선지 ⑤]

ㄹ. 부모 · 자식 간 관계는 혈연관계의 친밀함이 강조되는 관계이지 배제되는 관계가 아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0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6평]

○○에게

요즘 언론에서 가정 내의 폭력에 관한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네.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는 부자자효(父慈子孝)의 정신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네. 사람이 개와 말을 기를 적에도 모두 음식으로 길러 주는데, 만약 부모를 봉양만 하고 공경함이 없으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처럼 효도는 봉양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敬]이 바탕이 되어야 하네. 자애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억지로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되네. 힘으로는 도(道)로 이끌 수 없으니, 내가 선해지고자 하면 상대방도 선해지지 않겠는가. …(후략)…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로워야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함.

효(孝) 윤리

① 효의 정신적인 측면보다 물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② 자녀의 옳지 않은 행동은 ~~강제로라도~~ 교정해 주어야 한다.
③ 부모의 역할을 다하면서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는 ~~모두~~ 자애에 속한다.
⑤ 부모의 경제적 보살핌을 ~~받기 위해~~ 자녀는 효도를 행해야 한다.

억지로 하면 안됨!

계산적인 맥락.. 상식적으로 정답 ×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제시문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부모 · 자식 간 관계 중 효 윤리이다(이 제시문의 일부는 이후 2019학년도 9평 17번 문항 지문 (나)에 활용된다).

> 서로 항렬을 달리하는 종적(縱的)인 관계이다. 섬기는 일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가장 큰 섬김에는 물질적 봉양[養口體], 정신적 공경[養志],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입신양명(立身揚名) 등이 있다. 그러므로 양지(養志, 뜻을 봉양함)는 개나 말을 잘 먹여 기르는 것과는 다르다.
> [2019학년도 9평 17번 문항 지문 (나)]

본 문항은 제시문 독해로 선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바, 본서의 성격이 수험서인 만큼 여기서는 제시문과 선지 간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하겠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에서 "사람이 개와 말을 기를 적에도 모두 음식으로 길러 주는데, 만약 부모를 봉양만 하고 공경함이 없으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 하였다. 이는 물질적인 측면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물질적 측면을 더 중요하다고 진술하는 해당 선지는, 보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중요도를 뒤집어 오답 선지를 구성하는 출제방식

>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 [2014학년도 6평 10번 문항의 오답 선지]
> 효(孝)는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을 우선하여 이루어진다. (×)
> [2020학년도 9평 4번 문항의 오답 선지]

2014학년도 6평 10번 문항의 오답 선지("(나)는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에서 변용된 것이며, 이후 2020학년도 9평 4번 문항의 오답 선지("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을 우선하여 이루어진다.")에서 재차 활용된다.

② 제시문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로 '억지로 이끌려고 해서는 안됨'을 제시하였다.

③ 제시문을 보면 부모가 선해지면 자녀도 선해진다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④ 제시문에서 "자애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억지로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되네."라 하였다. 따라서 '자녀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모두' 자애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⑤ 제시문에 의하면 효도는 공경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보살핌을 받기 위함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1

(가), (나)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덕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9평]

(가) 나이 칠십에 아이처럼 장난하며 색동옷을 입고, 물을 떠 당(堂)에 오르다가 일부러 넘어져 아이 울음소리를 내었으며, 부모 곁에서 새끼 새랑 놀며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하였다.

(나) 과실(過失)이 있으시면 기(氣)를 내리고 낯빛을 온화하게 하고 음성을 가다듬어 간(諫)한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공경심을 일으키고, 기뻐하시면 다시 간한다.

간언 '효(孝)'

① 동기간(同氣間)에 서로 이롭게 하며 허물을 바로잡는 것이다. (형제자매 관계)

② 양지(養志)의 마음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실천하는 것이다.

③ 친애와 경쟁을 바탕으로 관련하여 믿음[信]을 실천하는 것이다. (형제자매 or 친구관계)

④ 수평적 관계(이웃관계)에서 구휼(救恤)의 의무를 부과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⑤ 음양(陰陽)의 이치에 따라 동등한 관계(부부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우선 (가)가 강조하는 덕목은 비교적 알아보기 쉽다.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이므로 '효'에 관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나)의 경우는 '부모'나 '자식' 같은 단서가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아 (가)에 비해 파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문항 자체에 힌트가 주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문항 발문에서 (가)와 (나)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덕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로써 파악된 덕목을 통해 (나) 역시 부모 · 자식 간 관계에서 강조되는 덕목을 다루는 내용임을 추론할 수 있다.

선지 설명

① 해당 선지는 형제자매 간 윤리이므로 (가)와 (나)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덕목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간접적인 관련성은 있다.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적어도 효를 실천하는 한 방법일 수는 있기 때문이다.

> 동기간 : "형제자매는 부모의 기운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났다" [금성 생윤 교과서]

> 동기간(同氣間)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도 효의 정신과 상통하며, ….
> [2014학년도 9평 8번 문항 선지 ②]

② 양지는 정신적 공경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양지'의 마음으로 적절히 실천하는 것은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덕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 양지(養志) : "부모의 뜻을 헤아려 실천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미래엔 생윤 교과서]

③ 이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친구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선지①에서 이미 다루어졌으므로, 해당 선지는 아무래도 친구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는 편이 출제자의 의도에 좀더 부합할 것이다. 선지의 '경쟁'한다는 등의 부분을 보면 부모 ·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④ 당시 교육과정 교과서에 의하면 "전통 사회의 이웃은 상주지의(相周之義), 곧 서로 구휼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관계"라 하였다(천재교육 생윤 교과서). 따라서 당시 출제자는 해당 선지를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의도하고 낸 것이다.

⑤ 음양(陰陽)의 이치는 사실 어떠한 인간 관계에도 관련이 된다.

> 음양론 : "우주나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을 음양(陰陽)의 변화로 설명하는 이론" [지학사 생윤 교과서]

다만 본 문항은 선지 ②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제시문에 부합하므로 '가장 적절한' 선지는 ⑤보다는 ②로 골라야 한다. 참고로 교육과정상에서 '음양'론은 '부부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⑤보다는 ②를 부모 · 자녀 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2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수능]

- 그대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양을 몰래 훔친 것을 증언했지만, 우리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그 사실을 숨겼네. 정직은 그 속에 있다네.
- 자식은 부모가 부르시면 빨리 대답하여 늦지 않도록 한다. 부모가 연세 드시면 늦게 귀가하지 않는다. 부모가 병환 중이시면 자식은 얼굴을 환하게 하지 않고, 웃되 잇몸을 보이는데 이르지 않으며, 노하되 꾸짖는 데 이르지 않는다.

① 부자유친(父子有親)의 본질은 ~~집단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유교의 부모·자녀 관계)
② 부자(父子)간 정직은 친애[愛]보다 올바름[義]을 ~~우선~~해야 한다. (친애를 더 우선시하여 아버지의 범행을 숨겼다.)
③ 자식은 부모의 의중을 살펴서 언행을 삼가며 공대(恭待)해야 한다.
④ 부모를 위하여 자식은 ~~결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⑤ 효의 정신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회도 확장!)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유교의 부모 · 자녀 간의 관계 :
제시문을 보면 첫째 글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는 정서를 보여주고 둘째 글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은 부모 · 자녀 간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다.

선지 설명

① 유교는 부자유친의 본질이 집단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 부자유친 :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로서 서로에게 감사와 공경의 자세를 서로 가져야 한다. [천재 생윤 교과서]

② 제시문 중 첫째 글을 보면 화자가 보는 진정한 정직은 올바름보다 친애를 우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유교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의 의중을 살펴 언행을 삼가해야 하며 공대해야 한다. 여기에서 공대란 표정을 부드럽게 하여 부모님이 편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공대 :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 [미래엔 생윤 교과서]

④ 제시문 중 둘째 글을 보면 "웃되 잇몸을 보이는 데 이르지 않으며"라 하였다. 따라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감정은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라는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⑤ '효의 정신'은 부모 · 자식 간의 관계에만 국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효의 정신이 가정 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로 확장하여 이웃,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을 공경(恭敬)하는 태도로 발전한다면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금성 생윤 교과서]

13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9평]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가)	어진[仁]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서게 해 주고 자신이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해준다. 따라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恕]. → 유교(공자)
(나)	형제자매 ㉠ 은/는 나와 더불어 한몸과 같은 존재이며,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이다[手足之義]. 상대방이 좋지 못한 행실을 하면 마땅히 정성을 다해 충고해서 올바른 도리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

① 서로 간에 자애(慈愛)와 효도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부모, 자녀
② ~~계약을 바탕으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③ 동기간(同氣間)으로서 사랑과 공경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형제자매
④ 가깝게 오래 사귄 벗으로서 우정을 중시하는 선택적 관계이다. → 친구
⑤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로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관계이다. → 부부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가)는 서(恕) 개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유교 사상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라는 대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이 '형제자매'임을 알 수 있다.

> "형제자매는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하였다.
> [미래엔 생윤 교과서]

선지 설명

① 이는 형제자매 관계가 아니라 부모 · 자녀 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가족 윤리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자애(慈愛)],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孝道)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지학사 생윤 교과서]

② 형제자매 관계는 혈연 관계이다. 계약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는 가령, '비지니스 동업자 관계'와 같은 계약적 관계(Contractual Relationship)'를 의미한다. 수능 생활과 윤리 '가족 윤리'에서 다루지 않는 관계이므로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된다.

③ 유교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형우제공은 동기간에 지켜야 할 도리로, 서로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때 '동기간'은 형제자매는 부모의 기운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난 사이를 의미한다. 이처럼 형제자매 간에는 '사랑과 공경'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 유교의 입장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형제자매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우애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형우제공을 들 수 있다. 형제자매는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로, 형제자매 간에 지켜야 할 규범을 익히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규범을 익히는 밑거름이 된다.
> 형우제공 :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는 의미
> [미래엔 생윤 교과서]

>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가족 윤리에서는 …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孝道)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형제자매 간에 지켜야 할 덕목으로 우애(友愛)를 제시하는데, 이는 형우제공의 자세로 실천할 수 있다.
> [지학사 생윤 교과서]

> 형제는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2014학년도 수능]
> 서로를 공경하여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하는 길이 된다.
> [2015학년도 수능]

> 형우제공(兄友弟恭)(○) : 사회적 장유(長幼)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의 토대가 된다. [2015학년도 수능]

④, ⑤ 선지 ④는 친구 관계에, 선지 ⑤는 부부 관계에 해당하는 선지이다.

Tip 전통 사회에서 강조하는 형제간의 우애

> 형제간은 같은 어버이에게서 태어나 기운이 같은[동기(同氣)] 사람이다. 골육의 지친(至親)이니, 더욱 마땅히 우애할 것이요, 노여움을 마음속에 감추고 원망을 간직해 두어서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옛날에 사마광(司馬光)이 그의 형 백강(伯康)과 더불어 우애하기를 더욱 돈독히 하여, 형을 공경하기를 엄한 아버지와 같이 하고, 아우를 보호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였으니, 형제간의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웃을 줄 알고 손을 잡아 주고 안아 줄 만한 아이가 그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그 장성함에 미쳐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하셨다.
> [『동몽선습』]

▶ 형제는 횡적(평등, 수평)인 관계이자 동시에 종적(상하, 수직)인 관계다. 그리고 유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어 장유유서(나이에 따른 차례가 있음)와 형우제공(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함)을 강조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4

다음 가상 편지의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8학년도 수능]

○○에게

얼마 전 자네가 가정을 이루었다(혼인)는 말을 듣고 몹시 기뻤다네. 공자는 "경(敬)으로써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어라."라고 말했다네. 이러한 가르침은 ㉠(부부) 간의 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네. ㉠(부부)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성장하여 만난 두 사람이지만, 자네가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듯 존중한다(상경여빈)면 어찌 백년해로(부부의 인연을 맺어 평생을 같이 즐겁게 지낸다는 말)(百年偕老)할 수 없겠는가?

…(후략)…

보 기

ㄱ. 혼인(婚姻)을 통해 맺어진 가족 관계이다. (부부)
ㄴ. 상경여빈(相敬如賓)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부부)
~~ㄷ. 항렬(行列)에 따라~~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관계이다. → 친척
~~ㄹ. 동기간(同氣間)~~으로서 배려해야 하는 가족 관계이다. → 형제자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 중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성장하여 만난 두 사람", "백년해로" 등의 부분으로 미루어 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부부'임을 알 수 있다.

> 백년해로 :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 [『표준국어대사전』]

선지 설명

ㄱ. 부부 관계에 관한 설명이므로 옳은 선지이다.

ㄴ. 부부 관계에 관한 설명이므로 옳은 선지이다.

> 상경여빈 :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지만, 부부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같이 대한다는 뜻 [비상 생윤 교과서]

ㄷ. 보통 부부는 서로 같은 혈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니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항렬(行列) : 같은 혈족의 직계에서 갈라져 나간 계통 사이의 대수 관계를 나타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ㄹ. 해당 선지는 부부 관계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 동기간 : "형제자매는 부모의 기운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났다" [금성 생윤 교과서]

Tip 부부간의 윤리 깊게 알아보기

동양	• 부부상경 : 부부가 서로 존중함. • 부부유별 :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는 구별이 있다는 뜻. 우열을 전제하지 않고, 단지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다. → 현대에서는 고정된 성 역할로 해석하기보다는, 각자의 능력과 역할에 따른 분담으로 이해해야 한다. • 상경여빈 :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지만, 서로 공경하며 손님처럼 대한다는 의미. • 음양론 : 부부는 자연의 음과 양의 관계처럼 서로 상호 대등하며 보완적인 관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 • 『예기』 : "천지가 화합하지 않으면 만물이 나오지 않는다. 혼인은 만세(아주 오랜 세대)의 이어짐이다."

15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 천지가 화합해야 만물이 생성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녀가 결혼해야 자손이 태어나고 번영해서 만세에까지 이어진다. … (중략) … 남자가 친히 아내를 맞이할 때 선물을 가지고 상견(相見)하는 것은 공경을 통해 부부유별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처럼 남녀가 유별한 뒤라야 부자가 친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야 도의가 성립되며, 도의에 의해 예의가 제정되고, 그런 다음에야 만사가 안정된다. 만일 남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도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수(禽獸)의 도(道)이다.
>
> 금수: 남녀 구별 X, 도의 성립 X / 부부유별 강조

① 부부의 예절은 성 역할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서 시작한다.
② ~~금수에게도~~ 사람의 남녀에게 볼 수 있는 분별적 도리가 있다.
③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을 때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부부의 도리는 ~~두 사람의 관계~~보다 각자의 개별성을 ~~중시해야 한다~~.
⑤ 부부간에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예절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
부부상경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자손의 번영을 강조하고 공경을 통한 부부유별을 강조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전통적인 유교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이 '부부유별'을 강조하는 입장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부부유별 :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는 구별이 있다는 뜻이다. 이때 구별의 의미는 우열을 전제로 한 남녀 간의 차별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금성 생윤 교과서]

② 제시문에서 "만일 남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도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수(禽獸)의 도(道)이다."라 하였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③ 제시문에서 "남자가 친히 아내를 맞이할 때 선물을 가지고 상견(相見)하는 것은 공경을 통해 부부유별을 밝히려는 것이다."라 하였다. 이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부부 관계에서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꼭 '두 사람의 관계'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⑤ 제시문의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선지이다.

>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 부부간의 윤리인 부부유별(夫婦有別)과 부부상경(夫婦相敬)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 덕목은 부부가 서로 차별적 관계가 아닌 구별된 역할 속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천재 생윤 교과서]

Tip 부부간의 윤리 깊게 알아보기

동양	• 부부상경(서로 / 공경함): 부부가 서로 존중함. • 부부유별 :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는 구별이 있다는 뜻. 우열을 전제하지 않고, 단지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다. → 현대에서는 고정된 성 역할로 해석하기보다는, 각자의 능력과 역할에 따른 분담으로 이해해야 한다. • 상경여빈 :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지만, 서로 공경하며 손님처럼 대한다는 의미. • 음양론 : 부부는 자연의 음과 양의 관계처럼 서로 상호 대등하며 보완적인 관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 • 『예기』 : "천지가 화합하지 않으면 만물이 나오지 않는다. 혼인은 만세(아주 오랜 세대)의 이어짐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9평]

(가)	부모와 자녀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남편과 부인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간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부자유친 / 부부유별 / 군신유의 / 붕우유신 / 장유유서)
(나)	섬기는 일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가장 큰 섬김에는 물질적 봉양[養口體], 정신적 공경[養志],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입신양명(立身揚名) 등이 있다. 그러므로 [㉠]은/는 개나 말을 잘 먹여 기르는 것과는 다르다. (㉠ = 효)

①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는 상경여빈(相敬如賓)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 부부 관계

②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상부상조(相扶相助)로 완성되는 것이다. → 이웃 관계

③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는 백년해로(百年偕老)로 완성되는 것이다. → 부부 관계

④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군이충(事君以忠)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 임금과 신하 관계

⑤ 몸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불감훼상(不敢毁傷)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가)는 유교의 오륜(五倫)을 나타내는 글이다. '오륜'은 천재교육 생윤 교과서에 의하면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따른 도덕규범으로, 부자유친(父子有親) · 군신유의(君臣有義) · 부부유별(夫婦有別) · 장유유서(長幼有序) · 붕우유신(朋友有信)을 가리킨다." 한편, (나)는 『맹자』 · 『효경』 · 『논어』의 글이 합성된 것이다. 이 중 빈칸이 있는 문장은 『논어』가 출전인데, 출제자가 임의적인 손질을 가한 탓에 정확히 해당하는 어휘를 확정하기는 어렵다.(참고로 이 『논어』 부분 글은 2017학년도 6평 9번 문항 지문에 해당하는 원문이 부분적으로 재활용된 것이다.) 원문을 고려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공경[敬]'일 수도 있고 '효(孝)'일 수도 있다. 다만 선지와의 연관성도 고려하면 출제자가 의도한 빈칸의 어휘는 '효(孝)'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는 효가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서 강조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선지를 살펴보면 된다.

선지 설명

① 이는 부부 간의 관계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상경여빈'에 대해 비상교육 생윤 교과서는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지만, 부부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같이 대한다는 뜻"이라 하였다.

② 물질적 봉양과 정신적 공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행해야 하는 도리이다. 이것을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상부상조와 연결하여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효는 사회적 역할에 맞는 도덕적 행동으로 이름을 떨칠 때, 즉 입신양명으로 완성되는 것(2016학년도 6평 9번 ㄴ선지)이지, 상부상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③ 이는 부부 간의 관계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백년해로'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이라 풀이하였다.

④ 이는 군주와 신하 간의 관계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사군이충'은 세속 오계 중 하나이며,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긴다는 것이다.

⑤ 교육과정상 '불감훼상'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는 것으로서 효의 시작이다.

Tip 불감훼상과 입신양명 깊게 알아보기

- 불감훼상(不敢毁傷) : "효의 시작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 입신양명(立身揚名) : "효의 마침으로,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 드리는 것"

[미래엔 생윤 교과서]

17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수능]

○○에게

자네가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네. 살림살이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부모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지. 다만 자네가 어버이를 섬길 때 증자(曾子)를 본받았으면 하네. 증자는 아버지께 끼니마다 반드시 고기와 술을 차려 드렸다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아버지께 여쭈었고, 아버지께서 남은 음식이 있냐고 되물으시면 증자는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네. 증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핀 것이지. 그런데 증자를 봉양한 증자의 아들은 남은 음식이 있냐는 증자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지. 증자의 아들은 아버지께 다시 음식을 올리려 한 것이네. 증자의 아들은 입과 몸을 봉양한 것에 지나지 않고 증자는 뜻을 봉양한 것이라 할 수 있지. …(후략).

① 자식은 어버이가 가진 의중을 헤아려서 봉양해야 한다.
② 자식은 어버이의 옳지 못한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③ 어버이를 봉양하는 까닭은 자식에게 봉양받기 위함일 뿐이다.
④ 어버이를 섬기는 방식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달리해야 한다.
⑤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어버이보다 이웃을 더 배려해야 한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맹자』를 활용한 글인데, 이 글에서 읽어내야 하는 내용은 '양지(養志, 뜻을 봉양함)'에 관한 것이다. 이는 앞서 2014학년도 6평 ④에서 다룬 바 있으니 해당 문항 해설을 참고하기 바란다.

선지 설명

① 이 선지 문장이 바로 '양지'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 양지(養志) : "부모의 뜻을 헤아려 실천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미래엔 생윤 교과서]

②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이는 '간(諫)' 개념을 알면 판단할 수 있다.

> '간'한다는 것 : 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다. [표준국어대사전]

자식은 어버이가 잘못하면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간할 수 있다.

> 부모를 섬기되 부드럽게 간(諫)해야 하니, 부모의 뜻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서도 더욱 공경하여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으며, 힘들더라도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지학사 생윤 교과서]

③ 가상 편지에서 증자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봉양한 것이지, 자식에게 봉양을 받기 위해 봉양한 것이 아니다.
④ 가상 편지의 증자는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아버지께 끼니마다 반드시 고기와 술을 차려드렸다.
⑤ 가상 편지에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어버이보다 이웃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다.

Tip 가족 윤리 깊게 알아보기

가족 윤리	
가족 해체 극복 방안	•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식	• 불감훼상 :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 봉양 :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심 • 양지 :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림. • 공대 :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 대함. • 불욕 : 부모를 욕하게 하지 않는 것 • 입신양명 :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 드리는 것 • 혼정신성 : 아침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8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학년도 9평]

(가)	소인은 한가롭게 지낼 때는 거침없이 불선(不善)을 행하다가, 군자를 보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불선함을 가리고 선함을 드러낸다.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에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유교(공자)
(나)	몸과 마음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다. 마음 가운데 온갖 이치[理]가 갖추어져 있으니, 만약 한 가지 이치라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부모에게서 받은 것에 흠과 모자람이 있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서는 ㉠ 을/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신독(愼獨)' / 불감훼상(不敢毁傷) / 효(孝)

①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을 우선하여 이루어진다.
② 항상 동기간(同氣間)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인(仁)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④ 도덕적 수행을 통한 입신양명(立身揚名)에서 시작된다.
⑤ 상호 관계에서 성립하기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종료된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가)는 유교 경전 『예기』 「대학」의 글이다. (가)에서 중요한 대목은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에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부분이다. 이는 교육과정상 유교 사상의 중요 개념인 '신독(愼獨)'에 해당한다.

(나)는 효 윤리를 담고 있는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 「정가」의 글이다. (나)의 빈칸 ㉠에 들어갈 말은 '효(孝)'이다. 제시문 중 "부모에게서 받은 것" 및 "사람의 도리" 등을 언급하는 부분을 통해, 빈칸에 들어갈 말이 '효'임을 알 수 있다.

선지 설명

① 도표에서 '봉양과 양지' 파트를 읽어보아라.

> 물질적인 보답만이 효는 아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효심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다. [금성 생윤 교과서]
> 서로 항렬을 달리하는 종적(縱的)인 관계이다. 섬기는 일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가장 큰 섬김에는 물질적 봉양[養口體], 정신적 공경[養志],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입신양명(立身揚名) 등이 있다. 그러므로 양지(養志, 뜻을 봉양함)는 개나 말을 잘 먹여 기르는 것과는 다르다. [유교, 2019학년도 9평]
>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유교, 2014학년도 6평]

보은	부모의 희생에 대한 감사, 은혜를 갚음, 효의 근본
공경	공손히 섬김, 부모를 진심으로 공손히 섬기는 것이 효도다.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부모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라고 할 수 없다. (공손한 태도는 효를 실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봉양과 양지	봉양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잘 모시는 것을 말하며, 양지는 부모의 뜻을 잘 헤아려 실천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실천해야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다. 물질적 봉양은 효를 실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부모를 존경하며 정신적인 봉양과 양지를 실천해야 한다. 이때 필요조건인 이유는 물질적 봉양 없이 마음으로만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식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부모님은 어렵고 힘들게 사신다면 그것을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없다.

② 형제자매 간(동기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효의 일부이지만, 효가 '항상' 동기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동기간 : 형제자매는 부모의 기운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났다. [금성 생윤 교과서]

③ 교육과정상으로는 옳은 내용이다.

> 효도[孝]하고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悌]이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유교, 지학사 생윤 교과서]
> 유교 : 효가 덕스러운 행실[德行]의 근본이라고 본다.
> 효는 부모에 대한 보은(報恩)과 존경의 마음으로 모든 행실의 근본[百行之本]이다. [유교, 2014학년도 9평]

④ '입신양명'은 교육과정상에서는 효의 '시작'이 아닌 '마침'이다. 효의 시작은 불감훼상(不敢毁傷)이다.

> • 불감훼상(不敢毁傷) : 효의 시작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 • 입신양명(立身揚名) : 효의 마침으로,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 드리는 것 [미래엔 생윤 교과서]

⑤ 교육과정상 유교 사상에서 효는 부모가 돌아가시어도 종료되지 않는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땅한 도리로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2014학년도 9평]
> 효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실 때에야 비로소 종료된다.(×) [2015학년도 9평]
> 효는 조상에 대한 공경을 담은 전통적 제례(祭禮)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2016학년도 6평]

19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1학년도 9평]

혼례는 서로 다른 두 성(姓)의 남녀가 사랑으로 결합하여, 위로 조상을 모시고 아래로 후세를 이어 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 과정에서 남녀는 서로 경건하고 존중하며 정직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친밀한 사랑이 생긴다. 이것이 예(禮)의 본질이다. 부부유별 남녀의 구별[別]이 있으니 부부의 도리가 세워지고, 부부의 도리가 있으니 부자의 친근함이 있으며, 부자유친 부자의 친근함이 있으니 군신의 정당함이 있다. 군신유의

보 기

ㄱ. 부부의 도리는 모든 예의 근본이 된다.
ㄴ. 부부는 손님을 대하듯이 서로 공경해야 한다. → 상경여빈
ㄷ. 부부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ㄹ~~. 부부의 도리는 각자의 역할에 분별이 없어야 바르게 된다. → 부부유별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정답 ④

선지 설명

ㄱ. 어색한 정답, 연계교재와 예기에서는 '혼례(婚禮)가 예의 근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원은 '혼례(婚禮)'가 아니라 '부부의 도리'가 '모든 예'의 근본이라고 출제하였다. 학문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혼례는 부부가 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것이지만 부부의 도리는 주로 부부가 된 이후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제시문의 출처인 유교 문헌에서 혼례(婚禮)를 예(禮)의 근본으로 보는 이유는 혼인 이후에 효(孝), 친(親), 충(忠)이 온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혼례가 부부가 된 이후의 예(禮)들의 근본일 수는 있으나, '모든 예(禮)'의 근본이라고 할 근거는 없다. 이는 『예기』, 『예기정의』, 『역주 예기집설대전 혼의』 등 유교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며, 관련 내용을 학생들이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므로 교재에서는 생략한다.
학문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이 출제한 선지이므로 옳다고 암기하고 넘어가는 편이 수능 학습을 위해서는 적절할 것이다.

> 혼례(婚禮)라는 것은 장차 두 성(姓)이 좋게 합하여, 위로는 그것으로써 조상을 섬기고, 아래로는 그것으로써 후세를 잇는다. 공경하고 삼가며 바르게 한 뒤에 친하게 되는 것이 예의 근본정신이며, 남녀의 구별이 이루어져야 부부의 의가 확립된다. 남녀의 구별이 이루어져야 부부의 의가 있고, 부부의 의가 있어야 부자의 친함이 있게 되고, 부자의 친함이 있어야 군신의 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혼례가 예의 근본이다. [예기]

ㄴ. 전통 윤리에서는 부부는 서로를 손님 대하듯 공경해야 한다고 본다.

> 상경여빈(相敬如賓) :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지만, 부부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같이 대한다는 뜻 [비상 생윤 교과서]

ㄷ. 전통 윤리에서는 부부 관계를 음양론(陰陽論)에 근거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부부는 마치 '음과 양'과의 관계처럼,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 음양은 본래 '산기슭의 햇빛이 비추는 곳과 그늘진 곳'을 지칭하는 문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빛과 그림자의 관계다. 즉, 그림자가 있는 반대편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빛이 있는 반대편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음의 개념에는 이미 양이 전제되어 있고, 양에는 음이 전제되어 있는 상호 의존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음과 양의 두 개념은 서로의 존재를 조건 짓고 있는 것이다.
> [최영진,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2권』 (휴머니스트)]

ㄹ. 전통 윤리에서는 부부의 도리의 인륜적 측면에서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부부유별(夫婦有別)'을 오륜의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전통적인 부부 윤리에서는 남녀 간의 역할을 구별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였다.
> → 부부유별(夫婦有別)에서 별(別)은 '차별'이 아닌 '구별'로서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비상 생윤 교과서]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0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학년도 수능]

> 부부는 백성을 낳는 시작이며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 〈남편은 바깥채에 거처하며 안채의 일을 말하지 않고, 아내는 안채에 거처하며 바깥채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중하게 임하여 하늘의 건실한 도리를 실천하고, 아내는 부드러움으로 남편을 바로잡아 땅의 순응하는 도리를 실천한다면, 집안이 바르게 될 것이다. 〈부부가 서로 공경하여 집안이 화목하고 순조로워야 부모께서 편안하고 즐거우실 것〉이다. 유교

① 화목한 부부 생활은 효도의 한 방법이다.
② 부부는 서로 의존하면서 보완하는 관계이다. 상호보완 + 대등
③ 부부는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④ 부부의 의의는 세대를 계승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⑤ 부부의 관계는 옳고 그름이나 예절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에서 "부부가 서로 공경하여 집안이 화목하고 순조로워야 부모께서 편안하고 즐거우실 것이다." 라는 대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② 유교에서는 음양론에 따라 부부가 상호 보완적이고 대등한 관계임을 주장한다.

> 음양론 : 음은 '그늘', 양은 '햇볕'을 뜻하였으나 후에 점점 발전되어 음양은 우주의 두 원리 또는 원동력으로 간주되었다. 『주역』에서는 "음양이 서로 합일하여 만물이 화육되고 번영되며, 남녀의 정기가 결합되어 만물이 화생한다."라고 하여 음양이 상호 작용을 통해 만물이 생성된다고 보았다. [미래엔 생윤 교과서]

>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전통 사회에서 강조한 부부간의 윤리로 부부상경이 있는데, 이는 '음양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음양론에 따르면 음양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음양론의 교훈을 되살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엔 생윤 교과서]

③ 제시문에서 "남편은 바깥채에 거처하며 안채의 일을 말하지 않고, 아내는 안채에 거처하며 바깥채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④ 제시문에서 "부부는 백성을 낳는 시작이며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서술한 대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⑤ 제시문에서 "남편은 남편은 바깥채에 거처하며 안채의 일을 말하지 않고, 아내는 안채에 거처하며 바깥채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에서 추론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제시문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논하고 있다. 유교에서 말하는 부부 간의 도리에는 '상경여빈'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부는 예절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상경여빈 :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이지만, 항상 서로 공경하며 마치 손님을 대하듯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한다.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사회와 윤리

빠른 정답 3단원

01 직업과 청렴의 윤리

❶ 직업과 청렴의 윤리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③
06	⑤	07	④	08	①	09	②	10	⑤
11	④	12	⑤	13	⑤	14	③	15	①
16	③	17	①	18	⑤	19	④	20	②
21	④	22	⑤	23	②	24	④	25	⑤
26	⑤	27	①	28	②	29	①	30	④
31	①	32	③	33	①	34	②		

02 사회 정의와 윤리

❶ 니부어의 사회 정의론

01	③	02	⑤	03	④	04	③	05	④
06	④	07	⑤	08	⑤	09	⑤	10	⑤
11	④	12	⑤	13	②	14	④	15	⑤
16	⑤	17	④	18	①				

02 사회 정의와 윤리

❷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②
06	③	07	①	08	⑤	09	②	10	②
11	②	12	④	13	④	14	③	15	①
16	②	17	②	18	①				

03 사회 정의와 윤리

❶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01	①	02	④	03	③	04	④	05	⑤
06	③	07	④	08	②	09	①	10	③
11	④	12	⑤	13	③	14	②	15	①
16	④	17	④	18	②	19	④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3단원 01 직업과 청렴의 윤리

01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9평]

갑 : 자유 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을 : 기업은 그러한 목적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소외된 지역의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해.
갑 : 기업이 법을 준수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거야.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야.
을 : 그렇지 않아. 기업은 법의 준수 그 이상의 도덕적 의무가 있어.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기도 해.

① 기업은 경영 활동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③ 기업은 이윤 추구 활동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가?
④ 기업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⑤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가?

반대 찬성

정답 ⑤

제시문 설명

토론의 핵심 쟁점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풀이 방법을 명심하자.

> **– 유형 풀이 방법 –**
> 핵심 쟁점 독해도 갑과 을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각 논점을 정리하면 된다.
> 그중에서 갑과 을이 서로 대립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정답 선지로 출제된다.
> 갑과 을이 큰 사안에서는 동의하나, 세부 사안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세부 사안이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높다.
> 핵심 쟁점의 중요한 독해 포인트는 주로 을의 첫 번째 진술과 갑의 두 번째 진술에서 나타나는 갑과 을의 의견 대립 부분이다.
> e. g. '을 : 찬성(동의)합니다. 다만,~', '갑 : 아닙니다.~'

본 문항에서도 같은 부분에서 정답이 도출된다.
을의 첫 번째 진술 : 기업은 그러한 목적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소외된 지역의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해.
갑의 두 번째 진술 : 기업이 법을 준수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거야.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야.
*상세한 제시문 독해는 TIP에서 확인할 것

Tip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프리드먼 : 이윤 극대화 외의 사회적 책임 요구는 자유 시장 경제의 틀을 깨는 것임
애로우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필요함

Tip 제시문 독해 깊게 알아보기

〈주장+근거 분석〉

갑) 주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준법에 한정된다. 기업에게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근거 :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 주장 : 기업은 '장애인 고용, 소외 지역의 교육 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 기업은 준법 이상의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경우 기업 이윤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논점 분석〉

등장 배경	갑	을
논점1 : 준법은 기업의 의무인가?	○	○
논점2 : 기업은 준법 이상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가?	×	○

02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9평]

갑 :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 이행은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으며,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이다. 기업은 이익 추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기업의 어떤 행위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을 : 기업은 이익 증대를 위해 설립된다. 기업은 법과 해악 금지 원리의 준수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 소비자 등으로부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설립 목적을 실현할 기회가 많아진다.

보 기

ㄱ.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목적인가?
ㄴ. 기업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ㄷ. 사회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책임 이행은 시장에 해로운가?
ㄹ. 합법적 기업 행위는 사회에 해를 끼쳐도 허용되어야 하는가?

갑 : O, 을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선지 설명

	갑	을
ㄱ	○	○
ㄴ	○	○
ㄷ	○	×
ㄹ	○	×

갑은 기업이 이익 추구에 전념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모든 이윤 추구의 행위를 허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사회의 해를 끼치는 기업 행위라도 법을 준수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할 것이다. 또한 갑은 사회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책임 이행은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이라고 주장한다.

을 역시 기업은 이익 증대를 위해 설립되며,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지만, 갑과 달리 을은 해악 금지 원리의 준수와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까지 주장한다. 따라서, 을은 준법적 행위라도 사회에 해를 끼치는 기업 행위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을은 기업의 적극적 책임 이행은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어 기업이 그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Tip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나 국가 경제 발전과 경제 사회의 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고 그만큼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공공선의 달성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Tip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프리드먼의 견해

> 기업 경영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주주와 노동조합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견해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자유 경제의 성격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자유 경제에서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뿐인데, 이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만 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조합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 프리드먼은 기업에 이윤 추구 이외의 다른 사회적 책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 애로우(Arrow, K)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필요함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3

다음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수능]

기업의 주된 목적이 이윤 추구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전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들 없이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은 지역 복지 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음으로써 기업의 주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 기

ㄱ. 기업은 취약 계층의 삶의 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ㄴ. 기업은 사회로부터 얻은 이윤의 환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ㄷ. 기업은 사회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완결적 조직이어야 한다.
ㄹ. 기업은 이윤 증대를 위해서라도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선지 설명

ㄱ. 제시문은 '지역 복지 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곧 기업이 취약 계층의 삶의 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ㄴ. 제시문은 기업이 '지역 복지 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곧, 기업이 사회로부터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ㄷ. 제시문은 '기업은 전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들 없이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완결적 조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ㄹ. 제시문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기업의 주된 목적인 이윤 추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는다면, 기업의 이윤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Tip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미 : 기업 활동을 하면서 환경 경영, 윤리 경영, 사회 공헌, 노동자 복지, 지역 사회 기여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활동하는 것

요구 이유
– 기업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진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

04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기업 활동에 대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6학년도 6평]

사회악의 근원을 개인의 이기심에만 돌리는 것은 진부한 처방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성취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 이윤 추구의 경쟁이 제한되는 비합리적인 관행은 타파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결국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다.

① 기업의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지되어야 한다.
② 기업에 대한 평가는 과정보다 결과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③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비합리적 관행은 인정되어야 한다.
④ 기업의 이윤 추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때 보장되어야 한다.
⑤ 기업의 합리적인 활동에 의한 최대 이윤 추구는 보장되어야 한다.

Tip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저녁 식사를 먹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업자, 양조업자 및 제빵업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적이익 추구 동기 때문이다. …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본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는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얼마나 증진하고 있는가를 알지도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주장 :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 방법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근거 : 합리적 방법을 통한 이윤 추구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공정한 경쟁의 제한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은 사익 추구를 긍정한다.
② 제시문은 공정한 경쟁 과정을 중시한다.
③ 제시문은 기업의 비합리적 방법을 부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 추구는 합리적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④ 제시문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⑤ 제시문은 기업이 합리적인 활동을 통해 최대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Tip 기업의 이윤 추구

애덤 스미스
–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짐 → 사회 전체에 큰 이익
– 개별 이익의 극대화 → 공공의 편의나 사회적 부의 극대화

밀턴 프리드먼
–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소유주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 기업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 사회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음

05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9평]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법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여 수익을 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를 향한 기업인의 선의가 사회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기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경영을 통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인권, 환경 등의 개선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공익 증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목적인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학자의 견해가 [㉠]고 생각한다.

① 기업의 책임과 주주들의 이익 증진은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기업의 이윤 추구와 공익이 양립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공동선의 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④ 기업의 공익 활동이 기업 경쟁력 상실의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⑤ 합법적인 경영이 합리적인 이윤 추구의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정답 ③

선지 설명

'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학자'가 '강조'하고 있는 견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의 근거와 같다. 즉 서술어가 '강조하고 있다'로 끝나는 선지 ①, ②, ④가 옳은 선지가 되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① '어떤 학자'는 기업의 사회적 확대가 기업의 이익 증대와 이를 통한 주주들의 이익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② '어떤 학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가 공익 증진과 기업의 이윤 증대 모두에 도움이 됨을 주장하고 있다.
③ 제시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제시문은 기업이 공익 증진을 의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사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반면, 제시문이 비판하는 학자는 기업이 인권, 환경 개선 등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④ '어떤 학자'는 기업의 공익 활동을 통해 기업이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학자'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학자'에 대한 '나'의 비판점이기 때문에, 옳은 선지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판점이 선지 ③, ⑤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⑤ '나'와 '어떤 학자' 모두 법을 준수하는 합법적 경영과 이를 통한 이윤 추구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6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6학년도 수능]

갑 : 기업은 기업 활동을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한정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을 : 기업은 주주, 소비자, 지역 사회 구성원 등과 같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병 : 기업은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갑 : 기업은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② 을 : 기업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차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병 : 기업은 ~~항상~~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갑~~, 을 : 기업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외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⑤ 을, 병 : 기업은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할 책임을 가진다.

상황에 따라 주주의 이익 우선적으로 고려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갑은 기업은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기업이 투자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③ 병이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는 '항상'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이다.
④ 갑은 기업이 오직 이윤 극대화의 책임만을 지닌다고 보는 반면, 을은 소비자나 지역 사회 구성원 등과 같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을과 병 모두 기업이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병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을 인정한다.

07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17학년도 9평]

(가) 내부 고발은 조직의 도덕적 혹은 법률적 과오를 막으려는 구성원의 행동으로, 과오에 대한 조직의 자체적 개선이 좌절될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내부 고발은 조직에 끼치는 당장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나) 내부 고발은 조직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조직의 운영과 결속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한다면 조직의 문제는 반드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보 기

ㄱ. 구성원은 조직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ㄴ. 내부 고발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함을 간과하고 있다.
ㄷ. 내부 고발~~만~~이 조직의 비리를 해결하는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ㄹ. 고발자가 내부 고발의 단기적 피해를 감안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선지 설명

ㄱ. (가)과 (나) 모두 구성원이 조직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갑은 내부 고발이 장기적으로 볼 때 조직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 반면, 을은 내부 고발이 조직에 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ㄴ. (나)는 내부 고발은 조직의 이익에 악영향을 준다고 단언하고 있는 반면에, (가)는 내부 고발이 당장의 피해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ㄷ. (가)는 내부 고발만이 조직 비리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가)는 내부 고발이 과오에 대한 조직의 자체적 개선이 좌절된 이후 사용하는 수단으로 제시한다. (나)는 내부 고발은 조직에 대한 의무 위반이며, 조직의 비리는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주장한다.
ㄹ. (가)는 내부 고발은 조직에 단기적으로 끼치는 피해를 감수하고, 장기적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자가 내부 고발의 단기적 피해를 감안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08

다음 제시문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9평]

"기업은 자유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은 시장 실패를 통해 그 부당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대표적 사례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의 핵심은 환경오염의 처리 비용을 당사자인 기업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미래 세대 같은 제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잘못입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의 책임은 해당 기업이 져야 합니다. 설령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기업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① 기업은 외부효과 방지를 위해 이윤 극대화 활동에 전념해야 하는가?
② 기업은 깨끗한 공기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책무를 인정해야 하는가?
③ 기업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④ 기업은 공공선을 위해 이윤 추구에 대한 제약을 승인해야 하는가?
⑤ 기업은 시장 실패가 지역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정답 ①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은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기업이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의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 외부효과 :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 소비 ·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채로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이나 생활에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 이때 이익을 주는 긍정적 효과를 외부 경제, 손해를 끼치는 부정적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네이버 어학사전]

② 제시문은 환경 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하여 기업이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③ 제시문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처리 비용을 미래 세대가 짊어진다는 사실에 문제 의식을 제기한다.
④ 제시문은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공공선을 위해야 함을 강조한다.
⑤ 제시문은 시장 실패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반 시민 및 미래 세대가 부담한다는 점을 언급하여 기업이 아닌 지역 사회가 부담한다고 지적한 후, 이는 옳지 않은 현상이라고 역설한다.

09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0학년도 9평]

갑 : 기업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 차원에서 공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한다. 그러한 기업은 소비자 불매 운동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헌신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보 기

		갑	을
ㄱ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갑 : 기업은 공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함 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며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	×	×
ㄴ	기업은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경영되어야 하는가?	○	○
ㄷ	기업은 공익의 증진을 본질적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갑 : 경영 전략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을 :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에 기여	×	×
ㄹ	기업은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갑 : 경영 전략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갑 : 기업의 포괄적인 사회적 책임 강조
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법과 이익 극대화로 한정

선지 설명

ㄱ. 갑은 '공익 증진'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며, 을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며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본다.
ㄴ, ㄹ. 갑과 을 모두 자유 시장 경제 원리를 인정한다. 다만, 갑의 경우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공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을과 차이가 있다.
ㄷ. 갑은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 증진'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을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며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 의도하지 않게 공익에 기여한다고 본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0

다음 신문 칼럼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수능]

신문 칼럼

기업은 고용인(雇傭人)*과 고용주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계약 관계로 유지된다. 기업의 결속력도 서로의 이윤 창출을 위한 행위에 의해 생길 뿐이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충성까지 구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해치는 기업의 행위를 알게 된 고용인이 이를 사회에 알리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사회는 고용인에게 기업의 불법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외부에 적극 알려야 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인은 특정 조직에 속한 개인인 동시에 정의롭고 행복하게 유지되어야 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고용인(雇傭人) :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① 고용주는 기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② 고용인과 고용주는 상호 협력과 결속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③ 고용인은 고용주에 대한 신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
④ 조직에 충성하거나 포기한 고용인은 그 조직에서 떠나야 한다.
⑤ 고용인은 조직에 대한 책무와 함께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② 제시문은 기업은 고용인과 고용주가 서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계약 관계로 유지된다고 본다. 고용인과 고용주의 결속력은 서로의 이윤 창출을 위해 발생하며 유지된다.

③ 제시문은 고용주는 고용인의 충성까지 구매할 수는 없으며, 사회 정의를 해치는 기업의 행위를 고용인이 알게 되면 사회에 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④ 제시문은 고용인이 기업 조직에 대한 충성으로 조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과 고용주 서로의 이윤 창출을 위해 기업 조직에 속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⑤ 제시문은 고용인이 특정 조직에 속한 개인인 동시에 정의롭고 행복하게 유지되어야 할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기업의 불법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외부에 적극 알려야 할 의무를 사회에 대해 지닌다고 본다.

Tip 캐롤(Carroll)의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 경제적 책임 :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적절한 가격의 판매
- 법적 책임 : 기업이 법을 지키며 경제 활동
- 윤리적 책임 :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 준수
- 자선적 책임 : 기부 행위, 사회 복지 시설 운영 등 사회의 공익을 위한 활동

11

갑, 을 사상가의 직업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학년도 9평]

갑 :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하나의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 서로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플라톤

을 : 농부는 밭일에 정통하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며 공인(工人)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는 없다. 관리는 이 일들을 하나도 못하지만 예(禮)에 정통하기에 이 일들을 다스릴 수 있다. →순자

보 기

ㄱ. 갑은 모든 직업에 대한 개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중시한다.
ㄴ. 을은 각자의 직업 활동에서 전문성의 발휘를 중시한다.
ㄷ. 갑, 을은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을 강조한다.
ㄹ. 갑, 을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순자이다. 직업관에서 이 둘을 비교하는 구도는 이후 2015학년도 수능 11번 문항에서 다시 등장한다.

선지 설명

ㄱ. 플라톤은 사회를 이루는 계층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ㄴ. 제시문을 보면 순자는 농부, 상인, 공인, 관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정통하다고 하였다.

ㄷ. 제시문을 보면 플라톤은 각 계층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 역할이 정해져야 한다고 하고, 을은 농부 · 상인 · 공인이 제 역할을 벗어난 다른 역할('지도하는 관리')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ㄹ. 제시문을 보면 플라톤은 각자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이루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고, 순자는 농부 · 상인 · 공인 · 관리 각자가 자신이 정통한 일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12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수능]

(가) 인간의 노동은 본래 자연 세계를 변형하는 주체적, 자율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결국, 노동자의 노동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 된다. → 마르크스

(나)

영화 '모던 타임즈'의 주인공인 찰리는 조립 라인에서 나사를 조이는 단순 작업만을 반복한다. 여기서는 인간의 노동을 중심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되고 파편화된 인간의 노동이 기계의 동작에 맞춰진다.

①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분업을 강화해야 한다. → 마르크스 : 분업 폐지 주장
②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③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여 사유 재산의 축적을 추구해야 한다. → 마르크스 : 사유 재산 철폐 주장
④ 신이 부여한 노동의 신성한 의미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 칼뱅
⑤ 자발적 노동을 통해 노동의 본래적 가치의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 → 마르크스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마르크스에 따르면 분업은 노동의 소외를 가져온다.
② 마르크스는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③ 마르크스는 사유 재산의 축적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여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마르크스가 아니라 칼뱅의 주장에 해당한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비판한다.
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이 생산 수단에 종속되어 노동 소외가 발생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노동에서 벗어나, 이상적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발적인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본래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자의 돌 COMMENT

마르크스는 인간 종의 본질을 노동에서 찾았어. 그리고 창조적이며 자발적인 노동 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어. 그런데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적 노동(종속된 노동, 분업화)과 자발적인 노동(공산 사회, 자아 실현)을 구분해서 봐야 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은 비판하지만, 자발적인 노동은 긍정적으로 보았어.

1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갑 : 청렴은 목민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임무이며 모든 덕(德)의 원천이다. 청렴한 자는 청렴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도 이를 이롭게 여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비는 청렴을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보배로 삼는다. → 정약용

을 : 통치자는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며 군인처럼 공동으로 생활해야만 한다. 또한 세상의 금은을 탐해서도 호화로운 집에 기거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오직 자신과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 데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 플라톤

보 기

ㄱ. 갑은 공직자의 업무 처리에서 공정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ㄴ. 을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서 공사(公私)의 구별을 강조한다.
ㄷ. 갑, 을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중시한다.
ㄹ. 갑, 을은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자기 절제(節制)를 강조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은 정약용이고 을은 플라톤인데, 이 문항은 사상가를 모르더라도 독해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각 사상가에 해당하는 제시문과 선지를 이 문제에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한다.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는 매해 입시에서 변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지 설명

ㄱ. 갑 제시문에 의하면 청렴은 공직자에게 있어서 '모든 덕'의 원천이다. '청렴'이 제일 중시되는 것이므로, 이보다 더 중시되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본 선지가 오답 선지임을 추론할 수 있다. 보다 확실하게 판단하려면 교과서를 참고할 수도 있다. 비상교육 교과서 87쪽에서 '청렴'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공정한 절차를 무시할 경우 사람들 간의 믿음이 사라짐'을 들었다. 이는 '청렴'이 '공정성'을 포함함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같은 교과서 페이지에서 정약용의 말을 인용하여 "청렴이라는 것은 목민관의 근본이 되는 의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라 하였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ㄴ. 정약용은 공직자(목민관)이 지켜야 할 임무로 청렴을 꼽았다. 또한 플라톤은 공직자(통치자)가 사유 재산을 가지면 안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약용과 플라톤 모두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서 공사의 구별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ㄷ. 을 제시문을 보면 정약용은 청렴을, 플라톤은 정의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 모두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걸맞은 것이다.

ㄹ. 제시문을 보면 정약용은 청렴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하고, 플라톤은 통치자가 금은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자기 절제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ip 정약용의 공직 윤리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적이라 욕하며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청렴은 큰 장사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자 한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몰래 하지 않겠는가마는 밤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선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신세지는 정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움이 행해진 것이다. – 정약용 –

▶ 정약용은 공직 윤리로서 청렴을 강조하였다. 그는 공직자라면 대탐(大貪)을 지녀야지 조그만 이익에 얽매여 소소한 뇌물을 받거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참된 자신의 욕구가 중간에 좌절하고 마는 그러한 불행을 맞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14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학년도 6평]

○○신문 ○○○○년 ○○월 ○○일

기업가의 바람직한 자세

최근 들어 일부 기업가들이 탈세, 회계 조작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어느 사상가가 주장한 '자본주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정신'은 칼뱅의 예정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을 본받아 기업가들은 [㉠] …(후략)…

① 정직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② 사치와 낭비 대신에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
③ 부의 축적을 지양하고 재산의 사회 환원을 추구해야 한다.
④ 신성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⑤ 배금주의가 아니라 소명의식에 입각하여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입장 : 기업가의 바람직한 자세

현자의 돌 COMMENT

윤리적인 기업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칼뱅의 직업관, 베버의 직업관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제시문은 기업가의 바람직한 자세로 '자본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이 칼뱅의 예정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칼뱅은 직업과 일을 인간의 삶과 분리할 수 없다고 보며, 항상 절제, 근면, 성실, 검약하는 금욕적인 생활 태도로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뱅은 이러한 금욕적 삶을 통해 직업적 성공을 얻는 것을 긍정하였다. 베버는 칼뱅이 주장한 프로테스탄트적인 금욕주의 윤리가 부의 획득을 죄악시한 이전의 전통 윤리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킴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선지 설명

① 칼뱅,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원을 두는 자본주의 정신은 각 개인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정신적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본주의 정신은 정직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자세를 강조한다.

② 칼뱅,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원을 두는 자본주의 정신은 그리스도교 내에서 물질적인 부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정신은 직업노동을 금욕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사치와 낭비 대신에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③ 제시문 분석에서 설명했듯이, 칼뱅,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원을 두는 자본주의 정신은 금욕적 삶을 통해 직업적 성공을 얻는 것을 긍정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정신이 부의 축적을 지양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칼뱅,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원을 두는 자본주의 정신은 직업이 소명(신의 부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신의 영광을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직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긍정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정신은 신성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⑤ 칼뱅,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원을 두는 자본주의 정신은 직업노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욕구의 충족이나 일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신의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자본주의 정신은 배금주의(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돈 모으기에 두는 경향이나 태도)가 아니라 소명의식에 입각하여 직분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한다.

15

갑, 을 사상가의 직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학년도 6평]

갑 : 왕공의 자손이라도 예(禮)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에 편입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 예에 합하면 재상에 올린다. →순자

을 : 사농공상(士農工商)에 관계없이 놀고먹는 자는 관에서 벌칙을 내려야 한다.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비록 농사꾼의 자식이 벼슬길에 올라도 분수에 넘치는 것이 아니다. →홍대용

① 갑은 사회적 역할 분담에 있어 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을은 선비가 육체노동을 피하고 학문에 전념할 것을 강조한다.
③ 갑은 을과 달리 후천적 노력보다 타고난 능력을 중시한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세습적 신분에 따라 직업을 정할 것을 강조한다.
⑤ 갑, 을은 사회 분업의 폐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한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갑은 순자이다. 을은 홍대용인데 현 교육과정상에서는 '실학' 사상가로 규정된다.

선지 설명

① 갑 제시문을 보면 순자는 '예'에 합하는지의 여부로 서민이냐 재상이냐를 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본 선지는 옳은 것이다.

② 을 제시문을 보면 홍대용은 '사농공상'에 관계없이 놀고먹는 자는 벌한다고 하였다. 선비라고 해도 놀고먹는 자라면 학문에 전념하도록 하지 않고 육체노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홍대용은 높은 벼슬아치의 자제라도 노비로 돌릴 수 있다고 하였다.

③ 제시문을 보면 순자는 '예에 합할' 것을 강조하므로 후천적 노력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은 타고나기를 서민의 자손으로 태어나더라도 재상에 오르려면 학문과 품행을 잘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④ 을 제시문 중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비록 농사꾼의 자식이 벼슬길에 올라도 분수에 넘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보면, 홍대용도 세습적 신분에 따라 직업을 정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제시문을 보면 서민과 재상, 농사꾼과 벼슬아치의 구분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자와 홍대용 모두 분업의 폐지를 주장하는 관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Tip 유교의 직업관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은 구분된다. 한 사람의 몸에도 여러 장인들이 만든 것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게 된다.

[『맹자』]

사람들의 직분을 분명히 하고, 하는 일에 질서를 마련하며, 재능과 기술을 따져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벼슬을 주어야 한다. 사람들의 여러가지 일은 귀와 코와 입이 서로 기능을 빌려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은 농사를 짓고, 상인은 장사를 하고, 공인들은 힘써 일하며, 사대부는 직무를 나누어 일하고, 제후들은 땅을 나누어 지키며, 천자의 삼공은 정책을 총괄하여 논의하면 천하는 잘 다스려지지 않을 수 없다.

[『순자』]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6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9평]

갑 :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는 노동의 본질이 왜곡된다. 노동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노동 소외, 인간 소외)

을 : 인간은 구원을 예정해 놓은 신의 부르심[召命]에 노동을 통해 응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여러가지 삶의 양식(樣式)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보 기

ㄱ. 갑은 인간 소외의 극복을 위해 사회적 분업을 강조한다.
ㄴ. 을은 노동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ㄷ. 갑은 을과 달리 노동을 통한 사유 재산 축적을 중시한다.
ㄹ. 갑, 을은 노동이 가진 생계 수단 이상의 가치를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선지 설명

ㄱ. 마르크스는 사회적 분업이 인간 소외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적 분업은 인간을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ㄴ. 칼뱅은 직업을 이웃 사랑을 위한 터전으로 보며, 노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강조한다.

ㄷ.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유 재산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서 생산 노동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수행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 사회를 주장하였다.

> 자본주의에서 사유 재산은 소외된 인간 생활의 표현이다. 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면 모든 소외가 지양되어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마르크스, 2016학년도 수능]

ㄹ. 노동의 가치를 마르크스는 인간의 자아실현, 칼뱅은 신의 부름으로 본다.

17

갑, 을 사상가의 직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학년도 수능]

갑 : 누구나 (성악설) 본성적으로 이익만 좋아하기에 쉬운 일만을 원하고, 힘든 일을 싫어한다. 그래서 도(道)에 정통한 군자는 사람들마다 가볍고 무거움을 나누어[別] 서로 어울리게 한다. → 순자

을 : 각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각자가 폴리스에서 자신의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여럿 아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플라톤
(적성과 능력 고려 → 조화 → 정의)

① 갑은 백성들의 직업 활동이 욕망 충족과 무관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을은 각자의 덕을 발휘하여 국가 공동체에 헌신할 것을 강조한다.
③ 갑은 직업 분담에서 예(禮)를, 을은 각자의 타고난 성향(→ 타율성)을 중시한다.
④ 갑, 을은 사회적 분업을 토대로 한 사회 질서 유지를 중시한다.
⑤ 갑, 을은 구성원 각자가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한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갑은 예를 강조한 유교 문헌인 『순자』에서 온 글이다.

> • 순자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며 욕망의 존재라고 보았으며, 예(禮)를 통해 이를 적절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천재 생윤 교과서]
> •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예(禮)를 중시하였다. [지학사 생윤 교과서]

을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각자가 타고난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 땅을 가꾸어 북돋우고 물을 뽑아 곡식을 심으며 거름을 많이 하여 논밭을 걸게 함은 바로 농부와 모든 백성이 하는 일이다. 때를 지켜 백성이 힘쓰도록 독려하고 사업을 촉진해 그 이득의 성과를 크게 하며 백성들을 고루 화합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게 함은 바로 장솔(將率 : 사람을 거느리는 자)이 하는 일이다. [순자, 『순자』]
> 농부가 한 사람, 집 짓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직물을 짜는 사람이 있어야 하네. 혹시 우리는 여기에다 제화공이나 아니면 신체와 관련되는 것들을 보살피는 또 다른 사람을 보태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최소한도의 나라'는 다섯 사람으로 이루어지겠네. 우리 각자는 서로가 그다지 닮지를 않았고,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저마다 다른 일에 매달리게 될 것이네. [플라톤, 『국가』]
> ▶ 분석) 제시문에서 순자와 플라톤은 직업을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직업을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미래엔 생윤 교과서]

선지 설명

① 순자에 따르면, 백성들의 직업 활동은 욕망을 적절히 충족해주는 예(禮)와 관련이 있다. 순자에게 예(禮)라는 것은 사람들의 욕구를 조절하여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② 플라톤은 국가의 세 계급, 즉 통치자 계급, 방위자 계급, 생산자 계급이 각자의 사회적 직분에 맞는 덕을 발휘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의 '덕'은 아래의 선지 ③에 쓰인 '탁월성'과 같은 개념이다.

③ 순자와 플라톤은 직업에 있어서 모두 '분담'을 강조한다. 순자는 예법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신분을 나누고 각자의 분수를 확정하는 사회 분업을 주장한다. 플라톤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3개의 계층이 각자에게 요구되는 타고난 성향의 탁월성(지혜, 용기, 절제)을 발휘하는 것을 중시한다.

④ 앞서 선지 ③ 해설에서 언급하였듯 순자와 플라톤은 사회적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적 '분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 군자는 이미 그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귀천과 장유의 등급과 차이를 구별하기를 좋아하였다. 무엇을 구별하는 것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귀천에는 등급이 있고, 장유에는 차이가 있는데, 빈부, 경중에 모두 걸맞음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순자, 『순자』]

> 정의는 각자가 자기의 성향에 가장 맞는 국가와 관련된 일 한 가지에 종사하며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곧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다. … 철학자들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한,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인류 전체에서 악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플라톤, 『국가』]

⑤ 순자의 경우 '예'에 의해 역할을 분담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플라톤의 경우 타고난 능력에 의해 정해진 각 계층의 직분을 충실히 행할 것을 강조한다.

18

다음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6평]

- 인정(仁政)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경계를 바로잡으면 토지를 바르게 분배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다. 백성들에게도 토지를 바르게 지급하면 나라가 기름지게 될 것이다.
-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대인(大人)이 하는 일이 있고 소인(小人)이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기 마련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맹자

보 기

ㄱ. 직업 선택은 능력보다 선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ㄴ.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ㄷ. 통치자는 구성원의 생계유지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ㄹ. 개인의 노동은 사회 구성원들의 윤택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유교의 맹자 사상을 담은 글이다. 비상 생윤 교과서 83쪽에서 맹자에 대해 "사회적 분업과 직업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조하였다."라고 설명하고, 『맹자』를 인용하여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교과서 104쪽에서는 "공자와 맹자는 …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공정한 재산의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하였다.

> 맹자(○) : 직업에는 대인과 소인의 역할 분담이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2018학년도 수능]

대인(=노심자(勞心者))은 마음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통상 선비를 가리키며, 소인(=노력자(勞力者))은 힘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통상 일반 백성을 가리킨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勞心],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勞力]. [맹자, 2018학년도 수능]
- 힘을 쓰는 노력자(勞力者)와 마음을 쓰는 노심자(勞心者) 역시 각자의 수고로움으로 서로 기여한다. [맹자, 2019학년도 9평]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恒心]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비밖에 없다. 백성의 경우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게 된다. 일정한 마음이 없게 되면 성급하게 변하여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죄를 짓게 한 뒤에 쫓아가서 형벌을 가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로 쳐서 잡는 것과 같다. 훌륭한 임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임금은 백성의 생업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한 뒤에 백성을 인도하여 선(善)에 이르도록 한다면 백성은 이를 따를 것이다. [맹자, 『맹자』]

선지 설명

ㄱ. 맹자는 직업 선택이 능력보다 선호에 의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ㄴ. 두 번째 제시문에 나타나 있듯이, 맹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리는 일을 해야지 농사 짓는 일을 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맹자에 따르면 천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분업이 필요하다. 맹자가 대인이 하는 일과 소인이 하는 일을 구분한 것도 역시 분업의 필요성을 논하는 대목이다.

ㄷ. 맹자는 군자가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준 뒤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선(善)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맹자는 통치자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토지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백성들에게도 토지를 바르게 지급하여 백성의 생업(생계유지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ㄹ. 두 번째 제시문을 보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기 마련'이라 하였다. 즉, 맹자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이 각자의 분업 노동을 통해 서로의 삶에 이바지하게 된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학년도 9평]

갑 : 선왕(先王)이 예의(禮義)를 제정한 것은 백성들에게 구별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농부는 밭을 갈고, 상인은 물건을 팔며, 사대부는 정무(政務)를 담당한다. 순자

을 : 신(神)은 만사(萬事)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소명(召命)을 지정하였다. 우리는 신의 축복에 의해 양육되고, 우리의 노동도 신의 축복에 의해 번창한다. 칼뱅

① 갑은 재화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는 동시에 절제할 것을 강조한다.
② 을은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한 직업 생활을 강조한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인위적 규범(예)에 따른 직분의 구별(별)을 주장한다.
④ 을은 갑과 달리 부의 축적이 직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⑤ 갑, 을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됨을 주장한다. (순자와 칼뱅 모두 사회적 분업을 긍정한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은 순자이다. 순자는 예(禮)에 의해 각자가 갖게 되는 직분을 중요시한다. 순자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천하게 태평해진다. 을은 칼뱅이다. 칼뱅에 따르면 직업은 '신의 거룩한 부름', 즉 신의 소명이다. 칼뱅은 직업적 성공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신의 축복이라고 본다.

선지 설명

① 순자는 욕망 그 자체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물론 무한으로 치닫는 욕망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도 않는다. 순자에 따르면 이러한 욕망을 절제하고 합리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더불어 사회의 조화로운 평화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순자는 재화에 대한 인간 개인의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절제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자의 돌 COMMENT

순자는 재화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인정했지만, 욕망을 그대로 따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절제를 해야 한다고 보았어. 그리고 직업을 통해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고,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는 단어의 어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② 칼뱅에 따르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각자 맡은 바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검소하고 금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③ 직분의 구별에 대해 순자는 선왕의 인위적인 제정(예, 禮)에 의한 것으로 보고 칼뱅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소명, 召命)으로 보았다.

④ 순자와 칼뱅 모두 부의 축적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특히 칼뱅의 입장은 지학사 교과서 82쪽의 "이러한 칼뱅의 직업관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정당화하였다."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축적이 '궁극적 목적'인 것은 아니다. 칼뱅의 입장에서 직업의 궁극적 목적은 '소명'이다.

⑤ 미래엔 생윤 교과서 88쪽에서 순자에 대해 "직업을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하고, 칼뱅에 대해 "직업을 소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신이 사람들에게 각자 맡아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하였다.

> 우리는 신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의 부르심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함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명하였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께서 정해 주신 초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
> [칼뱅, 『기독교 강요』]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수능]

갑 : 자본주의 정신과 문화는 지속적, 체계적, 현세적인 직업 노동을 최고의 금욕 수단으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에서 태어났다. 이 정신이 자본주의 윤리의 기초이다. 베버

을 : 자본주의에서 사유 재산은 소외된 인간 생활의 표현이다. 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면 모든 소외가 지양되어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마르크스

① 갑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세속적 삶을 위해 부(富)를 지향한다고 본다.

② 을은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노동을 통한 자본의 형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필요에 따른 분배가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본다.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⑤ 갑, 을은 노동의 분업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마르크스 : 분업의 철폐 주장

정답 ②

선지 설명

① 베버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세속적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동기에 의해 부(富)를 추구한다고 본다. 제시문에서도 '현세적인 직업 노동을 최고의 금욕 수단으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에서 태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마르크스는 인간이 진정한 노동을 통해 자기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는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생산 수단에 종속된 일종의 도구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은 자발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인간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베버는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을 부정하지 않는다. 베버는 신의 소명과 예정에 입각해 노동을 통한 이익 추구의 경제활동을 정당화하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④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에서 개인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능력에 따른 노동, 필요에 따른 분배'는 각 노동자가 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킨다고 본다.

⑤ 마르크스가 동의하지 않을 선지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의 분업을 인간 소외의 원인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노동의 분업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베버의 경우에는 노동 분업이 인간 소외를 극복하는 수단이라고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 선지는 마르크스가 확실하게 틀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는 선지이다. 베버의 인간 소외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우리는 해당 선지에 대한 베버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갑 :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향락과 낭비를 막는다. 이러한 금욕으로 인해 재화의 획득이 구원의 증표로 정당화되었다. 금욕을 바탕으로 한 영리 활동이 근대 기업가의 소명이라면, 노동은 근대 노동자의 소명이다. 베버

을 :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씀씀이를 줄이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 신하는 먼저 맡은 직분을 경건히 수행하고 녹봉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유교

정명사상

칼뱅 : 노동은 근대 노동자의 소명이다.

① 갑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② 갑은 금욕적 태도와 자본주의 정신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③ 을은 직업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각자가 자기의 직분에 충실할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부의 축적의 궁극적인 정당화 근거를 금욕에서 찾는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은 베버이다. 베버는 근면과 절약, 절제, 금욕 등과 같은 기독교 정신이 서구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을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 사상을 주장한 공자이다.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고 본다.

선지 설명

① 베버는 직업 활동을 통한 부의 추구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라고 보며, 노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베버는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② 베버는 노동을 통한 부의 추구와 근검절약은 합리적 자본주의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다. 즉 근검절약이라는 금욕적 태도와 자본주의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③ 제시문을 보면 "신하는 먼저 맡은 직분을 경건히 수행하고 녹봉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녹봉'이라는 개인의 이익 추구는 우선시될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유교의 입장이 직업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본 선지의 '최대한의 이익'이라는 것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뜻하는 말인지, 나라/백성을 위하는 공익을 뜻하는 말인지가 다소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다음의 선지 ④가 비교적 더 적절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③으로 골라서는 안 된다.

④ 선지들 중 가장 적절한 것이다. 제시문을 보면 임금과 신하가 자기의 직분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유교의 경우 부의 축적의 궁극적인 정당화 근거를 금욕에서 찾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22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수능]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적이라 욕하며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청렴은 큰 장사[賈]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자 한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몰래 하지 않겠는가마는 밤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선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신세지는 정[恩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움[私]이 행해진 것이다. 정약용

① 청렴은 목민관의 어떤 과오도 면책시켜 주는 지혜로운 덕목이다.
② 청렴한 목민관에게 청백리(淸白吏) 칭호는 관직 상승의 수단이다.
③ 포부가 원대하고 지혜로운 목민관은 부패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④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청탁(請託)은 가능하다.
⑤ 목민관의 청렴은 애민(愛民)과 봉공(奉公)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일부를 발췌한 제시문이다. 정약용은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는 부패 행위를 방지하여 사회 구성원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목민심서〉에서 청렴(淸廉)을 강조하였다. 이 문항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제시문 독해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선지 설명

① 정약용은 청렴을 목민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으로 간주하였지만, 청렴이 목민관의 어떤 과오도 면책시켜 준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용을 제시문에서도 찾을 수 없다.

② 청백리(淸白吏)는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마음이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로 검소하며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공직자를 의미한다. 정약용은 청백리 칭호가 관직 상승의 수단이 아니라, 청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일에 충심을 다하려는 정신을 상징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제시문에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자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즉, 제시문에 따르면 포부가 원대하고 지혜로운 목민관은 청렴하고자 하지 부패를 저지르고자 하지 않는다.

> 청렴은 목민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임무이며 모든 덕(德)의 원천이다. 청렴한 자는 청렴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도 이를 이롭게 여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비는 청렴을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보배로 삼는다.
>
> [정약용, 2014학년도 수능]

④ 제시문에서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적이라 욕하며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선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신세지는 정[恩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움[私]이 행해진 것이다." 등의 구절이 있다. 즉, 제시문에 따르면 청탁은 백성들의 원성을 초래하며, 사사로운 청탁은 백성들의 원성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것이다.

정약용(O) : 작은 선물이라도 사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2022학년도 수능]

⑤ 애민(愛民)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봉공(奉公)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나아가 국가의 공사(公事)를 우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약용은 관직에 나아가 개인적인 이익과 출세만을 추구하지 않고 백성을 함께 하는 정치를 시행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정약용(O) : 공직자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진심으로 봉사해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정약용(O) : 공직자의 절용 실천은 애민(愛民) 정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023학년도 9평]

정약용(O) : 애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절용과 청렴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2022학년도 수능]

2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6평]

갑 : 노동을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 영리 추구와 결합하고 금욕적 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베버

을 :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 마르크스

노동 소외, 인간 소외

① 갑은 청교도가 노동을 신의 명령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② 갑은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청교도 : 부의 축적을 구원의 징표로 간주

③ 을은 자본주의의 노동 분업이 노동 소외의 원인이라고 본다.

마르크스 : 분업 폐지 강조

④ 을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마르크스 :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자아실현 가능

⑤ 갑은 소명 정신, 을은 노동 착취를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본다.

Tip 칼뱅주의에서 '구원'의 시점

칼뱅주의에서 구원이 '태어날 때 결정'된다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틀린 설명이다.

왜냐하면 칼뱅주의에서는 구원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 즉 태초부터 예정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 칼뱅주의에서는 신(하나님)이 태초부터 프로테스탄트의 구원을 예정하였다는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정답 ②

선지 설명

① 베버는 청교도가 노동을 신이 내린 명령(소명)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현자의 돌 COMMENT

칼뱅주의(칼뱅, 베버)는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이 아닌 구원의 징표라고 보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칼뱅주의가 출제될 경우 자주 나오게 되는 함정이야.

② 베버는 청교도의 부의 축적이 신의 소명에 따라 노동을 하며 청빈한 삶을 산 결과라고 본다. 베버에 따르면 청교도의 구원은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구원 예정설), 부의 축적을 수단으로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③ 마르크스는 노동 분업을 노동 소외, 인간 소외의 원인으로 본다.

④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진정한 노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소외되어 진정한 노동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1) 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
- 진정한 노동 :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인간의 삶을 실현하는 방식, 노동은 본래 인간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활동이다.
- 사회성 :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생산적 활동을 하며, 이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자신의 사회성을 깨닫는다.

*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생산 노동은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노동은 소외된 노동이 아닌,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노동이다.

(2) 자본주의적 노동 = 착취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수단이 없으므로 자본가에게 종속, 착취당한다.
② 노동 생산물은 노동자에게 적대적으로 된다.
③ 착취 과정 속에서 노동자는 소외를 겪는다. (노동 소외론, 『경제학-철학 수고』)
- 자신의 노동의 산출물을 소유할 수 없다(노동 산물로부터의 소외).
- 자본가에게 억압을 받으며 노동 과정을 통제받는다(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
- 창조적 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특수한 기능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성장하지 못한다(인간 종족으로부터의 소외).
- 사회적 동물이지만 분업 속에서 고립적인 삶을 살아간다(타인으로부터의 소외).

④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생계를 위한 강제적 활동이다.
∴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⑤ 베버는 소명 정신, 마르크스는 노동 착취를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본다. 그러므로 해당 선지는 자본 축적에 대한 베버와 마르크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24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9평]

- 만약 백성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恒産]이 없으면 순수하고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편벽되고 악해질 것이다. → 맹자 - 항산과 항심
- 사람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만든 갑옷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 선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지 아니할 수 없다. → 맹자 - 불인인지심

①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유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② 직업의 역할 분담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
③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
④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⑤ 직업 선택에서 사회적 기여보다 개인의 출세를 더 중시해야 한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맹자이다. 제시문에서 말하는 '직업 선택'은 직분을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맹자는 '대인, 소인', '노심자, 노력자'를 구분하고, 각자에게 맞는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그 '각자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때 역시 도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험생들은 '직업 선택'이라는 단어를 보고, 근대적인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떠올리면 안 된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에서는 백성은 일정한 생업[항산, 恒産]이 없으면 도덕성[항심, 恒心]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생업의 문제가 곧 생계유지의 문제이다.

② 천재 생윤 교과서에서는 맹자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양자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한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2020학년도 9평 8번 문항을 보면 지문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하고 선지에서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맹자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③ 맹자가 물론 경제적 보상을 마냥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가장 중시'할 것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 맹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경제적 이익보다는 도덕성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현자의 돌 COMMENT

생활과 윤리 학습에서 '흑백 논리로 사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해. 맹자는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맹자가 경제적 보상을 고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그리고, 선지에서 '가장'과 같은 극단적 표현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예민하게 선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

④ 두 번째 제시문 글을 보면 직업 선택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들고 있다.

⑤ 맹자는 사회적 기여의 가치가 개인적 출세의 가치보다 낮다고 보지 않는다.

2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수능]

서술형 평가

◎ 문제 : 사상가 갑, 을의 직업 노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땅을을 주고롭게 하고[勞心], 어떤 사람은 몸을 주고롭게 한다[勞力].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다면 항심(恒心)도 없게 된다. 맹자

을 : 노동이 분업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용주는 자본가가 되어 지휘와 감독,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분업은 특수한 기능에 적합한 부분 노동자를 양산하며, 노동자는 작업장의 부속물로서 자본의 소유물이 된다. 마르크스

◎ 학생 답안

사상가 갑, 을의 직업 노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직업에는 대인과 소인의 역할 분담이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며, ㉡직업을 통해 백성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을은 ㉢노동자는 생산 수단이 없으므로 생계를 위해 자본가에게 예속된다고 보며,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인간은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맹자 : 분업 찬성
마르크스 : 분업 폐지 주장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맹자는 대인과 소인의 일을 구분하며 각자의 구분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즉, 맹자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본다.

② 맹자의 제시문에서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상 맹자는 백성에게 직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고 본다.

③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생산 수단에 종속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천재 생윤 교과서 194쪽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작업장 안의 분업은 한 자본가의 수중에 생산 수단이 모여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④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노동 소외로 인해 노동을 통한 본질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기계적 노동에서 벗어나 공산 사회에서 노동자의 유적 본질의 실현을 추구한다.

⑤ 제시문을 보면 마르크스는 분업이 노동자를 부속물, 소유물로 전락하게 만든다고 보고 분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분업이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26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프로테스탄트는 자신의 구원의 여부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직업 노동을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확신에 이르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여겼다. 이들의 금욕주의가 세속의 윤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근대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다.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직접 관련을 맺지 않거나 경제적 강제로 느껴질 경우 인간은 영혼 없는 전문가, 열정 없는 향락주의자로 전락할 것이다. → 베버

①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징표라고 보는가?
→ 성공이 구원의 조건 X 구원의 징표 O
②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가?
③ 금욕주의 직업윤리는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④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으로 보는가?
→ 소명 의식
⑤ 프로테스탄트는 노동을 통한 부의 추구를 영혼의 타락으로 보는가?
→ 신이 부여한 소명에 부합하는 노동을 통한 부의 추구는 오히려 권장된다.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프로테스탄트는 신의 소명에 따라 직업에 충실했을 때,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자신이 신의 축복을 받은 인간이라는 증거(=징표)라고 본다. 단, 프로테스탄트가 직업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은 아니다.

칼뱅주의 직업윤리 : 구원 예정과 직업적 성공의 선후 관계
구원이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직업에서도 성공할 것이다. (○)
직업에서 성공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이 신의 소명이라는 정신적(종교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제시문에서도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직접 관련을 맺지 않거나 경제적 강제로 느껴질 경우 인간은 영혼 없는 전문가, 열정 없는 향락주의자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③ 프로테스탄티즘은 태만과 향락을 부정하고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업 활동에 종사할 것을 강조한다. 베버는 그러한 금욕주의가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탄생시킨 바탕이라고 본다.

④ 프로테스탄트는 노동을 신의 소명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소명'이란 곧 '신으로부터 부름 받음'을 의미한다.

⑤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에서는 신의 소명에 따라 성실하게 직업에 임함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Tip 칼뱅의 구원관

칼뱅은 '인간의 능력이나 성취'는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다. 칼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구원받을 인간을 예정하셨는데, 그러한 구원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개인의 직업적 성공'에 따른 결과가 아닌 것이다.

>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의 어느 한 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그를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 [칼뱅, 『기독교 강요』]

Tip 칼뱅의 직업관

> 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특별한 삶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 누구도 경솔하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은 다양한 종류의 삶을 소명으로 부르셨다. 어떤 일이든지 소명을 따르는 일이라면, 그 일은 결코 지저분하거나 천한 일이 될 수 없으며 신이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될 것이다. [한기체, 『기독교 이야기 윤리』]

Tip 베버가 보는 프로테스탄트의 직업관

> '직업'이라는 개념에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중심 교리가 표현되어 있다. 이 교리는 [①]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수도승적 금욕주의를 통해 현세적 도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세적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현세적 의무는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곧 그의 '직업'이 된다. 세속적 의무의 이행은 모든 경우에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만이 신의 뜻이고, 따라서 [②] 허용된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단적으로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베버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트의 직업관은
①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소명인 직업에 충실해야 하며,
② 신 앞에서 허용된 모든 직업은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Tip 노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베버의 관점

> • 만일 신이 너에게 너의 영혼이나 타인의 영혼에 해를 주지 않고 다른 방법보다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제시하는데, 네가 이를 마다하고 더 적은 이익을 주는 방법을 따른다면, 너는 너의 목적 하나에 역행한 것이며, 신의 대리인(집사)이 될 것을 거부한 것이며, 신의 선물을 받아 신이 요구할 때 그 선물을 그를 위해 사용할 기회를 거부한 것이다. 당연히 육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해도 괜찮다. 부(富)는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향락에 대한 유혹으로서 위험시된 것이며, 부의 추구도 나중에 근심 없이 안일하게 살기 위한 것일 경우에만 위험시된 것이다. 반면에 직업 의무의 행사로서의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기까지 하다. 그에게 맡겨진 돈을 활용하여 증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던 종의 비유는 바로 이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노동 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는 것은 나태이므로 죄일 뿐만 아니라 사도의 말씀에 따르더라도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다.
> • 확고한 직업의 금욕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근대적인 전문 직업을 윤리적으로 신성시했듯이, 이윤 기회에 대한 섭리적 해석은 기업가를 신성하게 만들었다. 영주의 고상한 방종과 벼락부자의 과시적 허세는 모두 금욕주의가 증오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직하게 자수성가한 부르주아는 대단한 윤리적 평가를 받았다. 즉 "신이 그의 사업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성공적으로 신의 섭리를 수행한 성도(聖徒)에 대한 상용어이다.
>
>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27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학년도 6평]

> 고위 공직자들은 법률 제도와 별도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무 의식을 스스로 내면화해야 한다. 귀족의 책무를 뜻하는 [㉠]은/는 서양의 전통에서 유래하였지만 고위 공직을 담당한 지도자에게 여전히 요청되는 덕목이다. 이 덕목은 더 강한 책임 의식, 더 높은 도덕성,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이 덕목의 실현으로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와 연대는 강화되고 준법과 참여가 원활해진다. 나아가 국가가 내우외환에 봉착할 경우 구성원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기꺼이 나서게 된다. …(후략)…

①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를 의미한다.
② 시민들의 자율적 질서 유지와 사회 계층 간 화합에 기여한다.
③ 정치권력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여 국가 전반의 청렴성을 고양한다.
④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 모두에 공통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덕목이다.
⑤ 국가가 위기를 맞을 경우 일반 시민들의 솔선과 협력을 유도한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에 들어갈 키워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에 따르면 ㉠은 법률 제도와 별도로 고위 공직자들이 스스로 책임 의식을 내면화하는 자율적 규제를 의미하는데, 선지 ①은 법적 규제를 논하므로 ㉠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하다.
② 제시문의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연대는 강화되고'와 관련이 있다.
③ 제시문의 '더 강한 책임 의식 더 높은 도덕성, 더 많은 희생을 요구'와 관련이 있다.
④ 제시문의 '서양의 전통에서 유래하였지만 고위 공직을 담당한 지도자에게 여전히 요청되는 덕목이다.'와 관련이 있다.
⑤ 제시문의 '국가가 내우외환에 봉착할 경우 구성원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기꺼이 나서게 된다.'와 관련이 있다.

Tip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를 의미하고,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임.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말임

공직자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와 그 산하 기관, 국영 기업체 등 정부의 예산이 출연된 기관에 근무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

2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9학년도 9평]

> 갑 :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귀함과 천함의 등급을 분별하게 하였다.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이 되어야 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이 단정하여 예에 합하면 사대부가 되어야 한다. → 순자
> 을 :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에서 농부와 목수와 기술자는 각자 생산물이나 재능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힘을 쓰는 노력자(勞力者)와 마음을 쓰는 노심자(勞心者) 역시 각자의 수고로움으로 서로 기여한다. → 맹자

① 갑 : 예(禮)를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역할 분담이 정해져야 한다.
② 갑 :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③ 을 : 분업을 통해 사회적 직분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④ 을 : 노력자(勞力者)는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다.
⑤ 갑, 을 :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에서 갑은 순자이고 을은 맹자이다. 갑 제시문은 기출되었던 순자 제시문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기존에 "선왕(先王)이 예의(禮義)를 제정한 것은 백성들에게 구별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왕공의 자손이라도 예(禮)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에 편입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 예에 합하면 재상에 올린다."라고 출제되었다. 한편, 을 제시문은 교육과정상 맹자의 대표적인 특징인 '노력자'와 '노심자'의 구분을 통해 사상가를 알 수 있다. 천재 교과서 85쪽에서 맹자에 대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하고, 양자의 상보성과 노력자(勞力者)에 대한 노심자(勞心者)의 세심한 배려를 강조하였다."라고 하였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선지 설명

① 제시문에서 '예'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이 되게 하고 '예'에 합하면 사대부가 되게 한다고 하였다.

② 제시문을 보면 신분이 정해지는 관건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선왕이 제정한 '예'이다. 순자는 직업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는 것 또한 아니라고 본다. 순자 또한 유교 사상가라는 점과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③ 제시문에서 노력자(농부, 목수, 기술자)와 노심자를 예로 들며 분업을 통해 서로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각자 생산물이나 재능을 교환하는 것은 맞으나, '신분, 역할'을 교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④ 여기서 "생계가 안정"된 것은 '항산(恒産)'에 해당하고, "도덕심을 유지"하는 것은 '항심(恒心)'에 해당한다. 비상교육 교과서 83쪽에 의하면 맹자는 직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恒産]이 도덕적 삶[恒心]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⑤ 순자와 맹자 모두 사회적 분업, 각자가 맡은 직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순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올바로 수행한다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보았다. [비상 생윤 교과서]
- 맹자는 생업(직업)의 수행이 곧 윤리적 인격과 정서적 안정의 조건이며, 생업은 검약과 절제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계기라고 보았다. [개정 전 천재 생윤 교과서]

2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갑 :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을 위해 수행될 뿐이다. 분업은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지만, 노동자는 생산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 이외의 다른 모든 정신적 능력들을 잃어버렸다. 이는 예외 없는 현상이다. → 마르크스(노동 소외)

을 : 노동을 은총 상태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 청교도는 철저한 노동 의무의 수행을 통해 신의 나라에 도달하려고 시도하였다. 동시에 노동 계급에 강제된 엄격한 금욕이 자본주의의 노동생산성을 강력히 촉진시켰다. → 베버

① 갑은 자본주의에서 정신적 능력 회복으로 소외가 극복된다고 본다.
마르크스 : 공산주의 사회에서 소외를 극복할 수 있음

② 갑은 분업이 노동자의 정신적 능력 쇠퇴와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본다.

③ 을은 금욕과 결합된 노동 의무가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본다.

④ 을은 청교도가 직업 노동을 종교적 실천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⑤ 갑은 분업 노동, 을은 소명 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정답 ①

선지 설명

① 갑은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분업 시스템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능력 회복이 아니라 자본주의 분업 시스템과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②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분업 시스템이 노동자를 일개 부품의 역할로 전락시켜 정신적 능력을 쇠퇴하게 함으로써 소외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③ 을은 베버이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와 결합된 노동의 의무(신의 소명)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켰음을 주장한다.

④ 베버는 청교도(프로테스탄트)가 직업 노동을 신의 명령을 이행하는 종교적 실천으로 간주하였음을 주장한다.

⑤ 마르크스는 분업 노동을 통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여 자본주의가 발전하였음을 지적하고, 베버는 소명 의식이 부의 축적과 직업적 성공을 긍정하여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한다.

Tip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 소외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자본의 운동을 대변한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규칙적으로, 또한 매우 높은 강도로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기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생산 수단에 포함된 죽은 노동이 노동자의 살아 있는 노동을 지배하는 전도 또는 왜곡이 발생한다. [마르크스, 『자본론』]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이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살아 있는 노동이 생산 수단에 포함된 죽은 노동에 지배되는 노동 소외가 발생한다고 본다.

3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학년도 9평]

갑 : 각자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 예법(禮法)의 핵심이다. 농부, 공인, 상인은 각 분야에 정통하지만, 그 분야를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도(道)에 정통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도 못해도 이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다. 순자

을 : 마음을 쓰는 사람[勞心者]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몸을 쓰는 사람[勞力者]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 의해 먹고 산다. 이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맹자

상호 보완적 관계

① 갑 : 예(禮)에 맞게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순자 : 예를 기준으로 사회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② 갑 : 군자는 도를 익혀야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순자 : 군자는 도에 정통한 사람

③ 을 :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맹자 : 노력자와 노심자 사이의 상호 보완 관계 강조

④ 을 : 몸을 쓰는 사람은 항산(恒産)에 ~~앞서~~ 항심(恒心)을 지녀야 한다.
노력자 : 항심에 앞서 항산을 가져야 함

⑤ 갑, 을 : 모든 사람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순자와 맹자 모두 분업 긍정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 제시문은 첫 번째 문장 하나를 제외한다면 그동안 기출 및 연계 교재에서 순자의 제시문으로 종종 등장했던 내용이다.

> 농부는 밭일에 정통하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며 공인(工人)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는 없다. 관리는 이 일들을 하나도 못하지만 예(禮)에 정통하기에 이 일들을 다스릴 수 있다. [순자, 2014학년도 9평]

한편, 제시문의 첫번째 문장은 『순자』「왕패」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 윗사람은 아랫것들을 지극히 아끼지 않음이 없고 예(禮)로써 그들을 다스린다. 윗사람은 아랫것들에 대해 갓난아이처럼 보호한다. 정치법령과 제도는 아랫사람 백성들을 대하는 데에 쓰는 것인데, 이치에 어긋나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고아나 독거노인이나 홀아비나 홀어미 같은 이들에게 꼭 적용하겠는가. 그래서 아랫것들이 윗사람을 가까이하고 부모처럼 좋아하면, 죽일 수는 있어도 따르지 않도록 할 수는 없게 된다. 군주, 신하, 윗사람, 아랫사람, 존귀한 자, 천한 자, 어른, 어린이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를 올바름으로 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런 후에 모두가 내면으로부터 반성하여 제 직분[分]을 삼가니, 이런 것은 백왕(百王)이 공통으로 하였던 바이자 예법(禮法)에 있어서의 핵심[樞要]이다. [『순자』「왕패」]

을 제시문은 '노심자(勞心者)'와 '노력자(勞力者)'의 구분을 통해 맹자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선지 설명

① 이 선지는 우선 제시문에서 독해로 판단할 수 있다. 갑 제시문에 "각자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 예법(禮法)의 핵심이다."라고 하였다. 즉, 순자는 사회적 역할 분담에 있어 예(禮)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전해오는 말이 이러하다. 농민은 밭을 나누어 경작하고 장사꾼은 재화를 나누어 장사하며 백공은 작업을 나누어 힘쓰고 사대부는 직무를 나누어 처리하며 나라를 세운 제후 군주는 토지를 나누어 지키고 삼공은 지방을 총괄하여 다스린다면, 천자는 팔짱만 끼고 있어도 된다. 외부가 이러하고 내부가 이러하다면 천하에 균평하게 되지 않는 것이 없고 똑바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백왕(百王)이 공통으로 하였던 바이자 예법(禮法)의 큰 나눔[大分]이다. [『순자』「왕패」]

② 순자는 군자의 자기 수양을 강조한다. 순자는 군자가 스스로 수양함으로써 도(道)를 인식하고, 도(道)를 실천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③ 맹자는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을 구별하여 사회적 분업과 직업 간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하여 양자의 상보성과 노력자(勞力者)에 대한 노심자(勞心者)의 세심한 배려를 강조하였다.

④ 맹자에 따르면, 몸을 쓰는 사람(노력자)은 항심에 앞서 항산을 가져야 한다.

> 백성의 도(道)는 항산이 있는 경우는 항심도 있게 되지만 항산이 없는 경우는 항심도 없게 되는 것이니, 만일 항심이 없으면 방탕해지고 간사해져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죄에 빠지고 난 뒤에 쫓아가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짓입니다. 어찌 인한 사람이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고 괜찮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하므로 현능한 군주는 반드시 공손하고 검약하며 아랫것들을 예의 바르게 대하고, 백성들에게 거둘 때에는 법도대로 합니다. [『맹자』「등문공 상」 7장]

⑤ 이 선지는 독해로 판단할 수 있다. 갑은 "각자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 예법의 핵심"이라고 하였고, 을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 의해 먹고 산다."라고 하였다.

- 각자의 직업 활동에서 전문성의 발휘를 중시한다.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을 중시한다. [순자, 2014학년도 9평]
- 사회적 역할 분담에 있어 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순자, 2015학년도 6평]
- 사회적 분업을 토대로 한 사회 질서 유지를 중시한다. 구성원 각자가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한다. [순자, 2015학년도 수능]
-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됨을 주장한다. [순자, 2016학년도 9평]
-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순자, 2019학년도 9평]

- 직업에는 대인과 소인의 역할 분담이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며… (후략). [맹자, 2018학년도 수능]
-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맹자, 2019학년도 9평]
- 분업을 통해 사회적 직분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맹자, 2019학년도 9평]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31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옛 성인(聖人)이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자기를 봉양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갈등과 투쟁이 생겨 서로 죽이기까지 하거니와, 통치자가 법으로 다스려 평화롭게 해주어야만 민생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할 수 없으므로, 백성은 수확의 10분의 1을 세(稅)로 바쳐 통치자를 공양(供養)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이 큰 만큼, 백성에 대한 보답도 무거운 것이다. 후세의 통치자는 세금 제도를 만든 의의를 모르고 '백성이 나를 공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혹하게 수취하니,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 서로 싸워 국가가 혼란해진다.

① 공직자는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며 나랏일에 충실해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③ 공직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일환이다.
④ 공직자는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봉사로써 보답해야 한다.
⑤ 공직자의 탐욕과 수탈은 국민의 반목과 국가의 분란을 야기한다.

'법으로 다스려' '민생이 편안'

정답 ①

제시문 설명

본 제시문은 정도전의 『조선경국전』「부전」에서 온 글인데, 출전보다는 글 내용과 선지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모든 선지를 제시문 독해로 해결할 수 있게 구성된 문항이다. 본서의 성격이 수험서인 만큼 여기서는 제시문과 선지 간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에서는 통치자의 일에 대해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선지는 부적절한 것이다. 참고로 정도전의 언급은 『맹자』「등문공 상」의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맹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생필품을 제작하거나 농사를 짓는 등의 일을 겸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 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도전은 이러한 『맹자』의 관점을 수용한 것이다.

② 통치자가 별도의 일에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은 앞 선지를 판단하면서 이미 밝혀졌다. 한편,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은 제시문의 "통치자가 법으로 다스려 평화롭게 해 주어야만 민생이 편안해진다." 부분으로 알 수 있다.

③ 공직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제시문의 "통치자가 법으로 다스려 평화롭게 해 주어야만 민생이 편안해진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직이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일환이라는 점은 제시문 중의 "이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할 수 없으므로, 백성은 수확의 10분의 1을 세(稅)로 바쳐 통치자를 공양(供養)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이 큰 만큼, 백성에 대한 보답도 무거운 것이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제시문에서는 "통치자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이 큰 만큼, 백성에 대한 보답도 무거운 것이다." 하였다. 따라서 공직자가 세금을 납부한 백성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점은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제시문 후반부에 의하면 통치자가 백성의 공양에 대해 보답해야 함을 망각하고 당연하게 여겨 가혹하게 수취하면 백성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 서로 싸우고 국가가 혼란해진다고 본 부분에서 알 수 있다.

3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6평]

'공'과 '사'의 구분

갑 : 목민관은 책객(冊客)*을 두어 회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관부의 회계는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모두 기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내의 친척과 친구를 단속하여 의심과 비방이 생기지 않도록 하되, 서로의 정(情)을 잘 유지해야 한다.

정약용

을 : 나라가 올바르게 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들 중 통치자들은 그 어떤 사유 자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통치자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시민들을 보살펴야 한다.

플라톤

*책객 : 고을 원에 의해 사사로이 채용되어 비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

① 갑 : 공직자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갑 : 공직자의 청렴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덕목은 아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서 지녀야 할 필수적 자세
③ 을 :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④ 을 : 통치자는 시민들이 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구성원들은 각자의 직분에서 알맞게 덕을 발휘해야 함.
통치자의 역할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시민들 보살피는 것
⑤ 갑, 을 : 올바른 통치를 위해 다스리는 자의 사유 재산을 금지해야 한다.
플라톤 : 통치자와 방위자의 사유 재산 금지 주장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은 정약용이다. '목민관'은 현재 교과서와 연계교재에서 정약용 이외의 사상가에게서 쓰인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정약용만 이 어휘를 쓰라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현 교육과정 내에서는 정약용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공적인 데서 사적인 영역을 잘 단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갑 사상가가 공직자의 청렴을 중시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을'은 플라톤이다. 교과서에 의하면 플라톤은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고유한 덕(德)을 발휘하여 직분에 충실하면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보았다. (지학사 82쪽) 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의 세 계급, 즉 통치자 계급, 방위자 계급, 생산자 계급이 각자의 사회적 직분에 맞는 덕을 발휘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성 80쪽) 이는 플라톤이 각자가 타고난 기질에 따라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중에서 적합한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천재 84쪽) 제시문을 보면, 을 사상가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였고 특히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공적인 부문을 강조하며 사유 재산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점을 통해 제시문이 플라톤의 관점임을 추론할 수 있다.

선지 설명

① 갑 제시문의 첫 두 문장은 목민관의 공적 업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문을 보면, 목민관은 사사로이 채용되어 비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두어 공적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어지는 세 번째 문장에서는 목민관의 사적 업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제시문에 따르면, 목민관은 사적 관계에 있는, 관내의 친척과 친구를 단속하면서도 서로의 정을 잘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사적 업무, 즉 개인적인 일이지만 직업상 맡아서 하는 일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목민심서』에는 관아가 파하고, 술자

수능 & 평가원 기출 문제

리를 열어 친척이나 친구들이 말썽을 피우지 못하도록 어르는 등의 목민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예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일이지만 직책과 관련이 있어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업무들을 사적 업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정약용은 "무릇 수령은 자기 고을 사람과 이웃 고을 사람을 관아에 끌어들여 만나서는 안 된다. 관부 안은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공과 사의 구분을 강조했다.

② 이 선지의 정오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과서의 다음 서술이 참고가 될 것이다. "정약용은 공직 윤리로 청렴을 강조하였는데, 공직자는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자신의 참된 욕구가 좌절되는 불행을 겪어서는 안 되며, 청렴으로 인(仁)의 도(道)를 이루려는 큰 욕심, 즉 대탐(大貪)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지학사 86쪽)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의 폐해를 지적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바른 도리에 관해 설명한다. 그는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관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서야 하며 청렴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천재 91쪽) 이러한 교과서 내용으로 보아 정약용이 공직자에게 청렴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우선 제시문에서 통치자들이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시민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본 선지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플라톤은 절제와 용기, 지혜의 덕을 갖춘 정의로운 인간이자, 국가의 선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지혜로운 인간, 즉 철인(哲人)이 국가를 다스릴 때 조화롭고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보았다.

④ 제시문을 보면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며 이 중에 '통치자'가 있다고 하였다. 즉 통치자 외의 시민들은 통치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플라톤에 따르면 방위자와 생산자는 통치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각 계급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야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 즉, 플라톤은 시민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철학자가 통치하는 철인정치 사상을 주장한다.

⑤ 정약용에게는 틀리고 플라톤에게는 옳은 내용이다. 플라톤은 제시문에서 통치자가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통치자의 사유 재산 소유 금지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정약용은 통치자의 사유 재산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

✓Tip 직업과 청렴의 윤리

청렴함은 천하에서의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하겠다. 무엇 때문인가? 재물이란 우리 사람들이 크게 욕심내는 바이다. 그러나 욕심내는 것에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이 있으므로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중략)… 지혜가 높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그 욕심이 크므로 *염리(廉吏)가 되고, 지혜가 짧고 사려가 얕은 사람은 그 욕심이 작으므로 탐리(貪吏)가 되는 것이니, 진실로 생각이 능히 여기에 미친다면 청렴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정약용, 『목민심서』]

* 염리(廉吏) : 청렴한 관리

▶ 정약용은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관리가 무엇보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서기 때문에 청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청렴임을 강조하였다.

- 청렴은 목민관의 본분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큰 장사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이라고 하며 마을을 지날 때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드높을 것이니,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 목민관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절용이야말로 목민관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정약용, 『목민심서』]

-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을을 얻으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절약하지 않네.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빚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짜고 일을 꾸며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게 된다. 그러므로 절약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이라네. 안정복(조선 정조 때 실학자)은 이렇게 말했네. "수령이 부인과 첩을 데리고 부임지로 가지 않고, 자식들을 부임지에 오지 못하게 하고, 권문세가(權門勢家)를 섬기지 않고, 금 세공장이와 목수를 불러들이지 않고, 금은보화를 탐내지 않으면 가난한 고을이라도 재정 부족을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 의복은 성근 베옷으로 검소하게 입도록 힘써야 하네. 아침저녁 밥상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장 한 종지 외에 네 접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해. 네 접시는 구운 고기 한 접시, 마른 고기 한 접시, 절인 나물 한 접시, 젓갈 한 접시인데 이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네. 자신의 일에는 힘쓰지 않으면서 맛있는 음식만 찾는다면 웃음거리가 될 거야. 경비를 함부로 쓰면 재정이 모자라게 되고, 재정이 모자라면 백성의 재물을 빼앗게 되지 않겠나? 처음 부임하여 어리석게 재정을 마음껏 쓰다가 점차 줄이는 자가 많네. 그렇게 되면 아전과 백성들이 그 일정하지 못함을 비웃을 거야. 그러니 수령이 어떻게 재정을 절약하지 않을 수 있겠나? [정약용, 『목민심서』]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3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학년도 9평]

갑 : 군자는 근본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잘 못해도 큰 일은 맡을 수 있으며, 소인은 생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큰 일을 잘 못해도 작은 일은 맡을 수 있다. 임금·신하·부모·자식이 각자 맡은 바 직분[名]을 올바르게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공자

을 : 성왕(聖王)은 예(禮)를 제정하여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람의 덕(德)을 논하여 각자의 위치를 정하고 그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부여하였다. 그런 연후에 사람들이 예에 따라 각자 직무를 수행하여 그 마땅한 바를 얻게 하였다. 순자

① 갑 : 각자 자신이 맡은 직분 ~~외에도 모든 분야에~~ 능통해야 한다.

② 갑 : 자기 본분을 올바르게 행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③ 을 : 사람들의 사회적 직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④ 을 : 올바른 직분 수행을 위해 예법에 따라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⑤ 갑, 을 :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갑'은 공자이다. 제시문의 두 번째 문장이 기출과 교과서 등에서 많이 보이는 내용이므로 이를 통해 어떤 사상가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만약 이 부분이 생소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눈에 익혀두는 것이 좋다. 기출에서는 2014학년도 6평 20번 문항 지문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 하였고, 2017학년도 6평 14번 문항 지문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씀씀이를 줄이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 신하는 먼저 맡은 직분을 경건히 수행하고 녹봉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라 하였다. 교과서에서는 미래엔 생윤 82쪽에 "동양의 유교 윤리에서도 생활 속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 정신이 전해 온다. 공자는 『논어』에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말했다. 이 말은 자신이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직업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 하였다.

'을'은 순자이다. 성왕이 예를 제정해 사람들을 교화하려 했다는 것, 각각의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부여했다는 점 등의 진술로 순자 사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비상 생윤 교과서 83쪽을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의 직분을 분명히 하고, 하는 일에 질서를 마련하며, 재능과 기술을 따져 능력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면 잘 다스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인용문을 순자의 것으로 제시하고 이를 풀이하길 "순자는 예(禮)와 관련된 제도에 따른 여러 사람들의 직분을 중요시하였다. 순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올바로 수행한다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보았다."라 하였다.

제시문 출처

- 갑–『논어』「학이」 2장 제시문에서 「학이」 2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군자는 근본을 추구[君子務本]"인데 이는 사실 공자의 말이 아니라 유약[有子]의 말이다. 나머지 부분은 공자 말이긴 한데 사실 번역에 좀 무리가 있다. 「이인」 11장, 「위령공」 33장, 「안연」 11장
- 을–『순자』「성악」, 「군도」, 「정론」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을 보면 공자는 군자와 소인이 각각 어떤 일은 잘 못하고 어떤 일은 잘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 능통해야 한다는 말은 공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제시문을 보면 공자는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올바르게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고 하였다. 이는 곧 자기 본분을 올바르게 행하면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말과 마찬가지이다.

③ 제시문을 보면 순자는 성왕이 사람의 덕을 논하여 각자의 위치를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부여했다고 하였다. 이는 곧 사회적 직분이 덕과 능력에 따라 정해진다는 말과 마찬가지이다.

④ 제시문을 보면 순자는 성왕이 예를 제정하여 인간 본성을 교화하려 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예법에 따라 욕망을 절제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제시문 독해로 다소 불충분하게 느껴진다면 교과서 자료를 함께 참고하는 것도 좋다. 천재 생윤 교과서 85쪽에 "순자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며 욕망의 존재라고 보았으며, 예(禮)를 통해 이를 적절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직업(생업)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맡아야 한다는 역할 분담론을 주장하였다."라 하였다.

⑤ 제시문을 보면 공자는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올바르게 할 것을 주장하고, 순자는 각자의 덕과 능력을 헤아려 위치와 관직을 부여한 뒤 각자 직무를 마땅하게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각자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말과 마찬가지이다.

34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1학년도 수능]

갑 :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본분이 있다. 군주는 군주의 본분을, 신하는 신하의 본분을,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자식은 자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정명(正名)이라 한다. → 공자

을 : 국가에서 통치자는 지혜를, 방위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여, 여러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正義)라 한다. → 플라톤

4주덕(지혜, 용기, 절제, 정의)

보 기

ㄱ. 사회적 직분에는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덕목이 요구된다.
공자 : 정명, 플라톤 : 4주덕

ㄴ.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공자 : 각자 지닌 덕에 따라
플라톤 :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

ㄷ. 각자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ㄹ.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최소 한도의 국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현자의 돌 COMMENT

이 문항은 ㄹ선지 때문에 2021학년도 수능 윤리 과목에서 가장 많은 이의 제기가 신청되었었다. ㄹ선지는 특별히 주의 깊게 학습하자.

제시문 설명

'갑'은 공자, '을'은 플라톤이다. 다만 '을' 제시문은 마치 '절제'가 생산자에게 국한된 덕목인 듯 읽힐 위험이 있는데, '절제'는 생산자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선지 설명

ㄱ. '갑'은 군주, 신하, 부모, 자식이 각자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고, '을'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각 지혜, 용기, 절제를 발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사회의 각 직분마다 합당한 덕목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덕목'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충(忠), 효(孝), 인(仁), 의(義) 따위의 덕을 분류하는 명목'이라 풀이되어 있다. 간단하게 '덕(德)의 항목[目]'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ㄴ. 일단 플라톤 때문에 이 선지는 오답이다. 2021학년도 6평 6번 문항 선지 ④에서 플라톤에게 해당하지 않는 문장으로 "통치자는 시민들이 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가 제시되었다. 교육과정상 플라톤 사상은 누구나 직업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에 맞는 직업만이 가능할 뿐 자기 분수를 벗어나는 다른 직업은 선택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또한 2015학년도 수능 11번 문항 지문에서도 "각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라 언급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자의 입장은 어떨까? 공자는 "직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ㄷ. 선지 ㄱ과 내용상 연결되는 문장이다. 이미 ㄱ에서 각 직분에 합당한 덕목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니, 이 합당한 덕목을 각자가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ㄹ. 공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국가는 '대동사회'이며, 대동사회는 역할 분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고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플라톤 또한 역할 분담을 통해 이상적 국가가 자연스럽게 실현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미래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인용된 플라톤의 『국가』에 따르면, 플라톤은 국가의 기원을 논하면서, "의식주의 필요에 따라 사회의 역할 분담이 발생했고, 최소 한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한다. 즉, 플라톤의 관점에서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최소 한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상적 국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교육과정상 명백히 틀린 보기인 것이다(학문적으로도 틀린 보기이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사회적 역할 분담을 통해 형성된 최소 한도의 국가' 이후에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교육됨으로써 성립되는 정의로운 국가이다. 그러한 국가에서는 국가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본성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생산자), 군인들(보조적 수호자), 통치자(완벽한 수호자)라는 사회적 직분을 맡게 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덕을 발휘하여 조화롭게 국가를 운영하고, 그 결과 정의로운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시험장에서의 임기응변, 문제 해결을 위한 추론 능력〉

물론, 위와 같은 내용을 미리 교과서를 통해 학습하고 올바르게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임기응변으로 눈치 또는 논리적 판단 능력을 활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가령, 제시문을 보면 '갑'은 군주, 신하, 부모, 자식이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고, '을'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각 지혜, 용기, 절제를 발휘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학생들은 각자가 본분을 '다한다'거나 각 덕목을 '발휘한다'는 표현에 주목해, 각자에게 역할이 주어지기만 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올바르게 실천, 수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이상사회가 실현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선지 ㄷ이다. ㄷ에서는 '역할 수행'이라는 표현이 쓰였고 여기 ㄹ에서는 '역할 분담'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즉 이 문항에서는 출제자가 '역할 분담'과 '역할 수행'을 다르게 간주했다고 학생들이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이 문항을 접했을 때 '역할 분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올바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ㄹ을 옳지 않은 보기로 골라낼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3단원 02 사회 정의와 윤리

❶ 니부어의 사회 정의론

01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4학년도 6평]

> 개인들 간의 갈등과는 달리 집단들 간의 갈등은 합리적인 설득으로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로 경쟁하는 집단들은 자신의 현실적 이익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니부어

보 기

ㄱ. 개인의 도덕적 행위가 사회 구조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양심의 역할을 부정한다.
ㄷ. 사회 정의는 정책적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실현된다.
ㄹ. 집단의 이기적 요구와 개인의 도덕성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③

제시문 설명

니부어는 집단들 간의 갈등이 합리적인 설득에 의해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지속적으로 비이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서로 경쟁하는 집단들이 상대방의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여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니부어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니부어는 개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설득과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니부어는 집단들 간의 관계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므로 개인들 간 윤리에 적용되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 개인들 간의 관계를 순전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일은, 비록 쉽지는 않을지라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선지 설명

ㄱ. 개인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사회 구조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것이 니부어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ㄱ선지는 니부어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ㄴ. 니부어가 '개인의 양심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비판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니부어도 '개인의 양심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다.

>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과 성취는 사회생활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ㄷ. 니부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ㄹ. 니부어는 집단(사회)의 요구와 개인의 도덕성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의 요구와 (개인의)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니부어에 의하면 집단(사회)의 요구와 개인의 도덕성(양심) 간에는 여간해서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가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 반면, 개인은 이타성을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는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0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학년도 9평]

사회의 요구와 개인적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사회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지만, 개인은 이타성을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는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니부어

① 사회 부정의는 외적 강제력을 통해 타파되어야 한다.
② 개인의 양심적 통찰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③ 집단들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이다.
④ 개인들이 양심적이더라도 사회가 항상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⑤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은 집단 속에서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집단욕 더 강화됨.

정답 ⑤

제시문 설명

니부어는 사회의 요구와 개인적 양심의 요청 사이에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사회가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조차 감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이 있다.

선지 설명

① 니부어는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니부어는 강제력이 부수적인 피해를 동반하는 비합리적인 수단이므로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② 니부어는 개인의 양심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간혹 개인 윤리만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니부어의 주장에 근거하여 니부어가 개인 윤리를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니부어는 개인 윤리'만'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하였지, 사회 정의 실현에 개인 윤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니부어는 사회 정의 실현,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개인 윤리가 공헌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니부어의 입장으로 옳은 선지이다. 니부어는 집단들 간의 관계가 윤리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관계이며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그 관계가 수립된다고 주장했다.
④ 양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가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것이 니부어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주장하고자 한 핵심 내용이다.
⑤ 니부어의 입장으로 옳지 않다. 오히려 니부어는 개인들의 이기적인 충동들이 집단 속에서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는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게, 그리고 더욱 누적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0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양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도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부도덕할 수 있다. …(중략)… 사회와 개인이 지향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지만 양자 사이의 모순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회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니부어

개인 : 이타성/사회 : 정의

〈문제 상황〉

사회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사회 부정의와 계층 간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책 결정자 A는 정의 실현과 갈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보 기

ㄱ.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세요.
ㄴ.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고려하세요.
ㄷ. 사회적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세요.
ㄹ.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은 배제하세요.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사회 정의를 위해 도덕성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을 방법도 사용가능!

정답 ④

제시문 설명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가 지향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서로 다르지만(개인 : 이타성, 사회 : 정의), 양자 사이의 모순이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이타성이 부족해서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회 정의가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과 성취는 사회 생활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 예를 들어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선지 설명

ㄱ. 선지에 제시된 내용은 사회 윤리적 차원의 해결책이므로, 니부어의 입장에서 조언할 내용으로 적절하다. 니부어는 계층 간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ㄴ. 니부어의 입장에서 조언할 내용으로 적절한 선지이다. 이는 제시문의 "사회와 개인이 지향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지만 양자 사이의 모순은 절대적이지 않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즉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ㄷ. 니부어는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ㄹ. 니부어는 종국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을 방법(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5학년도 6평]

집단들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형성된다. 왜냐하면 개인과는 달리 집단 속에서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항상 도덕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따라서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 →니부어

①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고양은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② 사회 구조의 도덕성은 개인 행위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③ 정치적 강제력은 집단적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부적절~~ 적절하다.
④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성찰만으로는 극복되기 어렵다.
⑤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니부어는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인이 속한 집단이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집단 속에서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이 합쳐져 훨씬 강력한 형태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집단들 간의 관계는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집단들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이 가진 힘의 비율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선지 설명

① 니부어는 개인의 선의지를 고양하는 것도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니부어는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니부어는 사회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② 니부어는 사회 구조의 도덕성이 개인 행위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이기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국가(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침략 전쟁에 참여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③ 니부어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선지이다. 니부어는 집단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니부어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권력 불균형에 의해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강제력을 통해 권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④ 니부어에 따르면, 집단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 윤리적 차원의 해결책(개인의 도덕적 성찰)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차원의 해결책(제도 개선,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⑤ 니부어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 윤리적 차원의 해결책으로서 사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05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9평]

(가)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이행할수록 이기적 충동에 비해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비중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러한 충동적 경향이 심각하게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억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니부어

(나) 개인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차원에서도 합리성과 선의지는 언제나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기적 충동이 합리성과 선의지의 고양에 의해 견제되어 결국 모든 집단들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개인윤리

보 기

ㄱ.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방법을 무시한다.
ㄴ. 개인 양심과 집단의 요구 간에 모순이 지속됨을 간과한다.
ㄷ.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동일함~~을 간과한다. (이타성 → 정의)
ㄹ. 집단 간 힘의 차이가 사회 부정의의 원인임을 간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니부어 : 정의 실현 위해 정치적 강제력 허용!
니부어 : 양심적인 개인이라도 비도덕적 사회 속 이기적 행동가능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가)에서 니부어는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이행할수록 합리성이나 선의지에 비해 이기적 충동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기적 충동이 득세하게 되면 개인 윤리적 차원의 해결책만으로는 그러한 이기적 경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기적 충동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억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억제는 사회적 투쟁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달리 (나)는 개인 윤리의 입장에 해당한다.

선지 설명

ㄱ. 사회 윤리적 차원의 해결책을 중시하는 니부어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제기할 반론으로 적절하다. (나)는 집단 간의 갈등이 개인의 합리성과 선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ㄴ. 니부어의 입장에서 제기할 반론으로 적절하다. 아무리 개인이 양심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모순적인 요구를 받는다면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나)는 집단적 차원에서도 합리성과 선의지가 '언제나'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개인 양심과 집단의 요구가 모순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ㄷ.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타성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지만, 사회의 경우에는 정의가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다. 사회 정의는 개인들의 이타심을 바탕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니부어의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은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ㄹ. 니부어는 사회 부정의가 발생하는 이유가 집단 간 힘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개인이 합리성과 선의지를 고양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집단 간 힘의 격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 부정의가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ㄹ보기는 니부어가 (나)의 입장에 제기할 반론으로 적절하다.

06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인간은 완전히 이성적일 수는 없다.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집단생활로 진행해 갈 경우,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의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 왜냐하면 집단 간의 공동의 지성은 항상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집단은 그것을 맹목적이게 만드는 충동에 의지해 있기 때문이다. →니부어

집단의 이기성

〈문제 상황〉

A는 현대 사회에서 집단 이기주의 만연하고 집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A는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보 기

ㄱ.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의 필요성을 깨달으렴. (O) → 정치적 강제력 요구됨

ㄴ. 사회 갈등이 집단 간 권력 불균형에 의해 지속됨을 깨달으렴. (O)

ㄷ. 집단이 커질수록 도덕적 목적 실현이 수월해짐을 깨달으렴. → 어려워짐. 이성의 비중 ↓

ㄹ. 도덕적 설득과 정치적 강제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깨달으렴. (O)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니부어는 개인 생활에서 집단 생활로 진행해갈 경우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이는 집단 간의 공동의 지성이 항상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집단은 그것을 맹목적이게 만드는 공동의 충동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또, 니부어는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집단적인 관계들 속에서 순수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가 되고 만다고 지적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선지 설명

ㄱ. 니부어는 집단 간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서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때 그러한 비합리적 수단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니부어의 입장에서 볼 때,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은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ㄴ. 니부어는 집단 간 권력(힘) 불균형에 의해 사회 갈등이 지속된다는 입장이다.

> 사회의 권력 불균형에 의해 생겨난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그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ㄷ. 니부어는 집단이 커질수록 도덕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제시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이 커질수록 집단의 이기적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집단이 크면 클수록 그 집단은 전체적인 인간 집단에서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표현한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ㄹ. 제시문의 〈문제 상황〉을 보면 현대 사회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집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니부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불의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권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치적 강제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0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6평]

> 갑 :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만, 사회는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비도덕적이다. →니부어
> 을 : 원초적 입장에서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른채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롤스 (무지의 베일)

① 갑은 개인의 선의지가 ~~없어도~~ 사회 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개인보다 사회가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정당한 강제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 →니부어(갑)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저자인 니부어이다.
을은 롤스이며, 원초적 입장에서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지닌 개인이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선지 설명

① 니부어는 사회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의 선의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수단으로서 강제력이 필요하지만 강제력은 부수적인 피해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② 롤스는 취득 및 양도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분배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③ 니부어는 개인보다 사회(집단)가 도덕성 측면에서 열등하다고 보았다.

> 집단의 도덕이 이처럼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한 이유는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④ 니부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정당한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당 선지는 니부어의 입장에 부합하기 때문에 '갑과 달리'가 틀리므로 오답이다.

>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있는 합리적 · 도덕적 요소들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니부어는 강제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위험성이 가장 적은 형태의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⑤ 니부어와 롤스 모두 정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

>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精緻)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돼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롤스, 『정의론』]

08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6학년도 9평]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사회 내의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쉽다.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은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비판적 태도를 말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이 지닌 맹목적인 성격이야말로 도덕적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집단의 권력을 행사하는 토대가 된다. →니부어

보 기

ㄱ.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적인 사회 강제력을 권고한다.
ㄴ. 집단 간의 관계는 정치적인 힘의 비율에 의해 수립된다.
ㄷ. 집단의 도덕성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도덕성에 비례한다.
ㄹ. 집단 간 세력 불균형은 사회 갈등과 부정의를 지속시킨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집단 간 힘의 비율에 의해 관계 수립

정답 ⑤

제시문 설명

니부어는 도덕적인 개인이 어떠한 집단에 속하게 되면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쉬우며, 그러한 충성심을 갖게 되면 집단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말살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러한 집단은 도덕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f) 제시문의 2–3번째 문장은 아래에 있는 원전의 내용을 토대로 출제한 것이다.

>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여타의 모든 이타적 충동의 원천임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개인의 비판적 태도를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열정의 형태로 드러나는 일이 자주 있다. 이와 같은 헌신적인 충성의 맹목적인 성격이야말로 국가 권력의 기초이며, 또한 도덕적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 토대이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선지 설명

ㄱ. 정치적 도덕성이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적절하게 조화시킨 개념이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그리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하려고 한다.

ㄴ. 니부어의 입장에 부합한다. 니부어에 따르면, 집단과 집단은 서로의 요구를 검토하여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 집단 간의 관계는 각자가 가진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되는 것이다.

ㄷ. 니부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제시문의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집단 내 구성원들이 도덕적이라고 해도, 그들이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되면 집단의 이기적인 행동과 무한한 권력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그러한 집단은 부도덕한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ㄹ. 니부어는 집단 간 권력(세력)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사회적 갈등이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9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학년도 수능]

갑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공리의 원칙은 이러한 복종 관계를 인식시켜 주고,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행복의 틀을 짜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기초이다. → 벤담

을 :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집단의 도덕은 자연적 충동에 버금갈 만한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하다. → 니부어

① 갑은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 결과주의)하다고 본다.

② 을은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이 ~~같다~~고 본다.
(→ 이타성 / → 정의)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보다 개인이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 을(니부어)

④ ~~을은 갑과 달리~~ 사회의 이익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본다.
→ 갑(벤담)

⑤ 갑, 을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벤담 : 강제력을 통한 공리 실현 필요
  니부어 : 정치적 강제력을 통한 정의 실현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은 벤담이며 을은 니부어이다. 벤담은 도덕과 입법에 공리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시문에서 니부어는 집단의 도덕이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한 이유를 설명한다. 자연적 충동들에 버금갈 만한 합리적인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f) 을(니부어)의 첫 번째 문장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니부어는 그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사회학자와 교육가 등을 비판한다. 니부어는 그들이 인간의 집단적 행동 중에서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이나 양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요소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본다.

선지 설명

① 벤담은 공리주의 사상가이며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온다면 그러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덕 판단이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다는 것은 벤담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니부어는 개인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이타성이고,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이 같다는 것은 니부어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니부어는 사회보다 개인이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선지가 니부어의 입장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을과 달리'가 틀리다. 벤담은 사회의 도덕성과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 딱히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니부어만 보고 풀면 된다.

④ 중요한 선지이다. 벤담은 사회의 이익이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라고 주장했다. 니부어는 이러한 벤담의 주장에 대해, 개인의 이기주의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므로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⑤ 벤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벌 등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벤담은 자신의 공리주의적 입장을 형벌관에도 적용하여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하거나 더 많은 사회적 선을 창출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형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니부어 또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니부어의 경우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각 집단이 지닌 힘의 불균형에서 찾기 때문에, 공적인 강제력을 통해서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본다.

10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갑 : 모든 집단은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개인의 이기심은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성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견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윤리

을 : 어떤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대항 세력이 견제하지 않는 한 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집단 간의 관계는 지극히 정치적이므로 항상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니부어

보 기

	갑	을
ㄱ. 사회 갈등의 원인이 개인의 이기심에 있는가?	○	○
ㄴ. 사회 갈등의 해법이 권력 불균형 해소에 있는가?	×	×
ㄷ.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선의지의 함양이 필요한가?	○	○
ㄹ.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강제력의 사용이 필요한가? (니부어)	-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갑 : 개인의 도덕성 함양

개인의 이기적 충동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기주의의 표출!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은 개인 윤리 사상가이다. 을은 니부어이며, 그는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오로지 이성과 양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러한 집단적 힘에 대항할 세력이 형성되어야만 그 힘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지 설명

ㄱ. 개인 윤리 사상가(갑)와 니부어(을)는 모두 사회 갈등의 원인이 개인의 이기심에 있다고 본다.

> 집단의 도덕이 이처럼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한 이유는, … 개인들의 이기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기주의의 표출이기도 하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다만, 니부어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력을 사용해서 권력 불균형을 해소해야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개인 윤리 사상가인 갑은 사회 갈등의 해법이 개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개개인의 합리성이나 선의지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니부어는 사회 갈등의 해법이 권력 불균형의 해소에 있다는 입장이다.

ㄷ. 개인 윤리 사상가(갑)와 니부어(을)가 모두 동의할 내용이다. 니부어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선의지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니부어의 입장에서 볼 때,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ㄹ. 니부어가 동의할 내용이다. 갑은 개인 윤리 사상가이므로, 개개인의 합리성이나 선의지를 성장시키기만 한다면 사회 정의가 실현되리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ㄹ선지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시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실하게 ○×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니부어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인 보기이므로 니부어의 입장만 고려하면 된다.

11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수능]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모든 도덕주의자들은 인간의 집단 행동이 지닌 야수적 성격과 모든 집단적 관계들에 있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힘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갈등이 인류 역사에서 불가피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니부어

① 개인 윤리적 이타성과 사회 윤리적 정의는 항상 상호 배타적인가?
② 개인들의 자발적 타협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선의지 통제받는 비합리적 수단 이용
③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함양은 사회 정의 실현의 충분조건인가? 필요
④ 개인 간 갈등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⑤ 개인의 합리적 도덕성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도덕성보다 열등한가?

개인 간 갈등은 가능 그러나, 집단은 불가능!

정답 ④

제시문 설명

니부어는 집단 간의 관계가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니부어는 도덕주의자들을 비판하며, 그들이 인간의 집단적인 행동이 지닌 야수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관계들에 있는 집단 이기주의가 지닌 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에서 사회적인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주의자들은 이를 간과한 채 낙관적인 전망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니부어의 주장이다.

선지 설명

① 매력적인 함정 선지이다. 니부어는 사회 윤리적 정의와 개인 윤리적 이타성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둘 사이의 모순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니부어의 입장에서 볼 때 두 입장이 쉽게 조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선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암기해야 한다.

② 니부어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니부어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함양은 사회 정의 실현의 필요조건이지, 사회 정의 실현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④ 니부어는 개인 간 갈등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집단 간의 갈등은 절대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없다. 선지가 주어졌을 때, 문장의 주어가 '개인 간 갈등'인지 '집단 간 갈등'인지 유의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야 한다.

⑤ 니부어는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했다.

Tip 제시문의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깊게 알아보기

> 니부어는 종교적 · 합리적 도덕가들을 비판하면서, 도덕가들은 집단 이기주의가 도덕적인 사회 목표들에 얼마나 완강하게 저항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도덕가들과 합리적 도덕가들은 순수한 종교나 완전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리라고 보지만, 니부어는 도덕가들의 그러한 낙관적인 시각에 대해 비판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수능]

갑 :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지성, 용기, 결단성 등은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지만, 이런 천부적인 자질들을 이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 있다. →칸트

을 :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니부어

① 갑은 오직 결과를 고려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② 을은 진정한 정의는 선의지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 강제력도 필요)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구조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니부어
④ 을은 갑과 달리 선한 천부적 자질은 선의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칸트
⑤ 갑, 을은 모두 개인의 선의지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은 칸트이고 을은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인 통찰이 사회 정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전에서 니부어는 개인적인 양심이 사회 정의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데, 그러한 사례가 13번 문항의 제시문에 출제되었다. 즉,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비합리적인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만, 사회 정의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지 설명

①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칸트는 행위의 동기에 근거하여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② 제시문에서 니부어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도덕적 선의지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의지만으로 진정한 정의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니부어의 입장에서 사회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통해 권력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③ 니부어는 사회 구조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니부어는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데 개인에게만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④ 제시문에서 칸트는 지성, 용기, 결단성 등 선한 천부적 자질이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기 때문에 '갑과 달리'가 틀리다.
⑤ 니부어는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과 성취가 사회생활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칸트의 자율 개념에는 선의지에 입각한 도덕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 즉, 칸트는 사회 생활은 개인들의 선의지가 전제되어야만 도덕적으로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1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학년도 6평]

개인으로서 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니부어

(맹목적 충성)

① 사회 정의 실현에 정치적 강제 수단의 활용은 필수 요소이다.
②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한다. (국가 이기주의 심화 유발)
③ 국가 간 이해관계는 설득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④ 국가의 이기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⑤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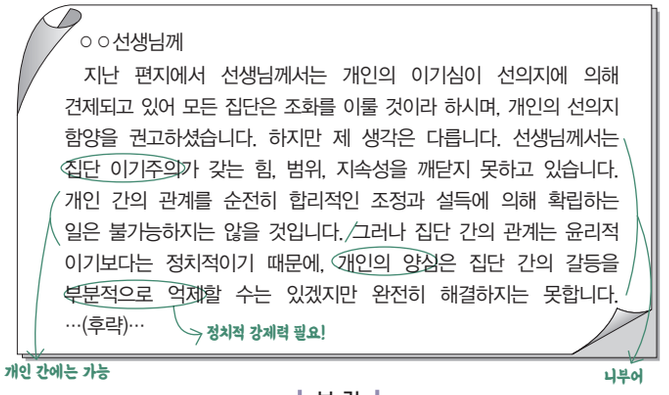
제시문을 통해 니부어는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행동할 때와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니부어에 따르면 개인으로서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믿으며, 상호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도 믿는다. 그런데 개인이 인종적 집단, 국가적 집단, 또는 경제적 집단에 속하게 되면 그들은 집단의 힘이 명령하는 것을 무엇이든 따르게 된다. 또한, 개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선의지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한 국가에 속하게 되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랑(종교적 선의지)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개인들이 지닌 종교적 선의지는 심지어, 애국심을 통해 국가의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만들어낸다. 즉, 종교적 선의지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개인은 애국심을 통해 자국에 헌신하게 되고, 이는 국제 관계에서 (자신이 속한) 국가의 이기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지 설명

① 니부어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정치적인 강제 수단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 니부어는 개인이 지닌 이타심과 애국심이 오히려 국가 간 이기적인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타적인 개인이 애국심을 통해 자신이 속한 국가에 헌신하게 되면, 국제 관계에서 타 국가들에 대한 자국의 이기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니부어는 집단 간의 관계가 설득만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집단의 일종인 국가 간의 관계 또한 설득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④ 니부어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를 핵심적으로 잘 짚어낸 좋은 선지이다. 결국 니부어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이기주의는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사회(국가)를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선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하며, 또한 이 선지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⑤ 니부어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이 비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양심과 이성을 지닌 개인이 도덕적으로 성찰한다면, 설령 자신이 속한 집단이 타 집단과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집단 이기주의에 동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14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9학년도 9평]



보 기

ㄱ.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이 갖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ㄴ. 선의지는 정의 실현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을 통제해야 한다.
ㄷ. 사회 정의는 사회적 억제와 힘을 통해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 실현해야 함
ㄹ. 사회적 협력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인간 사회에서 '사회적 분쟁'은 종식될 수 없다.
현실에서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개인 윤리만을 강조하는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가 집단 이기주의가 갖는 힘, 범위, 지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니부어는 개인 간의 관계를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집단 간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만으로는 집단 간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선지 설명

ㄱ. 제시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니부어는 집단들 간의 관계가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집단 간 관계가 각 집단이 지닌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 니부어는 선의지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강제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렇지 않을 때 사회에 엄청난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ㄷ. 니부어는 집단 간의 관계에서 이기적 충동이 득세하게 되므로 이를 견제(제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니부어의 입장에서 ㄷ선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ㄹ. 니부어는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인간 사회에서 '사회적 분쟁'은 종식될 수 없다. 현실에서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019학년도 6평, 9평의 니부어 문항 분석 칼럼

1. 수식어가 없는 사회적 강제력

니부어 : 사회 정의 실현에 정치적 강제 수단의 활용은 필수 요소이다. (○) [2019학년도 6평]
니부어 : 사회 정의는 사회적 억제와 힘을 통해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 [2019학년도 9평]
니부어 : 사회 부정의는 외적 강제력을 통해 타파되어야 한다. (○) [2014학년도 9평]

니부어의 정치적 강제 수단, 사회적 억제와 힘은 선의지의 통제와 합리성, 도덕적 요소 및 기타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평가원은 사회적 강제력 혹은 외적 강제력을 위한 수많은 조건들을 짧은 선지 안에 담아낼 수 없으므로 위의 선지와 같이 수식 어구가 없는 '강제 수단, 정치적 수단' 등을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음을 기억하자.

2. 개인이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음

6평 제시문 : …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6평 ⑤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선지다. 물론,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비이기적 태도인 이타심과 애국심'이 국가 이기주의로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개인이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라고 판단해도 틀린 판단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래 원전의 관점에서 해당 선지를 이해하면 더 좋을 것이다. 아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니부어에 따르면 '개인의 양심적 성찰',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 등과 같은 개인 윤리적 요소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⑤ 니부어는 개인의 선의지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니부어, 2018학년도 수능]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생활의 요구이다. …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모순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앞에서 이 두 입장을 서로 조화시키려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과 성취는 사회 생활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9평 ㄴ. 선의지는 정의 실현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을 통제해야 한다. (○)
→ 조금 전 2018학년도 수능 제시문과 니부어의 원전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9평 ㄹ. 사회적 협력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 (○)

니부어는 현실 사회에서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왜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측면과 이타적인 측면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협력뿐만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이기적 성향은 사라지지 않고,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에서는 집단적 이기심이 심화되어서 나타난다.
일부 학생은 '사회 정의가 실현'되면 사회적 분쟁도 종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니부어의 윤리학을 올바르게 학습하지 않아서 생긴 오개념이다. 니부어는 신학자로서, '완전한 정의'는 기독교 신에게 속하며, 현실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할 뿐이라고 본다. 니부어는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해도, 사회적 분쟁이 전혀 없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니부어는 불완전한 사회라도 더 정의로운 상태를 지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15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그리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심한 비도덕성이 집단 간의 관계에 나타난다.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투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 니부어

보 기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ㄴ.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 가능
ㄷ.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ㄹ.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정답 ⑤

제시문 설명

니부어는 개인 간의 관계보다 집단 간의 관계에서 심한 비도덕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니부어에 따르면 집단이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충동을 억제하는 이성, 자기 극복 능력, 상대방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니부어는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강제력을 이용하는 투쟁 등을 제시한다.

선지 설명

ㄱ. 이 선지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니부어는 애국심이 개인의 희생적인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해버린다고 주장한다. 애국심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애국심의 맹목적인 성격으로 인해 국가는 도덕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국민에게 도덕적인 비판, 견제를 받지 않고), 무한한 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니부어는 이에 대해 "개인의 비이기성이 국가의 이기성으로 전환된다."라고 설명한다. 자신이 속한 국가에 헌신하려는 개인의 비이기성으로 인해, 그러한 개인이 모인 국가는 국제 관계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ㄴ. 니부어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설득과 조정을 통해 도덕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선지에서 이러한 내용이 주어질 때, 주어가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인지 아니면 '집단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인지 유의해야 한다.

ㄷ. 니부어는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원전에서 여러 차례 찾아볼 수 있다.

> • 최소한의 강제력이 최선의 강제력이라는 사실이 미리 전제되어야만 …
> •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진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ㄹ. 니부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서론에서, 개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해관계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타인의 이익을 더욱 존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니부어 국가 이기주의 평가원 답변 및 논리적 판단 유형

1. 2019학년도 수능 당시 이의제기 1위 : 니부어의 단정적 표현 선지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 [2019학년도 수능]

〈위 ㄱ. 선지 이의 제기에 대한 평가원 공식 답변〉
이 문항은 제시문의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니부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내용의 요지는 선지 ㄱ의 "애국심을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라는 진술이 "전환시킨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포함하기 때문에 니부어의 입장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니부어는 "애국심은 개인의 비이기성[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patriotism transmutes individual unselfishness into national egoism)."라고 분명히 주장합니다(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John Knox Press, 2013, p.91). 이와 같이 니부어 자신이 '전환시킬 수 있다(can transmute)'가 아니라 '전환시킨다(transmute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서에도 "애국심은 개인의 희생적인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개인의 비이기성은 국가의 이기성으로 전환된다." 등의 진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한우 옮김, 문예출판사, 2006, p.133). 그러므로 이 문항은 정답에 이상이 없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 대한 평가원 공식 답변]

2. 생활과 윤리 평가원 문항에서 단정적 표현

위 선지는 '단언/개연'이라는 기준으로 정오 판단하면 안 된다. 수능 생활과 윤리에서는 '단언/개연'이라는 판단 기준으로 선지 판단을 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

국어에서는 '단언' 선지의 경우, 반례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틀린 선지가 되지만, 생윤에서는 '반례'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언' 선지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 교정을 위해서 두 가지를 체크해보자.

(1) 개연적으로 옳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개연적으로 옳은 것이 단정적으로 옳을 수도 있다.
가령, '의회는 법령을 제정한다.'라는 단언적 문장은 '의회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개연적 문장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틀린 문장이 되지는 않는다.

(2) 선지의 반례를 찾는 것은 생활과 윤리에서 정답을 맞추는 방법이 아니다.

잘못된 판단의 사례

'A는 B이다.' 구조를 가진 선지를 판별함에 있어서, "A는 B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라는 발상으로 선지 판단하는 경우

예시1.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
→ ~~사이코패스인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겠지. 그러니까 틀린 선지야.~~

예시2.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
→ ~~항상 그런 것은 아니잖아? 전환시키지 않을 수도 있잖아. 모든 애국심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

3. 논리적 접근

(1) **판단의 유형 : 전칭/특칭/단칭**

전칭 판단 : 모든~,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
특칭 판단 : 어떤, 어떤 생윤 선택자는 현자의 돌로 공부한다.
단칭 판단 : 그, 그 사람은 21세다.

(2) **일반적 & 보편적**

일반적 : general '대부분 ~다.'
보편적 : universal '모든 것이 ~다.'

(3) **생윤에서 (1), (2)의 응용**

생윤 선지에 '전칭(모든)/특칭(어떤)/단칭(그)' 표현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
일반적(대부분 ~다)으로 해석해야 한다. 보편적(모든 것이 ~다)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가령, '레건 : 삶의 주체인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라는 선지는 옳다.

왜냐하면 레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동물 사냥'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동물에게 공격받는 정당방위 상황에서도 절대 동물을 사냥해서는 안 되는가?'와 같은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반증 사례를 들어 저 선지를 ×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반증 사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냥을 금지한다.'와 같은 표현이 있을 때에나 사용할 수 있는 선지 판단 방법이다.

선지 앞에 '모든' 동물 등과 같이 양을 한정하는 표현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부드럽게 넘어가야 한다.

4. 최종 정리

(1) **'개연적으로 참'이어도 '단언적으로 참'일 수 있다.**

단언적 선지가 출제되었다고 해서, '개연적으로 참'일 경우 그 단언적 선지가 틀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언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추론, 판단이다).

(2) **생윤 기출을 공부할 때에는 선지 출제 규칙(판단 기준)을 익혀야 한다.**

해당 반증 내용이 사상가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이상 함부로 반증 사례를 상상하여, 일반적으로 진술된 문장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생윤에서는 '모든/어떤/어떠한' 등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다면 '대체로 그러하다'라는 general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cf) 물론 사상가의 핵심 개념과 논리에 따라 반례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사상가의 이론과는 달리 학생이 자의적으로 반례를 상상하는 엉뚱하지만 생윤 학습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6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 B, C의 행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가) 니부어	이성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집단의 이기적 충동의 힘이 이성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성의 힘만으로는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나)	• A는 전제 정치에 비폭력으로 대응하면서 사랑과 평화라는 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전제 군주의 자비심에 호소하였다. • B는 봉건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개인의 양심과 결단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하였다. • C는 식민 지배에 반대하면서 자국민들과 단결하여 비폭력적으로 지배국의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였다.

보 기

ㄱ. A는 정치적인 힘 대신에 양심에만 호소하는 잘못을 범했다.
ㄴ. B는 자신의 의도를 조직적인 정치적 저항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ㄷ. C는 비폭력적으로 대응하여 정치적인 힘을 활용하지 못했다.
ㄹ. A와 B는 집단적 저항이 필요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제시문 (가) 분석]
(가)의 사상가는 니부어이다. 그는 이성보다 집단의 이기적 충동이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이성의 힘만으로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치적인 힘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원전]

> • 이성의 능력은 충동 간의 갈등, 특히 사회의 집합적 충동 간의 갈등을 막을 만큼 충분한 억제력을 반드시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 • 사회 불의는 교육가와 사회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바와 같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권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는 힘에 대해 힘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제시문 (나) 분석]
(나)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 설명된 사례들을 토대로 구성된 제시문이다. A는 톨스토이이며 B는 러시아의 테러리스트들이고 C는 간디이다. A, B, C가 누구인지 암기해둘 필요는 없다. 다만, 각각의 대상에 대해 니부어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니부어의 사상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에 대한 설명]

> 톨스토이와 그 추종자들은 러시아 농민들이 차르 정부가 사용한 폭력을 답습하지만 않았더라면, 압제자들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즉 농민들은 악을 선으로 갚고, 무저항을 통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다.
> 간디와는 달리, 톨스토이의 정치 강령은 비현실적인 상태 그대로였다. 즉 사랑이라는 종교적 이상과 강제력이라는 정치적 필요조건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결과는 사회적 · 정치적으로 해로운 것이었다. 톨스토이의 가르침은 정치적 · 경제적 억압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저항을 무마시키고, 러시아를 비관하는 피동성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지나친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 톨스토이로 하여금 일체의 폭력과 저항을 반대하는 쪽으로 몰고 갔음이 분명하다. 테러리스트들의 폭력주의나 톨스토이의 평화주의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결과 러시아는 정치적 · 경제적 체제의 전통적인 불의로부터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비관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니부어는 톨스토이의 평화주의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니부어에 의하면, 톨스토이는 '사랑이라는 종교적 이상'을 제시했지만,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무저항을 표방했기에, 러시아의 부정의한 전제 정치를 타파하지 못한 것이다. 즉,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력'은 정치적 필요조건('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우리 농민들은 차르 정부와는 달라야 해! 폭력은 쓰면 안돼! 무저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라는 식의 생각이나 하며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B에 대한 설명]

> 테러리스트들의 폭력주의나 톨스토이의 평화주의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결과 러시아는 정치적 · 경제적 체제의 전통적인 불의로부터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비관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다. (…) 사실 이 둘은 (…) 너무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므로 정치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들의 태도도 테러리스트들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개인의 양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러시아의 정치 · 경제 체제가 부정의하기에, 이를 타파하고자 테러리스트들이 폭력을 행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특히, 테러리스트들은 불완전한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테러를 감행했다. 아울러 그들은 인용문에 나와 있듯,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원전에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이라는 내용에 착안해서, 출제자들은 테러리스트들이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했다.'라고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C에 대한 설명]

> 랭카셔 지방의 방직공들을 영국 제국주의의 주범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면화에 대한 간디의 불매 운동은 그들을 궁핍화시켰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그[여기서 '그'는 간디를 뜻합니다. – 인용자 주]는 소극적인 물리적 저항 방법들을 사용 – 예를 들어 시민 불복종, 불매 운동, 파업 –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 (…)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차 원탁회의가 진행되던 중에 간디가 랭카셔 주의 방직업자들(그의 불매 동맹으로 궁핍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받은 온건한 기분은 그의 정신적 비폭력의 사회적 · 도덕적 효과의 증거인 것이다. 이는 곧 그의 방법의 승리를 상징한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C는 영국의 식민 지배에 집단적 시민 불복종을 통해 정치적으로 저항한 간디의 사례이다.

선지 설명

ㄱ, ㄴ, ㄹ. A는 종교적 이상을 토대로 군주의 자비심에 호소하기만 하였다. 니부어의 입장에서 볼 때, A는 전제 군주의 정치를 실효성 있게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했어야 한다. 전제 군주의 자비심에 그저 호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가 정치적인 힘을 행사했어야 한다.

B는 개인적인 양심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하였다. 니부어의 입장에서 B를 비판하자면, B의 행위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B는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치적 저항을 일으키는 대신에, 그저 혼자서 테러를 감행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A와 B 모두 집단적 행위가 가지는 중요한 특성 및 집단적 저항의 필요성을 파악하지 못해 자비심을 호소하거나 개인적-독단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집단적 저항이 필요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ㄷ. C는 비폭력적으로 식민 지배에 저항하였다. 그런데 C는 자국민들과 단결하여 불매 운동을 집단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을 통해 지배국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그들을 궁핍하게 만들 수 있다. 즉, 비폭력 저항도 지배국에 대한 정치적 강제력(힘)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니부어는 C의 행위에 대해 ㄷ 선지와 같은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비폭력적 투쟁과 강제력도 재산이나 생명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 이러한 파괴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 강제력의 본의 아닌 불가피한 결과일 뿐인 것이다. (…) 비폭력은 일상적인 사회 과정에 대한 참여 거부로 표출된다. 그래서 그것은 (…) 거부해야 할 사회 집단과의 거래 중단(불매 운동)을 뜻하기도 하며, (…) 불매 운동은 전체 공동체의 생계를 빼앗아버릴 수 있고, 만일 오래 지속되면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다. (…) 랭카셔 지방의 방직공들을 영국 제국주의의 주범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면화에 대한 간디의 불매 운동은 그들을 궁핍화시켰다. (…) 비폭력도 강제력과 파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니부어의 견해

인간의 집단은 도덕적으로 둔감하다. 그래서 순수한 도덕성을 집단에서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그 어떤 사회 집단도 순수한 도덕을 수용할 만한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집단적 이기심은 불가피하다. 만약 이러한 이기심이 확장된다면, 그것에 맞서는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차원을 넘어서 있는 가장 순수한 이상과 같은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적 관계가 복잡하고 간접적이 되어 감에 따라 점차 약화한다.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강력한 구원의 힘을 줄 만큼 일관되게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집단들이 상대방의 도덕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자신의 현실적 이익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17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9평]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은 개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 니부어

① 집단 간 힘의 차이를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다.
③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은 커진다. (극복 가능)
④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⑤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된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니부어는 인간이 개인으로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이게 된다고 지적한다. 개개의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 관계도 고려하지만,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에 충실하며, 집단 이기주의를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단의 도덕이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한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적인 충동이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는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 생생하고, 더욱 누적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선지 설명

① 니부어는 낙관적인 인간관을 견지한 도덕주의자들(교육가, 사회학자 등)을 비판하면서, 인간 사회의 정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는 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니부어는 '집단 간의 힘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 갈등과 부정의가 발생한다고 본다. 니부어는 정치적 방법을 통해서 집단 간의 힘의 차이를 줄여야, 사회 갈등과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 간에는 모순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모순은 극복 가능하다고 보았다.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강제력' 사용의 제한 조건 : 도덕성
니부어는 '정치는 양심과 힘이 만나는 지대'라고 말했다. 힘은 양심에 따라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계층의 사적 이익이 아닌 사회의 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니부어는 말한다.
"강제력은 분명 위험한 도구이다. 강제력은 사회적 악을 양산해내므로, 현명한 지성이 있는 사회라면 그것들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성이 강제력을 도덕적 이상의 실현 도구로 삼는다면, 이성은 이를 최고의 목적을 위한 봉사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합리적, 도덕적 세력에 가장 잘 어울리고 위험성이 가장 적은 형태의 강제력을 선택할 것이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있는 합리적 · 도덕적 요소들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줌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진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③ 니부어는 '이성'이 규모가 큰 집단의 이기적 충동을 제어할만큼 강력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니부어는 집단의 이기적 충동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이 이성을 타락시키고, 이성을 악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④ 니부어의 입장으로 옳은 선지이다. 니부어는 사회 윤리에서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정의이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니부어는 강제력이 피해를 동반하고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니부어에 따르면,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필요로 한다.

⑤ 니부어의 입장에서, 집단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니부어는 집단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고 보았다.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즉 그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와 필요성을 비교 · 검토하여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1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 충동과 이타적 충동을 함께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도덕의 문제가 개인 차원에서 집단 간의 관계로 옮겨 갈수록 이기적 충동이 득세하게 된다. 사회의 집단 이기심은 불가피하며 이런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게다가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외에 강제력도 병행되어야 견제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니부어

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과정에는 강제력이 불필요하다.
② 인간의 자기 보존의 욕구는 세력 강화의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③ 도덕적 계몽으로 사회에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④ 집단 간 정의 실현에 집단 이기심의 상호 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
⑤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선의지, 상호이해

도덕적, 합리적 조정·설득으로는 집단 갈등 자체가 소멸될 수 없음

정답 ①

제시문 설명

니부어의 입장에서, 인간은 이기적 충동과 이타적 충동을 모두 지닌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 충동은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에서 더욱 커진다. 니부어는 인간 사회의 집단적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으며, 도덕적 · 합리적 설득 외에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선지 설명

① 니부어는 사회의 불의가 도덕적 · 합리적 권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생겨난 사회적 갈등, 집단적 충동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도덕적 노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니부어는 동물과 인간을 대조하며, 동물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 인간이 지닌 자기 보존의 욕구는 세력 강화의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고 주장한다. 즉, 동물은 배가 고프면 상대를 죽이고, 위험을 느끼면 싸우거나 달아나는 식의 행동을 한다. 자기 보존의 본능이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필요성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이와 달리 사람은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전환되어, 자신이 속한 세력을 강화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다.

③ 니부어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순전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으로는 조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도덕적 계몽으로 사회에서 집단 간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④ 니부어는 인간 사회의 집단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때는,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니부어는 집단 간 정의 실현을 위해 집단 이기심의 상호 투쟁이 개입될 수도 있다고 본다.

⑤ 니부어는 국가를 보존하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니부어는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통일과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의지의 감정과 상호 이해하는 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니부어는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윤리적 차원의 해법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어떠한 국가도 순전히 강제성에 의해서만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강제성 없이 국가를 보존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Tip ②번 선지 깊게 알아보기

> 동물의 경우에 자기 보존 본능은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필요성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 동물은 배고프면 죽이고, 위험을 느끼면 싸우거나 달아난다. 반면에 사람의 경우, 자기 보존의 충동은 세력 강화에 대한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 일단 권력을 획득하게 되면 … 계속 권력을 강화함으로써만 자신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보존을 위해 자연이 제공했던 무해하고 정당한 전략들이 인간의 정신에서는 제국주의적 목적과 정책들로 전환된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❷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

01

다음 현대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5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 무지의 베일 속의 계약 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을 통해 특정 사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채택할 원칙들로서 모든 합의를 규제하게 된다. 롤스

① 가상의 상황에서 보편적 합의를 위해서는 ~~동정심이 필요한가?~~ (롤스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 → 타인에 무관심)

②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경제적 재화의 차등 분배보다 선결 과제인가? (제1원칙 / 제2원칙 / 자유의 우선성)

③ ~~더 큰 사회적 효용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자유는 제1원칙(자유)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

④ 기회의 균등을 통해 정의의 요건인 ~~결과의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가? (정의의 제2원칙 /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 허용 가능)

⑤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가? (균등분배)

정답 ②

선지 설명

① 롤스가 지칭하는 '가상의 상황'은 원초적 입장이고, '보편적 합의'의 대상은 정의의 원칙이다. 즉, 롤스의 정의론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 상황을 상정하고, 그 당사자들이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모두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만장일치의 특성을 지닌다.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의 조건이 존재한다.

(1) 인지적 조건(=객관적 조건)

>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근거인 원초적 입장은 두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무지의 베일이다. 무지의 베일에 의해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는 인간 사회에 관한 일반적 지식은 알 수 있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실, 즉 자연적 재능, 사회적 지위, 인생 계획,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세대 등을 알 수 없다. 자신에 대한 특수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인지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무지의 베일은 객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의 내적 조건이 아닌 외부에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장동익, 「롤스, 『정의론』 해제」]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사항에 제한을 둔다. 먼저 인간 사회에 관한 일반적 지식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 지식에는 경제학과 심리학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모두 이 사실들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인지 조건이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실(자연적 재능, 사회적 지위 등)의 우연성에 의한 결과물은 알 수가 없다. 이는 정의의 원칙이 합의되는 데 있어서, 우연성의 결과를 무효화시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롤스의 사상이다. 그러므로 합의에 있어 개별적 우연성에 대한 지식을 차단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 체제를 선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초적 입장은 인지적 조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원초적 입장에 무지의 베일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⑵ 동기적 조건(=주관적 조건)

> 다른 하나의 조건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며, 더구나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하여 타인에 대해 시기심과 동정심을 갖지 않는 상호 무관심한 존재라는 조건을 갖는다. 이것은 동기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건은 주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동익, 「롤스, 『정의론』 해제」]

▶ 롤스는 인지적 조건과 더불어 동기적 조건으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타인에 대한 시기심과 동정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갖는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의 내적 특성을 일컫는 것이므로, 주관적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에서 말하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동정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원초적 입장의 동기적 조건에 해당하는 합의 당사자들의 특징인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에 의하여 반박된다. 즉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동정심을 갖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정답 처리될 수 없다.

②, ③ 롤스는 정의의 원칙 내에는 축차적인 서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즉 제1원칙은 순서적으로도, 중요도 측면에서도 제2원칙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 '자유의 우선성'이라고 일컬어 진다.

'자유의 우선성'이라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⑴ 기본적 자유는 더 큰 사회적 효용을 위하여 제한될 수 없다.

롤스는 재화의 차등 분배를 논하기 이전에, 모든 사회적 가치가 평등하게 분배된 최초의 가상 상황을 상정한다. 예컨대, 모든 사회적 가치들(자유, 기회, 소득, 자존감의 기반 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롤스는 논의를 전개해감에 따라, 모든 사람의 처지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개선안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롤스는 자유가 다른 사회적 가치들과 임의적으로 교환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가치라고 보지 않는다. 롤스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경우 소득 및 재산에서의 불평등을 허용할 수는 있어도, 자유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롤스는 '자유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롤스는 기본적 자유가 더 큰 사회적 효용을 명목으로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⑵ 자유는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롤스는 자유를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기본적 자유는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여러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할 때, 더 큰 자유 체계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 따라서 롤스는 순차적으로도, 서열적으로도 기본적 자유를 여타의 가치 분배 문제보다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제한은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④ 롤스의 '공정한 기회 균등'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구성원들에게 삶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는 원칙이다. 즉 아무도 타고난 사회적 위치로 인생이 좌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롤스는 구성원들의 삶의 기회가 평등해진다면, 소득과 부의 측면에서는 불평등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단, 이러한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다. 따라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는 원칙이 아니다.

⑤ 롤스는 기본적 자유가 모든 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차등의 원칙을 통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모든 성원들의 기본적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을 준다는 서술은 롤스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02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변형]

원초적 입장

〈당사자들이 자신의 재능, 가치관, 심리적 경향 등을 알지 못하는 가상 상황〉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 보편적이고 정당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롤스

① 결과의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성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롤스 : 올바른 결과임을 판단할 독립적 기준 ×
올바른 절차인지 판단하는 독립적 기준 ○
보장된다

②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
최악의 결과를 대비하여 위험 기피적 성격
→ 최소 극대화의 원리

③ 가상 상황은 ~~상호 배려~~와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롤스 : 가상 상황의 개인 → 타인에 무관심

④ 가상 상황의 개인들은 계약에 합의할 의지가 ~~없다~~.
롤스 정의론 : 계약론적 입장

⑤ 합의 당사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모르는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2013학년도 '윤리' 교과목 9월 모의평가 선지이다. 롤스는 결과의 공정성이 절차의 공정성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본다. 롤스가 주장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독립적 기준은 없지만, 절차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존재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게임이나 경기에서 규칙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든지 정의롭다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즉 롤스는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이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도 보장된다고 본다.

> 순수 절차적 정의는 비유적으로 도박 등의 게임에서 행해지는 것과도 같은 의미의 절차를사용한다. 예컨대 몇 사람이 공정한 내기로 간주할 수 있는 도박을 했다면 그 판이 끝난 뒤에 현금이 분배된 여러 형태는 도박이 진행되어온 내용과는 무관하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내기는 영(zero)의 기대치를 갖는 내기, 자발적인 내기, 그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는 내기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공정한 내기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특정한 분배는 공정한 분배이다. 이로부터 순수 절차적 정의의 특징이 드러난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어떤 결과가 공정한지를 결정해주는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나, 대신에 공정한 결과를 보장해주는 공정한 절차(공정한 내기의 절차에 따라 도박을 한다)가있다.
>
> [홍성우, 『존 롤즈의 정의론 읽기』]

② 2013학년도 '윤리' 교과목 9월 모의평가 선지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결과라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 즉 '최소 극대화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고 본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무모하게 모험을 하는 존재로 가정되지 않는데, 이는 원초적 입장의 인지적 조건인 무지의 베일 때문이다. 무지의 베일에 의하여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특수한 지위, 성격 등의 지식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자신의 최초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조건 때문에,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합리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도 인생 계획을 위한 기본적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가정되는 것이다.

>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당사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인데, 당사자들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합의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의 결과 중 최악의 것 중에서 최선을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이 그 행위자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자유와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침해받을 수 있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원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최대의 이익은 누리지 못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인생 계획을 위한 기본적 조건은 확보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장동익, 「롤스, 『정의론』 해제」]

또한,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밝혀두고자 한다. 롤스에 따르면 '최소 극대화의 원리'라는 것은 '차등의 원칙'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저축 원칙'이라는 세대 간의 정의 문제도 다루며, 사회 조직상의 필요를 충족시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보완하는 원칙이다. 반면에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단순한 위험 회피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롤스는 양자가 형태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끝으로 용어에 대해 한마디 해두겠다. 경제학에서는 차등의 원칙을 최소 극대화의 기준으로 말하고 싶어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명칭을 주의해서 피해왔다. 최소 극대화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선택 규칙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차등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이다. 이처럼 너무도 다른 두 가지에 대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등의 원칙은 매우 특수한 기준이다. 즉 차등의 원칙은 그 기대치가 기본 가치들의 지수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대표적 개인들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차등의 원칙을 최소 극대화의 기준으로 명명하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되는 차등의 원칙에 대한 주요한 옹호 논변이 마치 극도의 위험 기피라는 가정에서 도출되는 것인 양 잘못 말하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과 이런 가정 간에 사실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가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롤스, 『정의론』]

③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 가상 상황을 상호 무관심한 당사자들로 가정한다. 이전 문항(2015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해설에서 다루었던 무지의 베일의 '동기적 조건'에 해당한다.
롤스는 인지적 조건과 더불어 동기적 조건으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타인에 대한 시기심과 동정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갖는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는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의 내적 특성을 일컫는 것이므로, 주관적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갖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으로 인하여 [가상 상황에서 상호 배려가 이루어진다]라는 명제는 거짓임을 알 수 있다.

④ 롤스는 가상 상황의 개인들이 계약에 합의하려는 의지를 갖는다고 본다. 롤스는 사회 계약론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의론을 설명한다. 롤스가 주장하는 원초적 입장은 사회 계약에 있어서 자연 상태로 상정된다.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합의 당사자'로 가정되며, 정의의 원칙에 대하여 상호 합의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롤즈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 도출된 정의의 원칙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 신념과 합치할 것이며, 우리의 윤리적 판단과도 부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은 도덕적 관점인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논증에 의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정의의 원칙으로 두 개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한다.
>
> 제1원칙 :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 제2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
> (1)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
> (2)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장동익, 「롤스, 『정의론』 해제」]

⑤ 롤스는 합의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여야 한다고 본다. 즉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적 협동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체계로서의 사회 이념을 나타내는 관념이다.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협동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가치관의 능력'과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의감의 능력'이다.

롤스에게 이 두 가지의 도덕적 능력은 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기본적 조건이 된다. 롤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능력을 어느 정도 이상 지닌 시민들을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간주한다.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여러 계층의 시민들을 대표한다. 이러한 개인들이 자유롭다는 것은 이성적인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스스로의 책임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자율적인 인간임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인간이 자신의 가치관에 근거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롤스는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칸트적 해석을 가져온다. 이는 칸트의 자율성 관념에 기초를 둔 해석인데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표현하는 행위의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에 근거할 경우, 롤스가 주장하는 행위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나 타고난 재능과 같은 우연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즉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에서 논하는 합의 당사자들의 상호 무관심성이라는 특징은 개인들이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 도출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행위하는 인간이야말로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인격으로서의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보는 것이다.

03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변형]

원초적 입장

특정 지식이 제한된 최초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전체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를 향상하는 원칙에는 합의한다. 롤스 → 공리주의 비판

차등의 원칙

①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는 공정성과 양립할 수 ~~없다~~. 있다
롤스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 →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의의 원칙 합의

② 최초 상황의 개인은 서로의 이익을 ~~공평하게 비교~~한다.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 상호 비교 ×, 상호 간 이익 및 손상 ×, 상호 애정 및 증오 ×

③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 나타난 결과는 불평등해도 인정된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함

④ 소득 분배는 공정한 사회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롤스 :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소득 불평등 인정 가능

⑤ 결과의 정당성은 절차의 공정성에 구속받지 않는다.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 : 절차가 공정해야 그 결과도 공정하다.

정답 ③

선지 설명

① 롤스는 개인의 합리적인 이익 추구와 공정성이 양립될 수 있다고 본다. 롤스의 원초적 입장의 조건 중 하나는 "당사자들은 타인에 대한 시기심과 동정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롤스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 전제된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정한 원초적 합의의 조건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무지의 베일로 인해 자신의 특수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으로 인해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합의 당사자 모두가 개인의 목적 추구에 집중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특정 당사자에게 편향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의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 다른 하나의 조건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며, 더구나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하여 타인에 대해 시기심과 동정심을 갖지 않는 상호 무관심한 존재라는 조건을 갖는다. 이것은 동기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건은 주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동익, 「롤스, 『정의론』 해제」]

② 롤스는 최초 상황의 개인, 즉 원초적 입장에서의 개인은 서로의 이익을 비교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①번에서 설명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지니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과 관련된 것이다. 다음은 롤스의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의 특성을 나열한 것이니, 가볍게 여러 번 읽고 참고하길 바란다.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1)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목적 체계를 증진시켜주는 원칙들을 받아들이고자 함.
(2) 상호 간에 이익을 주려고 하거나 손상을 끼치려 하지도 않음.
(3) 애정이나 증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음.
(4) 서로를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음.
(5) 질투와 잘난 체를 하지 않음.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이라는 가정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뜻이 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목적 체계를 증진시켜주는 원칙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위해서 가장 높은 지수의 사회적 기본 가치를 스스로 얻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용에 상관없이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이익을 주려고 하거나 손상을 끼치려 하지도 않으며, 그들은 애정이나 증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는다. 또한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질투를 하거나 잘난 체하지도 않는다. 경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은 가능한 한 높은 점수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상대편 때문에 높거나 낮은 점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편과의 승점 차이를 극대화 혹은 극소화하려는 것도 아니다. 경기라는 관념은 실상 적합하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승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목적 체계로 판단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점수를 따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롤스, 『정의론』]

③, ⑤ (③번 선지는 2012학년도 '윤리' 교과목 9월 모의평가 선지이다.) 해당 선지는 롤스가 언급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이, 절차만 공정하다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는 이론이다. 즉, 게임이나 경기와 같이 공정한 절차만 거친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롤스는 결과의 정당성이 절차의 정당성에 구속된다고 본다.

롤즈는 절차적 정의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그리고 순수한 절차적 정의이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있으며, 동시에 공정한 분배를 결과할 절차도 있는 경우이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있으나 이런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경우이다. 즉 올바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적용되는 절차가 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해서 그릇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절차가 결과한 내용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공정하게 간주하는 경우이다. 롤즈는 분배의 몫에 대한 문제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문제라고 말한다. [장동익, 「롤스, 『정의론』 해제.]

④ 2012학년도 '윤리' 교과목 9월 모의평가 선지이다. 롤스는 소득 분배가 공정한 사회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진다고 단언하지 않는다. 오히려 롤스는 기본적 자유 체계가 보장되는 배경 하에서 (1)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2) 불리한 여건에 처한 사람(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소득의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당사자들이 시기심에 좌우되지 않고서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들이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와 일관된다는 조건하에서 최소 수혜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한, 기본 구조는 이러한 불평등들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롤스, 『정의론』]

04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롤스의 원초적 입장 비판

가치의 사회적 의미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는 결코 상상 속에서 철학적으로 고안될 수 없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그 의미에 따라 상이한 절차와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Y의 소유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성립한다. 왈처

다원적 정의

① 가치의 사회적 의미와 ~~무관한~~ 기본적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왈처 :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

② ~~가상 상황에서 합의한 원칙을~~ 현실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왈처 : 롤스의 원초적 입장 비판 → 단일·보편적 정의의 원칙 ×

③ 정의론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소유뿐만 아니라 존재 및 행위와도 관련 O

④ 가치를 분배할 때에는 사회의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공동체의 다양성(특수성) 고려

⑤ 지배적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도 ~~지배해야 한다~~.
왈처 : 지배에 반대

정답 ④

선지 설명

① 왈처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을 사회적 가치들이라고 본다. 즉, 왈처는 가치들이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평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어떠한 것이 개인적으로 소중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그것들 역시 문화적 평가의 대상이기도 한 것처럼, 어떤 가치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왈처는 사회적 가치가 아닌 다른 종류의 가치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그 여부를 확실하게 판정할 수 없다고 본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다.
가치들이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또 그럴 수도 없다. 나는 사회적 가치가 아닌 다른 어떤 종류의 가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 문제는 열린 문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일부 가정 용품들은 사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이유에서 소중하다. 그러나 오직 문화 안에서만 이런 물건들에 대해 정서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 아름다운 일몰, 갓 깎은 풀내음, 도시의 장관 등 아마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가치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마저도 문화적 평가의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심지어는 새로운 발명품마저도 그 발명가의 생각과 꼭 맞게 가치 평가되지는 않는다. 즉 이런 발명품 역시 가치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구상 및 창출 과정에 종속되어 있다. [왈처, 『정의와 다원적 평등』]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사회적 의미에서의 가치와 대립되는 관념은 "그 자체로서의, 사회적 의미와 무관하게 의미있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왈처는 분배의 기준과 제도들은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해 본원적(근본과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 즉, 어떤 가치를 분배할 때, 해당되는 사회적인 의미에 따라 그 정당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의 성직(聖職)은 그들의 학식 및 신앙심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떤 가치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정 사회, 공동체적 배경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왈처는 이러한 맥락에서 분배 정의와 관련된 특정 가치가 본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 분배의 기준 및 제도들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즉 사회적 의미와 무관하게 의미 있는 가치)에 대해 본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해 본원적이다. 우리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즉 어떤 가치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가치가 분배되는 방식, 그 가치를 분배하는 주체 그리고 그 가치를 분배하는 근거들을 이해하게 된다. 모든 분배는 해당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정의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정당화의 원칙이며, 또한 비판적 원칙이다. 가령 중세 기독교 신자들이 성직 매매를 비판할 때, 그들은 성직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가치는 매매를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다. 공직을 기독교식으로 이해한다면, 공직자는 그들의 재산이 아니라 그들의 학식과 신앙심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나는 이런 결론은 필연적인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왈처, 『정의와 다원적 평등』]

② 왈처가 아니라 롤스의 입장이다. 롤스는 정의론이 사회 계약론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초적 입장이 자연 상태, 사회 협동체가 사회 상태에 해당함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원초적 입장은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 상황이다. 즉, 가상적인 상황이며 홉스와 루소의 자연 상태론이 가설적인 점과 같이 역사적으로 실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ⅰ) 합의는 가설적이다. 우리는 (묘사된 대로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의할 수 있거나 혹은 합의하게 될 것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이다.
> (ⅱ) 합의는 비역사적이다. 우리는 합의가 실제로 체결된 적이 있다거나 혹은 체결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 재서술』]

왈처는 가상 상황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 사회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롤스의 이론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판한다. 왈처에 따르면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천부적 자산이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 등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가정은 현실 사회에 정의의 원칙을 보편적으로, 단일하게 적용하려는 것과 같다.

왈처가 보기에 현실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다양한 역사적 맥락이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집합인데, 롤스의 정의론은 이러한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왈처는 '자아'에 있어서도 '관심, 사회적 역할, 역사적 · 문화적 정체성, 추구하는 이상과 원칙과 가치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롤스가 갖는 보편적 정의관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상호 경쟁적인 가치들이 혼재하며, 자원은 희소하고, 필요들은 쉽사리 파악되지 않으면서 팽창하기만 하는 개별 문화들의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단 하나의 공식이란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령 '공정한 몫'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이 관념이 적용되는 가치들의 포괄적인 목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단 하나의 길 역시 있을 수 없다. [왈처, 『정의와 다원적 평등』]

③ 왈처는 인간 사회가 중요한 점들에서 분배 공동체라고 보며, 철학적 반성의 영역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분배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왈처가 동의할 입장이 아니다. 더불어 왈처는 분배적 정의를 논함에 있어 소유의 문제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분배적 정의는 소유뿐만 아니라 존재 및 행위 등과 관련이 있고,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정체성, 지위, 토지, 자본, 개인 재산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 분배적 정의는 거대 관념이다. 즉 이것은 가치들의 세계 전체를 철학적 반성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다. 여기서 누락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나아가 우리 공동 삶의 어떤 모습도 엄밀한 검색을 피할 수 없다.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인 것이다. 물론 분배 공동체가 인간 사회의 전모는 아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중요한 점들에서 분배 공동체다. … 분배적 정의라는 관념은 소유뿐만 아니라 존재 및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정체성, 지위, 토지, 자본, 개인 재산과도 관련되어 있다. 서로 다른 정치 체제들은 다양한 가치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배한다. [왈처, 『정의와 다원적 평등』]

④ 왈처는 정의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비판한다. 왈처가 보기에, 롤스의 분배 정의론은 가상 상황에서 도출한 정의의 원칙이 각 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왈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의의 원칙이 그 형식에 있어 다원주의적이라고 보며,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회의 특수성은 왈처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 정의의 원칙은 그 형식에서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차이는 사회적 가치들 그 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상이한 이해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이다. [왈처, 『정의와 다원적 평등』]

⑤ 왈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왈처는 가치를 지배하는 것에 반대한다. 가치를 지배한다는 것은 어떠한 가치 X를 지녔다는 이유로 가치 Y까지 얻으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왈처는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며, 이들이 전제적이라고 비판한다.

"내가 잘 생겼으니까 나는 존경을 받아야 한다."
"나는 힘이 세다. 따라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

왈처는 이러한 예시를 비판하며, 각자의 특정한 자질로 모든 가치를 지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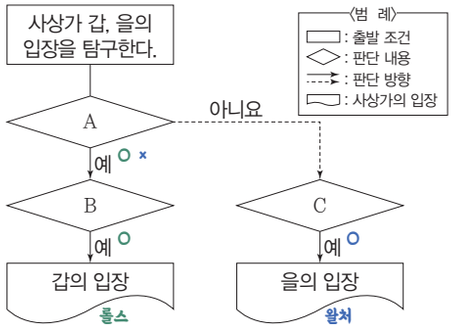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가)

갑 : 공통의 정의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숙고된 판단과 일치하는 합당한 정의관을 도출할 수 있다. 롤스

을 : 어느 한 시민이 다른 시민보다 우선적으로 공직에 선출될 경우 정치 영역에서 두 사람은 불평등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 공직에 선출된 시민의 직위가 그 밖의 영역에서 다른 시민보다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반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왈처

(나)



① A : 재화의 차등 분배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롤스 왈처 × -
롤스 : 자유는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 가능

② B : 모든 사람의 이익 증진이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조건인가? ○ -
롤스 :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경제적 불평등 허용 가능

③ B : 효용의 극대화가 다수가 합의해야 하는 정의관 결정의 ~~원칙~~인가? × -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내용

④ C : 사회의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도 ~~되는가~~? - ×
왈처 : 사회적 가치의 지배 · 전제 반대

⑤ C : ~~모든~~ 사회적 가치는 자유 교환의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 하는가? - ×
ex. 왈처 : 경제 ↔ 정치적 가치 자의적 교환 ×

정답 ②

선지 설명

① 롤스는 재화의 차등 분배를 명목으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다. 애초에 기본적 자유라는 것은 정의의 제1원칙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차등 분배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롤스는 자유가 다른 사회적 가치와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자유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개인의 기본적 자유만큼은 사회 협동체에서 도덕적 힘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과 임의로 교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롤스는 재화의 차등 분배는 허용 가능하지만, 이에는 구성원들의 기본적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허용된다고 본다.

cf) 물론 롤스는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재화의 차등 분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의 전체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즉 더 큰 자유를 위해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왈처의 경우에는 롤스와 같은 '기본적 자유'라는 개념을 따로 상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언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롤스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선지는 롤스 위주로 정오 판단을 하면 된다.

> 언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는 전혀 없다. 또한 이 중 어느 것도 경매될 수 없다. 이런 자유는 모든 시민에게 보장된 것이다. [왈처, 『정의와 다원적 평등』]

② ①번 선지 해설에서 언급한 대로, 롤스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모든 사회적 가치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인간이 출생을 하여 사회 협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에는 일정한 우연성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 우연성에는 외모, 신체 조건, 재능 등의 자연적으로 타고난 우연성,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등의 사회적으로 타고난 우연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각자가 타고나는 우연성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롤스는 이러한 우연성을 당연히 그들이 받아야 할 응분(desert)의 몫으로 여기지 않고, 운이라는 개념을 임의적인 개념으로 중립화(neutralize)시키기 때문에, 운의 결과물도 개인이 가져야 할 자격(desert)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인이 타고난 우연성을 이용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우연성의 활용 방향이다. 개인은 불리하게 타고난 이들, 즉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 우연성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쉽게 말해, 유리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불리한 처지 하의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활용할 시, 사회의 기본 구조는 그 유리한 개인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혜자의 교육에 재원을 할당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최소 수혜자도 최초의 평등 상태보다 처지가 더욱 상승하고, 유리한 개인들도 이미 이익을 보고 있지만, 재능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사회의 기본 구조가 장려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등의 원칙의 "호혜성의 관념", "호혜성의 원칙", "상호 이익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다.

③ 롤스는 효용의 극대화를 다수가 합의하는 정의관 결정의 원칙이라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롤스는 공리주의적인 이익 총량 극대화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합의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공리의 극대화를 추구하면, 소수의 개인들이 기본적 권리도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할 때 자신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따라서 롤스가 가정하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으며, 오히려 '최소 극대화 원칙'을 고려해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 그러므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효용의 극대화를 정의관 결정의 원칙으로 삼는다는 주장은 롤스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왈처는 가치의 지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가치의 '독점'에는 동의하는데, 아래를 참고하여 두 개념의 차이를 바르게 정립해보자.
(1) 독점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만약 A 영역에 속한 가치를 많이 보유한 유능한 자가 있다면, A의 영역을 독점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능한 정치인이 정치적인 영역을 독점한다고 하여, 그 내부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정의하지 않다는 것이 왈처의 입장이다.

⑵ 지배

하지만, 가치의 지배에 대하여는 의미가 다르다. 왈처는 "어느 누구도 X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Y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구가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받아야 할 몫보다 더 많은 돈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다른 가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는 왈처가 부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두 용어의 차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개념을 접근해야 한다.

⑤ 왈처는 각 사회적 가치의 영역마다 상이한 분배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가치는 ~의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문장 자체가 왈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왈처가 주장하는 영역별 분배 기준이며, 이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된다.

영역	분배 기준
성원권(membership)	국민들의 합의
안전과 복지	필요
돈과 상품	자유 교환
공직	공적
힘든 노동	엄격한 평등
자유 시간(여가)	자유 교환과 필요
교육	기본 교육 : 엄격한 평등 고등 교육 : 시장과 공적
혈연과 사랑	이타주의
신의 은총	자유로운 추구 및 헌신
인정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교환
정치적 권력	설득과 민주주의

0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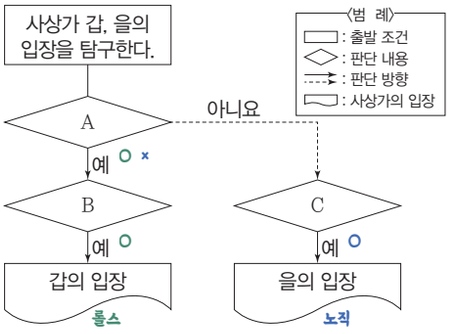
[2017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가)

갑 : 정의는 자신에 관한 〈특수한 지식〉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의되는 원칙에 근거한다. 그 상황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롤스 (특수한 지식 = 원초적 입장)

을 : 정의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정당한 최초의 취득과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한 분배는 정의롭다. 노직

(나)



보 기

롤스노직

ㄱ. A : 사회적 직위를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 -
롤스 : (권한·책임 있는) 직위·직책 →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함

ㄴ. B : 약자의 복지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는 ~~부당한가?~~ ○ -
롤스 : 기본적 자유는 균등 분배되어야 함

ㄷ. B : 사회적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은 조정될 필요가 있는가? ○ -
사회적 운의 결과 → 정의의 제2원칙으로 조정

ㄹ. C :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 소유 권리가 있는가? - ×
노직의 로크적 단서 : 최초 취득 시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함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선지 설명

ㄱ. 롤스는 사회적 직위를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롤스는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사회적 직위나 직책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최소 수혜자가 우선권을 갖는 것은 사회적 직위 측면이 아니라, '기대치'의 측면에서이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게끔 사회 체제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의 내용에서는 최소 수혜자도 자신의 인생 전망을 충분히 실현해줄 수 있게끔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그렇게 최소 수혜자가 자신의 인생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기대치를 향상시켜 주어야 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해당 선지는 롤스의 입장에서 풀도록 설정된 선지이므로, 노직의 입장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ㄴ. 롤스는 약자의 복지를 위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 자유가 차등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기본적 자유는 정의의 제1원칙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ㄷ. 롤스는 사회적 여건 차이로 발생한 불평등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최초의 가정 환경이나, 최초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불평등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우연성의 결과이며, 롤스는 이러한 사회적 우연성의 결과를 사회가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롤스는 우연적인 영향이 사회를 전적으로 지배한다면, 개개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롤스는 특정 개인이 우연성으로 유리해지는 것이나 불리해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사회 전체적으로 우연성의 영향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개인이 우연성의 영향을 그대로 독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롤스는 '운'이라는 요소를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롤스는 우연성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가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롤스는 우연성을 단순한 자연적 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2원칙(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통해 사회적 및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즉 사회적 여건 및 경제적 여건을 불리하게 타고난 개인들이 최초의 불평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사회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통해 최초의 사회적 여건과 무관하게 직위와 직책에 대한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차등의 원칙을 통해 최소 수혜자의 교육에 재원을 할당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롤스는 이로써 모든 개인이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여, 우연성에 의해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사회 협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본다.

ㄹ. 노직은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 소유 권리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노직은 노동 생산물이라고 할지라도, 타인들도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남겨 놓아야 한다고 본다. 즉, 최초 취득 시 자연물에 노동을 가하여 자신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타인의 입장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직은 이를 '측면 제약의 원리'라고 부른다.

> 로크는 사적 소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하나는 대상물에 적절한 노동을 부가하면 소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들도 역시 사유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로크적 단서"라고 불린다. 노직은 이 로크적 단서와 유사하게, 원초적 획득을 통해 타인의 입장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그 획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장동익, 『로버트 노직, 무정부 · 국가 · 유토피아』 해제]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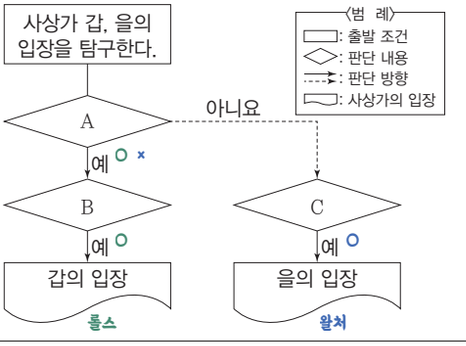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8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가)

갑 :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만일 사회 ·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가장 불운한 계층의 처지가 최초 상태에 비해 개선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의에 부합한다. 롤스

을 : 모든 것이 매매되고 모두가 같은 양의 돈을 갖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이러한 단순 평등 상태는 자유 교환으로 결국 불평등해지므로,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들을 갖는 복합 평등 상태가 정의에 부합한다. 왈처

(나)



보 기

롤스 왈처

ㄱ. A :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최초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 ×
롤스 : 원초적 입장(가상적 최초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합의 통해 도출
왈처 : 롤스의 원초적 입장 비판 → 다원적 상황 반영해야 함

ㄴ. B : 정의의 제2원칙은 ~~제1원칙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칙인가? × -
제1원칙이 보장되었다는 전제 하에 도출(축차적 서열)

ㄷ. C :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는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인가? - ○
다양한 사회적 가치 (경제적, 정치적, etc)

ㄹ. C : 정의의 세분화된 영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해야 하는가? - ×
구분되어야 함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①

선지 설명

ㄱ.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가상적 최초 상황, 즉 원초적 입장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인 당사자로 가정되며, 각자의 조건이 동등하다는 가정하에 공정한 여건 하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 낸다고 여겨진다.

덧붙이자면 여기서의 '최초 상황'은 시간적 순서로서의 최초 상황이 아니라 논리적 의미로서 최초 상황이라고 칭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원초적 입장은 하나의 사고 실험일 뿐이지, 역사적으로 실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원초적 입장은 애초에 롤스가 보편적인 정의관을 도출하기 위해 상정한, 하나의 논리적 사고 실험인 것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의 정당성은 원초적 입장이 보장해 주고 있다. 이 원초적 입장은 근대의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연 상태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은 역사적 현실로 실재하는 상황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가 될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기 위해 구성된 가상적인 입장에 불과하다. 즉 원초적 입장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근거이다. [장동익, 「롤스, 『정의론』 해제」]

반면 왈처는 정의의 원칙이 가상적 최초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왈처에 따르면, 정의라는 것은 사회마다 각각 다르게 간주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인 특수성을 고려함으로써 정의를 논해야 한다. 따라서 왈처는 가상 상황에서 보편적인 정의관을 도출하려는 롤스의 관점을 비판한다.

ㄴ. 롤스는 정의의 제2원칙(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칙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제2원칙을 논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제1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공정한 기회 균등을 논할 때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차등의 원칙을 논할 때는 제1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이 지켜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제2원칙의 서열이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 차등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차적 서열이 낮은 분배 원칙이 상위 서열의 분배 원칙을 교정한다는 서술은 롤스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ㄷ. 왈처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는 모든 가치들이 사회적 가치들이라고 본다. 즉, 왈처는 가치들의 맥락이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다. 가치들이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또 그럴 수도 없다. 나는 사회적 가치가 아닌 다른 어떤 종류의 가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 문제는 열린 문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일부 가정 용품들은 사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이유에서 소중하다. 그러나 오직 문화 안에서만 이런 물건에 대해 정서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 [왈처, 『정의와 다원적 평등』]

ㄹ. 왈처는 정의의 세분화된 영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왈처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고, 어떠한 영역 내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영역의 가치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왈처에 따르면 사회는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각자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08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18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 전제(專制)의 특성은 하나의 수단을 통해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공직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선적인 의료 혜택 등을 얻는 것이다. 복합 평등 체제는 이러한 전제와 정반대이다. 복합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공직에 선택된다고 해도, X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그 외 모든 영역에서 우선적인 혜택이 X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 왈처

①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
- 각 사회마다 상이한 의미

② ~~모든~~ 사회적 가치는 필요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 ex. 안전과 복지
- 왈처 : 서로 다른 영역들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져야 함

③ 사회적 가치는 그 고유한 의미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한다.
- 지배를 의미 → 왈처가 반대
- 사회적 가치가 고유한 영역 내에서 사용되어야 함

④ 복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배적 가치는 평등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 왈처 : 지배적 가치의 공유×
- 여러 가치들의 다원성 존중○

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면 안 된다.
- ex. 정치가들이 정치 권력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임의적으로 얻어서는 안 됨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왈처는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 의미를 갖는 가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왈처가 주장하는 롤스에 대한 비판점이기도 한데, 왈처가 볼 때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각 사회의 공동체적 ·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등 이론이다. 이에 반해 왈처는 가치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사회에서는 상이한 분배 기준에 의하여 가치가 분배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② 왈처는 각 사회적 가치의 영역마다 상이한 분배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복합 평등[다원적 평등]의 개념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가치는 ~의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문장 자체가 왈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왈처는 '사회적 가치들이 그 본원적인 의미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배의 의미로 규정한다. 만약 가치의 사용에 제한이 없다면,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가치들 간의 전환을 통하여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왈처는 이러한 것은 가치의 다원성을 실현시키지 못한다고 보며, 각자의 가치가 고유한 영역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④ 왈처는 지배적 가치가 평등하게 공유된다면, 복합 평등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배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의미는, 단일한 기준을 상정하여 지배적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가치의 다원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평등 상태'에 불과하다. 왈처는 단순 평등 상태가 가치들 간에 교환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 가치 영역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러한 지배적 가치가 존재하는 단순 평등이 아니라, 여러 가치의 다원성을 고려하는 복합 평등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⑤ 왈처는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본다. 왈처가 보기에는 이러한 전환은 단순 평등이며, 단순 평등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들 간의 교환이 일어나며, 이는 상이한 영역들 간의 침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왈처는 각자의 고유한 가치 영역이 존중되는 복합 평등 체제를 주장한다.

> 왈처는 이런 평등을 단순 평등(simple equality)이라고 말한다. 특히 왈처는 롤스의 정의론을 대표적인 단순 평등 이론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런 단순 평등에서는 가치들 간의 전환이 발생한다. 즉 돈을 정치 권력과 교환하고자 한다든지 정치 권력으로 명예까지 확보하고자 한다. 왈처는 가치들 간의 이런 전환을 전제라고 하며, 자신의 complex equality 개념을 통해 이를 저지하고자 한다. [왈처,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원섭(외) 역주]

0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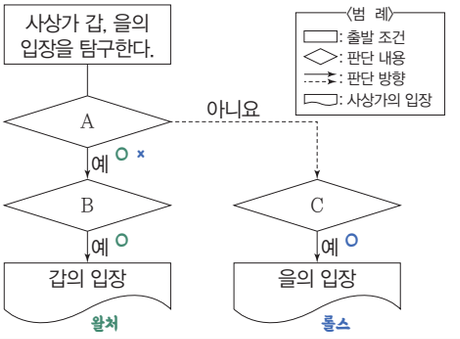
[2018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가)

갑 : 사회적 가치들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며, 각 분배 영역에는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이 있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왈처

을 : 사회적 기본 가치들 사이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서열적으로 배열된다. 이는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 · 사회적 이득의 교환이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롤스

(나)



보 기

	왈처	롤스
~~ㄱ~~ A : 정의로운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가?	○	○
ㄴ. B : 분배 영역들 간의 경계는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	-
ㄷ. B : 상이한 사회적 가치를 상이한 기준으로 분배해야 하는가?	○	-
~~ㄹ~~ C : 사회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	×

왈처 :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분배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더라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도출 가능
롤스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정당화 가능
왈처의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 사회적 가치가 각자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물러 복합 평등 실현 → 정의로운 사회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함
롤스 :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 가능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 ②

선지 설명

ㄱ. 왈처와 롤스 모두 동의할 입장이다. 왈처는 가치의 고유한 영역 내에서의 불평등, 즉 누군가에 의한 가치의 독점은 합당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만약 유능한 정치인이 정치 영역을 독점하고자 한다면,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왈처는 불평등이 각자의 가치 영역이 존중되는 조건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롤스는 정의의 제2원칙을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을 논하는 것이라고 본다. 롤스에 따르면 불평등이 허용될 조건으로 1)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2)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위나 직책들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롤스도 제2원칙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ㄴ. 왈처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왈처는 분배 영역들 간의 경계가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각자의 고유한 영역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영역과 무관하게 전환된다면 한 사람이 모든 가치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전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다원적 평등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왈처는 가치가 영역과 무관하게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ㄷ. 왈처의 기본 입장이다. 왈처는 상이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하고, 각 영역의 가치가 분배되는 영역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치 권력이 분배되는 방식과 소득이 분배되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왈처가 말하는 복합 평등(다원적 평등)이다.

ㄹ. 롤스는 자유를 다른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본다. 롤스는 자유의 우선성을 주장하며, 자유가 다른 사회적 가치들보다 서열상으로 우위임을 분명히 한다.

> 자유의 우선성은, 기본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지라도,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은 혹은 불평등한 자유가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롤스, 『정의론』]

단, 롤스는 자유를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적 자유는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여러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할 때, 전체적인 자유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자유를 제한될 수 있다.

>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사회의 기본적 자유는 평등해야 한다. 다만 평등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도 평등한 자유의 의미와 정의의 두 원칙이 갖는 축차적 서열에 의한 특정한 기준에 따라야만 한다. 이런 자유는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즉 자유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 그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장동익, 롤스 『정의론』 해제]

따라서 롤스는 순차적으로도, 서열적으로도 기본적 자유를 여타의 가치 분배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제한은 제1원칙에 의해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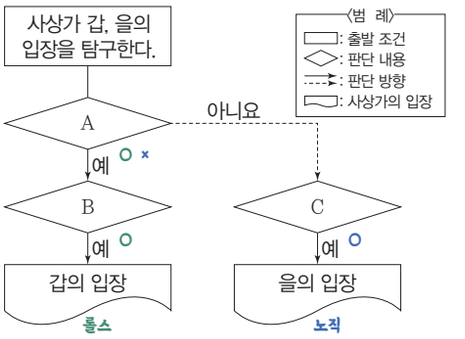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가)

갑 : 개인의 자연적 재능은 단지 운일 뿐이며, 소득과 부의 분배는 자연적 재능이 갖는 자의적인 영향이 누적된 결과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 롤스

을 : 개인의 자연적 재능이 운의 문제라는 사실로부터 자연적 재능이 공동의 자산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는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그 자신의 소유로 간주한다. 노직

(나)



보 기

롤스 노직

ㄱ. A : 다수를 위해 소수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가? O O
롤스 : 공리의 극대화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제한 반대
노직 : 개인의 소유 권리의 배타성을 주장

ㄴ. B :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는가? O -
차등의 원칙 : 주로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 완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 주로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 완화

ㄷ. C : 시정의 원칙에 따른 국가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가? - ×
노직 : 최소 국가는 재화의 이전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한 경우 개입 가능

ㄹ. C : 분배의 결과보다 소유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해야 하는가? - O
노직 : 비정형적·역사적 특성을 가지는 분배 정의 이론 제시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 ②

현자의 돌 COMMENT

갑(롤스) 제시문에는 취소선 표시된 "소득과 부의 분배는 자연적 재능이 갖는 자의적인 영향이 누적된 결과이다."라는 진술이 있다. 하지만 이는 평가원이 롤스의 입장을 올바르게 윤문하지 못한 사례이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자연적 재능이 갖는 자의적인 영향이 누적된 결과'인 상황은 롤스가 비판하는 체제인 〈자연적 자유 체제〉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연적 자유 체제에서는 운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롤스는 이러한 자연적 자유 체제를 비판하며, 자연적 운 및 사회적 운의 영향을 적절히 조정하는 〈민주주의적 평등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제시문만 보면, 수험생들로 하여금 〈소득과 부의 분배가 자연적 재능이 갖는 자의적인 영향이 누적된 결과인 상태〉가 롤스가 주장하는 내용인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해당 부분을 롤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롤스가 비판하는 상황이라고 암기해 두면 된다.

선지 설명

ㄱ. 롤스와 노직이 모두 '예'라고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정답으로 처리될 수 없다. 먼저 롤스는 기본적 권리, 즉 기본적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서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롤스는 전체적인 자유 체계를 위하여 기본적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상황에서도 자유가 '침해'된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 전체적인 선을 증대시킨다고 해도 평등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정의의 두 원칙은 제1원칙을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동익, 롤스 『정의론』 해제]

노직도 기본적 권리, 예를 들면 소유권은 절대적 존중의 대상이라고 보며, 다수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는 권리임을 확실하게 한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 이론은 [이익 총량 극대화]라는 정형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형적인 기준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노직도 다수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야 한다는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ㄴ.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한다고 본다. 롤스에 따르면,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은 자연적 우연성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우연성은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인, 즉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판정할 수 없는 그저 자연적인 사실(natural fact)이기 때문에, 개인은 이에 대하여 응분의 자격(desert)를 지니지 않는다.

오히려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로 타고난 이들에게 불운의 결과를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 롤스는 유리한 처지에 타고난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최소 수혜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사회 제도가 이러한 것을 장려한다면, 유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어,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호혜성의 관념을 주장한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으로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한다는 것은 롤스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ㄷ. 노직은 시정의 원칙(교정적 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 노직은 국가 개입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정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정의 원칙에 따라 과거 상황의 부정의를 교정하도록 국가가 개입을 한다면, 그것이 소유권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노직의 견해이다.

ㄹ. 노직은 분배의 결과보다 소유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노직은 소유가 최초 취득 · 이전 · 교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면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해당 소유물들은 개인들이 소유할 권리와 자격이 주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직은 분배 결과의 정당성을 그 자체로 판단하기보다는, 소유물의 취득 및 이전의 과정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즉 각 소유물이 분배되는 과정이 모두 정당하다면, 그 분배 결과도 정당하다는 것이 노직의 입장이다. 이는 노직의 절차적 정의를 반영한다.

11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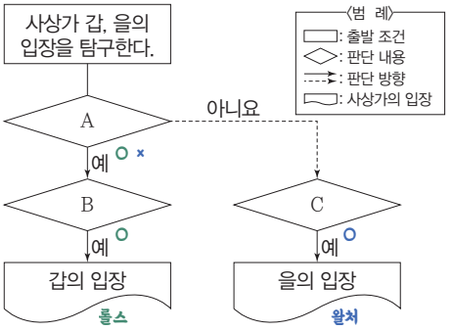
[2019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가)

갑 : 정의로운 분배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째,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롤스

을 : 정의로운 분배는 영역 간 가치의 일반적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영역의 사회적 가치 X는 어떤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X의 의미와 관계없이 Y를 소유한 사람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왈처

(나)



보 기

롤스 왈처

ㄱ. A :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선택되어야 하는가? ○ ×
롤스 :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가상 상황)에서 선택되어야 함
왈처 :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된 롤스의 단일한 정의의 원칙 비판
→ 각 사회의 고유한 상황 고려 ×, 실제 삶에서 실현될 가능성 적다고 비판함

~~ㄴ~~. A :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불평등을 ~~제거~~해야만 하는가? × ×
롤스 :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 허용 가능

~~ㄷ~~. B :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된다면 기본적 자유의 침해는 ~~정당한가?~~ × -
롤스 :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사회적 이익의 교환 반대

ㄹ. C : 가치의 분배 기준은 해당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다른가? - ○
공동체의 특수성 반영(왈처 : 공동체주의)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선지 설명

ㄱ. 롤스와 왈처 중에서 롤스만이 '예'라고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선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사회 계약론에서 자연 상태에 해당하며,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당사자들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에서 공정한 여건하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

왈처는 이와 달리, 정의의 원칙을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하여 보편적으로 모든 사회에 적용시키는 것을 반대하며, 각 사회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 의미에 따라 정의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왈처의 입장에서 볼 때, 롤스의 정의론은 현실성이 부족한 이론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ㄴ. 롤스와 왈처 모두 모든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롤스는 최초의 가상적 상태는 모든 사회적 가치가 평등하게 분배된 상태라고 보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평등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필요한 조직상의 필요물과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대신에 그러한 불평등은 단순한 불평등에 머무르지 않고, 최소 수혜자를 대표로 하여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위에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허용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롤스는 일종의 평등주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분명한 출발점은 다른 모든 사회적 선이, 특히 수입과 부가 평등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몫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조직상의 필요물과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평등한 분배에서 그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기본 구조는 불평등이 평등한 자유 및 공정한 기회 균등과 양립하고, 또 최소 수혜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하는 한 그러한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 우리는 평등한 몫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들은 말하자면 거부권을 갖는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차등의 원칙에 도달한다. 평등을 비교의 토대로 삼게 됨으로써, 보다 많이 획득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획득한 사람들에게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하에서 그와 같은 많은 몫을 획득해야 한다. 이 원칙을 설명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선 첫째로, 그것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은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는 공적인 원칙들과 정책이라는 점이다. 그 원칙은 소유권 및 보상의 체제를 조정하는 데, 그리고 이 체제가 채택하는 기준과 법칙을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차등의 원칙은 예컨대 소득세와 재산세 제도 및 재정 정책과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적용된다. 그것은 개개의 구체적 거래나 분배에 적용되지 않으며, 소규모의 지엽적 결정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배경적 구조에 적용된다.
>
> [롤스, 「질서 정연한 사회」]

왈처 또한 모든 불평등의 제거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왈처는 사회적 가치가 각기 다른 영역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든 사회적 가치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의 특수성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의 적절한 분배 기준을 통해 다원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왈처의 입장이다.

ㄷ. 롤스는 경제적 이득의 보상을 명목으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롤스는 자유의 우선성을 주장하며, 다른 사회적 가치가 자유와 임의로 교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자유가 자유를 위해서 제한되고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제한'이라는 용어를 쓰지, '침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다.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은 더 큰 자유 체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므로, 자유가 침해된다는 맥락과는 아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ㄹ. 왈처는 해당 사회의 고유한 사회적 의미에 따라 가치의 분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왈처는 분배 기준을 보편적 · 획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상이한 사회에서는 상이한 분배 기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맥락으로 왈처는 정의의 다원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 나는 공리주의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체제로 해석한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어떠한 분배 상태가 행복의 최대 총량을 산출하는지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의의 체제는 우연한 여건들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반면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은 공리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게임이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등 공정했다면 게임이 끝난 후 게임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 의미하는 것은 [㉠]는 것이다. 롤스

① 공정한 절차를 따르게 되면 ~~균등한 분배~~를 보장받을 수 있다
└ 공정한 결과를 보장 가능(but 균등할 필요는 없음)
② 정의로운 결과를 판단할 기준은 있지만 그 결과를 보장할 절차는 없다
→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③ 공정한 절차를 따르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④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
→ 순수 절차적 정의
⑤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도,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절차도 ~~없다~~

*롤스 절차적 정의	어떤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독립적 기준	정의로운(공정한) 결과 보장하는 절차
① 완전한 절차적 정의	○	○
②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	× → 헌법 재정 원리
③ 순수 절차적 정의	×	○ → 사회 협동체 채택 원리

정답 ④

선지 설명

①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따른다고 균등한 분배가 보장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② 롤스가 설명하는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예를 들어 헌법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한 과정이다.
③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따랐을 때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도달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는다.
④ 롤스가 설명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이다.
⑤ 롤스가 설명하는 절차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롤스는 사회의 배경적 구조가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라야 함을 주장한다. 롤스는 자신의 절차적 정의관을 논하면서, 절차적 정의의 종류를 세 가지로 드는데, 그 이론은 다음 부분을 참고하자.

롤스의 절차적 정의

(1) 완전한 절차적 정의

먼저 완전한 절차적 정의란, 어떤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과 그러한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케이크를 n명이 나눈다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게 하는 대신 가장 나중에 케이크를 가져가게 하는 상황이 있다. 그렇게 되면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은 최대한 조각 크기에 오차를 두지 않게 잘라야 자신이 받을 케이크가 그나마 최대로 보장될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리하여 어떤 케이크의 분배 결과가 그 상황에서 가장 정의로운지에 대한 기준과 그 기준을 만족할 절차가 모두 있는 것이다.

(2)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란, 어떤 결과가 정의로운지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있지만 그러한 결과를 보장해 줄 절차는 없는 것이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잘 나타나는데, 쉽게 말해서 국가별, 문화별, 시대별로 형법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는 완전한 절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가령 A국가와 B국가가 모두 사형제를 존치한다고 가정해보면, '사형'이라는 형벌의 결과는 존재하지만, 그 결과로 가는 절차는 완전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A국가에서는 절도를 저질러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B국가는 살인범만이 사형에 저해질 수 있다. 또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진범이 석방될 수도 있다.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과오가 아니라 우연한 상황적 여건들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 더불어 이는 롤스의 시민 불복종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헌법을 제정하는 원리는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에 의한 것"이라는 문구도 꼭 기억해 두자.

(3) 순수 절차적 정의

이러한 점들과 달리, 순수 절차적 정의는 내기, 게임과 같은 원리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없으나, 바르고 공정한 절차는 존재하여 그러한 절차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그에 따르는 결과에도 공정성을 부여하는 원리이다. 만약 어떤 게임의 참가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절차에 따르는 게임을 완료하였으면 그에 따른 결과도 불평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것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 중 제2원칙의 하나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사회 협동체가 순수 절차적 정의의 체제임을 보장하는 역할을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 협동체가 채택하는 원리는 순수 절차적 정의인 것이다.

따라서 롤스는 사회 협동체가 순수 절차적 정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개개의 거래나 분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배경적 구조에 적용되는 절차적 정의이다. 즉, 정의의 원칙이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된다면, 그로부터 도출되는 분배 결과도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것이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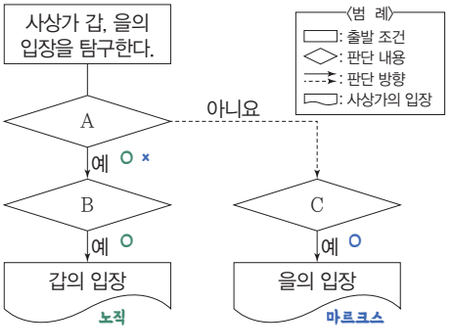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9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가)

갑 : 노동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강제 노동과 같다. 노동자가 행한 노동의 결과를 점유하는 것은 노동자로부터 그의 시간을 빼앗는 것과 동등하다. 노직

을 : 노동자가 자본주의하에서 행하는 노동은 강제 노동과 같다. 노동자는 소외된 노동으로 인해 일하지 않을 때 편안하고 일할 때는 편안하지 못하다. 마르크스

(나)



보 기

노직 마르크스

ㄱ. A : 사적 소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상적인 분배가 가능한가? O ×
노직 : 개인의 사적 소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가 이상적임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이상사회) : 사적 소유 철폐, 필요에 따른 분배 진행

ㄴ. B :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부유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부당한가? O -
노직 : 복지를 위한 세금 → 강제 노동과 같다고 주장하며 반대함
cf. 모든 세금을 반대한 것은 아님(방어·치안·정의의 집행을 위한 경우 허용)

~~ㄷ~~. B : 노동 투입은 최초 취득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인가? × -
노직 : 최초 취득 시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켜서는 안 됨

ㄹ. C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가? - O
마르크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부를 생산할수록, 생산의 힘과 범위가 늘어날수록 가난해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선지 설명

ㄱ. 노직이 동의하고, 마르크스가 부정할 입장이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노직은 원칙적으로 정의의 주제를 '분배적 정의'가 아니라, '소유 권리'로 상정하며,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기존의 중앙 기관에서 행하는 분배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 간에 자유롭게 취득하고 소유물을 이전하는 방식으로서의 분배를 주장하는 것이다. 즉 노직은 만약 어떤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 권리가 적절히 행사되어 얻어진 소유물만이 존재한다면, 그 사회의 분배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해당 선지에 쓰인 '이상적인 분배'는 노직 입장에서 위 설명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노직이 '분배'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노직은 '분배적 정의'를 정의의 주제로써 인정하지 않으며, '소유 권리'만을 정의의 주제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도 취득과 양도의 원칙을 분배적 정의의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의 결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노직의 논지를 숙고해 보면 이러한 혼란은 곧 제거될 것이다.

노직에 의하면, 전체적 결과란 관련된 서로 다른 개인들이 내릴 권리가 있는 그 수 많은 개인적인 결정들의 산물이라고 한다. 환원하면 어떤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 각 개인들이 그들의 소유 권리를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들을 '분배'라고 할 수 있다.

[홍성우, 「로버트 노직의 소유권적 정의론」]

반면에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를 사적 소유가 폐지된 사회라고 본다. 더불어 마르크스는 올바른 분배라는 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본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주의하의 계급을 철폐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노동하지만, 그들에게 재산의 사적 소유가 없는 상태를 이상적인 공산 사회라고 본다.

ㄴ. 제시문 첫 문장의 '노동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강제 노동과 같다.'에서도 해당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노직은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부유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세금이므로 부당하다고 본다. 노직은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에게 봉급을 주지 않고 노동하게끔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직은 빈곤층 복지를 위해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빈곤층에 대한 복지는 개인의 자선적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

다만 노직이 모든 종류의 세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금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최소 국가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집단이므로, 이러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금은 개인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ㄷ. 노직은 노동 투입이 최초 취득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보지 않는다. 노직은 최초 취득의 정당성에는 타인의 처지가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직에 따르면, 최초 취득 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타인들도 충분히 사용할 만큼의 양을 남겨야 한다고 본다. 이는 노직이 주장하는 '로크적 단서'에 해당한다.

ㄹ. 마르크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가 수행한 노동 생산물은 노동자 자신이 아니라,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노동자가 값비싼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더욱 값싼 상품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생산량과 노동자의 부는 상호 반비례한다고 본다.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가 일반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노동자가 노동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고 말한다. 노동자가 임금노동자로서 생산한 노동의 산물은 더 이상 그 자신의 것이 아니다. … 마르크스에 의하면, 소외된 노동의 현실 속에서 노동자는 상품 세계의 부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리고 노동자가 생산해 낸 생산물들의 힘과 범위가 더욱 강화되고 넓어질수록 더욱 가난해지고 곤궁해진다.

[김현, 『마르크스의 경제학-철학 초고』 읽기]

14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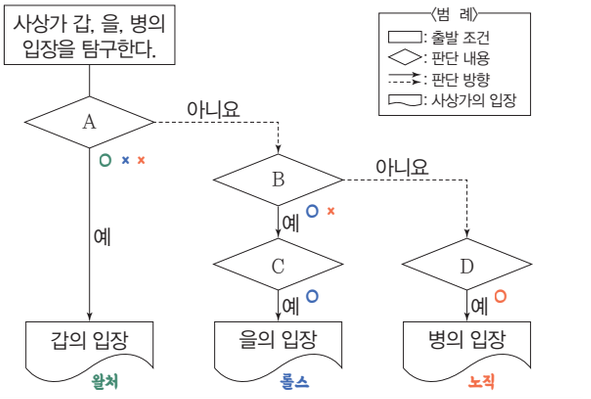
(가)

갑 : 각각의 분배의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정의롭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왈처

을 :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재화의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롤스

병 : 개인들은 그들의 자연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 어떤 것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경우 이로부터 유출되는 모든 것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노직

(나)



〈보 기〉

왈처롤스노직

ㄱ. A : 한 분배 영역의 가치가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야 하는가? 왈처 : 지배·전제에 반대 × - -

ㄴ. B :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은 사회 제도에 의해 개선되어야 하는가? 정의의 제2원칙에 의해 개선 / 사회 제도에 적용 O, but 개개의 거래에는 적용 X - O ×

ㄷ. C : 모든 사람의 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공정한 기회균등을 제한할 수 있는가? 롤스의 정의의 원칙 : 축차적 서열 / 평등한 자유의 원칙 →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 차등의 원칙 - × -

ㄹ. D :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다면 빈부의 격차도 정당한가? 노직의 절차적 정의 :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결과도 정의로움 - - O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③

선지 설명

ㄱ. 왈처는 한 분배 영역의 가치가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X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Y를 소유하는 시스템은 가치의 다원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정치 영역 뿐만이 아닌 경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가치의 '지배'에 해당하며, 가치의 다원성이 존중되지 않으므로 '복합 평등'이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ㄴ. 롤스와 노직 중 롤스만이 '예'라고 대답을 할 질문이다. 자연적 우연성이라는 것은 재능, 외모, 지능 등을 타고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연적 우연성이 좋게 작용하면 우월한 재능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롤스는 이러한 자연적 우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 예시로는 유리한 재능을 타고난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불리한 여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것에 있다.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유리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불운한 사람들을 돕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야만, 자신의 행운에 의하여 이익을 보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반면, 노직은 롤스와 달리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노직은 자연적 우연성이 개인에게 응분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자연적 우연성을 타고났다면, 이는 온전히 그 사람의 소유하는 점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직은 유리한 자연적 우연성을 이용하여 재화를 얻는 것도,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등의 부정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선되어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노직은 소유물이 최초 취득되고 양도되는 과정에서의 부정의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 부정의가 없다면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 또한 불행일 수는 있어도 불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ㄷ. 롤스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의 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킨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도식에 의한 것이다.

1. 개인의 천부적 재능은 자신의 소유이다.
2. 재능이 분포될 때, 더 유리한 재능을 가진 사람과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재능의 분포, 즉 재능의 '차이', '다양성'은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된다.
3. 그런 맥락으로, 더 유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의 이익은 가장 재능을 적게 타고난 자(최소 수혜자)에게 공헌되어야 한다.
4.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어야 더 유리한 사람들이 그들의 유리한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정의의 제2원칙 中 차등의 원칙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즉, 차등의 원칙은 제2원칙 중에서도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보다 축차적 서열이 낮다. 애초에 차등의 원칙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차등의 원칙의 내용이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제한한다는 것은 틀린 내용일 수밖에 없다.

ㄹ. 노직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노직은 모든 소유물들의 취득 및 이전 과정이 정당하다면, 해당 사회의 분배는 불평등하더라도 정의롭다고 본다. 즉 이러한 취득과 이전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되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든 간에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직의 절차적 정의를 반영한 진술이다.

15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0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갑 : 분배 정의에 관한 기존의 원리들은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반면 주는 사람의 권리는 무시한다. 그러므로 분배 정의를 논함에 있어 '~에 따라 받을 만한'이란 표현을 '~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이란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노직

을 : 부와 소득의 분배 그리고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직위와 직책은 기본적 자유 및 기회의 평등 모두와 양립 가능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은 그것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2023학년도 생활과 윤리 수능 출제 롤스

① 갑 :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노직 : 취득·양도 과정의 역사성의 원리 강조
만약 현실 상황에서 부정의 발생 → 최소 국가가 교정해야 함

② 갑 :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노직 : 재화 이전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임

③ 을 : 최소수혜자의 이익은 정의의 원칙 합의 ~~이전에~~ 이후에 보장된다.

④ 을 :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기 삶의 전망에 ~~무관심하다.~~
제2원칙 : 복지에 대한 기대치
→ 사회적 지위에서 바라본 인생 전망을 나타냄

⑤ ~~갑~~, ~~을~~ :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직, 롤스 : 절차적 정의 강조
* 절차적 정의 :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생한 결과는 정의롭다고 보는 정의관

정답 ①

선지 설명

① 노직은 소유의 정당성에 있어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노직은 소유물이 취초 취득되고, 이전되는 과정이 정의로운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 단계를 한번 살펴보자.

(1) 최초 취득에서의 소유가 정의로울 조건
노직은 원초적 획득을 통해 타인의 입장이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즉 최초 취득의 과정에서도 타인이 소유할 수 있는 만큼은 남겨 놓고 사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사막에서의 우물을 최초로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그 우물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로크는 사적 소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하나는 대상물에 적절한 노동을 부가하면 소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들도 역시 사유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로크적 단서"라고 불린다. 노직은 이 로크적 단서와 유사하게, 원초적 획득을 통해 타인의 입장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그 획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동익, 『로버트 노직, 무정부 · 국가 · 유토피아]

(2) 이전에서의 소유가 정의로울 조건
노직은 소유물 이전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그 소유물의 소유 권리도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나 자신이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누가 선물로 명품을 나에게 준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이 이전에도 합법적인 경로로 소유되고 거래된 것이라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한 분배 상태에서 다른 분배 상태로 이행하는 합법적인 수단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최초의 합법적인 이행은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정의로운 상황에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도 정의롭다.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된 변화의 수단은 정의를 보전한다.
>
> [장동익, 「노직,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해제」]

⑶ 교정에서의 소유가 정의로울 조건

노직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분배 상태는 최초 취득, 이전에서의 정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노직은 귀납적으로 보았을 때, 현실에서의 소유물 이전 상태가 역사적으로 부정의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 노직은 만약 어떠한 소유물이 역사적으로 절도, 사취(사기를 쳐서 취득), 수탈 등의 부정의를 겪었다면 그것은 불의한 절차인 것이고, 비록 과거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교정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 모든 현실적 상황들이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두 원리 즉,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취하거나 또는 그들을 노예화하거나 그들의 생산물을 수탈하거나 그들이 살고자 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교환에서의 자유 경쟁을 방해한다. 이런 행위들의 그 어느 것도 한 상황으로부터 다른 상황으로의 이행으로서는 허락될 수 없는 양태의 이행이다. 과거의 불의의 존재는 소유물에서의 정의 아래서의 세 번째 주요 주제를 제시한다. [장동익, 「노직,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해제」]

이처럼 노직은 소유물의 정당성 판단에는 현재 시점에서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원리와 달리, 역사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소유물의 과거 상황까지 모두 정의 여부의 판단 대상이라고 본다.

② 노직은 소유물의 자유로운 이전을 주장하는 학자이다. 물론, 자신의 자연적인 재능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타인에게 일정 부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노직은 이를 '정형화된 패턴'에 의해서 개인의 소유물을 강제로 앗아가는 것이라고 보며, 이는 개인의 소유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복지를 위한 세금'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노직이 자신이 지닌 소유물이 타인에게 절대 이전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노직의 자유 지상주의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물이 타인에게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되고, 그 소유물을 받을 사람의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노직은 수취자(받는 사람) 뿐만이 아닌 수여자(주는 사람)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직 입장에서의 해외 원조 맥락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개인에게 분명 원조의 의무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여자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듯, 해외 원조를 희망하는 사람의 자유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원조를 시행하는 사람은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③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정의의 원칙 합의 이후에 보장된다고 본다.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정의의 제2원칙 中 차등의 원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것인데, 제2원칙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되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정의 원칙 합의 이전에 보장된다는 것은 논리적 순서상 맞지 않는 진술이다.

④ 롤스는 합의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라는 조건하에서 자기 삶의 전망에 관심을 두는 존재라고 가정한다. 롤스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원초적 합의 당사자들이 자기 인생 전망을 규제할 기준을 한꺼번에 선택한다고 본다.

> 원초적 합의는 최종적인 것이며 영구적인 까닭에 또 한번의 기회란 없다. 있을 수 있는 결과들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공약의 부담이라는 문제는 심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전망을 규제할 기준들을 한꺼번에 선택하게 된다.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할 경우 우리는 최악의 가능성이 나타날지라도 그 합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뢰 속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모든 경우에 그들의 약속 내용을 고수할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한다.
>
> [롤스, 『정의론』]

⑤ 노직과 롤스의 입장이 모두 아니다. 노직은 소유물의 최초 취득 및 이전(혹은 교정까지)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소유물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에 의하여, 올바른 결과의 정의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정한 절차로 인하여 결과가 정당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직과 롤스 모두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결과도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본다.

1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0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갑 :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최초의 상황보다 개선되며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 협동체의 혜택을 받게 된다. 롤스

(최대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됨)

을 :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지만 취득, 이전 및 교정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정의관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노직

① 갑 : ~~사회적 약자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제한 ~~가능~~하다.
(롤스 :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 가능)

② 갑 : 차등의 원칙에 따라 우연적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적 원칙의 취지를 실현)

③ 을 : 재화 소유의 역사적 과정보다 ~~최종적 분배 결과가~~ 중요하다.

④ 을 :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노직 : 취득·양도의 절차적 정의 강조 / 사회적 및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할 필요는 없음)

⑤ ~~갑,~~ 을 : 정의의 원칙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출된다.
(노직 : 최소 국가를 넘어서는 포괄적 국가 정당화 불가)
(롤스 :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

정답 ②

선지 설명

① 롤스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사회적 약자의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롤스는 '자유의 우선성'을 주장하며, 다른 사회적 가치가 기본적 자유와 교환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기본적 자유는 사회 협동체에 참여하는 개인의 자존감에 관련된 것으로, 매우 중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롤스는 더 큰 자유 체계를 위하여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다고 본다. 롤스가 주장하는 기본적 자유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할 때, 그 내부에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여 각 자유의 중심 범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원칙들은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하는 서열적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제1원칙이 요구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보다 큰 사회적, 경제적 이득에 의하여 정당화되거나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자유들은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상충할 때에만 그 내부에서 제한되며 조정될 수 있는 중심적인 적용 범위를 지니고 있다. 이 자유들은 다른 자유들과 충돌할 때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유들 중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롤스, 『정의론』]

② 롤스가 주장하는 차등의 원칙은 대표적으로 다음 3가지의 측면, (1) 보상의 원칙의 측면, (2) 호혜성의 원칙의 측면, (3) 박애의 원칙의 측면이 존재한다. 허나 여기서는 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1) 보상의 원칙을 위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보상의 원칙이란, 간단히 말하여 타고난 출생, 재능 등의 불평등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허버트 슈피겔버그(Herbert Spiegelberg)라는 미국 현상철학자의 "A Defense of Human Equality" 등을 참조하여 롤스 자신의 이론에 이용한 것인데, 이러한 보상의 원칙의 기본 사상은 우연적 여건의 편향을 보상하자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방식에는 교육에 재원을 할당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즉, 최소 수혜자의 교육에 재원을 할당함으로써,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켜 준다는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교육의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회 복지만을 통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1) 자기 사회의 문화를 향유하게끔 해 주며, (2)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해 준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인생 전망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칙인 것이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보상의 원칙 그 자체는 아니지만, 보상의 원칙의 취지를 어느 정도 실현시켜 준다고 본다. 즉, 우연적 여건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유리한 처지 하의 사람들에 의하여, 불리함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유리한 처지 하의 개인들은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이렇게 됨으로써 유리한 운을 타고난 사람들, 불리한 운을 타고난 사람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 차등의 원칙은 보상의 원칙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의 취지를 어느 정도 실현해주고 있다. 그것은 기본 구조의 목표를 변형시킴으로써 총체적 제도 체제가 더 이상 사회적 효율성이나 기술 지배적 가치를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common asset)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천부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사용해야 한다. [롤스, 『정의론』]

③ 노직은 최종적 분배 결과보다 재화 소유의 역사적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 최종 결과적 원리는 쉽게 말하여, 다음과 같다. 이 원리에 포함되는 것은 '현재 시간 단면 원리(current time-slice principle)'가 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현재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노직은 현재의 최종적 분배 결과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정의하며, 소유물의 역사적 취득 및 이전의 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노직은 어떠한 몫의 소유물을 특정한 사람이 갖는다면, 그 소유물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최초 취득이 정당한지(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되었는지), 그 소유물이 역사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전(移轉)되었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노직은 현재 시간 단면 원리가 공리주의자 혹은 복지 경제학자들이 동의할 이론이라고 보고, 이와는 구분되는 역사적 소유 권리론을 주장한다.

④ 노직은 국가 개입이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노직은 국가의 역할이 치안, 혹은 계약 이행 감시 및 계약 강제 등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직 입장에서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려는 국가 개입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노직은 위와 같은 제한적 기능만을 갖고 있는 국가를 최소 국가라고 일컬으며, 최소 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개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소득에는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감시하는 최소국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노직, 2015학년도 9평]

오히려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롤스의 정의론에서 강조하는 바이다. 롤스는 이러한 사회적 우연성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롤스의 입장에서,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은 개인이 마땅하게 가져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연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도덕적 공로나 과오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다. 따라서 롤스는 이러한 우연성을 독점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고 보며, 자연적 및 사회적 우연성으로 초래되는 불평등은 사회 제도에 의해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당사자들에 의해 도출된다고 본다. 원초적 입장에서의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되며,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공정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한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내포한다. 1번 문항(2015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해설에서 언급하였던 원초적 입장의 '동기적 조건'을 다시 아래에 참고용으로 병기한다.

> 다른 하나의 조건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며, 더구나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하여 타인에 대해 시기심과 동정심을 갖지 않는 상호 무관심한 존재라는 조건을 갖는다. 이것은 동기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건은 주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동익, 「롤스, 『정의론』 해제」]

▶ 롤스는 인지적 조건과 더불어 동기적 조건으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타인에 대한 시기심과 동정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갖는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의 내적 특성을 일컫는 것이므로, 주관적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노직은 정의의 원칙의 '도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롤스처럼 가상 상황을 설정하지도 않으며, 주로 정당한 소유 권리는 "취득 · 이전 · 교정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다고만 주장한다. 노직의 정의의 원칙은 롤스의 개념과 당연히 다르다는 점도 인지하자.

1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0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갑 :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자본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전환〉시키고, 그 누구의 노동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마르크스
(사적 소유 철폐 / 계급 철폐)

을 :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에 따라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고, 이러한 영역들의 내재적 자율성이 존중되는 복합 평등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왈처

① 갑 : 이상 사회에서는 분업의 ~~장려로~~ 구성원의 자립성이 ~~회복~~된다.
(공산주의 사회 → 분업이 폐지된 사회)

② 갑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를 집중시킨다.
(⇒ 생산 수단을 공동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봄)

③ 을 :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은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
(왈처 : 영역 간 가치의 일반적 전환 허용 ×)

④ 을 :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각 사회의 특수성 반영)

⑤ 갑, ~~을~~ : 경제적 재화는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마르크스 : 필요에 따른 분배 강조 / 왈처 : 돈과 상품의 경우 자유 교환에 따라 분배)

정답 ②

선지 설명

①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에서는 분업이 폐지된다고 본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하에서 행해지는 분업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동이 아니라 노동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강제적인 노동이다.

②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요인이므로, 생산 수단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생산 수단이 자본가들에게 소유되는데, 이는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를 생산 수단이 '독점'되었다고 표현하며, 소수의 자본가만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억압적인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이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왈처는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이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고 보지 않는다. 왈처는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이 각 가치의 고유한 영역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가치의 다원성이 존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왈처는 가치의 고유한 영역을 보호하며, 상이한 가치는 상이한 기준에 의해 분배되는 '복합 평등'을 추구한다.

④ 왈처는 해당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가치들은 고유한 영역에 머무른다고 보고, 다른 사회에서는 상이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해 A 공동체에서는 a라는 사회적 가치가 주된 것이라면, B 공동체에서는 b라는 사회적 가치가 주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왈처는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가치]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며 롤스의 정의론이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고 본다. 왈처는 롤스가 가상 상황에서 도출한 정의의 원칙이 공동체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이유로, 이는 정의의 다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현실성이 부족한 이론이라고 비판한다.

⑤ 마르크스만이 동의할 입장이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재화를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 사회를 이상 사회로 설정한다. 반면에 왈처는 경제적 재화, 즉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18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1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변형]

질서 정연한 사회는 구성원의 선을 증진하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롤스

보 기

ㄱ. 합의 상황에서 누구나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롤스 :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 고려 → 최소 극대화의 원리

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삶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롤스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 직위나 직책에 대한 기회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도 평등하게 보장

ㄷ.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롤스 :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경우 경제적 불평등 허용 가능

ㄹ.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롤스 :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허용 가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선지 설명

ㄱ. 2009학년도 '윤리' 교과목 9월 모의평가 선지이다. 롤스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처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려 할 것이다. 이는 자신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에도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따라서, 무지의 베일은 모든 사람이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게 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을 채택하게 만든다.

최소 극대화의 규칙은, 자신에게 발생할 상황에 대한 기댓값을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 하나의 선택이 최선일 때는 큰 이점이 있지만, 최악일 때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큰 손해가 가는 경우와 최선일 때에도 큰 이점이 없지만, 최악일 때에서 큰 손해가 아닌 선택이 있는 경우, 후자를 선택할 것이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불확실한 경우에,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삶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험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로서 선택한 정의의 두 원칙이 바로 이런 극대화의 규칙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최악의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생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고자 할 것이고, 정의의 두 원칙이 이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동익, 「롤스, 『정의론』 해제」]

ㄴ. 2009학년도 '윤리' 교과목 9월 모의평가 선지이다. 롤스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삶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삶의 기회'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형식적 기회 균등과는 구분된다.

정의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위와 직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단순히 기회만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기회마저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능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체제의 기회 보장과는 다르다. [장동익, 「롤스, 『정의론』 해제」]

ㄷ.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제2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제해주는 원칙인데,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종의 도식이다.

1. 개인의 천부적 재능은 자신의 소유이다.
2. 재능이 분포될 때, 더 유리한 재능을 가진 사람과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재능의 분포, 즉 재능의 '차이', '다양성'은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된다.
3. 그런 맥락으로, 더 유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의 이익은 가장 재능을 적게 타고난 자(최소 수혜자)에게 공헌되어야 한다.
4.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어야 더 유리한 사람들이 그들의 유리한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사회 제도가 자연적 및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처리한다면 모든 사람의 처지가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ㄹ.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물론 롤스가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본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 가깝고, 실제로는 사회 조직의 요구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평등한 분배에서 논의를 그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롤스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하는 한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분명한 출발점은 다른 모든 사회적 선이, 특히 수입과 부가 평등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몫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조직상의 필요물과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평등한 분배에서 그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기본 구조는 불평등이 평등한 자유 및 공정한 기회 균등과 양립하고, 또 최소 수혜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하는 한 그러한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 우리는 평등한 몫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들은 말하자면 거부권을 갖는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차등의 원칙에 도달한다. [롤스, 「질서 정연한 사회」]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3단원 03 국가와 시민의 윤리

❶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0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갑 : 사람이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은 본래 그러한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까닭은 분별에 있다. 사회에는 분별이 없을 수 없으니, 분별에는 예(禮)가 가장 중요하고, 예에서는 성왕(聖王)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순자 (성악설)

을 : 자연 상태의 인간은 고립적 · 적대적이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성은 우리에게 자기 보존을 위하여 평화를 추구하도록 한다. 홉스

보 기

ㄱ. 갑은 예(禮)를 국가의 기본적 통치 원리로 삼는다.

ㄴ. 을은 국가를 개인들의 자기 보존 수단으로 본다. (홉스 : 국가는 개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자기 보존 수단)

ㄷ. 을은 갑과 달리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홉스 : 국가 권력의 절대성 주장)

ㄹ. 갑, 을은 인간 본성이 교화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순자 : 화성기위 강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갑은 유교 사상가 순자의 입장이다. 예(禮)를 강조하는 것은 주로 순자의 제시문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본다. (1) 이익을 좋아함 (2) 질투하고 미워함 (3) 육체적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함이 그것이다. 순자는 이러한 인성을 그대로 따르면 곧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순자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추하다고 여기지만, 예(禮)를 통하여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본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충족하고자 한다. 그래서 재화가 한정된 상황에서 인간이 이기적인 본성대로 살면 다툼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는 인간을 악한 본성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비상 윤사 교과서]

순자 예(禮)의 기능

분별	예의 사회적 기능에는 별(別) 혹은 분별(分別)이 있다. 예는 사람들을 차이와 등급에 따라 구별함으로써 사람들의 욕구를 한정한다. 순자에 따르면 선왕은 예의를 제정하여 귀천에 등급이 있게 하는 등 분별을 마련하였다.
절제	순자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은 악하므로 성왕의 법도가 있은 후에야 바르게 된다. 성왕은 예의를 일으키고 법도를 제정함으로써, 사람의 성정을 고쳐 꾸며 바르게 하고, 사람의 성정을 길들여서 잘 이끌었다. 즉, 악한 본성을 지닌 인간의 욕구에는 한도가 없으므로, 이러한 욕구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는 무절제한 욕구의 추구를 제한하고 조절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욕망의 충족	순자에 따르면, 예는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도 한다. 사람들에게는 입과 코, 눈, 귀, 몸의 욕구가 있고, 이러한 신체기관들의 욕구를 가꾸어 주고 만족시켜주려는 것이 양(養)이라고 한다. 순자는 감각적인 욕망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적절히' 충족시켜 주고자 한다.

을은 사회 계약론을 주장한 홉스의 입장이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은 고립적 · 적대적이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전쟁 상태가 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보존을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자기 보존을 이루지 못한다. 폭력과 배신이 난무하는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통의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그러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

개인은 욕구와 혐오 같은 정념의 주체로서, 개인의 행동은 욕구 대상의 추구와 혐오 대상의 회피, 곧 정념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 홉스의 관점이다. 이러한 정념에 따른 인간 행동의 동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이익의 추구를 통한 자기 보존의 욕구이다.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무제한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연권의 주체인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이익 갈등이 빚어지고, 이로 인한 투쟁이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 보존을 이루기 어렵게 되므로, 이성의 주체이기도 한 인간은 이성적 계산을 통해 자연권의 동등한 상호 양도에 동의하는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수능 & 평가원 기출 문제

선지 설명

ㄱ. 순자는 성왕(聖王)의 통치를 한마디로 '예(禮)'로 요약한다. 통치 원리이자, 기준인 '예의'는 성인, 성왕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순자는 그러한 예의에 근거한 성왕의 다스림을 '예치'라고 표현한다. 이때 예치는 인간의 악한 성품을 교화시키고 통제해 감으로써, 왕도를 실현하는 통치를 말한다. 순자는 이러한 예치를 국가의 통치 원리로 삼는다.

> "예(禮)는 다스림의 시작이다."라는 순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예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결코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를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예치(禮治)를 주장하였다. 순자의 예치에 따르면, 국가를 다스릴 때는 귀천(貴賤)과 상하를 명확히 구분해야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타고난 신분보다는 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높은 관직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나아가 사람들이 분수에 맞게 자신의 몫을 추구하도록 예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비상 윤사 교과서]

> 성왕(聖王)은 예(禮)를 제정하여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람의 덕(德)을 논하여 각자의 위치를 정하고 그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부여하였다. 그런 연후에 사람들이 예에 따라 각자 직무를 수행하여 그 마땅한 바를 얻게 하였다. [순자, 2021학년도 9평]

ㄴ. 홉스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들의 자기 보존 수단이다. 즉, 개인들은 자연권을 포기 또는 양도함으로써 수립한 국가에 의해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홉스에 의하면, 국가 성립 이전 자연 상태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사회는 결국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된다. 그는 이런 비극적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적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적 힘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씨마스 윤사 교과서]

>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코먼웰스(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 [홉스, 『리바이어던』]

ㄷ. 홉스는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인정한다. 홉스에 따르면 사회 계약은 자기 보존의 목적을 위해 권리의 전면적 상호 양도를 통해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권력이 절대적인 권력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 안에서 국민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의 권력이 주권이기 때문이다. (주권자는 백성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일부 권리는 양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 권력의 제한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홉스 본인은 백성의 불가 양도의 자연권을 근거로 정부 권력을 제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홉스에 따르면, 코먼웰스의 설립 목적은 전체 인민의 평화와 방위에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누구나 그 수단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신의계약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주권자는 국가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홉스의 주장이다. 따라서 주권자가 분할 불가능한 무소불위의 모든 권력을 보유한다는 홉스의 주장은 그의 절대주권론의 입장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이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 홉스에서 국가는 절대 권력으로서만이 존재한다. 이 절대 권력은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인격을 자신의 인격 속에 구현하는 권리를 부여받은 주권자(the Sovereign)에 있는 것이다. 주권자가 군주 정체에서처럼 일개인이든 또는 민주 정체에서처럼 합의체이든, 그가 소유하는 주권(Sovereign Power)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 안에서 국민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의 권력이 바로 주권이기" 때문이다. [진병운, 홉스 『리바이어던』 해제,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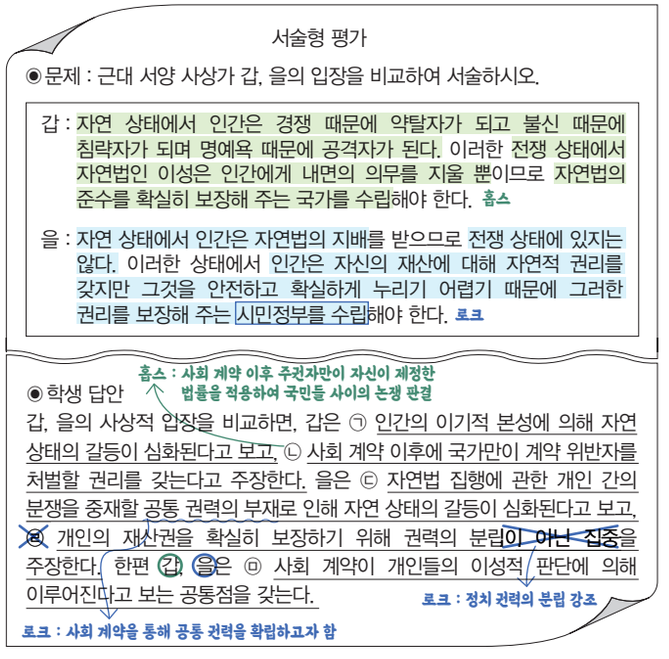
ㄹ. 순자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내용이다. 순자는 인간의 선함의 근원을 후천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을 통한 인성의 교화에서 찾고 있다. 순자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에 있어서 동물과 거의 유사하나, 성인의 교화를 받아들여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분된다. 즉, 스승의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禮)에 의한 교도가 있을 경우 인간의 본성은 변화될 수 있다. (순자에 따르면 본성은 타고난 것이고, 이 타고난 것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본성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도 본성 그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아니다. 예를 배움으로써 본성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본성을 조절한다면, 예를 배우기 전과 달리 변화한 것이 있으니 변화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 군자와 소인의 본성[性]은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化性起僞] 때문이다. 인위를 일으키면 예의가 생겨난다. [순자, 2020학년도 수능 윤사]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① ㉠ ② ㉡ ③ ㉢ ④ ㉣ ⑤ ㉤

홉스 :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 제시
삶의 보전을 위해 따라야 할 규칙 제시
로크 :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오류로 분쟁 발생 가능
→ 그러한 결함 해결 위해 사회 계약 체결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은 홉스이다. 홉스는 인간들 사이에 분쟁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는 경쟁이며, 둘째는 자기 확신의 결여이며, 셋째는 공명심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경쟁 때문에 약탈자가 되고 불신 때문에 침략자가 되며 명예욕 때문에 공격자가 된다.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하는 것들이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개인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게 된다. 즉, 희소한 것들을 얻으려는 경쟁은 결국 적대감과 투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경쟁의 주된 목적은 자기보존이다. 또한, 개인들은 나의 이웃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웃을 의심하게 되고 서로 간 불신이 심화된다. 이와 더불어 개인들은 자신의 평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즉, 이러한 허영과 명예를 추구하려는 욕구 또한 전쟁 상태로 이끈다고 본다.

을은 로크이다. 로크가 상정하는 자연 상태는 이성을 통해 파악한 자연법이 지배하는 상태이다. 또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적 평등을 향유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각각 자연적 자유와 평등을 누린다.(이때, '평등'이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적이고 목가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로크에게 자연 상태가 평화롭고 이성적이기만 하다면, 사람들이 공동의 정치체를 만들기 위해 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개인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권리의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있다.

>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연이 그들에게 부여해 준 자유와 평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진해서 시민사회에 예속되는 길을 택하였는가? 로크는 스스로 제기한 이 질문에 대해, "비록 사람이 자연 상태 속에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향유는 매우 불확실하며 또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침해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자연 상태의 불완전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을 집행하고 그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권한이 각자의 수중에 맡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는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것이다. [송규범, 『존 로크의 정치사상』]

선지 설명

①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은 누구나 무제한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연권의 주체이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이기심에 의해 행동하게 되고, 그러한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의해 자연 상태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즉, 누구든 자기 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이익 갈등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투쟁이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가 야기된다.

> 홉스에 의하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재화의 희소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투쟁 상태에 빠진다. [천재 생윤 교과서]

> 홉스가 보기에 인간은 자기 보존 본능을 지닌 이기적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 결과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것은 어떠한 법도 규범도 없는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 [씨마스 윤사 교과서]

② 홉스에 따르면 국가만이 계약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홉스는 계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주권자의 역할이라고 보고, 사람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공평과 정의 등이 무엇인지와 이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권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주권자에게는 법을 제정하여 재산이나 영작으로 상을 수여하거나, 신체형, 재산형, 작위의 박탈 등으로 처벌할 권리가 있다. [홉스, 『리바이어던』]

> 코먼웰스가 설립되어야 자연법이 코먼웰스의 명령이 되고, 따라서 시민법이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 법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공평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덕덕 선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이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권자의 명령이 필요하고, 또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명령은 시민법의 일부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③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전체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법률, 공통의 재판관과 공권력이 부재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각자의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되는 자연법 집행권을 갖는다. 로크에 따르면 이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정치사회를 설립하기 위해 계약에 나서는 까닭이다.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공통의 재판관이 없다는 결정적 결함 때문에 그들은 편파적인 판단, 비슷한 사례에서 서로 달리 나타나는 판단의 다양성, 판단을 집행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강제력과 이 모든 폐단의 결과로 겪게 되는 혼란이나 불안 등의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로크는 이를 개인들이 사회 계약에 나서게 되는 이유로 본다.

④ 로크에 따르면 정치 권력은 기본적으로 입법권과 집행권이다. 로크는 이러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절대권력이 아닌, 권력의 분립을 주장한다. 로크는 일반적으로 통치자의 자의적인 정치 권력의 행사를 제지하여 사회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치 권력의 분립을 주장한다. 일례로,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진 절대 권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그 누구도 절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 로크는 입법권을 최고의 권력으로 보고, 권력을 독점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과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집행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에게는 권력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까지도 가지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천재 윤사 교과서]

> 법률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면서, 부단한 집행 혹은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유효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리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은 종종 분리된다. [로크, 『통치론』]

⑤ 홉스와 로크 모두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이성을 발휘함으로써, 사회 계약이 이뤄진다고 보았다.

> 사회 계약은 인간의 이성 능력에 근원을 두고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도 사회 계약론자들의 공통점이다. [조긍호 외, 『사회 계약론 연구』]

03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원칙의 앞부분은 자연법의 기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다.
> 홉스의 제1자연법

① 정치 질서는 사회 계약을 계기로 해서 발생한다고 본다.
홉스 : 국가는 자연인들 사이의 상호 계약을 통해 수립된 하나의 인격

②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홉스 : 자연 상태는 공통의 도덕 규범·객관적인 도덕 판단의 기준이 없는 무도덕 상태

③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의 기원을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서 찾음

④ 자연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인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홉스 : 사회 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

⑤ 자연 상태에서 경쟁과 불신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고 본다.
└ 자연 상태에서의 분쟁의 원인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홉스의 제1자연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홉스에게 자연법은 자기 보존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하여 올바른 이성이 내리는 명령이다. 그중 홉스의 제1자연법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합리적 인간이라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이성의 명령이다.

제1자연법은 전쟁 상태와 같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를 추구하라는 명령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자연법의 기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원칙의 뒷부분은 제시문의 내용처럼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평화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곧바로 전쟁의 전략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그(홉스)는 말하길, 제1자연법은 '평화를 추구하되 가능한 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스스로를 방어하라.'이다. 제2자연법은 '모든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자신에게 허용한 만큼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도 허용하라.'이다. "평화를 추구하라고 명령하는 이 기본적인 자연법으로부터 제2자연법이 도출된다. 평화와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기꺼이 모든 것에 대한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단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할 경우에만 그렇게 하라. 그리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하라."
> [존슨 백비,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초대』]

선지 설명

① 홉스는 국가권력과 같은 정치 질서는 사회 계약을 계기로 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공통권력과 국가, 주권자의 기원은 모두 자연 상태의 개인들 간 상호 계약인 사회 계약에 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국가권력과 같은 정치적 질서가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홉스는 … 국가는 '평등한 인간들'에 의해 철저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리바이어던》은 바로 이 주장을 '입증'하는 책이다. 홉스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역자 해제]

② 홉스가 상정하는 자연 상태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공통의 도덕 규범 혹은 객관적인 도덕 판단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무도덕 상태이다. 이와 같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또는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는 공통의 기준이 없이, 그리고 이를 강제할 공통의 권력이 없이 개인의 정념이 유일한 행위 표준이기 때문이다.

홉스 → 로크 비판(×) : 자연 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 상태임을 간과한다. [2022학년도 6평 윤사]

홉스는 자연 안에서 맺어진 계약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을 집행할 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기본적인 사회 계약은 평화로운 상황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계약과 합의는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오직 이 계약이 맺어진 이후에야 불의(不義) 같은 일들이 존재할 수 있다.
[존슨 백비,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초대』]

③ 국가의 기원을 정치적 본성에서 찾는 것은 홉스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1) '인간은 본성에 의해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를 내세운다. 이 명제를 통하여 (2) '국가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명제 또한 파생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가 형성되는 이유는 '인간의 자족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보며, 위 두 명제를 통하여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하다는 명제가 도출된다고 본다.

④ 홉스는 전쟁 상태와 같은 자연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인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홉스에 따르면 개인들은 전쟁 상태라고 불리는 자연 상태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살아간다. 개인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은 비록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자기 파괴로 귀결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자연 상태를 벗어나 자기 보존을 이루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 홉스의 생각이다. 즉, 사회 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탄생한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 준다.

사람들이 코먼웰스를 설립한 최초의 의도는 일시적 안전이 아니라 영속적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홉스, 『리바이어던』]

홉스가 말하는 'subject'는 '주권자(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합의체일 수도 있는)에게 복종을 맹세하고 그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홉스, 『리바이어던』 역자 주석(나남)]

⑤ 홉스적 자연 상태는 곧 전쟁 상태와 같다.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들 간 분쟁의 원인은 경쟁, 불신, 허영심으로 들 수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하는 것들이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고 희소한 것들을 얻으려는 경쟁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경쟁의 주된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이러한 긴장 상태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웃들이 빼앗으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웃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들 간 관계는 의심에 의해서 지배되곤 하는데, 이 의심을 홉스는 불신이라고 부른다.

04

갑은 고대, 을은 근대 사회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갑 : 인간은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족과 마을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사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 속하지 않은 고립된 자는 동물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을 :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로크 (저항권 인정)

① 갑은 가족이 마을이나 국가보다 완전한 최고의 공동체라고 본다.
② 갑은 정치적 의무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서~~ (인간의 정치적 본성) 비롯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국가 권력은 분할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 ~~없다~~고 본다.
④ 을은 묵시적 동의로도 개인에게 정치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로크 : 국가 권력의 분립 강조, 입법권 : 신탁(=위임)된 권력 / 로크 :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모두 정치적 의무, 준법 의무 발생 가능)
⑤ 갑, ~~을~~은 정치적 의무를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의무의 하나로 본다. → 홉스의 자연적 의무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은 오직 국가 안에서만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을은 로크이다. 위 제시문은 로크의 인민 저항권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인민 저항권은 '신탁을 위반한 정부에 대한 인민의 저항'이며, 이는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되는 합법적인 인민의 권리이다.

로크가 옹호한 저항권은 단순히 소극적인 저항의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의 혁명권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국민은 정통성을 상실한 지배자에 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축출하고 입법권을 새로운 수중에 신탁하거나,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수립할 권력 역시 가지고 있다. 로크는 확립된 국가 안에서는 입법권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말했지만, 이 권력은 국민 또한 최고 권력을 보유한다고 말했을 때의 최고 권력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송규범, 『존 로크의 정치사상』]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려고 만든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위임하였던 권리를 회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로크, 천재 윤사 교과서]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은 그 권력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몰수한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수립할지, 예전의 형태를 유지하며 권력을 새로운 사람에게 맡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로크, 천재 윤사 교과서]

선지 설명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완전한 최고의 공동체라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자급자족적 공동체이며, 최종적이고 최선의 목표를 지녔으므로 '개인, 가정, 마을'에 우선한다. 나아가 국가는 구성원의 도덕적 완성을 가능케 한다. 그러한 국가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이다.

국가란 그 구성원의 가족들과 씨족들이 훌륭하게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공동체이며, 그 목적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여러 부락으로 구성되는 완전한 공동체가 국가인데, 국가는 이미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최고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공동체들이 자연스런 것이라면 모든 국가도 자연스런 것이다. 국가는 이전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이고, 어떤 사물의 본성은 그 사물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국가 공동체는 인간 공동체의 최선의 단계로서 최고의 좋음을 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2023학년도 6평 윤사]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의무의 근거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서 찾는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정의하며, 개인이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정치적 의무를 져야 하는 근거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물이며,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것 또한 본성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금성 생윤 교과서]

③ 로크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지하여 사회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가 권력의 분할을 강조한다. 나아가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권은 오로지 어떤 목적을 위해 신탁된 권력에 불과하며, 공동체는 이 입법의 권력을 그 성원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중에 위임하되, 그들이 공표된 법률의 지배를 받겠다고 하는 신탁 아래 위임하는 것이다.

로크가 인정한 정통성 있는 정부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이며, 이 정치권력은 오직 그 정부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는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서만 창출될 수 있는 권력이다. …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시민사회를 수립하고 난 다음, 그들의 동의 아래 그 권력을 다수자에게든 특정 소수에게든, 아니면 어느 한 사람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송규범, 『존 로크의 정치사상』]

사람들은 모든 자연적 권력을 그들이 들어가는 사회에 양도하며, 공동체는 선언된 법에 의해 자신들이 지배될 것이라는 신뢰에 따라 입법권을 그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자들의 수중에 위임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평화, 평온 및 재산은 자연 상태에서 그러했던 것과 같은 불확실성에 처하게 될 것이다. [로크, 『통치론』]

④ 로크는 묵시적 동의로도 개인에게 정치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크는 동의를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한다. 명시적 동의는 국가의 설립 당시 또는 국가가 설립된 이후 국가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명시적 동의를 한 개인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준법의 의무 또한 다해야 한다. 반면, 묵시적 동의란 어떤 개인이 특정한 정부 영토의 일부를 소유 또는 향유하고 있다면,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명령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해당 국가의 법률에 복종하겠다고 동의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의미한다.

로크는 "누구든지 어떤 정부의 영토를 어느 일부라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해 준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향유하고 있는 동안은 그 정부 아래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똑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다. [송규범, 『존 로크의 정치사상』]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준법의 의무	○	○
국가의 구성원	○	×

⑤ 이 선지는 로크에게는 명백히 틀린 것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명백히 틀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선지이다.

근거 1 :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했을 때, 국가에 대한 '자연적 의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저서인 『정치학』뿐만 아니라, 『니코마코스 윤리학』, 『형이상학』, 『자연학』 등 여러 저서에서 '자연'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 저서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의 의미를 분석하여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연적 의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2-1. 『자연학』에서 physis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자연학』 2권 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 의해서' 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과 '인간에 의해서' 또는 '인위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 즉 자연물과 인조물이라는 두 종류의 사물들을 구분한다. 그는 자연을 '사물이 내부에 갖는 변화와 정지의 원리'로 규정하고, 그러한 자연물만이 '스스로' 변화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사물이라고 말한다. 그가 사용하는 '자연(physis)'이라는 용어는 주로 '사물이 갖는 본래적인 성향 또는 힘'을 의미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후로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번역하고, 그와 관련된 표현들을 '본성에 의해서', '본성적으로' 등으로 번역할 것이다. 그가 자연물과 인조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밀히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본성의 자세한 의미와 역할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유원기,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자연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physis(자연, 본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은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과 전혀 관련이 없고 매우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수험생이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physis의 의미를 '변화의 원리를 내부에 갖는 사물들의 실체'로 규정하였다. 즉, physis는 변화의 원리가 내부에 있으므로 외부에서 '인공적인' 작용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physis(자연, 본성)에 대한 의미 규정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을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살펴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physis를 '인간 or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혹은 '인공적인 or 외부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인간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어떤 목적을 추구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는 인간의 힘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직 인간만이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 이성적 능력을 통해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의와 부정의를 분별하고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 공동체 안에서의 도덕적 삶 및 행복 추구라는 목적을 자연스럽게 설정해주며, 이는 인간의 힘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는 자연적 공동체이며, 시민들이 도덕적 삶 및 행복 추구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갖는 정치적 의무 또한 자연적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이 설명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인간의 아무런 노력 없이 알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수험생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인간은 '생존'과 '잘 사는 삶'이라는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를 '형성'한다. 하지만 이런 인공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자연적 공동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생존 및 잘 사는 삶이라는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국가이며(가정, 마을과 달리 법률을 제정하고 시민들을 규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 이러한 목적은 인공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간의 본성(자연)과 관련지어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인간이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갖는 이유는 자신의 생존, 잘 사는 삶이라는 자연적 필요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국가는 인위적 계약이나 협약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그에 따른 목적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필요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에 복종할 의무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자연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근거 2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사상을 '정치적 자연주의'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자연적 공동체로 간주하였고, '자연'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면서 이 개념을 통해 이론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사상을 '정치적 자연주의'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다.

> 『정치학』에 나타나는 자연주의적 경향과 생물학에 대한 관심은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치학』 제1권 제2장에서 피력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자연주의에 기초하는 3가지 기본 테제는 이런 것이다. 첫째, 인간은 자연적으로(본성적으로) 폴리스적 동물이다. 둘째, 폴리스는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셋째, 폴리스는 자연적으로 개인에 앞선다.
>
> [김재홍,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최선의 공동체를 위하여)』]
>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자연주의(political naturalism)의 관점에서 자연적 귀족정은 인간본성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한 완벽한 정체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연은 (목적없이) 헛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또한 "자연은 곧 목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연적 목적론(natural teleology)이 인간과 폴리스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추구하는 목적이 폴리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연구(플라톤과의 대화)』]

'자연'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주변의 나무나 돌을 포함한 자연환경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인위적인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생물학 도서를 저술한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연'이라는 용어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공적인 작용 or 외부의 작용 없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도록 정해진 본성'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학적인 규정을 참고하여 자신의 정치 사상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과 국가의 관계를 생물학적인 자연 개념과 관련지어 설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자연주의 관점을 고려했을 때, 시민이 국가에 대해 갖는 정치적 의무를 자연적 의무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 '자연적 의무'라는 개념 자체가 롤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롤스가 생각하는 '자연' 개념과 정치학을 생물학과 연관시키려 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자연' 개념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견해이다.

현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의무론이 아니라 인간 본성론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은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에서는 전부 삭제됐으며,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는 금성 출판사의 교과서에만 남아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적 의무론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개념을 깊게 분석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로 보인다.

평가원 모의평가 출제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자연적 의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마무리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국가관과 그 특징을 공유하는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비상 윤사 교과서]

더 상세한 근거는 하단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갑 : 사회 계약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하여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둘 것을 명령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재산 소유자를 공공 재산의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루소

을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자립적이고 인격적인 반면 사람은 비자립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존재로 전락한다. 자본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변하면 재산의 계급적 성격이 상실된다. 마르크스

① 갑 :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행위와 같음

② 갑 :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특정인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루소 : 주권은 양도 ×, 분할 ×, 특정인에 의한 대표 X
cf.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양도 가능

③ 을 : 경쟁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계급 간의 갈등을 ~~약화~~시킨다.
강화

④ 을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을 자본의 예속에서 ~~해방시킨다~~.
심화시킴

⑤ 갑, 을 : 인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유 재산의 발생에서 비롯된다.
루소 : 자연 상태 → 사회 상태로 가면서 사유재산의 발생과 예속의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됨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루소는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행위와 같다고 보고, 이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루소는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논한다. 사회 계약으로 개인들이 잃는 것은 자연적 자유와 마음 내키는 대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연적 자유를 사회 계약을 통해 이전하는 방식으로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자연 상태에서 단순히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주권자의 승인권으로부터 뒷받침되는 문명 상태의 진정한 법적 재산권의 획득으로 이행하게 된다. 즉, 자신이 소유하는 모든 것에 대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들은 사회 계약 이후 더 이상 자연적 자유를 향유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하여 형성한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사회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는 것이다. 루소는 어떤 사람이 사회 계약에 참여할 때 공동체에 자신의 인격과 권리 및 재산을 양도한다고 다시 강조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질적 소유의 이용이나 점유를 실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 같은 것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것과 관련되는 한, 주권은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되지만, 그렇다고 개인들이 그런 재산의 사용권이나 혜택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정리하자면, 루소는 공동체의 각 성원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에 자신의 인신과 재산을 포함한 모든 힘을 전면적으로 공동체에 바치게 된다고 보지만, 이러한 행위는 재산을 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정당한 소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유자의 권리는 국가의 모든 성원에게 존중받는다.

> 이 합의는 그 기초가 사회 계약이기에 정당하고, 모두에게 공통되기에 공평하며, 오직 일반선을 대상으로 가지기에 이로복, 공적인 힘과 최고권력에 의해 보장되기에 견고하다. 신민들이 오직 이런 합의에 종속되어 있는 한, 그들은 누구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들 자신의 의지에 복종할 뿐이다. … 주권은 그것이 아무리 절대적이고 신성하고 불가침하더라도 일반적인 합의의 한계를 넘지 않으며 넘을 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합의에 따라 그에게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전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루소, 『사회 계약론』]

> 사회 계약은 그것이 헛된 서식이 되지 않기 위해 유일하게 다른 약속들에 효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암묵적으로 포함한다. 그것은 누구든 일반 의지에 복종하길 거부하면 단체 전체가 그를 강제로 복종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다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를 강제로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약조건으로 인해 시민 각자는 자신을 조국에 바치면서 모든 대인 의존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조건이 정치기계의 기교와 운동을 만들어 내고, 이 조건만으로 시민들의 약속은 정당한 것이 된다. [루소, 『사회 계약론』]

②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특정인에 의해 대표될 수도 없다. 루소에게 주권은 시민의 일반 의지가 전체적으로 행사된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곳에 양도될 수도 없으며, 주권의 소지자는 전체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이기에 주권은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는 것이 루소의 관점이다.

> 나는 주권은 보편적 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할 수 없으며, 집합적인 존재인 주권자는 집합적인 존재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권력은 물론 이양될 수 있지만,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루소, 『사회 계약론』]

③ 마르크스에 따르면 경쟁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계급 간의 갈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이다.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산업은 더욱 대규모의 생산 단위로 집중되고, 이는 독점을 유발하며 부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나아가 노동자는 더욱 빈곤해진다. 또한 계급은 자본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대중으로 양극화되고 그러한 계급 간의 갈등은 심화된다.

④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은 창조적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조적 노동자로서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때 가장 행복해진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노동이 분업화되기 때문에, 인간이 노동을 통해 본질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마르크스는 본다. 즉, 마르크스에게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노동은 주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생산 수단에 종속되어 이루어지는 소외된 노동인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자본과 자본가에게 예속된 상태라고 보며 그러한 사회에서의 노동은 자본의 예속을 심화시킨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 공산 사회에서는 노동 분업에 예속된 개인의 노예 상태가 사라지고,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적 욕구가 된다. 생산력 또한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부가 풍요로워진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마르크스, 『고타 강령 비판』]

⑤ 우선 루소는 사유재산과 노동의 분화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본다.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사회 상태로 옮겨 가면서 사유재산의 발생과 함께 불평등과 예속의 불행한 상태로 처하게 된다. 즉, 인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유 재산의 발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한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사유 재산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생산 수단의 공유 혹은 공유화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경제적 억압과 착취가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가 사라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과 더불어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두어야 한다. [루소, 2019학년도 9평 윤사]

> 자본주의에서 사유 재산은 소외된 인간 생활의 표현이다. 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면 모든 소외가 지양되어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마르크스, 2016학년도 수능]

0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1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 갑 : 사람들은 자연적인 권력을 사회에 위임하며, 사회는 일정한 사람의 수중에 입법권을 위임한다. 사람들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고 신탁을 하는 것이다. 로크
> 을 : 사람들은 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만 주인이고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된다.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으며, 국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다. 루소

① 갑 :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이므로 자연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로크 : 정치 권력의 구속력은 자연법에 의해 제한 — 부합해야 함
② 갑 :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을 ~~소유해야 한다~~.
입법부 — 집행권
로크 : 이권분립 강조
③ 을 : 주권을 가진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
국민 → 입법권을 소유하고 있음
④ 을 : 통치자는 일반 의지의 대행자이므로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법을 집행할 때 국민이 인정한 법에 의해서만 집행 가능
⑤ 갑, ~~을~~ :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루소 : 주권 양도 ×, 분할 ×, 특정인에 의한 대표 X

정답 ③

선지 설명

① 로크에 따르면 사회 계약을 통해 확립된 정치권력에는 기본적으로 (1)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2)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집행권이 있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오직 자연권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존이라는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권력이다. 그리고 이 정치권력이 지니는 구속력은 자연법에 기인한다. 이는 정치권력의 구속력이 자연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최고의 권력인 입법권이라도 자연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다.
한편 로크는 '자연법'은 자연 상태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에서도 그 효력이 결코 소멸하지 않고 영원한 규율로 남아 있는 '신의 의지의 선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입법권은 자연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서술은 로크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커다란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률이다. 모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입법권 자체마저 지배하는 자연법의 기본적인 첫째 조항은 사회의 보존이며 공공선과 양립 가능한 한도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존이다. [로크, 『통치론』 해제,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② 로크는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분립을 주장한다. 즉,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와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인 집행권을 가진 집행부로 정치권력의 분립을 강조한다. 이처럼 로크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를 제지하여 사회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생각한 것이다.

③ 루소에 따르면 주권자는 특정 개인을 의미하지 않고, 국민으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이다. 이러한 주권자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인 입법권을 가진다. 주권자의 과업은 일반 의지를 경정하고, 그 계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 사회 계약의 산물로 발생하는 이러한 주권은 계약 당사자인 인민 모두 곧 주권자가 가지는 권력이다. … 주권은 사회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고 … 위법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등 국가 운영을 위한 제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갖는다.
>
>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④ 루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의사를 집행하는 대행자일 뿐이며, 이러한 정부의 구성원들이 행정관이자 통치자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행자는 심부름꾼처럼 국민을 대신하여 행동해야 할 의무만을 질 뿐,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집행권을 갖지만, 법을 집행할 때 국민이 인정한 법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통치자는 그가 전체와 다른 것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지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국가는 혼자서 존재하지만, 정부는 오직 주권자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군주의 지배적인 의지는 일반 의지 혹은 법일 뿐이고, 그래야만 한다. 군주의 힘은 그에게 집중된 공적인 힘 이상의 것이 아니다.
>
> [루소, 『사회 계약론』]

> 루소는 특별히 국가와 정부를 분류하고 있다. 즉, 국가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만 정부는 주권자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흔히 주권자와 잘못 혼동되고 있지만 사실은 주권자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러면 정부란 무엇인가? 그것은 신민과 주권자 사이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된 중간적인 단체로 법률을 집행하고, 사회적 · 정치적 자유를 유지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단체의 구성원은 행정관 또는 왕, 즉 통치자들이다. 그리고 이의 통합이 군주이다. 더 나아가 통치자는 주권자의 단순한 관리이며, 그들에게 맡겨진 권력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데 불과하다.
>
> [김행선, 『루소의 생애와 사상』]

⑤ 루소는 주권은 주권자인 시민의 단일 정치 공동체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대표될 수 없다고 보고 주권은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주권 행사는 곧 입법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는 대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민이 정기적으로 집회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07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2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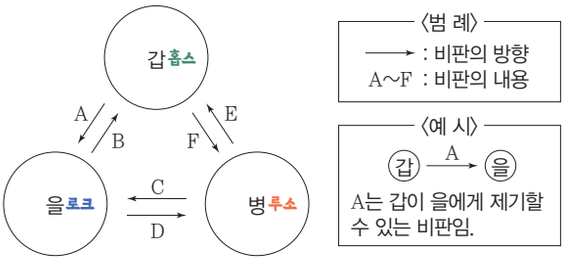
(가)

갑 :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각자는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적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 규약에 합의하게 된다. 홉스

을 : 자연 상태는 각자가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므로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누군가 자연의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 취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로크

병 :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곳곳에서 사슬에 매여있다. 우리 각자는 신체와 힘을 모두 일반 의지에 맡긴 후 다시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루소

(나)



① A : 자연 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 상태임을 간과한다.
홉스 : 자연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정의하지 않음

② B, D : 소유권은 사회 계약을 통해 획득된 산물임을 간과한다.
로크 : 소유권은 자연권의 한 종류 → 홉스, 루소 강조

③ C :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잘 보전해야 함을 간과한다.
로크 :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를 위해 사회 계약 체결
루소 : 사회 계약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 홉스, 루소, 로크 모두 강조

✓ ④ E :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는 점에서 사회 상태와 구분됨을 간과한다.
홉스 : 자연 상태 = 전쟁 상태
루소 : 최초의 자연 상태 = 평화 상태

⑤ F :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음을 간과한다.
홉스, 루소 모두 강조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홉스), 을(로크), 병(루소) 중 을(로크)의 제시문을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로크에 따르면 노동은 가치 창초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노동만이 재산에 대한 정당한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의 공유물에 노동을 투입함으로써 노동을 투입한 자신의 배타적 소유물로 만들 수 있다. 즉, 로크는 개인이 스스로의 노동을 투입하여 대지와 대지의 소산물에 생활의 편익을 가져오는 유용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자연의 공유물이 사적인 소유물로 변모되는 근거를 찾고 있다.

하지만, 로크는 한 개인에 의한 무제한적 소유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로크는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소유권을 부여하는 동일한 자연법이 또한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보며, 자연 상태에서의 소유권에 자연법이 부여하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소유권 행사의 한계	소유권 행사는 자연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노동 한계	개인은 오직 자신의 노동을 통해 산출한 것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짐.
	손상 한계	개인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만 소유해야 함.
	충분 한계	개인이 어떤 재화를 소유해도, 타인 또한 그 재화를 소유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함. 즉, 사적 소유는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에서만 정당화됨.

> 그의 육체의 노동과 그의 손의 작업은 정당하게 그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자연이 제공하여 준 상태로부터 무엇을 변화시키든지 그가 그의 노동을 투여하여 그 자신의 것인 어떤 것을 그것에 첨가한다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로크, 『시민 정부론』], [미래엔 생윤 교과서]

선지 설명

① 홉스는 자연 상태를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 상태라고 주장한 바 없다. 홉스에 따르면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 즉 부정의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홉스에게 '정의와 부정의'라는 개념은 사회 생활을 하는 인간들과 관계있는 성질일 뿐,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인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 정의 · 불의는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들과 관계있는 성질일 뿐,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그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소유도, 영유도, '내 것'과 '네 것'의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획득 가능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며, 자기 것으로 유지 가능한 기간 동안 자기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 왜냐하면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하는 소유권이 없이는 정의와 부정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유권의 결정은 오직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보장이 없는 소유란 무소유와 다를 바 없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물에 대해 누구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공유권도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과 같기 때문이다. …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부정의, 도덕과 부도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설명하였다. … 정의는 '맺은 신약을 수행하는 것'이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부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 [김용환, 『홉스의 사회 · 정치철학』]

② 로크의 경우 '소유권'은 사회 계약을 통해 획득된 산물이 아니다. 로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연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는데, 이러한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한다. 로크에게 소유권(사유재산권)은 자연권의 한 종류이다. 이러한 소유권은 사회 계약을 통해 획득된 산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이다.

>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천재 윤사 교과서]

> 그가 제시한 자연법의 기본원칙들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보다도 주로 개인의 권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정부가 존재하기 전에도 인간은 불가양의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평등하다. 그 중 주된 것이 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권리이다. [로크, 『통치론』]

홉스와 루소는 소유권이 사회 계약을 통해 획득된 산물이라고 본다. 먼저, 홉스에 따르면 국가가 없는 곳, 즉 자연 상태에는 소유권이 없다. 이는 개인들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득 가능한 기간 동안만 자신의 점유물이 될 뿐이며, 타인에 의해 언제든지 자신의 점유물을 빼앗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이러한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사회 계약을 통해 주권자로부터 안정적인 소유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주권자의 강제력으로부터 기인하는 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들이 자연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호 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 '각자의 것', 즉 소유권이 없는 곳에는 불의가 없으며, 어떤 강제력, 즉 코먼웰스가 없는 곳에는 소유권이 없다. 왜냐하면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코먼웰스가 없는 곳에서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데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은 그 계약의 이행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며, 또한 그때 비로소 소유권도 발생한다. [홉스, 『리바이어던』]

루소의 자연 상태에는 일시적인 점유만이 있을 뿐,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 계약 이후에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로서 인정되는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은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일반 의지를 형성하여, 일반 의지에 따른 제대로 된 정치법을 제정하고, 이 정치법에 의해 개인들은 정당한 권리로서 인정되는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장되는 소유권이며, 사회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 사회 계약으로 인간이 잃는 것은, 그의 자연적 자유와 마음이 끌려 손에 넣을 수 있는 무제한적 권리이다. 반면에 그가 얻는 것은, 시민적 자유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다. [루소, 『사회 계약론』]

③ 루소와 로크 모두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잘 보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틀린 선지이다. 루소에 의하면 사회 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실해버린 자유와 평등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회 계약은 공동의 힘 전체를 구성원 각자의 인격과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쏟는 결사의 형태이다. 따라서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인위적 산물인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잘 보전해야 함에 동의할 것이다.
로크에 따르면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자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시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그들의 사회적 자유와 소유물을 보전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

④ 루소에 따르면 최초의 자연 상태, 즉 원시 상태는 평화 상태이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연적 평등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반면, 홉스는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라고 본다.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심지어, 이들은 타인의 재산과 신체까지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상호 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고, 타인에 의해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참고로, 루소는 자연 상태를 평화 상태로만 규정하지 않았지만, 교육과정상 루소의 자연 상태는 평화 상태라고 기억하면 된다.

>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여 초기 자연 상태에서는 평화롭게 살았지만 차츰 사유 재산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비상 생윤 교과서]

위 내용처럼, 루소의 초기 자연 상태는 평화롭지만 사유 재산, 사유 재산 제도가 생겨나게 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생겨났다고 보면 된다. 또한, 루소의 자연 상태와 관련해서는 현자의 돌 블로그에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궁금한 수험생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코먼웰스(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 [홉스, 『리바이어던』]

⑤ 먼저 홉스에 따르면 사회 계약을 통해 확립된 주권자의 주권은 권리의 전면 양도를 통해 확립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주권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권리는 분할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이때, 수험생들은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이라는 예외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는 그만큼 주권의 양도 분할 불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된다.)

> 이러한 주권은 신의계약을 맺는 모든 개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자연권을 대표자에게 모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 각자의 권리를 뛰어넘는 강력함을 지니며, 백성들 누구에게도 복종의 의무가 주어지는 모소불위의 강대함을 갖는다. 이들 모든 권리들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표시로서, 그 자체 "주권의 본질"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주권에 불가분리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서" 나누어 가질 수도 없으며, 분할할 수도 없다." 이렇게 주권은 주권자로부터 분리될 수도 없고, 그 내용을 분할할 수도 없는 불가분리성과 분할불능성을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주권자가 분할 불가능한 무소불위의 모든 권력을 보유한다는 홉스의 주장은 그의 절대주권론의 입장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이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한편 루소에게 있어서 주권은 사회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최고 권력으로서,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는 것이다. 주권은 주로 입법권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주권의 행사는 인민만이 가능하다. 간혹 행정권(집행권)을 주권이 분할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루소는 행정권이 분할된 권력이 아니라 주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권 분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 권력으로서의 주권은 결코 분할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루소의 논지이다.

> 루소는 주권자인 인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절대권력, 곧 주권이 "양도불가성"과 "분할불능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본다. 이 점에서는 홉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루소는 주권자가 가지는 양도할 수 없고 분할할 수도 없는 주권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에만 한정되고, 주권자인 인민은 자기들이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권한을 중간적인 단체, 곧 정부를 선정하여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08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2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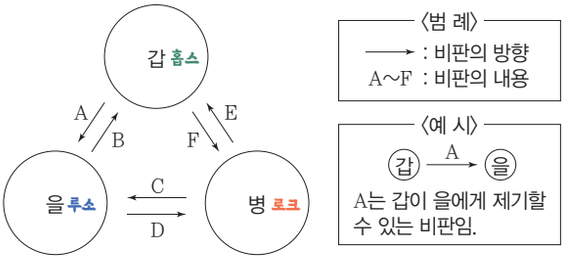
(가)

갑 :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의 욕구에 따르는 무제한의 자연권을 행사함으로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초래한다. 홉스

을 :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 하에 둔다.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으며, 시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다. 루소

병 :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는 신탁을 한다.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 로크

(나)



① A, F : 자연 상태의 인간이 이기적 존재는 아님을 간과한다.

② B : 시민이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보유해야 함을 간과한다.

홉스 : 절대 군주가 주권 지님
루소 : 주권 양도 불가 강조

③ C : 모든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을 간과한다. 로크, 루소 공통

④ D : 시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로크 주장

⑤ E : 국가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지 않아야 함을 간과한다.

로크 : 분리되어야 함

정답 ②

선지 설명

① 자연 상태의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본 것은 홉스뿐이다. 이때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이기심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홉스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 때문에 자연 상태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홉스는 루소와 로크에게 자연 상태의 인간이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고 비판할 수 없다. 오히려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이기적 존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② 루소는 시민 모두가 주권의 담당자라고 주장한다. 루소에 따르면 시민은 정기적인 집회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주권은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의지의 행사이다. 루소에게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분할될 수도 없다. 홉스는 시민이 아니라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을 지닌 주권자만이 주권적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한 주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이 홉스의 입장이다. 따라서 루소가 홉스에게 할 수 있는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비판으로 성립한다. 즉 정리하자면, 주권이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은 홉스와 루소에 모두 해당되지만, 주권을 소유한 주권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다.

③ 로크는 인간을 자유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이성의 주체로 본다. 따라서 자유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재산권의 보존을 핵심으로 하는 자연권의 보유자이다. 한편 루소에게도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본유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루소는 인간을 진실로 인간답게 하는 특성으로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자유 의지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따라서 로크와 루소 모두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임에 동의한다.

④ 해당 비판은 오히려 로크가 루소에게 가할 수 있는 비판이다. 루소에 따르면 입법권은 인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인 인민은 자신의 일반 의지의 표현인 법을 제정한다. 루소가 유일하게 정당한 정체라고 보았던 공화정에서의 주권은 입법권과 동일시되어 인민에게 귀속되고, 정부는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역할로 한정된다.

> 공화국에 있어 입법권은 인민의 정기 집회에 속한다. 법은 순전히 인민에 의한 일반 의지의 선언이기 때문에 입법권은 대신 행사될 수 없다.
> [박호성, 『루소 사상의 새 지평』]

> 우리는 입법권이 인민에게 속하며 오직 인민에게만 속할 수 있음을 보았다. 앞에서 확립한 원리들을 고려해 볼 때, 이와 반대로 행정권은 입법이나 주권과 같은 일반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루소, 『사회 계약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들은 각자 가지고 있던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본다. 이러한 양도 행위를 통해 공통권력으로서의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인 입법권과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인 집행권이 확립되고, 그것의 행사 주체인 입법부와 집행부가 수립된다.

나아가 로크는 정치사회의 다수자가 모두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수자의 동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한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는 시민들에게 있으며, 시민들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에게 정치권력을 위임한다.

⑤ 로크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를 제지하여, 사회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한다.

> 법률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면서, 부단한 집행 혹은 그것에 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유효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리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은 종종 분리된다. [로크, 『통치론』]

이와 달리 홉스는 사회 계약을 통해 확립된 주권자는 권리의 전면 양도를 통해 확립된 절대적인 것으로 그러한 주권자를 국가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홉스의 주권 분할불가능성을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리 나머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코먼웰스의 설립목적인 평화와 정의의 유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갈라진 나라는 버틸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러한 주권의 분할[이 불가함]을 말한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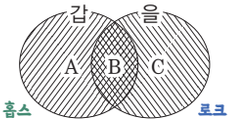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2022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가)

갑 : 인간이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과 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을 위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있다. 홉스

을 : 인간은 모든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권위를 가진 입법부를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로크

(나)



〈범 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

	갑	을
① A : 사회 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홉스 : 국가의 주권은 군주가 지님, 군주는 사회 계약의 주체 X / 로크 : 주권 재민 사상 강조)	O	X
② ~~A~~ C :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할되어야 한다. (홉스 : 국가 권력은 절대 군주의 독점적 권한(주권의 분할 불능성) / 로크 : 이권 분립 강조)	X	O
③ ~~B~~ :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들의 생명권 보장이다. (로크 :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 계약 체결)	-	X
④ C : 입법부가 지닌 권력은 제한될 수 있어도 철회될 수는 ~~없다.~~ 있다. (로크 : 입법부가 자연권 보호하지 못한다면 신탁 철회 가능)	-	X
⑤ ~~C~~ B : 사회 계약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닌다. (홉스 : 주권자만이 논쟁 판결, 보상과 처벌 내림 / 로크 : 사회 계약 시 처벌권 양도)	O	O

정답 ①

선지 설명

① 홉스만 동의할 내용이다.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는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다. 사회 계약은 자연 상태의 개인들 간 상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한 결과로 국가와 주권자가 수립되는 것이다. 홉스는 이러한 상호 계약을 통해 수립된 하나의 인격을 코먼웰스, 즉 국가라고 부르며 이러한 인격을 지닌 자를 주권자라고 본다. 이처럼, 주권자는 사회 계약 이후 수립된 인공적 인격이지, 사회 계약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

> 홉스에 따르면, 이렇게 국가를 설립하자는 신의계약은 다수의 개인들, 곧 국민들이 모여 개인들(국민들)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고, 이들의 합의에 의해 모든 사람의 권한을 양도받은 대표자, 곧 주권자와 국민들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다. 즉 계약의 주체, 곧 계약을 맺은 "본인"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인들이고, 이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주권자는 "인위적 인격(artificial person)"으로서 그들의 "대리인"일 뿐이다. 이때 계약의 주체인 개인들은 "그 신의계약의 모든 결과에 종속된다. … 여기에서 계약의 주체가 아니면서도 주권자가 권력 위임자인 국민들 각자의 권력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가지게 되는 역설이 도출된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 백성들은 상호간에 계약을 맺었을 뿐이지, 주권자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주권자는 아무와도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주권자만이 모든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그 '자연권'을 갖는다.
> [홉스, 『리바이어던』]

② 홉스가 아니라 로크의 입장으로 적절한 선지이다.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는 국가 권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절대 권력이다. 따라서 홉스의 주권은 주권자로부터 분리될 수도 없고, 그 내용을 분할할 수도 없는 불가분리성과 분할불능성의 특징으로 한다.

> 홉스는 법적 인격인 국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로 하는 계약자인 인민 모두가 자기들의 자연권을 결합하여 이를 양도한 대리인, 곧 주권자의 수에 따라 통치자의 형태는 민주정 · 귀족정 · 군주정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군주정이 가장 효율적이고도 편의적인 형태라고 보아 군주정을 지지한다. 이렇게 주권은 절대성을 가지며, 이는 절대군주 한 사람에게 독점되는 권한이라는 것이 홉스의 주장인 것이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③ 로크는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적을 개인들의 생명권 보장으로만 보지 않는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생명, 자유, 자산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생명권 보장을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포기하고 시민 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자유와 재산을 좀 더 잘 보전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송규범, 『존 로크의 정치사상』]

>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는 신탁을 한다.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 [로크, 2022학년도 9평 윤사]

참고로, 홉스는 인간이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고 본다. 결국 자기 보존이 사회 계약을 통한 국가 수립의 궁극적이자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④ 로크에 따르면 입법부가 지닌 권력은 제한될 수도 있으며, 철회될 수도 있다. 로크에게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행동할 수 있는 단지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왜냐하면 로크에게 모든 정치권력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권력이 그 목적을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면 신탁은 필연적으로 철회되며, 그 권력은 그것을 내준 자들의 손에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 정부에 신탁된 권력은 시민에 의해서 철회될 수 있다. [로크, 2023학년도 수능]

>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입법부가 자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 [로크, 2023학년도 6평]

⑤ 홉스와 로크 모두 동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이다. 홉스는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는 주권자만이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적용해 논쟁을 판결하고 보상과 처벌을 내린다고 본다.

> 주권자에게는 법을 제정하여 재산이나 영작으로 상을 수여하거나, 신체형, 재산형, 작위의 박탈 등으로 처벌할 권리가 있다. [홉스,『리바이어던』]

> 코먼웰스의 형벌권은 백성의 양보나 증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코먼웰스가 설립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기보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라고 굴복시키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코먼웰스에서 행사되는 형벌권의 근거이다. 즉 백성들이 주권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가 그들 모두의 보존을 위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주권자 자신의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준 것이다. 따라서 형벌권은 주권자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고 주권자에게만 남게 된 것으로, 자연법에 의해 정해진 한계를 제외하면, 완전한 자연 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와 같이 온전한 형태로 남게 된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로크의 자연 상태에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자연법이 존재하는데, 그에 따라 개인들은 각각이 재판관이 되어 집행한다. 즉, 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인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진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잘못을 행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들 사이의 권리 다툼을 판단할 때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다. 불완전한 존재인 개인들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자연 상태의 결함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자연권 행사의 불안정성 때문에, 개인은 분쟁을 피하고자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포기하고 정부에게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들은 각자 기꺼이 자신의 처벌권을 포기하여, 그들 중에서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행사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로크의 입장에서 사회 계약 이후에는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만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모든 인류의 평화와 보존을 지향하는 자연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위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 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로크, 『통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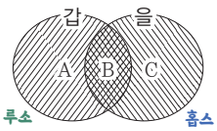
> 자연법의 핵심 내용은 자연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러나 자연법의 집행자가 피해자 본인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스스로가 재판관이 됨"으로써 자기애 때문에 "편파적이게 되거나" 복수심에 의해 타인을 "과도하게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자연법이 지배하는 자연 상태를 떠나 시민 정부를 구성하려는 시도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 국가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저질러진, 의당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이러저러한 범죄에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곧, 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 국가는 국가의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곧, 전쟁과 평화에 관한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능한 한 사회의 전 구성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로크, 『통치론』]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3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가)	갑 : 사회 계약으로 모든 사람은 각자 신체와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에 맡긴다. 주권을 지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일반 의지뿐이다. 루소 을 : 사회 계약의 목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 계약으로 성립된 리바이어던에게 복종해야 한다. 홉스
(나)	 〈범 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B : 국가는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다. 갑 을
루소와 홉스의 사회 계약 : 단일한 존재로의 결합 방식을 사용하는 결합 계약

ㄴ. B :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갑 을
루소 : 주권자 = 국민, 즉 국민이 입법권을 보유함
홉스 : 주권자 = 권리를 양도받은 한 사람 또는 합의체, 주권자가 입법권을 보유함

ㄷ. B : 인민의 동의가 국가 형성의 근거이자 주권의 근거이다. 갑 을
루소와 홉스는 사회 계약론적 입장에 따라 정치 권위의 기원이 동의 혹은 합의라고 봄

ㄹ. ~~C~~ B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생명권을 보장받는다. 갑 을
루소 : 사회 계약의 목적에 생명권 보장이 포함됨
홉스 :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 구성원들의 생명권 보장됨, 주권자의 역할이 국가 구성원들의 생명권 보장과 관련이 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제시문 갑은 사회 계약론 사상가 루소의 입장이다. '일반 의지'라는 핵심어를 통해 루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루소의 사회 계약은 각자가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전체 공동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하여 공동의 상위자로서의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모든 구성원이 이에 복종함으로써 단일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제시문 을은 사회 계약론 사상가 홉스의 입장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 '리바이어던' 핵심어를 통해 홉스임을 알 수 있다. 홉스는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빈곤하며 불쾌하고 짧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연인은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공통의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을 수립하는 계약을 이행한다고 본다.

선지 설명

ㄱ. 루소와 홉스가 모두 동의할 보기이기 때문에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홉스의 주장을 고려해 봤을 때, ㄱ 선지가 옳은 선지인지 틀린 선지인지를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해당 선지에 대한 루소의 입장을 두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루소 입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선지가 루소 입장에서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 선지 파헤치기

1) '계약 주체들의 의지'

루소는 의지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한다.

특수 의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
일반 의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
전체 의지	개인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는 사적인 특수 의지의 총화

> 모두의 의지(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 사이에는 흔히 큰 차이가 있다. 일반 의지는 오직 공동이익에 몰두한다. 모두의 의지는 사적인 이익에 몰두하며 개별 의지의 합일 뿐이다. 그런데 이 개별 의지들에서 서로 상쇄되는 더 큰 것들과 더 작은 것들을 빼면, 차이들의 합계로 일반 의지가 남는다.
> [루소, 『사회 계약론』]

단, 전체 의지를 '각 의지가 결합된 산물'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에서 "모두의 의지는 사적인 이익에 몰두하며 개별의지의 합일 뿐이다."라고 한 것처럼, 전체의지는 단순한 총합(sum)인 것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합(associate)된 일반 의지와는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루소 입장에서 하나로 결합(association)될 수 있는 의지는 전체 의지가 아니라 일반 의지이다.

2) '하나로 결합'

이 선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소에게 있어 '결합'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배우는 사회 계약론 사상가 중 '결합'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상가는 홉스와 루소이다. 그리고 이 선지는 이러한 공통점에 착안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홉스와 루소가 활동했던 당시에 국가, 정치와 관련된 계약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통치 계약(종속 계약) :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에 맺는 계약, 통치자와 피통치자는 쌍방 의무를 지게 됨. 통치자는 피통치자와의 계약을 통해 피통치자로부터 주권을 받음.
→ 피통치자는 통치자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통치자는 내가 의무를 잘 지켰다고 항변하게 됨. 즉, 단일한 권위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음.

홉스와 루소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단일한 존재로의 결합'을 의미하는 결합 계약의 개념을 사용한다.

② 결합 계약 : 통치 계약처럼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에 맺는 계약이 아님. 계약을 맺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존재로 결합하는 데 동의하는 계약임. 구성원들이 결합된 하나의 존재가 주권자가 되어 절대 권력을 가지며 공통 권위의 역할을 수행함.

이 중 홉스와 루소의 사회 계약은 통치 계약이 아니라 결합 계약의 성격을 띤다. 즉, 홉스와 루소의 사회 계약은 '단일한 존재로의 결합' 방식을 사용하는 결합 계약이다. 결합 계약은 구성원들이 어떤 하나의 존재에게로 결합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단 하나의 존재 혹은 집합체(루소에게 있어서는 국가, 하나의 인민 단체, 하나의 정신적 인격체)에게로 결합하는 것이 결합 계약이다.

>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동체에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 … 그러므로 사회 계약에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협약이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있는 공동의 것으로 한다. 그리고 하나의 몸체로서의 우리는 각 구성원을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각 계약자의 개인적 인격은 사라지고 이 결합 행위는 대신 하나의 집합적인 법인체(공적 인격)를 만든다.
>
> [루소, 『사회 계약론』]

우선 이 원문에서도 '하나의 몸체', '하나의 전체', '하나의 집합적인 법인체'라고 언급하면서 결합 계약이 여러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의 결합임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계약을 맺고 결합하게 되면 개인적 인격이 사라지고 공적 인격 안에서 일반 의지의 지도에 놓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구성원들이 결합되었을 때, 개인적 인격과 관련된 특수 의지는 사라지고 공적 인격과 관련된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를 특수 의지들의 총화인 전체 의지를 상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로 결합되었다고 했을 때 그 의지는 일반 의지를 의미하며, 국가라는 공적 인격은 일반 의지의 산물이다.

> 다수가 하나의 정치단위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지결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하나의 의지결합은 모든 개인이 똑같은 것을 원하거나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자기도 원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정치적 단위에 대한 홉스의 생각은 후자에 기인한다(루소는 정치적 단위에 대한 설명의 기반으로 전자를 택했다.).
>
> [볼프강 케스팅, 『홉스』]

위 책에서는 홉스와 루소가 모두 의지의 결합 방식을 사용하여 사회 계약을 설명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홉스는 '한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에 의한 결합 방식을 사용하고 루소는 '모든 개인이 똑같은 것을 원하는 것'에 의한 결합 방식을 사용함을 설명하여 둘의 결합 방식에 다소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루소의 '모든 개인이 똑같은 것을 원하는 것'에 의한 결합 방식은 모든 개인이 똑같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모든 개별 의지의 총합인 '전체 의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의지의 결합은 홉스와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다.

ㄴ. 이 선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 루소와 홉스에게 있어서 주권자는 누구인가? (2) 주권자가 입법권을 가지는가? 가 바로 그것이다.

(1) 루소에게 있어서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을 소유한 주권자는 국민이다. 왜냐하면 루소의 사회 계약은 각 개인이 자신의 힘과 권리를 전체 공동체에 양도한 후, 공동의 권력에 의해 다시 자신의 것을 보장받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다.

> 주권자는 그것을 구성하는 다수의 개개인에 의해 형성된 단일체이다. 그들의 이해에 반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다. 따라서 주권자의 권력에 대한 신민의 보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단일체가 자신의 전 구성원에 해를 가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
> [루소, 『사회 계약론』]

(2) 루소는 주권자인 국민이 입법권을 소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는 입법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을 소유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구현하고 정치적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순한 행정 조직이므로,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 입법권은 국민에 속해 있으며 국민에게만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집행권은 입법자나 주권자로서의 국민 전체에 속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공공의 힘은 전체 의사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그 힘을 통하여 발효케 하는 적당한 대행자를 필요로 한다. 이 대행자는 국가와 주권자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마치 개인에게 있어 육체와 정신을 결합하는 것 같은 구실을 공공 인격체 내에서 수행한다. 주권자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실은 그 주권자의 대행자에 불과한 정부의 존재가 국가 내에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
> [루소, 『사회 계약론』]

→ 루소의 관점에서 국가와 주권자의 대행자인 정부는 구분된다.

(1) 홉스는 자기 보존을 위한 계약을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공통 권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공통 권력은 자연인들이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수립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양도받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가 주권자가 되며,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주권자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한다.

(2) 홉스는 주권자가 입법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주권자가 입법권을 가지는 이유는 주권자의 역할이 평화와 안녕을 실현하여 국가 구성원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ㄷ. 루소와 홉스의 공통된 입장으로 적절하다. 사회 계약론 사상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루소와 홉스는 정치 권위의 기원을 자연이 아니라 동의 혹은 합의에 두고 있다.

> 사회 질서는 신성한 권리로서 다른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 권리는 자연에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타인에 관한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고 또 힘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합의만이 모든 정당한 권위의 기초로서 남는다.
>
> 시민적 결합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자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자발적인 행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래 자유롭고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구실로도 인간을 그의 동의 없이 예속시킬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
> [루소, 『사회 계약론』]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 인간적인 권력 중 최대의 권력은 다수의 인간들이 동의하여 오직 일인의 자연적 또는 사회적 인격에 그 권력을 집결시키고 그 일인의 인격이 그의 단일 의지에 의거하고 따르는 그들 모두의 권력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대다수에 의해 선언된 주권 설립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불의요 부정이다. 다수가 동의하여 주권을 선언한 이상, 반대한 자도 이들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국가의 설립에서, 결집한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주권을 부여받은 인간 또는 합의체에 모든 권리와 모든 권능이 유래한다.
>
> [홉스, 『리바이어던』]

ㄹ. 루소와 홉스의 공통된 공통 입장이기 때문에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지니고 있었으나 불평등한 현실 사회에서 잃어버린 자연적 자유를 현실 사회에서 사회적 자유로 복원하는 것을 사회 계약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계약의 목적에 생명권 보장이 포함된다고 본다.

홉스의 사회 계약은 주권자를 형성하여 그 주권자가 평화와 안녕을 실현하고 국가 구성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홉스는 주권자의 역할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처벌의 공포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평화와 안녕, 그리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기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즉, 홉스는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 구성원들의 생명권이 보장되고, 주권자의 역할이 국가 구성원들의 생명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11

다음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3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 벌 같은 동물도 군집 생활을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인간은 고유한 언어 능력에 기초하여, 더 높은 차원의 공동체인 국가를 형성해 생활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에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추구합니다. 국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최고선을 위해 존속합니다. 누군가 국가를 떠나 홀로 자족하며 살 수 있다면 그는 신 혹은 야수일 것입니다.
>
> 아리스토텔레스

① 인간 공동체들 중 국가만이 좋음을 추구할 수 있다.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됨

② 인간의 물질적 자족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국가는 구성원의 물질적 + 윤리적 자족성 충족시킴

③ 국가가 형성된 후에만 인간은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인간의 고유한 능력

④ 국가는 인간 공동체의 최선의 단계로서 최고의 좋음을 추구한다.
인간 공동체의 최선의 단계, 으뜸가는 선을 목적으로 추구함

⑤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본성이 없지만 행복의 실현을 위해 국가를 결성한다. 인간 :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폴리스적 동물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강연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로서, 인간의 자족적인 삶은 다른 공동체(가족, 마을)가 아니라 폴리스(도시국가)라는 공동체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존재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실현하는 데에 국가 공동체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최고선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폴리스의 성공적인 행복 실현은, 그 폴리스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게 되어 있는 동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지 설명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족, 마을, 국가 등 모든 인간 공동체가 '좋음'을 추구한다고 본다. 다만 국가는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 모든 국가는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 무릇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좋음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든 공동체가 어떤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야말로 분명 으뜸가는 좋음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할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국가이다.
>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수능 & 평가원 기출 문제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구성원의 '물질적 자족성'과 '윤리적 자족성'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최상의 공동체이다.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 또는 인간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족성이다. 국가는 가족이나 촌락과 같은 하위의 공동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최고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목적 역시 다른 모든 공동체의 목적을 포괄하고 또 그것을 규정하는 최고의 목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목적으로서의 자족성은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족성은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 하나는 자기 보존과 종족보존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물질적 자족성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적 · 국가적 차원에서 윤리적 · 정치적 선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의 윤리적 자족성이다. "국가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나중에는 선한 삶을 위해 존속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서 자족성의 이원성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최초의 목적으로서의 〈생존〉은 물질적 자족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의 존속을 위한 지속적인 목적으로서의 〈선한 삶〉은 윤리적 자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
> [한상수,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론 :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

> 우리는 국가의 기원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정치적 내지 공동체적 존재로서 공동체 속에서의 생활을 지향한다는 것, 둘째, 국가의 형성 과정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자연적인 과정이라는 것, 셋째,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목적은 구성원들의 물질적 · 도덕적 자족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넷째, 가족이나 촌락과 같은 공동체가 국가 속에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된다는 것. 이러한 결론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의 본질과 목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
> 먼저 국가의 본질과 관련하여 1) 국가는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공동체로서 선행하는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공동체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공동체라는 것(국가의 포괄성과 최고성), 2) 국가는 인간의 자연(본성)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존속되는 자연적 공동체라는 것(국가의 자연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
> 또한 국가의 목적과 관련하여 국가는 물질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도덕적 측면에서 인간의 자족성의 완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덕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도덕성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목적의 설정은 덕의 체득을 위한 도덕교육의 중요성과 도덕교육에 위한 법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다양한 덕, 특히 최고의 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전개하고 있고, 또 『정치학』에서 법이 도덕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도덕적 자족성이라는 국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상수,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③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언어 능력은 인간의 고유한(타고난) 능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 사람들의 결합은 서로가 끌려서 일어난 것이며, 이것은 그들이 공유하는 언어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은 합리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적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성적 언어 능력이 유익한 것 혹은 해로운 것, 따라서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별하게 해준다.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윤리적 · 도덕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능력을 가진다.

> 이로써 인간이 벌이나 그 밖의 군서동물보다 더 국가 공동체를 추구하는 동물임이 분명해졌다. 자연은 어떤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런데 인간은 언어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다. 단순한 목소리는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으며 고통과 쾌감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다른 동물들도 본성상 고통과 쾌감을 감지하고 이런 감정을 서로에게 알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해한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밝히는 데 쓰인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좋음과 나쁨, 옳고 그름 등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공유에서 가정과 국가가 생성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 공동체의 최선의 단계(으뜸가는 공동체)인 국가 또는 국가 공동체(politike koinonia)는 으뜸가는 선(善)[최고의 좋음]을 목적(telos)으로 추구한다. 이때 말하는 '으뜸가는 선, 최고의 좋음'이란, (1) 국가 구성원의 생존(자급자족적 삶)과 훌륭한 삶(선한 삶, 좋은 삶, 행복한 삶)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 참고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국가 공동체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해서, 공동체의 최선의 목적인 '구성원의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자급자족은 최고선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구성원들을 도덕적으로 교육시켜서, 구성원들을 도덕적 존재로 만들 때, 국가의 최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국가는 '자급자족'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도덕적 교육'이라는 내면적 측면을 모두 달성해야, 그 국가의 구성원들의 도덕적 목표인 행복한 생활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그 자체로 항상 바람직하고 어떤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최종 목적이며, 행위의 목표가 되는 선(善) 중에서 최고선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폴리스적 동물]이다. 인간은 오직 국가 안에서만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에서 구성원(인간들)은 덕성을 함양하며, 좋고 훌륭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2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3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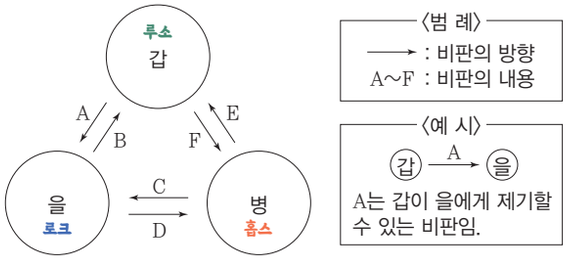
(가)

갑 : 인간은 자연 상태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개인은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일반 의지의 지배하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를 잃지 않게 된다. (사회적 자유의 획득) (루소)

을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런데 각자가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시민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로크)

병 : 경쟁심, 불신, 영광에 대한 욕구가 인간들 사이의 분쟁 원인이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홉스)

(나)



① A :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 집행권은 모두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② B, D : 불법은 공통 권력이 존재할 때만 성립 가능함을 간과한다. (로크의 입장)

③ C : 자연 상태에서 분쟁하는 인간에게도 자연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홉스의 입장)

④ E :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로크와 홉스 공통 : 자연 상태의 인간은 본래부터 자연권을 누린다고 봄 / 루소와 홉스 공통 입장)

⑤ F :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가 사회 계약의 계기가 됨을 간과한다.

루소 :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도 사회 계약을 통해 양도되는 권리, 일반 의지에 제한될 수 있음
홉스 :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는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

홉스 : 사회 계약 이전에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루소 : 사회 계약 이전의 '기만적 사회 상태'에서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제도가 사회 계약의 계기가 됨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은 사회 계약론 사상가 루소의 입장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일반 의지의 지배하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를 잃지 않게 된다고 본다. 루소에 따르면 각 개인은 개인적 자유와 공동의 시민적 자유를 교환하는 계약을 맺는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국가의 각 성원은 대등한 위치에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유 혹은 영향 수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루소의 사회 계약은 구조화된 예속과 불평등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지니고 태어난 자유와 평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이는 불평등한 현실 사회에서 잃어버린 자연적 자유를 사회적 자유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의 힘 전체를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쏟는 결사 형태. 이를 통해서 각자가 전체와 결합돼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결사 형태를 발견하라.'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로서 사회 계약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
> [루소, 『사회 계약론』]

을은 사회 계약론 사상가 로크의 입장이다. 자연법 집행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로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제시문 병은 사회 계약론 사상가 홉스의 입장이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의 분쟁 원인은 경쟁심, 불신, 영광에 대한 욕구이다.

자연 상태에서의 분쟁의 원인	
경쟁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하는 것들이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의 주된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불신	나의 이웃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웃을 의심하게 된다.
영광에 대한 욕구	자연인들은 자기 주변의 동료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을 평가해주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자신을 경멸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사람에게는 손해를 입히고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 바꾸어 말하면 자연인의 허영과 명예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다.

선지 설명

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자연법 집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로크에 대한 비판으로 성립할 수 없다. 한편 로크는 자연법의 집행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

>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자기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권과 그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자연인 각자에게 주어져 있어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의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어서 개인의 재산(생명, 자유, 자산)을 보전하기 힘들게 되므로, 자연인들은 자발적 동의를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법 집행권을 포기하고, 이를 공통의 권력, 곧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국가 권력을 탄생시킨다는 것이 로크의 사회 계약론의 골자이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 만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모든 인류의 평화와 보존을 지향하는 자연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위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 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로크, 『통치론』]

② 홉스에 따르면 공통의 권력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이처럼 공통의 법과 권력이 없는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정념만이 유일한 행위 표준이 된다. 즉, 옳고 그름과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할 공통의 기준이 없기에, 자연 상태는 개인들 간 폭력과 기만이 판치게 된다.

> 인간의 욕망과 기타 여러 가지 정념들은 결코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아니다. 그러한 정념에서 생기는 행동들도 이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그러한 행동들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법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누가 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어떠한 법도 만들어질 수 없다. [홉스, 『리바이어던』]

>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옳음'과 '그름'의 관념,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없는 곳에는 불의(즉 불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없는 곳에는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폭력과 기만 뿐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③ 홉스와 로크 모두 자연 상태의 인간은 본래부터 '자연권'을 누린다고 보기 때문에, 로크에 대한 비판으로 성립할 수 없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인들이 분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이다. 우선 홉스는 애초에 자연 상태를 전투 의지가 만연한 '전쟁 상태'라고 규정하며,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들이 지니는 무제한적 자연권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자연권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처럼 모두가 무제한적인 자연권을 가지고 있으면, 법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투쟁 의지가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홉스의 생각이다.

이에 반해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연법이 지배하는 비교적 평화로운 목가적인 상태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개개인들이 모두 자연권(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권리)을 평등하게 향유한다. 그러나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 때문에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자연권의 향유가 불확실해진다고 본다. 심지어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연 상태에는 (1) 공통의 실정법의 부재, (2) 무사 공평한 재판관의 부재, (3) 공통된 처벌 집행권의 부재라는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홉스와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의 분쟁을 극복하고자 개개인들이 사회 계약에 동의한다고 본다. 홉스는 주권자, 즉 리바이어던이 공통의 힘(인위적 강제력)으로 그러한 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로크는 사회 계약을 통해 제정한 공통의 법률과 공통의 재판관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로크의 자연권

특징	자연권은 천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며, 자연법 이외에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의 평등한 권리이다.		
종류	재산	생명권	인간이 자신의 생명 보존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불가침의 자연적 권리
		자유권	타인의 자의적인 권력 혹은 의지에 종속되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불가침의 천부적 권리
		사유 재산권	자기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즉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소유, 사용, 소비, 교환을 배제하는 불가침의 천부적 권리로서, 개인의 자유의 직접적인 표현

④ 루소에 따르면 개인들은 사회 계약을 통해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한다. 즉, 루소의 입장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 또한 사회 계약을 통해 양도되는 권리이며, 이는 공동체의 일반 의지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루소에 대한 비판으로 성립할 수 없다.

>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목적을 바라는 사람은 또한 수단도 원한다. 그런데 수단은 다소의 위험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명 피해자들까지도 수반한다. 남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남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루소, 『사회 계약론』]

한편 홉스 또한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이해하려면, 자연권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즉, 자기 보존을 위한 (1) 적극적 권리 (2) 소극적 권리 이렇게 나누어서 보자.

권리에 있어서 '적극적'과 '소극적'이라는 개념은, 게임에서 '액티브 스킬'과 '패시브 스킬'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게임에서 스킬은 버튼을 눌렀을 때 발동하는 액티브 스킬과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항상 적용되는 패시브 스킬이 있다.

적극적 권리라는 것은 버튼을 눌러서 스킬을 사용하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작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행사되는 권리를 말한다. 반대로 소극적 권리란, 그 권리를 내가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즉, 홉스에게 있어서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란, '자연권'의 적극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자연 상태에서 각자는 "자연권"을 소유하고 있다. 홉스의 자연권이란, "각자가 자신의 본성, 즉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서 생명의 보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수단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xiv,1). 이러한 자연권, 즉 각자의 자유는 그 범위에 있어 어떤 제한도 없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하여, 심지어 서로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소유한다"(xiv, 4).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노예로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런 방해를(사회적인 규칙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연권은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단 우리의 행위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하는데 필요한 한에서,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한다. 자연 상태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각각 자연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애링턴, 『서양 윤리학사』]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권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노예로 만드는 등'을 허용하는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기능한다. 정리하자면 홉스에게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란, 자연권 중에서도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능동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홉스의 자연법	
제2 자연법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의 포기 요구 : 신의 계약
	홉스는 제2자연법에 따라서, "평화와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한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한다. 즉, 홉스는 이성의 명령인 제2자연법이 자연인으로 하여금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자연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신의 계약(규약,Covenant)'이라고 한다.(단, 홉스는 자연인들이 양도 불가능한 권리(생명 보존을 위한 권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3 자연법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의 신의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명령
	홉스는 그러한 신의 계약이 이행되도록 강제할 충분한 권리와 힘을 가진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지켜질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홉스는 제3자연법을 통해서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를 포기하기로 맺은' 신의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명령한다. 즉, 제3자연법은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신의 계약이 준수되게 하는 이성의 명령이다.

즉,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홉스에 따르면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1) 제2자연법에서 '자연권을 포기하라'라고 이성의 필연적 요구됨 : 신의 계약

(2) 제3자연법에서 '신의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명령 :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신의 계약이 준수되게 함.

결론 : 사회 계약을 통한 국가 수립은 자연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자연권)는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사회 계약이 없으면, 신의 계약이 폐기(무효화)된다.

즉, 사회 계약은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의 포기가 성실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⑤ 홉스는 사회 계약 이전에 '제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없다. 홉스의 사회 계약의 계기는 자기를 보존하고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성의 명령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성의 명령인 자연법에 따라서 자연인들이 자신들이 지닌 자연권 중에서 양도 가능한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양도)하고자 한다. 또한 홉스는 사회 계약을 통해서 계약의 당사자인 백성들이 자신이 수립한 주권자(=리바이어던)에게 복종하겠다는 복종 계약을 맺는다고 본다.

반면, 루소는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 즉 사유 재산 제도가 사회 계약의 계기가 된다고 본다. 루소는 사유 재산의 확립으로 평등했던 개인들 사이의 평등이 깨지고 무질서가 초래됐다고 본다. 즉, 사유 재산 제도의 발생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과 예속의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만든다고 본 것이다. 루소는 태초의 평등과 자연적 자유을 억압한 사유 재산 제도가 사회 계약의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루소는 사유 재산의 발생과 함께 인간은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자유가 속박되었다고 주장한다. [미래엔 윤사 교과서]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여 초기 자연 상태에서는 평화롭게 살았지만 차츰 사유 재산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비상 생윤 교과서]

13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3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갑 :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을 동일한 계약 조건하에 놓이게 하며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한다. 이 계약의 특성에 의해 일반 의지의 정당한 모든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루소

을 :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것은 오직 그 자신, 그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로크

① 갑 : 주권은 일반 의지에 의해 성립하며 정부를 통해 ~~대표~~된다.
양도 ×, 분할 ×, 특정인에 의한 대표 X

② 갑 :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은 시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
=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 ∴ 자유로움 있다.

③ 을 :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로크 : 사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 사회에서 확립된 법률

④ 을 :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은 ~~자연법에 의해 불가하다~~.
자연 상태의 개인 : 자연법의 집행권 소유 가능

⑤ ~~갑~~과 ~~을~~ :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루소 :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연적 자유 지님, 모든 것에 대한 권리 가짐
로크 : 인간은 자유·권리·이성의 주체로 태어남

정답 ③

선지 설명

① 루소에 의하면 주권은 국가 최고 권력으로서 일반 의지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주권은 주권자인 시민의 단일 정치 공동체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대표될 수 없으며,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된다.
또한 루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의사를 집행하는 대행자일 뿐이다.
루소는 주권자가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권한을 중간 단체인 정부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위인 일반 의지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집행 행위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특수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주권의 부분인 것처럼 보이는 권리들은 전부 주권에 종속되어 있고 따라서 권리들은 최고의지를 전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권리들은 최고의지를 집행할 뿐이다. … 행정권은 입법이나 주권과 같은 일반성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행정권은 개별적인 행위들로 구성되는데, 개별적인 행위들은 법과 무관하고 따라서 모든 행위가 곧 법인 주권자와도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적인 힘에는 적절한 대행인이 있어야 한다. 이 대행인은 공적인 힘을 규합하여 일반 의지의 지휘 아래 사용하고, 국가와 주권자 사이의 교통을 담당하여, 어떤 의미에서 영혼과 실체의 결합이 인간 안에서 하는 일을 공적 인격 안에서 한다. 바로 이것이 국가 안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다. 근거 없이 주권자와 혼동되긴 하지만, 정부는 주권자의 집행자일 뿐이다. [루소, 『사회 계약론』]

② 루소에 따르면, 일반 의지는 자유 의지 중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이므로 일반 의지에 따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루소는 국가의 법을 확인함으로써 일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루소에게 법은 '일반 의지의 행동' 혹은 '국민의 전체 의사의 선언'이다.
즉, 법은 일반 의지 혹은 국민의 전체 의사가 국가에서 법의 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법은 일반 의지가 실현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은 도덕적 의지인 일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충동의 예속에서 벗어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은 시민이 자유와 양립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은 법에 복종함으로써 참된 사회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루소는 "사회 계약에 의해 각 개인은 자유롭게 되도록 강요받는다"고 진술하여, 사회 계약이 자유보장의 체계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인간의 자유를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자연적 자유"와 사회 계약 이후 시민상태에서 누리는 "시민적 자유" 및 "도덕적 자유"로 구분하고, 사회 계약은 개인의 힘에만 의존하는 자연적 자유를 확고한 합법적 자유로 대체하는 정치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유의 측면에서 사회 계약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개체로서의 개인적 힘에 의지하여 사적인 이기적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던 자연인의 "자연적 자유"는 사회 계약을 통하여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놓임으로써 합법적으로 정당화된 권리를 추구하는 "시민적 자유"로 확장되고, 급기야는 스스로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덕적 자유"의 경지로까지 승화된다는 것이 루소의 주장이다. 이와 같이 루소에게 있어서 사회 계약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모든 활동을 정당화하는 근거인 일반 의지에의 복종을 통해, 역설적으로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추고 있는 절대가치인 자유를 진정으로(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실현하는 해방자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 모든 국가 구성원의 일관된 의지가 일반 의지이고, 그들이 시민이고 자유로운 것은 바로 이 의지를 통해서다. 인민집회에서 어떤 법이 제안될 때, 시민들에게 묻는 것은 정확하게는 그들이 법을 승인할지 혹은 거부할지 여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지이기도 한 일반 의지에 법이 부합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여부다. [루소, 『사회 계약론』]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③ 로크에 따르면 사회 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자연권을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률이다. 따라서 로크는 모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으로 본다.

>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커다란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률이다. 모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입법권 자체마저 지배하는 자연법의 기본적인 첫째 조항은 사회의 보존이며 (공공선과 양립 가능한 한도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존이다. [로크, 『통치론』]

④ 로크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위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 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법 역시, 만약 자연 상태에서 그 법을 집행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무고한 자를 보존하고 공격자를 억제할 사람이 없다면 공허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자연법 집행권은 차분한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범법자에게 그의 침해에 비례하여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권력으로서 배상과 범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자연인은 자유의 주체로서 자기의 인신을 포함하여 모든 소유물에 대한 재산권은 물론 이를 지키기 위한 부속 권리, 곧 재산권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처벌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자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다. 이러한 자연권의 요체는 한마디로 자기보존의 권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자연권의 핵심은 누구의 침해도 받지 않고, 그리고 만일 남이 침해하면 보복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인신과 소유물을 지킬 수 있는 자기보존의 권리인 것이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⑤ 우선 루소에 의하면 인간은 각자 자연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인도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능력을 부여받고 태어나며,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그가 마음이 끌리면 언제나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인은 이러한 자유와 평등, 즉 자연적 자유와 평등을 완전하게 누린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한편 로크는 인간이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태어나며, 또한 동시에 이성의 주체로 태어난다고 본다.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재산권의 보존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연권의 보유자이고, 이성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자연법의 집행자이다.
따라서 사회 계약을 통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자유나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루소와 로크의 입장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14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4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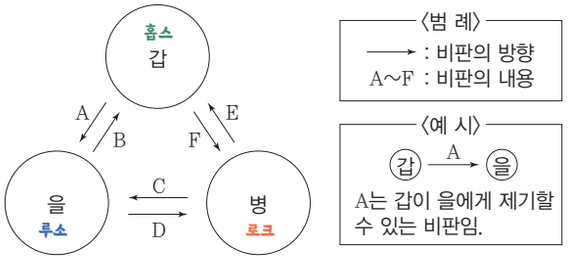
(가)

갑 :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그러나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인 자연법을 제안한다. 홉스

을 :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뿐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루소

병 : 통치자가 피치자의 자유, 생명,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의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로크

(나)



① A와 F :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없음을 간과한다.
홉스 & 루소 & 로크 :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있음

② B : 계약 당사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루소 : 사회 계약의 주체는 모든 구성원들이고, 국민들 모두가 입법권을 가짐
홉스 : 입법권은 주권자가 지니고, 주권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님

③ C :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임을 간과한다.
→ 루소의 입장

④ D : 사회 계약의 목적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간과한다.
→ 로크의 입장

⑤ E :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홉스 : 소유권이 없는 곳에는 불의가 없으며, 코먼웰스가 없는 곳에서는 소유권이 없다.
홉스의 정의 개념 : '신의 계약'의 이행 혹은 불이행과 관련됨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갑은 사회 계약론 사상가 홉스의 입장이다.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홉스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을은 사회 계약론 사상가 루소의 입장이다. 주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점,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루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루소의 주권은 입법권에 한정되는 것이다. 또한 루소에게 '입법행위'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주권은 곧 일반 의지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 된다.

수능 & 평가원 기출 문제

루소에 의하면 법이란 일반 의지에 속하는 것이고, 입법행위란 일반 의지의 행사이며,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김행선, 『루소의 생애와 사상』]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뿐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는 루소의 말은 결국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는 말이다. 즉, 아무도 나를 대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것은 "주권은 양도, 분할, 대표될 수 없다"로 귀결된다.

"입법권은 오직 국민 전체로서의 주권자에게만 있는 권리"로서 대표자에게 위임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로 설정되고 있어서, 고대 아테네에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있다. "주권자는 입법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법에 따라서만 작동할 수 있으며, 법은 오로지 일반 의지의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권자는 모든 인민이 집회하였을 때에만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루소는 주권 행사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에 한정하고 있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정부와 주권자 사이에 중계자로서 또 하나의 권력이 있을 수 있는 바, 곧 대의원 내지 대표자의 권력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일반 의지는 양도 불가능한 것처럼 대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대의원은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인민의 사용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도 인민이 비준하지 않은 법은 무효이다. 정부 조직 역시 인민과 행정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산물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인민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인민에 복종하는 것이다. 사실 행정관들은 그들의 직책을 완수함으로써 단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따름이다. [루소, 『사회 계약론』 해제,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병은 사회 계약론 사상가 로크의 입장이다. 통치자가 신탁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의 저항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로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제한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그 목적을 명백히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면 신탁은 필연적으로 철회되며, 그 권력은 그것을 내준 자들의 손에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로크, 『통치론』]

한편 '신탁'이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래를 참고하자.

'trust'라는 표현을 '신탁'으로 번역하는 것인데, 'trust'는 한편으로 '신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로 번역할 수 있다. 신탁에는 세 명의 당사자가 존재한다.

(1) 신탁의 창설자 또는 신탁자
(2) 수탁자
(3) 신탁의 수혜자

가 그것이다. 신탁자에 대해서 수탁자는 제3자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 수탁자가 신탁의 수혜자에 대해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다. 수탁자는 신탁의 수혜자에 대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탁의 구조이다. 이러한 신탁의 개념이 정치 이론으로 적용될 때는 단지 두 개의 당사자만이 존재하게 된다.

즉, 신탁자(공동체, 인민)와 수탁자(정부)만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신탁의 수혜자가 곧 신탁자이며 둘 다 인민이기 때문이다. 신탁자로서 공동체(혹은 인민)는 수탁자로서 정부와 계약에 들어가는데 이때 수혜자로서 공동체(인민)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수탁자로서 정부는 공동체(인민)와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으며, 신탁과 그 배경이 되는 신법 혹은 자연법에 의해 설정된 한계를 통한 의무만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따라서 정치적 신탁은 의무와 부담을 의미한다.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탁된 권력의 남용 혹은 해태(neglect)에 대한 책임이다. 그 책임은 신탁에 반한 행동을 이유로 정부를 폐지하는 것에까지 미친다.

로크의 사회 계약을 단순한 계약이 아닌 신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부의 권력을 최소화하고 대신 의무를 많이 부담 지우고자 하는 로크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이다. 단순한 계약으로 해석할 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와 인민이 계약의 독립된 당사자로서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데 반해, 로크에게 정부란 인민 안에서, 인민을 통해서, 그리고 인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신탁으로 해석할 때만 그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인민간의 통치 계약은 로크의 사회 계약론에서 차리할 자리가 없으며 신탁을 통한 정부의 의무와 인민의 권리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로크, 『통치론』 해제,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요약]

사람들은 자연적인 권력을 사회에 위임하며, 사회는 일정한 사람의 수중에 입법권을 위임한다. 사람들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고 신탁을 하는 것이다. [로크, 2021학년도 9평 윤사]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는 신탁을 한다.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 [로크, 2022학년도 9평 윤사]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입법부가 자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철회할 수 있다. [로크, 2023학년도 6평]

로크(○) : 정부에 신탁된 권력은 시민에 의해서 철회될 수 있다. [로크, 2023학년도 수능]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정리하자면 로크는 정치사회가 형성되는 방식과 정부가 수립되는 방식을 구분한다. 정치사회가 형성되는 방식은 사회 계약이지만, 정부가 수립되는 방식은 신탁이다. 즉, 로크에 따르면 정부는 신탁의 산물이며, 이에 따라 정부가 소유한 권력은 신탁 권력이 된다.

신탁 관계에서 정부는 수탁자, 시민은 신탁자이자 동시에 수혜자이다. 따라서 시민과 정부 사이에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신탁의 목적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만을 질 뿐, 시민에 대해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다.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는 신탁을 한다. 이렇게 개인들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 즉 자연권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호를 위해 신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정부 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정부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시민은 그러한 정부를 교체할 권리를 지닌다.

선지 설명

① 홉스, 루소, 로크 모두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있다고 보므로 틀린 선지이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 즉 자연권을 가진다. 이러한 자연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다. 즉,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있다.

>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폭력으로 획득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만인이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여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공통의 동의에 의해 자신들을 통치하고 보호해 줄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진) 사람을 세웠던 것이다.
>
> [홉스, 『리바이어던』]

루소 또한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자연적 자유를 누린다는 점,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 루소에게서 총체적 양도는 개인의 자연권을 폐지하는 데 귀착되지 않고, 자연권을 시민의 권리로 환원시키기 위한 인위적 장치로서 작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각 구성원은 그의 천부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바꾸고, 만물에 대한 무한하지만 불확실한 권리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과 교환하는 것이다. 그러니만치 개개인은 사회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자연 상태에서같이 자유롭다고 루소가 강변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은 '사회적 삶'을 살면서도 더 이상 타인의 지배를 당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즉 개개인을 모든 종속관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로 사회 계약의 목적인 것이다.
>
> [루소, 『사회 계약론』 해제,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마지막으로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본다. 이때 자연적 자유란, (1) 지상의 우월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서 타인의 의지나 입법권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만을 자신의 준칙으로 삼는 것 (2)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말한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태어나며, 또한 이성의 주체이다.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재산권의 보존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연권의 보유자이며, 이성의 주체로서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인 '자연법의 집행자'라는 것이 로크의 관점이다.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 그 소유물을 자율적으로 처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율과 자결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다. 이러한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상태로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누리는 완전한 자유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자연법이다. 즉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곧 "오로지 자기 자연법만을 자신의 준칙으로 삼는 자연적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이다.
>
>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② 루소는 국가가 형성되는 기반인 사회 계약의 주체는 모든 성원들이라고 본다. 즉 계약 당사자인 국민들 모두가 주권의 담당자인 주권자라는 것이다. 루소는 그러한 주권자만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루소에게서 인민[국민]이 주권자이고 이 주권자의 고유[양도불가의] 권리가 입법권인데, 로크에게선 입법권이 주권의 배타적 행사인 점은 루소와 같으나 이 입법권이 대의원들에 의해 행사된다.
>
> [루소, 『사회 계약론』 해제,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 루소는 과연 어떻게 주권자를 계약 당사자로 간주해 놓고서는 다시 이를 계약이행 여부의 유일한 심판관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말인가? 이 난제에 대한 해답은 다른 모든 종류의 계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회 계약의 특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루소, 『사회 계약론』 해제,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 주권자는 입법권 외에 다른 힘이 없으므로 오직 법을 통해서만 행동한다. 그리고 법은 일반 의지의 공인된 증서일 뿐이므로 주권자는 오직 인민이 모일 때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루소, 『사회 계약론』]

루소의 주권은 입법권과 거의 동일시되며, 주권이 양도될 수 없는 것처럼 입법권 또한 양도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주권자만이 입법권을 가질 수 있다. 반면, 홉스는 주권자가 입법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홉스의 주권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홉스는 계약 당사자가 입법권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

> 백성들은 상호간에 계약을 맺었을 뿐이지, 주권자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주권자는 아무와도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주권자만이 모든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그 '자연권'을 갖는다.
>
> [홉스, 『리바이어던』 역자 주석(나남)]

>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홉스는 … 협약 당사자가 아닌 주권자는 다수의 개개인이 그를 위해 그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상호 협약한 결과 그의 권력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권리의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그가 어떠한 약속도 계약도 맺은 일이 없은 모든 시민의 심판이며 군주인 것이다.
>
> [루소, 『사회 계약론』 해제 中 홉스 서술,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 주권자를 전적으로 의로운(all just)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면서도 자신은 법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
> [홉스, 『리바이어던』 해제,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전쟁선포권, 조세징수권, 국토방위를 위한 국민동원권 등도 모두 주권자에게 속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들은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입법권 또한 같은 이유로 주권자에게 속한다. 인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의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칼의 위력, 즉 처벌권과 입법권은 같은 사람에게 속해야 한다. 국가의 시민법은 결국 주권자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 즉 그것은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역자 주석(나남)]

③ 루소는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루소에 대한 비판으로 성립할 수 없다. 루소는 일반 의지가 국가에서 법의 형태로 실현된 것이므로, 국가의 법을 확인함으로써 일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법은 일반 의지가 실현된 것이므로, 법에 복종하는 것은 곧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된다. 개인은 이러한 법에 복종함으로써 참된 사회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루소가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유다. 그러므로 그의 주목적은 각인이 모두와 결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만 복종하여 이전과 같이 자유로운 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루소, 『사회 계약론』 해제,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사회 계약은 구성원 모두에게 그들이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개별의지를 그들이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일반 의지에 종속시켜야 할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무는 자유를 파괴하거나 제약하기는 커녕, 사실 자유의 조건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계약론』 제1편 8장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법에 복종하는 것이 자유인 까닭이다." [루소, 『사회 계약론』 해제,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루소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일반 의지에의 복종에 대한 강요'는 결국 각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도록 강요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셈이다. 일반 의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예속이 아니라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④ 로크는 사회 계약의 목적이 재산의 보호에 있다고 보므로, 로크에 대한 비판으로 성립할 수 없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로크, 2023학년도 6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간에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로크, 2024학년도 9평]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로크, 2022학년도 6평]

위와 같이 로크는 국가의 기원이 '개인들이 생명, 자유, 자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고 본다. 즉, 로크에 따르면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크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때 '재산'은 생명, 자유, 자산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재산(property)의 보존이다.

⑤ 홉스는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홉스가 이를 간과한다고 볼 수 없다. 정의와 불의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에 앞서 어떤 강제력이 존재해야 한다. 정의와 부정의는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에 관한 성질이지, 자연 상태의 인간과 관련한 성질이 아니다.

'각자의 것', 즉 소유권이 없는 곳에는 불의가 없으며, 어떤 강제력, 즉 코먼웰스가 없는 곳에는 소유권이 없다. 왜냐하면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코먼웰스가 없는 곳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데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은 그 계약의 이행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며, 또한 그때 비로소 소유권도 발생한다. [홉스, 『리바이어던』]

'제3의 자연법'은 "신의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회는 사회로서 존속할 수 없다. 홉스에 따르면, 이 원칙이야 말로 정의의 원천이다. "신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어떠한 권리도 양도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불의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불의, 혹은 권리침해란 자신이 이미 포기한 권리를 행사하는 '신의계약의 불이행'이다. 요컨대, 의무는 계약에서 나오고 이 의무의 이행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기로 약속하는 신의계약은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한 신뢰를 바랄 수가 없으며, "칼 없는 신의계약은 빈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정의와 불의의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계약을 이행케 하는 강제적 권력, 즉 '주권'이 존재해야 한다. 주권이 존재함으로써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의 유혹보다는 처벌의 공포가 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포의 정념'이외에 다른 도덕적 힘에 의존하여 사람들의 신뢰 있는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다. 정의는 자기이익에 대한 타산적인 행동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어야 한다. [홉스, 『리바이어던』, 역자 해제]

홉스(○) :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함은 정의 발생의 원천이다. [홉스, 2024학년도 9평 윤사]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5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4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이성의 지배만 받을 뿐이며,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홉스

을 :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떠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함이며, 법률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회에서 확립된 것이다. 로크

① 갑 :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함은 정의 발생의 원천이다.
홉스 : 만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개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전쟁 상태의 원인이 됨 →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정의 발생의 원천이 된다.

② 갑 : 주권자는 ~~시민들과 맺은 사회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홉스 : 주권자는 사회 계약의 주체가 아니다. (자연인들 사이의 상호 계약)

③ 을 : 시민은 자연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린다.
로크 : 정치 사회의 형성 이후에도 자연법은 시민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준다.

④ 을 : 입법부는 신탁(信託)된 권력이 ~~아니므로~~ 교체가 가능하다.
로크 : 입법부는 단지 신탁된 권력이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하다.

⑤ ~~갑과 을~~ : 개인의 모든 권리는 사회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부여된다.
홉스와 로크 모두 사회 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누린다고 보았음

정답 ①

선지 설명

① 홉스는 자기 보존을 위해 '만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홉스에 따르면 이를 양도하는 것은 정의 발생의 원천이다.

> 인간은 평화와, 그리고 자기 방어가 보장되는 한, 또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할 경우, 만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유하는 한, 모든 인간은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 [홉스, 『리바이어던』]

홉스는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보존의 자연권, 즉 만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종식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즉, 홉스의 제2자연법은 자연권, 즉 무제한적인 자연적 자유의 포기를 요구하는 이성의 명령이다. 자연 상태의 인간의 무제한적 자유의 행사가 그들 상호 간 전쟁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권의 포기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 상태의 인간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자연권의 포기	무제한적 자연적 자유(자연권)의 전면적 포기를 요구하는 이성의 명령
	자연권의 전면적 포기는 자연 상태의 인간들 상호 간의 양도여야 한다. 즉, 상호 양도란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양도하라는 것이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자연권 양도의 근본 목적은 자기 보존이므로, 양도할 경우 자기 보존을 위태롭게 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그런데,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데' 있기 때문에, 권리의 양도는 반드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연권의 전면적 포기는 자연 상태의 인간들 상호 간의 양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인간이 본래부터 가진 자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경우, 인류의 평화를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1 및 제2의 자연법은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것을 명하는데, 이로부터 제3의 자연법이 생겨난다. 그것은 '신의 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의 의무가 없다면 신의계약은 아무 쓸모없는 공약에 불과하다. 만인에게 만물에 대한 권리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게 된다.
> [홉스, 『리바이어던』]

홉스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정의 발생의 원천이 된다.

> '제3의 자연법'은 "신의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회는 사회로서 존속할 수 없다. 홉스에 따르면 이 원칙이야말로 정의의 원천이다. "신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어떠한 권리도 양도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불의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불의, 혹은 권리침해란, 자신이 이미 포기한 권리를 행사하는 '신의계약의 불이행'이다. 요컨대, 의무는 계약에서 나오고 이 의무의 이행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다.
> [홉스, 『리바이어던』, 역자 해제]

②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즉, 홉스가 상정하는 주권자는 시민들과 아무런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계약 자체에 관한 홉스의 견해를 살펴보자. 첫째, 잠재적 국민 그들만이 계약 당사자이지 주권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각 잠재적 국민은 자기 스스로를 통치하는 권리를 주권자를 위해 희생한다. … 둘째, 계약 당자들은 계약에 의해서 상호 간에 의무를 발생시킨다. … 홉스의 사회계약에선 계약 당사자들은 그들 서로간의 의무가 아니고 주권자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킨다. 정확히 말해서 주권자의 모든 명령에 복종한다는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주권자는 국민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지니고 있지 않다. 다만 주권자는 자연법에 복종해야 할 의무만이 있는 것이다.
> [홉스, 『리바이어던』 해제,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이처럼 홉스에 따르면 사회 계약의 당사자는 잠재적 국민들이다. 정리하자면, 홉스의 사회 계약은 자연 상태의 인간들 사이의 상호 계약이지, 시민과 주권자 사이에서 맺은 사회 계약이 아니다.

홉스(○) : 사회 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홉스, 2022학년도 수능 윤사]

홉스(×) : 국가는 주권자와 시민들 간의 계약 체결로 인해 설립된다.
[홉스, 2023학년도 수능 윤사]

③ 로크의 자연법은 자연 상태의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하기도 하지만, 정치사회가 형성된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준다. 즉, 시민은 자연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곧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정법을 제정하고 증가시켜 온 사람들 간에도 소유권의 시작에 관한 이러한 원초적 자연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로크, 『통치론』]

한편 로크에게 자연법은 단순히 규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은 개인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 도덕적 계율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많은 권리를 부여해 주며, 더 나아가 시민 정부에 그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정치권력의 권위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삼는다.

『정부론』 전체를 통해 자연법이란 … 그것은 "이성적인 피조물 누구에게나 명료하고도 인식 가능한 것"이며, 자연 상태가 스스로를 지배하는 법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야만 한다. 게다가 자연법은 자연 상태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에서도 그 효력이 결코 소멸하지 않고 '영원한 규율'로 남아 있는 '신의 의지의 선언'이다.
[송규범, 『존 로크의 정치사상』]

④ 로크에 따르면 입법부는 신탁된 권력이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하다. 로크는 신탁의 목적을 '자연권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존'이라고 본다. 따라서 신탁을 통해 수립된 정부는 오직 신탁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에만 정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신탁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시민은 정부를 교체할 권리를 지니게 된다.

⑤ 홉스와 로크 모두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누린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회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개인의 모든 권리가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

16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4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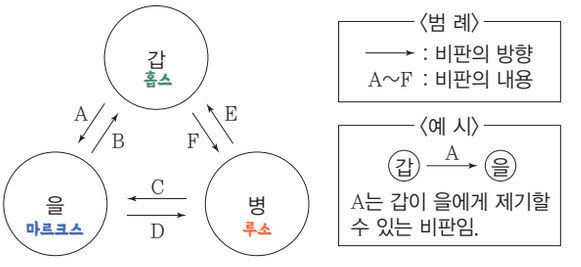
(가)

갑 : 국가는 다수의 사람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인격이다. 자연 상태에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 각자의 각자에 대한 전쟁 상태에 빠져든다. 홉스

을 : 국가는 계급과 함께 출현한 계급 사회의 산물로 지배 계급이 그들의 공동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이 국가를 타도해야 한다. 마르크스

병 : 국가는 개인의 인격이 모두 결합된 공적 인격이다. 개인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입법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루소

(나)



① A : 국가는 그 사회의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함을 간과한다. → 마르크스의 입장
마르크스 : 국가는 특정한 지배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계급 지배의 도구가 된다.

② B와 D : 국가는 계약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성립된 것임을 간과한다. → 홉스와 루소의 공통 입장
홉스 : 국가는 모든 사람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여 성립된 것
루소 : 사회 계약은 구성원들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합하여 전체의 공통된 힘으로 만들어 사회체에 정당한 권력과 권위를 부여하는 것

③ C : 사유 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함을 간과한다. → 마르크스와 루소의 공통 입장

④ E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간과한다.
홉스 :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전쟁 상태)
루소 : 자연 상태(원시 상태)는 평화 상태

⑤ F : 국가의 주권은 사회 계약에 참여한 주체에게 귀속됨을 간과한다. → 루소의입장
홉스 : 주권자는 사회 계약의 주체가 아니지만, 주권은 주권자에게 귀속됨
루소 : 주권은 인민에게서 나온 것이고, 인민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함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은 사회 계약론 사상가 홉스의 입장이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는 개인들의 분쟁을 해결해 줄 공통 권력이 부재한다. 따라서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개인들은 전쟁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홉스의 생각이다.

말하자면 국가는 다수 인간이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해 창조한 일종의 '법인격'이다. 이 법인격을 만든 인간들은 이 '인공 인간'의 의지를 자신들의 의지로 간주해야 한다. 이것은 곧 모든 백성은 주권자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행동으로, 주권자가 제정한 모든 법률을 자기 자신이 만든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홉스, 『리바이어던』 역자 해제]

을은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들이 노예의 생활 수준조차 보장받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서 프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롤레타리아 혁명을 제시한다. 즉,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모든 악의 근원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에게는 사적 소유의 폐지만이 모든 악을 근절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존재로 전락한다. [마르크스, 2019학년도 6평 윤사]

따라서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유로운 개인들이 결합하여 일하는 연합체로 대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와의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서 결합하여 혁명에 의해 지배 계급이 되고,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와 함께 계급 대립 및 계급 자체의 존재 조건을 폐지한다. [마르크스, 2018학년도 6평 윤사]

이때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 지배 계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급을 철폐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그 자신이 착취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급도 가지지 않는 계급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패를 비판하면서 공산 사회를 이상 사회로 주장한다. 공산 사회는 생산수단이 공유되어 계급이 소멸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그 결과로 구성원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평등한 사회이다.

병은 사회 계약론 사상가 루소의 입장이다. 루소에 따르면 국가 안에서 개인들은 입법권을 가진 주권자이다. 또한 개인들은 사회 계약을 통해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 루소(○) : 주권을 가진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 [루소, 2021학년도 9평 윤사]

> 다시 말하면 인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국가가 성립되며, 따라서 국민이 곧 주권자이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은 일반 의지의 제약을 받는데, 그것은 폭압적인 제약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적 자유'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사회적 자유'이며 '도덕적 자유'이다. [김행선, 『루소의 생애와 사상』]

선지 설명

① 마르크스에게 국가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유 재산이 생겨나고 계급이 분화하기 시작하면서 지배 계급의 수단으로 국가가 등장했다. 즉, 마르크스는 국가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 국가는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공동체적 조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는 계급적으로 분열된 사회 관계를 토대로 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국가는 환상적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조직이나 정치 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나 투쟁도 실제로는 계급들 사이에 이해 관계의 갈등과 대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그래서 국가는 특정한 지배 계급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계급 지배의 도구가 된다. [마르크스, 『독일 이데올로기』 해제,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② 홉스와 루소 모두 국가는 계약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비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 루소, 홉스(○) : 국가는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다. [2023학년도 6평 윤사]

홉스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사람의 의지 즉, 계약 주체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각자의 생명을 보존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 모두의 인격을 지니는 한 사람 혹은 합의체를 임명하여, 그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든 혹은 [백성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든, 각자가 그 모든 행위의 본인이 되고, 또한 본인임을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종속시키고, 개개인의 다양한 판단들을 그의 단 하나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루소 또한 사회 계약을 구성원들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합하여 전체의 공통된 힘으로 만듦으로써, 이렇게 결합된 사회체에 정당한 권력과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 자연 상태 말기 또는 사회상태 초기의 전쟁 상태 또는 혼란 상태에 만연되고 구조화된 예속과 불평등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지니고 태어난 자유와 평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루소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회 계약이다. 이는 한마디로 구성원들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③ '사유 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에 루소와 마르크스 모두 동의한다.
루소는 사유 재산제로 인하여 부와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최초의 평등했던 개인 간에 균열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는 '공유물'의 개념이 '사적 소유물'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는 시점이다.
즉, 루소에 따르면 사유 재산을 많이 가진 자와 많이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최초의 자연 상태에서 평등했던 인간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 루소는 사유 재산의 발생과 함께 인간은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자유가 속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엔 윤사 교과서]

수능 & 평가원 기출 문제

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인간 정신의 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 상태는 "자연과 완전히 동화된 원시상태 – 자연을 대상화하여 파악하고 다른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단계 – 집이 발명되어 가족생활이 시작되고 가족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단계 – 농업과 야금술의 발달로 인해 사유재산이 생기고 불평등이 야기되는 단계 – 화폐의 발명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는 전쟁 상태"의 다섯 단계를 거쳐 사회상태로 이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자연 상태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3단계까지의 초기 상태로부터 불평등과 불화가 만연하는 후기 상태로 변화하였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모든 악의 근원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간주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유로운 개인들이 결합하여 일하는 결합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사유 재산의 폐지에서 찾고 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소외로 인해서 노동 생산물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였는데, 사적 소유가 폐지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노동 소외가 극복된다. 즉 사유 재산을 기반으로 하던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고 인간 해방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④ 루소는 홉스와 달리 자연 상태(원시 상태)에서 인간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평화 상태이지, 홉스가 말하는 전쟁 상태 그 자체가 아니다. 루소의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상태이며, 또한 사회가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대인관계 및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의 구별도 성립되어 있지 않다.

루소 → 홉스 비판(○) :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는 점에서 사회 상태와 구분됨을 간과한다. [2022학년도 6평 윤사]

자연 상태는 평화 상태에서 점차 불평등한 예속 상태로 이행한다.

[루소, 2020학년도 수능 윤사]

루소는 이러한 평화로운 자연 상태가 사유 재산제의 성립으로 인해 불평등과 타락의 상태로 변모된다고 본다. 즉, 최초의 자연 상태는 평화로운 자연 상태였으나, 사유 재산의 확립으로 인해 개인들 사이의 평등이 깨지고 무질서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과 더불어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루소, 2019학년도 9평 윤사]

홉스는 루소와 달리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라고 본다.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다.

[홉스, 2020학년도 수능 윤사]

자연 상태의 인간은 고립적 · 적대적이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 [홉스, 2016학년도 6평 윤사]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 상대를 먼저 제압하고자 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 상대를 먼저 제압하고자 합니다.

[홉스, 2021학년도 6평 윤사]

⑤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는 사회 계약의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은 사회 계약에 참여한 주체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홉스(○) : 사회 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홉스, 2022학년도 수능 윤사]

홉스(×) :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

[홉스, 2023학년도 수능]

반면 루소는 국가의 주권이 사회 계약의 주체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주권은 인민에게서 나온 것이며, 인민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 루소의 논지이다.

일정한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에 따르기로 하는 사회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정치체, 곧 "공적 인격"이 바로 국가이다. 이렇게 형성되는 국가는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 모든 인민을 동원하고 배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권이다. 그런데 국가가 형성되는 기반인 사회 계약의 주체는 모든 성원들이므로, 인민들 모두가 주권의 담당자, 곧 주권자이다.

[조긍호 外, 『사회 계약론 연구』]

루소 → 홉스 비판(○) : 시민이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보유해야 함을 간과한다. [2022학년도 9평 윤사]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5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갑 :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목적은 자기 보존과 만족된 삶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 홉스

을 : 최고 권력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정부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었기에 이러한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로크

입법권

보 기

자연권의 무제한적 행사

ㄱ. 갑 :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
ㄴ. 갑 :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
ㄷ. 을 :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회 계약 이후~~ 발생한다.
ㄹ. 갑과 을 :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자연권 중 사유재산권

홉스 :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권리 등
로크 : 자신의 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권리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먼저,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라고 본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두가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 보존이 불확실한 상황이 생긴다. 따라서,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즉, 국가 안에서 확실하게 자기 보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만인이 누리던 자연권인 '만물에 대한 권리'는 자기 보존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굴복시키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이는 개인들 간 전쟁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곤 한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전쟁 상태의 공포에서 벗어나 영속적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결국, 홉스의 사회 계약은 인간들 간 상호 평화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 인간이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과 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을 위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있다. [홉스, 2022학년도 수능]

로크 입장에서 국가 최고의 권력은 입법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최고의 권력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가령 입법권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크는 공적 권력의 행사가 '재산이 보존', '평화의 보존' 등과 같은 공공선을 위해서 행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이처럼 로크가 정치권력의 행사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인민 저항권 논변을 정당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신법과 자연법이 모든 국가의 입법권에 부여한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이며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 (2) 입법권은 자의적인 명령을 통해서라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입법권은 어떤 사람에게서든 그의 재산 일부를 그 자신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4) 입법부는 법을 제정할 권력, 즉 입법권을 다른 사람들의 수중에 양도할 수 없다.

> 최고 권력인 국가의 입법권을 장악한 사람은 널리 알려지고 항구적으로 확립된 법률에 근거해 통치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안에서는 법률 집행을 위해서만 힘을 행사해야 하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공동 사회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의 평화와 안정, 공공의 복지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로크, 『통치론』]

선지 설명

ㄱ.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들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무력 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홉스에 따르면 인간의 자기 생명 보존은 가장 주요한 근본 욕구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러한 자기 보존의 자연적이고 필연적 욕구에 따라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 상태의 인간들 모두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그런데 모두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들 간 분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의 자원은 한정적이므로 같은 것을 놓고 두 사람 모두가 서로 가지려 한다면, 그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 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보존이라고 보았다. 홉스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는 '만물에 대한 생득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래엔 윤사 교과서]

ㄴ. 홉스는 사회 계약을 '만인이 만인에 대한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되는 것'이라고 본다. 즉, 국가는 다수 사람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다. 홉스는 이러한 인격을 지닌 자를 주권자라고 부르며, 주권적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개인들은 자신이 지닌 모든 힘과 권리를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하나의 인격 안에 결합하여, 그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것을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게 된다.

ㄷ. 로크는 사회 계약 이전에도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본다. 로크는 자연의 공유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노동'을 주장한다. 로크는 모든 성숙한 사람이 자신의 인신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소유권의 주된 기초가 되는 것이다. 로크는 '내 몸이 내 것이니 내 손과 발을 움직여 노동을 투여한 물건 역시 내 것'이라는 논리로, 자연 상태에서의 배타적 소유권을 정당화한다.

로크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자연권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재산에 대해 침해받지 않는 자연권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미래엔 윤사 교과서]

로크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자연권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재산에 대해 침해받지 않는 자연권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미래엔 윤사 교과서]

ㄹ. 홉스와 로크 둘 다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다고 본다. 홉스에 따르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권리,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 등은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속한다. 이처럼 생명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에 맞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자연권은 누구에게도, 또 어떤 계약에 의해서도 양도할 수 없다. 다음으로, 로크 또한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한다. 로크에 따르면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1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25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갑 : 가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고, 마을은 가정들로부터 생겨난 공동체이며, 국가는 마을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국가는 완전한 자족이라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생겨났지만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을 :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들을 사회에 양도하는 이유는 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다. 입법자들이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노예 상태로 만들고자 할 경우 시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로크 → 정부가 신탁 위반시 저항권 행사 가능

보 기 ←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가 각자의 사건에 대해 판단할 주체가 됨

ㄱ. 갑 : 인간 본성은 국가보다 큰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을 :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사건에 대해 판단할 주체는 없다.
ㄷ. 을 : 법을 제정하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 → 이권분립 주장
ㄹ. 갑과 을 : 국가의 목적은 시민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원이 다양한 덕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로크이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이루는 집단이 가정이다. 가정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커지고 또 여러 마을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형성된 국가가 최고의 결합 형태라고 본다. 가정은 자신의 기능을 자족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족성의 결여가 가정을 보다 광범위한 결사로 통합시키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마을은 물질적 생활 기반을 확충하기는 하지만,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생활의 측면에서 완전한 자족성을 지닐 순 없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국가는 완전한 자족이라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완전한 자족성은 국가가 가정이나 마을보다 우월하다는 근거가 된다. 이와 더불어 최고의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국가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최고의 공동체이며 최고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마을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사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2017학년도 6평]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다음으로, 로크는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력, 가령 자연법 집행권을 사회에 양도하는 이유를 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들은 모든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권위를 가진 입법부를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입법부는 시민의 재산을 보존해 줄 의무가 있다. 입법부는 시민의 재산을 그들의 동의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약 입법자들이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그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고자 할 경우 시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로크 (X) : 시민은 계약의 목적을 위반한 입법부에 저항할 수 없다.
[2019학년도 수능]

선지 설명

ㄱ.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공동체는 가정을 시작으로 국가까지 점차 확대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국가는 자연적 공동체의 최종 단계로 간주되고, 국가보다 확장된 공동체는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이전 공동체의 최종 목표라고 표현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게 되어 있는 동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 속에서 인간은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ㄴ.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제각기 자연법에 의거해서 그 사건이 요구하는 바를 판단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로크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사건에 대해 판단할 주체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자연 상태의 폐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므로 자연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들은 사회 계약을 통해 정치 사회에 들어감으로써 이러한 권력, 즉 자연법의 위반 행위에 대해 자신의 사적 판단에 따라 처벌할 권력을 포기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을 심판하고, 그 위반 행위가 마땅히 치러야 한다고 그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로크, 『통치론』]

ㄷ. 로크는 법을 제정하는 권력(입법권)과 집행하는 권력(집행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권력분립은 입법권과 집행권 각각의 성격이나 기능상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법률은 즉각적으로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입법부는 항상 업무가 있지 않은 반면에 법률은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로크는 바로 이런 이유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자연스럽게 분리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로크에 따르면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 아래에서는 개인의 권리 보장이 어려워진다.

로크는 입법권을 최고의 권력으로 보고, 권력을 독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과 법을 집행하는 집행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에게는 권력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까지도 가지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천재 윤사 교과서]

ㄹ.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훌륭한 삶을 위한, 나아가 행복한 삶에 필수적이며 결정적인 요소인 덕의 획득과 같은 도덕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가정이나 마을과 같은 이전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이다. 좋은 삶을 위한 공동체는 국가이고, 최고의 공동체로서 국가가 추구하는 좋음은 최고선이다. 그러한 좋은 삶은 덕을 추구함으로써 성취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좋은 삶, 국가와 유덕한 삶, 국가와 행복 간의 필연적 관련성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O) : 최선의 삶을 구현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정치적 의무의 근거이다. [2020학년도 6평]

국가란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공동체이다. 국가의 목적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덕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씨마스 윤사 교과서]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구성원이 다양한 덕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 구성원이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덕성을 가르쳐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 씨마스 윤사 교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덕 있는 사람이 될 때 이상 국가가 실현된다고 보았어요. 개인으로서의 유덕한 삶과 유덕한 공동체는 긴밀한 연관을 갖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는 국민을 유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교학사 윤사 교과서]

이처럼 국가의 목적을 시민들의 도덕적 삶이나 최선의 삶으로 보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또한, 이는 사회 계약론자들과 주된 차이를 이루는 내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공동체적 삶과 도덕적 삶이 인간 본성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합치된다고 보지만 사회 계약론자들은 국가 공동체적 삶과 도덕적 삶의 관련성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정한다. 또한, 사회 계약론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은 국가가 개인들의 권리 보호라는 상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로크는 국가를 개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넘어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씨마스 윤사 교과서]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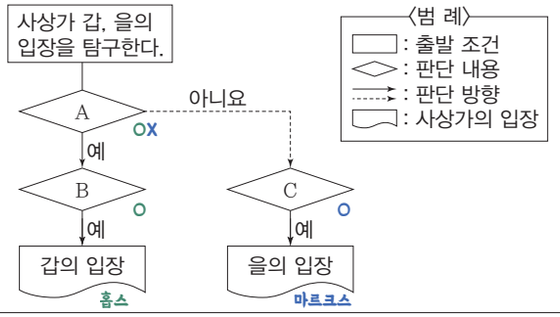
[2025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가)

갑 :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닌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여 세운 인격이다.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홉스

을 : 국가는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공동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을 통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마르크스

(나)



보 기

(홉) 甲

ㄱ. A : 국가는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현하는가? (사회 계약의 목적 / 사회 계약)

ㄴ. B : 정의의 실현은 동의에 의해 설립된 주권에 근거하는가?

ㄷ. B :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 하는가?

~~ㄹ~~. C : 국가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기반~~이 되는 정치적 ~~중립~~ 조직인가? (국가는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공동 이해를 관찰하는 정치적 형태)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은 홉스, 을은 마르크스이다. 먼저, 홉스에게 국가는 사회 계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지닌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세운 인공적 인격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 국가란 하나의 인격(person)으로서, 다수의 인간이 상호 계약에 의해 스스로가 그 인격이 하는 행위의 본인이 된다. 국가의 목적은 공동의 평화와 방어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다수의 모든 힘과 수단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인격을 담당한 자를 주권자라 칭하며,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인간을 그의 국민이라 부른다. [홉스, 『리바이어던』], [미래엔 윤사 교과서]

> 만인이 만인에 대한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 '코먼웰스'는 '다수'의 인간이, 상호 평화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만인 상호 간에' 합의하여, '다수결'에 의해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사람 또는 합의체에 '찬성투표'한 자나 '반대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행위와 판단으로 승인하기로 '신의 계약'을 체결한 때 설립된다. [홉스, 『리바이어던』]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통제하고자 만든 것이다. 즉, 국가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 · 착취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국가는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공동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이러한 국가는 역사의 필연적 발전 단계에 따라 결국 소멸하게 된다. 역사의 필연적 단계 중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있는 것이다.

>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 모든 소외가 사라지고 인간의 참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교학사 윤사 교과서]

> 국가를 지배 계급의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가 완성되면 계급 갈등이 없어지고 국가는 소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국가 소멸 후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국가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래엔 윤사 교과서]

>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역사관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가 내적 모순으로 인해 노동자 계급 착취, 생산 부문 간의 불균형, 이윤율 저하, 실업자 증가, 주기적 공황이 발생하여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씨마스 윤사 교과서]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선지 설명

ㄱ. 홉스에 따르면 국가는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현한 것이다. 이때 '노력'은 간단히 합의를 통한 사회 계약으로 보면 될 것이다.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인간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 분쟁의 원인이 되는 무제한적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게 된다.(이때, '무제한적 자연적 자유'는 기출 용례상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로 표현되었다.) 홉스에 따르면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는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가 제한되어야 개인들 간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제한되는 과정은 제2자연법에서 드러난다. 제2자연법은 "인간은 평화와, 그리고 자기 방어가 보장되는 한,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같이 그렇게 할 경우, 만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명령한다. 홉스는 모든 인간에게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전쟁 상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며, 이러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국가는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전체 구성원의 노력으로 출현한 것으로서, 국가는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 사람들이 코먼웰스를 설립한 최초의 의도는 일시적 안전이 아니라, 영속적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 인간은 평화를 획득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코먼웰스라는 인공 인간을 만들었으며, 또한 '시민법'이라는 인공적 사슬도 만들었다. [홉스, 『리바이어던』]

> 인민의 평화와 안전이야말로 주권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반면 마르크스는 국가를 계급 사회의 산물로 보며, 이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 국가는 본질적으로 특정 계급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마르크스는 역사적으로 생산자의 노동을 타인이 착취함으로써 사회에 계급이 발생하였고,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국가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 즉, 국가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지배 계급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나타난 조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씨마스 윤사 교과서]

> 국가란 지배 계급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나타난 조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 씨마스 윤사 교과서]

ㄴ. 홉스에 따르면 코먼웰스, 즉 국가의 설립 목적은 평화와 정의의 유지이다. 이러한 정의의 실현은 동의에 의해 설립된 주권에 근거하는 것이다. 홉스에게 '정의'는 주로 신의 계약의 이행으로 설명되는데, 신의 계약의 이행은 동의에 의해 설립된 주권에 근거한다. 요컨대, 의무는 계약에서 나오고 이 의무의 이행이 바로 정의라고 보는 것이다. 홉스는 정의와 부정의의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계약을 이행케 하는 주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권이 존재함으로써 계약 위반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의 유혹보다는 처벌의 공포가 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 바로 이 자연법 속에 정의의 원천이 있다. 신의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어떠한 권리도 양도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불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의 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깨트리는 행위는 '불의'가 된다. 불의란 간단히 말해서 '신의 계약의 불이행'을 말한다. 불의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정의이며, 단지 말로만 하는 약속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홉스, 2015학년도 수능]

ㄷ. 홉스에 따르면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즉, 시민은 통치자의 모든 행위와 판단의 장본인으로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르면, 시민은 통치권에 대해 불평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시민은 통치자의 모든 행위와 판단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통치권으로부터 손해를 입었다고 불평한다면, 그 자신에 대해 불평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홉스는 국가를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 보며, 사람들 각자가 주권자가 한 판단과 행위의 당사자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또한 한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심지어 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도 복종해야 한다. 입법권과 사법권, 전쟁 선포권은 모두 주권자의 것이다. 주권은 분할할 수도 없고 견제받아서도 안 된다. [홉스, 『리바이어던』], [천재 윤사 교과서]

> 주권자에 대한 백성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말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주권자의 모든 행위에 권위를 부여한다, 혹은 나 자신의 행위로 간주한다." [홉스, 『리바이어던』]

> 주권의 명령은 실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행위의 본인이기 때문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ㄹ.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을 통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즉,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안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정치적 중립 조직이 아니다. 국가는 계급 사회의 산물로서, 지배 계급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로 기능한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국가를 계급 지배의 도구로 간주하며, 국가가 특정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 국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인간의 자아실현에 기반이 되지도 않는다.

이와 더불어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에 대항하여 계급 투쟁을 통해 지배 계급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를 타도해야 한다고 본다.(계급 투쟁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지만, 지배 계급으로서

수능 & 평가원 기출 문제

낡은 생산 관계를 폭력적으로 폐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 생산 관계와 아울러 계급적 대립의 존재 조건과 모든 계급을 폐지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폐지하게 된다.) 마르크스에게 국가는 계급 대립의 산물로서, 계급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국가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계급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는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 계급의 특수한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치 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도 실제로는 계급들 사이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학사 윤사 교과서]

마르크스는 국가란 지배 계급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본래 인류는 자급자족하며 계급이 없는 원시 공산 사회에서 살았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등으로 생산력이 높아지자 사유 재산과 소유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소수의 지배 계급이 다수의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한 것이다. 결국 마르크스는 계급 착취 과정에서 국가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미래엔 윤사 교과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자본가 계급을 보호하는 일에 한정되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방임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람들이 기존의 계급 구조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국가가 각종 사회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국가 자체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국가를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엔 윤사 교과서]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Memo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과학과 윤리

빠른 정답 4단원

01 과학 기술과 윤리
❶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및 기타

01	④	02	⑤	03	②	04	①	05	⑤
06	⑤	07	①	08	②	09	⑤	10	⑤
11	③	12	④	13	④	14	③	15	①

01 과학 기술과 윤리
❷ 요나스의 책임 윤리

01	②	02	①	03	③	04	⑤	05	②
06	④	07	⑤	08	②	09	①	10	③

02 정보 사회와 윤리

01	①	02	④	03	①	04	①	05	⑤
06	②	07	④	08	③	09	③	10	①
11	①	12	③	13	③	14	③	15	③
16	②	17	①	18	④	19	④	20	①
21	①	22	②	23	④	24	③	25	②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4단원 01 과학 기술과 윤리

❶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및 기타

0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

과학 기술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과학 기술자는 ㉠.

① 과학 기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을 통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③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태도로 연구해야 한다
④ 과학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연구해야 한다
⑤ 과학 기술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답 ④

선지 설명

①, ② 제시문의 내용만으로는 과학 기술자가 과학 기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지, 과학 기술을 통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제시문은 과학 기술이 나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과 과학 지상주의를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③ 제시문은 과학 기술자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태도를 강조할 경우 과학에 대해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과학 기술자가 과학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제시문의 입장과 부합한다.

⑤ 제시문은 과학 기술이 좋은 목적 혹은 나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제시문에 따르면, 과학 기술을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02

다음 글에 나타난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9평]

현대의 기술 비판

현대의 기술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무리하게 얻으려고 한다. 과거의 풍차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며 바람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겼지만, 수력 발전소는 강물의 흐름을 발전소에 맞추어 버렸다. 즉, 수력 발전소가 세워진 그 강은 발전소의 요구에 맞추어 수압 공급자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하이데거

① 현대의 기술이 인류에게 무한한 행복을 제공한다고 본다. (과학 기술 지상주의의 입장)
② 현대의 기술이 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③ 현대의 기술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현대의 기술은 그 자체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본다.
⑤ 현대의 기술이 자연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변질시킨다고 본다.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야스퍼스))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하이데거는 현대의 기술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취한다. 하이데거는 현대의 기술이 인간조차 에너지의 공급자로 바꾸어 인간의 본질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계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기술이 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하이데거는 기계 문명이 아니라 '자연'과 '고향'과 같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에서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현대의 과학 기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③ 하이데거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현대의 기술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하이데거는 현대의 기술을 윤리적으로 숙고하지 않는다면, '기술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인간에게 위험을 가져온다고 비판하였다.

④ 하이데거는 현대의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는 위험에 처한다고 본다. 하이데거는 현대의 기술의 윤리성을 가치 개입적이고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본다.

>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은 어디서나 기술에 붙들려 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즉, 하이데거는 기술과 인간을 분리시키지 않고 연관되어 있다고 바라본 것이다. 나아가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제작한 도구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인간의 욕구까지 기술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천재 생윤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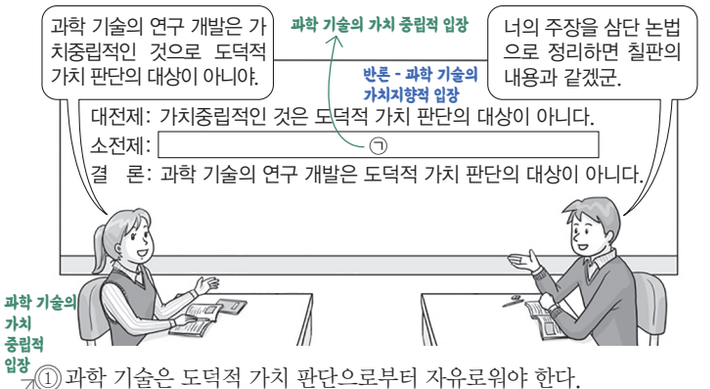
⑤ 제시문 첫 번째 줄에서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이 에너지를 자연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무리하게 얻으려고 한다."며 비판한다. 가령, 제시문에 제시된 사례처럼 현대의 기술은 강이라는 자연을 '수압 공급자'로 변질시킨다. 이를 하이데거는 "현대의 기술이 자연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변질시킨다."고 비판한다.

03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적 입장에 대한 반론(비판)내용 찾기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① 과학 기술은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② 과학 기술의 연구 목표를 설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
③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가치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④ 과학적 사실 판단은 도덕적 가치 판단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⑤ 과학 기술의 연구 대상과 도덕의 탐구 대상은 서로 구별된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이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 대전제와 결론을 활용하여 소전제를 찾고 2) 그 소전제의 반론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삼단논법 유형의 문항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식을 알면 (대전제와 결론은 물론) 소전제를 알아내는 것은 간단하다.

1) 먼저, 소전제를 찾아보자. (아래 표가 바로 그 공식이다!)

	주어	술어
대전제	A	B
소전제	C′	A′
결론	C	B′

Step 1. 대전제와 결론의 주어 부분과 술어 부분을 나눈다.

공식 : 대전제의 주어(A)는 소전제의 술어(A′)와 같으며, 결론의 주어(C)는 소전제의 주어(C′)와 같다. 그리고, 대전제의 술어(B)와 결론의 술어(B′)가 같다.

	주어	술어
대전제	가치중립적인 것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소전제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결론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Step 2. 대전제의 주어를 소전제의 술어부에 넣고, 결론의 주어를 소전제의 주어부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바로 소전제가 도출된다. 즉, 소전제 ㉠은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다."이다.

2)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추론하자.

Step 1. 소전제의 서술어를 부정해보라. 그것이 바로 소전제에 대한 반론이다. 따라서, 소전제 ㉠의 반론은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이다.

선지 설명

①, ③, ④, ⑤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해당하므로 소전제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해당하므로 소전제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4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6평]

과학은 사회 ·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과학에는 사회 집단의 정치적 관계, 가치관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과학이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나 가치를 반영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과학자와 일반 대중이 함께하는 '확장된 동료 공동체'가 절실히〉 요구된다.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부정(가치 개입 인정)

보 기

ㄱ. 과학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는가?
ㄴ. 과학과 관련된 중요 결정을 내릴 때 시민 참여가 필요한가?
ㄷ. 과학은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 가치중립적이어야 하는가?
ㄹ. 과학 관련 논의에서 과학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는가?

ㄴ. 선지와 상반됨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적 입장 강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선지 설명

ㄱ, ㄴ. 제시문은 과학에 대한 가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학자와 일반 대중이 함께 하는 '확장된 동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과학의 발전이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질문에 긍정하고, 과학과 관련된 중요 결정을 내릴 때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ㄷ, ㄹ. 과학 기술에 대해 가치중립적 입장을 강조하며, 과학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제시문의 입장과 상반되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05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2015학년도 9평]

수행평가

◎ 문제 : 과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과학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인정

갑 : 과학은 사회적 적응을 전제로 한다. 과학은 연구 활동 및 그 결과의 활용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에 해악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학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된다.

을 : 과학은 과학적 진리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해악은 기술 개발자와 이용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과학 연구 활동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

과학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부정

◎ 학생 답안

과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 갑은 과학이 도덕적 가치와 연관된다고 보며, ㉡ 을은 과학 연구 결과의 활용이 도덕적 가치와 연관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 갑은 과학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지만, ㉣ 을은 과학 연구 활동은 규범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 갑, 을은 과학 연구 활동은 그 결과의 활용과 분리되어 평가될 수 없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갑은 과학이 도덕적 가치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는 갑 제시문의 "과학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된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을은 과학 연구 결과의 활용이 도덕적 가치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는 을 제시문의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해악은 기술 개발자와 이용자의 책임이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과학 연구 활동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을의 주장이 과학 연구 결과의 '활용'까지 윤리적 평가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을은 과학 연구 활동 자체는 윤리적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 연구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 갑은 과학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갑 제시문의 "과학은 연구 활동 및 그 결과의 활용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에 해악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을은 과학 연구 활동이 규범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규범적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을 제시문의 "과학 연구 활동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을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은 과학 연구 활동이 윤리적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학 연구 활동은 연구 결과의 활용과 분리되어 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06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015학년도 수능]

사회에 영향을 끼침 ①, ② ③

갑 :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과학 연구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해. 따라서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도덕규범만 준수하면 돼.

③

을 : 과학자는 진리 탐구의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도덕 규범을 지켜야 해. 아울러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과학 연구 활동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만 해. ④번

갑 :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과학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핵분열을 연구하는 것과 그것을 활용하여 원자 폭탄을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야. ⑤번

①, ②

을 : 아니야. 어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원자 폭탄의 제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어.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의 복지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해.

갑 :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만 강조
을 : 과학 기술자의 내적 · 외적 책임 강조

	갑	을
① 과학 연구의 결과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가?	○	○
② 과학 연구 활동의 자유는 인류의 복지와 무관한가?	×	×
③ 과학 연구는 참과 거짓의 탐구를 목적으로 삼는가?	○	○
④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도덕규범을 지켜야 하는가?	○	○
⑤ 과학자는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하는가?	×	○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③, ④ 갑과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갑과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갑이 부정하고,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갑은 핵분열과 원자폭탄의 예시를 들어 연구 결과의 활용에는 과학자가 관여하면 안된다고 보았고, 을은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가 인류의 복지에 미칠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07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물음에 대해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6평]

(가) 과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이성의 도구적 측면만을 중시하고 의사소통적 측면을 간과하였다. 의사소통적 이성은 사회 집단이 자신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규범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요구된다. 즉 그것은 '담론'의 상황에서 작동되는데, 이른바 '공론장'에서 논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버마스 → 의사 소통의 합리성

(나)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

① 시민들의 이성적 토론을 통해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 전문가~~ 모든 시민 집단의 토론 결과만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이익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시민 사회~~보다 관련 국가 기관이 주도~~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론장 : 시민 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의사소통의 망
⑤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합의 과정, 자유로운 소통 강조

정답 ①

선지 설명

① 하버마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그에 따르면 과학 기술에 대한 큰 영향력 있는 논의는 반드시 공론장을 통해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② 하버마스는 과학 기술 전문가만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도 강조하며, 토론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하버마스는 이익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④ 하버마스는 시민 사회가 정책 수립을 주도해야 함을 강조한다.
⑤ 하버마스는 토론의 효율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공정성과 합의의 과정을 중시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8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가) 과학 기술은 객관적 지식, 즉 객관적인 방법으로 발견한 자연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적 입장

(나)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적 입장에 대한 반론

전제 1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

+

전제 2	㉠

⬇

결론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적 입장

①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② 모든 지식은 활용의 맥락에서 주관적 도덕 판단을 요구한다.
③ 과학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는 별개의 독립된 영역에 속 한다.
④ 모든 지식은 객관적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인식론적 대상이다.
⑤ 객관적 지식의 활용은 그 목적 설정을 위해 가치판단을배제해야 한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이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 전제 1과 결론을 활용하여 전제 2를 찾고 2) 그 전제 2의 반론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삼단논법 유형의 문항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식을 알면 (대전제와 결론은 물론) 소전제를 알아내는 것은 간단하다. 다만 해당 문항은 전제 1이 소전제이고 전제 2가 대전제이므로 결국 대전제를 찾아야 한다. 참고로 삼단논법 유형은 일반적으로 소전제의 반론을 찾는 문항으로 출제되는데 해당 문항은 대전제의 반론을 찾는 문항으로서 보기 드문 유형이다. 따라서 대전제를 찾는 문항도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1) 먼저, 대전제(전제 2)를 찾아보자. (아래 표가 바로 그 공식이다!)

	주어	술어
대전제(전제 2)	A	B
소전제(전제 1)	C′	A′
결론	C	B′

Step 1. 소전제(전제 1)와 결론의 주어 부분과 술어 부분을 나눈다.

공식 : 대전제(전제 2)의 주어(A)는 소전제(전제 1)의 술어(A′)와 같으며, 결론의 주어(C)는 소전제(전제 1)의 주어(C′)와 같다. 그리고, 대전제(전제 2)의 술어(B)와 결론의 술어(B′)가 같다.

	주어	술어
대전제(전제 2)	객관적 지식과 그 활용 과정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소전제(전제 1)	과학 기술은	객관적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
결론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Step 2. 소전제(전제 1)의 술어부를 대전제(전제 2)의 주어에 넣고, 결론의 술어부를 대전제(전제 2)의 술어부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바로 대전제(전제 2)가 도출된다. 즉, 대전제(전제 2) ㉠은 "객관적 지식과 그 활용 과정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이다.

2) 대전제(전제 2)에 대한 반론을 추론하자.

Step 1. 대전제(전제 2)의 서술어를 부정해보라. 그것이 바로 대전제(전제 2)에 대한 반론이다. 따라서, 대전제(전제 2) ㉠의 반론은 "객관적 지식과 그 활용 과정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이다.

선지 설명

①, ③, ④, ⑤ 과학 기술에 대해 가치중립적 입장을 지니므로 전제 2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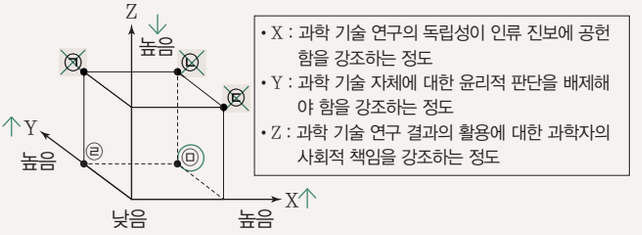
② 과학 기술에 대한 도덕 판단, 즉 가치 개입을 요구하므로 전제 2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다.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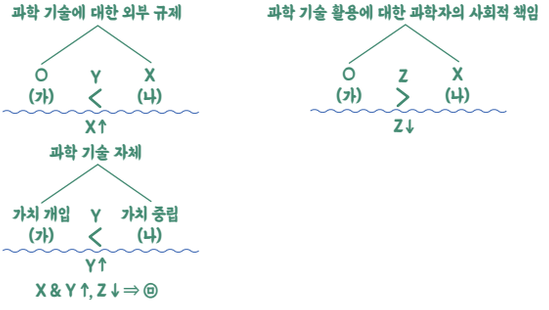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수능]

(가) 과학 기술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과학 기술 연구 및 그 결과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공적인 책임 의식과 외부 규제가 없다면, 인류는 과학 기술에 종속당하여 제어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불행한 미래에 봉착하게 된다.

(나) 과학 기술 자체에 선악의 잣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연구 성과의 활용과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과학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어서는 안 된다.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전념할 때 과학 기술은 발전 가능하며, 그 결과 인류는 지속적으로 번영하게 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⑤

선지 설명

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은 과학 기술을 가치중립적으로 바라보며, 과학자 자신의 연구와 그것에 대한 활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때 과학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은 과학 기술 연구의 독립성이 인류 진보에 공헌함을 강조하는 정도가 더 높고(X축), 과학 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배제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도 더 높으며(Y축), 과학 기술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는 더 낮다(Z축).

1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6평]

갑 : 현대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기술 시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을 :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술 시민권은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 아닙니다. 그러한 접근권만으로는 기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정책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참여만으로도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갑	을
① 기술 사회에서는 기술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
②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	○
③ 기술 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가?	○	○
④ 기술 정책은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하는가?	○	○
⑤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전문가의 참여만으로 충분히 확보되는가?	×	○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갑과 을은 모두 기술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갑과 을은 모두 기술이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함을 인정한다.
③ 갑과 을은 모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이는 핵심 쟁점이 아니다.
④ 갑과 을은 모두 기술 정책이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단, 갑은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이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된 과정이라고 보고, 을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된 과정이라고 본다.
⑤ 갑이 부정하고 을이 긍정하는 토론의 핵심 쟁점이다. 기술 시민권의 범위를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 한정해야 하는지, 시민의 직접 참여권리까지 보아야 하는지가 이 토론의 핵심 쟁점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1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9학년도 9평]

과학자는 연구와 실험의 결과가 인류의 운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과학적 발견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로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자는 입증된 방법으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할 뿐이며, 오로지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책임을 다할 뿐이다.

보 기

ㄱ. 과학자는 연구 결과의 모든 활용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가?
ㄴ. 과학자는 연구의 외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ㄷ. 과학자는 이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가?
ㄹ. 과학자는 연구 주제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현자의 돌 COMMENT

이 문항은 과학자의 외적 책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항이다. 사상가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내용을 보고 푸는 독해형 문항이므로 제시문에서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찾으면 된다. 이는 국어 독서 문항을 풀고 분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므로 짧은 국어 독서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선지 설명에서 해당 보기가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잘 살펴보면서 제시문과 대조하는 연습을 하자.

선지 설명

ㄱ. 제시문은 과학자가 연구와 실험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과학의 활용을 결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제시문은 과학자가 연구 결과의 모든 활용에 대해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것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의 "과학자는 연구와 실험의 결과가 인류의 운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과학적 발견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 아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ㄴ. 제시문은 과학의 활용을 결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 아니며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시문은 과학자가 연구의 외적 책임, 즉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에 따르면, 과학자는 연구의 외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는 제시문의 "과학적 발견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로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ㄷ. 제시문은 과학자가 입증된 방법으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즉, 제시문은 과학자가 이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과학자의 외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적 책임조차도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제시문의 "과학자는 입증된 방법으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할 뿐이며, 오로지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책임을 다할 뿐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ㄹ. 제시문은 과학자가 연구와 실험의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과학자의 몫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제시문은 과학자가 연구 주제의 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과학자는 연구와 실험의 결과가 인류의 운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과학적 발견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 아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갑 :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키게 됩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을 : 동의합니다. 또한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 결과가 미칠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여 연구 및 개발과 그 활용에 관한 사회적 책임까지 다해야 합니다.

갑 : 아닙니다. 과학자에게 그러한 책임까지 돌리면 과학의 발전이 지체됩니다. 연구 결과가 활용되어 사회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도 그것은 연구 결과를 활용한 사람들의 책임일 뿐입니다.

을 : 과학의 발전이 지체될 수 있지만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과학의 발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간적 속도가 아니라 윤리적 방향입니다.

	갑	을
①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는가?	O	O
② 과학자는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가?	×	×
③ 과학자는 과학 연구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하는가?	×	×
④ 과학자에게 내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도 부과해야 하는가?	×	O
⑤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면 과학 발전이 지체될 수 있는가?	O	O

정답 ④

선지 설명

① 갑과 을은 모두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므로 핵심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

② 갑과 을은 모두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므로 핵심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

③ 갑은 내적 책임을 강조하고, 을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모두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둘 다 부정한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

④ 갑은 내적 책임만, 을은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사회적 책임)까지도 강조하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⑤ 갑과 을은 모두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면 과학 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고 본다.

13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6평]

갑 :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데,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인공 지능을 통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을 : 동의합니다. 다만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서 스스로 판단하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 :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므로 모든 상황에서 인공 지능에게 운전을 맡겨야 합니다.

을 :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순히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자율성을 존중하여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갑	을
① 인공 지능의 사용은 인간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가?	-	-
② 자율 주행 자동차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가?	O	-
③ 자동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가?	O	O
④ 위급 상황에서 어떤 주체가 자율 주행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가?	인공 지능	인간
⑤ 인공 지능의 사용은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O	O

정답 ④

제시문 설명

토론의 핵심 쟁점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풀이 방법을 명심하자.

– 유형 풀이 방법 –

핵심 쟁점 독해도 갑과 을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각 논점을 정리하면 된다.

그중에서 갑과 을이 서로 대립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정답 선지로 출제된다.

갑과 을이 큰 사안에서는 동의하나, 세부 사안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세부 사안이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의 중요한 독해 포인트는 주로 을의 첫 번째 진술과 갑의 두 번째 진술에서 나타나는 갑과 을의 의견 대립 부분이다.

ex.) '을 : 찬성(동의)합니다. 다만,~', '갑 : 아닙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본 문항에서도 같은 부분에서 정답이 도출된다.

> 을 : 동의합니다. 다만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서 스스로 판단하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갑 :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므로 모든 상황에서 인공 지능에게 운전을 맡겨야 합니다.

'아닙니다' 전후로 을은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한다고 보며, 갑은 '모든 상황에서 인공 지능에게 운전을 맡겨야 한다.'고 본다.

선지 설명

① 해당 토론에서 인공 지능의 사용이 인간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지 논하지 않았다.
② 을은 자율 주행 자동차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지는 논하지 않았다. 갑은 사고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므로 모든 상황에서 인공지능에게 운전을 맡겨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갑에 따르면, 자율 주행 자동차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하지만 을이 이에 대해 논한 바가 없으므로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③ 갑과 을은 모두 자동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④ 위급 상황에서 갑은 자율 주행 자동차가, 을은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과 을은 모두 인공 지능의 사용은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 **갑** :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인간의 의도에 맞도록 변형함으로써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자 해석자로서 자연을 경험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다. → 베이컨
> **을** : 현대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된다. → 하이데거

① 갑 :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② 갑 : 과학의 목적은 삶의 개선이 ~~아니라~~ 진리 탐구 그 자체이다.
③ 을 : 현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④ 을 : 현대 기술은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 오히려 인간이 기술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⑤ 갑, ~~을~~ : 기술은 수단일 뿐 그 자체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야스퍼스
→ 하이데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볼 때, 인간이 기술에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진다고 비판한다.

정답 ③

선지 설명

① 베이컨은 과학 기술 지상주의자로서,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② 베이컨은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삶을 개선하는 것을 과학의 목적으로 본다. 그는 자연에 복종함으로써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연을 정복하라고 주장한다. 베이컨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고찰에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작업에서는 규칙의 역할을 한다."
③, ④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이 자연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변질시키고, 인간을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현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기술을 '가치 판단이 대상이 아닌 단순한 수단'으로 여기는 입장을 비판한다. 해당 선지는 오히려 야스퍼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Tip 베이컨의 기술 지상주의

> 우리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 우리에게는 천연의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나 분수도 있습니다. 황산이나 황, 강철, 청동, 납, 초석을 비롯한 기타 광물질이 섞인 온천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들을 주입해서 실험하기 위한 자그마한 우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을 넣으면 그릇에 담긴 것에 비해서 물의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 우리는 천국의 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
> [베이컨, 『뉴 아틀란티스』]

▶ 베이컨은 자연과학의 발전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확장하고자 했다. 그렇게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회는 더 나아질 것이고, 인간의 생활과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보았다. 베이컨은 "뉴 아틀란티스"를 통해 그러한 과학 기술 유토피아적 이상(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인간 생활의 번영과 복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실현된 사회를 그려냈다.

15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9평]

야스퍼스
갑 : 기술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결국은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 기술은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없다.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성 강조

하이데거
을 : 우리는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여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과학 기술의 가치개입 긍정

	갑	을
① 기술 그 자체는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인가?	○	×
② 기술은 그 자체로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
③ 기술은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
④ 기술 그 자체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가?	×	○
⑤ 기술의 사용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가?	○	○

정답 ①

선지 설명

① 아래 내용을 참고.

과학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	야스퍼스는 인간과 기술을 분리하여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기술은 그 자체로는 단지 선도 악도 아닌 수단이라고 본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과학 기술은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과학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이 자연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변질시키며 우리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기술은 인간이 제작한 도구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인간의 욕구까지 기술에 포함된다고 본다.

② 야스퍼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야스퍼스는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라고 본다. 즉 야스퍼스는 기술은 그 자체로 지향하는 목적이 없으며, 단지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본 것이다.

③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야스퍼스는 인간이 과학 기술을 잘못 활용할 경우, 기술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하이데거는 근대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야스퍼스는 부정, 하이데거는 긍정할 질문이다. 야스퍼스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술 그 자체는 규범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⑤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은 기술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지 가치 판단을 통해 결정한다.

4단원 01 과학 기술과 윤리

❷ 요나스의 책임 윤리

01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 사상에 대해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6평]

책임 윤리 조언 내용
(가) 프로메테우스는 과학을 통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났지만, 그는 자신의 힘이 불행을 자초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해야 한다. 요나스 - 책임 윤리 → 책임 강조

과학 기술 지상주의
(나) 과학은 관찰과 실험에 기초해 자연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을 활용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무한히 증대할 수 있다. 베이컨 - 과학 기술 지상주의

① 과학은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 (나)의 입장
② 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위험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 공포의 발견술
③ 과학은 정치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적 입장
④ 과학자는 객관적인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⑤ 과학의 진보를 위해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가)는 과학의 힘이 인간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과학의 힘을 제어해야 한다고 보는 요나스이다.

(나)는 과학 기술 지상주의의 입장이다. 과학 기술 지상주의의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므로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무한히 증대할 수 있다고 본다. 대표 학자로는 베이컨이 있다.

선지 설명

① (나)에 대한 조언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다.

② 요나스는 과학의 힘이 인간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과학의 힘을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에게 과학이 가져올 발전이 인간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위험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을 제시할 것이다. 요나스는 '공포의 발견술'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도덕 철학이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공포의 본질적 속성은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

③, ④ 요나스는 과학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과학에 가치 개입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사회 · 정치적으로 과학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⑤ 요나스는 과학의 진보를 위한 연구의 자유보다는, 과학이 인류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연구를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가령, 요나스는 핵 실험, 인간 유전자 조작 등과 같은 연구 중 일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2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6평]

> 인류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요나스는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함

① 인간과 자연은 공존을 위해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가? NO
② 책임의 대상과 범위에 미래 세대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YES
③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YES
④ 인간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가? YES
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YES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요나스는 전통적인 윤리학은 인간 중심적이고, 전통 윤리학의 시대에는 행위의 결과들이 비교적 즉각적으로 나타났기에 결과를 예견하고 결과를 계산하는 시간이 짧았다고 본다. 따라서 예견하기 쉽고, 문제도 상대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기술(과학)의 변화는 너무나 새롭고 그 대상의 결과가 예상할 수 없기에 새로운 윤리가 요구되게 되었다. 기존의 사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윤리로는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요나스는 이에 따라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조건과 종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하는 새로운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지 설명

① 요나스에 따르면, 오직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인간이 아닌 자연에게는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 인간이 미래 세대와 자연에 지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처럼 일방적이다. 또한 비호혜적이고, 비상호적인 특징을 지닌다.
* 칸트와의 비교 : 칸트는 현존하는 동료 인간에 대해 직접적인 의무를 주장하였다. 같은 정언명령의 형식을 쓰는 요나스는 현존하는 동료 인간을 넘어서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의무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② 요나스는 인류의 존속이라는 무조건적 명령(정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제시한다.
③ 요나스는 인류의 존속이 인간의 책임의 핵심이라고 본다.
④ 요나스는 이미 일어난 일(사후적, 인과적, 보상적 책임)과 함께 예견적 책임, 예방적 책임, 사전적 책임 등 미래의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⑤ 요나스는 오직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러한 능력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가 있다고 본다.

> 요나스 :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부정적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하여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다.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 조건을 위협하지 마라."다시 긍정적인 형태로 전환시키면 다음과 같다. "미래의 인간의 불가침성을 너의 의욕의 동반 대상으로서 현재의 선택에 포함하라."

Tip 요나스 책임 윤리 깊게 알아보기

"전통적인 윤리학은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교섭에 관한 것이었다. 즉, 전통적인 윤리학은 인간 중심적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윤리학에서 인간의 행위가 목적으로 삼는 행복과 불행은 행위와 아주 가까이 있었다. 즉, 행복과 불행은 행위 실천의 직접적인 영향 범위 안에 있었으므로 멀리 떨어진 계획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윤리학에서 행위 실천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작았고, 결과를 예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은 짧았다. 결과의 장기적 진행 과정은 우연이나 운명 또는 예견에 맡겼다. 따라서 전통적인 윤리학은 '여기'와 '지금'에 관련된 것이며, 인간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용무와 연관이 있으며,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에서 늘 반복되는 전형적인 상황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상당히 변화하였다. 현대의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는 너무나 새롭고, 그 대상과 결과가 너무나 새로운 것이므로 인간 사이의 관계에 한정되고 단기적인 예견에 토대를 둔 전통적인 윤리의 틀로는 이 행위들을 더는 파악할 수 없다. 전통적인 세계관의 큰 변화로서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적 간섭으로 말미암은 자연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예로 든다. 이것은 인간 행위의 본성이 사실상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으며, 우리가 지구의 전체 생명에 대하여 권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인간이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서 자연은 '윤리 이론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새로운 것'이었다. 즉, 전통적인 윤리학과 달리 새로운 윤리학은 이제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서 윤리의 토대에서 적지 않은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그것은 인간의 선(善)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존재 및 자연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책임을 심사숙고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천재 생윤 교과서]

03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17학년도 수능]

갑 : 심정 윤리는 소명을 받들어 희생하는 신앙인들처럼 내면의 신념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책임 윤리는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지도자들처럼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을 : 현대 문명이 초래한 위기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며,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자체만으로 책임을 갖는다. 이에 우리는 책임지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공백'을 극복해야 한다.

① 갑 : 정치 영역에서는 책임 윤리보다 심정 윤리를 우선해야 한다.

② 갑 : 심정 윤리에서는 행위의 선한 의도가 아닌 결과를 중시한다.
→ 행위의 선한 의도 중시

③ 을 : 인류가 존속해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할 정언 명령이다.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언명법'

④ 을 : 자연에 대한 인류의 책임은 예방이 아닌 보상을 위한 것이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보상적 책임을 넘어선 '예방적 책임'중시

⑤ 갑, 을 : 행위의 의도가 선하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 갑, 을 모두 부정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은 심정 윤리를 주장한 베버이다. 베버는 정치적 영역에서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책임 윤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정치적 영역 외에서 적용되는 심정 윤리에서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ex) 심부름을 하다가 엄마가 아끼는 화분을 깼을 때
- –심정 윤리 : 엄마를 도우려는 '의도'를 파악
- –책임 윤리 : 결과적으로 화분을 깨뜨렸으므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

을은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인류의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며, 전통적 윤리를 대신한 새로운 윤리인 책임 윤리를 주장하였다.

선지 설명

① 베버는 정치 영역에서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 윤리를 우선시한다.

② 심정 윤리에서는 행위자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중시한다.

③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언명법의 내용에 해당한다.

> 생태학적 정언명법
> -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④ 요나스는 자연에 대한 인류의 책임은 '예방적 · 미래적'성격을 지닌다고 본다. 요나스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더 나아가 미래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강조한다.

⑤ 베버와 요나스 모두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인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Tip 베버의 심정 윤리와 책임 윤리

>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대립하는 두 원칙, 즉 심정 윤리나 책임 윤리에 따라서 지향될 수 있다. [①] 심정 윤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신념을 따라 행동하는 원리이다. 다시 말해서 심정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선한 의지이다. 심정 윤리는 행위의 결과를 신에게만 돌리는 신앙인의 태도나 자본주의 타도에 몰두하는 노동조합 활동가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책임 윤리는 결과에 철저히 책임을 지려고 하는 행동 원리이다. 그리하여 책임 윤리를 따르는 사람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런데 [②] 심정 윤리와 책임 윤리는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정치에의 소명'이 부여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이 완성된다.
>
>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천재 생윤 교과서 발췌)]

▶ ① 막스 베버는 심정 윤리보다 책임 윤리를 더 중시한다.
② 두 윤리는 서로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나아가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두 윤리를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시킬 때에 정치에의 소명이 부여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18학년도 6평]

>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이므로 윤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행위는 인과적 파급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행위의 힘이 커질수록 윤리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 기술로 인해 인간이 갖게 되는 새로운 행위 능력을 규제할 새로운 윤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책임 윤리) 없이는 기술 능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압력으로 인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요나스

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윤리적 책임에서 면제시켜 준다.
② 새로운 윤리는 행위의 결과(새로운 윤리 요청 + 그에 따른 인간의 책임)가 아니라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③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문제를 기존의 윤리로 해결해야 한다. (생태학적 정언명령에 따라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여 행위할 것을 주장함)
④ 새로운 윤리는 기술에 대하여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기존의 윤리로는 문제해결 × → 윤리적 공백)
⑤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결여될 때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요나스는 제시문에서 막대한 파급 효과를 산출하는 현대 과학 기술로 인해 인간이 갖게 되는 새로운 행위 능력을 규제할 '새로운 윤리가 요청'된다고 말하고 있다.

② 요나스는 생태학적 정언명법으로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를 제시한다. 정언명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요나스는 새로운 책임 윤리를 통해서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고자 한다.

③ 요나스는 근대적인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 도구적 기술관과 맞물려서 환경 파괴와 기술 유토피아라는 신화를 낳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책임의 윤리를 제시한다.

④ 요나스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요나스는 현대 기술은 장기간에 걸쳐 인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협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기술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연과 모든 생명 그리고 인간은 모두 가치를 지닌 존재이므로 요나스는 기술을 가치개입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 요나스(×) : 과학자는 객관적인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2014학년도 6평 5번 ④]
> 요나스(×) : 새로운 윤리는 기술에 대하여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2018학년도 6평 2번 ④]

⑤ 요나스가 제시한 새로운 책임 윤리가 곧 윤리적 공백을 막기 위한 요나스의 윤리적 성찰이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과학 기술이 먼 미래에 끼치게 될 결과를 예측하여 생명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0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물음에 대해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9평]

(가)	전통 윤리학과 달리 새로운 윤리학은 미리 사유된 위험 그 자체가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전 지구적 차원의 위험, 인류 몰락의 징조 등을 통해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부른다.
(나)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책임과 관련하여 과학 기술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①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만을 고려해야 한다.
→ 책임의 범위: 현세대 → 미래세대, 자연까지 확대

✓ ② 생태계 전체를 예방적 책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연구의 위험이 확실할 때에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미래지향적 책임 강조

④ 세대 간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
→ 비호혜성의 원칙

⑤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 과학적 연구 성과를 더 중시해야 한다. 책임 > 과학적 연구성과

정답 ②

선지 설명

① 요나스는 미래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② 요나스는 생태계 전체를 예방적 책임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 요나스는 과거 지향적인 인과적 책임보다는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해 책임지는 '미래를 위한 책임 윤리'에 주안점을 둔다. … 요나스는 전통 윤리가 인간 행위의 새로운 조건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네 행위의 결과가 인간의 진정한 삶과 영원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 하라."라는 책임의 명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자연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비상 생윤 교과서]

③ 요나스의 입장에서는 연구의 위험이 확실할 때에만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예방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본다.

④ 요나스는 세대 간 호혜성이 아닌 비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즉,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미래 세대는 현세대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요나스는 이를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정의한다.

> • 인류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 •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⑤ 요나스는 과학적 연구 성과보다 사회에 대한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6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수능]

우리에게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선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지만, 악의 현존은 우리에게 인식을 강요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은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요나스

공포의 발견술

①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③ 새로운 윤리학은 최고악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④ 새로운 윤리학은 "A이면 B하라."라는 형식의 명법만을 지향한다.
⑤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도 중시해야 한다.

공포의 발견술
가언적. 요나스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차용함.
예방적 책임

정답 ④

선지 설명

① 요나스는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자연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과학 기술을 막무가내로 추구하는 것은 지양한 것이다.

②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 즉 과학 기술이 가져올 공포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한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
> [요나스, 『책임의 원칙』]

③ 요나스는 최고선에 대한 믿음보다는 최고악에 대한 공포로부터 새로운 윤리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전의 전통적 윤리학만으로는 현실의 과학 기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책임 윤리를 제창한 사람은 요나스이다. 그는 기존의 윤리가 인간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미래, 즉 인류의 존속이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과학 기술의 발달과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와의 간극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전통 윤리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로서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 [미래엔 생윤 교과서]

④ "A이면 B하라"라는 명법은 조건적 명법, 즉 가언적인 것이다. 요나스는 이러한 입장이 아닌 칸트의 정언 명령을 차용하여 새로운 책임 윤리학에서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면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⑤ 요나스는 사후적 책임 외의 사전적 책임, 즉 예방적 책임 또한 중시한다.

0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갑 :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를 의식하기 때문에 정언명령을 따라 행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언명령은 보편화 정식으로 표현된다. 칸트

을 :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그 자체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간이 미래의 위험을 예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명령으로 표현된다. 요나스

① 갑은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한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본다.
→ 칸트는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만을 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함.

② 갑은 도덕 법칙의 형식으로 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③ 을은 책임의 주체와 대상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한정된다고 본다.
(주체: O / 대상: → 자연까지 포함)

④ 을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자신이 의도한 것, 의도하지 않은 것 모두 책임져야 함

⑤ 갑, 을은 인간이 준수해야 할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의 관점에서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의 도덕적 행위의 근거는 선의지와 실천이성의 명령이다.

② 칸트의 정언 명령은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형식적 명령이라고 비판받곤 한다.

③ 요나스는 책임의 주체는 책임 능력을 가진 현세대 인간으로 한정된다고 보지만, 책임의 대상은 현세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생명 그리고 미래 세대 인류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

④ 요나스는 현대 기술이 인류의 삶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협적인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책임 윤리는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요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까지 예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⑤ 칸트와 요나스 모두 인간이 준수해야 할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인 '정언 명령'을 주장한다. 제시문에도 칸트와 요나스의 정언 명령이 제시되어 있다.

* 가언 명령 : 〈철학〉 칸트 철학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리는 조건부 명령.
정언 명령 : 〈철학〉 칸트 철학에서, 행위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행위 그것 자체가 선(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수행이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
cf)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언명령은 인류의 존속이라는 '결과'도 무조건적으로 요구한다.

Tip 요나스의 정언명령 깊게 알아보기

Q. 요나스는 정언명령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칸트와 비슷하지만 결과를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공리주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A. 요나스는 칸트에게 영향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고려한다고 해서 공리주의는 아닙니다. 그냥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죠. 오히려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언명령은 형식은 칸트를,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관점을 지녔습니다. 각 생명체가 목적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죠. 요나스도 각 생명이 '살고자 함'등의 목적을 지녔다고 보았고,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죽지 않고 살도록) 인간이 생명의 목적 달성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언명법(정언명령)에는 인간이 인류, 인간종의 미래 존속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요. 인간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류의 미래 가능성을 침해하지 말 것, 인류의 존속이라는 '결과를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류의 미래 가능성, 인류의 존속을 책임지는 것은 곧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는 것이며, 그 책임 안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과 자연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있는 것이라서 요나스는 본인의 생태학적 정언명령에 인류의 존속과 '생명과 자연에 대한 책임'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8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상 대담〉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평]

> 오늘날과 같은 '윤리적 공백'의 시대에는 구원의 예언보다 불행의 예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 기술 유토피아주의를 찬양하는 '희망의 원칙'이 아닌, 미리 사유된 위험 그 자체와 관련된 '공포의 원칙'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 요나스 - 공포의 발견술

〈가상 대담〉

리포터 :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사상가 :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를 가져야 합니다.

① ~~자연과의 상호 책임성~~을 토대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일방적 책임성

✓ ②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지는 것처럼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③ ~~자연에 대한 주인 의식~~을 토대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봄

④ 과학의 무한한 진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⑤ 행위의 ~~직접적 영향의 한도 내에서만~~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예방적 책임 강조

정답 ②

선지 설명

① 요나스는 책임은 오직 인간만이 질 수 있으며, 자연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요나스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상호 책임'이 아니라, 일방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② 요나스는 책임의 원형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니는 책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인류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요나스, 2017학년도 6평]

③ 요나스는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가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라고 비판한다.

④ 요나스는 과학 기술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을 '베이컨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한다.

〈요나스의 '베이컨 프로그램' 비판〉

베이컨적 기도는 필연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무한화를 낳는데, 인간적 목표 설정은 단기적이고 성공의 정도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의 역동성은 아마 모든 사회를 압도할 것이다. … 그토록 오랫동안 인공적으로 유지되어 온 생태학의 평형 법칙은 자연 상태에서는 어떠한 종이라도 하나의 종이 지배하는 것을 막았지만, 우리가 [자연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자신[자연]의 무서운 권리를 청구할 것이다.

… 자연과 인간을 보호할 필요성은 바로 기술적 진보의 과정에서 획득된 권력의 규모로 인하여 대두되었다. 그러나 … 베이컨이 예측하지 못했던 … 권력은 스스로 막강하게 되었으며, 권력의 달콤한 약속은 협박으로, 구원의 전망은 묵시론적 전망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 요나스는 베이컨의 과학 기술 지상주의를 비판한다. 요나스에 따르면 과학 기술의 성공 정도는 예측할 수 없고, 이미 현대의 과학 기술의 위험성은 인류와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에, 미래가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요나스에 따르면 베이컨의 과학 기술 지상주의는 자연의 자원을 대량으로 소비하게 하여, 자연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오직 자연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만 추구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베이컨의 과학 기술 지상주의적 발전을 비판하는 것이다.

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영향은 세대를 넘어서서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요나스는 직접적 영향의 한도를 넘어서, 과학 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위험을 '미리 사유'하여 자연에 대해 예방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09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1학년도 6평]

과학자들은 과학이 일정한 규칙하에 인과적 필연성을 검증하는 순수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과학은 인식 대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자연은 오직 인과적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적 응용이 과학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과학 기술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의심스러울 때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귀 기울여 책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요나스의 책임윤리

요나스는 해당 내용을 반대하고 있음

보 기

ㄱ. 과학 기술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ㄴ. 과학 기술자는 연구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ㄷ.~~ 과학 기술자는 기술적 응용에서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함.
~~ㄹ.~~ 과학 기술자는 사회적 책임~~보다~~ 내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새로운 책임 윤리를 제시한 요나스에 대한 내용이다. 요나스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미래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강조하며, 생태학적 정언명법을 제시한다.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언명법

-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제시문에서 요나스는 (1) 인과적 필연성으로 자연을 인식했던 과거와 (2) 과학 기술의 응용으로 인해 그 결과를 인과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진 현재를 비교하며, (2)와 같은 상황에서는 인과적 책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책임이 요청된다고 본다. 또한 새로운 책임 윤리의 윤리적 방법론으로 '공포의 발견술'을 제시하고 있다.

인과적 책임	〈행위한 것에 대한 책임〉 • 인과적 책임, 과거 책임, 요나스도 인정하기는 하지만, 요나스의 새로운 책임 윤리에서 주목하는 책임은 아니다. •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 부과'는 전통 윤리학의 책임 개념이다. 요나스는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새롭게 주장한다. 요나스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더 나아가 미래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강조한다.
새로운 책임	〈지속적으로 행위되어야 할 것에 관한 책임〉 • 존재론적 책임 :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책임 • 요나스가 강조하는 책임 : '부모가 신생아에게 가지는 책임'과 같은 '총체적이고 연속적이며, 중단되면 안되는 영속적인 것이며, 미래 지향적인 책임'이다. • 자연과 미래 세대의 존속이 현세대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책임을 강조한다. • 현세대는 미래 세대가 존속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위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책임질 수있는 능력은 곧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 시대 이전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침해가 표면적이었으며, 자연의 확고한 균형 상태를 파괴하기에는 미약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한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미리 예견된 인간의 왜곡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보존해야 할 인간의 개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래에 닥쳐올 공포와 재난을 미리 발견하여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려움과 경외감을 포함하는 책임감이 행위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먼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앙이나 참사를 미리 염려해 우리 스스로 막강한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 미래의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 볼 수 있다. "너의 행위의 영향이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 조건을 위협하지 마라."

[요나스, 『책임의 원칙』]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선지 설명

ㄱ. 요나스는 현대의 과학 기술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 연구의 자유는 새로운 책임 윤리의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고찰되어야 한다고 본다.

>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하는 기존의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 기술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롭게 요구되는 윤리는 과학 기술로 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책임 윤리로서 두려움, 겸손, 검소, 절제, 성스러운 것에 대한 외경심 등의 덕목들이다.
>
> [요나스, 『책임의 원칙』]

ㄴ. 요나스는 현대의 과학 기술의 작용이 시공간적으로 멀리 퍼져나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

ㄷ. 요나스는 자연과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인류에게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봐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요나스는 과학 기술자가 자신의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술적 응용을 고찰해야 한다고 본다.

ㄹ. 요나스는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Tip 요나스의 책임 윤리 원전 읽기

요나스의 책임 윤리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인이 악행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결과가 예견된 것도 아니고 의도된 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지른 피해를 보상해야만 한다. 내 자신이 능동적 원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행위와 밀접한 인과적 관계가 있을 때에만 그렇다.

그런데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 부과와 관련되지 않고 행위되어야 할 것의 결정과 관련된 전혀 다른 책임의 개념이 있다. 이에 따르면 나는 나의 행동과 그 결과에 관해 책임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사태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책임의 대상은 나의 밖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나의 권력에 의존하고, 또 나의 권력에 의해 위협을 받음으로써 나의 권력의 작용 영역 안에 있다. 권력은 나의 것이고 이 사태에 대한 원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사태는 나의 것이 된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이제 우리는 지구 전체 생명에 대해 권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서 자연은 윤리 이론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것은 인간의 선(善)은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와 자연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은 물론 자연에 대한 책임을 심사숙고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우리는 살인이 없었다면 아마 생명의 신성함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며,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도덕적 명령이 이 신성함을 분명하게 보여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짓이 없었다면 진실의 가치를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르며, 부자유가 없었다면 자유를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무엇 때문에'에 관한 지식은 모든 논리학이나 방법들과는 반대로 '무엇에 대해'경악하는가에서 발원한다. 이 경악의 대상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지식에 선행하는 감정의 반향을 통해 이 대립에 의해 촉발되는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친다. … 우리에게는 악(惡)의 인식이 선(善)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악의 인식은 더 직접적이며 설득력 있고, 의견의 차이에 별로 시달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가식적이지 않다. …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도덕 철학은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21학년도 수능]

공포의 발견술

-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학은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행해야 할 것과 관련된 책임 개념에 따르면, 현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사태의 의존자인 미래 세대는 명령자가 되고, 권력자인 현세대는 의무자가 된다. 요나스

보 기

ㄱ. 선의 탐구에서 악의 인식보다 선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다.
인간은 선의 인식보다 악의 인식이 쉬움

ㄴ. '할 수 있다'는 능력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책임이 발생한다.

ㄷ. 인간의 힘이 자연으로 확장될수록 자연 파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ㄹ. 현세대와 미래 세대는 삶의 지속을 위해 ~~상호 간에~~ 의무를 가진다.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일방적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선지 설명

ㄱ. 요나스는 선의 탐구에서 선의 인식이 아닌 악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는 인간이 악을 인식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입게 될 위험을 미리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윤리적 원리가 발견될 수 있다고 본다.

> 우리에게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선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지만, 악의 현존은 우리에게 인식을 강요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은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라." [요나스, 2018학년도 수능]

ㄴ. 요나스는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보며, 이러한 능력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로 연결된다고 본다.

ㄷ. 요나스는 인간이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에 따라, 인간의 힘이 자연으로 확장될수록 자연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에 국한하지 말고 자연과 미래 세대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ㄹ. 요나스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호혜적 의무가 아니라, 현세대의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비호혜적인) 의무를 주장한다.

Tip 요나스의 책임 윤리의 주체와 의무 발생 조건, 책임 대상

- 인간 :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존재다.
- 책임 의무 발생 :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자체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 책임 대상 : 책임 능력의 보존, 인류의 존속,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미래엔 생윤 교과서]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4단원 02 정보 사회와 윤리

0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4학년도 6평]

갑 : 우리의 법은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합법적 절차를 거쳐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하거나, 그것을 구현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을 : 정보의 복제 가능성은 무한하다. 하지만 정보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없도록 한다면 정보는 더이상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정보의 고유한 특성은 사라지고 그것은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된다.

보 기

ㄱ. 갑은 저작권 보호가 창작 의욕을 고취한다고 본다.
ㄴ. 을은 정보의 공유가 정보의 소모를 초래한다고 본다.
ㄷ. 갑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재로, 을은 공공재로 본다.
ㄹ. 갑, 을은 정보의 소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다고 본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갑 : 지적 재산권 보호 입장으로, 창작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 인정을 주장한다.
을 : 정보 공유 입장으로, 정보의 무한 복제 가능성과 자유로운 접근성 강조한다.

선지 설명

ㄱ. 갑 제시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창작 의욕 고취'는 법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의 효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보기는 옳은 보기로 판단할 수 있다.
ㄴ. 을은 정보 공유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정보의 공유가 정보의 소모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ㄷ. 갑은 개인의 소유권을, 을은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기이다.
ㄹ. 을은 정보 소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을은 정보 공유의 입장에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긍정한다.

0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6평]

갑 : 흉악범으로 밝혀진 사람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⑤
을 :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신상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훼손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⑤ ①, ③
갑 : 그렇기는 하지만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①, ③ ② 대립 지점
을 :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②

① 사생활 침해가 개인의 인격권 훼손에 해당하는가?
②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③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가?
④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해도 되는가?
⑤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인가?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과 을은 흉악범 신상 공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
갑 : 시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강조
을 :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강조

선지 설명

① 양측 모두 신상 공개는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훼손"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② 양측 모두 범죄 예방 효과를 인정("효과가 있기는 하지만")하여 쟁점이 아니다.
③ 을이 언급했으나 갑도 이를 인정하여 쟁점이 되지 않는다.
④ 갑은 "시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을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다. 즉, 두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지점으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다.
⑤ 양측이 흉악범의 신상 공개가 시민의 알 권리 존중이라는 점은 인정하여 쟁점이 아니다.

03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4학년도 9평]

현대 정보 사회는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판옵티콘'과 유사하다. 판옵티콘에서는 중앙에 감시탑을 세우고, 감시탑 둘레에 죄수들의 방을 배치한다. 여기서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지만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피감시자는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현대사회 비판
정보의 노출이 일방향적인 현대 사회 비판

보 기

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ㄴ. 특정 집단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한다.
ㄷ. 기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첨단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ㄹ. 정보 소통에서 쌍방향성이 아닌 일방향성을 추구해야 한다.

제시문에서 비판하는 내용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제시문 설명

현대 정보 사회를 '판옵티콘'으로 비유하는 글이다.
판옵티콘은 죄수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옥을 의미하는데, 현대 정보 사회도 그러하다는 것이 글의 주요 논지이다.

선지 설명

ㄱ, ㄴ. 현대 정보 사회는 개인의 사생활이 쉽게 노출되고 감시되곤 한다. 따라서 법적 장치를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특정 집단이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현대 정보 사회의 감시와 통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제시문의 입장에 부합할 것이다.
ㄷ, ㄹ. 제시문은 '판옵티콘'을 은유적으로 제시하며 현대 정보 사회를 감시와 통제의 사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 감시 체계의 도입'이나 '정보의 일방향성'은 제시문이 반대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Tip 판옵티콘과 현대 정보 사회

현대 정보 사회는 '빅 브라더'가 통제하는 사회이거나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판옵티콘'과 유사하다. 현대 정보 기술은 정보와 권력을 독점한 통치자가 교묘한 방식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고도의 감시 장치를 바탕으로 피감시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피감시자들은 항상 감시와 통제를 받는 피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04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9평]

○○일보 ○○○○년 ○월 ○일

㉠

언론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은 아니지만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들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시민의 알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이를 명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중략)… 이제 우리는 언론을 '자유'라는 측면과 더불어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①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시해야 한다.
③ 언론은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
④ 언론은 검증된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⑤ 언론은 취재와 보도, 편집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주요 현상 :
-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 증가
- 특히 사실보도임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 증가

글의 논지 :
-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 균형 필요
- 알 권리만으로 모든 보도를 정당화할 수 없음
- 언론의 '책임' 측면 강조

이를 통해 제시문은 언론이 사실보도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은 언론에 의해 어떤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례를 계기로 언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명예는 개인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인격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시문의 내용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② 글에서 "알 권리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알 권리가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③ 다양한 의견이나 균형성은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
④ 글에서 허위가 아닌 사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선지는 사실 보도 측면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⑤ 글의 요지는 언론의 책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당 선지는 언론의 자유 측면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언론인의 바람직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수능]

> 언론인이 사전 보도 금지의 약속을 위반하여 경쟁사보다 먼저 특종 기사를 보도한다면 그는 일시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언론인은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실 그대로 보도하기는 하지만 보도 이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언론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언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
② 취재, 편집 및 보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오보로 인한 피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의견을 구분하여 보도해야 한다.
⑤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이 글은 언론인의 두 가지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1. "사전 보도 금지의 약속을 위반하여 경쟁사보다 먼저 특종 기사를 보도"
2.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1. "언론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
2. "언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은 의견의 다양성이나 균형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제시문에 자율성 관련 내용은 없다.
③ 제시문에 오보나 반론 기회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④ 제시문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⑤ 제시문에서는 약속이나 직업 윤리 위반을 통해 사익을 얻는 것을 부적절한 행위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06

다음 글은 신문 사설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 ○○일보
>
> ㉠
>
> 오늘날과 같은 정보 사회에서 정보는 물이나 전기와 같이 인간이 생활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물이나 전기 없이 며칠을 견디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수도나 전기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수도와 전기를 끊어 버리는 일은 비인도적인 처사로 여겨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 소외 계층은 정보를 소유하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느낄 것이며, 그들은 정보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회적 약자로 머물게 될 것이다. …(중략)…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러한 시민의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① 정보 사유화를 강화하여 새로운 정보의 산출에 힘써야 한다.
② 정보 사회에서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국가의 독점적 정보 관리로부터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④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역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정보 공유화로 인해 발생한 책임의 분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주장 :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근거 : 정보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은 정보를 사회적 약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정보의 사유화 강화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②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제시문에서 논의하는 바와 맥락이 같다.
③ 국가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문과 무관하다.
④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 제시문의 입장이다. 그로 인해 발생할 역차별은 제시문이 논하지 않는다.
⑤ 정보 공유화로 인한 책임 분산 문제는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다.

07

(가)의 내용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나)의 ㉠~㉣에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6평]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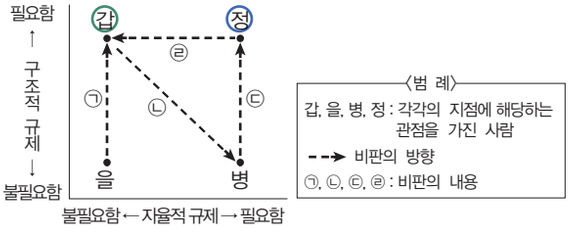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을 막는 방법에는 자율적 규제와 구조적 규제가 있다. '자율적 규제'는 도덕적 행위 규범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구조적 규제'는 일탈을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의 의무화를 통해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다. 두 가지 규제 각각의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또한 관점들 서로 간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비판의 내용〉

A :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져 든다. 따라서 자율적 규제가 아닌 구조적 규제가 요구된다.

B :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일탈 방지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적 규제도 함께 필요하다.

(나)



	A	B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A는 자율적 규제가 아닌 구조적 규제를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갑이다.

B는 자율적 규제와 구조적 규제의 병행 필요성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이다.

선지 설명

④ 갑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고, 정이 비판을 하는 것은 ㉣이기 때문에, 이 선지가 정답이다.

0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9평]

정보는 공기와 같은 공유물이다.

갑 : 자연의 공기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제약해서도 안 돼. 정보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배타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돼.

정보는 개인의 소유물이다.

을 : 정보는 자연의 공기가 아니라 산소통의 공기와 같은 것이야. 산소통의 공기를 쓰려면 그 생산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해. 정보 또한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생산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해.

① 갑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해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정보를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여겨야한다고 본다.
④ 갑, 을은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정보 공유 금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보 생산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필요 없다고 본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주장+근거 분석〉

갑) 정보 공유론
주장 : 정보는 배타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을) 정보 사유론
주장 : 정보 생산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숨겨진 전제 : 정보는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선지 설명

① 갑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므로, ①은 갑의 입장이 아니다.
② 을은 정보 사유론의 입장이므로, ②는 을의 입장이 아니다.
③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④ 갑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④는 갑의 입장이 아니다. 을은 정보 공유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을은 정보 생산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므로, ⑤는 을의 입장이 아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9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9평]

○○신문 ○○○○년 ○○월 ○○일

칼럼

최근 어떤 나라에서 한 언론사가 정부의 외교 기밀을 폭로한 기사를 연재했다. 이에 정부는 그 기사가 국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보도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정부가 진실을 감추거나 국민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란 점을 근거로 보도를 허용하였다. 이 판결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정한 정보 공개 기준이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민주 사회에서 국민은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권자로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일체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을 위한 정보 제공이 바로 언론 본연의 사명이자 존재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 사회의 언론은 [㉠] …(후략)…

① 진실을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에게 반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④ 국익 관련 정보 보도에 언론의 자유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이 칼럼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요 주장:
- 정부의 자의적 정보 공개 기준으로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
- 국민은 주권자로서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정보 제공이 언론의 본질적 사명임

선지 설명

① 인격권 존중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이다.
② 반론권은 본문의 논지와 무관하다.
③ 본문의 핵심 주장과 일치한다. 언론의 책무가 진실 보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과 부합한다.
④ 본문은 오히려 국익 관련 보도에도 언론의 자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본문은 정부 신뢰성보다 진실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0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신문 ○○○○년 ○○월 ○○일

칼럼

언론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그가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그가 큰 죄를 지은 범죄자라고 믿게 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가 정당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중에 그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겠지만 그에게서 범죄자라는 낙인이 지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언론에 신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 …(후략)…

① 언론은 인격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보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언론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③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언론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⑤ 언론은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의 신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핵심은 언론의 피의자 신원 공개가 무죄 판결 시 돌이킬 수 없는 인격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지 설명

①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지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은 인격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보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적절하다.
② "표현의 자유"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오히려 본문은 언론 보도의 제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본문은 "알 권리" 보장보다는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를 강조한다.
④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비판"은 본문의 주제와 무관하다.
⑤ "보도의 신속성"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본문은 신중한 보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11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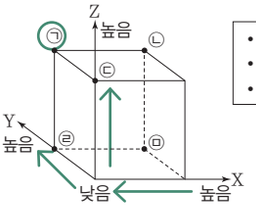
(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정보는 하나의 상품이므로 그것을 만든 정보 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심화할 수 있지만, 정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여 더 많은 양질의 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사유론

(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일종의 진화 과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새 기능을 부여하며, 그 후에 또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는 것이다. 만약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종류의 진화는 멈추게 될 것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 접근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정보 공유론

정보의 배타적 소유권 인정시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



- X : 지적 재산권의 보호 강조 정도
- Y : 정보의 공유재적 성격 강조 정도
- Z : 정보 격차의 완화 가능성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가) 정보 사유론의 입장이다.
주장 : 정보 창작자에게 정보에 대한 소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 정보 창작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 정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여 정보 생산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다.
주장 :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 권리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근거 :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 권리가 인정될 경우, 정보 진화가 멈추게 될 것이다.
근거 :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 권리가 인정될 경우,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 접근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선지 설명

▶ 정보 사유론의 입장에 비해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 갖는 특징을 골라야 한다.

X : (가)>(나)
Y : (가)<(나)
Z : (가)<(나)
▶X↓, Y&Z↑ ▶ ㉠

12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6평]

갑 : 내 촛불을 여러 사람에게 붙여 주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으면서 세상은 더욱 밝아질 거야. 정보도 이와 같아서 어느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누어야 할 공공의 소중한 자산이야. → 정보 공유론

을 : 촛불을 여러 사람에게 붙여 세상이 밝아지는 것은 처음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그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 불빛이 더욱 의미가 있어. 이처럼 정보는 소유권을 인정해야 할 개인의 재산이야. → 정보 사유론

① 갑은 정보의 공유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② 을은 정보 소유권 보장이 정보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고 본다.
③ 을은 양질의 정보 생산을 위해 정보 복제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없어야 → 있어야)
④ 갑은 정보를 인류의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본다.
⑤ 갑, 을은 정보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 → 정보 = 촛불에 비유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주장+근거 분석〉

갑)
주장 : 정보 공유론
근거 : 정보는 나누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더 확산된다.

을)
주장 : 정보 사유론
근거 : 정보를 창작한 사람이 있으므로 정보가 존재한다.
근거 : 정보 창작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의미가 있다.

선지 설명

① 정보 공유론의 입장에서 긍정할 수 있다.
② 정보 사유론의 입장에서 긍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정보 사유론의 입장이므로 부정한다.
④ 갑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고, 을은 정보 사유론의 입장이므로 적절하다.
⑤ 갑, 을의 입장에 해당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3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9평]

○○신문 ○○○○년 ○○월 ○○일

칼럼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는 정치적 냉소주의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되면 정치 권력의 부패와 전횡을 막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제도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어떤 서양 사상가는 "영국 인민은 선거할 때만 자유롭고, 선거 후에는 다시 노예가 된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집회에 정기적으로 모여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집회에 모이기는 힘들지만, 이 사상가의 주장에 담긴 취지를 구현할 방법을 언론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언론 매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수록 ㉠ …(후략)…

① 의견 수렴 매체의 단일화로 여론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② 시민의 의사소통 감소로 소모적 갈등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③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④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⑤ 정부가 시민을 대신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1. 칼럼의 핵심 주장과 논리 흐름
- 정치적 냉소주의 확산이 문제
-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에 필수적
- 서양 사상가의 견해: 정기적 집회를 통한 시민 참여 필요
- 현대에는 직접적 집회 참여가 어려움
- 대안으로 언론의 역할 제시

2. 빈칸에 들어갈 내용의 조건
- 언론 매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져올 긍정적 결과
- 시민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내용
- 정치적 냉소주의 극복과 연관된 내용

선지 설명

① "매체의 단일화"와 "여론 통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과 상반된다.
② "의사소통 감소"는 시민 참여 확대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칼럼의 전체 논지와 일치하는 선지이다.
④ "사적 영역 보호"는 공적 참여를 강조하는 칼럼의 맥락과 동떨어져 있다.
⑤ "정부가 시민을 대신해 정책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칼럼의 취지와 배치된다.

1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학년도 9평]

갑 : 〈정보는 정보 생산자의 창작물이므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생산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설령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 정보 생산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 :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정보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정보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경제적 약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를 해주어야 한다.

→ 정보 사유론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보 복지 필요

① 갑은 경제력 차이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보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을은 ~~공유 자산~~으로 본다.
④ 갑, 을은 정보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주장+근거 분석〉

갑) 정보 사유론
주장 : 정보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근거 : 정보는 생산자의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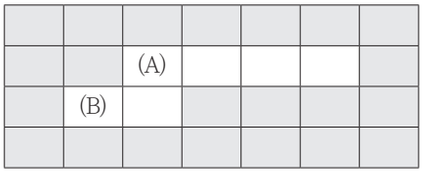
을) 정보 사유론+경제적 약자에 대한 복지
주장 : 정보 생산자의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주장 : 경제적 약자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부조해야 한다.
근거 : 정보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선지 설명

①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경제적 약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를 해주어야 한다."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갑과 을 모두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본다. 다만, 을은 경제적 약자에게 보조를 해주자는 입장이다.
④ 갑, 을 모두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정보 생산자에게 '정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 모두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15

(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수능]

(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진화 과정과 유사하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떤 사람이 그 일부를 손질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그 후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여 또 다른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소유권의 존재는 이러한 진화를 방해한다.
(나)	 [가로 열쇠] (A) :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려 일을 하는 것. 실적이 아니라 정치성·혈연·지연·개인적 친분 등을 중심으로 공직에 사람을 임용하는 인사 관행 (B) :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고락(苦樂)의 갚음. 인과○○ [세로 열쇠] (A) : …… 개념

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진화에 방해를 받는 개체이다.

② 사용자가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적 환경이다.

③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해야 할 상호 협력의 산물이다.

④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을 통해 진화하는 프로그램의 단위이다.

⑤ 무한한 복제 · 수정이 가능하므로 무단 사용을 금해야 할 자산이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가) 정보 공유론의 입장

주장 : 소프트웨어(정보)의 소유권은 소프트웨어(정보)의 진화를 방해한다.

근거 : 정보가 진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수정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정보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소유될 경우 타인이 그 정보를 개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나)

[가로 열쇠]

(A) : 정실주의

(B) : 응보

[세로 열쇠]

(A) : 정보

선지 설명

① (가) 제시문은 소유권의 존재가 정보의 진화를 방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 제시문에 따르면, 정보의 자유로운 사용은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

②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정보 공유론의 입장에서 본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④ 제시문은 소유권의 존재를 비판한다.

⑤ (가) 제시문은 오히려 자유로운 정보의 사용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6평]

갑 : 장발장은 전과자 신분을 숨기고 시장이 되었어. 하지만 정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잊거나 지우고 싶은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어서 타인이 볼 수 있지.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해.

을 : 장발장이 아무리 시민을 위해 봉사했다 하더라도 그를 시장으로 뽑을 때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알아야만 했다고 봐. 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나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삭제를 금지해야 해.

보 기

ㄱ. 갑: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ㄴ. 갑: 잊힐 권리 보장이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ㄷ. 을: 사생활 보호가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ㄹ. 갑, 을: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갑의 입장
- 개인은 자신의 과거 정보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
- '잊힐 권리'를 통해 원치 않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을의 입장
- 공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삭제를 제한해야 한다.

선지 설명

ㄱ. 갑은 마지막 발언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ㄴ. 갑은 잊힐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알 권리 침해를 강조하는 입장은 아니다.
ㄷ. 을은 공익(시민들의 알 권리)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ㄹ. 을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정보 통제권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을 절대적 권리로 보지 않는 관점이다. 갑은 개인의 정보 통제권을 주장하지만, 배타적 관리권이 절대적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1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9평]

갑 :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을 :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갑 : 아닙니다. 악성 댓글 문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을 : 제도적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악성 댓글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①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가?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는 악성 댓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③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책임감과 실천이 필요한가?
④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가?
⑤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의 도덕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갑의 입장
-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함
- 악성 댓글 문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로 해결해야 함
- 제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

을의 입장
-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악용 문제를 지적
- 악성 댓글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 주장
- 개인의 명예 보호를 위해 일부 표현의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고 봄

선지 설명

①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은 갑과 을의 주장이 대비되는 지점이다. 갑은 자율적 규제를, 을은 제도적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② 탈억제 효과(익명성과 비대면성 등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언행이 과격해지는 현상)가 악성 댓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을의 첫 번째 발화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양측이 동의하는 내용이다. 갑은 "악성 댓글 문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을은 "제도적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전제 사항이다.
⑤ 갑은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를 강조하고, 을도 "명예 보호"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도덕규범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8

갑이 을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수능]

① 익명성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 성격을 지님을 간과하고 있다.
② 사이버 폭력의 증가가 디지털 익명성에 기인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사이버 공간의 실명 공개가 표현의 책임성을 강화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규제가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익명성 보장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함을 간과하고 있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 : 디지털 익명성은 선(善)
- 개인의 자유로운 삶의 계획과 실현에 중요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

을 : 디지털 익명성은 악(惡)
-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
- 사회적 신뢰와 질서를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 유발

선지 설명

① 갑이 제기할 말한 비판이 아니다. 갑은 익명성을 가치중립적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인 '선'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③, ⑤ 갑이 을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부적절하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적절하다.
④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론이다. 익명성 규제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익명성 규제를 주장하는 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19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6평]

갑 :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접근 능력과 정보 수용 능력을 가리킨다. 정보 격차는 주로 그러한 능력들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약자에게 정보 접근 및 수용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 접근 + 수용 능력 제공 보장

을 :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매체의 쌍방향성이 강화됨에 따라 접근 및 수용 능력 이외에 정보 생산 능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정보 격차는 주로 정보 생산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므로 정보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 생산 능력 제공 보장

① 갑 : 정보 약자에게는 정보 접근 능력만을 제공해야 한다.
② 갑 : 정보 격차의 주된 원인은 정보 생산력의 차이에 있다. → 을의 입장
③ 을 : 정보 복지의 핵심 과제는 정보 기기의 평등한 분배이다. → 논지 아님
④ 을 : 정보 약자가 정보 생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갑, 을 : 정보 리터러시는 접근 및 수용 능력에 국한되어야 한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
주장 : 정보 접근 및 수용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필요하다.
근거 : 정보 격차는 정보 접근 및 수용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을)
주장 : 정보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필요하다.
근거 : 정보 격차는 주로 정보 생산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선지 설명

① 갑은 정보 약자에게 정보 접근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 수용 능력도 제공하는 정보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②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다.
③ 을은 정보 복지의 핵심 과제가 정보 생산 능력 제공이라고 본다. 정보 기기의 평등한 분배는 정보 접근이나 생산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론할 수는 있지만, 정보 기기의 평등 분배가 정보 복지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보 생산 능력은 단순히 정보 기기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을은 정보 약자에게 정보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약자가 정보 생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은 '정보 리터러시'를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수용 능력으로 정의한다. 반면, 을의 경우 정보 리터러시의 정의에 정보 생산 능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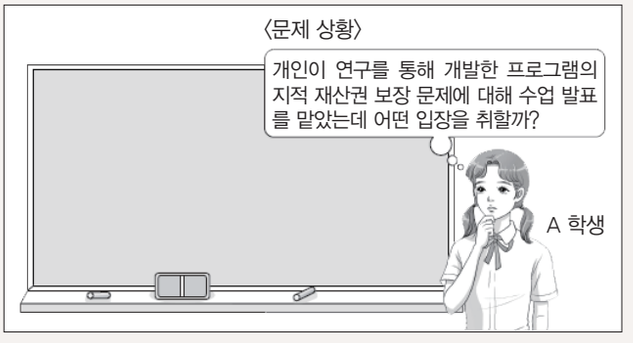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0

다음 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 학생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9평]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열매와 거기에서 자라는 짐승들은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것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며 타인의 권리는 배제된다."라는 재산권 이론은 노동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의 노동을 통해 산출된 모든 산물에 적용될 수 있다.

〈문제 상황〉



①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간 지적 재산의 배타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세요.
② 사회 전체의 공리 극대화를 위한 지적 재산권의 보장을 강조하세요.
③ 지적 재산은 자연 발생적 산물이므로 공유의 대상임을 강조하세요.
④ 지적 재산의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강조하세요.
⑤ 무형의 정신노동이 들어간 지적 재산은 공공재임을 강조하세요.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지문 핵심 분석

1. 자연 상태의 산물은 모두에게 공동 소유
2. 개인의 노동이 투입되면 그 산물은 개인의 소유가 됨
3. 노동의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됨 (육체노동/정신노동 모두 포함)

선지 설명

① 제시문에서 "노동을 투입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며 타인의 권리는 배제된다"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선지이다.
② 제시문은 공리주의적 관점이 아니다. 제시문은 노동을 통한 개인의 소유권 획득을 강조하는 로크의 소유권 내용을 담고 있다.
③ 지적 재산(예: 프로그램)은 자연 발생적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이 투입된 산물이다.
④ 선지와 제시문의 논점이 다르다. 선지는 지적 재산의 가치의 원천을 다루고 있고, 제시문은 소유 권리의 정당화를 다루고 있다.
⑤ 제시문은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이 투입된 산물은 개인의 소유가 된다고 본다. 정신노동도 노동의 한 형태이므로 그 산물은 공공재가 아닌 개인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2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9평]

갑 : 대동강을 돈을 받고 판 김선달의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동강의 강물은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공유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보 또한 강물과 같은 것이므로 누구나 사용 가능해야 하며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을 : 북청 물장수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냥 흐르는 강물이 아닌, 물장수가 한강에서 퍼 온 물통 속의 강물을 삽니다. 이처럼 정보 또한 물통 속의 물과 같아서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갑 : 정보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지닌다.
② 갑 : 정보의 ~~사적 소유권~~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③ ~~갑~~ : 정보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공유 자산이다.
④ 을 :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성립된다.
⑤ 갑, ~~을~~ : 정보를 생산한 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주장+근거 분석〉

갑) 정보 공유론
주장 : 정보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 정보는 강물과 같은 것이므로 누구나 사용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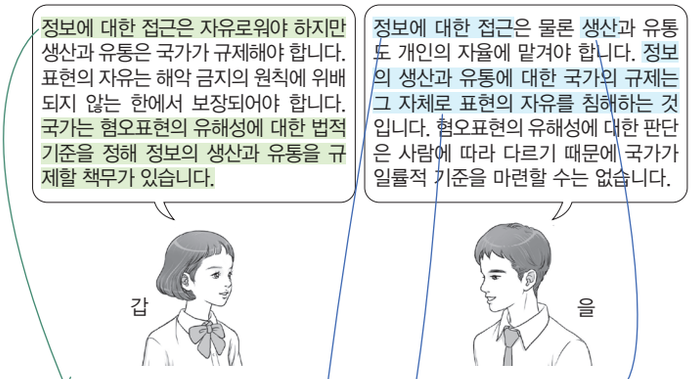
을) 정보 사유론
주장 : 정보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 정보는 물통의 물과 같이, 정보 생산을 위해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 설명

① 갑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다.
② 갑은 정보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③, ④ 을은 정보의 생산자가 들이는 노력을 존중하며,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⑤ 갑은 정보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을은 정보는 생산자가 노력한 결과물이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2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수능]



① 갑 : 국가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② 갑 : 국가는 혐오표현의 유해성을 판단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③ 을 : 국가는 정보의 접근~~이 아닌~~ 생산 · 유통의 자유만 보장해야 한다.
④ ~~을~~ : 국가는 해악 금지 원칙에 따라 정보 생산을 규제해야 한다.
⑤ 갑, ~~을~~ :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양립 가능하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주장+근거 분석〉

갑)
주장 :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근거 : 표현의 자유는 해악 금지의 원칙의 한계 내에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 정부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해야 할 책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을)
주장 : 정보의 접근, 생산, 유통은 모두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근거 : 정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 혐오표현의 유해성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모두 다르므로, 국가가 일률적 기준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 설명

① 갑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갑은 국가는 해악 금지의 원칙을 넘어서는 혐오표현에 대해 제한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정보의 접근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정보 생산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⑤ 을은 혐오표현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본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3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9평]

사이버 공간은 실제 공간의 연장이면서도 익명성의 특징을 지닌 새로운 공간이다. 도덕적 책임을 둔감하게 만드는 익명성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긍정적 측면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의 자아에서 벗어나, 여러 자아를 실험하며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만들고 해체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다중 정체성의 위험에 유의한다면 사이버 자아를 통해 현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사이버 자아의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

① 사이버 자아는 현실 자아의 반영에 불과하다.
② 사이버 자아의 익명성은 위험하기에 실명화해야 한다.
③ 사이버 자아는 현실의 자아보다 도덕적 책임에 민감하다.
④ 사이버 공간은 자아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⑤ 사이버 공간의 다중 자아를 금지해 정체성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주장 : 제시문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근거 :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의 자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사이버 자아를 통해 현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선지 설명

① '여러 자아를 실험하며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만들고 해체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에서 제시문은 사이버 자아가 현실의 자아 반영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도덕적 책임을 둔감하게 만드는 익명성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긍정적 측면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에서 사이버 자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제시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③ '도덕적 책임을 둔감하게 만드는 익명성의 부정적 측면'에서 익명성을 띤 사이버 자아는 도덕적 책임에 둔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⑤ '사이버 공간은 실제 공간의 연장이면서도 익명성의 특징을 지닌 새로운 공간이다.', '여러 자아를 실험하며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만들고 해체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에서 볼 수 있듯, 제시문은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자아를 실험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사이버 공간이 자아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다.

24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0학년도 수능]

갑 : 빅 브라더(Big Brother)는 소설 속 존재로, 사회를 철저히 장악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빅 브라더'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인 정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을 : 아고라(agora)는 고대 아테네의 광장으로, 자유민들은 이곳에서 민회에 참여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이 아고라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현실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있다.

보 기

ㄱ. 갑 :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생활권과 익명성이 보장된다.
ㄴ. 갑 : 정보 통신 기술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한다.
ㄷ. 을 : 사이버 공간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ㄹ. 갑, 을 :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증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의 입장
- 정보 통신 기술 발달이 오히려 감시와 통제를 강화
- 개인의 실질적 정치 참여 기회가 감소할 위험 존재
- 빅브라더처럼 권력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부정적 관점

을의 입장
- 정보 통신 기술이 새로운 정치 참여 공간을 제공
-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처럼 민주적 의사소통의 장 역할
- 시민의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 관점

선지 설명

ㄱ. 갑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생활권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갑의 견해와 정반대이다.
ㄴ.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한다는 것은 빅브라더의 감시 체제를 우려하는 갑의 주장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ㄷ. 사이버 공간을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는 을의 견해를 잘 나타내고 있다.
ㄹ. 갑과 을의 공통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갑은 오히려 감시와 통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을만 표현의 자유 증진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5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6평]

강제적·제도적 규제 반대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 문제에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 개인이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표현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성 댓글이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일탈 행위로서 해당 개인과 집단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이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자율적 규제 옹호

① 익명성으로 인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② 제도적 규제보다 자율적 규제가 적절한 해결책임을 간과한다
③ 표현의 자유보다 해악 금지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④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⑤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하여 악성 댓글이 예방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정답 ②

선지 설명

제시문에서의 '나'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닌다.

① '나'와 '어떤 사람들'모두 동의한다. 익명성으로 인한 비도덕적인 결과는 둘 다 인정을 하는 입장인데, 다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다.
② '나'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반대하고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적 규제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할 비판으로 성립된다.
③, ④, 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할 내용이다. 제시문의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제도적 장치', '일탈 행위' 등의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Memo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문화와 윤리

빠른 정답 5단원

0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01	⑤	02	①	03	①	04	④	05	①
06	③	07	①	08	④	09	④	10	②
11	②	12	①	13	①	14	①	15	④
16	③	17	②	18	②	19	⑤	20	④
21	⑤	22	③	23	①				

02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01	②	02	⑤	03	②	04	①	05	④
06	②	07	②	08	②	09	①	10	⑤
11	④	12	⑤	13	④	14	③	15	④

03 다문화 사회의 윤리
❶ 문화 다양성과 존중

01	⑤	02	④	03	⑤	04	②	05	④
06	③	07	⑤	08	④	09	④	10	⑤

03 다문화 사회의 윤리
❷ 종교의 공존과 관용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③
06	③	07	①	08	⑤	09	⑤	10	④
11	③	12	②	13	①	14	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5단원 0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01

갑, 을 사상가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4학년도 6평]

갑 : 성인(聖人)의 도(道)는 음악이 아니면 시행되지 못하고, 천하 만물의 감정도 음악이 아니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세속의 음악은 모두 음탕하고 상스럽다. ↳ 유교(정약용)

을 :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부에 우아함을 심어 주고 영혼을 활기차게 만든다. 음악을 올바로 교육받으면 사람의 정신이 우아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된다. ↳ 플라톤

보 기

ㄱ. 음악은 도덕적 교화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ㄴ. 음악을 독립적인 ~~순수 예술로 존중~~해야 하는가?
ㄷ.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가?
ㄹ. 음악의 미적 가치는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정약용이고 을은 플라톤이다. 발문에서는 '사상가'를 물었는데, 잘 보면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발문을 통해 갑과 을의 '공통점'이 있음을 일단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을 읽어보면 갑과 을 모두 음악에 대해 조화를 이루는 감정이나 우아함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는 예술의 목적을 예술 그 자체에 두지 않고 도덕적 가치에 두는 도덕주의의 입장이다. 본 문항은 갑과 을 모두 도덕주의적 관점인데, 선지 부분에 심미주의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러한 출제 방식은 이후 2016학년도 수능 13번 문항에서 다시 나타난다.

> 도덕주의에서는 윤리적 가치와 미적 가치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윤리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 심미주의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무관하다고 보며, 예술 이외의 목적을 예술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경계한다. … 심미주의는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지학사 생윤 교과서]

선지 설명

ㄱ. 도덕주의는 예술을 도덕을 위한 것으로 본다.
ㄴ. 갑과 을은 모두 음악을 독립적인 순수 예술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해당 보기는 도덕주의가 아닌 심미주의의 입장이다. 위의 '제시문 설명' 참고.
ㄷ. 갑은 예술을 통한 천하 만물의 감정의 조화를, 을은 예술로써 심어지는 영혼 내부의 우아함을 강조한다.
ㄹ. 전형적인 도덕주의의 시각이다.

Tip 정약용의 예술관과 플라톤의 도덕주의 깊게 알아보기

〈정약용의 예술관〉

지금 세속의 음악은 음란하고 슬프고 바르지 못한 소리이다. 그러나 한창 음악을 앞에서 연주할 때는, 관장(官長)은 그 하급 관리를 용서해 주고, 가장(家長)은 자기 동복(僮僕)을 용서해 준다. 세속의 음악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옛 성인의 음악은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예악(禮樂)은 잠깐 동안이라도 몸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성인이 어찌 그렇게 말하였겠는가? 음악을 일으키지 않으면 교화도 끝내 시행할 수 없고 풍속도 끝내 변화시킬 수 없어서 천지의 화기(和氣)에 끝내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약용, 『여유당전서』]

성인은 조석으로 음을 듣고 마음을 씻어 혈맥을 고동치게 함으로써 화평한 뜻을 유발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순임금이 나라를 세울 때 악(樂)이 완성됨에 따라 그 효과로 모든 관원이 성실하게 화합하고 덕으로 겸양했으니 인간은 반드시 음악으로써 가르치는 것이 알맞지 않은가. … 그러므로 예(禮)와 악(樂)은 잠시라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되며, … 음악을 진작함으로써 인간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정약용, 『여유당전서』]

▶ 정약용은 음악을 인격 수양과 화합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겼다. 즉 음악이 인간의 품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플라톤〉

도덕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플라톤이다. 그는 예술의 존재 이유가 올바른 행동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하는 데 있으며, 예술이 가진 미적 가치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해 준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예술 작품이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가가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술 검열이 필요하다. [미래엔 생윤 교과서]

▶ 플라톤은 예술의 본질은 모방이며 모방된 것은 진리 혹은 본질보다 열등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예술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예술에 대한 국가의 검열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플라톤은 음악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절제와 정의의 덕을 기를 수 있다고 보는 등, 예술이 도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의 도덕주의〉

추한 것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화는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그 반대되는 것들은 좋은 성품을 닮았으며 또한 그것을 모방한 것이다. 건강에 좋은 곳에 거주함으로써 건강해지듯,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게 된다. 복잡 미묘한 리듬도 온갖 종류의 운율도 추구하지 말고,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삶을 나타내는 리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 [플라톤, 2019학년도 6평]

▶ 플라톤은 예술이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하며, 예술가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2

다음 글의 사상적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9평]

> 선왕(先王)이 인정(人情)에 비추어 예악(禮樂)을 만들었다. 예(禮)는 백성의 마음을 절도 있게 하고, 악(樂)은 백성의 마음을 화평하게 한다. …(중략)… 예악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악을 극진히 해서 마음을 다스리면 곧고 양순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
> → 유교 도덕주의

① 예술은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가?
② 예술은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하는가?
③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④ 예술은 선(善)보다 미(美)를 중시해야 하는가?
⑤ 예술은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가?

→ 심미주의에 해당하는 선지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유교의 예악 사상을 담고 있는 글이다. 선왕(先王)이 예약을 만들었다는 것, 예와 악이 백성을 절도 있게 하고 화평하게 한다는 것 등을 통해 유교의 관점임을 알 수 있다. 제시문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선지 중에 있으므로 정답을 고르기는 쉬운데, 여기서 우리는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 또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에서 "악(樂)은 백성의 마음을 화평하게 한다.", "악을 극진히 해서 마음을 다스리면 곧고 양순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하였다. '악'은 예술의 일종이고, 백성의 마음을 화평하게 다스리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의 일환이다. 따라서 본 선지가 정답이다.

② 제시문에서 '악'을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예술을 '도덕'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면 '도덕주의'이고, 도덕과 상관없이 예술적 가치 자체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면 '심미주의'이다. 도덕주의와 심미주의의 비교에 관한 교과서 서술 내용은 앞서 2014학년도 6평 9번 문항 해설에서 다루었으므로 필요한 독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유교 사상은 교육과정상에서 대표적인 도덕주의적 예술관으로 꼽힌다. 이와 대조되는 심미주의적 예술관은 당연히 교육과정상 유교 사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③ 위의 선지 ②를 조금 다른 언어로 바꾸어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오답 선지이다.

④ 위의 선지 ②, ③과 유사한 내용이다. '선'이 도덕적 가치라면 '미'는 예술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답 선지이다.

⑤ 위의 선지 ② 해설 참고.

Tip 유교의 예악(禮樂) 사상 깊게 알아보기

㉠ 공자 : "예에서 사람이 서고, 악에서 인격이 완성된다." → 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와 악을 상호 보완 관계로 본다.
㉡ 맹자 : 인간의 삶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 음악이다.
㉢ 순자 : 음악을 정치적 교화, 인격 수양, 화합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겼다.
㉣ 맹자와 순자가 묵자를 비판 : 세련된 음악을 추구하고 음악을 즐기는 행위가 백성들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허례(虛禮)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묵자의 주장에 대해 순자와 맹자는 음악이 인간의 정감에 미치는 영향을 묵자가 간과하였다고 보았다.

03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수능]

플라톤의 덕: 지혜, 용기, 절제

나는 좋은 음악이라면 유덕한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술에 내재된 미(美)는 우리의 정신을 고상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시(詩)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가의 견해에 대해 [㉠]고 생각한다.

도덕주의 → 평가 → 심미주의

① 예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② 예술이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예술의 극치가 도덕의 극치와 서로 통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예술이 미(美)보다 선(善)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심미주의 ○ / 도덕주의 ○ 심미주의 ×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플라톤과 같은 도덕주의의 입장에서 스핑건과 같은 심미주의 사상가를 평가하고 있다. 스핑건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제시문의 '어떤 사상가'가 심미주의 사상가라는 것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므로 사상가를 모른다고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문항은 제시문 독해로 풀면 된다.
㉠에는 도덕주의가 심미주의를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설명

① 심미주의와는 달리 도덕주의는 예술이 인간과 사회에 도덕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하므로, 정답으로 적절하다.
② 심미주의는 예술이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③ 심미주의는 예술은 도덕과 무관하다고 본다.
④ 심미주의는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⑤ 심미주의는 미(美)의 추구를 논할 뿐, 도덕적 선(善)의 추구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Tip 스핑건의 심미주의 깊게 알아보기

• 스핑건 : "시(詩)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다."

"스핑건(Spingarn, J. E.)은 말한다. 시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저녁 식탁에서의 이러한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라. "이 배추가 국제법에 따라 재배되었다면 훌륭할 텐데." 혹은 "당신은 왜 내 파이가 맛있는지 아십니까? 파이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레이더, 『예술과 인간 가치』]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4

갑, 을의 예술관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6평]

갑 : 음악의 근본 요소는 화음이며, 음악의 본질은 리듬이다. 음악은 실제 세계에 대한 표현이나 묘사가 아니다. 음악의 형식은 음 자체의 결합이며, 음악미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음과 음의 예술적 결합에 달려 있을 뿐이다. 심미주의(한슬릭)

을 : 음악은 노랫말, 선율,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에서 노랫말이 중심이 되며, 선율과 리듬은 노랫말을 따라야 한다. 좋은 음악의 노랫말은 덕을 지닌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한다. 도덕주의(플라톤)

보 기

ㄱ. 갑은 음악이 외재적 가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음악은 음악 그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

ㄴ. 을은 음악이 올바른 품성의 도야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음악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ㄹ. 갑, 을은 음악에서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플라톤 : 음악은 덕을 지닌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따르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은 한슬릭, 을은 플라톤이다.

갑은 음악에 있어서 화음과 리듬을 중시하며, 음악이 실제 세계에 대한 표현이나 묘사가 아니라고 지적한 점에서 심미주의 예술관임을 알 수 있다. 갑은 심미주의 예술관을 주장한 사상가인 점만 파악해도 충분하다. 심미주의 예술관의 경우 굳이 사상가까지는 몰라도 문항을 푸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모르는 사상가라고 당황해하지 말자. 심미주의 예술관 내용과 제시문을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다.

을은 음악이 덕이 있는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함을 강조한 점에서 도덕주의 예술관을 주장한 플라톤임을 알 수 있다.

선지 설명

ㄱ. 심미주의 예술관은 예술의 외재적 가치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다. 외재적 가치란 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내재적 가치란 예술 그 자체가 갖는 가치를 의미한다. 또한 제시문의 "음악의 형식은 음 자체의 결합이며, 음악미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음과 음의 예술적 결합에 달려 있을 뿐이다."라는 구절에서 갑이 예술의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ㄴ. 도덕주의 예술관은 예술이 올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는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플라톤은 예술이 올바른 품성 도야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제시문의 "좋은 음악의 노랫말은 덕을 지닌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한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ㄷ. 갑만의 입장으로 적절한 보기이다.

심미주의 예술관은 예술이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예술이 도덕, 정치 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갑에 따르면, 음악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도덕주의 예술관은 예술이 도덕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도덕성에 어긋나는 예술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플라톤은 예술이 국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을에 따르면, 음악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ㄹ. 갑만의 입장이므로 갑과 을의 공통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심미주의 예술관은 예술의 내용보다 예술 그 자체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갑에 따르면, 음악에서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다.

반면, 도덕주의 예술관은 예술의 내용이 도덕적 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을에 따르면, 음악에서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05

다음 사상가의 예술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학년도 9평]

아름다움[美]은 대상의 완전함, 즉 정확한 비례와 균형에서 나온다. 진리[眞]가 완전하듯이 미 역시 완전해야 하고, 이는 동시에 도덕적인 좋음[善]을 뜻한다. 한편, 예술은 진리를 모방하는 것이다. …(중략)… 예술가들로 하여금 선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게 하고 시민이 이런 작품에 익숙해지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품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플라톤

고대 그리스의 미(美)관 ★
모방론★
아름다움(미)=도덕적인 좋음(선)

① 예술이 도덕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아름다움이 무질서한 대상에도 존재한다고 본다.
③ 예술은 사회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④ 예술에 대한 평가는 도덕적 가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난 아름다움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고대 그리스의 선미(善美) 사상
진리
아름다움 — 선함

선지 제시문
질서·비례, 균형
재진술(paraphrasing)
≒ 같은 의미로 / 이해해주기 / 연결해주기

정답 ①

제시문 설명

플라톤의 도덕주의 예술론이다.
→ 고대 그리스 사상가

선지 설명

① 도덕주의 예술론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플라톤은 예술이 도덕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플라톤은 예술이 진리를 모방해야 한다고 본다.

②, ③, ④, ⑤ 도덕주의자 플라톤은 예술에 있어서 '질서', '사회적 선(善)', '도덕적 가치'를 추구한다. 또한 플라톤은 예술가의 창작 행위는 현실을 초월한 이상 세계인 이데아 세계의 '미(美)의 이데아'를 모방한 것일 뿐이라고 본다. 즉 플라톤은 예술가가 모방함으로써 만들어낸 예술품의 아름다움보다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움[美]의 이데아가 있다고 본 것이다.

Tip 플라톤의 모방론적 예술관 깊게 알아보기

〈플라톤의 모방론적 예술관〉

추한 것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화는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그 반대되는 것들은 좋은 성품을 닮았으며 또한 그것을 모방한 것이다. 건강에 좋은 곳에 거주함으로써 건강해지듯,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게 된다. 복잡 미묘한 리듬도 온갖 종류의 운율도 추구하지 말고,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삶을 나타내는 리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 [플라톤, 『국가』]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6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수능]

도덕주의

예술의 사명은 생명에 대한 경건한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 등을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작가는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는 것에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작가의 견해가 [㉠]고 생각한다.

심미주의

① 예술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심미주의가 강조하는 내용

③ 예술은 감정을 순화하여 인격 함양을 도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도덕주의가 강조하고, 심미주의는 거부하는 내용

④ 예술과 도덕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예술이 미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심미주의는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미=아름다움) 미적가치

정답 ③

제시문 설명

도덕주의 예술관(톨스토이)의 입장에서 심미주의 예술관(와일드)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도 제시문에 근거하여 해당 사상가들이 어떤 예술관에 속하는지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에는 도덕주의가 심미주의를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설명

① 심미주의는 예술은 도덕적 평가와 무관해야 한다고 본다.
② 심미주의는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③ 심미주의와는 달리 도덕주의는 예술이 인간의 인격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도덕주의가 심미주의에게 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④ 심미주의는 예술과 도덕은 무관하다고 본다.
⑤ 심미주의는 예술이 도덕과 무관하게 오로지 미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라고 본다.

Tip 도덕주의와 심미주의 비교 갚게 알아보기

	① 도덕주의	② 심미주의(예술 지상주의)
예술의 가치	예술은 올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	예술은 예술 그 자체의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	예술의 사회성 강조, 예술은 도덕적 선을 지향해야 한다. → 도덕성에 어긋나는 예술은 규제되어야 한다.	예술의 자율성 강조, 예술은 도덕적 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에 반대한다.
비판점(한계)	• 예술의 도덕적·사회적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 → 예술의 질적 저하 초래 가능성	비윤리적 예술이 정당화될 수 있다.

07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6평]

음악[樂]은 즐거움이다. 즐거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으며 사람의 음성과 동작에는 성정(性情)의 변화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군자는 음악을 통해 도(道)를 얻음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욕망 채움을 즐거워한다. 〈도로써 욕망을 제어하면 즐거워도 혼란하지 않으며, 욕망으로 인해 도를 잃으면 혼란해져서 즐겁지 않게 된다.〉 유교

보 기

ㄱ. 인간의 성정과 무관한 음악은 있을 수 없다.
ㄴ. 음악은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ㄷ. 예법에 맞는 음악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ㄹ. 음악에 대한 도덕적 규제는 음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유교의 예악 사상을 담고 있는 글이다. 이 문항은 독해만으로도 모든 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성격이 수험서인 만큼 여기서는 제시문과 선지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선지 설명

ㄱ. 인간의 성정에는 즐거움의 감정이 포함된다. 제시문을 보면 "즐거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즉, 모든 사람은 자기 성정에 즐거움의 감정을 가진다. 그리고 "음악은 즐거움"이므로, 인간의 성정과 무관한 음악은 있을 수 없다.

ㄴ. 제시문을 보면 군자는 음악을 통해 도(道)를 얻음을 즐거워한다 하였다.

ㄷ, ㄹ. 제시문에 따르면 도로써 욕망을 '제어'해야 참된 즐거움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일단 ㄷ 선지가 해결된다. 또한, 제시문에서 "욕망으로 인해 도를 잃으면 혼란해져서 즐겁지 않게 된다."라고 했으므로, "도로써 욕망을 제어"하는 도덕적 규제는 오히려 음악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음악은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ㄹ선지도 해결된다.

Tip 유교의 예약 사상 깊게 알아보기

- 『예기』 : "음악을 통한 교화를 잘 행하면 백성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들에게 덕(德)을 볼 수 있다."
- 공자 : "시(詩)에서 일으키고, 예(禮)에서 서며, 악(樂)에서 완성된다."
  → 예술은 도덕성과 상호 보완 관계이면서 도덕적 품성의 함양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 인간은 예술을 통해 인격을 닦음으로써 진정한 인간다움[仁]에 이를 수 있다.
- 정약용 : 음악은 인간의 품성 향상에 기여한다. 음악을 통해 인격을 갈고닦아 성인(聖人)이 될 수 있으므로 음악을 가까이 해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9평]

갑 : 예술은 드러내고 예술가를 숨기는 것이 예술의 목표이다.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불필요하다. 아름다운 사물을 오직 아름다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을 : 예술은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다. 예술은 오직 인류애를 위한 것이며, 예술의 목적은 미(美)도 아니고 쾌락은 더더욱 아니다.

심미주의 ← 갑

도덕주의 ← 을

보 기

ㄱ. 갑은 예술에는 예술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다고 본다.
*심미주의와 예술 지상주의는 유사한 입장.

ㄴ. 을은 예술 활동에서 미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선(善)을 증진하는 예술을 좋은 예술로 본다.

ㄹ. 갑은 예술의 독립성을, 을은 사회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도덕주의와 사회 참여론(참여 예술론)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 : 심미주의자 와일드의 입장이다.

을 : 도덕주의자 톨스토이의 입장이다.

선지 설명

ㄱ. 심미주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한다.

ㄴ. 도덕주의는 예술 활동에서 도덕을 추구하지만 아름다움[美]의 요소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ㄷ. 심미주의는 예술이 선(善)을 증진한다고 해서 좋은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 반면, 도덕주의는 선(善)을 증진하는 예술을 좋은 예술로 본다.

ㄹ. 심미주의는 예술이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보며, 도덕주의는 예술이 사회적 선(善)을 증진해야 한다고 본다.

Tip 톨스토이의 도덕주의 예술관 깊게 알아보기

〈톨스토이의 도덕주의 예술관〉

• 톨스토이 : "예술 작품의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 예술의 사명은 인간의 행복이 인간 상호 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 현재 지배하고 있는 폭력 대신 신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하는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09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수능]

갑 : 음악은 즐거움[樂]으로, 사람의 감정상 없을 수 없지만 도리에 맞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 선왕은 천하를 크게 바로잡아 조화시키고자 예(禮)와 함께 음악을 제정했다. **순자**

을 : 음식의 목적이 즐거움이 아닌 것처럼 예술의 목적도 즐거움이 아니다. 인간 상호간의 교류 수단인 예술의 목적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다. **톨스토이**

보 기

ㄱ. 갑은 예에 부합하는 미적 욕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도리(예)에 맞는 경우에 인정(도덕주의)

ㄴ. 갑은 예술이 ~~예술 안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심미적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예술 체험을 통해 도덕감이 고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갑 : 천하의 조화, 을 : 이웃에 대한 사랑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은 순자, 을은 톨스토이이다. 보통 이 단원의 문항은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와 '심미주의'의 관점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항은 특이하게도 갑과 을 모두 도덕주의 예술관에 속한 사상가들이다. 그리고 선지 부분에 가서야 심미주의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출제 방식은 앞서 2014학년도 6평 9번 문항에서도 보이는 것이었다. 도덕주의와 심미주의에 관한 교과 내용은 그 기출 문항 해설을 찾아 참고하기 바란다. 일단 본 문항은 독해와 추론으로 모든 선지가 판단 가능하게 구성된 문항인 바, 본서의 성격이 수험서인 만큼 여기서는 제시문과 선지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선지 설명

ㄱ. 갑 제시문을 보면 "음악은 즐거움으로, 사람의 감정상 없을 수 없지만 도리에 맞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라고 나온다.
이상을 종합하면 갑(순자)이 예에 부합하는 미적 욕망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갑 제시문을 보면 "선왕은 천하를 크게 바로잡아 조화시키고자 예(禮)와 함께 음악을 제정했다."라고 나온다. 이를 통해 갑의 입장에서 예술의 목적에 예술 바깥의 요소도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술은 예술 안에서만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ㄷ. 을 제시문을 보면 "예술의 목적도 즐거움이 아니다.", "예술의 목적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나온다. 이를 통해 을(톨스토이)이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심미적 가치보다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ㄹ. 제시문을 보면, 갑은 음악이 도리에 맞는 선에서 사람의 감정과 연관된다고 보며 음악 제정은 천하의 조화를 위함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을은 예술의 목적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갑과 을은 모두 예술 체험을 통해 도덕감이 고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Tip 음악에 대한 유교 사상의 입장 깊게 알아보기

- 사람으로서 인(仁)하지 않으면 예(禮)를 어떻게 하며, 사람으로서 인하지 않으면 음악(樂)을 어떻게 하겠는가?
- 선왕(先王)들은 우아한 음악을 제정하고 이끌어 음악을 즐기면서도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였다. 소리의 단순하고 복잡한 가락과 뾰족하고 둥그스름한 장단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악한 기운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한다. (중략) 음악은 서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사양하는 예를 지킬 수 있게 하므로 음악이란 천하를 크게 바로잡는 것이고 알맞게 조화시키는 규범이다.
- 음(音)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고 악(樂)은 사물의 이치와 통한다. 이런 까닭에 짐승은 소리만 알고 음을 알지 못하며, 보통 사람은 음만알고 악을 모르며, 오직 군자만이 악을 안다. 그러므로 소리를 살펴 음을 알고, 음을 살펴 악을 알면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가 갖춰진다. 예와 악을 터득한 상태를 두고 덕이 있다고 말하니 이른바 덕이라는 것은 예악(禮樂)에서 얻음이 있음을 뜻한다.

▶ 공자는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음악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음악과 인간의 도덕적 성품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순자 또한 음악은 사람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사양하는 마음을 기르고 예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해 주며, 음악을 통해 통치자는 천하를 바로잡아 조화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유교 사상에서는 음악이 단순한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인격을 도야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되게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음악의 정치적 ·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0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6평]

갑 : 예술 세계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허용된다. 중요한 것은 오차 없는 진실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짓이다. 아름다운 것에서 추악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심미주의 ←

을 : 최고의 예술은 질서와 사랑을 통해 구현되며, 반항적이고 저급한 피조물을 거룩하게 만든다. 예술의 목적은 인간의 종교를 강화하고, 인간의 윤리적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데 있다. 예술은 이런 일들을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도덕주의 ←

보 기

ㄱ. 갑은 예술의 본질을 오직 예술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예술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 윤리적 이상을 현실에 구현
ㄷ. 을은 도덕적 목적이 예술 작품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예술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갑 : 심미주의, 와일드
을 : 도덕주의, 톨스토이

선지 설명

ㄱ. 심미주의는 예술의 본질이 예술 안에 있다고 본다.
ㄴ. 도덕주의는 예술이 질서와 사랑이라는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본다.
ㄷ. 도덕주의의 입장에 해당하는 보기다.
ㄹ. 도덕주의만 동의할 보기다. 심미주의는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추구해야 하며, '공동체 질서 유지'와 무관하다고 본다.

〈갑 제시문 해석〉
ex)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빌』에서 주인공이 검을 휘둘러 다수를 살상하는 장면을 보고
→ 잔인하고 비도덕적이다. " 타락한 사람
→ 피의 표현이 좋다. 연출력이 돋보인다. " 교양있는 사람

11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9평]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과거보다 교묘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중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대중 예술에 투사된 세계는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는 기만적 대리 만족이다. 문화 산업은 대중을 통제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한다. 개인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경제적 · 사회적 장치의 산물이다. 문화 산업이 독점한 대중 예술은 개인의 특성을 획일화하여 자신의 논리를 관철한다. 아도르노

보 기

ㄱ. 대중 예술품의 주된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 경제적 정치의 산물

ㄴ. 대중 예술의 영역과 권력의 영역은 상호 무관하게 작동한다.
→ 지배 계급의 권력이 작동하는 영역

ㄷ. 대중 예술은 현실적 모순을 은폐하고 대중 의식을 조작한다.

ㄹ. 대중 예술의 감상은 획일화되지 않은 개인의 고유한 체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아도르노이다.

주장 : 문화 산업적 대중 예술은 대중을 기만하고 통제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수단이다.

근거1 : 대중 예술에 반영된 세계는 갈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대리 만족을 통해 대중을 기만한다.

근거2 : 문화 산업은 대중을 통제하여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한다.

근거3 : 문화 산업의 영향을 받는 개인은 경제적, 사회적 장치의 산물이다.

근거4 : 문화 산업이 독점한 대중 예술은 개인의 특성을 획일화하여, 문화 산업의 논리를 관철한다.

선지 설명

ㄱ.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문화 산업 하에 생산된 대중 예술품은, 현대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문화 산업이 독점한 경제적 장치의 산물로서의 대중 예술품은 '경제적 가치' 즉, '교환 가치'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곤 한다.

ㄴ.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은 문화 산업을 통해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이념이 재생산된 것이라고 본다. 즉 아도르노에게 대중 예술은 지배계급이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아도르노에게 대중 예술은 '권력의 영역'과 관련이 깊다.

ㄷ. 제시문에서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에 투사된 세계는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는 기만적 대리 만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중 예술이 현실적 모순을 은폐하고, 대중들을 기만하는(≒조작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ㄹ. 제시문에서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독점한 대중 예술이 '개인의 특성을 획일화'하여 자신의 논리를 관철한다고 비판한다. 즉,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 하에서 대중 예술의 감상이 획일적으로 이뤄질 뿐이며, 개인의 고유한 체험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Tip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론 깊게 알아보기

• 문화 산업 : 문화 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다. → 문화 생산물이나 서비스가 상업적 전략하에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점을 비판하면서 대중문화라는 용어보다는 '문화 산업'이라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현대 예술은 자본에 종속되어 문화 산업으로 획일화되었다. → 문화 산업은 '획일화된 문화 상품'을 대량 생산하여 대중들이 소비하게 함으로써, 대중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거나 상상하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매체가 제공하는 문화 상품을 그대로 수용하고 소비하도록 만든다. • 문화가 자본에 종속될 경우 인간의 정신적·창조적 활동의 산물인 문화의 본연의 가치가 훼손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2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수능]

갑 : 예술은 사회에 저항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은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한다. 고급 예술은 상품화되었다 하더라도 자율성을 주장하지만, 대중문화는 산업을 자처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그들의 의식을 속박한다. 아도르노

을 : 예술은 삶의 일부를 형성한다. 경험으로서 예술 작품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 오늘날 미적인 것은 모든 삶의 영역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삶 속에서도 대중 예술에서도 미적인 것의 구현은 가능하다. 벤야민

① 갑 : 문화 산업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사회를 몰개성화한다.
② 갑 : 예술 본연의 목적은 일상적 삶의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다.
③ 을 : 대중 예술은 예술과 삶을 통합시키기보다는 분리시킨다.
④ 을 : 예술 작품은 삶 속에서 기능하지 않아야 미적 가치를 지닌다.
⑤ 갑, 을 : 대중 예술은 감상자를 사유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한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갑 :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론(대중 문화 비판론)
을 : 벤야민의 문화 산업론(대중 문화 옹호론)

선지 설명

① 아도르노가 문화 산업을 비판하는 지점이다. 아도르노는 '대중 문화는 산업을 자처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그들의 의식을 속박'하며, 이러한 대중 문화의 산업적 특성은 '자율성을 주장하는 고급 예술'과 다른점이라고 본다. 또한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사회를 획일화한다고 본다. 획일화한다는 것은 곧 개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므로 몰개성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아도르노는 제시문에서 "예술은 사회에 저항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예술의 목적을 논하고 있다.

③, ④ 벤야민은 제시문에서 '예술은 삶의 일부를 형성'하고, '경험으로서 예술 작품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고 논하고 있다. 또한 '미적인것은 모든 삶의 영역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논하며, 결론적으로는 '대중 예술에서도 미적인 것의 구현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벤야민의 입장에서 대중 예술이 예술과 삶을 통합시키고 예술 작품이 삶 속에서 기능해야 미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아도르노는 반대하고, 벤야민만 동의할 명제이다.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대중을 기만하고 그들의 의식을 속박하여 감상자가 사유의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한다고 본다.
반면, 벤야민은 대중 예술이 예술의 신비적, 종교적 요소를 제거하면서 감상자의 비판적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즉, 벤야민은 대중 예술이 감상자를 사유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할 수 있다고 본다.

Tip 아도르노와 벤야민의 대중 문화에 대한 입장 깊게 알아보기

아도르노 : 대중 예술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그가 보기에 대중 예술은 더 이상 창조적인 도식을 산출하지 못하고 틀에 박힌 도식만을 만들어냄으로써 대중의 지성과 판단력을 점차 마비시키고 만다.

벤야민 : 대중 예술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만 보는 이분법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날카롭게 통찰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작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기존의 예술 작품이 지녔던 신비감, 즉 아우라(Aura)를 사라지게 했지만, 동시에 누구나 쉽게 미적 체험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광제, 『예술, 인문학과 통하다.』]

1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8학년도 6평]

> 예술 작품에 대한 기술적 복제는 수공적인 복제보다 더 큰 독자성을 지니며, 예술 작품의 존속에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않는다.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위축된다. 그러나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영역에서 대량 복제 기술은 대중들로 하여금 개별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시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중 예술이 기존의 제의(祭儀) 의식에 바탕을 둔 예술을 밀어 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예술 작품은 새로운 기능을 지닌 형상물이 된다. 벤야민

① 대중 예술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가치를 높여 준다.
② 대중 예술은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 미적 체험을 제공한다.
③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은 예술 작품의 신비감을 축소시킨다.
④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은 대중과 예술 작품의 거리를 좁힌다.
⑤ 대중 예술에서는 예술의 숭배 가치가 줄고 전시가치가 늘어난다.

* 아우라(Aura)
: 원본의 예술 작품이 갖는 고유성·신비감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벤야민이다.

벤야민은 기술 복제 시대에서는 예술 작품의 고유성(아우라)이 붕괴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벤야민은 복제된 예술이 기존 예술의 경계를 허물면서 작품 자체에 혁명이나 진보를 향한 새로운 혁신적 방법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벤야민의 입장에서 대중 예술이란 아도르노가 혹평했던 것처럼 옳지 못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거나 그 속의 인간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싸구려 유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벤야민은 이를 '예술의 기능 전환'이라고 명명했다.

다만 벤야민은 현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따라서 선지는 제시문에 근거하여 독해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하겠다.

> 예술 작품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복제가 가능하였다. 도제들은 예술적 수련을 위해 복제를 하였고, 예술의 대가들은 작품의 보급을 위해 복제를 하였으며, 제3자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복제를 하였다. 그러나 기술적 복제는 불가능했다. 석판 인쇄의 등장과 함께 복제 기술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는 판화술로 이어졌고, 다시 사진술의 영상 복제 기술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1900년 이후에는 전래적인 예술 작품 전체를 복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복제라 하더라도 한 가지 요소가 빠져있다. 시간과 공간에서 갖는 유일무이한 현존성, 즉 일회적 현존성이다. [벤야민,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 아도르노(Adorno, T. W.) : 대중 예술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그가 보기에 대중 예술은 더 이상 창조적인 도식을 산출하지 못하고 틀에 박힌 도식만을 만들어냄으로써 대중의 지성과 판단력을 점차 더 마비시키고 만다.
- 벤야민(Benjamin, W.) : 대중 예술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만 보는 이분법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날카롭게 통찰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작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기존의 예술 작품이 지녔던 신비감, 즉 아우라(Aura)를 사라지게 했지만, 동시에 누구나 쉽게 미적 체험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광제, 『예술, 인문학과 통하다』]

- 벤야민 : 아우라(Aura)란 그 예술이 진품이거나 일회적이거나 혹은 원본이라는 데서 나오는 독특하고 신비한 분위기이다. 그런데 이 아우라는 기술 복제 시대에 이르러 처참히 무너져 버리고 만다. 구글은 모나리자라는 검색어로 0.32초 만에 152만 개의 복제된 이미지를 검색해 주고 집 앞 이발소의 달력에는 모나리자가 오묘한 미소를 띠며 낡아 빠진 면도날을 쳐다보고 있다. 모나리자는 도처에 존재한다. 이러한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는 아우라의 붕괴를 가져오지만 이로 인해 예술의 신비적 · 종교적 요소가 제거되면서 감상자의 비판적 수용이 가능해진다.

[신혜경, 『벤야민&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선지 설명

① 벤야민은 대중 예술이 원작이 갖는 '유일성'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중 예술은 대량 복제 기술이 적용되어 복제품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제시문의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영역에서 대량 복제 기술은 대중들로 하여금 개별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한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벤야민은 대량 복제 기술이라는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 대중 예술이 미적 체험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는 제시문의 "대량 복제 기술은 대중들로 하여금 개별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한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벤야민은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이 예술 작품의 신비감을 축소시킨다고 본다. 이는 제시문의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위축된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아우라'는 예술 작품 원본이 갖고 있는 고유성 및 신비감을 말한다.

④ 벤야민은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을 통해 대중이 예술 작품에 더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벤야민에 따르면,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은 대중과 예술 작품의 거리를 좁힌다. 이는 제시문의 "대량 복제 기술은 대중들로 하여금 개별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한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벤야민에 따르면, 대중 예술에서는 대량 복제 기술을 통해 예술의 숭배 가치가 줄고 전시가치가 높아진다. 이는 제시문의 "이러한 현상은 전시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중 예술이 기존의 제의(祭儀) 의식에 바탕을 둔 예술을 밀어 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8학년도 수능]

- 만약 즐거움을 위한 시가 훌륭한 법질서를 갖는 국가 안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시를 받아들일 것이다. 시가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인간 생활에 이로운 것임이 밝혀진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시인이나 설화 작가들이 모방할 경우에는, 용감하고 절제 있고 경건하며 자유인다운 사람들을 모방해야만 한다. 반면에 그 어떤 창피스러운 것도 모방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것을 모방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 플라톤

보 기

ㄱ. 예술은 선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ㄴ. 예술은 진리를 왜곡할 경우 비판받아야 한다.
ㄷ. 예술에서 미와 선의 내용은 유사할 필요가 없다.
ㄹ. 예술은 사물의 실재보다 외관을 아름답게 모방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제시문 설명

도덕주의 예술론, 플라톤의 모방론적 예술론이다.
이데아의 모방

선지 설명

ㄱ. 플라톤은 예술이 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제시문의 "시가 훌륭한 법질서 …", "시가 국가와 인간 생활에 이로운 것임이 밝혀진다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ㄴ. 플라톤은 예술은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어떤 창피스러운 것도 모방하지 말아야 하며 …"에서 플라톤이 예술의 모방에 있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ㄷ. 플라톤은 예술이 미와 선의 이데아를 모방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ㄹ. 플라톤은 예술은 실재(이데아)를 모방해야 한다고 보았지, '실재보다 외관을 아름답게' 즉, 거짓으로 외관을 꾸며야 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Tip 플라톤 예술관 깊게 알아보기

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것이 음악 교육이네. 리듬과 하모니가 올바른 자에게는 우아함을, 그릇된 자에게는 추악함을 깨닫도록 할 테니까 말이네. 또한 그것은 예술이나 자연에 있어 누락된 것과 결함을 알도록 해 주네. 그리고 음악을 진정한 안목으로 즐길 때 그의 정신 속에서 나온 선은 기품 높고 정결해지네. 그리하여 어려서부터 악을 비난하고 혐오하게 됨은 물론, 자라서는 오래 사귄 친구처럼 선을 알아보고 환영하게 될 것이네. [플라톤, 『국가』]

15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9학년도 6평]

추한 것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화는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그 반대되는 것들은 좋은 성품을 닮았으며 또한 그것을 모방한 것이다. 건강에 좋은 곳에 거주함으로써 건강해지듯,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게 된다. 복잡 미묘한 리듬도 온갖 종류의 운율도 추구하지 말고,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삶을 나타내는 리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 플라톤

보 기

ㄱ. 예술은 독창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심미 활동이어야 한다.
→ 도덕성 구현

ㄴ. 예술은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

ㄷ. 예술가는 미(美)를 추구하므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좋은 성품 닮은 예술 ⇨ 사회에 기여

ㄹ. 예술가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도덕주의 예술론,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모방론적 예술론이다.
플라톤은 예술과 윤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예술은 선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

> 예술 작품이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곧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준다. [플라톤, 『국가』]

선지 설명

ㄱ. 플라톤은 예술을 독창성이 아니라 사회적 선(善)을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ㄴ. 플라톤은 예술이 '올바른 품성 함양, 삶의 모범 제공' 등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다.

ㄷ. 플라톤도 예술이 미(美)를 추구하는 활동임은 인정하지만, 예술이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보지는 않는다.

ㄹ. 플라톤은 제시문에서 '좋은 성품을 모방'한 것이 '조화'라고 보았다. 이는 곧, 예술이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면, 영혼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음과 연결된다.

플라톤

bad 부조화	good 조화
부정적인 내용(추함) 나쁜 리듬 복잡 미묘한 리듬	긍정적인 내용 (아름다움, 친근함) 예절&용감한 삶을 나타내는 리듬
∥ 나쁜 성품	∥ 좋은 성품

Tip 플라톤의 도덕주의적 예술관 깊게 알아보기

> 우리는 예술 작품에서 나쁜 성격과 무절제와 야비함과 추함을 그리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우리의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면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장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네. …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난 장인들을 찾아내야 하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건강한 환경에서 살게 되어 혜택을 받을 것이네.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예술 작품이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곧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투를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이네.
> 시가(詩歌) 교육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첫째, 리듬과 선법은 그 무엇보다 더 깊숙이 혼의 내면으로 침투하며 우아함을 가져다줌으로써 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네. 그것들은 누가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를 우아하게 만들고, 누가 나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를 그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만드네. 둘째, 이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예술 작품이나 자연의 결점들을 가장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이네. 그러면 그는 그것들의 추함이 역겨워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고 반길 것이며,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게 혼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신도 아름답고 훌륭해질 것이네. [플라톤, 『국가』]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6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평]

갑 : 예술의 목표는 진리라는 생각 때문에 시(詩)만을 위한 시는 시적 품위가 결여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술이란 본래 심미적 가치만을 추구하기에 시 그 자체 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도 염두에 두지 않고 쓰인 시만이 진정한 시이다.

심미주의←

을 : 예술의 사명은 신(神)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인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따라서 예술은 인류애가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 교육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도덕주의←

① ~~갑~~ : 예술의 심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 도덕주의

② ~~갑~~ : 예술이 도덕적 진리를 추구할 때 심미적 가치가 더욱 고양된다.
→ 도덕주의

③ 을 : 예술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감정의 고양에 기여해야 한다.

④ ~~을~~ :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 예술지상주의≒심미주의

⑤ 갑, ~~을~~ : 예술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 : 심미주의(애드거 앨런 포우)
을 : 도덕주의(톨스토이)

선지 설명

①, ② 심미주의자는 예술의 심미적 가치는 도덕과 무관하다고 본다.
③ 도덕주의자가 동의할 선지다.
④ 도덕주의자는 예술은 도덕을 위한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본다.
⑤ 심미주의자만이 동의하고, 도덕주의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심미주의는 예술이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반면, 도덕주의는 예술이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 즉 도덕주의는 예술이 도덕에 제한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Tip 도덕주의와 심미주의 비교 깊게 알아보기

	① 도덕주의	② 심미주의(예술 지상주의)
예술의 가치	예술은 올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	예술은 예술 그 자체의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	예술의 사회성 강조, 예술은 도덕적 선을 지향해야 한다. → 도덕성에 어긋나는 예술은 규제되어야 한다.	예술의 자율성 강조, 예술은 도덕적 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에 반대한다.
비판점(한계)	• 예술의 도덕적·사회적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 → 예술의 질적 저하 초래 가능성	비윤리적 예술이 정당화될 수 있다.

17

갑, 을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갑 : 신을 찬양하고 덕을 찬양하는 시(詩)만을 이 나라에 받아들여야 한다. 시를 통해 즐거움만 누리려 한다면 이성 대신 즐거움과 괴로움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도덕주의(플라톤)**

을 : 예술가는 도덕적 공감을 지니지 않는다. 예술가에게 도덕적 공감은 용납될 수 없는 구태의연한 양식에 불과하다. 예술가는 단지 아름다움의 창조자일 뿐이다. **심미주의(와일드)**

〈사례〉

A는 웹툰 작가로 포털 사이트에 작품을 연재할 예정이다. 어떤 작품을 그려야 할지 A는 고민하고 있다.

① 갑 : 독자들이 ~~오로지 즐거움만~~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② 갑 : 독자들이 도덕적 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 도덕주의

③ 을 : 독자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달하도록 하세요.

④ 을 : 독자들에게 ~~도덕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 도덕주의의 입장

⑤ 갑, ~~을~~ :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세요. — '미, 예술' 그 자체를 추구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갑 : 도덕주의(플라톤)

을 : 심미주의(와일드)

선지 설명

① 플라톤 제시문에서 "즐거움만 누리려 한다면 이성 대신 즐거움과 괴로움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예술 작품을 통해 오로지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도덕주의에서는 예술을 통해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③, ④ '권선징악, 도덕적 공감'과 같은 도덕적 주제는 심미주의가 예술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아니다.

⑤ 도덕주의만의 입장이다. 심미주의에서는 '미', '예술' 그 자체를 추구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갑 : 복제 기술의 발달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사라지지만 누구든 예술 작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중예술의 발달은 대중의 각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을 집단적 주체로 형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벤야민**

을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은 돈으로 일원화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대중문화는 문화 산업으로 전락하게 되며, 규격품을 만들어 내듯이 인간을 획일화시켜 능동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아도르노**

① 갑 : 복제 기술의 발달은 대중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② 갑 : 예술 작품의 아우라 소멸은 대중의 예술 비평 활동을 ~~위축~~시킨다.

③ 을 : 문화 산업의 확산은 인간의 상품화와 몰개성화를 조장한다.

④ 을 : 문화의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⑤ 갑, 을 : 문화의 대중화는 대중의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 갑, 을 서로 다른 방식의 '영향'

갑 : 대중이 비판적 집단이 되는 데 기여
을 : 대중의 비판적 사고를 막고, 획일화 · 몰개성화함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갑 : 벤야민(현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가볍게 보자), 을 : 아도르노

선지 설명

①, ② 벤야민은 복제 기술의 발달로 예술 작품의 아우라가 사라졌기에 예술 작품에 대해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는 곧 예술 작품의 아우라 소멸은 대중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며, 대중의 예술 비평 활동을 촉진한 것으로 봐야 한다.

③, ④ 아도르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가치는 오직 경제성으로 환원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문화 산업은 인간을 단순한 물질적 향락의 소재로 간주하거나 혹은 교환가치로 환원 가능한 것으로만 간주한다. 이는 곧 문화 산업이 '인간의 상품화'를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도르노는 대중문화가 문화 산업화되어, 인간이 획일화된다고 말한다. 이는 곧 문화 산업이 인간의 몰개성화를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벤야민은 문화의 대중화를 통해서 대중이 예술을 향유하고 비판하는 집단적 주체로 각성한다고 본다. 반면, 아도르노는 문화의 대중화로 인하여 대중들이 '능동적으로 사유'하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벤야민과 아도르노는 문화의 대중화가 대중의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다만 영향을 주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9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0학년도 9평]

> 시(詩)란 사람의 마음이 세상 사물이나 풍속과 감응하여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대상에는 올바른 것과 사악한 것이 있으니, 시에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다. 우리는 시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여, 올바른 시는 모범으로 삼고 사악한 시는 자신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교
>
> 예술 작품을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 → 도덕주의

보 기

ㄱ. 시는 선악 판단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심미주의
ㄴ. 시를 감상할 때에는 윤리적 성찰을 겸해야 한다.
ㄷ. 시는 그 사회의 도덕성을 엿볼 수 있는 거울이다.
ㄹ. 올바르지 못한 시도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송나라 시기 유학자 주희의 『시경집전』「서(序)」에서 온 글이다. 제시문에서는 시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으며 시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여 올바른 시는 모범으로 삼고 사악한 시는 자신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라 하였다. 이 입장은 교육과정상 '도덕주의'라 할 수 있다.[1)]

선지 설명

ㄱ. 제시문에서 "시에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다."라 하고, 또 "올바른 시는 모범으로 삼고 사악한 시는 자신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 하였으므로 이 선지는 잘못된 것이다. 이 제시문의 진술 자체가 이미 시에 대해 선악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ㄴ. 제시문에서 "우리는 시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여, 올바른 시는 모범으로 삼고 사악한 시는 자신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 하였다.

ㄷ. 제시문에서 "시(詩)란 사람의 마음이 세상 사물이나 풍속[2)]과 감응하여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대상에는 올바른 것과 사악한 것이 있으니, 시에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다."라 하였다. '시'가 '풍속'과 감응하여 표현된 것이며 그 대상에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이 있다고 하므로, 이 선지 역시 제시문 내용에 부합한다.

ㄹ. 제시문에서 "사악한 시는 자신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 하였다.

1) 어디까지나 교육과정에서 쓰는 틀에 맞추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기실 교육과정상에 나와 있는 도덕주의와 심미주의의 구분은 서양 미학에서 온 것이며 주희의 사상이 교육과정상의 도덕주의에 얼마나 정확히 들어맞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미학에서 도덕주의라는 것도 극단적 도덕주의와 온건한 도덕주의 등 세분화되기도 하며, 주희의 예술관이라는 것도 주희 전후의 유학자들에 비해 독특한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2) 사실 해당 원문을 추적해보면 여기에 '풍속' 얘기는 없다. 아마 출제자가 선지를 먼저 만들어놓고 이에 부합하는 제시문을 구성하기 위해 원문에 없는 말을 덧칠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

Tip 유교의 도덕주의 깊게 알아보기

유교 :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 만물이 흩어져 다르게 있으니 예(禮)가 만들어져 행해진다. 흘러 쉼이 없고 합치어 같게 되는 악(樂)이 그에 흥성한다. 봄에 만들고 여름에 자라는 것은 인(仁)이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의(義)이다. 인은 악에 가깝고, 의는 예에 가깝다. 악은 화(和)를 돈독히 하고 예는 분별하여 악으로 하늘에 응하고 예는 땅에 맞추니, 예악이 밝게 갖추어져 천지가 각기 그 일을 얻는다.

▶ 유교에서는 예술이 사람을 도야시키며 사회 질서를 안정되게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즉 유교는 풍습을 순화하고 개량하는 예술의 정치적 · 교육적 효과를 중시했으며,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예술의 사회 작용을 강조하였다.

20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가) 악(樂)은 '같음'을, 예(禮)는 '다름'을 위한 것이다. 같으면 서로 친하게 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악이 화합을 극진하게 하고 예가 순서를 극진하게 하여, 안으로 화합하고 밖으로 질서를 이룬다면, 백성은 그 안색을 보고 서로 다투지 않게 되며, 그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 유교 도덕주의

(나) 악(樂)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귀로 듣기에 즐거우나, 백성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일삼는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여러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어도 천하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묵자 비악론

예악의 사치스러움 비판

보 기

ㄱ. (가) : 예와 악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ㄴ. (가) : 예악은 정서의 순화와 언행의 교화 모두에 기여한다.
ㄷ. (나) : 음악은 실용적 관점보다 심미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ㄹ. (가), (나) :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 실용적 관점 중시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묵자의 비악(非樂)론

임금과 대신들이 악기를 만들어 음악 연주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흙을 긁어모아 악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된다. 만약 임금과 대신들이 큰 종을 두드리고 북을 치고 금과 슬을 뜯고 우와 생을 불며 춤이나 추고 있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는가. 임금과 대신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국가는 어지러워진다. 관리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창고나 나라 곳간은 부실해진다. 농부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콩과 조가 부족해진다. 부인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천과 비단은 많아지지 않는다. [묵자, 『묵자』]

지금 오직 임금이나 대신이 된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듣기만 한다면 국가는 어지러워지고 나라는 위태로워진다. 지금 오직 관리로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듣기만 한다면 창고나 나라 곳간은 부실하게 된다. 지금 오직 농부인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여 듣기만 한다면 콩과 조가 부족하게 된다. [묵자, 『묵자』]

묵자는 유가의 악, 즉 음악을 연주하거나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지만, 생기는 이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사회적 조건에서 화려하게 장사지내고 음악을 들으면서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지배층뿐이었으며, 묵가 집단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묵자가 화려한 장례나 음악과 노래, 춤을 반대한 것은 지배 계층의 특권을 부정한 것이며, 그 까닭은 이런 일들이 모두 피지배 계층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묵자는 철저한 공리주의자였습니다. [김교빈, 이현구, 『동양철학 에세이』]

비악은 음악, 즉 예악(禮樂)의 사치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묵가에게 있어서 예악은 겉치레에나 힘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쓸데없는 낭비로 여겨졌다. 묵자는 생산성과 무관한 당대의 귀족 음악 문화와 유가가 지향하는 예악 제도에 반대하였다. 도에 넘치는 귀족 음악이 노동력과 경제력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지배층이 음악을 즐기며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면 백성들의 삶이 더 곤궁해진다. '무거운 세금을 백성들에게서 부과해 큰 쇠북이나 종, 거문고, 비파, 피리 같은 악기를 만드는 일'을 묵자는 비판한다. 물론 묵자가 음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노동가요를 부정했을 리가 없다.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묵자는 음악이 과연 대다수의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非)'는 부정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악'은 '악'을 반대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음악 예술 일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전통적인 예악에 한정시켜 말했습니다. 묵자는 공자와 맹자가 음란한 음악이라고 비판했던 장나라 음악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묵자가 말하는 비악의 논리는 음악 본디의 미학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와 맹자가 지지하는 전통적인 예악이 기존 체제를 지탱하는 데 큰 구실을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것입니다. 묵자의 비악 논리에 의하면 전통적인 예악이 백성의 큰 근심 해소에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 누구나 음악이 좋고 즐거운 줄 압니다. 그러나 백성의 생활이 그 때문에 도리어 이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음악을 반대하였습니다. [임선영,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

선지 설명

ㄱ. (가) 제시문에서 '악(樂)'이 화합을 극진하게 하고 '예(禮)'가 순서를 극진하게 한 뒤에 백성들이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ㄴ. (가) 제시문에서 '악'과 '예'를 통해 백성들이 '안색을 보고 서로 다투지 않게 되며'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였다. 우선 "서로 다투지 않게" 된다고 넓게 표현하였으므로 예악이 '언'(말[言]로 하는 것)과 '행'(행동[行]으로 하는 것)의 교화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정서적 측면의 순화에도 예악이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ㄷ. (나) 제시문은 '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악에 대해 보기에 아름답고 듣기에 즐거워도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나)는 음악에 대한 실용적 관점을 심미적 관점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다.

ㄹ. 유교는 예악을 통해 '안으로 화합하고 밖으로 질서를 이룬다'고 보고, 또한 백성이 교화되고 순화된다고 보고 있다. 묵가(묵자)는 악과 '백성의 이익'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특히 악기 연주가 '천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Tip 유교의 예악 사상과 예술관 깊게 알아보기

유교의 예악(禮樂) 사상

- 음악은 성현이 즐기는 바로서, 이것으로 민심을 선도할 수 있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이 예악(禮樂)으로 인도하면 백성이 화목해진다. [『순자』]
- 무릇 음(音)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요, 악(樂)은 윤리에서 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소리(聲)]만 알고 음을 모르는 것은 새와 짐승이요, 음만 알고 악을 모르는 것은 우매한 소인이요, 오직 군자만이 악을 알 수 있으니 성을 살펴 음을 알고, 음을 살펴 악을 알고, 악을 살펴 정치를 알게 되면 치도(治道)를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성을 알지 못하는 자와 더불어 음을 말할 수 없고, 음을 알지 못하는 자와는 악을 말할 수 없으니, 악을 알면 예에 가깝게 된다. 예와 악을 터득한 상태를 두고 덕이 있다고 말하니, 이른바 덕이라는 것은 예악에서 얻음이 있음을 뜻한다. [『예기』]

▶ 유교의 예악 사상은 도덕주의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동양의 전통 윤리를 높게 평가하는 신토불이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상 유교의 예악 사상은 단순한 도덕주의가 아니라 '예술과 도덕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 분류된다.

유교 사상에서는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 "시(詩)는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며 무리 지을 수 있게 하고 원망할 수 있게 한다.", "우순(虞舜)의 공덕을 노래한 '소악(韶樂)'은 미(美)를 다하고 선(善)을 다했으나, 무왕이 주(紂)를 정벌한 공을 노래한 '무악(武樂)'은 미는 다했으나 선을 다하지는 못했다." [공자, 『논어』]
- "무릇 음악은 즐거움이며, 도로써 욕망을 제어하면 곧 즐겁되 어지럽지 않게 된다. 욕망으로 도를 잊으면 곧 미혹되어 즐겁지 않게 된다.", "음악이 종묘에서 연주되어 군주와 신하, 아래위가 다 함께 듣는다면 부드럽게 삼가지 않을 수 없고, 집안에서 부자와 형제가 함께 듣는다면 부드럽게 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음악은 하나되는 데를 살펴 부드럽게 조화로운 소리를 정하는 것이다." [『순자』]
- "예의가 서면 귀천의 분별이 분명해지고 음악의 문채가 같게 되면 상하가 서로 화합하게 된다.", "선왕은 음악을 만들 때 인간의 성정(性情)에 근거를 두고 정연한 원칙을 세우고 예의에 맞게 하였다. 천지의 생기의 조화에 맞추고 오행의 이치를 따르게 하며, 양은 산만하지 않고 음은 밀폐되지 않고, 강기(剛氣)가 성내지 않고 유기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다." [『예기』]

▶ 유교의 예술관 :

1) 예술이 사람을 도야시키며 사회 질서를 안정되게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2) 풍습을 순화하고 습속을 개량해 나가는 예술의 정치적 · 교육적 효과를 중시하였으며,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예술의 사회 작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예술의 정치적 · 교육적 효과를 이야기할 때, 예술이 사람들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동시에 사회 윤리적 선(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2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1학년도 6평]

오늘날 대중문화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제 대중문화는 변화 없는 반복적인 오락물을 생산하는 장사가 되었고, 문화의 소비자는 문화 산업의 객체가 되었다. 이처럼 산업화된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문화 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문화 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한다. 아도르노①, ②

①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독창적 예술로 발전하기 어렵다.
② 문화 산업은 획일화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③ 문화 산업의 표준화된 양식은 문화 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④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의적 사고를 위축시킨다.
⑤ 문화 산업은 예술을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미적 가치로만 평가한다.

정답 ⑤

선지 설명

①, ② 제시문의 "산업화된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여가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③ 제시문의 "문화의 소비자는 문화 산업의 객체가 되었다."에서 문화 소비자가 객체가 되었다는 말은, 문화 소비자의 주체성이 약화되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④ 제시문의 "문화 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는 구절을 통해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산업화된 대중문화가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의적 사고를 위축시킨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⑤ 제시문에서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으로 인해 대중 문화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에 의해 평가된다고 본다. 이는 곧 문화 산업이 예술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고 있음을 아도르노가 지적한 것이다.

Tip 아도르노의 대중문화 비판론 깊게 이해하기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인 생산물로 채워진다. 소비자가 직접 분류할 무엇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생산자들이 소비자를 위해 그러한 분류를 다 끝내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 유형의 인기 가요나 인기 배우, 영화들이 돌고 돌지만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오락물의 내용들도 겉보기에는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변화 없는 반복일 뿐이며, 세부 사항들만이 대체 가능하다.

… 문화의 이러한 특징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은 사라진다. 자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단지 그것을 향유하기만 하는 존재이다. 자본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여가 생활에서조차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노린다. 개개의 문화 생산물은 모든 사람을 일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도 잡아 놓는 거대한 경제 체계의 일부이다. 어떤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이든 언뜻 보면 임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각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처럼 재생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아도르노	•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다. • 현대 예술은 자본에 종속되어 문화 산업으로 획일화되었다. → 문화 생산물이나 서비스가 상업적 전략하에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점을 비판하면서 대중문화라는 용어보다는 '문화 산업'이라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문화 산업은 인간의 정신적·창조적 활동의 산물인 문화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다. → 문화 산업은 '획일화된 문화 상품'을 대량 생산하여 대중들이 소비하게 함으로써, 대중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거나 상상하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매체가 제공하는 문화 상품을 그대로 수용하고 소비하도록 만든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21학년도 9평]

갑 :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상징하고, 자연의 미(美)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항상 그 영혼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예술 작품의 가치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닌 예술 자체의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 칸트

을 : 예술 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 준다. 예술은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플라톤

① 갑 :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순수한 형식이다.
② 갑 :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일체의 이해관심 없이 내려진다.
③ 을 :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④ 을 : 미적 가치는 무질서한 리듬과 운율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 플라톤 : 질서, 조화, 아름다움 = 선
⑤ 갑, 을 :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③

선지 설명

①, ②, ⑤ 칸트는 예술 작품의 미적 판단 기준이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욕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심과 무관한 태도'라는 순수한 형식에 근거한다고 본다. 또한 칸트는 미적 판단과 선(善)의 판단 모두 '이해관심과 무관한 태도'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상징 관계로 연결된다고 보며 나아가 칸트는 미가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과정상 플라톤은 도덕주의의 입장에서 미를 추구하는 행위가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며, 참된 미(美)를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 나는 음악적 수련이야말로 다른 어떤 수련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보네. 음악에서의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부로 파고 들어가서 우아함을 실어주고, 올바른 자에게는 우아함을, 올바르지 못한 자에게는 추악함을 알게 해 줄 수 있네. [플라톤, 『국가』]

③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을 제시문은 예술 작품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하므로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플라톤은 예술의 가치가 도덕성 구현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플라톤에 따르면, 무질서한 리듬과 운율은 나쁜 성품을 닮은 것이다. 즉, 무질서한 리듬과 운율에는 아름다운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복잡 미묘한 리듬도 온갖 종류의 운율도 추구하지 말고,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삶을 나타내는 리듬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능 & 평가원 기출 문제

Tip 칸트의 미(美)와 예술관 깊게 이해하기

칸트는 자연적 아름다움[美]과 예술에서의 아름다움[美]이 도덕적 선(善)의 상징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하게 아름다움과 도덕적 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외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칸트의 예술론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칸트의 예술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읽기 자료를 정리했다. 하지만 이 내용과 칸트의 예술론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제시문 갑의 원전 : 칸트의 『판단력 비판』
나는 자연미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언제나 선한 영혼의 표징이며, 이러한 관심이 습관적일 때 만약 그것이 자연에 대한 관조와 자발적으로 결합된다면, 그것은 적어도 도덕감에 호감을 가지는 마음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칸트는 자연미에 대한 관심은 도덕감에 호감을 가지는 마음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칸트는 미의 판단과 선의 판단은 각기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으나 미와 선의 판단은 그 형식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상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둘 다 무관심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고, 둘 다 보편적인 만족의 감정을 산출하며, 둘 다 타율적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자유의 체험을 내포하며, 둘 다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청한다. [윤영돈, 『다문화 시대의 도덕교육의 프리즘과 스펙트럼』]
  ※ 인용된 서적의 '무관심한 태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칸트에 따르면, 미의 판단은 무관심한 태도가 맞다. 하지만 선의 판단은 실천 이성이 지향하는 선(善)에 대한 도덕적 관심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무관심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서는 미의 판단과 선의 판단이 모두 '이해관심과 무관한 태도'를 반영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해당 인용문의 저자이신 윤영돈 교수님께 질의하여 확인한 내용이다.

  미적 판단의 고유성 : 미적 판단은 이론적 판단 및 도덕적 판단과 질적으로 다르다. 미적 판단은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알려주는 이론적 판단이 아니며, 또한 대상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판단도 아니다. 가령 어떤 회화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은 아름답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판단은 작품이 대상으로서 갖고 있는 객관적 성질을 알려주는 판단도 아니고, 작품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윤리적인 메시지를 평가하는 판단도 아니다. 칸트의 말로 하자면, 미적 판단은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전제한' 판단도 아니고, 개념을 '목표로 하는' 판단도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미적 판단은 판단 주체의 '감정'에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미적 판단의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 : 미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감정적 만족감은 일반적인 쾌감과 달리 "일체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만족감이다. … 더 나아가 칸트는 미적 경험과 예술에 막중한 역할을 부여한다. 미적 경험과 예술이 '자연(이론)으로부터 자유(실천)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 미적 경험과 예술은 대상의 존재로부터 거리를 두는 '미적 자유', '개념과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력의 자유'를 일깨우고 도야시켜준다. 그것은 상상력, 지성, 이성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감성과 공감의 공동체'를 싹틔우고 성장시켜준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향한 전망, 현실을 넘어선 이념적 차원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이 깊고 넓게 열리도록 해준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미적 경험과 예술은 인간이 '자연적 존재(동물)'에서 '자유로운 존재(인격)'로 나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문화적 발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적 경험과 예술은 자유로운 인간의 시작이며, 문화적 삶의 원천인 것이다. [하선규, 『서양 미학사의 거장들』]
- 미적 체험을 통한 자유와 도덕의 전제인 자유는 서로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미(美)는 도덕성의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는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칸트, 『판단력 비판』]
-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사람들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단한다. …(중략)… 순수하게 감성적인 동물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느낄 수 있으며,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천사나 신)의 의욕은 선에 해당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가 느낄 수 있는 선을 추구할 수도 있고, 동물이 느낄 수 있는 안락함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며,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칸트, 『판단력 비판』]

Tip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며, …"의 해석

1)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동물과 신적 존재'는 미적 즐거움을 갖지 않고,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만이 미적 즐거움을 고유하게 갖는다.

2) 틀린 해석 :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은 미적 즐거움을 느낀다.
→ '중간자'라는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독해 오류.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Tip 칸트의 예술관을 '도덕주의/심미주의'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Q. 칸트의 예술관은 도덕주의의 입장인가?

A. 칸트의 예술관을 '도덕주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 도덕주의란, 예술의 미적 가치를 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외재적인 도덕적 가치에서 찾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미(美)를 '자체의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 미(美)와 예술의 가치가 외재적인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칸트가 '자연적 아름다움[美]과 예술에서의 아름다움[美]은 도덕적 선(善)의 상징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美)가 외재적인 도덕적 가치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을 '도덕주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칸트의 입장을 '심미주의(예술 지상주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미(美)적 판단이 도덕성과 이성으로부터 독립해 있지만, 예술이 도덕성에 대해서 대립한다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예술이 가깝든 멀든 도덕 이념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대상에 대한 불만족이 예술의 최후 운명이다."라고 말하며, 예술은 독립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인간을 도덕 이념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는 없음을 강조합니다. 반면, 심미주의는 예술은 선과 악의 관념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 자체의 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소재조차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칸트의 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나 1804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을 위한 예술'과 같은 심미주의적 입장은 1836년 빅토르 쿠쟁이 선구적으로 주장한 개념입니다. 즉,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는 '심미주의(예술 지상주의)'는 칸트 이후에 확립된 개념으로, 칸트를 심미주의자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한편, 칸트의 입장은 심미주의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쿠쟁은 "자율성의 이념을 칸트의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떠난' 예술 이론을 혁신한다."라고 쓴 바 있습니다. 칸트의 '이해관계를 떠난' 취미 판단으로서의 미학(美學)은 심미주의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심미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준 예술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과 윤리에서 칸트의 입장은 '도덕주의' 또는 '심미주의'로 분류하지 말고, 칸트의 형식주의적 예술관을 이해하는 선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Tip 플라톤의 도덕주의 예술관 깊게 이해하기

- "예술의 존재 이유는 선을 권장하고 덕성을 정의하는 데 있다."
-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에서 시각과 청각의 부딪힘을 통해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조화에 이끌린다."
- "예술 작품은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곧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준다."
- "나는 음악적 수련이야말로 다른 어떤 수련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보네. 음악에서의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부로 파고 들어가서 우아함을 심어주고, 올바른 자에게는 우아함을, 올바르지 못한 자에게는 추악함을 알게 해 줄 수 있네."
- "또한 그것은 예술이나 자연에 있어 누락된 것과 결함을 알도록 해 주네. 그리고 음악을 진정한 안목으로 즐길 때 그의 정신 속에서 나온 선은 기품 높고 정결해지네. 그리하여 어려서부터 악을 비난하고 혐오하게 됨은 물론, 자라서는 오래 사귄 친구처럼 선을 알아보고 환영하게 될 것이네."
- "우리는 다른 장인(匠人)들도 감시하며 생물들의 그림, 조각, 건축, 다른 예술 작품에서 나쁜 성격과 무절제와 야비함과 추함을 그리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우리의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면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장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네. …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난 장인들을 찾아내야 하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건강한 환경에서 살게 되어 혜택을 받을 것이네."
- "시가(詩歌) 교육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첫째, 리듬과 선법은 그 무엇보다 더 깊숙이 혼의 내면으로 침투하며 우아함을 가져다줌으로써 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네. 그것들은 누가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를 우아하게 만들고, 누가 나쁜 교육을 받았을 경우 후자를 전자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만드네. 둘째, 이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예술 작품이나 자연의 결점들을 가장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이네. 그러면 그는 그것들의 추함이 역겨워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고 반길 것이며,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게 혼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신도 아름답고 훌륭해질 것이네."

[플라톤, 『국가』]

23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 ㉤ 중 옳지 않은 것은? [2021학년도 수능]

서술형 평가

◎ 문제 : 예술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갑 : 아름다운 리듬과 화음은 영혼에 들어가 우아함을 심어 주고, 미추(美醜) 감각을 키워 준다. 품위 없는 리듬과 화음은 나쁜 말씨나 고약한 성질과 연결되니, 작품 속에 선(善)의 원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추방해야 한다. 플라톤
> 이데아
> 을 :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낀다. 칸트

◎ 학생 답안

갑, 을의 예술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나서는 아름다움의 원형이 존재할 수 없고, ㉡예술가는 미적 가치를 통해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을은 ㉢예술을 통해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예술은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예술은 미적 가치를 다루는 활동이라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플라톤에게 원형(즉 이데아)은 현상계와는 별도로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영원 불변하는 것
∴ 이와 같은 서술은 틀린 것이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갑 : 플라톤의 도덕주의, 을 : 칸트

선지 설명

① 플라톤의 입장에서 원형은 이데아를 의미한다. 플라톤은 이데아가 사물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이며 현상 세계와 독립적으로 실재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가의 창작 행위와 관계없이 아름다움의 원형, 즉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존재한다.
② 플라톤은 예술가가 도덕성을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③ 칸트는 미(美)가 도덕성의 상징이며, 이러한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여 사람들 간에 공통된 감정을 지니게 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칸트는 미(美)가 도덕성의 상징으로서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⑤ 플라톤은 예술이 미적 가치를 통하여 삶의 모범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고, 칸트는 미적 가치로 인해 감각의 자극이 도덕적 관심으로 이행할 수 있음을 긍정한다.

5단원 02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01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6평]

> 음식물에 대한 욕망은 자연적이다. 먹고 마시는 욕망을 추구함에 있어서 잘못하는 경우는 주로 지나친 쪽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사실 어떤 것이든 더 이상 먹고 마실 수 없을 때까지 먹고 마시는 것은 양에 있어 자연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마땅한 것을 넘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을 폭식가(暴食家)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나칠 정도로 노예적인 사람이다.
> *중용 : 모자르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상태

① 먹는 행위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② 먹는 행위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조절되어야 한다.
③ 먹는 행위를 통해 개인적 취향의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
④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자연의 순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⑤ 먹는 행위는 공동체의 동질감과 연대감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추구한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식 윤리를 나타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식물에 대한 욕망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행위의 선택에 있어서 마땅하게 행동하는 중용의 태도를 강조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식을 먹는 것이 마땅함을 넘어서는 지나친 폭식이나 모자람이 아닌 중용에 맞는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선지 설명

①, ③, ⑤은 제시문과 관련이 없는 선지이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먹는 행위에도 절제의 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판단에 따라 마땅한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행위가 조절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이 자연의 순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식에 대한 중용의 자세이다.

음식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태도

(1) 자연적 욕망으로서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임
(2) 하지만 음식을 먹는 행위가 결핍된 것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폭식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경계해야 함
(3) 즉, 자연적 욕망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한 절제가 필요함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2

다음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학년도 6평]

"인간은 낯선 공간 안에 던져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 공간에 친숙해지며 그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냄으로써 거주(居住)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집 밖의 세계에서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자기 집의 보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양극적 긴장과 관련된 양 측면은 모두 필수적이므로, 거주 공간은 외부 세계에 대해 열릴 수 있는 닫힘의 공간이자 자기 삶의 중심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거주는 특정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며,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안주(安住)이어야 합니다."

① 인간에게 거주 공간은 자기 세계의 중심이어야 한다.
② 인간은 자신의 거주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③ 인간의 거주 공간은 집 밖의 세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④ 인간에게 거주 공간은 편안하고 친숙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⑤ 인간의 거주 공간은 ~~외부를 지향하지 않는~~ 닫힌 공간이어야 한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강연자는 볼노브이다. 볼노브는 거주 공간이 외부 세계에 대해 열릴 수 있는 닫힘의 공간이자 자기 삶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의 "거주 공간은 … 자기 삶의 중심입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거주 공간이 자기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제시문의 "인간은 … 그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냄으로써 거주하고자 합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거주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볼노브에 따르면 거주 공간은 집 밖 세계와 구분되면서 외부 세계를 지향한다.
④ 볼노브에 따르면 인간의 거주는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안주, 즉 편안한 거주이어야 하기 때문에, 거주 공간은 편안하고 친숙한 안식처이어야 한다.
⑤ 볼노브에 따르면 인간의 거주 공간은 외부 세계에 대해 열릴 수 있는 닫힘의 공간이다. 즉, 거주 공간이 외부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03

(가), (나)에 나타난 삶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학년도 9평]

(가)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드시지 않았고 간장이 없으면 드시지 않았다. 고기가 많아도 곡기(穀氣)를 이기지는 않았으며 주량이 대단했으나 어지러울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다.
(나) 술과 고기를 먹지 마라.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의 오신채(五辛菜)를 먹지 마라. 식사는 오전 중 한 번으로 끝내라. 발우의 음식은 수많은 연기(緣起)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① (가) : 음식을 먹는 행위에서 인간다운 품위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가) :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은 생존 유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③ (나) : 음식을 통해 세상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해야 한다.
④ (나) :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수행과 연계시켜야 한다.
⑤ (가), (나) :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적정히 조절하고 절제해야 한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가)는 유교(공자)의 음식 윤리이다. 제시문의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드시지 않았고 간장이 없으면 드시지 않았다."라는 서술에서 나타난 '반듯하게 잘라지지 않은 음식'은 음식을 만든 사람의 정성과 관련된다. 즉, 애정이 없이 마구잡이로 잘려진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뒤이어 서술된 '간장이 없으면 드시지 않았다'는 서술은 음식에는 조화를 이루는 장(간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조화를 이루는 장과 함께 조화롭게 음식을 섭취할 것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서술을 이해하면 충분하다. 또한 "고기가 많아도 곡기를 이기지는 않았으며 주량이 대단했으나 어지러울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다."라는 서술에서 나타난 '곡기'는 밥 기운이라는 의미이다. 즉, 과식 및 과음을 하지 않고 몸을 해치지 않는 식습관을 강조한 것이다.
(나)는 불교의 음식 윤리이다. '오신채'는 불교에서 금하는 자극적이고 냄새가 강한 다섯 가지 음식인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를 의미한다. 제시문에서 등장한 '발우'라는 키워드와 음식은 수많은 연기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점에서 불교의 음식 윤리임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발우공양은 스스로 먹을 만큼의 음식을 발우라는 그릇에 담아 먹는 수행이자 식사법을 의미한다.

선지 설명

① 유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행위에서 인간다운 품위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음식을 통해 인(仁)의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과 연결된다.
② 유교에서는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이 생존 유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즉, 음식은 생존 유지에 기여하면서도 올바른 삶을 위한 예의 실천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도 기능한다.
③ 제시문의 "발우의 음식은 수많은 연기(緣起)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라는 서술을 통해 음식을 통해서도 존재의 연기성을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불교는 이러한 연기의 깨달음을 강조한다.
④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단순한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생활 속 수행의 과정으로 본다.
⑤ 유교와 불교 모두 음식을 먹는 행위가 적절한 조절과 절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04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6평]

군자는 밥을 먹을 때 다섯 가지를 살펴야 한다. 우선 밥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와 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덕행이 완성되었는지를 헤아려서 공양(供養)을 받아야 한다.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바른 처사와 좋은 약으로 건강을 보살펴야 한다. 끝으로 도덕을 이루어야 먹을 자격이 있다. 즉 군자는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유교

① 먹는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덕의 실천이다.
② 먹는다는 것은 자연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이다.
③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과정이다.
④ 먹는다는 것은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행위이다.
⑤ 먹는다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다.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유교의 입장에서 군자의 음식 윤리를 다루고 있다. 제시문에서 나타난 명제를 정리해 보자.

(1) 군자는 밥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와 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2) 군자는 자신의 덕행이 완성되었는지를 헤아려서 공양을 받아야 한다.
(3) 군자는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4) 군자는 바른 처사와 좋은 약으로 건강을 보살펴야 한다.
(5) 군자는 도덕을 이루어야 먹을 자격이 있다.
(6) 군자는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의 "우선 밥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와 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자신의 덕행이 완성되었는지를 헤아려서 공양(供養)을 받아야 한다.", "먹을 때에도 인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서술을 통해 먹는 행위가 자신과 타인의 노력을 살피는 덕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③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④ 먹는다는 것은 윤리적 행위이다. 먹는 행위가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애초에 음식 윤리에서 성립할 수 없다.
⑤ 먹는 행위는 자연을 소유화하는 행위가 아니다.

공자와 맹자의 음식에 대한 태도

- 군자는 밥을 먹을 때 배부르기를 바라지 않으며 … 도(道) 있는 곳에 나아가 나를 바로잡는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논어』]
- 도에 뜻을 둔 선비가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와 논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논어』]
- 음식만 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것(마음)을 잃기 때문이다. [『맹자』]
-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는데,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교육하지 않으면 짐승에 가깝다. [『맹자』]

05

다음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6평]

거주(居住)함은 인간 존재의 근본 특성입니다. 인간은 현존재로서 땅, 하늘, 신적인 것들, 죽을 자들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와 소중히 보살피며,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합니다. 인간은 자기 공간의 중심이 되며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사물의 연관 체계로서 공간도 함께 변화합니다. 인간이 건축함과 거주함에서 사유함을 잊을 때 고향 상실이 일어납니다. 이 때 거주함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거주 공간이 상실되어 탈공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해 숙고하고, 고향을 되찾아야 합니다.

① 인간의 거주 공간은 체험과 무관한 객관적 공간이다.
② 인간은 고향을 되찾기 위해 거주 공간을 떠나야 한다.
③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한다.
④ 인간은 사물을 보살피면서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⑤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에게서 해방된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하이데거의 인간 존재 특성에 따른 거주 윤리를 나타내고 있다.

선지 설명

① 하이데거의 거주 윤리에 따르면 거주 공간은 체험과 무관한 객관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현존재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② 하이데거는 건축함과 거주함, 숙고를 통해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이데거는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사물의 연관 체계로서 공간도 함께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④, ⑤ 제시문의 "거주(居住)함은 인간 존재의 근본 특성입니다. 인간은 현존재로서 땅, 하늘, 신적인 것들, 죽을 자들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와 소중히 보살피며,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합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인간은 사물을 보살피면서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가짐을 알 수 있다.

Tip 하이데거의 주거(거주) 윤리

하이데거의 주거 윤리 : 고향 상실	ⓐ 거주 공간의 본래 의미는 '휴식, 평화, 안정, 질서'등을 누리며,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내적 공간이다. 거주 공간은 인간에게 마치 고향과도 같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은 거주 공간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였다.
	ⓑ 내적 공간으로서의 집의 본래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6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9평]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상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소비하는 것은 상품의 기호(記號)와 상품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이다. 광고 속에 나오는 상품이 기호라면 행복, 풍요로움, 성공, 권력 등은 그 상품에 부여된 이미지이다. 사람들은 상품의 구입과 사용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드러내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욕구의 체계를 발생시키고 관리하는 생산질서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박탈당하여 사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

① 현대인은 소비 활동 과정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는가? YES
② 현대인은 생산질서에 좌우되지 않는 소비 활동을 하는가? NO
③ 현대인은 소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가? YES
④ 현대 사회에서 소비의 대상은 상품의 이미지에 불과한가? YES
⑤ 현대 사회에서 광고 매체는 상품을 기호로서 전달하는가? YES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현대사회의 소비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선지 설명

①, ② 제시문에 따르면 현대인의 소비 활동은 생산질서의 의도대로 좌우되며, 현대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박탈당하게 된다.

③ 제시문의 "사람들은 상품의 구입과 사용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서술을 통해 현대인은 소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제시문의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상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소비하는 것은 상품의 기호(記號)와 상품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이다."라는 서술을 통해 현대인은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제시문의 "광고 속에 나오는 상품이 기호"라는 서술을 통해 광고 매체는 상품을 기호로서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07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수능]

우리 시대의 인간은 고향을 잃고 지구상 어떤 곳에도 매여 있지 않은 영원한 망명자이다. 하지만 집은 이러한 위험과 희생의 공간인 외부 공간과 구분되는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인간은 자신의 중심점인 집을 스스로 만들어 그곳에 뿌리내리고 살 때 진정한 거주를 실현한다. 인간은 이러한 거주의 실현을 통해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

① 진정한 거주는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로 국한된다.
② 인간은 진정한 거주를 실현하지 못하면 영원한 망명자이다.
③ 인간은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다.
④ 외부 공간은 위험과 희생이 아닌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⑤ 진정한 삶의 실현을 위해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볼노브의 거주윤리를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의 볼노브에 따르면 집은 위험과 희생의 공간인 외부 공간과 구분되는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볼노브는 인간이 집을 스스로 만들고, 그곳에 뿌리내리고 살 때 진정한 거주를 실현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거주의 실현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온전한 의미에서의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의 "거주의 실현을 통해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이라는 구절을 통해, 진정한 거주는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제시문의 "우리 시대의 인간은 고향을 잃고 지구상 어떤 곳에도 매여 있지 않은 영원한 망명자이다."라는 서술을 통해 진정한 거주를 실현하지 못하면 영원한 망명자가 됨을 알 수 있다.

③, ⑤ 볼노브는 거주자가 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④ 제시문의 "위험과 희생의 공간인 외부 공간"이라는 서술을 통해 외부 공간이 위험과 희생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08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9학년도 6평]

(가)	* 패스트 패션 산업은 경제적 측면에만 몰두하여 노동 조건과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 결과 패스트 패션을 추구하는 현상에 대한 반성이 확산되고 있다. 패션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도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조건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최신 유행 상품을 빠르게 공급해 상품 회전율이 빠른 패션
(나)	패스트 패션 산업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패스트 패션을 즐기면서 다양한 미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이처럼 패스트 패션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하다.

보 기

ㄱ.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ㄴ. 패션에 대한 개인들의 차별화된 욕구와 기호를 간과하고 있다.
ㄷ. 욕구 충족만이 소비의 도덕 판단 기준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ㄹ.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 성향을 간과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가)와 (나)는 패스트 패션에 대해 다른 입장을 지닌다.
(가)는 패션 산업 종사자도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나)는 패션 산업의 종사자는 이윤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선지 설명

ㄱ. (가)의 입장은 패션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도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조건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반면, (나)의 입장은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아니라 패스트 패션의 이윤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은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ㄴ. (나)의 입장은 패스트 패션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미적 욕구(욕구와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제시할 적절한 반론이 아니다.

ㄷ. (나)는 패스트 패션을 통해 소비자는 다양한 미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가)의 입장에서 소비자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조건에 기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은 욕구 충족만이 소비의 도덕 판단 기준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ㄹ. (나)의 입장은 패스트 패션의 경제적 효율과 이윤 창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의 입장에서 제시할 적절한 반론이 아니다.

09

다음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평]

> 과시적 소비는 자신의 부와 명성을 타인에게 명백하게 증명하려는 경쟁적인 소비 행위입니다. 명성의 관점에서 사회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한 유한계급의 생활 예절과 가치 기준들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강압적인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과시적 소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화를 축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못합니다. 그 욕망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비교에 바탕을 둔,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① 유한계급의 소비 행태는 사회 구조 전반으로 확산되는가?
② 사회 구조의 최상위 계급만이 과시적 소비를 욕구하는가?
③ 유한계급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재력을 은폐하고자 하는가?
④ 사회의 각 계급은 상위 계급의 소비 행태에 대해 무관심한가?
⑤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증대되면 과시적 소비의 욕망은 사라지는가?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강연자는 베블런이며, 베블런의 과시 소비론을 나타내고 있다. 베블런에 따르면 과시적 소비는 자신이 특정한 사회 계급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부나 명예를 과시할 목적으로 행하는 소비이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의 "사회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한 유한계급의 생활 예절과 가치 기준들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강압적인 영향력을 확장합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유한계급의 소비 행태는 사회 구조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유한계급(有閑階級)**
> 1) 생산적 노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소유한 재산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
> 2) 베블런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특성을 지님

② 제시문의 "각 계급의 구성원들,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과시적 소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사회 구조의 최하위 계층까지 과시적 소비를 욕구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베블런에 따르면 유한계급은 과시적 소비 행태를 통해 자신의 재력을 타인에게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④ 제시문의 "사회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한 유한계급의 생활 예절과 가치 기준들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강압적인 영향력을 확장합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사회의 각 계급은 상위 계급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제시문의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화를 축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못합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과시적 소비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충족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0

갑, 을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6평]

갑 :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품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뒤 계획을 세워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효용이 큰 제품을 선택하여 소비해야 한다.
을 : 자신의 소비 생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사회, 자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소비를 해야 한다.

〈문제 상황〉
A는 아보카도가 슈퍼 푸드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아보카도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은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또한 재배에 많은 물이 소모되어 동식물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 A는 그 사실을 알고 아보카도를 구매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① 갑 : 자신의 처지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소비인지를 고려하세요.
② 갑 : 충동적 소비나 과시적 소비가 되지 않는지를 고려하세요.
③ 을 : 생산 지역의 주민의 삶에 해악을 주지 않도록 결정하세요.
④ 을 :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결정하세요.
⑤ 갑, 을 : 다른 가치보다 경제적 효용을 먼저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윤리'과목이므로, 정답은 주로 윤리와 관계된 '을'의 관련 선지에서 출제된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은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상품 정보를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장 큰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소비해야 한다는 합리적 소비의 입장이다.
을은 자신의 소비 생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사회, 자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지 설명

① 갑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지향한다.
② 갑은 계획적이고 효용성이 큰 소비를 지향하기 때문에 과시적 소비나 충동적 소비가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③, ④ 을은 소비 생활이 사회, 자연 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삶과, 생태계에 해악을 주지 않도록 소비해야 한다고 본다.
⑤ 합리적 소비는 경제적 효용을 먼저 고려하지만, 윤리적 소비는 사회와 자연 그리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부 고려한다.

합리적 소비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소비
윤리적 소비	윤리성을 고려하는 소비
과시적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행하는 소비. '베블런 효과' :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데도 과시욕과 허영심으로 인해 소비가 줄지 않는 현상

11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0학년도 9평]

○○신문 ○○○○년 ○○월 ○○일

칼럼

명품 소비는 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에 주목하여 우리 사회의 명품 소비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일부 계층의 명품 소비 성향이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구매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명품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모조품을 찾으면서까지 과시욕을 충족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비 성향은 '남들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욕구와 연관되어 명품 소비를 하나의 유행으로 만든다. 그 결과, 명품 구매를 통해 남들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욕구는 일시적으로 충족되지만, 자신의 개성은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명품 소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후략)

보 기

ㄱ. 동조 욕구를 절제하고 주체적 소비를 해야 한다.
ㄴ.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
ㄷ. 모방 소비를 지양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야 한다.
ㄹ. 특정 계층에 국한된 과시 소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명품 소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선지 설명

ㄱ. 제시문의 "이러한 소비 성향은 '남들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욕구와 연관되어"라는 서술을 통해 동조 욕구가 명품의 과도한 소비의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동조 욕구를 절제하고 주체적 소비를 시행하는 것은 명품 소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ㄴ. 직접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으나, 제시문의 "구매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명품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모조품을 찾으면서까지 과시욕을 충족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초과하는 명품 구매가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소비는 이러한 소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ㄷ. 보기 ㄱ. 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명품 소비는 모방 심리에 따른 소비이다. 따라서, 모방 소비를 지양한다면 제시문에서 지적하는 명품 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ㄹ. 제시문의 "명품 소비 성향이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12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6평]

(가) 군자는 밥이 완성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식재료의 출처를 알아야 하고,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밥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 유교

(나)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공양(供養)을 받는다. 밥 먹는 것은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는 것, 청정(淸淨)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 불교

① (가) : 중생의 불성(佛性)에 유념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불교)
② (가) :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음식의 양은 많을수록 좋다.
③ (나) : 음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이다.
④ (나) : 음식을 먹는 것이 수행의 연장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다.
⑤ (가), (나) :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유교 : 인(仁)을 떠나지 말아야 함
불교 : 식사는 수행의 과정임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은 "밥을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서술을 통해 해당 제시문은 교육과정상 유교로 판단하면 된다.

> 군자는 밥을 다 먹는 동안에도 인을 떠남이 없어야 한다. [공자, 『논어』]

을은 "밥을 먹는 것은 즐기는 것이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서술을 통해 불교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지 설명

① 중생의 불성에 유념한다는 서술은 유교가 아니라 불교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제시문에서는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는 곧 음식의 양도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③ 불교의 입장에서 음식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시문에서는 밥먹는 것이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수행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④ 제시문의 "밥 먹는 것은 … 청정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라는 서술을 통해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수행의 연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유교와 불교 모두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도리에 맞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본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1학년도 6평]

인간이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거주라고 한다. 그러나 거주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낯선 공간에 존재하거나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거주는 특정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또한 거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이다. 이런 거주는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쏟아붓는 각별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다. 볼노브

① 거주는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장소에 속해 있는 방식이다.
② 삶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주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③ 거주는 인간이 집에 머무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④ 거주는 친숙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얻고 삶의 기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⑤ 거주는 인간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인간 - 세계의 격리가 아닌, 관계를 규정하는 행위

정답 ④

선지 설명

① 볼노브에 따르면 거주는 '행위'이다. 이는 제시문의 "거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이다."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볼노브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제시문의 "거주는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쏟아붓는 각별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다."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제시문에서는 '거주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낯선 공간에 존재하거나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나와 있다. 볼노브는 '집을 피상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넘어 집과 내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므로 볼노브의 입장에서 거주를 인간이 단순히 집에 머무르는 것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시문에서는 '거주는 특정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거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한다. 볼노브는 이렇게 거주지에서 뿌리를 내리며, 삶의 기초를 발견하고 인간과 세계 간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제시문에도 나오듯, 볼노브는 거주를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세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아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4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학년도 9평]

최근 들어 개인적 취향만이 아니라 여행자의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공정 여행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 만족과 여행 비용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기존 여행의 관행에서 벗어나 여행지에 도움을 주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을 지향한다. 공정 여행을 통해 여행자들은 현지 주민이 제공하는 숙소와 음식을 접하고 특산물, 기념품 등을 구입하며, 현지 서비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나아가 여행지의 동식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항공 여행을 자제하는 결정까지 내린다. 이처럼 공정 여행은 [㉠]

①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여행이다.
② 여행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여행이다.
③ 사회적 책임보다 비용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여행이다.
④ 개인적 선호만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도 중시하는 여행이다.
⑤ 여행자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도 배려하는 여행이다.

정답 ③

선지 설명

① 칼럼의 "나아가 여행지의 동식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기이 위해 항공 여행을 자제하는 결정까지 내린다."라는 서술을 통해 공정 여행은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여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칼럼에서 주장하는 공정 여행자들은 여행지의 동식물을 보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기이 위해 항공 여행을 자제하는 결정까지 내린다. 이는 곧 지속 가능한 발전, 즉 여행 지역의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칼럼에서는 "개인적 만족과 여행 비용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기존 여행의 관행에서 벗어나 여행지에 도움을 주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을 지향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공정 여행에 관한 ㉠에 들어갈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칼럼에서는 공정 여행자들은 개인적 만족, 여행지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기존 여행의 관점에서 벗어나 여행지에 도움을 주는 여행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정 여행은 개인적 선호만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도 중시하는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칼럼의 "개인적 취향만이 아니라 여행자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공정 여행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행지에 도움을 주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을 지향한다."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15

다음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나 권력을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있어 보이는 체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의 옹색과 불편조차도 참아낼 것입니다. 베블런

→ 사회의 모든 계층은 경쟁적인 비교 성향으로 인해 과시 소비를 하게 된다.

① 과시 소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계층이 존재하는가?
②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인간의 허영심을 제한하는가?
③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가?
④ 과시 소비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는가?
⑤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면 강력한 경제적 동기인가?

정답 ④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의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과시 소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계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제시문에서 "타인과의 비교 성향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입니다."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인간의 허영심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제시문에 따르면 부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은 '타인에게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제시문에 따르면 부나 권력은 '획득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증거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된다. 따라서 베블런은 사회의 모든 계층이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한다고 본다. 즉, 과시 소비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⑤ 제시문의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입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베블런의 과시 소비 정리

①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특징
② 자신이 특정한 사회 계급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부를 과시할 목적으로 행하는 소비
③ 과시 소비 현상은 의복에서 가장 잘 나타남
④ 윤리적 문제 : 과시 소비로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동조 소비로 비합리적 소비, 패션의 획일화, 몰개성화 초래
⑤ 해결 :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표현, 환경을 고려하는 절제 있는 소비 필요

5단원 03 다문화 사회의 윤리

❶ 문화 다양성과 존중

01

(가), (나)의 입장에서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015학년도 6평]

(가) 이질적 요소가 유입되어 구심력이 약화되면 사회는 와해된다. 이질성을 제거하고 통합성을 강화해야 사회는 발전한다. 따라서 중심 문화가 소수 문화를 흡수해야 한다.

(나) 야채나 과일이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 소스와 어우러질 때 맛있는 음식이 된다. 따라서 여러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대등하게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	(나)
① 다양한 문화가 동등하게 어울리면서 공존해야 하는가?	×	○
② 소수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가?	×	○
③ 중심 문화의 관점에서 문화의 단일성을 유지해야 하는가?	○	×
④ 소수 문화는 중심 문화 속에 편입되어 동질화되어야 하는가?	○	×
⑤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를 보호해야 하는가?	×	×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가) 동화주의 모델

(나) 샐러드 볼 모델

선지 설명

①, ② (가)는 부정, (나)는 긍정으로 대답한다.

③, ④ (가)는 긍정, (나)는 부정으로 대답한다.

⑤ (가)는 동화주의, (나)는 샐러드 볼 모델이다. (가)는 '비주류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나)는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Tip 다문화 사회 정책 그룻 모델 비교 깊게 알아보기

	용광로 이론	샐러드 볼 이론	국수 대접 이론
주류·비주류 문화 구분 여부	○	×	○
소수·고유 문화 인정 여부	×	○	○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2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가) 국수의 면과 국물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 갖가지 고명이 얹혀 입맛을 돋우듯이, 다른 문화는 색다른 맛을 더해 주는 고명으로 자신의 가치를 살릴 수 있다.

(나) 그릇에 담긴 다양한 야채가 고유의 맛과 색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이루듯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보 기

ㄱ. (가)는 주류 문화를 고명(비주류 문화) 전제로 한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한다.

ㄴ. (나)는 각 문화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중시한다.

ㄷ. (가), (나)는 비주류 문화의 주류 문화로의 편입을 중시한다.

ㄹ. (가), (나)는 다양한 문화를 전제로 한 사회 통합을 중시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가) 국수 대접 모델

(나) 샐러드 볼 모델

선지 설명

ㄱ. (가)는 국수 대접 이론으로,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질적인 비주류 문화의 공존을 인정한다.

ㄴ. (나)는 샐러드 볼 이론으로, 한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를 대등하게 인정한다.

ㄷ. (가), (나)의 입장이 아니라, 동화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ㄹ. (가), (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Tip 다문화주의의 모델 깊게 알아보기

ⓐ 입장 : 민족이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대표 이론

샐러드 볼 이론 (다문화주의)	• 한 국가 또는 사회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대등·평등하게 인정함. • 장점 : 소수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 문화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음. • 단점 : 사회적 연대감, 결속력이 부족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어려움.
모자이크 모형	다양한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모자이크가 되듯이, 여러 이주민 문화가 모여 하나의 문화를 이룸.
국수 대접 이론 (문화 다원주의)	•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질적인 비주류 문화의 공존을 인정함, 주류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함. • 장점 :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통합을 용이하게 함.
공통점	타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 문화적 다양성 실현
차이점	샐러드 볼 이론은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반면, 국수 대접 이론은 주류 문화를 이주민의 문화보다 우위에 둔다.

ⓒ 차별적 배제 모형

- 이주민을 특정 목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
- 이주민을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직업' 등에 한정하여 수용하는 정책.
- 국가의 단일성을 중시하는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 정책.
- 비판점 :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보편 윤리에 어긋난다.

ⓓ 화이부동(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 태도)의 자세 추구

03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학년도 9평]

기본적 권리는 문화라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간 문화적 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 관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소수집단의 성원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 경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여 집단 간 문화의 장벽을 영속화시킬뿐 아니라, 소수집단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여 개인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학자의 주장이 [㉠]고 생각한다.

다문화주의 긍정론 → 비판 → 다문화주의 부정론

① 집단 간 문화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됨을 강조하고 있다
② 문화보다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다문화주의가 법 적용의 일반성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차별화된 권리의 인정이 보편적 인권과 어긋남을 간과하고 있다
⑤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어떤 학자의 주장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다문화주의 사상가의 입장이다.
'어떤 학자'는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 : 다문화주의 긍정론이 다문화주의 부정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설명

① 어떤 학자는 집단 간 문화의 경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제시문은 기본적 권리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어떤 학자는 다문화주의가 법 적용의 일반성을 깨뜨릴 수 있음을 주장한다.
④ 제시문은 차별화된 권리의 인정과 보편적 인권이 양립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⑤ 제시문을 보았을 때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간과한다는 내용의 선지가 적절하다.

04

다음 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상 대담〉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9평]

관용

관용은 문화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타인의 불의한 행위에 무관심하거나 도덕적 악을 참는 것은 관용이 아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의 자유권, 생명권과 같은 권리에 대한 침해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

관용의 한계

〈가상 대담〉

전문가 :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리포터 : 그렇다면 이런 문화도 관용의 대상이 되나요? 외국에서 이민을 온 어떤 가족은 여자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어린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딸이 성인이 되어 외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전문가 : 그런 문화는 [㉠]

불관용

① 부모의 고유한 권리를 존중한 것이므로 용인해야 합니다.
② 자녀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
③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니므로 고유한 문화로 용인해야 합니다.
④ 종교의 계율과 전통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므로 용인해야 합니다.
⑤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감을 저해하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관용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용의 한계로서 '타인의 불의한 행위, 도덕적 악'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타인의 자유권, 생명권과 같은 권리의 침해는 관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② 제시문에 따르면, 자녀의 교육권과 신체적 자유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제시문에 따르면, 전통 문화라 할지라도 인권 침해는 관용될 수 없다.
④ 제시문에 따르면 종교적 이유일지라도 인권 침해는 관용될 수 없다.
⑤ 제시문에 따르면 해당 이민 가정의 문제는 '연대감 저해'가 아니라 딸의 인권 침해에 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5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6평]

갑 : 기존 시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동화될 때에만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주류 사회 시민들과 동일한 언어로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 동일한 사회 복지를 제공하며 국민 정체성을 고취시켜 이민자 집단을 동화시켜야 한다.

을 : 기존 시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도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민자의 언어로 운용되는 자체의 법적 제도를 보장하면서 이민자 집단과 주류 사회의 결속과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① 갑 : 주류 문화와의 융합을 위해 소수 문화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② 갑 : 사회권 보장으로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③ 을 : 소수 문화에 대한 불관용을 통해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④ 을 : 소수 집단의 자치를 승인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⑤ 갑, 을 : 문화적 동일성에 대한 요구 없이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 : 동화주의
을 : 다문화를 인정하는 입장

선지 설명

① 갑은 소수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입장이다.
② 갑은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입장이다.
③ 을은 소수 문화를 용인하고 있다.
④ 제시문에서 을은 소수 집단의 언어로 운용되는 자체적인 법적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자체적인 법적 제도를 보장'한다는 것은 소수 집단의 자치를 승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⑤ 을과 달리 갑은 문화적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다.

Tip 로크의 관용론 깊게 알아보기

〈로크의 관용론〉

- "관용은 복음에도, 인간의 이성에도 필연적인 행위이다."
- 로크는 종교의 배타성과 폭력성을 비판한다.
- 로크는 종교 간의 박해는 자신의 종교만이 진리라고 믿는 배타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또한 타 종교인에 대한 박해는 자기 종교의 진리 밖으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 "어느 누구라도 진심으로 상대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 사람을 고문으로 숨을 거두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개종되지 않은 채 죽게 하는 것을 말입니다. 누구도 그와 같은 행동이 자비심이나 사랑이나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원칙과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교리를 불이나 칼의 위협을 통해서라도 억지로 예배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즉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고 그들의 신앙을 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실로 그런 사람은 수많은 회중들이 자기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끔 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종교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그리고 인간의 순수한 이성에도 아주 들어맞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관용의 필연성과 관용이 가진 이점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사람이 있다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진 자만심과 야망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자비한 열의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 사이에서 아마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결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비난을 받을 때마다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댑니다. 그리고 가끔 일어나는 열정에 휩싸일 동안에는 그런 일로 칭찬까지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비기독교적인 잔인함을 가지고 박해할 때 공공의 복지를 돌본다는 핑계와 법을 준수한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교를 핑계로 자신들의 방종과 부도덕함을 처벌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 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

06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수능]

> 공용어와 공통의 문화를 강조할 경우 오히려 국가 내 집단을 다수와 소수로 갈라놓아 소수 집단이 다수에 압도당하게 된다.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 우리 사회의 다수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관행과 규범을 고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이주민에게 기본적 시민권은 보장하되 관습과 신앙 및 삶의 양식의 통일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집단적 문화를 표현할 여지를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다. 통합은 몇 세대에 걸쳐 진행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통합의 실행 가능한 방법은 이주민의 정체성을 국가 전체의 정체성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다. …(후략).

① 통합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전통적 관행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공용어 사용을 의무화해야 국가적 유대감이 증진됨을 유념해야 한다.
③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④ 동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통합 실행이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⑤ 이주민의 삶의 양식 변화가 그들의 시민권 보장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칼럼은 통합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시민권은 보장하되, 그들만의 고유한 관습이나 신앙, 생활방식까지 우리 것과 똑같이 맞추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칼럼은 오히려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지 설명

① 칼럼의 두 번째 문장에 따르면, 관행을 고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② 칼럼의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공용어 강조는 소수 집단이 다수에 압도당하게 한다.
③ 칼럼의 세, 네 번째 문장에 따르면, 이주민은 관습을 유지하고 문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통해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④ 칼럼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에 따르면 통합은 몇 세대에 걸쳐 진행된다. 그 말을 통해 칼럼은 신속한 동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칼럼의 세 번째 문장에 따르면, 이주민에게 기본적 시민권은 보장하되 삶의 양식의 통일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07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학년도 6평]

> 갑 : 주류 문화와의 통합 여부는 소수 문화의 구성원이 결정해야 한다. 주류 문화 구성원이 소수 문화의 통합을 강제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 다문화 주의
> 을 : 단일한 언어, 문화 전통, 교육 정책을 추구하여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통일된 문화의 부재 때문에 집단 간 결속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동화주의

① 갑 : 사회 통합을 위해 소수 문화가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다문화 주의)
② 갑 : 소수 문화 구성원에게 문화적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문화 주의)
③ 을 : 사회적 유대의 강화를 위해 단일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동화주의)
④ 을 : 사회 발전을 위해 주류 문화가 문화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동화주의)
⑤ 갑, 을 : 국가의 교육 정책으로 통일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다문화주의 반대)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 : 다문화를 인정하는 입장(다문화주의)
을 : 동화주의

선지 설명

①, ② 갑은 소수 문화와 그 구성원을 존중하는 다문화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④ 을은 동화주의의 입장에서 한 사회의 문화를 단일화하여 사회의 통합성을 증진하는 것을 추구한다.
⑤ 갑은 국가와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보며, 국가가 문화의 단일화(통일)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반면, 을은 찬성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생활과 윤리 용광로 이론 빠르게 정리하기

1. 현재 교육과정에서 용광로 이론은 동화주의의 사례이고, 새로운 문화의 창출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했다. 그런데, 여전히 용광로 이론이 새로운 문화 창출을 하지 않는다고 잘못 학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학사 교과서에는 명확하게
   '동화주의에는 용광로 이론이 있는데'
   그러한 용광로 이론은
   '다양한 문화를 섞어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
   이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출 문제집을 보는 학생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2. 교과서 정리

동화주의에는 용광로(melting pot) 이론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물질을 용광로에 넣어 녹이듯이 다양한 문화를 섞어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지학사 교과서 171p]
동화주의 : 용광로 이론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 재창조해야 한다고 봄 [지학사 교과서 176p]

동화주의는 이민자를 주류 사회의 언어나 문화에 동화시켜 이들에게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 … 용광로 모델 : 여러 가지 금속을 용광로 안에 넣고 하나의 새로운 금속을 만든다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를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만든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모델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백인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소수 민족의 문화를 통합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천재 교과서 175p]

동화 모형은 '용광로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이주민 출신국의 언어 · 문화 ·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한다.
동화 모형 : '용광로'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다양한 문화들이 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이주민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비상 교과서 183p]

동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와 같은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적응시키고 통합하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용광로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를 거대한 용광로, 즉 주류 사회에 융합하여 편입시키려는 관점을 지닌다. 동화주의 입장은 문화적 충돌에 따른 사회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다양한 문화가 사라져 문화적 역동성이 파괴되고, 이주민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미래엔 교과서 171p]

동화주의
- 다양한 문화를 섞어 주류 문화 중심으로 통합하거나,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
- 사회 구성원이 통일된 하나의 문화를 가질 수 있지만, 소수 문화를 무시하고 문화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 대표 이론 : 용광로 이론 [금성 교과서 173p]

08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갑 :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화주의)

을 : 국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민자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고 기존 사회와 대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다문화 주의)

① 갑 : 주류 문화 우위를 전제로 이민자 ~~문화의 특수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갑 : 주류 문화를 수용하는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해야~~ 한다.
③ 을 : 사회 조화를 위해 주류와 비주류 간 ~~문화 위계를 인정~~해야 한다.
④ 을 :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⑤ ~~갑, 을~~ : 사회적 연대를 위해 주류와 비주류 문화 간 공존과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갑 : 동화주의
을 : 다문화주의

선지 설명

① 이민자 문화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입장은 을의 입장이다.
② 갑은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하지 않고 주류 문화에 통합을 주장한다.
③ 을은 문화 위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사회 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⑤ 갑은 주류와 비주류 문화 간 공존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을은 주류, 비주류로 문화의 위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Tip 동화주의 모형과 용광로 정책 깊게 알아보기

〈동화주의 모형과 용광로 정책〉

- 동화주의 : 문화들 사이에 우열이 있음을 전제로, 열등한 문화가 우월한 문화로 편입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주류 문화에 편입될 것을 강요하는 동일성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 동화주의 모형 : 이주민의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일방적으로 편입, 통합시키는 정책. 이 정책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도록 하여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려 한다. 이 정책은 소수 문화를 무시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
- 용광로 모델 : 여러 종류의 쇠를 용광로에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듯이,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동화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양한 문화를 한 국가나 사회에 구현하기 보다 하나의 동질한 문화에 융합하여 사회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용광로 이론에서도 소수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은 존중받지 못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9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1학년도 9평]

보 기

ㄱ. 갑 :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ㄴ. 을 : 각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ㄷ. 갑, 을~~ :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간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 갑은 주류/비주류 문화의 구별에 반대한다.
ㄹ. 갑, 을 :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선지 설명

ㄱ. 샐러드 그릇 모델의 입장이다. 제시문에서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여'라고 진술한 대로, 샐러드 그릇 모델은 다양한 문화 간의 위계를 두지 않고 이들이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상태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ㄴ. 국수 대접 모델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간의 위계는 존재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각 문화가 고유의 정체성을 지니며 서로 공존하고 조화로울 수 있다고 본다. 추가로, 이는 샐러드 그릇 모델에서도 동의할 입장이다

ㄷ. 국수 대접 모델만 동의할 입장이다. 샐러드 그릇 모델과 국수 대접 모델 모두 문화 간 공존을 추구하지만, 이들 중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나누어 주류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수 대접 모델만이 해당된다.

ㄹ. 샐러드 그릇 모델과 국수 대접 모델이 모두 동의할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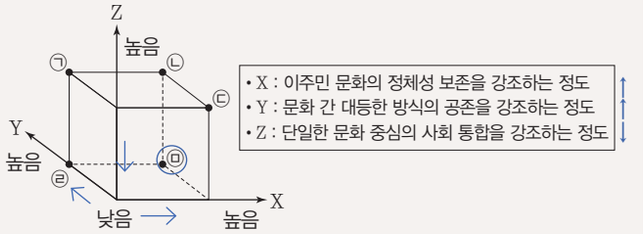
1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 ㉤ 중에서 고른 것은?

[2021학년도 수능]

(가) 국가는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주민은 주류 문화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 동화주의

(나) 국가는 이주민의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각기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다양한 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되면서 이주민의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다문화주의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가)는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어 주류 문화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장하는 동화주의의 입장이다. (나)는 이주민의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여 각기 다른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함을 주장하는 다문화주의의 입장이다.

선지 설명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의 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주민 문화의 정체성 보존을 강조하는 정도(X)와 문화 간 대등한 방식의 공존을 강조하는 정도(Y)가 높으며, 단일한 문화 중심이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정도(Z)는 낮다. 따라서 X, Y는 높으며 Z가 낮은 ⑤가 정답이다.

5단원 03 다문화 사회의 윤리

❷ 종교의 공존과 관용

01

다음을 통해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종교인의 바람직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

- "대장경의 글과 말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느냐? 여러분이 오늘 절집 문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노숙자들의 가슴 아픈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 2011년 12월, 로마 교황청에서는 영화 시사회가 열렸다. 이 영화는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주민을 위해 의료 봉사를 펼친 한국인 신부(神父)의 삶을 다룬 것이다.

① 종교적 절대자를 마음을 다해 숭배한다.
② 현세를 벗어나 내세의 종교적 행복을 추구한다.
③ 종교 의례를 성실히 수행하여 신앙심을 강화한다.
④ 종교의 가르침을 세속의 삶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한다.
⑤ 다양한 종교 교리를 단일화하여 도덕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첫째 글은 '대장경', '절집'등의 어휘들로 보아 불교임을 알 수 있고, 둘째 글은 '교황청', '신부'등의 어휘들로 보아 기독교(천주교)임을 알 수 있다.('기독교'의 범위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들어간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성당'이 '천주교'에 해당하고 '교회'는 '개신교'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말이 곧바로 '개신교'만을 지칭하는 편향된 용례로 많이 퍼져 있어서 수험생들의 혼선을 씻기 위해 정확히 짚어두고자 한다. 본 문항 제시문은 '기독교'중 '천주교'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제시문은 故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다룬 '울지마 톤즈' 영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적 절대자를 마음을 다해 숭배한다는 내용은 제시문 상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거나 유추되는 내용이 아니다.

② 제시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문에서는 종교인이 현세를 벗어나 내세의 종교적 행복을 추구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③ 제시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의례는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종교 의례를 성실히 수행하여 신앙심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을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다.

④ 제시문의 첫째 글은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 하고 둘째 글은 가난한 주민을 찾아가 봉사하는 삶을 제시하였다. 이는 세속의 삶에서 각 종교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⑤ 제시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양한 종교 교리를 단일화하라는 내용은 제시문 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생활과 윤리에서 '단일화'가 정답인 경우는 '동화주의, 용광로 모델, 한반도 통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도덕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단일화 한다든지, 국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정부(단일 국가)를 만든다든지 등은 생활과 윤리에서 정답이 될 수 없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2

(가)의 관점에서 그림 (나)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6평]

(가)	• 종교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은 후에도 행복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종교적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 종교는 자신의 실수와 과오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자신의 종교와 타 종교 사이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①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을 통해 도덕적 위기를 극복한다.
②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종교적 신념의 단일화를 추구한다.
③ 종교의 다원성을 존중하며 다른 종교를 용인하려고 노력한다.
④ 종교는 분쟁의 근원이므로 점진적으로 폐기하려고 노력한다.
⑤ 자기 종교 안의 모든 것이 선하고 참이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정답 ③

선지 설명

① (가)는 자신의 종교에도 실수나 과오를 성찰하며, 오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은 종교 갈등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② (가)의 내용은 종교의 다원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의 단일화의 추구로 종교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③ (가)는 종교에 대한 관용과 자신의 종교에도 오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의 다원성을 존중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종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④ (가)는 종교를 부정하지 않는다.
⑤ (가)는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 종교만 참이라는 믿음을 강화하는 것은 종교 갈등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안이 될 수 없다.

Tip 종교에 대한 로크의 관용론 깊게 알아보기

로크의 관용론

- "관용은 복음에도, 인간의 이성에도 필연적인 행위이다."
- 로크는 종교의 배타성과 폭력성을 비판한다.
- 로크는 종교 간의 박해는 자신의 종교만이 진리라고 믿는 배타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또한 타 종교인에 대한 박해는 자기 종교의 진지 밖으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 어느 누구라도 진심으로 상대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 사람을 고문으로 숨을 거두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개종되지 않은 채 죽게 하는 것을 말입니다. 누구도 그와 같은 행동이 자비심이나 사랑이나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원칙과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교리를 불이나 칼의 위협을 통해서라도 억지로 예배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즉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고 그들의 신앙을 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실로 그런 사람은 수많은 회중들이 자기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끔 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 종교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그리고 인간의 순수한 이성에도 아주 들어맞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관용의 필연성과 관용이 가진 이점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사람이 있다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진 자만심과 야망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자비한 열의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 사이에서 아마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결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비난을 받을 때마다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댑니다. 그리고 가끔 일어나는 열정에 휩싸일 동안에는 그런 일로 칭찬까지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비기독교적인 잔인함을 가지고 박해할 때 공공의 복지를 돌본다는 핑계와 법을 준수한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교를 핑계로 자신들의 방종과 부도덕함을 처벌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03

다음 글에 나타난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9평]

우리는 나무를 단지 나무로 보면서도 동시에 나무 이상의 나무로 보기도 한다. 앞의 나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나무로 속(俗)에 속하며, 뒤의 나무는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나무로 성(聖)에 속한다.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세계는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인간이 느끼고, 접촉하고, 사랑한 모든 것은 '성(聖)의 드러남'이 될 수 있다.

① 성스러움보다 인간성의 실현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②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③ 현실의 삶 속에서 성스러움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④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는 성스러움을 만나지 못한다고 본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엘리아데의 성과 속, 성현 개념을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나무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독특한 경험으로 성의 드러남이 될 수 있다. 즉, 엘리아데는 성과 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결국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에서는 성현 즉, 성스러움의 드러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성스러움보다 인간성의 실현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② 제시문은 자연적인 것에서도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③ 제시문은 현실의 삶 속에서도 성스러움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제시문은 성과 속의 분리가 아니라, 속세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제시문은 인간이 성스러움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 모든 것이 성성(聖性)을 부분적으로라도 구현할 수 있다면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모순은 사실상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나 다 성현(聖顯)이 될 수 있고 역사의 어떤 시점과 공간에서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은 없으리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성현을 다 가졌던 종교와 인종 또한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적 구조에는 성스러운 것과 나란히 세속적인 존재와 사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
>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04

다음 글의 사상적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6평]

인간은 궁극적 존재에 대해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묻는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과 분리된 궁극적 존재의 힘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이 그 궁극적 존재에 속하여 있음과 동시에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이 모두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① 인간은 궁극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거부해야 한다.
② 인간은 성스러운 삶보다 세속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③ 인간은 감각적 경험을 진리의 토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④ 인간은 삶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며 초월성을 지향해야 한다. → 궁극적 존재
⑤ 인간은 어떤 존재에도 귀의(歸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인간은 '궁극적 존재'에 자신이 속해 있으며 동시에 분리되어 있다고 알고 있으므로, 종교적 물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라고 보는 관점이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은 인간은 자신이 궁극적 존재에 속하여 있음을 알고 있다고 본다. 이는 곧, 인간이 궁극적 존재를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② 제시문은 인간이 궁극적 존재에 대해서 묻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곧 인간이 성스러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③ 제시문은 인간이 '궁극적 존재'에 대해 알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자신이 속해 있음과 동시에 분리되어 있는 '궁극적 존재'는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라기보다, 형이상학적이며 종교적이며, 정신적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제시문은 '감각적 경험의 대상'에 진리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이며 정신적인 대상'에까지 진리를 확장하고 있다.
④ 제시문은 인간은 궁극적 존재에 대해서 묻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삶의 의미를 초월적인 '궁극적 존재'로부터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⑤ 제시문은 인간이 '궁극적 존재'에 속해 있다고 보며, 궁극적 존재의 힘에 속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존재에도 귀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5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6학년도 9평]

> 갑 : "종교는 궁극적 의미와 가치를 다루고, 과학은 실험 영역에서 사실과 이론을 다룹니다. 도덕과 과학이 서로 구분되지만 충돌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듯이, 종교와 과학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 을 : "종교는 과학의 맹목적 환상과 잘못된 절대성을 정화하고, 과학은 종교의 오류와 미신을 정화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과 종교는 서로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여 번영할 수 있습니다."

① 갑은 과학이 종교를, 종교가 과학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을은 종교와 과학이 상보적인 관계로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종교적 믿음이 과학적 사실에 의존한다고 본다.
④ 갑, 을은 한 영역의 지식만 가치 있다는 견해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종교와 과학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구분되어 존재하고, 간섭이나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을은 종교와 과학이 서로 교류, 관여하며 서로의 발전을 도와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지 설명

① 갑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구분되지만 충돌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② 을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상보적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③ 갑과 을 모두 '종교적 믿음이 과학적 사실에 의존'한다고 보지 않는다.
④ 갑과 을은 종교와 과학 모두를 존중하는 입장이다.
⑤ 갑과 을은 모두 종교와 과학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과학과 종교의 상보적 관계

우리는 과학이든 종교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 있기보다는 서 로에게 상보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다. 이 둘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선험적인 확신에 의존한다. 이 둘은 모두 부분적으로 인간의 창조적인 상상력에 달려 있다. 과학과 종교는 물리적인 여러 영역에서, 종교적인 순례자들은 삶의 예술 속에서 이 일을 수행한다. 과학과 종교는 모두 진리를 추구하고 어둠에서 빛을 추구한다. 과학자는 갑자기 떠오른 통찰의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 종교적인 사람은 계시의 순간을 경험하며 이를 삶 자체 안에서 실험한다. [기링, 『기로에 선 그리스도교 신앙』]

▶ 종교와 과학의 유사점 : 진리를 추구한다.
종교와 과학의 차이점 :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진리를 추구한다.
종교의 영역 : 종교는 성스러운 체험과 믿음을 통해 초자연적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
과학의 영역 :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객관적 증거로 자연 과학적 진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종교와 과학의 상보적 관계 : 종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영역과 방법을 가질 뿐 상호 배타적 관계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공존을 모색할 수 있다.

0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9평]

> 갑 : 비종교적 인간은 성현(聖顯)의 시대에서 세속의 시대로 전환 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성스러움으로 상징화된 초월적 존재의 창조물이다. 성화(聖化)된 자연 안에서 인간은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 을 :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관찰 가능한 자연의 배후에 숨어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적 지성은 없다. 자연은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인간의 윤리적 행위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갑은 종교가 인간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② 갑은 비종교적 인간이 자연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고 본다.
③ 을은 초월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아도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과학이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초월적 신이 자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본다.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은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성스러움으로 상징화된 신의 창조물이다. 엘리아데는 인간이 일상에서도 성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을은 리처드 도킨스이다. 리처드 도킨스는 종교적 신과 같은 관념적 개념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무신론적 입장이다.

선지 설명

① 엘리아데는 종교가 인간의 심리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②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자연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고 본다.
③, ⑤ 제시문의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관찰 가능한 자연의 배후에 숨어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적 지성은 없다."라는 서술을 통해 리처드 도킨스는 초월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④ 제시문의 "인간의 윤리적 행위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서술을 통해 리처드 도킨스는 과학이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자연 선택의 결과'는 진화론적(생물학적) 접근에 해당한다.

Tip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神)

-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관찰 가능한 우주의 배후에 숨어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적 지성은 없고, 몸보다 오래 사는 영혼은 없다.
- 진화된 존재인 창조적 지성은 우주에서 나중에 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주를 설계하는 일을 맡을 수 없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신은 망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그것은 유해한 망상이다.

▶ 리처드 도킨스는 생명이란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진화의 법칙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그는 신의 창조를 부정하며, 종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각종 범죄와 전쟁, 학살을 예로 들며 신이라는 관념은 위험한 망상이라고 지적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7

다음 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17학년도 수능]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한 책임이 종교에 있다. 종교들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세계 평화는 시작된다. 인류는 평화보다 전쟁을, 화해보다 광신을, 대화보다 우월성을 부추기는 종교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 차별의 윤리, 모순의 윤리, 투쟁의 윤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생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보 기

ㄱ. 종교들이 공유하는 가르침의 실천은 화합과 공존의 토대이다.
ㄴ. 종교 간의 관용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ㄷ. 타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현실 세계의 갈등과 무관하다.
ㄹ. 보편 윤리의 실현과 종교의 단일화는 인류 생존의 조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한스 큉의 입장이다. 큉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들 사이에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큉에 따르면 각 종교는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종교 간의 평화를, 나아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선지 설명

ㄱ, ㄴ. 제시문은 종교들이 공유하는 지점을 찾아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제시문은 종교들이 서로 공유하는 지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상대 종교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ㄹ. 제시문은 개별 종교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되, 서로 공유하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고, 평화를 이룩하자는 입장이다. '종교의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종교 간의 분쟁만을 일으킬 뿐이므로, 제시문의 입장이 아니다.

-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 간의 평화는 없고, 종교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다."
- 종교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우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강조할 경우 종교 갈등이 심해지므로, 종교 간 화합과 공존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랑, 평화와 같은 가치를 추구해야 문명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대화 역량은 종교 간의 평화를 가능하게 하고, 종교 평화가 곧 세계 평화를 보장해주는 기초적인 조건이다. 대화는 정신적인 생존과 윤리적인 생존을 좌우한다. 세계 평화는 종교 평화에서, 종교 평화는 종교 대화에서, 종교 대화는 신학적인 기본 연구에서 출발한다.
- "대화 역량은 평화 역량을 위한 덕목이다. 대화가 중단되는 곳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영역이든 아니면 공적인 영역이든 전쟁이 일어났다. 대화가 실패하는 곳에서 억압이 시작되었고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했다. 대화를 시도하는 자는 발포하지 않는다. 대화를 지지하는 자는 자신의 교회와 종교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며, 다르게 생각하는 자 또는 이단자와의 투쟁이라는 형태를 혐오한다. 대화를 지지하는 자는 대화를 고수하고, 필요하다면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자 하는 강력한 내적인 힘을 소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종교가 이단자에 대해 거듭 관용하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한, 대화 역량이라는 덕목에 관해 아무런 이해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화 역량에 우리의 모든 정신적 생존은 물론 심지어는 윤리적 생존도 달려 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왜냐하면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는 국가 사이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서는 종교 사이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신학적인 기본 연구를 배제하고서는 종교 사이의 어떠한 태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큉, 『세계 윤리 구상』]

08

다음의 토론 주제에 관한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9평]

• 토론 주제 : 도덕의 최종 근거를 종교에서 찾아야 하는가?

갑 : 도덕의 최종 근거는 종교, 특히 만물을 창조한 신의 명령에서 찾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은 오류 가능하지만 완전한 존재인 신의 명령은 무조건 옳기 때문입니다.

을 : 아닙니다. 신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옳은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 능력으로 그러한 원리를 인식하여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갑 : 도덕적 의무는 오류 가능성이 없는 신의 명령에서 나온다.
② 갑 : 인간 이성은 불완전하므로 도덕 판단의 최종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을 : 윤리적 판단에서 종교적 권위보다 합리적 이성을 중시해야 한다.
④ 을 :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⑤ 갑, 을 : 명확하고 보편적인 도덕적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은 도덕의 최종 근거를 신의 명령에서 찾는 입장이다.
을은 도덕의 최종 근거를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에서 찾는 입장이다.

선지 설명

①, ② 갑은 인간의 판단은 오류 가능한 반면, 신의 명령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도덕 판단의 최종 근거를 오류 가능성이 없는 신의 명령에서 찾고자 한다.
③, ④ 을은 인간은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지녔다고 본다.
⑤ 갑은 신의 명령에서, 을은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에서 보편적인 도덕 판단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09

(가), (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수능]

(가) 종교는 신앙을 통해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혹적이고 신비한 감정의 체험이다. 세계는 신비로 가득하므로 인간 이성이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틀 속에 가둘 수 없다. 방향을 잡기 어려운 현실에서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나) 과학은 사실에 토대하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찾고 반증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 물리적인 것 외에는 실재성이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① (가) : 인간은 종교적 체험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 ○
② (가) : 신앙 없이 이성만으로는 세계의 진리를 완전히 인식할 수 없다. ○
③ (나) : 과학적 지식을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④ (나) : 인간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실증적으로 대상을 탐구해야 한다. ○
⑤ (가), (나) : 과학적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가)는 종교와 신비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신앙과 감정적 체험에 근거하여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진리는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줌으로써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진리다.
(나)는 과학주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진리는 반증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실재적이고 물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적 사실을 의미한다.

선지 설명

①, ② (가)는 인간이 종교적이고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세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③, ④ (나)는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이론을 검토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가)는 세계를 인간 이성이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틀 속에 가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는 거부하고, 물리적인 것 외에 실재성이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고 보는 (나)만이 동의할 것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0

다음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9학년도 6평]

종교란 궁극적 관심에 붙잡힌 상태입니다. 종교는 궁극적 관심으로 '죽느냐 또는 사느냐'를 물으며 그 대답을 찾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유한하지 않은 궁극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순수하고 진지한 관심으로 존재 그 자체로서의 존재를 대면합니다. 이때 궁극적 관심은 절대성을 띠지만, 그 관심의 개별적 표현은 다양한 종교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종교는 유한한 실재를 하나의 신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든 신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 기

ㄱ. 종교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 것이다.
ㄴ. 진정한 종교는 유한한 실재를 무한한 존재로 만든다.
ㄷ. 종교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존재와의 만남이다.
ㄹ. 종교적 관심은 절대성을 갖지만 종교적 표현은 다양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종교를 '궁극적 관심'으로 파악한 폴 틸리히의 입장을 담고 있다.

> 인간이 갖고 있는 삶과 죽음 등과 같은 궁극적인 관심에 대한 해답을 종교가 줄 수 있다. [폴 틸리히]

선지 설명

ㄱ. 제시문의 "종교는 궁극적 관심으로 '죽느냐 또는 사느냐'를 물으며 그 대답을 찾습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종교가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ㄴ. 제시문의 "종교는 유한한 실재를 하나의 신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제시문에서 드러난 '신'은 절대성을 지닌 무한한 존재로 볼 수 있다.

ㄷ. 제시문의 "진정한 종교는 유한하지 않은 궁극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순수하고 진지한 관심으로 존재 그 자체로서의 존재를 대면합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ㄹ. 제시문의 "궁극적 관심은 절대성을 띠지만, 그 관심의 개별적 표현은 다양한 종교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Tip 종교의 본질에 대한 주장

- 틸리히(Tillich, P.) : 종교는 궁극적 관심이다.
- 오토(Otto, R.) : 종교는 엄청나고도 매혹적인 신비의 감정이다.
-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F.) : 종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 칸트 : 종교는 도덕의 완성을 위한 요청이다.
- 포이어바흐(Feuerbach, L.) : 종교는 절대적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 정신의 투사(投射)이다.
- 마르크스 : 종교는 봉건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관계가 낳은 부산물로서, 인민의 아편이다.
- 프롬 : 종교는 성숙한 인격 형성에 공헌한다.
- 뒤르켐(Durkheim, E.) : 종교는 결속과 질서 유지에 전제된 사회적 권위이다.
- 프로이트(Freud, S.) : 종교는 유아기를 청산하지 못한 성인의 집착 산물로서, 성숙한 인격 형성에 장애가 된다.
- 도킨스 : 종교는 진화론적 자연 선택의 산물이다.

11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평]

○○신문 ○○○○년 ○○월 ○○일

칼럼

오늘날 세계 각 지역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 폭력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서양 사상가의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타 종교인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참된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다. 참된 종교는 영혼의 내적 확신에 기초하는데, 이러한 내적 확신을 폭력과 같은 외부적 힘으로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사명은 물론 인간 이성에도 어긋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종교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을 인식해야 한다. …(후략)…

①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불필요하다는 것
② 영혼의 내적 확신이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
③ 종교적 박해는 불합리하므로 부당하다는 것
④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도 참된 종교라는 것
⑤ 종교적 불관용만이 이성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

정답 ③

제시문 설명

제시문에서는 세계 각 지역에서 종교 간의 갈등으로 폭력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종교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서양 사상가의 가르침을 강조한다. 제시문의 어떤 서양 사상가는 '타 종교인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주장하며 폭력과 같은 외부적인 힘으로 영혼의 내적 확신을 강제하는 것이 종교의 사명과 인간 이성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선지 설명

① 칼럼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불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
② 칼럼에서는 참된 종교가 영혼의 내적 확신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지, 영혼의 내적 확신이 구원과 무관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
③ 칼럼에서는 영혼의 내적 확신을 폭력과 같은 외부적 힘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종교인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강조한다. 따라서 종교적 박해는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④, ⑤ 칼럼에서는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며, 영혼의 내적 확신을 외부적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 종교적 사명과 인간 이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가 참된 종교라거나, 종교적 불관용만이 이성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종교적 인간은 탄생, 결혼, 죽음과 같은 사건을 겪으며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 존재는 이 세계 안에 스스로 현현(顯現)하여 이 세계를 성화(聖化)시킨다. 그러나 세속적 인간은 자신만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며, 초월적 존재를 향한 모든 호소를 거절한다. 그들에게 거룩한 존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세속적 인간은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탄생, 결혼, 죽음을 기리는 의식이 세속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는 종교적 현상이 관찰된다.

① 종교적 인간은 스스로 성스럽게 드러나는 거룩한 존재를 믿는다.
②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한다.
③ 종교 의식과 무관한 세속적 일상 의례에도 신성성이 깃들어 있다.
④ 세속적 인간은 통과 의례가 갖는 종교적 의미를 자각하지 못한다.
⑤ 세속적 인간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워진다고 믿는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탄생, 결혼, 죽음과 같은 사건을 통해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과 달리 세속적(비종교적) 인간은 그러한 거룩한 초월적 존재를 향한 모든 호소를 거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데는 세속적(비종교적)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종교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의 "종교적 인간은 탄생, 결혼, 죽음과 같은 사건을 겪으며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하지 않는다.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의 드러남인 성현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제시문의 "탄생, 결혼, 죽음을 기리는 의식이 세속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는 종교적 현상이 관찰된다."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제시문의 "그럼에도 세속적 인간은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탄생, 결혼, 죽음을 기리는 의식이 세속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는 종교적 현상이 관찰된다."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통과의례란 출생, 성년, 결혼, 사망 따위와 같이 사람의 일생 동안 새로운 상태로 넘어갈 때 겪어야 할 의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⑤ 제시문의 "세속적 인간은 자신만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며, 초월적 존재를 향한 모든 호소를 거절한다. 그들에게 거룩한 존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일 따름이다."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3

다음은 어느 사상가의 강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학년도 9평]

>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것과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 주기 때문에, 인간은 성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나타나는 원시적인 성현(聖顯)에서부터 예수 안에 하느님의 신성이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스러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재가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의 부분을 이루는 대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볼 때, 종교적 인간은 [㉠] 엘리아데

① 성스러움이 드러난 돌이나 나무 자체를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②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③ 세속의 세계 안에서 성현을 체험하며 그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④ 세속적인 삶에서 언제든지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⑤ 세속의 세계를 성스럽게 만드는 거룩한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정답 ①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의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나타나는 원시적인 성현(聖顯)에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재가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의 부분을 이루는 대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엘리아데는 '성현,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재'가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종교적 인간들이 돌이나 나무와 같은 대상을 '성스러움이 드러난 대상'으로 여기며 종교적 대상으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돌이나 나무 그 자체를 신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②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일상적인 대상에서도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즉,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은 단절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③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세속의 세계 안에서 성현을 체험한다고 본다.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재가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의 부분을 이루는 대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일상적 대상, 세속적인 세계'에서 성현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신적 존재를 믿는다고 본다. 그러한 신적 존재는 '세속의 세계를 성스럽게 만드는 거룩한 존재'이다.

14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거룩한 것의 총체이다. 종교의 역사는 성현(聖顯)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인간은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실재가 자연의 대상 속에서 현현(顯現)되는 사건에 마주칠 때, 예컨대 한 그루 나무를 우주적 생명의 이미지로서 접할 때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달리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을 거부하는 인간 실존의 탈신성화 과정의 결과이다. 엘리아데

① 비종교적 인간도 세계를 성(聖)의 드러남으로 인정한다.
② 성(聖)이 현현되는 이 세계는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다.
③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성(聖)을 만나게 된다.
④ 어떤 인간도 현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
⑤ 인간이 성(聖)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물에 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성과 속에 대한 엘리아데의 종교적 입장을 논하고 있다. 엘리아데는 현대의 인간들 다수가 '비종교적 인간'이라고 보았다. 비종교적 인간은 과학 중심의 사고를 하며, 종교적 의미의 고전적 신(神)에 대한 초월적 관념을 거부하고,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초월(Transzendenz)이란, 우리의 직관으로는 인식할 수 없지만 그 존재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공간 같은 인식의 범주를 지칭한다.

선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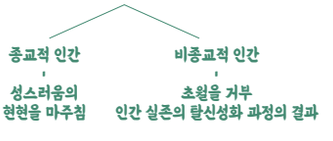
① 엘리아데에 따르면 비종교적 인간은 성으로 드러남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엘리아데는 이 세계에 성(聖)이 나타나지만, 이 세계 자체를 초월적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

③ 엘리아데에 따르면 인간은 일상적 삶에서 체험을 통해 성을 만날 수 있다.

④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은 현실의 삶 속에서 성현을 마주할 때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있다.

⑤ 엘리아데에 따르면 인간이 성(聖)을 알 수 있는 것은 성이 세속적인 것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물에 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평화와 공존의 윤리

빠른 정답 6단원

01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01	①	02	⑤	03	①	04	④

02 민족 통합의 윤리

01	⑤	02	②	03	④	04	⑤	05	①
06	③	07	④						

03 지구촌 평화의 윤리

❶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01	③	02	②	03	①	04	②	05	③
06	③	07	③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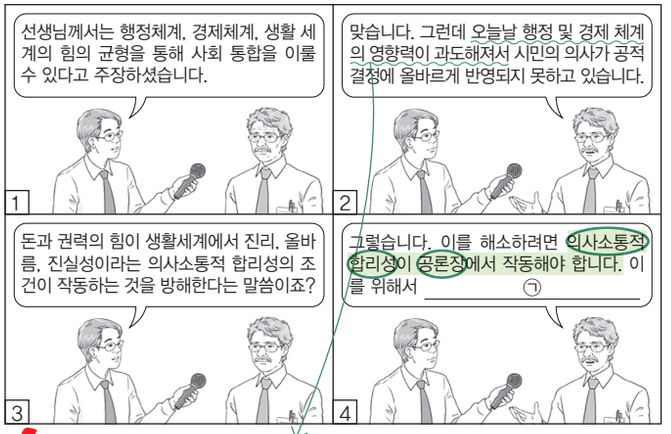
6단원 01 평화와 공존의 윤리

❶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01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8학년도 6평]



① 공론장에서 행정 및 경제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② 공론장에서 기업과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③ 공정한 담론 절차를 준수한 합의의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④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⑤ 공론장에서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진실한 말로 주장해야 합니다.

옳은 선지 암기할 것.

정답 ①

제시문 설명

〈하버마스 :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공론장에서 작동해야 한다.〉
(1) 행정체계, 경제체계, 생활 세계의 힘의 균형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
(2) 오늘날 행정 및 경제체계의 영향력이 과도해져서 시민의 의사가 공적 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3) 돈과 권력의 힘이 생활세계에서 진리, 올바름, 진실성이라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조건이 작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4)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공론장에서 작동해야 한다.
(5) 공론장에서 기업과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6) 공정한 담론 절차를 준수한 합의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7)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
(8) 공론장에서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진실한 말로 주장해야 한다.

선지 설명

①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효율성이 아닌 의사소통 과정의 절차를 통한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② 하버마스는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정치에 참여해야 행정체계 · 경제 체계 · 생활세계의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③ 하버마스는 담론 절차의 공정성을 중요시한다. 또한 담론 과정에서의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여야 한다고 본다.
④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당사자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진실성을 제시했다.

Tip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 상황의 조건 깊게 알아보기

〈하버마스 : 이상적 대화 상황의 조건〉

이상적 대화 상황은 자유롭고 평등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더 나은 주장에 근거하여 도달한 합의에 따라서만 규제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대화 상황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표현의 이해 가능성으로, 이해 가능성을 사실적으로 전제해야 한다. 둘째, 표현하는 명제는 참된 명제이어야 한다. 셋째, 제시하는 의견이 규범적 맥락에서 정당해야 한다. 넷째, 말하는 주체가 진실하여야 하며 진지한 발언 태도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대화 상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다른 대화 상대자를 기만하거나 속일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대화 참여자들은 각각 담론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

0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학년도 9평]

> 오늘날 시민들은 공적 장소에서 토론할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적 토론이 시민들에게 권장되지도 않는다. 시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없으면 건강한 민주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시민들 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로 대화에 참가하고, 그 토론의 결과가 법체계에 반영된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토론의 ~~절차가 아니라~~ 토론의 결과만을 중시해야 한다.
②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③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 법에 대해 ~~다시 토론해서는 안 된다~~.
④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적 토론을 권장할 필요는 없다~~.
⑤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토론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⑤

제시문 설명

〈하버마스 :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공론장에서 작동해야 한다.〉

(1) 시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있어야만 건강한 민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2)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3) 민주적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시민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로 대화에 참가하고, 그 토론의 결과가 법체계에 반영된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지 설명

① 하버마스는 토론의 절차를 중요시한다.
②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공론장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③ 하버마스는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토론할 수 있다고 본다.
④ 하버마스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토론을 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란,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 구성원 간에 공유하는 합리성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공유해야 한다.

Tip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 상황의 규칙 깊게 알아보기

하버마스 : 이상적 대화 상황의 규칙
- 첫째, 모든 언어와 행위 능력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둘째, 누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부칠 수 있으며,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어떤 담론의 참가자도 담론의 내적 또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위의 첫째와 둘째에서 명시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9평]

모든 사유의 출발점은 홀로 사유하는 '나'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어적 ·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타자를 단지 도구화하지 않고, 타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사소통 행위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서로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데에서 성립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강제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들만이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하버마스

① 행위 규범으로서의 올바름은 비판과 논증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

② 이상적 담화에서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거부할 수 없다.
(문제 제기 가능)

③ 주관적 견해를 극복한 후에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담론을 통해 주관적 견해 극복 가능)

④ 타당한 규범은 대화에 참여한 다수에 의해 동의를 얻은 규범이다.
(모두)

⑤ 상호 인정의 자세는 타자를 나와 완전히 동일화하기 위해 요구된다.
(타자와 내가 다름을 인정, 존중)

정답 ①

선지 설명

① 하버마스는 담론 과정에서의 비판과 논증을 통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행위 규범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시민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로 대화에 참가하고, 그 토론의 결과가 법체계에 반영된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하버마스, 『담론 윤리의 해명』]

②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누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담론의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자격이 있다.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 욕구 등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들을 행사할 때 내부나 외부의 강요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 [하버마스, 『담론 윤리의 해명』]

③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가 '타자의 고유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한다고 본다. 이는 곧 선지에서 말하는 '주관적 견해'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이상적 담론에서는 개인들이 각자의 주관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하버마스는 제시문에서 모든 사유의 출발점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라고 말하며,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획득하고 주관적 견해를 극복한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④ 하버마스에 따르면, '다수'가 아니라 대화에 참여한 '모두'에 의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대화에 참여한 다수는 동의하는 반면, 소수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규범은 도덕적 규범으로 타당하지 않다. 하버마스는 칸트의 보편적 입법 원리의 형식의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 행위 규범은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때 정당화 가능하다고 본다.

> • 칸트 :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 하버마스 : 모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강제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들만이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 [2021학년도 9평]

⑤ 하버마스에 따르면, 타자를 나와 완전히 동일화하게 되면 나 또는 타자의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제시문에서 하버마스는 '타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논하며, 나와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1학년도 수능]

>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다.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하버마스

① 담론 참여자는 논의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한다.
②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서는 안 된다.
③ 담론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④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한다.
⑤ 담론 참여자는 이해관계의 조정 수단으로만 담론을 활용해야 한다.

모든 사람 평등 참여 / 자유롭게 발언 가능 / 문제 제기 가능 /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되어야 함

정답 ④

선지 설명

① 하버마스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상황의 규칙에 따르면, 모든 언어와 행위 능력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하버마스는 담론의 참여자 모두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고 본다.

③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의 규칙으로 누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부칠 수 있으며,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④ 하버마스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도 담론 참여자가 수용해야 할 요소라고 본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강제적인 수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버마스, 『담론 윤리의 해명』]

⑤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가 이해관계의 조정 수단으로만 담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부칠 수 있으며, 자기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다.

Tip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깊게 이해하기

하버마스 : 이상적 대화 상황의 조건

이상적 대화 상황은 자유롭고 평등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더 나은 주장에 근거하여 도달한 합의에 따라서만 규제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대화 상황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표현의 이해 가능성으로, 이해 가능성을 사실적으로 전제해야 한다. 둘째, 표현하는 명제는 참된 명제이어야 한다. 셋째, 제시하는 의견이 규범적 맥락에서 정당해야 한다. 넷째, 말하는 주체가 진실하여야 하며 진지한 발언 태도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대화 상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다른 대화 상대자를 기만하거나 속일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대화 참여자들은 각각 담론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

하버마스 : 이상적 대화 상황의 규칙

- 첫째, 모든 언어와 행위 능력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둘째, 누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부칠 수 있으며,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어떤 담론의 참가자도 담론의 내적 또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위의 첫째와 둘째에서 명시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비상 생윤 교과서]

하버마스 : 담론의 보편화 규칙

모든 타당한 규범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개인의 이해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규범을 일반적으로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모든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대안적 조절 가능성의 효과보다 결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 어떤 준칙이 일반 법칙이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준칙의 타당성을 규정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나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 논의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인이 모순 없이 일반 법칙으로 원할 수 있는 것부터 모든 사람이 일치하여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을 이행한다.

[하버마스,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6단원 O2 민족 통합의 윤리

01

다음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수능]

사회·문화적 이질성 → 갈등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동서독 주민들은 통일 이전의 상이한 체제에서 비롯된 사고방식과 정서의 차이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서독인은 동독인을 가난하고 게으르다는 의미인 '오씨(Ossi)'로, 동독인은 서독인을 거만하고 잘났다는 의미인 '베씨(Wessi)'로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독일의 통일 사례

① 남북한의 조속한 통합을 위해 외형적인 통일을 강조해야 한다. ×
→ 갑작스러운 통일은 두 나라에게 좋지 않다는 내용

② 국제적 합의를 통해 남북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 관련 없는 내용

③ 정치 · 군사적 방식을 통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수립해야 한다. ×
→ 사회·문화적 이질성 완화에 도움 안 됨.

④ 동북아 다자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 관련 없는 내용

⑤ 사회 · 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의 이질성을 줄여야 한다. ○
'정치 체제의 상이함'에 대한 갈등 도움(○)
⇒ 제시문과 관련 있는 내용 찾기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독일의 통일 사례에 대해 사회적 · 문화적 이질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통일은 동서독의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이로부터 남북의 통일 이전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이질감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은 갑작스러운 통일은 두 나라에게 좋지 않다고 본다.

② 제시문은 국제적 합의를 논하고 있지 않다. 만약,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재와 같이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이질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통일을 한다면, 제시문에서 말하는 통일의 부작용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③ 군사적 방식의 통일은 현재 제시문의 시사점과는 거리가 멀며,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이질성을 완화할 수도 없다. 단, 어떤 '정치적 방식'은 '정치 체제의 상의함'에서 오는 갈등을 줄여줄 수 있을 수도 있다. 가령, 약한 연방제 등이 대안적 방안으로 논의되곤 한다.

④ 좋은 말이긴 하지만, 제시문과 무관하다. 제시문은 국제적 안보의 문제를 논하지 않는다. 참고로 '동북아 다자 안보'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 모두의 안보를 뜻한다.

⑤ 남북한의 이질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절하다.

Tip 헌법상 북한의 지위 깊게 알아보기

생윤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헌법상 북한의 지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요약

1. 대한민국 헌법 3조와 헌법 4조는 서로 북한에 대한 이중적 지위를 논하고 있다.(이중적 지위설)
2.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는 남과 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도표 비교

헌법 3조(영토 조항)	헌법 4조(통일 조항)
헌법 제 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 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보는 입장	북한을 통일 협상의 대상으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는 입장.

*대법원 판례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 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황남기 헌법 강사 칼럼, 출처 : 데일리그리드(http : //www.dailygrid.net) 2019.05.20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고 한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제4조는 평화통일을 대한민국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 만나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02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학년도 6평]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점차 이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편익도 생긴다. 분단 비용은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지불하는 유무형의 비용으로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평화 비용은 인도적 지원, 사회 문화 교류 사업 등과 같이 통일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투자 성격의 비용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에 제도의 통합, 화폐의 통합 등을 위해 통일 한국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① 이산가족의 고통과 외국인 투자 감소는 분단 비용에 포함된다.
②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교류 사업은 통일 비용에 포함된다.
③ 분단 비용은 소모적 비용으로 민족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④ 평화 비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분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⑤ 경제 협력의 확대를 통해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정답 ②

제시문 설명

이 문항 출제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통일론은 평가원이나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현자의 돌 연구소는 견해가 달랐다. 현자의 돌 연구소에서는 통일론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며, 만약 통일론이 출제된다면 대부분 독해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 관련 내용은 독해로 풀기에 학생들이 혼동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문항도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TIP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보자.

선지 설명

① 분단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TIP 참조)
② 적절하지 않은 선지다. 제시문에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에 …'라고 명시되어 있듯, 통일 비용은 통일이 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나뉘어서 교류하는 것은 통일 전의 비용에 속한다. 특히, '문화 교류 사업'에 들어가는 평화 비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③ 분단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평화 비용의 효과로 적절하다.
⑤ 적절한 선지. 제시문에서 '통일 비용은 … 통일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적고 있다.

Tip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깊게 알아보기

01. 분단 비용 정리

- 분단 비용 : 남북한의 분단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1) 소모성 비용 : 통일 이후에는 소멸하는 비용
  2)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3) 유형적 분단 비용 : 군사 비용, 외교 비용, 대북 관련 기관 유지 비용
  4) 무형적 분단 비용 : 전쟁 가능성에 따른 공포, ① 이산가족의 고통, 이념적 갈등과 대립, 국토 이용의 제한, 외국인 투자 감소
  5) 부작용 : ③ 소모성 비용이기 때문에 민족 경쟁력의 약화 초래

02. 평화 비용 정리

- 평화 비용
  1) 통일 이전에 평화 정착 및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
  2) 북한 지원 및 ② 교류 협력 사업,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등 남북 경제 협력
  3) ④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분단 비용을 줄여 줌
  4) 경제적 실익(통일 비용 경감, 자본의 대북 투자)은 물론 사회 · 문화적 실익(냉전 극복, 공동체 회복, 국가 위상 제고)을 증진함
  5) 동질성 회복과 경제적 격차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통일 비용 완화
  6) 분단 및 통일 비용을 감소시켜 평화 통일의 기반 제공

03. 통일 비용 정리

- 통일 비용 :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해소 및 경제 통합 비용, 정치 · 사회 · 문화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통일에 따른 편익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분단 비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1) 체제 통합 비용 → 통일 후 남북 격차 해소 및 이질적 요소 통합
  2) 통일에 따른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투자 비용
  3) 제도 통합 비용 : 정치 및 행정 제도, 금융 및 화폐 통합 등에 따른 비용
  4) 위기 관리 비용 : 치안, 인도적 긴급 구호, 실업 해소 등의 처리 비용
  5) 경제적 투자 비용 : 사회 간접 자본 및 생산 시설 구축 비용
  6) 통일의 경제적 편익 : 남북한 분단 비용 소멸 및 남북한 경제 통합에 따르는 편익
  7) 통일의 비경제적 편익 : 분단 해소로 인한 안보 불안 및 전쟁 위기 해소의 정치 · 군사적 편익,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신장의 인도적 편익, 학문과 문화 발전 및 관광, 여가, 문화 서비스 기회 향상 등의 사회 · 문화적 편익

	분단 비용	평화 비용	통일 비용
통일 전/후	통일 전	통일 전	통일 후
소모/투자 성격	소모 비용	투자 비용	투자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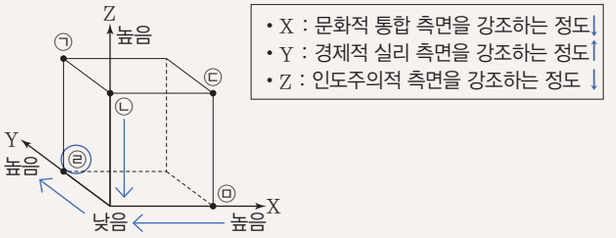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3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2020학년도 9평]

(가) 통일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보다 남북한 언어와 문화의 이질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이산가족의 만남, 북한 주민의 보편적 삶의 권리 실현을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

(나) 통일 문제를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인권 신장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분단에 따른 각종 불안 요인을 극복하여 경제 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



- X : 문화적 통합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
- Y : 경제적 실리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
- Z :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④

제시문 설명

(가)

주장1 : 통일에서는 경제적 효과 << 남북한 이질화 문제 해소

주장2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 이산가족의 만남, 북한 주민의 보편적 삶의 권리 실현

(나)

주장1 :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인권 문제도 고찰해야 하나, 통일에 대한 주된 이유는 경제 발전에 있다.

주장2 :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근거1 : 분단에 따른 각종 불안 요인을 극복하여 경제 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 설명

X : (가) > (나)

Y : (가) < (나)

Z : (가) > (나)

→ X, Z에서 '문화적 통합, 인도주의적 측면'은 (가)가 통일에 있어서 주로 고려하는 바이다. (나)의 경우 문화적 통합, 인도주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 정답 : ㉣

04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 통일은 분단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 역사의 창조 작업입니다. 통일은 ⑤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 ③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그리고 자유와 평등 신장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성취해야 하지만, ④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통일 지상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급진적 방식의 통일은 사회적 갈등과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평화적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급진적 방식의 통일보다 통일 비용을 줄이고 더 ①많은 통일 편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 예술 등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분야로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체제 통합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① 점진적 평화 통일이 급진적 통일보다 더 ~~많은~~ 적은 비용을 초래한다. ×

② 통일을 위해 비정치적 협력(문화와 예술 등)보다 정치적 통합(바뀜)을 우선해야 한다. ×

③ 인도적 측면(이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봄)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

④ 통일은 이유와 방식을 불문하고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다. ×

⑤ 통일은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 ○ (통일 지상주의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임)

⇒ 제시문을 잘 읽고 풀기!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강연자는 민족의 번영,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자유와 평등 신장 등에 기여하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 단계적 방식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단계적 방식의 통일은, 통일 비용을 줄여나감으로써 더 많은 통일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다. 가령, 제시문은 문화와 예술과 같이 협력하기에 비교적 쉬운 분야에서부터 교류하고, 궁극적으로는 체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선지 설명

① 제시문에 따르면, 급진적 통일보다 점진적 통일이 더 비용이 적다.

② 제시문에 따르면, '문화와 예술'과 같이 비정치적인 영역이 정치적 영역보다 협력하기 쉽다고 본다.

③ 제시문에 따르면,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자유와 평등 신장'과 같은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④ 제시문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통일 지상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⑤ 제시문에 따르면, '민족의 번영,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자유와 평등 신장 등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통일이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선지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Tip 통일 편익 깊게 알아보기

통일 편익 : 통일로 얻게 되는 경제적 · 경제 외적 보상과 혜택

① 통일의 경제적 편익	남북한 분단 비용 소멸 및 남북한 경제 통합에 따르는 편익
② 통일의 경제 외적 편익	분단 해소로 인한 안보 불안 및 전쟁 위기 해소의 정치·군사적 편익,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신장의 인도적 편익, 학문과 문화 발전 및 관광, 여가, 문화 서비스 기회 향상 등의 사회·문화적 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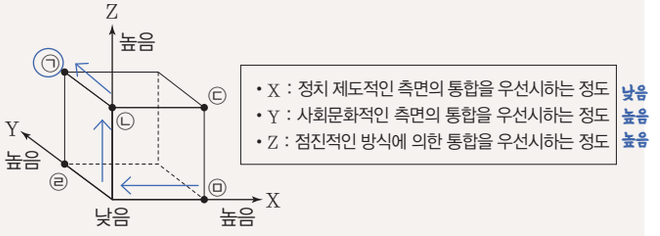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5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정치적 문제 먼저 → 비정치적 문제 먼저 [2021학년도 6평]

(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치적, 법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어 통일이 실현될 것이다.

(나)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남북한의 불신이 해소되어 정치 통합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 X : 정치 제도적인 측면의 통합을 우선시하는 정도 — 낮음
- Y :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통합을 우선시하는 정도 — 높음
- Z : 점진적인 방식에 의한 통합을 우선시하는 정도 — 높음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①

제시문 설명

(가)는 정치적인 문제부터 우선 해결되어야 통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에 반해 (나)는 비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교류 협력을 먼저 진행해야 정치적 통일 역시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적 통일을 강조하는 입장에 비해 비정치적 통일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르면 된다.

선지 설명

①

X : (가)>(나), 제시문에서 읽을 수 있듯이 정치 제도적인 측면의 통합을 우선시하는 입장은 (가)이다.

Y : (가)<(나), 사회 · 문화적, 즉 정치적 영역이 아닌 비정치적인 측면의 통합을 우선시하는 입장은 (나)이다.

Z : (가)<(나), 제시문 (나)에서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한다. 즉, 통일에 이르는 시간의 단축과 다른 분야의 신속한 해결을 강조하는 (가)와 달리 점진적인 방식에 의한 통합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0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1학년도 9평]

갑 : ①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주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이 필요합니다.

을 : 동의합니다. ②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⑤상황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④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이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갑 : 같은 의견입니다. ⑤그러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스스로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③국제 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 갑 : 동의

을 :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은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와 내정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북한도 요구할 것입니다.

을 : 부정

①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지니는가? 둘다 동의
②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가? 둘다 동의
③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가? 갑 : 동의, 을 : 부정
④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둘다 동의
⑤ 북한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둘다 동의

⇒ 핵심 쟁점 : 의견 충돌 지점을 찾기

정답 ③

선지 설명

①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지니는가?

> 갑 :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 을 : 동의합니다.

→ 갑, 을 모두 동의하므로 쟁점이 아니다.

②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가?

> 갑 :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을 : 동의합니다.

→ 갑, 을 모두 동의하므로 쟁점이 아니다.

③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가?

> 갑 : 국제 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 을 :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은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갑은 동의하고, 을은 부정한다. 따라서 이 입장이 핵심 쟁점이다.

④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을 :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이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 갑 : 같은 의견입니다.

→ 갑, 을 모두 동의하므로 쟁점이 아니다.

⑤ 북한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 을 :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 갑 : 같은 의견입니다.

→ 갑, 을 모두 동의하므로 쟁점이 아니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

갑 : 북한 주민은 통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동포입니다. 이념을 떠나 고통 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윤리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이 필요합니다. ④ ②

을 : 고통 받는 이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지만, 북한 사회의 특성상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①

갑 : 북한 사회의 투명성이 낮아 그러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 증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⑤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을 : 물론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물품이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북한 사회의 개방이 선행된 이후에 행해져야 합니다. ③

④ 조건부 대북 지원

① 북한 사회는 투명성이 낮은가? 모두 동의

②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하는가? 모두 동의

③ 북한 사회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모두 동의

④ 대북 지원은 조건부로 행해져야 하는가? 갑 : 조건×, 을 : 조건○

⑤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가? 모두 동의

⇒ 핵심 쟁점 찾기 : 서로 다른 의견 찾기

정답 ④

선지 설명

① 갑과 을 모두 동의할 질문이다. 갑은 두 번째 발화에서 북한 사회의 투명성이 낮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을은 첫 번째 발화의 "북한 사회의 특성상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부분에서 북한 사회의 투명성이 낮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갑과 을 모두 동의할 질문이다. 갑은 첫 번째 발화에서 고통 받는 사람을 돕는 것을 윤리적 의무로 보며 을도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을은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선 북한 사회의 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갑과 을 모두 동의할 질문이다. 갑은 대북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며 을은 북한 사회가 개방된 후 대북 지원을 행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는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갑은 첫 번째 발화에서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주장하지만 을은 북한 사회의 개방이 전제되었을 때 대북 지원이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 * 조건부(條件附) : 무슨 일에 일정한 제한이 붙거나 제한을 붙임. 또는 그 제한 [표준국어대사전]

⑤ 갑과 을 모두 동의할 질문이다. 갑의 두 번째 발화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 증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와 을의 두 번째 발화 "물론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단원 03 지구촌 평화의 윤리

❶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01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갑 :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다. 폭력에는 전쟁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사회구조 자체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등에 내재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갈퉁

을 : 천하에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兼愛)와 서로 이롭게 하는 교리(交利)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묵자

① 갑 : 직접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평화는 달성된다.
└ 갈퉁 : 모든 폭력의 제거 강조

② 갑 : 소극적 평화를 이루면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는 없다.
갈퉁 : 적극적 평화 지향 강조

③ 을 : 자국과 타국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
└ 묵자의 겸애 사상 : 보편적 인류애 강조

④ 을 : 친소(親疎)를 분별하는 사랑으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 유교의 인(仁)
묵자 : 별(別)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

⑤ 갑, 을 : 평화 실현을 위해서라면 적국에 대해 선제공격해야 한다.
갈퉁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조
묵자 : 비공 사상 강조 (침략 전쟁 반대)

정답 ③

선지 설명

① 갈퉁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갈퉁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갈퉁은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까지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극적 평화	전쟁, 테러 범죄,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서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
적극적 평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 구조적 폭력과 ** 문화적 폭력 등의 간접적 폭력까지 제거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상태

* 구조적 폭력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사회 · 정치 구조로써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문화적 폭력
종교, 사상, 예술, 학문 등으로 폭력이 합법화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갈퉁, 금성 생윤 교과서]

② 갈퉁은 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갈퉁은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어야 보편적 가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갈퉁은 그동안 전쟁 방지에만 머물렀던 기존의 평화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의 구체적 현실과 억압적인 문화 구조를 극복하려 하였다. 갈퉁은 적극적 평화를 보다 강조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존엄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씨마스 윤사 교과서]

③ 자국과 타국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은 묵자가 주장한 겸애(兼愛)에 해당한다. 묵자는 이러한 겸애 사상을 기반으로 한 평화를 주장하였다.

> 묵자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자기 자신처럼 두루 사랑하라는 겸애(兼愛) 사상을 바탕으로 평화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를 차별하지 않고 자기 나라처럼 대하고 사랑한다면 침략 전쟁을 벌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즉 전쟁은 침략을 당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도 큰 피해를 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말고 서로 사귀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천하에 이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학사 윤사 교과서]

④ 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은 묵자의 견해가 아니라, 유교의 인(仁)에 해당한다. 묵자는 분별하여 차별하는 것, 즉 별(別)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

⑤ 갈퉁과 묵자 모두의 입장에서 틀린 선지이다. 먼저 갈퉁은 평화가 평화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 ·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갈퉁, 2017학년도 6평]

또한 묵자는 천하에 가장 해로운 것이 전쟁이라고 보며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비공(非攻)사상을 주장한다. 한편, 묵자는 갈퉁과 달리 방어를 위한 전쟁은 허용한다.

> 묵자는 강대국으로부터 약소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침략 전쟁을 반대하였다. 또한, 전쟁을 막기 위해 국가 간의 외교를 두터이 하여 신뢰를 쌓을 것을 강조하였다. [씨마스 윤사 교과서]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1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갑 : 공화국 간에는 평화 연맹이 존재해야 한다. 평화 조약이 단지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칸트

을 : 평화는 폭력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과 관련된다.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 외에도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있다. 이러한 폭력들이 제거된다면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갈퉁

① 갑 :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 형태는 세계 평화의 실현과 무관하다.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제1항 :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함

② 갑 : 평화 연맹은 소속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칸트 : 평화 연맹에 소속된 국가들은 평화 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고자 함

③ 을 :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 사용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갈퉁 :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달성 가능함을 강조

④ 을 : 평화 추구의 궁극적인 목표를 전쟁의 종식에 두어야 한다.
갈퉁 : 적극적 평화 실현 추구 / 소극적 평화

⑤ 갑, 을 : 단일한 세계 정부를 창설해 적극적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칸트 : 개별 국가의 주권이 보장되어야 함

정답 ②

선지 설명

①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에서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가 공화 정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 정체는 전제 체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전제 체제에서는 지배자의 사적 의지가 곧 공적 의지인 반면 공화 정체는 국민들의 근원적 시민 계약에 의한 권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체제에서는 지배자가 전쟁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만, 공화정에서는 전쟁 시행 여부를 국민들이 결정한다. 따라서 칸트는 국민의 동의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공화정만이 영구 평화에 대한 전망을 준다고 본다.

> 제2장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 제1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 이 시민적 체제는 원초적 계약의 이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 모든 법률상의 입법이 근거해야만 하는 공화제이다.
> 제2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 제3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추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우호란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칸트, 2014학년도 6평]

② 칸트에 따르면 평화 연맹은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데에만 관여한다. 즉 평화 연맹은 소속 국가를 지배하는 권력적 집단이 아니라, 그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합체인 것이다.

> 이 연맹(평화 연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하며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처럼) 그 연맹에 참가한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시민법에 복종시키거나 강제적으로 구속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킬 뿐이다. [칸트, 『영구 평화론』]

> 공화 정체인 국가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평화 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고자 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적 체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칸트, 2021학년도 9평]

③ 갈퉁은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고 보며, 평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수단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갈퉁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모든 전쟁의 종식은 물론,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 ·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갈퉁, 2017학년도 6평]

⑤ 칸트에 따르면 국가도 개별 인격체로 대우해야 하며,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만 한다. 그러나 단일한 세계 정부를 창설하려면 개별 국가의 주권을 폐지해야 하므로 이미 주권 국가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영구 평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칸트는 현실적인 영구 평화 실현 방안으로 세계 정부 대신 평화 연맹을 제시하였다.

> 칸트(○) : 평화 연맹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 간 합병은 배제된다. [2023학년도 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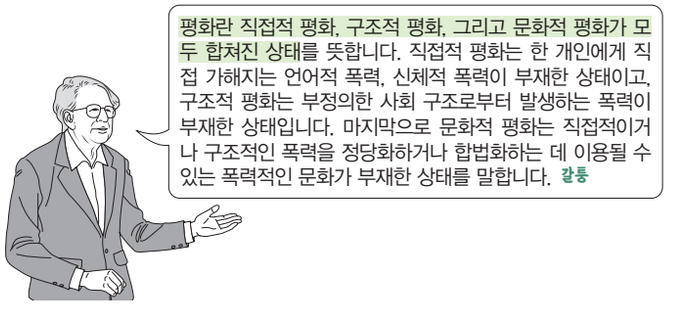
> 국제 연맹과 국제 국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국제 국가는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하나의 중앙 정부를 가진 세계 유일의 초강국을 의미한다. … 그렇지만 국제 국가의 탄생은 실질적인 자유의 파멸을 의미한다. 그것은 전제 정치에 의한 평화만을 보장해 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세계 공화국이라는 이념 대신에 소극적 이념으로서의 연맹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동시에 평화란 궁극적으로 국제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들의 공화적 체제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칸트, 『영구 평화론』, 이한구 해제]

갈퉁 또한 평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지만 단일한 세계 정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0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① 직접적 폭력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다.
모든 폭력이 사라져야 함

②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갈퉁 : 문화적 폭력의 역할은 주로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

③ 평화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소극적 평화 / 적극적 평화

④ 테러나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이다.
소극적 평화 :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적극적 평화 :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

⑤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갈퉁 : 폭력 간의 긴밀한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할 것 강조

정답 ①

선지 설명

① 갈퉁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폭력이 제거되어야 적극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에서도 평화란 직접적 평화, 구조적 평화, 문화적 평화가 모두 합쳐진 상태라고 서술하고 있다.

② 갈퉁은 문화적 폭력의 기능이 다른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은 독재 정권과 같은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갈퉁은 민주주의적 체제가 상대적으로 폭력에 대한 잠재성이 낮다고 본다.

>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이는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갈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 [민주주의에서는] 폭력에 대한 잠재성이 0은 아니지만 낮은 편이다. 반면 독재 정권에서는 폭력이 빈번하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 억압과 폭동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강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갈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③ 갈퉁은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한다. 즉 전쟁 등의 직접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 상태를 넘어서서, 구조적 및 문화적인 폭력도 제거되고 폭력을 예방하기도 하는 적극적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적극적 평화는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한다. [갈퉁, 천재 윤사 교과서]

④ 갈퉁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로, 물리적 폭력을 포함하여 모든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규정하였다.

> 소극적 평화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직접적인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 달성된다. 반면에 적극적 평화란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극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갈퉁은 그동안 전쟁 방지에만 머물렀던 기존의 평화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의 구체적 현실과 억압적인 문화 구조를 극복하려 하였다. [씨마스 윤사 교과서]

⑤ 갈퉁은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이 '폭력의 삼각형'을 이룬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세 가지 폭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즉 모든 종류의 폭력은 폭력 발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 갈퉁은 이 세 가지 폭력(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비상 윤사 교과서]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4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24학년도 6평 윤리와 사상]

갑 : 평화를 창조하는 일은 폭력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치료해야 할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있는 직접적 폭력이고, 예방해야 할 폭력은 그러한 행위자가 없는 구조적 폭력이다. 갈퉁

을 :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이 상태가 그 자체로 전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초강대국 아래로 여러 국가들이 통합되는 것보다 낫다. 세계 단일 국가 반대 / 개별 국가의 주권 인정 칸트

① 갑 : 비의도적인 폭력의 제거 없이도 적극적 평화가 완성될 수 있다.
갈퉁 : 적극적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져야 완성될 수 있음

② 갑 : 문화 속의 일부 상징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갈퉁 : 문화적 폭력은 모두 상징적인 것이며,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③ 을 :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와 무관하다.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제1항
: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④ 을 : 평화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권이 평화 연맹에 양도되어야 한다.
칸트 제시문 :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칸트 : 연맹 체제의 단계에서도 개별 국가의 주권은 인정되어야 함

⑤ 갑과 을 : 국가 간 전쟁 행위 중지만으로도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갈퉁 : 진정한 평화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이다.
칸트 : 진정한 평화는 평화 연맹을 통해 전쟁 상태 자체가 사라진 영구 평화임. 단순히 전쟁 행위가 중지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정답 ②

선지 설명

① 갈퉁은 적극적 평화의 달성을 위해서 모든 폭력이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비의도적인 폭력의 제거 없이도 적극적 평화가 완성될 수 있다는 진술은 갈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2018년 9평 갈퉁의 기출 제시문에 따르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감소한 상태가 평화이다."

② 갈퉁에 따르면 문화적 폭력은 모두 상징적인 것이며,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갈퉁의 입장에서 문화 속의 일부 상징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매우 간단한데,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갈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③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틀린 선지이다.

> 영구 평화를 위한 제1의 확정 조항
> :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 [칸트, 미래엔 윤사 교과서]

④ 칸트에 따르면 평화 연맹은 주권을 지닌 상위의 중앙 권위체가 아니다. 칸트는 평화 연맹이 소속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며, 국가의 상위 권위체가 아니라 그저 동료 관계를 함유하고 있다고 본다.

> 칸트(○) : 연맹 체제의 단계에서도 개별 국가의 주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 [2016학년도 수능]

>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해서 개인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듯이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어떤 명분으로라도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근본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사이의 신뢰이므로 전쟁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천재 생윤 교과서]

⑤ 갈퉁과 칸트가 모두 부정할 선지이다. 갈퉁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직접적 폭력과 더불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 또한 전쟁 행위가 중지된 것만으로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칸트에 따르면, 진정한 평화는 모든 국가가 공화정으로서 평화 연맹에 가입하여 국제법을 따르는 연방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칸트의 입장에서 단순히 전쟁 행위가 중지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갈퉁은 칸트가 주장하는 영구 평화의 방법은 전쟁, 테러 등이 일어나지 않는 소극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소극적 평화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전쟁이 멈추어도 빈곤과 인권 침해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여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재 생윤 교과서]

05

고대 동양 사상가 갑, 현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4학년도 9평 윤리와 사상]

갑 : 다투지 않는[不爭] 덕은 하늘의 도[天道]에 부합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력을 앞세우지 않고,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서 싸우지 않는다. 이처럼 성인(聖人)의 도는 일은 하되 다투지 않는 것이다. 노자

을 : 평화는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 ·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중요하다. 갈퉁

보 기

ㄱ. 갑 : 전쟁은 무위(無爲)와 무욕(無欲)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노자 : 부국강병을 위한 전쟁 ×
but 방어 전쟁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ㄴ. 을 :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 지닌 부당성을 은폐한다.
갈퉁 :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ㄷ. 갑과 을 :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없는 상태만으로도 달성된다.
갈퉁 제시문 :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중요하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 : 노자, 을 : 갈퉁

* 생활과 윤리만 응시할 학생들은 갈퉁의 입장에 집중하고 노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가볍게만 보면 된다.

선지 설명

ㄱ. 우선 노자의 '무위'와 '무욕'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무위(無爲)'라고 함은,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자는 적은 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작은 국가인 소국과민이 이상적인 국가라고 보며[小國寡民], 통치자의 통치 형식도 '지식'이나 '욕심'이 개입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통치하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주장한다. 다음으로 '무욕(無欲)'이라 함은, 욕심을 과하게 갖지 않고 적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욕구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권력이나 재물 등의 세속적인 요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등을 시사하는 것이다. 노자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거짓된 인위로 인해 일을 그르치게 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는 반드시 무욕하는 성인이어야 한다고 하며, 백성들도 수양을 통해 무욕해야 한다고 본다.

> 노자는 무욕의 방법을 제시한다. 무욕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인(聖人)이다. 성인이 되면 인위적 행위를 하지 않고 무위를 한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성인이 다스려야 하고, 수양을 쌓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
> [이재권(충북대), 「노자의 반전론」, (동서철학연구 제83호)]

노자는 당대의 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비판하며,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론'을 제시한다. 노자는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한 전쟁은 각자의 지나친 욕심에 의해 비롯된 것이므로, 무위와 무욕에 위반된다. 따라서 전쟁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부쟁(不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잘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를 활용한 전쟁 등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해석한다.

> 도가는 이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전쟁의 폐해를 지적한다. 싸우는 것은 나쁜 것이며, 싸우지 않아야 이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잘 싸우는 것이며, 싸움이 벌어지면 서로 다칠 뿐이다. 싸움이라는 것도 서로의 다름 때문에 생기는 것일 뿐이다. …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욕(無欲)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고자 하지 말라. 하고자 하면 거스를 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족하라. 족함을 아는 것만이 최고의 경지나니. 족함에 족하라. 만족을 아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다. 세상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도 마라.
> [정세근(충북대 철학과), 「노자의 반전론」, (동서철학연구 제32호)]

그렇지만 노자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노자의 전쟁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는 방어 전쟁일 경우이다. 즉, 침략적이고 정복적인 전쟁은 허용될 수 없으나,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노자는 이러한 방어 전쟁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사살을 행하기보다는, 담담하게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무기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살인을 즐기는 것은 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기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 〈군대를〉 부득이하여 사용한다면 담담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 〈군대의 사용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살인을 즐기는 것이다. 무릇 살인을 즐기는 사람은 천하에 뜻을 얻을 수 없다. [노자, 『도덕경』, 제31장]

ㄴ. 갈퉁에 따르면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갈퉁의 입장에서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 지닌 부당성을 은폐한다고 볼 수 있다.

ㄷ. 갈퉁이 부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이다. 갈퉁에 따르면 진정한 평화는 무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이 사라져야 달성될 수 있다.

> 갈퉁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면서 물리적 · 직접적 폭력 외에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소극적 평화란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갈퉁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가난, 차별, 억압, 환경 파괴 등이 제거되어 사람들 간의 협력과 조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적극적 평화는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한다. [천재 윤사 교과서]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06

다음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4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보 기

ㄱ. 갑 : 평화 연맹은 그 소속 국가의 자유를 국제법에 따라 보호한다.
칸트 : 평화 연맹에 소속된 국가들의 자유는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보호됨

ㄴ. 을 : 목표로서의 평화뿐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다.
갈퉁 : 목표로서의 평화뿐 아니라 과정, 수단으로서의 평화도 중요함

~~ㄷ. 갑과 을~~ : 폭력은 평화 실현을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다.
갈퉁 :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달성되어야 함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선지 설명

ㄱ. 칸트는 평화 연맹이 국제법에 따라 소속 국가의 자유를 유지 및 보장한다고 본다.

칸트는 국제법이 국가 간의 상호 계약을 전제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상태는 본질적으로 법적인 상태가 아닌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화 상태를 위해 국가들 간의 연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법이 국가 간의 상호 계약을 전제해야 한다."라는 진술은 "국제 연맹이 국제 국가여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국제 국가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비록 이상적으로는 국제 국가를 형성해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국가들의 자발적인 연맹이 '소극적 대용물'로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칸트에 따르면, 국가들의 자유 보장은 (1) 국가 간의 전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2) 국가 간의 계약을 통해 국제 연맹을 만들고, (3) 이러한 국제 연맹을 확산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전쟁을 없앰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 이 연맹[평화 연맹]은 국가의 어떠한 권력 취득에도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한 국가 그 자신과 동시에 다른 연맹 국가들의 자유를 유지 보장하는 데에만 상관하고, 그러면서도 이 국가들을 그렇다고 공법과 공법하에서의 강제사항에 복속시킬 필요는 없다. … 무릇 만약 다행히도 한 강력한 계몽된 민족이(그 본성상 영원한 평화로 향할 수 밖에 없는) 하나의 공화국을 형성할 수 있다면, 이 공화국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연방적 통일의 중심점을 제공하여, 다른 국가들을 그 통일에 동참하게 하고, 국제법의 이념에 맞게 국가들의 자유상태를 보장하고, 이러한 방식의 더 많은 결합을 통해 점점 더 널리 확산시켜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 『영원한 평화』]

ㄴ, ㄷ. 갈퉁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목표로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평화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폭력은 평화 실현을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라는 내용은 갈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 한편, 평화 연구 또는 평화학에서는 목표로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평화도 중시한다. 누구든지 목표로서의 평화는 중시하면서도 수단 또는 과정으로서의 평화에는 소홀히 하기 쉬운데, 평화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평화적 수단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모순을 용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갈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역자 주]

0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5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갑 : 평화는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필요하다. 평화 조약에 의해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전쟁 상태가 영원이 종식되지는 않는다. 칸트

을 :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며 비폭력적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갈퉁 → ㄹ

보 기

ㄱ. 갑 : 각 국가는 자유 보장을 위해 평화 연맹에 주권을 ~~위임~~해야 한다.
칸트 : 각 국가는 도덕적 인격체이므로 주권을 보장받아야 함

ㄴ. 을 :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인간 소외도 평화 실현을 방해한다.
구조적 폭력

ㄷ. 을 :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비의도적인 폭력이 성립할 수 있다.

ㄹ. 갑과 을 :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 없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칸트 : 평화 연맹을 통해 전쟁을 예방해야 함
갈퉁 :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적극적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은 칸트, 을은 갈퉁이다.

갑은 영원한 평화를 위해 평화 연맹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연맹을 강조하는 점에서 칸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제시문의 "평화 조약에 의해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술이다. 출제자의 의도는 평화 조약을 통해 해당 전쟁을 종식하더라도 다른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 즉 전쟁 상태가 종식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칸트는 평화 조약을 통해 조약의 대상이 되는 전쟁은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평화 조약에 의해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것은 자칫 평화 조약을 휴전과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하 관련 원전이다.

> 평화상태는 민족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니와, 이 연맹은 평화조약과는 구별될 것인데, 그것은 평화조약이 한갓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 국제법의 개념에 무엇인가 생각할 것이 남아 있다면, 이성은 필연적으로 국제법의 개념을 자유로운 연방제에 결합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 국제법의 개념에는 본래 전쟁으로의 권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
>
> [칸트, 『영원한 평화』]

을은 갈퉁이다. 갈퉁은 진정한 평화인 적극적 평화를 위해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을이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제거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갈퉁임을 알 수 있다. 이하 관련 원전이다.

> 만약 폭력이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평화 일꾼은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확실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엔 의심할 여지 없이 진단과 예측, 그리고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
> 대부분의 직접적 폭력은 해방을 위하거나 또는 해방을 저지하기 위한 착취와 탄압처럼 수직적인 구조적 폭력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배경에는 폭력을 제거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해주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예측이 좋지 않다. 부분적으로는 복수하기 위한 단순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리고 폭력 행위는 자신이 스스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떠한 나쁜 양심을 취소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폭력은 폭력을 낳게 마련이다.
>
> [갈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선지 설명

ㄱ. 칸트는 평화 연맹을 주권적 권위체로 보지 않는다. 칸트는 각 국가를 도덕적 인격체로 간주하며 따라서 각 국가가 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칸트는 국가가 상속, 교환, 매매 등을 통해 다른 국가에 합병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2. 어떠한 독립국가도 (작든 크든 상관없이) 어떤 다른 국가에 의해 상속, 교환,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
> 곧 국가란(국가가 그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가령 토지처럼) 소유물이 아니다. 국가는 국가 자신 외에는 그에 대해 누구도 지시 명령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인간 사회이다. 그런데 그 자신이 줄기로서 자기 고유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접붙이기처럼 다른 국가에 합병하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국가의 실존을 폐기하는 것이고, 그 인격을 물건으로 만드는 것인바, 그러므로 이것은, 그런 이념 없이는 한 국민(민족)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생각될 수 없는 근원적 계약의 이념에 모순된다.
>
> [칸트, 『영원한 평화』]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제 2 확정 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연방주의]에 기초해 있어야만 한다." 국가들로서의[국가를 이룬] 민족들도 개별적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판정될 수 있으니, 이들은 자연상태에서는(다시 말해 외적 법칙[법률]들에서 독립해 있을 때에는) 그들이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서로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타자에게 자신과 함께 시민적 [헌정]체제와 비슷한 체제에 들어갈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만 하며, 이러한 체제에서만 각자에게는 자기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국제연맹이겠는데, 그럼에도 이것이 꼭 국제국가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다. [칸트, 『영원한 평화』]

ㄴ. 갈퉁은 폭력을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나눈다. 구조적 폭력이란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이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인간 소외는 구조적 폭력에 해당한다. 그리고 갈퉁은 구조적 폭력이 평화 실현을 방해한다고 본다.

구조적인 폭력은 정치적 · 억압적 · 경제적 착취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폭력들은 구조적 침투, 분열, 붕괴 및 사회적인 소외 등에 의해 조장된다. 더 나아가 수평적 구조의 폭력이 존재한다. 이는 너무 강한 관계가 되거나, 너무 약한 관계이거나, 아예 무관한 관계에 해당된다. 구조들은 너무 지배적(수직적)일 수 있으며, 또는 지나치게 팽팽하거나(수평적), 지나치게 과도하거나(양쪽 모두), 지나치게 무관(모두 아님)할 수 있다. [갈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ㄷ. 갈퉁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비의도적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비의도적이라 하더라도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갈퉁에 따르면,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도 폭력은 성립될 수 있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합법화시킨다. 그러한 폭력은 행위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폭력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구조적 폭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의도적일 수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 [갈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ㄹ. 칸트와 갈퉁은 모두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칸트의 평화 연맹은 전쟁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전쟁 상태 자체를 해결함으로써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제 2 확정 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연방주의]에 기초해 있어야만 한다." … 평화조약에 의해 당장의 전쟁은 종식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새로운 구실을 찾아내는) 전쟁상태가 종식될 수는 없다. (또한 이런 상태를 사람들은 곧바로 부당한[불법적인] 것이라고 천명할 수도 없으니. 전쟁상태에서는 각국은 자기 자신의 사안에 있어서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법적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자연법에 의하여 "이 상태를 벗어나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국제법에 의해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들은 국가들로서 내적으로 이미 법적인 [헌정]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을 타자의 법개념에 따라 하나의 확장된 법칙[법률]적 체제 아래에 들도록 하는 타지의 강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덕적으로 법칙수립하는 최고 권력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이성이 소송절차로서의 전쟁을 절대적으로 탄핵하고, 그에 반해 평화를 직접적인 의무로 만든다 해도, 그러한 평화상태는 민족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니와, 이 연맹은 평화조약과는 구별될 것인데, 그것은 평화조약이 한갓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 국제법의 개념에 무엇인가 생각할 것이 남아 있다면. 이성은 필연적으로 국제법의 개념을 자유로운 연방제에 결합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 국제법의 개념에는 본래 전쟁으로의 권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 [칸트, 『영원한 평화』]

갈퉁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는 치료적 처방을 지향하는 반면, 적극적 평화는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을 지향한다. 따라서 갈퉁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예방적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제시문의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 는 직접적 ·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갈퉁, 2017학년도 6평]

현자의 돌
칸트『영구 평화론』
총정리 칼럼

1. 영구 평화론의 배경, 구성 소개
2.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2-1 제1항 : 평화 조약
   2-2 제2항 : 독립 국가
   2-3 제3항 : 상비군 폐지
   2-4 제4항 : 대외적 분쟁과 관련한 국채 발행 금지
   2-5 제5항 : 통치 개입 금지
   2-6 제6항 : 적대 행위 금지
3.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3-1 제1항 : 공화 정체
   3-2 제2항 : 국제법
   3-3 제3항 : 세계 시민법
4. 추가 조항
   4-1 제1추가조항 : 영구 평화의 보증
   4-2 제2추가조항 : 비밀 조항
5. 부록
   5-1 부록Ⅰ. 영구 평화에 관한 도덕과 정치 간의 대립에 관하여
   5-2 부록Ⅱ. 공법의 선험적 개념에 따른 정치와 도덕 간의 조화에 대하여

* 예비 조항을 따로 2-1~2-6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단 확정 조항을 설명하면서 sub로 설명함. 추가 조항과 부록 또한 sub로 넣어서 설명함.
현자의 돌의 칸트『영구 평화론』총정리 칼럼은 '1. 영구 평화론의 배경, 구성 소개 + 2-1. 예비 조항 제1항 평화 조약 + 3. 확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intro.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과 확정 조항, 그리고 영구 평화의 실현**

1.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은 확정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적 조항이다.

예비 조항 1, 5, 6항 :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엄격한 조항
제1항 : 평화 조약, 제5항 : 통치 개입 금지, 제6항 : 적대 행위 금지
예비 조항 2, 3, 4항 : 그 목적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행의 연기가 허용될 수 있는 조항
제2항 : 독립 국가, 제3항 : 상비군 폐지, 제4항 : 대외적 분쟁과 관련한 국채 발행 금지
→ 급히 서두를 경우, 영구 평화의 목표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칸트는 이론적으로는, 확정 조항을 통해 영구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물론 그 확정 조항을 실현하려면, 예비 조항들도 거쳐야 한다.)

3. 칸트는 현실에서 영구 평화가 '실현 불가능'할지라도, (당시 칸트는 영구 평화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미래에 영구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도덕적으로, 당위적으로, 실천적으로 영구 평화가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영구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의무라고 보았다.

⇒ 칸트는『영구 평화론』에서 영원한 평화를 그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소망하는 유토피아적 이념이 아니라, 도덕적 · 실천적 과제로 제시한다.

<3.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1)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기획 배경 설명

우선 수능에 출제되는 세 가지 확정 조항을 설명하기 전에,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기획과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이 부분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지만, 출제되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된다.

1.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영원한 평화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했다.
   (1) 칸트는 전 세계에 모든 전쟁이 영원히 종식된 영원한 평화가 어떤 조건 하에 가능한지를 선험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2) 바로, 칸트가 주장한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은, 평화의 가능 조건을 선험적으로 정립(정초)하고자 하는 조항들이다.
   (3)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현실의 국제 관계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국가들이 국제 관계에서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이론적 배경 근거를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2. 칸트는 정치와 도덕의 일치가 공법의 선험적 개념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1)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확정 조항은 곧 칸트의 실천 철학에서의 보편적 도덕 법칙이다.

>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 제1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共和政體)이어야 한다.
> 제2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3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제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칸트, 『영구 평화론』, 미래엔 생윤 교과서]

위 세 가지의 항목은, 칸트의 보편적 도덕 법칙의 형식인 정언 명령의 형식을 충족하는 것이다. 즉, 위의 세 가지 확정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정언 명령의 형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 칸트의 정언 명령의 형식
> • 보편성 정식 :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이라는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 • 인격성 정식 :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서 대우하도록 행위 하라."
> • 사람들 사이의 외적 – 법적 관계를 규제하는 보편적 강제 법칙 : "외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너의 자의의 자유로운 사용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보편 법칙에 의거하여 상호 병존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2) 칸트는 '공화적 국가의 창출', '국제 연맹의 창출', '세계 시민권의 보장'이 정언 명령의 형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세 조항 모두가, 보편화 가능하고, 인간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보편 법칙에 의거하여, 상호 병존"할 수 있음을 충족하는 것이다.
(3) 칸트에 따르면, 위 세 확정 조항이 충족될 경우, 영원한 평화가 전 세계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4) 이와 관련하여, 칸트는 영원한 평화의 가능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들은 순수 이성이 인간에게 부과한 규범적 의무 행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은 영원한 평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비 :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거나 정식으로 하기 전에 그 준비로 미리 초보적으로 갖춤. 또는 그런 준비. [표준국어대사전]

→ 예비 조항은 확정 조항이 충족되기 전, 과도기에서 필요한 조항들이다.
→ 예비 조항은 확정 조항의 실현을 예비하는 것이므로, 예비 조항을 통해서 확정 조항이 실현될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의 세계 평화에 대한 노력을 인간의 의무 가운데 하나로 본다. 세계 평화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필수조건인 것이다.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해설]

(5) 요컨대, 칸트는 위 세 확정 조항을 모두 온전하게 실현함으로써,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수립하여, 세계 정치에서도 도덕 법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영원한 평화를 위한 철학적 기획"을 수행하고자 한 것이다.

칸트는 이 세 개의 확정 조항이 승인되고 준수된다면, 영원한 평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 『영구 평화론』]

• 점진적으로, 현실의 국가들을 모두 이상적인 공화국으로 접근시켜나가고, 평화 연맹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세계 시민법을 통해 세계의 모든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면 → 영구 평화 실현

세계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용어의 중복일 따름이다.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공화국으로 전환한 계몽된 자유 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확정해야 한다.
[칸트, 2016학년도 9평]

▶ 2016학년도 9평, 〈기출 제시문 명제 추출〉
(1) 세계 평화는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2)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한다.
(3) 평화 안에는 영구적인 전쟁의 종결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영원한 평화'는 용어의 중복이다.
(4) 평화는 도덕적 입법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5) 국가는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6) 국가는 무력과 기만을 근절하여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7) 국가는 정치 체제를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8) 나아가 공화국들은 계몽된 자유 국가들로서, 연방을 결성하여, 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하고 평화를 확정해야 한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2) 3-1 제1항 : 공화 정체 (시험 출제)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제1항
: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1. 공화 정체란, "법이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시민 사회"이자, "인간이 아니라 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
⑴ 칸트가 말한 공화 정체는 다음의 세 가지 원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① 법의 지배 ② 삼권 분립(특히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 ③ 대의 제도
⑵ 공화국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 칸트는 개별 국가를 마치 개인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인격체로 취급하고 있다.
→ "어떤 독립 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예비 조항 2.)"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제2항
: 어떤 독립 국가도(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합병시킨다면, 그것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를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칸트, 『영구 평화론』]

도덕의 주체인 인간은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할 수 없으며, 국가도 한 인격체로서 타국의 한낱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독립 국가도 상속, 매매, 증여, 교환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는 영구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칸트, 2019학년도 수능]

▶ 2019학년도 수능 〈기출 제시문 명제 추출〉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⑴ 국가도 한 인격체로서 볼 수 있다.
⑵ 인격체인 국가는 타국의 한낱 수단이 될 수 없다.
→ 어떤 독립 국가도 상속, 매매, 증여, 교환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 개별 국가는 평화 연맹으로부터 무력간섭을 받지 않는다.
→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무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예비 조항 5.)"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제5항
: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무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1. 한 나라의 내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외국이 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2. 외국의 간섭은 내부 시련과 맞서 싸우는 독립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3. 외국의 간섭은 그 자체가 공격이며 또한 모든 국가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칸트, 『영구 평화론』]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대해 폭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이다. 한 국가에 대한 폭력적 개입은 결국 모든 국가의 자율성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칸트, 2019학년도 9평]

다만, 어떤 국가가 내부 반란에 의해 둘로 쪼개져 각각이 독립국가로서 전체를 통괄하고자 할 때는 경우가 다르다. 이 경우에는 어느 한 편을 지원하는 것이 내정 간섭은 아니다. 그때 그 국가는 무정부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해설]

▶ 칸트는 공화 정체를 "모든 시민 체제의 영원한 규범"이라고 칭했다.

2. 공화 정체(공화적 체제)만이 영원한 평화에 대한 바람직한 전망을 제시한다.
왜 칸트는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가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일까? 그것은 공화 정체에서 시민들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 아래 인용문과 같은 이유로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체제[공화 정체]에서는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국민들이 스스로 정해야 하고, 전쟁 수행의 모든 부담 또한 국민 스스로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는 데 매우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 체제만이 영원한 평화에 대한 "전망"을 준다.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해설]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해서는 안 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공화 정체 아래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때 국민은 자신의 신상에 다가올 전쟁의 재앙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경기를 감행하는 데 무척 신중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경우에 국민들은 싸움터에 나가야 하고, 자신들의 재산에서 전쟁 비용을 염출해야 하며, 그리고 전쟁이 남긴 참화를 고생스럽게 보수해야 하며, 평화 자체까지도 입맛을 쓰게 하는 (항상 다가오는 새로운 전쟁 때문에) 결코 상환될 수 없는 막대한 국가적 채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칸트, 『영구 평화론』]

반면, 공화제가 아닌 왕정에서는 단지 지배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전쟁이 벌어진다. 그 지배자는 국가의 일개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소유자(왕)이므로, 전쟁으로 인해 삶의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그는 한낱 유희를 위해서 전쟁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칸트는 국가 체제가 전제정이어서는 안 되며, 공화정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cf)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자.

칸트의 공화정을 '민주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칸트는 공화정에는 찬성하고 민주정에는 반대한다. 오히려 칸트는 프리드리히 2세와 같은 군주가 공화국 헌법의 대의제 정신에 입각한 정치를 수행하는, 입헌군주제를 옹호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백승균, 『세계사적 역사 인식과 칸트의 영구 평화론』]

→ 이 내용은 『영구 평화론』의 제1의 확정 조항에 명백히 적혀 있는데, 칸트의 공화정을 '민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영구 평화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칸트의 사상을 왜곡하는 것일 수 있다. (칸트의 이론이 '현대 민주 공화국'의 성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맞고, '현대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상적인 모습과 칸트의 공화정의 모습은 상당 부분 유사하기는 하다.)
또한, 이혜정(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칸트의 공화정은 현대의 서구 민주주의로 치환될 수 없음을 「민주평화론의 패러독스 : 칸트 평화사상의 왜곡과 오용」에서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정과 민주정의 구분은 수능에 출제될 만한 주요한 내용은 아니므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자.
칸트의 분류에 따르면, 공화제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상호 분리되어 있는 반면, 민주제에서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상호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지배자가 되려 한다.

공화적 체제는 법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형태의 시민적 헌법의 토대를 이룬다. 물론 칸트가 공화적이라는 말과 시민적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공화적"이라는 말로 어떤 국가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다. 국가의 형태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에 따른 분류로서, 통치자가 단 하나인 군주제, 서로 연합된 몇 사람의 경우인 귀족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경우인 민주제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해 통치의 방식은 국가가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 형태는 공화 정체이거나 아니면 전제 정체인 것이다. 이때 공화제는 입법부와 행정권을 분리시키는 정치적 원리이며, 전제 정체는 국가 스스로 포고한 법률을 국가가 전제적으로 집행하는 정치적 원리이다. 칸트는 민주제인 국가 형태는 필연적으로 전제적인 통치 방식과 결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민주제는 모두가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집행자라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칸트의 시대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칸트, 『영구 평화론』, 이한구 해설]

3) 3-2 제2항 : 국제법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제2항
: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정 조항 1항 : 국내, 2항 : 국가 간, 3항 : 세계 시민 전체〉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제1항은 '국내'를 다루는 확정 조항이므로, 제1항만으로는 '국제적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제2항을 통해 '국가와 국가 사이'(=국가 간)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칸트는 제 1, 2항만으로 영구 평화를 성립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칸트의 영구 평화론 확정 조항 제3항을 통해 세계 시민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에는 제2항이 어떻게 제1항을 보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국제법이란, 국가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⑴ 자연 상태 : 국제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가들이 전쟁 상태에 빠져 있는 무법적 상태
   → 전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적대 행위의 중단"은 아직 평화 상태라 볼 수 없다.
   ⑵ 평화 상태 :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들어설 수 있는 상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는 법적 장치
   → 국가들은 국제 연맹을 통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기를 요구한다.

평화 조약에 의해 당장의 전쟁은 종식될 수 있겠지만, 전쟁 상태가 종식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법적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자연법에 의해서 "이 상태를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국제법에 의해 말할 수 없다. … 평화 상태는 민족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평화 연맹은 국가의 어떠한 권력 취득에도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한 국가 그 자신과 동시에 다른 연맹 국가들의 자유를 유지 · 보장하는 데에만 상관하고, 그러면서도 이 국가들을 공법과 공법 하에서의 강제 사항에 복속시킬 필요는 없다. 하나의 공화국을 형성할 수 있다면, 이 공화국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연방적 통일의 중심점을 제공하여 다른 국가들을 그 통일에 동참하게 하고, 국제법의 이념에 맞게 국가들의 자유 상태를 보장하고, 이러한 방식의 더 많은 결합을 통해 점점 더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 『영원한 평화』]

▶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에서 각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에 기초해 있어야 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 칸트에 따르면 개별 국가의 주권을 유지하면서 영구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평화 연맹)이다.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며, 오직 한 국가와 다른 연맹 국가들의 자유를 유지 보장하는 데에만 상관한다. 또한, 칸트에 따르면 하나의 국제 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주권 국가들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평화 연맹을 구성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사회 계약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가 건립되듯이, 국제 관계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평화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이 상태에서만 국민의 모든 권리나 국가들의 소유가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맹의 이념은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하며, 영원한 평화로의 지속적인 접근은 인간 및 국가의 의무로서, 그리고 권리에 기초한 과제로서 성립될 수 있다.

[칸트, 2016학년도 수능]

▶ 2016학년도 수능 〈기출 제시문 명제 추출〉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⑴ 국가는 사회 계약에 기초하여 건립된다.

→ 가끔 칸트를 사회 계약론자가 아니라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시문에서 보았듯 칸트도 당시 유행하던 관념인 사회 계약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칸트는 영구 평화론이나, 형법(사형제)과 같이 '법(공법, 국제법)'에 대해서는 사회 계약론적으로 접근한다.

⑵ 마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를 건립하였듯 국제 관계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연맹 체제'를 결성할 수 있다.

⑶ 국가들은 '연맹 체제'와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서 평화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⑷ 그런 상태에서만 국민의 모든 권리, 국가들의 소유가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참된 평화 상태가 될 수 있다.

⑸ 이러한 평화 연맹의 이념은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⑹ 영원한 평화로의 지속적인 접근은 인간 및 국가의 의무로서, 그리고 권리에 기초한 과제로서 성립될 수 있다.

칸트는 동등한 독립 국가 간의 평화를 주창하고 있다. 개인들이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시민 국가'를 수립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국가들 또한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 조약에 의거한 "국제 연맹" 내지는 "보편적인 국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다.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해설]

현실적인 국가 관계

1) 국가 간의 외적인 관계는 본성상 비(none)－법적 상태이다.

2) 이러한 상태는 전쟁의 상태로,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이므로, 이웃해 있는 국가들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책무가 있다.

3)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방위를 위해 근원적인 사회 계약의 이념에 따라 하나의 국제 연맹이 필요하다.
(이는 서로 타국의 국내 불화에 개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4) 이 결합체는 주권적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료 관계로서, 언제든지 해체 갱신될 수 있어야 한다.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해설]

2. 국제법의 규제는 한계를 지니므로, "연방 체제(= 연맹 체제, 평화 연맹, 국제 연맹)"가 필요하다.
   (1) 각 국가들은 그 자체로 이미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 주체이다.
   (2) 국제법의 규제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 내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

1. 국제법의 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자연 상태'는 항상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전쟁 상태'이다.
2. 따라서, 그런 자연 상태에서 특정 국가들이 맺는 평화 조약에 의해서는 그 조약을 맺는 당사국들의 전쟁 하나를 종식시킬 수 있을 뿐이다.
3. 그러나 타 국가들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자연 상태'에서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다.
4. 결국, 모든 국가가 국제법의 질서에 따라야만 그러한 자연 상태(=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5. 그러나,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국가에 강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 국가는 주권을 지닌 국가로서, 자체적으로 국내의 법률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 즉, 각각의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제법을 준수'할 때에만 '전쟁 상태(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7. 단지 "최고의 도덕적 입법권의 영예를 지닌 이성이 소송 절차로서의 전쟁을 절대적으로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서 부과"한다고 해도, 그것은 국제법의 준수를 각 국가에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 국제법을 통해 각 국가 사이를 제약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기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9. 각 국가가 국제법의 질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종류의 연맹을 '평화 연맹'이라고 한다.
10. 평화 연맹은 국가들의 국제법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맹이다.
11. 평화 연맹은 주권을 지닌 상위체가 아니다. 평화 연맹은 연맹에 소속된 국가들 또는 소속되지 않은 국가들의 '권력'을 지배하는 것을 목표하지 않는다. 즉, 평화 연맹은 국가를 지배하는 상위자가 아니다.
12. 평화 연맹은 국가들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할 뿐이다.
13. 평화 연맹은 모든 국가의 독자성, 독자적 권위와 권리, 즉 주권을 존중한다.
14. 평화 연맹은 독자적인 강제력을 보유하지 않고, 느슨하게 조직된 수평적 연방 조직을 의미한다.
15. 평화 연맹에서 국가들은 위계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게, 수평적으로 연대한다. 즉, 평화 연맹에 참여한 국가들은 서로 동료 관계를 이룬다.
16. 평화 연맹이 소속 국가들을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해 주고,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그러한 연맹에 자발적으로 소속되고 싶어할 것이다.
17. 만약, 강력하게 계몽된 국민이 공화국을 형성할 수 있다면, 그 공화국은 평화 연맹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그 국가는 다른 국가들이 국제법의 이념을 좇아 자유 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8.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화 연맹은 점차 강화되고 확장될 것이다.
19. 따라서 칸트는 영구 평화론 확정 조항 제2항에서,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제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국제법이 '평화 연맹(자유로운 공화국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만 한다고 본 것이다.

[현자의 돌이 7년 동안 연구한 것, '영구 평화론 번역서 5권, 해설서 2권, 교수님들 논문 60편'을 읽고 정리한 결정체]

* 초록색 글씨 : 칸트가 싫어하는 것
  파란색 글씨 : 칸트가 좋아하는 것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핵심 세 줄 요약 :
1. 자연 상태에서 국가들은 전쟁 상태에 빠져 있고, 전쟁의 고통을 몸소 겪고 있다.
2.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질서를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야 한다.
3. 강력하게 계몽된 국민들이 형성한 공화국이 평화 연맹의 구심점이 되고, 그 평화 연맹이 국가들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한다면, 모든 국가들은 그 평화 연맹에 가입하여 국제법의 질서를 따름으로써, 평화 상태를 누리고 싶어할 것이다.

이성은 도덕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최고 권력의 왕좌를 차지한다. 이성이 전쟁을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평화 연맹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칸트, 2022학년도 6평]

칸트의 영구 평화론 요약정리
⑴ 국제법의 질서가 성립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는 개별 국가 간의 하나의 전쟁을 멈추는 평화 조약만이 가능함.
⑵ 평화 조약만으로는 전 세계의 영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없으며, 평화 연맹이 필요함.
⑶ 평화 연맹은 국가의 자유와 주권을 보장해 줌.
⑷ 각 국가들은 전쟁 상태의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자발적으로 평화 연맹에 참여함으로써, 국제법의 질서를 자발적으로 따르고자 함.
⑸ 그러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평화 연맹이 확산되고, 모든 국가가 평화 연맹에 참여하여 국제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면, 영구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음.
⑹ 그것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이지만, 모든 인간과 국가는 영구 평화가 현실에서 달성 가능하다고 믿고 현실에서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함.
⑺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들도 적용해야 하고, 확정 조항 3항인 세계 시민법도 전 세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함.

공화 정체인 국가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평화 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고자 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시민적 체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칸트, 2021학년도 9평]

⑶ 칸트는 영구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평화 연맹을 제시한다.

3. 평화 연맹(=연방 체제, 연맹 체제)의 성격
   (1) 평화 연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 평화 연맹(국제 연맹)은 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연맹이며, 언제든지 해체 가능한 연맹이다.
   (2) 평화 연맹은 가입한 국가들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한다.
   → 평화 연맹은 가입한 회원국들로 하여금 상호 간의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게 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무를 부여한다.
   (3) 평화 조약은 조약의 대상이 되는 그때그때의 전쟁, 즉 조약 당사국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지만, 모든 종류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다.
   반면, 평화 연맹은 모든 종류의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추구한다.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려는 이 평화 연맹은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평화 조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 연합은 국가 권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국가의 "자유의 유지와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점차 모든 국가에 확장되어 영구 평화에 이르러야 하는 이 국가연합성의 이념의 실행가능성(객관적 현실성)"과 관련하여 칸트는 한 강력한 공화국이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행운으로 강력하고 계몽된 인민이 자신을 공화국으로 개편하게 된다면, 이 공화국은 다른 국가들을 위한 국가 연맹적 결합의 중심점을 제공하게 된다. 이리하여 이 공화국이 다른 국가들을 동화하고 그리하여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국가들의 자유 상태를 보장하고 이러한 종류의 여러 결합을 통해 점차 확대되는 것이다.

[황태연, 「근대기획에 있어서의 세계시민과 영구평화의 이념」]

(4) 평화 연맹의 이념은 점차적으로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어 갈 것이고, 그 결과로 영구 평화의 길이 실현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항구적인 국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국제 연맹"이겠다. 이 연맹은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진정한 "평화 연맹"으로서, 오로지 한 국가 그 자신과 동시에 다른 연맹 국가들의 자유를 유지 보장함을 지향한다.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해설]

이상적으로는 개인들이 원시적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공법적 규제에 복종함으로써 국가를 수립하듯이, 국가들이 하나의 "국제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국가들은 그들의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서 결코 이것을 의욕하지 않을 것이므로", 칸트는 "세계 공화국"이라는 적극적인 이념 대신에 "소극적인 대용물"로서 연맹을 구성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해설]

이상론으로서는 단일한 세계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현실론으로서는 먼저 모든 국가가 공화 정체가 되고, 이어 이 국가들 간에 '국제 연맹'을 만드는 것이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 간의 연합체 원칙에 입각하여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국제 평화를 위한 어떤 방안도 일단은 개별 국가들의 독립과 자유, 즉 주권적 지위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 『영구 평화론』, 이한구 해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4. 국제 국가(=세계 국가, 세계 단일 정부)의 특성

*단일 세계 국가와 연방 국가로서 세계 공화국(세계 정부)은 의미는 다르지만, 모두 칸트가 반대하는 '하나의 국가'라는 형태라는 점에서 다수의 공화국들의 수평적 동료 관계로서의 '평화 연맹'과 차이를 보인다.

세계 국가 ↔ 평화 연맹
이상 이론 ↔ 현실 방안
단일 주권 ↔ 개별 주권
해체 불가 ↔ 해체 가능
대항 불가 ↔ 대항 가능
전제 정치 ↔ 수평 동료

– 세계 국가는 현실에서는 거부되는 이상적 이론이다. 반면 평화 연맹은 소극적인 대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 세계 국가는 단일 주권을 지닌다. 반면 평화 연맹을 구성하는 공화국들은 개별 주권을 지닌다.
– 세계 국가는 해체되거나 갱신될 수 없다. 반면, 평화 연맹은 언제든지 해체 및 갱신이 가능하다.
– 세계 국가는 하나의 단일 국가이므로, 국가 간의 대항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반면, 평화 연맹은 각 국가들이 서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 세계 국가는 전제적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 국가이다. 반면, 평화 연맹은 개별 공화국들이 수평적 동료 관계로서 연합한 연맹체이다.

[현자의 돌의 세계 국가와 평화 연맹의 비교 분석]

⑴ 국제 국가는 기존의 국가들을 지배하는 단일 세계 국가이다. → 평화 연맹과 달리 '해체, 갱신'할 수 없음.
⑵ 국제 국가는 이론상 정당하지만, 현실의 주권 국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 칸트는 국제 국가가 유토피아(이상)적으로는 정당하지만, 현실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 칸트는 국제 국가 대신 국가들의 평화 연합을 소극적 대용물로 제시한다.
⑶ 국제 국가에 의한 강압적 평화는 전쟁보다도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국제 국가는 가장 무서운 전제 정치의 초래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이렇다. 개인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도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적 체제와 비슷한 체제에 귀속되기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해야만 한다. 이때 비로소 각자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 연맹이다. 이것이 국제 국가일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국민들이 합병되었을 때 어떤 국민에게는 자유의 제한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것이고, 이것은 모든 국민은 서로에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 권리를 갖는다는 자연법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국제 연맹과 국제 국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국제 국가는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하나의 중앙 정부를 가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을 의미한다. 서양의 로마 제국이나 동양의 원 제국 등이 이와 유사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제 연맹은 여러 독립된 국가들의 연합체를 가리킨다. 1차 대전 후의 국제 연맹이나 현재의 국제 연합 등이 이와 같은 형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국제 국가의 탄생은 실질적인 자유의 파멸을 의미한다. 그것은 전제 정치에 의한 평화만을 보장해 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세계 공화국이라는 이념 대신에 소극적 이념으로서의 연맹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동시에 평화란 궁극적으로 국제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들의 공화적 체제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국제 연맹은 강제력을 갖는 중앙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칸트, 『영구 평화론』, 이한구 해설]

5. 칸트와 전쟁 : 칸트는 전쟁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지닌다.

선 요약
1. '역사철학적 관점, 자연의 관점 : 전쟁은 인류 진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2. '도덕철학, 실천 이성의 관점 : 전쟁은 인간을 수단화하고 파괴하는 것이므로, 부정
3. 방어전은 국가의 권리지만, 영구 평화 실현 전에 과도기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며, '징벌 전쟁, 섬멸 전쟁, 정복 전쟁'이어서는 안 됨 [현돌 선 요약]

5-1 자연의 관점에서, 전쟁을 긍정한다. (역사철학적 관점에서의 긍정)
→ 칸트는 자연의 관점에서는 전쟁이 인간들을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전쟁을 긍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은 '도덕적 긍정'이 아니다.
(1) 인간은 서로 대립하는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전쟁을 통해 그 반사회성을 표출한다.
(2) 전쟁을 위해 인간은 기술을 개발하려 노력한다.
(3) 전쟁은 국가들을 내적으로 궁핍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가들은 국가들의 상호 간의 대립을 넘어서고자 한다.
(4) 국가들은 전쟁에서 벗어나고자, 국제 연맹과 같은 평화 기구를 창설하게 된다.
→ 칸트는 전쟁에서의 비극적 경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국제 연맹을 통한 평화'를 확립하도록 이끈다고 보았다.
(5) "모든 전쟁은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자연의 의도 속에서는)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시도이며, 파괴를 통해 새로운 정치 기구들을 형성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칸트 : "자연은 인간이 만든 거대한 사회나 국가 체제에서까지도 인간들 간의 불화의 수단으로 하여 이 같은 불가피한 대립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찾아내도록 한다. 다시 말해 자연은 전쟁을 통해서 야만의 무법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연맹을 이루도록 이끌어간다."

5-2 인간이 지닌 도덕적 이성의 관점에서, 전쟁에 반대한다.
(1) 칸트는 인간의 실천 이성의 관점에서 전쟁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 칸트는 도덕적-실천 이성적 관점에서 어떤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부의 태도를 보인다.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실천적 이성이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항할 수 없는 거부권을 표명한다. 영원한 평화를 우리는 어쩌면 있지 않을 그러한 것이 실재하는 것처럼 행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영원한 평화의 확립과, 그를 유도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국가들이 예외 없이 그것을 주목적으로 삼아 그들의 내부 조직을 정비했던, 불치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그러한 체제를 향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해설]

(2) 칸트는 영원한 평화란 항상 경건한 소망으로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실현시켜야 할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⑶ 전쟁은 도덕적 관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각자는 타인에 대해 결코 한갓된 사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모두 목적 그 자체로서 대우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을 도구로 삼는 어떠한 전쟁의 시작도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전쟁'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수단화하는 것인 한, 도덕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며, 법적 관점에서도 적법한 행위로 간주될 수는 없다.

상비군은 결국 전쟁을 위한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도구로 간주하는 것으로, 그것은 인격으로서 "인간임의 권리"와 합일하지 않는다. 또한 군대를 위한 재화의 축적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해설]

전쟁의 완전 종식과 영구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입니다.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전쟁 수단의 금지와 국가 간 연맹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칸트, 2019학년도 6평]

▶ 2019학년도 6평, 기출 제시문 명제 추출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① 전쟁의 완전한 종식, 영구 평화 : 도덕적 입법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
② 영구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 모든 전쟁 수단의 금지, 국가 간 연맹의 확장

⑷ 칸트는 전쟁을 위한 무력 확장에 경제력과 힘을 낭비하는 국가를 비판하며, 국가의 경제력과 힘은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도덕적 계몽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제4항
: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1. 국내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조달은 허용됨.
2. 전쟁 수행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됨.
: 국가 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조달은 국가의 파산을 초래할 것이고 또한 영원한 평화에 커다란 장애가 됨
3. 전쟁을 위해 '금융 신용 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 [칸트, 『영구 평화론』] 요약 정리

⑸ 칸트는 상비군의 폐지를 주장한다(즉각 폐지는 아니고, 시행의 연기가 허용됨).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제3항
: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1. 상비군은 항상 전쟁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
2. 상비군의 존재로 인해 각 국가들은 전쟁을 수행할 준비(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3. 군비를 과잉 지출한 국가는 전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
4. 결국 상비군 자체가 공격적 전쟁의 유발 요인이 된다.
5. 사람을 죽이도록 또는 죽임을 당하도록 고용되는 것은 인간이 단순한 기계나 도구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는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상비군으로 고용되는 것은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권리에 합치하는 것일 수 없다.
6. 재화의 축적 또한 상비군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공격적 전쟁의 유발 요인이 된다. 재력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7. 따라서, 재화의 축적은 다른 나라에 전쟁의 위협으로 비춰진다. 만약 어떤 국가가 재화를 축적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은 다른 국가가 그 국가를 선제공격할 빌미가 된다. [칸트, 『영구 평화론』] 요약 정리

5 – 3 전쟁의 불가피함

⑴ 영원한 평화란 모든 국가들이 공화적 체제를 갖추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⑵ 국제 연맹이 수립된 이후에도 일부 국가는 그 연맹에 속해있지 않고, 전쟁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⑶ 따라서 영원한 평화란 모든 국가들이 공화적 체제를 갖추고, 국제 연맹(평화 연맹)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⑷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5 – 4 방어전 :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침략을 받았을 경우, 공화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방어전은 국가의 권리에 속하므로 영구 평화를 실현하는 과도기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전쟁이다. 즉 '과도기적으로 허용되는 전쟁'이다.

침략 받은 국가의 방어 권리가 과도기적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 '도덕적 – 실천이성적' 관점에서 칸트가 '전쟁'을 긍정한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확정 조항'을 통해 모든 전쟁이 소멸되어야 한다.

⑴ 칸트는 침략을 당한 국가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⑵ 칸트는 외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비군은 인간을 인격체가 아니라 단순한 도구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외적에 대항할 자구책의 일환으로 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다르다. [칸트, 『영구 평화론』 요약]

영구 평화를 위해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국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무장 훈련은 사정이 다르다. [칸트, 2023학년도 9평]

1. 상비군(상시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군인, 직업 군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평화에 대한 위험 요소가 된다.
   → 상비군은 '점차적으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즉각 폐지가 아닌 점진적 폐지)
2. 칸트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시민군을 허용한다. 국민이 위급한 경우 무장하여 자국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이는 '인간과 사회의 보존'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⑶ 칸트는 방어전을 할 때에는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지, 반격이 과하여 상대 국가를 침략하거나 섬멸하려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침략 전쟁과 섬멸 전쟁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또한 칸트는 아무리 방어 전쟁일지라도, 국가 시민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인격을 붕괴시키는 행위(스파이 투입, 암살, 독살, 유언비어의 유포, 약탈 등)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제6항
: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위와 같은 짓은 비열한 전략이다.
2.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적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어야 한다.
   → 그래야만 추후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비열한 전략을 쓰면 결국 적대 행위는, 상대국에 대한 초토화 섬멸전이 될 것이다(상호 신뢰가 불가능한, 비열한 적국과는 평화 조약을 맺을 수가 없으므로).
4. 자연 상태에서의 전쟁은 어느 쪽이 정의롭고 어느 쪽이 부정의한지 가려낼 수 없다.
5. 위와 같은 비열한 전략을 쓰면 결국 양측 모두를 파괴하고 일체의 정의마저 파괴할 수 있는 섬멸전으로 이어지며 "영구 평화를 한낱 인류의 거대한 묘지 속에서나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모든 국가의 파괴와 섬멸 이후의 거대한 묘지에서의 역설적 평화는 칸트가 가장 반대하는 것이다.)
6. 따라서 섬멸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쟁에서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만 한다.
7. 평화 시기에 사용되는 비열한 수단은, 결국 불가피한 전쟁을 초래하며, 평화의 의도를 절멸시킬 것이다. 따라서 평화 시기에도 그러한 비열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칸트, 『영구 평화론』] 요약 정리

전쟁 중에는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가들이 연합하여 세계 시민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칸트, 2020학년도 6평]

양측 모두를 파괴하고 일체의 정의마저 파괴할 수 있는 섬멸전은 영원한 평화를 한낱 인류의 거대한 묘지 속에서나 가능하게 할 것이다.

[칸트, 『영구 평화론』]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
1. 한 국가는 타국의 능동적 침해가 있을 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곧 전쟁의 권리를 갖는다.
2. 그러나 국가들의 전쟁은 징벌 전쟁, 섬멸 전쟁, 정복 전쟁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 간에 도덕적 우월성을 갖는 국가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리 있는 전쟁은 방어 전쟁뿐이다. 그러나 방어 전쟁의 경우도 장래의 지속적인 평화의 확립에 필요한 신뢰를 파기할 터인 교활한 수단(간첩 파견, 암살, 독살, 거짓 정보의 유포 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전쟁 후에 패전국 또는 패전국의 국민은 식민지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국가들은 평화의 권리를 갖는다.
   1) 중립의 권리
   2) 보증의 권리
   3) 방어 목적의 동맹의 권리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해설]

4) 3-3 제3항 : 세계 시민법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제3항
: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제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cf) '국한되어야 한다.'라는 의미

(1) '보편적 우호'는 외국인에 대한 '방문권', '교제권', '환대권'에 한정되며, 국민으로서 가지는 '영주권' 등의 권리를 외국인에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2) '보편적 우호(손님으로서의 대우)'로서, '방문권, 교제권, 환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외국인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칸트의 세계 시민법은 '여행의 자유'를 의미한다.
2. 칸트는 모든 사람에게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허가하는 '방문권', '환대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3. 모든 방문객은 인간적으로 존엄하게 영접되어야 한다. [폴커 게르하르트, 『다시 읽는 칸트의 영구 평화론』]

칸트에 따르면, 자유로운 공화국들이 국제 연맹(연방)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의 질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영구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 확정 조항 中 제1, 2항만 충족된다고 해서, 영구 평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칸트는 국제법을 넘어서 모든 인간을 결합하는 하나의 법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세계 시민법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1. 세계 시민법과 국제법의 차이 : 세계 시민법은 국제법과 다르다.
⑴ 국제법은 국가들의 상호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지만, 세계 시민법은 개인과 국가(특히 외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국제법 : 국가들 간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법
세계 시민법 : 개인과 국가(외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

제3확정 조항은 어떤 나라의 시민이 다른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폴커 게르하르트, 『다시 읽는 칸트의 영구 평화론』]

⑵ 세계 시민법은 개인을 특정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⑶ 세계 시민법은 외국인 또한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모든 국가에 명령한다.

2. 국가가 보장하는 외국인의 권리와 국가 시민의 권리에는 차이가 있다.
⑴ 국가는 시민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인에게는 더 적은 권리를 보장한다.

여기에서도 칸트는 인류의 박애 정신에 관해서 주장하지 않고, 인간의 권리에 관해서 주장한다.
외국인은 이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자신이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인권을 지닌다.
이러한 권리를 그는 손님으로서의 대우라는 의미로 '우호', '환대'라는 개념을 쓴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영구적인 방문자이길 요구할 권리는 없다. 다만 그들에게는 체류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교제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이 지구는 모든 사람이 공동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람은 그러한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외국인의 인권, 환대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자연권에 위배된다. [백승균, 『세계사적 역사 인식과 칸트의 영구 평화론』](일부 수정)

◈ 출제 포인트 → 세계 시민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 환대(=후대)권'은 '권리'의 문제이지, '박애 정신'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시민법〉
○ : 인권, 환대권, 교제권, 후대권
× : 박애 정신

- 세계 시민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박애 정신'이 아니라, '인권, 환대권, 교제권, 후대권']이다.
- 환대권은 '방문권'의 의미임. '영구 거주권(영주권)', '영구적 체류권'의 의미가 아니다.

⑵ 국가는 외국인을 '우호'적으로 대우하며, 그를 '손님'으로 대우한다.
⑶ 외국인을 손님으로서 우호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그 외국인에게 "일시적인 체류의 권리 및 교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cf) 1) 환대권은 외국인을 손님으로 존중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외국인이 평화롭게 행동할 경우, 적대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2) 그렇다고 해서 그 외국인이 '손님으로서의 권리'를 지닌 것은 아님.
외국인이 지니지 못한, '손님으로서의 권리'의 의미는 '높은 손님으로써 모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VIP로 대접받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됨.
칸트가 외국인들이 타국에 방문할 때, VIP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님.
3) 혼동하지 말고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됨. 사실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낮음.
독일어 번역이어서, 한국어로 보면 비슷해보이는데 그래서, '손님으로서의 권리'는 시험에 출제되기 어렵다고 봄.

제3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 있어야만 한다.
"우호"란 손님 대접을 하면서 우대함을 뜻한다. 국가는 외국인 방문객을 그가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지구 표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만큼, 어디든 최소한 일시적으로 방문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누구도 외국의 땅을 침탈할 권리가 없으므로, 외국인이 영속적인 방문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우호의 권리, 다시 말해 외국 이주민들의 권한은 원주민들과의 교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들 이상으로 확장되지는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지역들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 맺고, 이러한 관계들이 마침내 공법화되고, 그렇게 해서 인류는 마침내 세계 시민적 체제에 점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해설]

칸트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구 위에서 오랫동안 흩어져 살 수 없는 까닭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하며, 서로 교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때 이방인은 적으로 대접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방문자의 측에서도 원주민을 적으로 대할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우호이다. … 서구의 문명화된 국가들의 침략 행위 역시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호의 권리, 즉 이방인에게 허용되는 권리는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요, 교제의 권리일 뿐,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즉 이방인에겐 영속적인 체류자이길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 시민권의 한계이다. 칸트에 의하면, 이러한 우호의 방식에 의해 먼 지역들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런 평화로운 관계는 마침내 공법에 의해 확립되어, 인류는 세계 시민적 체제에 점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칸트, 『영구 평화론』, 이한구 해설]

3. 세계 시민법은 전 지구적 평화의 창출을 위해 불가피하다.
   (1) "이런 우호의 방식에 의해 멀리 떨어진 지구상의 각 지역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 맺게 되고, 이런 평화로운 관계는 마침내 공법에 의해 확립"될 것이다.

이처럼 자연법에 따라서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우호의 권리라 해도 원주민과 교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조건일 뿐, 그 이상이 아님을 칸트는 못을 박는다. 다만 이런 우호의 방식이 멀리 떨어진 각 지역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런 평화의 관계가 마침내 공법에 따라서 이루어짐으로써 인류는 세계 시민적 법 체제에 점차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

[백승균, 『세계사적 역사 인식과 칸트의 영구 평화론』]

   (2) '우호'를 규제하는 세계 시민법이 있어야만, 사람들 사이의 평화적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

4. 세계 시민법의 보충적 역할
   (1) 세계 시민법은 국내법(시민법)과 국제법(국가 간의 법)의 발전을 보충해 준다.
   (2) 세계 시민법은 공적인 인간의 권리와 영원한 평화의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 세계 시민법은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세계 시민법의 이념은 더 이상 공상적이거나 과장된 법의 표상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쓰이지 않은, 시민법과 국제법의 발전을 보충해 주고 있으며, 공적인 인간의 권리와 영원한 평화의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평화에 끊임없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다만 지금까지 개괄한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칸트, 『영구 평화론』] 요약 정리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

5. 서구 선진국들의 해외 침략 비판

(1) 칸트는 서구 유럽의 상업 국가들이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 방문하여, 그들을 정복한 것은 자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의 문명화된 국가, 특히 상업 국가의 비우호적 행위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그들이 방문한 지역과 거주민들에게 보인 그들의 부정의는 매우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들이 아메리카와 흑인 거주 지역 등등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원주민들을 전혀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주인 없는 땅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거주민을 억압하고, 전쟁을 확산시켰고, 기아와 폭동 등의 죄악상을 연출했다. [칸트, 『영구 평화론』] 요약 정리

(2) 칸트는 멀리 떨어진 지구상의 각 지역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보았다.

- 국가는 외국인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 이방인은 영속적인 체류권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 교제의 권리이다.
- 사람들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함에 의해 그런 권리(방문권, 교제권)를 갖는다.
  (→ 보편적 우호의 권리는, '지구를 공동 소유'함에 따르는 권리이지, '박애 정신'과는 무관한 것이다.)
- 그러나 이방인에게 허용되는 우호의 권리는 자연법에 의해서도 원주민과 교제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에 국한될 뿐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 이런 우호의 방식에 의해, 멀리 떨어진 지구상의 각 지역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런 평화로운 관계는 마침내 공법에 의해 확립된다. 이리하여 인류는 세계 시민적 체제에 점차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된다. [칸트, 『영구 평화론』] 요약 정리

5) 3-4 평화의 실현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영원한 평화를 위한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칸트의 저작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평화의 실현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볼 것이다.

1. 평화 연맹의 확장

(1) 강력하게 계몽된 국민이 공화국을 형성한다.
(2) 그 공화국은 다른 국가들의 연맹적 통일의 구심점이 된다.
(3) 다른 국가들도 연맹에 가입하여, 국제법의 이념을 쫓아 자유 상태를 확보하고자 한다. → 평화 연맹이 확장된다.

2. 철학자(지식인)의 역할

(1) 철학자는 진리(평화의 가능 조건들)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2) 국민들은 철학자의 주장에 동의하고, 권력자가 진리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게 만든다.
(3) 즉, 철학자의 계몽 활동은 국가 사이의 평화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4) 또한 철학자는 인류의 역사가 진보의 역사이며, 결국 모든 국가들의 완전한 상호 공존, 평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5) 철학자의 진리를 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진보에 기여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이 실질적 평화를 확대할 것이다.

3. 영구 평화의 실현

칸트에 있어서 세계의 영원한 평화란 당장 달성하기는 어려운 하나의 이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평화란 경험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도덕적인 명령이므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칸트가 그의 앞 시대 사람들보다 더욱 전진한 것은 개인적 도덕성의 규칙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즉, 그에 있어서 국가들은 서로서로 도덕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실재이다. 국가들은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할 의무가 있다.

[지학사 생윤 교과서 칸트, 『영구 평화론』 해제본]

(1) 칸트는 세계의 영원한 평화란 당장 달성되기는 어려운(불가능한) 하나의 이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이념'은 아니다.

이러한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설립은 … 전체적인 궁극목적을 이룬다. 보편적인 "국가연합"을 통해서나 확정적이 될 "영원한 평화"는 "국제법의 최종 목표"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하나의 실현될 수 없는 이념"이다.
그러나 오히려 확고한 원칙에 따라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시도되고 수행된다면, 최고의 정치적 선, 즉 영원한 평화로의 연속적인 접근을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차츰차츰 해결되어, 그 목표에 끊임없이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의 과제이다."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해설]

(2) 칸트는 "영구 평화는 절대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결되면서 지속적으로 목표에 접근해 갈 하나의 과제"라고 하였다.
(3) 칸트는 평화가 경험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도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국가의 의무
(1) 국가들은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할 의무가 있다.

5. 영구 평화의 보증 : 영원한 평화는 궁극적으로 자연에 의해서 보증되는 것이다.
(*자연이 미래에 영구 평화가 올 것이라고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구 평화를 목적으로 향해 나가도록 한다는 의미.)

(1)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보증해 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예술가인 자연"이라고 말한다.

자연은 인간의 욕구나 의무와 관계없이 스스로 행할 뿐이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으로 하여금 상호 불신하고 상호 불화하는 가운데서도 평화의 방향으로 가게 한다면, 인간이 평화를 이루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자연적 성향을 이용해서 자연에 따른 영구 평화를 찾아 나가야 한다.

[백승균, 『세계사적 역사 인식과 칸트의 영구 평화론』]

(2) 이기적 성향을 지닌 인간들의 상호 간의 대립을 자연은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들을 보편적 법의 지배로 들어가게 한다(전쟁을 겪은 인간들은 국가에 속하고 싶어하고, 전쟁을 겪은 국가들은 평화 연맹을 맺고자 함).
(3) 또한 자연은 여러 민족이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전쟁을 방지한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하면 그 국가들이 무역을 할 수 없으므로, 상호 이익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현자의 돌 1:1 학습 상담 및 질문 cucuzz.com